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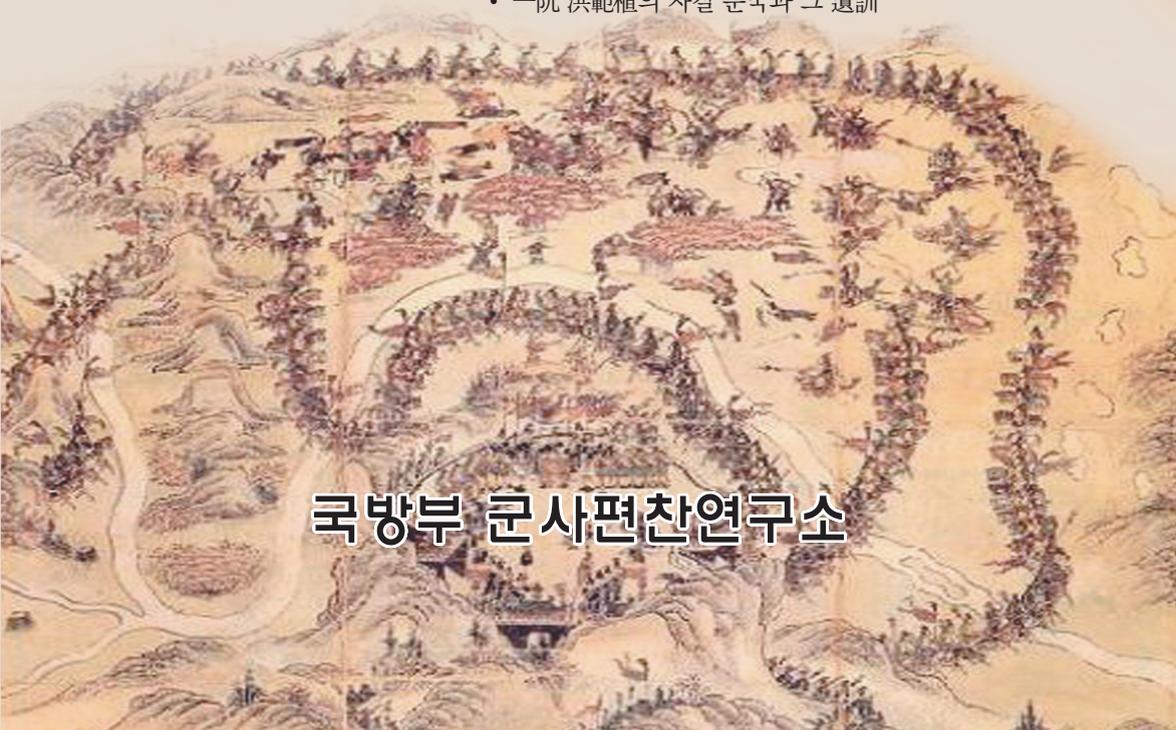
# 軍史



제 79 호 2011. 6

6·25전쟁 특집

- 북한정권 성립 이후 '통일' 전략 논의와 전쟁 준비
- 6·25전쟁 초기 장사상륙작전의 전개과정과 성격
- 6·25전쟁시 이승만의 초기 대응과 전시지도자로서 역할
- 주한미군사고문단(KMAG)의 한국전쟁 인식과 대응
- 6·25전쟁의 국내 및 국제정치적 영향에 관한 연구
- 황산벌전투의 신라군 전투서열 연구
- 발해 8위제에 관한 검토
- 고려 태조대 북방 개척과 鎭頭 파견
- 고려 현종말~문종초 北界 州鎭 설치와 長城 축조
- 一阮 洪範植의 자결 순국과 그 遺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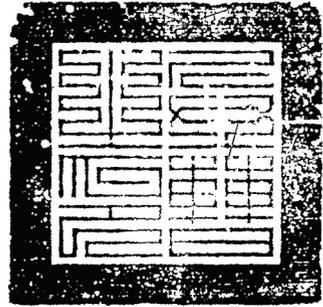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표지그림 : 壯襄公(李鑑)征討時錢部胡圖(육군박물관 소장)

# 軍史

第 79 號  
2011. 6



國防部 軍史編纂研究所

# 軍史

第 79 號

2011. 6

## 目 次

- 북한정권 성립 이후 ‘통일’ 전략 논의와 전쟁 준비  
- 1948년 9월부터 1950년 1월까지를 중심으로 -  
..... 김광수( 1 )
- 6·25전쟁 초기 장사상륙작전의 전개과정과 성격  
..... 양영조( 41 )
- 6·25전쟁시 이승만의 초기 대응과  
전시지도자로서 역할  
..... 남정옥( 73 )
- 주한미군사고문단(KMAG)의 한국전쟁 인식과 대응  
..... 박동찬(111)
- 6·25전쟁의 국내 및 국제정치적 영향에 관한 연구  
..... 김영호(151)



폭격으로 폐허가 된 중앙청(좌)과 충무로(우) 부근 모습

- 황산벌전투의 신라군 전투서열 연구  
- 신라군의 투입부대, 지휘관, 병력수 -  
..... 윤일영 (183)
- 발해 8위제에 관한 검토  
..... 강성봉 (217)
- 고려 태조대 북방 개척과 鎭頭 파견  
..... 이정기 (251)
- 고려 현종말~문종초 北界 州鎭 설치와 長城 축조  
..... 윤경진 (277)
- 一阮 洪範植의 자결 순국과 그 遺訓  
..... 박결순 (313)

부  
록

1. 연구소 동정
2. 자료기증 및 자료이용 안내
3. 신간 도서 소개
4. “軍史”誌 투고안내
5. 연구윤리에규

본 저작물은 정부예산으로 발간하였으므로 기관(부대)  
자산으로 영구보존하시기 바라며, 보관이 불가능할 경우  
당연구소로 회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북한정권 성립 이후 '통일' 전략 논의와 전쟁 준비\*

- 1948년 9월부터 1950년 1월까지를 중심으로 -

김 광 수\*\*

1. 서 론
2. '통일' 정책과 전략 논의
3. 인민 동원
4. 전쟁 무기·물자의 생산과 수입
5. 결 론

## 1. 서 론

6·25전쟁 발발 이후 61주년이 되는 시점에서 돌아볼 때 이 전쟁에 대한 연구 영역 중 가장 부진한 부분은 북한의 전쟁수행에 대한 연구 부분이다. 지난 60년 동안 연구자들은 남침설·북침설을 둘러싼 전쟁 책임논쟁과 전쟁 결정과정에서 스탈린과 김일성 중 누가 더 주도적이었는가를 밝히고자 하는

\* 이 논문은 필자의 박사논문 『한국전쟁 전반기 북한의 전쟁수행연구』(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2008년 7월)의 일부분을 발췌, 수정보완한 것임을 밝힌다.

\*\* 육군사관학교 군사사학과 교수

주도자 논쟁 등 전쟁의 원인과 배경에 집중한 경향이 있다. 커밍스는 이른바 내재적 사회혁명론을 제시함으로써 전쟁의 결정자뿐만 아니라 남북한 사회의 문제까지 포괄하는 전쟁 원인을 제시하고자 했지만<sup>1)</sup> 그는 남한과 미국의 분석에 상응하는 정도로 소련과 북한 내부문제에 관심을 돌리지 않음으로써 큰 오류를 범했다. 1990년대에 공개된 한국전쟁 관련 소련외교문서와 미국 워싱턴 국립문서보관소에 소장된 '노획북한문서'를 활용한 캐서린 웨더스비, 박명림, 양영조, 이완범, 정병준, 와다 하루끼 등의 연구에 의해 전쟁책임과 전쟁 주도자 문제를 중심으로 장기간 진행된 논쟁들의 대부분은 해소되었다고 할 수 있다.<sup>2)</sup>

그러나 전쟁의 원인 혹은 기원에 관한 문제들을 제외한다면 북한 내부의 전략논의, 전쟁 준비 과정, 전쟁 수행간의 문제들은 아직 많은 기본적인 문제들이 해명되지 않은 상태이다. 제1·2차세계대전사의 경우에도 영미중심의 연구시각이 냉전 종식 이후 러시아·소련 문서 공개 이후 이를 활용한 연구자들의 노력에 의해 전쟁에 대한 균형잡힌 해석이 가능해졌는데,<sup>3)</sup>

---

1) Bruce Cumings, *The Origins of the Korean War: Liberation and the Emergence of Separate Regimes 1945~1947*(Princeton,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1); idem., *The Origins of the Korean War, Vol. II: The Roaring of the Cataract 1947~1950*(Princeton,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0).

2) Kathryn Weathersby, "Soviet Aims in Korea and the Outbreak of the Korean War, 1945~1950: New Evidence from the Russian Archives", Cold War International History Project Working Paper, No. 8, 1993; idem., "The Soviet Role in the Korean War: The State of Historical Knowledge", in William Stueck ed., *The Korean War in World History* (Lexington, Kentucky: The University Press of Kentucky, 2004); 박명림, 『한국전쟁의 발발과 기원』 I, II, 나남출판, 1996; 양영조, 『한국전쟁 이전 38도선 충돌 1945~1950』, 국방군사연구소, 1999; 이완범, 『한국전쟁: 국제전적 조망』, 백산서당, 2000; 정병준, 『한국전쟁: 38선 충돌과 전쟁의 형성』, 돌베개, 2006; 와다 하루끼·서동만 옮김, 『한국전쟁』, 창작과비평사, 1999; 和田春樹(와다 하루끼), 『朝鮮戰爭』, 東京, 岩波書店, 2002.

3) 이 점에서 주목할 만한 연구서들로서는 다음과 같은 책들이 있다. Norman Stone, *The Eastern Front 1914~1917*(London: Hodder and Stoughton, 1975); 데이비드 M. 글렌즈·조너선 M. 하우스 지음, 권도승·남창우·윤시원 옮김, 『독소전쟁사 1941~1945: 붉은 군대는 어떻게 히틀러를 막았는가』, 열린책들, 2007; Geoffrey Roberts, *Stalin's Wars: From World War To Cold War, 1939~1953*(New Haven, Connecticut: Yale University Press, 2006).

6·25전쟁의 포괄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한국, 미국, UN측 중심으로 편중된 연구의 틀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관점에서 북한의 내부적 전쟁 준비 과정을 고찰해 보고자 하는 시도로서 1948년 남·북한 단독정부 수립 후 북한의 '통일' 전략과 전쟁에 대비한 물질적·정신적 동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해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sup>4)</sup> 북한 지도부 내에서는 어떠한 전략 논의가 이루어졌고, 전쟁 비용은 어떻게 마련되었으며, 전쟁을 위해 북한 정부는 어떠한 동원을 시행했는가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전쟁 문제를 둘러싼 소련과 북한 지도부와와의 교섭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진 바 있기 때문에<sup>5)</sup> 이 논문은 북한 내부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전쟁을 대비한 북한군(조선인민군)의 증강과 군비 확장 과정은 전쟁 동원의 주된 문제이기는 하지만 지면의 제약으로 또 다른 논문에서 독립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겠다.<sup>6)</sup>

이 논문이 다루는 주요 시기는 주로 1948년 9월부터 1950년도 초까지다. 잘 알려져 있듯이 스탈린과 김일성 간에 전쟁 문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는 1950년 1월 말을 기점으로 해서 1948년 말부터 진행된 군비증강은 소련의 적극적 개입 하에 수립된 구체적인 남한침공 계획에 맞추어 이루어졌다. 그러나 북한에서 전쟁을 염두에 둔 동원 체제는 북한지도부 내의 북한정부 수립 직후부터의 '통일' 논의를 거쳐 1949년에 마련되었다. 1948년 말부터 1949년 한 해 동안 북한 지도부는 스탈린에게 전쟁 동의를 거듭 촉구하면서 인민봉기를 통한 남한 체제 전복과 전쟁을 대비한 군비증강에 총력을 기울였다. 이 기간 동안 북한 지도부는 전쟁과 남한 내부 전복의 두 가지 대안을 놓고 저울질 하는 한편, 전쟁을 예상한 동원체제 확립을 위해 은밀한 준비를 진행해갔다. 당시 소련이 자신을 평화의 주창자이며 미국이

4) 박명림은 일찍이 북한이 전쟁을 위한 1949년 전개한 인민동원의 실상에 대해 상세히 다룬 바 있으나 그는 북한 내부의 전략 논의와 전쟁의 물적 준비의 실상에 대해서는 더 깊숙이 천착하지 못했다. 박명림, 『한국전쟁의 기원과 발발』 II, 제12장 참조.

5) 주2)에 제시한 연구서들을 참조.

6) 이에 관해서는 필자의 줄고, 『한국전쟁 전반기 북한의 전쟁수행 연구-전략, 작전지휘 및 동맹관계』(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8년 7월), 61~78쪽 참조.

야말로 제국주의적 전쟁광이라고 매도하는 ‘평화공세(Peace Offensive)’를 취하고 있었던 상황임을 감안해 북한지도부는 주민들에게 미국과 남한에 의한 침략 위협에 대비한다는 기만적 논리를 앞세워 군비증강과 인민 동원을 시행했다. 계급혁명을 위해 선전과 기만을 통해 외부로부터의 위협을 강조하고 주민을 속여서라도 목표를 성취한다는 북한체제의 행동패턴은 이미 이때부터 확립되었다.

## 2. ‘통일’ 정책과 전략 논의

1948년 8월 남한에서 단독정부가 수립되는 것이 기정사실화되자 북한지도부는 1947년 말 이래 내부적으로 준비해오던 국가 수립을 선포하면서 남한 정부를 인정할 수 없으며, 1948년 9월 9일 정부 수립과 동시에 북한 주도의 통일을 실천으로 옮길 것을 새로운 정부의 정강에 못박았다. 그것은 박명림이 말했듯이, 그 동안의 ‘민주기지(民主基地)’ 노선으로부터 ‘국토완정(國土完整)’ 노선으로의 전환이었다. 새 정부의 정강에서 통일의 의지를 분명하게 표명했다. 이 정강은 남한의 단독정부 수립을 비난하며, “이같은 조건하에서 남·북조선 인민의 총의에 의하여 수립된 중앙정부는 전조선인민들을 정부 주위에 튼튼히 단결시켜 가지고 통일된 민주주의 자주 독립국가를 급속히 건설하기 위하여 전력을 다할 것이며 국토의 완정과 민족의 통일을 보장하는 가장 적절한 조건으로 되는 양군 동시철거에 대한 소련정부의 제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전력을 다할 것”이라 언명했다. 그 방법은 명확하게 명시하지 않았지만, 북한이 시행한 인민위원회 정치체, 토지개혁, 산업국유화, 노동법, 남녀평등권법 등 ‘민주개혁’ 조치를 남한에까지 확장하겠다는 목표만은 분명하게 밝혔다.<sup>7)</sup>

7)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강」, 『조선중앙년감 1950년도판』, 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51.

조선노동당도 중앙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같은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노동당 제2기 제3차전원회의가 열렸던 1948년 9월 28일 노동당은 차후의 모든 당의 활동에서 남한까지 북한의 체제를 확장하여 통일을 이루는 것을 당의 최우선 정책으로 삼는다는 결정서를 채택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강으로부터 출발하여 당중앙위원회는 머지않은 장래에 남북조선을 통일시키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헌법에 예견되고 북조선에 이미 실시된 제반 민주개혁에 의한 정치적 자유와 민주질서를 전국적으로 실천시킬 것을 우리당의 가장 절박한 급선적 과업으로 인정한다.<sup>8)</sup>

그러나 이 결정서는 동시에 통일은 '민족'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논리 하에 남한과의 협상에 의한 통일론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협소한 민족주의" 경향에 대해서도 투쟁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당중앙위원회는 협소한 민족주의적 편향이 발현되는 때에는 그것이 누구에서 발현된 여하를 불문하고 그를 결정적으로 배격하며 그의 발현과 무자비한 투쟁을 전개할 것을 당단체들에게 책임지운다."<sup>9)</sup> 북한식의 인민민주주의체제에 의한 통일 이외의 어떤 민족주의적 통일논의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sup>10)</sup> 당시의 북한의 모든 정치문제와 당의 결정에 대해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던

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선거총화와 당단체들의 당면과업』에 대한 결정서, 『근로자』 1948년 제10호(1948년 10월), 42쪽.

9) 위의 자료, 43쪽. 여기서 허가이가 말한 "협소한 민족주의"란 민족지상주의를 말하는 것으로 보이며 그것은 계급투쟁의 우선성을 인정하는 가운데 민족의 자결이 인정될 수 있다는 스탈린식 민족이론에 기반한 판단으로 보인다. 스탈린의 민족이론에 관해서는 나라사랑 편집부 편역, 『마르크스-레닌주의 민족이론』, 나라사랑, 1989, 313~384쪽 참조.

10) 그것은 제3차 전원회의에서 허가이가 남북한체정당연석회의에 참가해 남북한의 분단정부 구성을 반대하면서 민족 중심의 남북한 협조에 의한 통일론을 제기한 김구, 김규식에 대해 강하게 비난한 것에서도 드러난다. 그는 "여기에서 반드시 지적해야 할 것은 김규식과 김구의 태도입니다. 김구와 김규식은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표현하였던지간에 이렇게나 저렇게나 반동 진영으로 넘어갔습니다"라고 하며 이러한 태도에 대한 확고한 선을 그어야 한다는 것을 말했다. 허가이, 『북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 제3차회의에서 진술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최고인민회의 선거총화와 당단체들의 당면과업에 대한 보고』, 『근로자』 1948년 제10호, 15쪽.

소련측으로서도 북한지도자들의 통일열망을 고려해 이러한 결정의 채택에 반대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 수립의 논의과정에서 소련 군정의 총책임자 슈티코프는 남북한 노동당이 안배를 이루면서 서로의 협력하에 북한 주도하의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는 구상을 김일성과 박헌영과의 협의에 의해 보장하고자 했다. 소련문서에 의하면 소련 중앙에서는 최초 북한측이 주로 북노당 출신으로 구성된 정부 요직 인선안을 반송하면서 남한 출신을 대폭 기용하라는 지시를 내렸다.<sup>11)</sup> 이는 소련이 전 한국의 통일을 염두에 두고 새로운 북한 정부 요인의 인선을 했다는 또 다른 증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슈티코프는 박헌영의 이론적 수준과 남한에서 지하활동의 지도능력에 높은 점수를 주며 그를 새롭게 통합될 남북노동당 연합중앙위원회의 위원장으로, 김일성을 새정부의 내각 수상으로 앉힘으로써 남·북 노동당의 협력을 달성하고자 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이미 1947년에 박헌영과 김일성간의 알력을 우려하고 있었던 슈티코프는 북한 정부 수립을 앞두고 두 사람의 협력관계를 확실히 해두고자 했다. 그는 1948년 7월 30일 김일성과 박헌영을 불러 차후의 남북한 노동당의 연합중앙위원회 구성문제를 논의하고, 8월 3일에는 김일성을 만나 당 연합 중앙위원회에서 박헌영을 위원장으로 하는 당 중앙위원회의 결정을 채택할 것을 권고했다.<sup>12)</sup> 또한 내각 구성에서도 슈티코프의 주장에 의해 각료의 숫자에서 남한 출신자들에게 10개의 상(相)의 자리를 확보해주어야 한다는 타협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sup>13)</sup> 이에 대해 레베제

11) 소련 공산당 중앙위원회의 지시와 이로 인한 최고인민회의, 내각의 인선의 변화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김국후, 『평양의 소련군정: 기록과 증언으로 본 북한정권 탄생비화』, 한울, 2008, 279~283쪽.

12) 국사편찬위원회, 『슈티코프 일기 1946~1948』(과천: 국사편찬위원회, 2003), 1948년 7월 30일자, 8월 3일자. 이후 1949년 6월까지의 남노당과 북노당이 통합되지 않은 채 분립해 유지되고 연합중앙위원회를 통해 협력관계를 유지했는데 그 내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없다. 과연 슈티코프의 제안대로 박헌영이 연합중앙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알 수 있는 자료는 없다.

13) 북한주재 소련대사관, 「북한 주재 소련대사관 1등서기관 바쉬케비치와 박창욱의 대답록」(1953년 4월 4일), “Zapis’ Beseby 1-go sekretariia Posoľstva SSSR v KNDR t. Vasiukevich V. A. s sekretarem TsK TPK Pak Chan Okom”, 문서고 분류기호 불명.

프는 “차후에 어떻게 북한정치가 돌아갈지에 대해 우려스럽다”고 말하며 불만을 표출했지만, 결국 슈티코프의 최종 결정에 의해 조각이 이루어졌다. 당시까지 스탈린과 슈티코프는 그만큼 남한정권의 전복을 통한 한반도 통일 전략에 비중을 높게 두었고, 박헌영의 활동에 큰 기대를 걸었다.

일단 ‘북한 주도의 통일’을 노동당과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통일을 어떻게 성취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내부적인 이견이 존재했다. 그것은 오래전에 김점곤이 지적했듯이 박헌영의 남노당과 김일성과-소련과-연안과 연합의 북로당의 통일 전략이 달랐기 때문이다.<sup>14)</sup> 그러한 내부 갈등이 있었다는 것은 해방 이후부터 오랫동안 북한 노동당의 중앙당본부에 몸담았던 신경완의 증언에 의해서도 확인된다. 신경완에 의하면 1948년 말 최용건, 강건 등 만주빨치산파와 연안파는 미군이 존재하는 현실에서 남한 유격대활동의 강화에 의한 인민봉기를 통해 남한 자체의 혁명을 추구하는 것은 힘의 낭비에 불과하며, 인민군이 전쟁을 준비하고, 남한의 인민유격대들이 보조가 되는 통일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반면에 박헌영은 1946년 이래 1948년 8월말까지도 “남조선혁명은 북의 일정한 원조를 받아 남노당이 주동이 되어 수행한다”고 주장하며 남노당 중심의 인민봉기론을 우선시한 것으로 보인다.<sup>15)</sup> 박헌영은 이 면에 있어서는 레닌의 무장봉기론에 보다 충실한 혁명전략을 갖고 있었다. 박헌영은 1947년에 쓴 『동학농민란과 그 교훈』이라는 팸플릿에서 바로 그러한 그의 지론을 논술했다.<sup>16)</sup> 또한 충실한 남노당원 김달삼 등이 제주도에서 남한 단독선거

14) 김점곤, 『한국전쟁과 노동당전략』, 박영사, 1973; 김점곤, 『남노당 폭력 혁명 노선의 연장선상에서 일어난 한국전쟁』, 『한국전쟁: 강대국 정치와 남북한 갈등』(김철범 위음), 평민사, 1989, 61~62쪽. 그러나 김점곤 교수는 러시아 자료를 사용하지 못해 이러한 북한 내부의 논의가 소련의 개입 없이 독자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았다.

15) 정창현, 『인물로 본 북한현대사』, 민연, 2002, 125~126쪽.

16) 박헌영, 『동학농민란과 그 교훈』, 해방사, 1947. 그는 이 책 말미에서 “우리가 배울 것은 ‘기미(己未)’가 아니라 ‘갑오(甲午)’”라고 하여 삼일운동의 평화적 투쟁보다 동학란과 같은 무장폭동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그는 또한 동학란의 문제점으로서 근왕의식, 폭동의 전략전술 부재, 끝까지 투쟁하지 못한 것을 들며, 레닌의 “폭동을 가지고 장난하지 말 것이다. 그러나 한번 시작하면 그것은 끝까지 나갈 것을 알아야 한다”는 구절을 언급하고 있다.

를 반대하여 일으킨 2·8, 4·3사건을 계기로 유격대투쟁을 통해 경찰과 서북청년단 등을 공격해 남한 정부를 곤경에 빠뜨린 것이 박헌영에게는 큰 희망을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sup>17)</sup> 한편 그는 슈티코프에게도 자신의 토지개혁을 동반한 무장봉기론에 대한 동의를 구했다. 1948년 9월 3일 남조선 정세에 관한 문제로 슈티코프를 만났을 때 박헌영은 남조선에서의 토지개혁 문제를 제기하며 “농민들로 하여금 폭동을 일으키게 하여 지주들로부터 토지를 몰수해서 몰수 토지를 분배하는 것이 어떻겠는가”라고 의견을 물었다. 슈티코프는 이에 대해 좀 더 연구하고 얻어질 최종 결과에 대해 심사숙고 하라고 충고했다.<sup>18)</sup> 아마도 슈티코프는 시기 선택에 대한 신중성을 말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북노당과 남노당간의 혁명전략과 주도권에 대한 이견이 존재하는 가운데 1948년 10월 19일에 일어난 여수 제14연대 반란사건과 뒤이은 여순 폭동의 결과는 점점 더 북한내에서 북로당 측의 입지를 강화했던 것으로 보인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여수 제14연대 반란사건은 제주도 유격대 활동 진압을 위해 제14연대가 파견되기 직전에 이를 거부하기 위해 남노당 세포인 김지회 중위, 홍순석 중위, 지창수 상사에 의해 주도되어 군인 3,000명이 가담했다. 이것은 남노당의 직접적 지시에 의한 것은 아니었다고 알려져 있으나 반란지도부가 모두 이미 여수시당과의 연관을 맺고 있었기 때문에 지역의 남노당 조직은 즉시 무장폭동의 주도권을 행사했다. 10월 19일에 반란이 일어나자마자 다음날인 10월 20일 남노당 여수시당이 지휘하여 시민을 모아 집회를 열어 인민공화국을 선포하고, 인민재판을 열어 우익인사들을 처형하며, 무상몰수 무상분배의 토지정책을 선포하는 등 무장봉기의 형태로 발전되었다. 그러나 4일 후부터 여수순천 반란은 이승만 정부가 미군정의 지원을 받아 시행한 토벌작전으로 인해 많은 희생자를 내는

17) 제주도 빨치산 투쟁의 주역이자 나중에 제주도를 탈출한 김달삼은 해주 남조선 정당사회 단체 대표자회의에서 ‘박헌영 선생’에 대한 최대의 존경심을 표시하며 제주도에서 인민유격대 투쟁에 관해 대표들에게 그의 경험을 소개했다. 편자 미상, 『남조선인민대표자대회 중요문헌집』, 인민출판사, 1948, 102~109쪽.

18) 『슈티코프일기』, 1948년 9월 3일자.

탄압의 칼날을 받았으며, 반란의 주동자들은 지리산 주변의 주요 산으로 들어가 '야산대'라는 이름으로 장기 유격전을 펼치게 되었다.<sup>19)</sup> 이때부터 지리산 일대에 빨치산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나, 여순반란 이후 남한 군대와 경찰이 실시한 여순반란 진압작전과 1948년 '동계토벌'에 의해 상당히 많은 당원과 빨치산들이 희생당했다.<sup>20)</sup>

제주도 4·3사건과 여순사건 등이 남한 정부에 심각한 충격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여순 폭동'의 실패와 이승만 정부에 의한 많은 남노당원의 처형, 투옥 사태는<sup>21)</sup> 북한 지도부내에서 남노당의 무장봉기 혁명론에 대한 많은 비판적 의견들을 표출하게 했던 것으로 보인다. 신경완에 의하면 당시 최용건과 연안파는 "현실적으로 남한에 미군이 들어와 있고 미군정 통치가 실시되고 있다. 미군정은 일제 통치기구를 그대로 받아 군정을 실시한다. 강력한 군정 통치기구 때문에 혁명이 빠른 시일 안에 이뤄지기는 어렵다. 통일과 남조선해방은 장기적으로 북한의 혁명기지가 주동이 되고 남조선 혁명역량이 배합되는 남북 배합작전에 의해 이룩될 수 있다. 이런 틀에서 남조선혁명을 추진해야 한다. 따라서 결정적 시기에 대비해 남조선의 혁명역량을 보존, 축적해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강건은 당시 남노당 중심으로 운영되던 빨치산양성소인 강동정치학원을 찾아가 학생들에게 "남노당이 주동이 되어 통일을 이뤄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는 곤란하고 남노당이 배합하는 협동작전에 의해서만 통일이 가능하다. 혁명역량을 함부로 낭비해서는 안된다"는 요지의 연설을 했다고 한다. 이 소식을 들은 박현영은 곧바로 강동정치학원을 찾아 학생들에게 "강건의 연설은 남노당의 노선

19) 김남식, 『남노당연구』, 돌베개, 1984, 379~389쪽; 전남일보 광주전남현대사 기획위원회, 『광주전남현대사』 2, 실천문화사, 1991, 134~184쪽.

20) 노동당 기관지에 기고한 글에는 정확한 인원 통계는 제시하지 않고 있지만, 남한측에 의해 학살, 처형된 수 많은 사례들을 제시하고 있다. 승민, 『미제국주의에 복무하는 남조선 반동파의 최후발악』, 『근로자』 1949년 11호(6월 15일 발행), 35~39쪽. 『광주전남현대사』 2에 의하면 1949년 1~2월 사이에 1,650명의 유격대와 남노당원 4,500명이 진압군에 투항함으로써 동계토벌이 일단락 지어진 것으로 보인다. 184쪽.

21) 북한측에서는 여순폭동 이후 대한민국 정부의 토벌에 의해 약 15,000명의 빨치산이 희생되었고, 일반인을 포함해 약 30,000명의 희생자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다. 외무부 역, 『소련극비외교문서(3)』, 34쪽.

과 배치된다. 우리가 피흘려 싸워 해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sup>22)</sup> 통일전략을 두고 남북 노동당의 팽팽한 의견대립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북로당 지도부는 전쟁에 의한 통일 방안을 염두에 두고, 1948년 말부터 전쟁에 대한 이념적 무장과 실질적 준비를 은밀하게 시작했다. 그들은 1948년 12월 레닌의 정의의 전쟁론을 번역해 소개하고, 소련의 전쟁 수행 경험으로부터 전쟁준비의 기초를 삼고자 많은 전쟁관련 저작들을 번역 출판했다. 1948년 12월에는 북조선로동당 선전선동부가 『정의의 전쟁과 부정의의 전쟁에 관한 맑스 레닌주의적 학설』이란 제목의 팜플렛을 출판해 레닌의 정의의 전쟁론을 소개했다.<sup>23)</sup> 같은 달 김일성대학 교수들인 김광순과 조영식의 공역으로 엔 보즈네센스키의 『조국전쟁시기에 있어서의 소련의 전시경제』를 출판했다.<sup>24)</sup> 또한 다수의 소련의 전쟁관련 경험이 소개되었다. 1949년에는 노동당 선전선동부에 의해 소련의 저명역사가 민쓰의 『쏘베트동맹의 위대한 조국전쟁』이 번역 출판되었고, 민족보위성 문화훈련국은 『위대한 조국전쟁 시기에 있어서 쏘베트무력』을 출판했다.<sup>25)</sup> 그 외에도 독소전쟁 전후의 스탈린과 소련공산당 활동에 관한 논문들이 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근로자』에 소개되었다.<sup>26)</sup> 이러한 책들은 주로 당원들 사이에만 유통되었으나, 혁명적 내전에 대한 도덕적 정당성을 부여하는데 일조했을 뿐만 아니라 전쟁 수행의 실질적 문제들을 배우는데도 사용되었다.

22) 정창현, 『인물로 본 북한현대사』, 126쪽에서 재인용.

23) 북조선 로동당중앙본부 선전선동부 강연과, 『정의의 전쟁과 부정의의 전쟁에 관한 맑스 레닌주의적 학설』, 평양: 로동당출판사, 1948.

24) 엔 보즈네센스키, 김광순·조영식 공역, 『조국전쟁시기에 있어서 소련의 전시경제』, 평양: 재정성경영계산연구회, 1948.

25) 이·민쓰, 북조선로동당중앙본부 선전선동부 역, 『쏘베트동맹의 위대한 조국전쟁』, 평양: 로동당출판사, 1949; 민족보위성 문화훈련국, 『위대한 조국전쟁 시기에 있어서 쏘베트무력』(1949. 7).

26) 박영, 「전쟁 평화 및 혁명에 관한 불셰위크당의 리론과 진술」 『근로자』 제16호(1949년 8월); 드·자이체브, 『쏘베트동맹의 위대한 조국전쟁 전야에 있어서의 불셰위끼당』, 『근로자』 1949년 제19호(1949년 10월), 86~107쪽; 이·이노첸코브, 「쏘베트동맹의 위대한 조국전쟁 시기에 있어서의 불셰위끼당」 『근로자』 1949년 제21호(1949년 11월), 79~99쪽.

1949년 초에 들어서서 남노당 게릴라의 위축된 활동으로 인해 북한지도부내에서는 점차 통일 전략에서 전쟁에 의한 통일만이 유일하게 가능한 대안이라는 생각에는 일치한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김일성은 1948년 말의 시점에는 남한에 비해 북한이 월등하게 우월한 것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다. 1948년 10월말부터 그해 말까지 소련군이 철수하면서 많은 무기를 인민군에게 이양함으로써 탱크, 항공기 등을 보유하게 된 북한의 군대는 소총과 기관총, 박격포가 주 무기인 남한에 비해 월등한 무장의 우위를 달성하고 있었다. 병력만 보더라도 1948년 말 남한의 국군은 병력이 47,000명이었으나, 북한은 정규군만 6만명이었다.<sup>27)</sup> 여기에 북한이 38선의 국경지역에 배치한 경비대와 보안대 등은 숫자는 명확하지 않지만 그 무장은 국군 정규부대에 비견할 만 했다. 김일성이 박헌영 및 각료들과 함께 1949년 3월 5일 모스크바를 공식 방문해 가진 회담에서 스탈린에게 남한의 군대보다 북한의 군대가 강하다고 말하면서 자신감을 표시한 것은 그러한 의사의 표현이었다.<sup>28)</sup> 그러나 3월 7일 김일성, 박헌영과 스탈린이 따로 갖은 회담에서 김일성은 남한을 공격해 통일할 절호의 기회이며 남한의 빨치산 부대도 지원이 가능하다고 말하면서 스탈린의 전쟁 승인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스탈린은 전쟁은 미국과의 38선도선 분할협정이 지켜져야 하고, 국제정치 형세로 보아도 적절치 않으며, 북한은 군사력 증강에 노력해야 한다는 조언을 함으로써 김일성의 무력통일안에 제동을 걸었다. 그는 다만 남한이 먼저 공격할 때만 반격이 가능하다고 했다.<sup>29)</sup>

스탈린의 전쟁 불가의 조언을 듣고 북한에 돌아 온 북한지도부는 당장은 남한에서의 유격전 활동을 지원하면서 군사력 증강에 노력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통일 전략에서 남한의 유격대의 성공 가능성과 그것이 차지하는 비중에 관해서는 1949년 내내 사태의 진전에 따라 북노파와 남노파 사이에

27) 정병준, 『한국전쟁』, 308, 318쪽.

28) 「소련 내각회의 의장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수상의 조소 양국관계의 발전 전망에 관한 회담 기록, 1949년 3월 5일 20시 00분」, 『한국전쟁, 문서와 자료, 1950~53년』, 과천: 군사편찬위원회, 2003, 23쪽.

29) 1949년 3월 7일의 회담에 대해서는, 『서울신문』, 1995년 5월 15일자.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어느 한 수단으로만 통일을 성취할 수 없다는 점에서는 일치점을 이루었다. 소련대사와 김일성, 박헌영 사이의 1949년 동안의 면담 내용을 통해 볼 때 박헌영은 1949년 봄부터는 전쟁에 대해 인민군의 정규전과 빨치산 작전을 배합한다는 틀 속에서 김일성의 전쟁에 의한 통일안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기울었던 것으로 보인다.<sup>30)</sup>

1949년 6월에 남북노동당의 합당을 이루어 '조선노동당'으로 개칭하고 김일성이 위원장, 박헌영과 허가이가 부위원장으로 피선되면서부터 대남전략에서 북노당 우위의 정책결정이 이루어지게 되었지만, 그 동안 남노당의 조직과 활동을 전담하던 박헌영은 남한에서의 남노당 활동에 있어서는 상당한 독자적 재량권을 누렸다. 남노당은 1949년 4월을 '해방의 달'로 정하고 도시 폭동계획과, 무장유격대 침투, 지방유격대 활동을 동시에 운영하고 자 했다. 그러나 도시폭동은 상당한 준비에도 불구하고, 군사부책임자였던 이증엽의 체포, 서울시당 책임자들의 체포 등으로 그 폭동계획은 계속 「5월 해방」, 「6월해방」 식으로 다음 달로 연기되었다. 폭동을 위해 서울시당에는 특별위원회를 만들고 8월과 9월에도 도시폭동을 계획하고 준비했으나, 폭동책임을 맡았던 서울시당 간부인 양한모가 '9월 공세' 예정일로 정한 9월 20일의 4일 전인 9월 16일 남한 경찰에 체포됨으로써 준비했던 6천개의 수류탄과 기타 무기는 노획당하고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다. 특히 과거 간부들의 전향에 의해 남노당 전체의 80%의 비중과 권력을 갖고 있었고 조직력의 60%를 차지하고 있었던 서울시당이 파괴된 것은 심각한 일이었다.<sup>31)</sup> 지방유격대의 활동은 매달 그 규모가 증대되었고 400~500명 단위의 대규모 유격대를 동원해 직접 지서, 경찰서 등을 공격하고 소각하는 방식의 '아성공격(牙城攻擊)'의 형태를 띠었다. 남노당의 선전책임자들은 그 활동성공과를 과장했지만, 사실상 토벌대에 의한 당원과 유격대의 손실도 대단히 많았다. 이증엽은 남한빨치산들이 매달 연인원 수만명씩 습격작전에 가담했다

30) 『소련극비외교문서(3)』, 『소련극비외교문서(4)』 여러 곳 참조. 그렇지만 박헌영은 전쟁 발발이전까지 남한 빨치산 활동에 의한 남한체제 전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31) 양한모, 「남노당」, 『전환기의 내막』, 조선일보사, 1982, 219~225쪽.

고 선전했지만, 소련의 내부자료에 의하면 실제 작전에 참가했던 빨치산 인원은 천여명을 크게 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sup>32)</sup> 1949년 9월에 박헌영이 소련대사관 툰킨 공사에게 밝힌 바에 의하면 남한에 약 1,500~2,000명의 유격대원이 활동하고 있었다. 툰킨은 그 정도의 규모로는 남한의 내부 교란을 하는데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었다.<sup>33)</sup> 그러나 박헌영은 1949년 6월부터 남파한 남도부(하준수), 이호제, 김달삼 유격대가 태백산 지역에 근거지를 확보하고 기존의 유격대 거점인 지리산 지역에서 활동을 강화하는데 희망을 걸었다.<sup>34)</sup>

박헌영의 무장봉기에 의한 통일전략은 인민유격대를 광범하게 조직하고 적극적으로 남한정부의 보루인 관공서와 경찰서, 지서를 공격하는 방법으로 남한 정부의 권위를 실추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남한 사람들의 호응을 얻는 데는 크게 효과적이지 못했고, 대한민국 정부의 남노당 조직 와해전술과 토벌작전에 의해 많은 역량이 상실되었다. 1949년 9월 이승엽이 강동정치학원 출신 유격대들을 남파해 이호제의 제1병단이 태백산 지역, 이현상의 제2병단이 지리산 지역, 김달삼의 제3병단이 경남북 지역에서 활동하는 유격구를 편성했지만 남한의 경찰과 군으로 편성된 토벌대에 의해 많은 손실을 입었다. 유격대는 자체 생존을 위해 농민들의 식량을 빼앗아 생존을 모색해야 했고, 그것은 농민들로부터 진정한 지지를 얻기 어렵게

32) 북한주재 소련대사관이 본국에 보낸 1949년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1949년의 경우 습격작전에 가담한 남한 빨치산 수는 다음과 같다. 이 자료는 1949년 말 현재 남한의 빨치산 숫자는 3,650명이지만, 그중 무장한 인원은 1,080명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있다.

	4월	6월	8월	10월
전투가담 빨치산 연인원	16,257	23,037	44,262	89,924
전투가담 빨치산 실인원	482	596	759	1,330

\* 출처: Viktor Alekseevich Bukhtoiarov, "Uchastie kontingenta sovetskikh voisk v Koreskoi voine: Istoriko-politicheskii analiz(iiun' 1950-iiul' 1953 gg.)", Dissertatsiia na soiskanie uchenoi stepeni kandidata istoricheskikh nauk, Gumanitarnaia Ordendov Lenina I Okiabr'skoi Revoliutsii Krasnoznameniia Vooruzhennykh Sil Rossiiskoi Federatsii (Moskva, 1994 g.), p.25. 문서고 출처는 AVP RF, Fond 1 Dvo, Opis 6., Delo 4, Papka 19, L. 129.

33) 『한국전쟁 관련 소련극비외교문서 (3)』, 29쪽.

34) 김남식, 『남노당연구』, 420쪽.

했다. 물론 경찰이나 토벌대 역시 농민들에게 피해와 부담을 지우기는 마찬가지였다. 남노당은 단련된 강동정치학원 출신 유격대원을 남파함으로써 토벌작전에 의한 손실을 메우는 정도에 머물렀을 뿐, 유격대의 급격한 확대는 피할 수 없었다. 중국혁명에서와 같이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유격대에 가담하는 경우는 적었다. 이른바 '아성공격'은 유격대의 존재함을 과시하는 상징적 가치는 컸는지 모르지만, 적의 정면에 부딪혀 많은 손실을 입게 됨으로써 자기 역량을 보존할 수 없는 무모한 전술이었다.<sup>35)</sup>

무력에 의한 통일이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확신하고 있었던 김일성은 1949년 내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최소한 제한적인 개성 및 웅진반도 공격 또는 전면 무력 공격안을 승인해줄 것을 슈티코프 대사를 통해 스탈린에게 요청했지만, 그때마다 스탈린에 의해 제지되었다. 1949년 10월 4일 스탈린이 당장 무력통일은 불가하며 군비증강에 노력하고, 남한에서 유격전에 의한 내부 교란을 꾀하는데 힘쓰라는 소련공산당의 결정서를 슈티코프를 통해 김일성과 박헌영에게 읽어 주었을 때, 박헌영은 이에 고무되었고, 이미 남한에서 시행하고 있던 '아성공격', 즉 남한 경찰서와 지서, 관공서에 대한 정면 타격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갔다. 김일성도 1949년 최고인민회의 4차회의 석상에서 "만일 남조선 인민들이 다 일어나 리승만을 추종하던 「국방군」이 대량적으로 동족상쟁을 반대하고 일어나는 때에는 리승만 매국도당들은 자기지반을 상실하고 완전히 고립될 것이며 우리의 남북통일은 평화적으로 실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말하며<sup>36)</sup> 남한에서의 무장봉기의 가능성에 대한 희망을 표시했다. 스탈린의 전쟁 승인 결정이 떨어지기 전까지 북한은 정규군 작전을 위한 군비증강을 계속했고, 남노당 세력에 의한 남한 유격대 활동 또한 무시할 수 없었다.

35) 위의 책, 423쪽. 브루스 커밍스는 1948년 말과 1949년 봄부터 가을까지의 남한에서 유격대의 활발한 활동과 대한민국정부의 토벌 활동을 대비하면서 1950년 봄에도 유격대가 건재했다고 평가했으나 그것은 잘못된 판단이다. Cumings, *The Origins of the Korean War*, Vol. II, Ch. 8. 1949년 말부터 1950년 초의 유격대의 위축에 관해서는, 정병준, 『한국전쟁』, 471~475쪽.

36) 리문일, 「일층 치열해진 남반부 인민유격대 활동과 높아가는 「국방군」의 의거기세」, 『로동자』 1949년 11월호, 59쪽에서 재인용.

### 3. 인민 동원

1948년 남북의 두 정부가 수립된 직후부터 북한 지도부는 북한체제에 기반한 '통일'을 지상과업으로 설정했지만, 이러한 통일의 절박성을 북한 주민들에게 설득하는 데는 많은 노력이 필요했다. 특히 1948년 말 북조선노동당의 핵심 인물들은 '무력에 의해서라도 통일을 이뤄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반해 북한 주민들의 대다수는 민족간의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는 여론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 고심했다. 김일성은 그러한 북한 주민들의 분위기를 당, 내무기관, 정치보위부의 보고를 통해 잘 알고 있었던 것 같다. 1949년 9월 12일 소련대사관의 고문 툰킨의 '만약 북한이 먼저 남한을 선제공격할 경우에 북한 주민들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김일성은 "민중들에게는 북측에 대한 좋지 않은 인상을 심어주게 될 것이고, 정치적으로 그들은 유리하지 않은 입장에 서게 될 것"이라고 대답했다.<sup>37)</sup> 이러한 태도를 가진 북한 주민들에게 북한의 정당성을 선전하기 위해 북한 노동당은 이미 1946년부터 써왔던 주제, 즉 북한이 소련의 지원 하에서 얼마나 훌륭한 민주개혁을 이루었는가, 이에 반해 미국의 지배하의 남한은 얼마나 살기가 곤란한가 등의 문제를 계속 제시하면서, 새로운 선전 주제들을 발전시켰다. 그것은 여순 폭동사건에서 남한정부가 얼마나 무자비하게 '애국자(=노동당원)' 및 양민들을 학살했는가, 제주도에서 남한의 단선 반대에 참가한 사람들을 얼마나 무자비하게 탄압했는가 등의 주제였다. 한편 북한은 미국의 제국주의적 침략성과 호전성을 선전하는 소련의 '평화공세' 노선을 추종하면서, 유럽에서 소련이 조직한 세계평화옹호 대회에 동참하면서 소련과 북한이야말로 평화세력이며, 미국은 남한에 군사기지를 건설하고 있고, 남한 지도층은 미제국주의 세력을 어떻게든 한반도에 잡아두려고 하고 있다는 선전을 통해 북한에 의한 통일의 당위성을 주민들에게 각인시키고자 했다.

37) 「툰킨이 소련외무성에 보낸 전문」(1949년 9월 14일), 『한국전쟁 관련 소련극비외교문서(3)』, 29쪽.

북한이 정부를 세운 직후에는 아직 전쟁 문제가 노동당의 중요한 의제로 굳어진 것은 아니었다. 북조선 노동당은 광범위한 통일전선에 큰 기대를 걸면서, 남한에 대한 비난을 선전의 주요 주제로 삼고자 했다. 이것은 1948년 9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3차 전원회의에서 당 부위원장 허가이가 읽은 연설문에서 뚜렷하게 드러난다. 그는 이 연설에서 로동계급의 생활수준을 높이는 문제와 미제국주의 및 남한 반동에 대한 비난 선전을 강화하는 것을 당 사업의 두 과제로 삼았다. 당을 책임지고 있던 허가이는 미국의 제국주의 침략정책의 폭로와 남한정권의 고립을 위해 “민주주의 제정당사회단체들과만 통일전선정책을 실시할 것이 아니라 미제국주의자들과 남조선 단독괴뢰정부를 반대하여 조국의 통일을 위하여 투쟁하는 모든 중간정당들과 심지어 우익정당들과 사회단체들까지도 행동통일정책을 실시할 수 있다”고 말하고, “남조선 동포들속에서 남북로동당의 로선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정부의 로선을 선전하며 남조선 반동괴뢰정부와 미제국주의자들의 조국침략정책에 대한 정체를 폭로하는 광범한 선전사업들을 전개할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sup>38)</sup> 이것이 당의 중심과제로 자리 잡았다.

이러한 선전 방침에 따라 북한의 노동당과 사회단체의 기관지들에는 남한에서 빨찌산 운동의 ‘영웅적 투쟁’ 성과와 남한사회의 혼란상, ‘새로운 전쟁의 도발자’ 미국의 대외정책에 대해 비난하는 글들이 넘쳐났다. 몇몇 남한 출신 노동당원들은 남한의 유격투쟁에 대해 그것이 얼마나 성공적이며 남한사람들의 호응을 받았는가를 여러 저널에 기고하고, 남조선의 ‘인민유격투쟁’에 대한 지원을 호소했다.<sup>39)</sup>

38) 허가이, 「북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 제3차회의에서 진술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선거 총화와 당단체들의 당면과업에 대한 보고」, 『근로자』 1948년 9월호, 34~36쪽.

39) 승민, 「미제국주의에 복무하는 남조선반동파의 최후발악」, 『근로자』 1949년 11호(6월 15일), 31~48쪽; 김광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기치를 높이 들고 구국투쟁에 총력기한 남조선인민들의 영웅적 투쟁」, 『근로자』, 1949년 2호(1월 15일); 리승엽, 「반동의 지반을 소탕함으로써 평화적으로 조국의 통일을 달성하자」, 『근로자』 1949년 제19호(10월 15일); 한연,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달성기 위한 남반부 인민들의 투쟁은 날로 승리하고 있다」, 『농민』 1949년 10월호; 조일수, 「리승만 매국도당을 소탕하기 위한 남반부 인민들의 무장투쟁」, 『농민』, 1949년 11월호; 리문일, 「일층 치렬해진 남반부 인민유격대 활동과 높아가는 「국방군」의 의거기세」, 『로동자』 1949년 11월호; 안소주, 「남반부 빨찌산은 인민의 원수들을 소탕하면서 용감히 전진한다」, 『청년생활』, 1950년 4월호.

김일성이 1949년 3월 스탈린으로부터 '통일 전쟁은 시기상조이며, 북한은 군사적인 면에서 아직 남한에 대해 우월한 것이 아니다', '전쟁은 다만 남한이 먼저 공격을 해올 경우 반격의 형태로 시행하는 것만이 가능하다'라는 조언을 듣고 온 이후부터, 북한지도부는 한편으로는 실제로 군비 증강을 꾀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남한이야말로 북한을 침공하려고 기도하고 있다는 선전 주제를 내세움으로써 북한의 군비증강 노력을 정당화하고, 주민들을 군비증강 노력에 호응하도록 만들어야 했다. 북한 주도의 통일 전쟁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남한이 시행하고 있는 모든 행동에 대한 악선전을 통해 주민들을 설득시키고자 했다.

북한 노동당은 군비증강과 팽창주의 외교를 시행하며 새로운 전쟁을 획책하는 미제국주의자들에 대항하여 소련이 세계평화옹호위원회를 결성하는 등 '평화' 노력을 계속하고 있고 북한도 이에 동참하고 있다고 선전했다. 노동당의 지도적 논객들은 북조선이야말로 평화를 옹호하고 평화적 통일을 추구하고 있으며, 팽창주의적 정책의 일환으로 한반도에서 철수하지 않는 미제국주의자들과 그의 '주구'인 남한 반동을 투쟁을 통해 격멸하는 것이 조국의 '평화통일'의 길이라고 인민들에게 설명했다.<sup>40)</sup> 달리 말하면, 노동당의 빨치산 투쟁을 지원하여 남한 정부를 전복하는 것이 바로 '평화적' 통일이라는 논리였다.

1949년 2월 이후로는 남한 대통령 이승만과 3월에 국방장관에 취임한 신성모가 공개적으로 '실지회복'과 '북벌'을 주장하기 시작하고, 실제로 1949년 초부터 38선에서 남한 경찰이 주도하는 소규모 침투작전이 이루어짐에 따라 북한 지도부는 이러한 사건들을 '남조선의 내전 도발 의도'로 선전할 좋은 주제로 삼았다.<sup>41)</sup> 1948년 11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강동정치학원에서

40) 「공고한 평화를 위하여」, 『근로자』 1949년 제7호(4월 15일), 3~8쪽; 리태준, 「세계평화 옹호를 위한 투쟁은 조국의 통일독립을 위한 투쟁과 일치된다」, 『로동자』 1949년 5월호: 한철야, 「항구한 평화와 민주주의와 민족적 독립을 위하여」, 『근로자』 1949년 제19호(10월 15일).

41) 정병준, 『한국전쟁』, 269, 291쪽.

훈련받은 유격대원이 38선을 넘어 월경해 오대산, 태백산맥 등에서 유격전을 펴는 것에 대해 남한 당국도 맞불을 놓은 셈이지만, 북한측으로서는 남한의 행동에 대해 그 배경은 생략한 채 '도발해왔다'는 사실만을 부각시키는 선전 방침을 굳게 지켰다. 남북간의 38선 충돌은 선후를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쌍방에 도발 책임이 있었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모든 충돌사건에 대해 그 책임을 남한에 돌렸다. 물론 이 점은 남한측도 마찬가지였다. 언론을 완전히 장악한 북한 당국은 그 선전 자료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었고, 사실에 관해서도 선전 목적에 맞게 그를 왜곡하는데 전혀 거리낌이 없었다. 한 예를 들자면 트루먼 정부하의 미국 '군사예산' 감축 추세에도 불구하고, 당기관지 『근로자』에서는 미국의 국방예산이 전체 예산의 76%에 이른다는 터무니없는 데이터가 미국의 '군비증강'의 증거로 제시되었다.<sup>42)</sup> 북한의 선전물들은 남한 인민유격대의 교전 횟수나 전과는 과장해 발표하면서도 그들의 희생자가 얼마가 되는지는 결코 밝히지 않았다. 수십 개의 군과 면에서 경찰서와 지서를 습격해 불태우는 유격대의 영웅적인 활약을 과장하는 이 선전물들이 풍기는 뉘앙스를 액면 그대로 믿는다면, 남한 정권이 존립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이상하게 여겨질 정도였다. 외부세계의 소식이 당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통제되는 상황에서 일반 당원이나 인민들은 그러한 북한 당국의 선전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길은 차단되어 있었다.

1949년 초의 북한의 선전이 주로 인민들에 대한 정치사상적 동원에 머물렀다면 이 해 5월 이후부터 북한지도부의 조치는 선전전을 계속하는 가운데 실질적인 경제적, 군사적 동원체제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그것은 1949년 5~7월 동안에 벌어진 남북간의 연대급 38선 충돌의 격화와 관련이 있었다. 1949년 5월초부터 송악산 전투, 동해안 고산봉 전투, 이에 대한 남한측의 보복으로서 남한 유격부대인 호림부대가 양양까지 진출했던

42) 「공고한 평화를 위하여」, 『근로자』 1949년 제7호(4월 15일), 4쪽.

양양돌입사건 등<sup>43)</sup>이 연속적으로 벌어지고 있을 때 북한지도부는 이러한 전투에서 북한측의 승리를 열심히 선전하고 있었으나, 내부적으로는 전쟁이 발발한다면 북한이 군대의 수적인 면에서 불리하다고 생각하면서 5월초 김일(金一)과 모택동의 북경회담의 결과로 중국에서 들어올 2개 조선족 사단 병력의 도착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김일성, 박헌영, 소련대사 슈티코프는 한편으로는 국군이 38선을 넘어 북진할 경우를 가정하여 이를 반격할 수 있는 위치로 후방의 사단들을 전진 배치하는 한편, 중국과의 협상 결과 중국에서 조선족 사단들이 들어올 때까지 시간을 벌고자했다. 북한은 이 시기에 전쟁을 대비해 인민군을 강화하고, 동원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두 가지 조치를 취했다. 첫째는, 공개적인 것으로 5월 9일에 내각결정 제45호로 인민군 및 경비대 근무 하사관과 전사들의 가족들에 대해 15~30%까지 현물세를 감면해주는 조치를 취한 것이었다.<sup>44)</sup> 이것은

43) 이 사건들에 대한 가장 세밀한 연구로는, 정병준, 『한국전쟁』, 333~381쪽 참조. 이 대대급-연대급 국경충돌사건들은 5월 4일 이른바 5·4 개성 송악산 292고지전투를 시발점으로 쌍방이 보복적 공격들을 가하는 연쇄반응식 사건들이었다. 정병준은 미국자료 등을 이용해 연대급 첫 전투라 할 수 있는 5·4전투가 “주한미군 철수와 관련한 남한측의 정치적 의도에 의해” 제1사단장 김석원에 의한 도발로 일어났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345쪽) 한편 일찍이 38선 충돌 문제를 연구한 존 메릴도 5·4전투가 남한측의 도발에 의한 것이라고 한 바 있다. 존 메릴, 신성환 옮김, 『침략인가 해방전쟁인가, 1948~1950: 한국전쟁의 국지적 배경』, 과학과 사상사, 1988, 272쪽. 그러나 5월 4일 개성 292고지 전투는 5월 3일 북한측의 선제공격에 대한 남한측의 대응공격으로 시발되었다는 기존의 국군측의 기술이 옳은 것으로 보인다. 이 충돌사건에 대한 북한측 관계자의 최근 증언은 이를 입증해준다. 1949년 당시 황해도 정치보위부 간부로서 전투 당시 최현의 지휘소에 있었으며 후에 남한에 남파되어 비전향장기수가 되었던 김석형은 이 충돌사건의 발단이 소련군이 철수하고 없는 가운데 ‘이제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한 북한 제3경비여단장 최현이 과거 남한측의 간헐적 소규모 침투에 본때를 보여주는 동시에 전투경험이 없고 용감성이 부족한 예하 대대장들을 길들이기 위해 시작한 것이라고 증언한 바 있다. 이 사건이 국제적으로 주목을 받게 되자 김일성이 바로 최현을 평양으로 호출해 크게 꾸짖었다고 한다. 그의 증언 내용은 좀 모호한 부분이 있지만 이른바 292고지 전투 상황과 부합한다. 김석형 구술, 이향규 녹취·정리, 『나는 조선노동당원이요!』, 선인, 2001, 268~271쪽.

4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결정 제45호: 조선인민군 전사 및 하사관들의 부양가족 원호에 관한 결정서』(1949년 5월 9일), 국사편찬위원회 편, 『북한관계자료집 21: 내각공보-1948~49』, 443~445쪽.

4월말에 김일성, 박헌영, 슈티코프가 인민군 증강을 위해 일시에 16,000명의 신병을 초모한다는 결정을 내리면서 좀 더 많은 인원들이 인민군에 지원하도록 하려는 의도에서 시행되었을 것이다.<sup>45)</sup> 두 번째는, 6월 중순에 18세부터 30세에 해당하는 모든 남성들에 대해 ‘국민 체력검사’라는 명목으로 신체검사를 받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급 인민위원회가 공민증에 그 결과를 기입하게 한 조치로<sup>46)</sup>, 유사시에 동원할 수 있는 인원들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었다.

김일성과 박헌영은 소련대사 슈티코프와 협의하에 남한에 대한 ‘평화통일’ 공세를 취함으로써 통일문제에 있어서 명분을 쌓는 한편, 준비가 부족한 상태로 조기에 남한과의 전면전에 빠져드는 것을 방지하고자 했다. 북한은 1949년 6월말에 남북노동당을 합당하면서 동시에 남한의 진보세력을 통합해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을 결성하고 좌익을 집결시키는 한편, 그 이름으로 남한에 ‘평화통일’ 제의를 함으로써 통일문제에 있어서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시간을 지연시키는 이중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했다.<sup>47)</sup> 북한의 모든 외교문제에 결정권을 행사하고 있던 소련 외무성은 6월말에 남북조선노동당 주도로 남북한의 좌파세력을 통합하여 남한의 붕괴를 촉진하려는 의도에서 구상된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결성안에 대해 동의해주었고, 북한은 허헌이 위원장을 맡는 이 조직을 구성함으로써 남북한의 좌익과 중간과 62개 정당대표들을 평양에 집결시켰다. 이들은 6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의 회의를 통해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을 결성한 뒤, ‘남한에서 전체 정치범들을 석방’하고, ‘남한에서 제주도인민항쟁과 남조선유격운동 탄압에 가담했던 경찰대와 「국방군」 부대들’을 해산한다는 조건을 내걸면서, 남북한이 선거위원회를 결성하고, 9월에 선거를 시행해 「조선공화

45) 『슈티코프가 스탈린에게 보낸 전문』(1949년 5월 1일), 『한국전쟁 관련 소련극비외교문서(4)』, 18쪽.

46) 홍남시 내무서장 신상일, 「홍남공비 제55호 각분서파출소장 앞: 군사등록사업 보장의 건, (1949년 6월 12일).

47) Alexandre Mansourov, “Communist War Coalition Formation and the Origins of the Korean War.” (Ph. D. Dissertation, Columbia University, 1997), pp.129~132.

국」을 수립하자는 제안서를 29일 남한측 국회와 각 국회의원들에게 특별우편을 보냈다.<sup>48)</sup> 남한정부측에서 이 통일안에 대해 호응할 리 없었다. 그러나 일부 소장파 국회의원들은 미군철수를 주장하면서 북한의 통일방책에 동조하는 태도를 보였다. 실제로 그것이 실행될 것이라는 기대보다는 당시의 일시적 군사적 열세를 만회할 시간을 버는 동시에, '평화통일' 주창자로서 북한의 정치적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한 의도에서 시행한 이 제안은 본래의 이중 목적을 달성하는데 성공했다.

북한지도부가 1949년 7월 이후부터 자신감을 회복하고 적극적으로 전쟁 준비에 나서게 된 데에는 그들이 5~7월의 38선 충돌 전투들을 계기로 남한의 군사력이 그렇게 강하지 못함을 확신하게 된 것과, 7월에 중국에서 조선측 2개 사단(제164사단, 제166사단)이 귀국하여 북한 전투력이 강해진 것과 관련이 있었다. 남한에 대한 군사력의 우위를 확신한 북한지도부는 38선 충돌을 모두 '동족상잔의 내전을 획책하는' 남한측의 소행으로 몰아붙이면서, 이런 위협에 대응해야 한다는 논리로 인민들에 대한 실질적 동원체제를 가동하기 시작했다. 군대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군사적 방위체제를 확립해야 한다는 취지로 북한은 이해 7월 15일에 '조국보위후원회'를 구성하였다. 한 달 내에 각 직장과 지역 행정 단위에서 초급단체 결성이 완료되어 '수백만'의 회원을 거느리게 되었고, 9월 15일에는 조국보위후원회 중앙본부가 결성됨으로써 인민군 원호사업, 군사훈련, 군사기금 마련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또 하나의 거대한 조직이 탄생했다.<sup>49)</sup> 이때 구성된 조국보위후원회는 모든 행정단위와 주요 직장에 하나씩 위원회가 설치되었고, 그 주요 임무는 (1) 인민군에 대한 정신적 후원, (2) 인민군 소속 전사 및 하사관들의 가족에 대한 원호사업, (3) 초보적인 자체 군사훈련, (4) 땀크 및 함선 수입을 위한 기금('땀크 함선 기금') 마련 등 전 인민들의 동원을 책임

48) 『조선중앙년감: 1950년도판』, 86~93, 716쪽.

49) 박정애, 「조국보위후원회 기관지 창간을 축하함」; 현정민, 「청년들은 “조국보위를 위하여”의 발간을 열렬히 축하한다」, 『조국보위를 위하여』(창간호, 1949년 10월), 29~32쪽; 『조선중앙년감: 1950년도판』, 266쪽.

지는 것이었다.<sup>50)</sup> 노동당과 내각은 당과 정부의 채널을 통해 조국보위후원회에 당원들뿐만 아니라 민청, 여맹, 농맹 등 모든 사회단체들이 '조국보위후원회 사업'에 매진하도록 지시했다. 노획문서에 의하면 도시에서는 1949년 7월 조국보위후원회 결성 시점부터 각 직장에 조국보위후원회 초급단체 결성식을 갖고 직장의 회원들이 활동에 적극 참여할 것을 결의하는 동시에 이 취지에 호응한다는 결의대회를 가졌다. 조선중앙통신사 초급단체의 경우, 회원들은 매월 원고료의 20%를 헌납하기로 결정하고 훈련대를 조직하는 한편, 동계훈련 제1단계 훈련에 참가하자고 결의했다.<sup>51)</sup> 농촌에는 이해 9월부터 노동당 조직과 민청 조직을 통해 '조국보위후원회 사업'을 독려하는 지시가 내려갔다. 그러나 농촌지역에서는 도시지역의 일부 직장의 열성자들과는 달리 그 성과가 부진했던 것으로 보인다.<sup>52)</sup>

조국보위후원회는 38선 초소에 대한 방문, 인민군에 대한 위문품 모집을 맡는 동시에, 각급 지부에서 주로 민청단체를 통해 16세부터 30세까지의 젊은이 모두를 '훈련대'를 편성해 군사훈련을 받게 하고 마을 단위에서는 이미 편성된 '자위대'를 강화하는 한편, '군사과학과 기술'을 연구하도록 했다.<sup>53)</sup> 조국보위후원회가 이러한 운동을 벌이는데 있어서 크게 의존한 것은 당연히 북한의 젊은이들 대부분이 속한 민청조직이었다. 민청단체에서는 젊

50) 조국보위후원회의 강령에는 '국토를 보위하기 위한 군사훈련'과 '후방원호사업'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1949년 10월에는 곧 '비행기 땅크 헌납 운동'이 이 후원회의 주요한 사업 중의 하나가 되었다. 「조국보위후원회 강령」(초안), 『조국보위를 위하여』(창간호, 1949년 10월); 「조국보위후원회 조선중앙통신사 초급단체 제2차총회 회의록」(1949년 10월 5일),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자료.

51) 「조국보위후원회 조선중앙통신사 초급단체 제2차총회 결정서」(1949년 10월 5일); 「조국보위를 위한 조선중앙통신사 종업원 쾰기대회 보고서」(1949년 11월 3일); 「조국보위후원회 조선중앙통신사 제3차총회 회의록」(날짜 미상),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자료.

52) 「북조선로동당 강원도당 인제군당 상무위원회 회의록 제61호」(1949년 9월 13일); 「북조선로동당 인제군 민청당조 회의록(50차)」(1949년 12월 20일),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자료. 이 문서들을 보면 당간부들은 농촌지역에서 조국보위후원회 사업이 민청에서 별다른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면서 이를 시정하고 적극적으로 '회원 가입'과 '회사운동'에 임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53) 이는 노동당 인제군당 기록에서 확인된다. 「북조선로동당 강원도당 인제군당 상무위원회 회의록 제61호」(1949년 9월 13일),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자료.

은이들 중 아직까지 민청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모든 젊은이들을 민청에 가입하게 하는 운동을 벌였다. 또한 그들은 청년들 중에서 많은 인원들이 인민군에 자원하도록 고무했다. 조국보위후원회가 결성된 1949년 7월 무렵부터 북한의 선전 주제에는 기존의 레퍼토리 외에 '조선 인민군대에 복무하는 것은 조선청년의 최대의 영예이다', '인민군대의 강화는 조국통일을 보장한다'는 내용들이 추가되었다.<sup>54)</sup>

조국보위후원회가 북한 주민의 내부적 동원에 주력했다면 1949년 6월말에 결성된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은 남북한 주민 모두에 대해 통일의 당위성, 남한체제의 사악성, 북한의 군비증강 필요성, 유엔한국위원단의 불법성을 역설하는 역할을 맡았다. 1949년 9월에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은 대표자들을 결성하여 38선 연선을 시찰해 남북간 충돌 현장을 조사하고 10월 15일 그 결과를 신문에 발표했다. 그들은 1949년 1월부터 9월까지 전체 432회에 걸쳐 남한의 38선 이북 침범사실이 있었으며, 그 모두는 남한측의 일방적 공격의 결과라고 선언했다. 동시에 그들은 남한의 '평화적 인민학살', '유엔조선위원회'의 친미도구화, 반동정부를 강화하는 '미국의 대한원조'에 대해 비난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sup>55)</sup> 남한의 국군측은 11월에 1949년 1월 1일부터 10월 5일까지 북한이 563회에 걸쳐 38선 이남을 침범했다고 발표했나<sup>56)</sup>, 이러한 내용을 북한이 언론에 보도할 리는 만무했다.

북한지도부는 당조직과 사회단체를 통해 주민의 정치적 동원을 진행하는

54) 김용국, 「인민군대의 강화는 조국통일을 보장한다」, 『산업』 1949년 9월호; 김두천, 「인민군대에 복무하는 것은 조선청년의 최대의 영예다」, 『로동자』 1949년 7월호; 오학균, 「조선 인민군대는 평화적 조국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승리의 담보이다」, 『농민』 1949년 10월호. 마지막의 논문은 다음과 같이 그러한 논리를 폈다. "원수들은 자기의 야욕을 채우기 위하여서는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놈들은 어떻게 하여서든지 우리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방해하고 동족상쟁의 전쟁 방법으로 놈들의 반동괴뢰정권을 유지하려고 발버둥치고 있다. 이러한 정세는 우리앞에 우리 인민의 무장력을 더욱 튼튼히 함으로써 놈들의 동족상쟁 도발책동을 여지없이 분쇄하고 적을 일거에 소탕할 수 있게 항상 준비되어 있도록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9쪽)

55) 「38선선무장충돌조사결과에 관한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조사위원회 보고서」, 『노력자』 1949년 10월 15일자.

56) 정병준, 『한국전쟁』, 261쪽.

동시에 내각조직을 통해 전시 동원을 위한 준비작업을 진행시켰다. 내각의 내무성은 예하 내무서들에게 1949년 6월부터 은밀히 전체 국민의 '군사등록사업'을 진행하도록 했다. 비밀로 분류된 공문들이 그 내용을 잘 보여준다. 북한 내무성은 전쟁이 일어날 경우 국민총동원을 대비하기 위해 각급 내무서에 18세부터 30세까지의 모든 남자들이 빠짐없이 신체검사를 받게 하고, 그 결과를 공민증 특기란에 명시하도록 지시했다. 31세부터 50세에 해당하는 남자들은 신체검사는 면제되었지만 군사등록의 대상이었다. 이 신체검사는 '전국민 체력검사'로 위장해 실시했다. 노획된 흥남시 내무서 비밀문서를 통해 보면 내무성은 신체검사 누락자와 군사등록 누락자가 없도록 6월부터 9월까지 반복해서 강조하는 공문을 내려 보냈다.<sup>57)</sup> 각급 내무서 군사등록계장은 전체 대상자의 개인별 등록카드와 신체검사표를 만들어 개인별 신상, 부양가족, 38이남 및 외국 거주 가족란을 기입해 보관했다.<sup>58)</sup> 내무서에 대한 지시에서 계속 '기밀'을 강조하였지만 전국적으로 시행한 이러한 조치들이 새어나가지 않을 수는 없었다. 남한당국과 미 군사고문단은 그들의 정보망을 통해 북한이 전 국민을 '징집'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그것은 엄격한 의미에서 징집은 아니었지만, 전쟁을 예상해 전 국민의 의무적 동원체제를 확립한 것임은 틀림없다.

이러한 북한 노동당과 정부의 선전 및 군사적 동원체제 구축은 완전하지는 않지만 인민들에게 통일의 당위성을 인지시키고 남한에 대한 적개심을 불러일으키는데 어느 정도 성과를 나타냈다. 노동당원들은 북한의 '군사동원'에 호응해 열성적으로 참여하고 이를 주민들에게 선전했다. 그러나 일반

57) 흥남시 내무서장 신상일, 「흥남공비 제55호 각분서파출소장 앞: 군사등록사업 보장의 건」(1949년 6월 12일); 「흥남시서 제7호 각분서 파출소장 앞: 군사등록사업에 대한 지시」(1949년 7월 6일); 「흥남시서 제7호 각분서파출소장 앞: 군사등록사업에 관한 지시」(1949년 7월 6일); 「흥내군 제29호 각분서파출소장 앞: 군사등록계 기요사업에 대한 지시」(1949년 7월 22일); 흥남시 내무서장 김한구, 「흥내군비 제96호 각분서파출소장 앞: 군사적령자미등록자 등록사업에 대하여」(1949년 9월 12일). 마지막 자료에 의하면 여자 중 등록대상은 교환수, 간호원, 타자수 및 기타 기능자 기술자만 해당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자료.

58) NARA, RG 242, Shipping Advice 2010, Box 1, Item 152. 「등록카드」, 「신체검사표」.

주민의 동향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다. 북한 정부가 내부적으로 여론을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북한 사람들은 두 부류였다. 일부는 남한에 대한 적개심에 불타 전쟁을 해서라도 남한 정권을 타도해야 한다는 말을 했다. 연백군 중농 가정의 한 농민은 “평화적 통일방책이 승리하지 못할 것은 환한 일이다. 언제든지 통일은 무력으로만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다른 일부는 전쟁을 두려워하여 이를 회피하고자 했다. 그들은 “지금 평양에서는 인민군들이, 낮에는 청년들이 도망 다니기 때문에 밤에 다니면서 청년들 보고 인민군대에 가라고 한다”는 소문이 있다는 것을 말하며 불안해했다. 선전전을 위해 남한이 비행기를 이용해 뿌린 반복한 체제적 남한 뼈라에 대해서도 일부 사람들은 남한에 대한 적개심을 표시했고, 일부는 무관심했으며, 일부는 북한이 선전뼈라를 뿌리는 미국 비행기를 그냥 놔두는 것을 북한의 허약함의 징표로 보았다.<sup>59)</sup>

한편으로 경찰의 억압 등 사회통제에 기초한 동원체제는 북한의 공산주의체제와 통일을 목표로 한 무장력 강화시책에 대해 반발하는 상당수의 체제 불만자들을 포괄하고 있었다. 박명림은 북한정권에 의해 반동, 무장폭동, 결사, 선전, 테러 등으로 중형을 받은 사람들의 명부를 검토해 그 숫자가 적지 않았음을 밝힌 바 있다. 그는 또한 다만 지주나 부유층만이 반체제 활동을 한 것은 아니며 전 사회계층에 고루 퍼져있었음을 확인했다.<sup>60)</sup> 북한주재 소련대사관의 1949년 연례보고서는 박명림이 제시한 것보다 더 포괄적인 통계를 드러낸다. 소련대사관에 제출된 북한 내무성 정치보위부의 통계에 의하면, 1949년 한 해 동안 반체제 혹은 반정부 사건 등 정치범죄로 검거된 사람은 5,762명(1,279건)에 달했다. 이 중 1,233명(146건)은 테러사건, 816명(48건)은 무장반란, 662명(77건)은 후방교란, 92명(50건)은 반역죄로 검거되었다. 1,624명은 반체제적 선동의 죄목으로 체포되었다. 692명은 미국과 남조선 정보기관과의 연루로 인해 체포되었다. 적지 않은 숫자가 반체제 운동에 가담했음을 보여준다. 5,762명을 ‘사회성분’으로 나누

59) 박명림, 『한국전쟁의 발발과 기원』 II, 842~846쪽.

60) 위의 책, 846~849쪽.

어보면 다음과 같다: 빈농 1,269명(22%), 소토지소유농 1,033명(19%), 중농 675명(12%), 상인 및 투기꾼 501명(9%), 자영업자 489명(8%), 노동자 388명(6%), 부농 75명(1%), 지주 41명(1%), 수공업자 38명(1%).<sup>61)</sup> 1949년 7월에 슈티코프 소련대사는 1949년 1월부터 6월까지의 정치범 통계숫자가 1948년 1년간의 정치범 검거 수자와 거의 맞먹는 정도로 증가한 것으로 파악하고, 이것은 소련군 철수 후 '우익반동'들의 자신감이 높아진 것과 남한측이 반동인원을 북한에 침투시켜 테러와 후방교란을 시도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sup>62)</sup>

슈티코프의 분석은 옳다고 보이지만 그것은 그러한 사건들보다는 약하지만 사회전반에 깔린 체제불만자들의 분위기를 다 말한 것은 아니었다. 이러한 적극적 반체제 행동가들 외에도 1948년 북한정부 수립 이후 전쟁준비에 모든 것을 건 북한체제의 성격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는 '온건 사회주의자'들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재소 교포 과학자 장학수는 소련유학생으로 뽑혀 유학을 준비 중이었던 1950년 3월에 노동당원이었던 그의 형으로부터 북한정권이 인민의 자유를 완전히 빼앗고 당원들을 당의 노예로 만들며 군국주의 방식으로 남한을 통일하기 위해 조직적인 군사훈련과 전쟁준비에 몰두하고 있는 것에 환멸을 느꼈다는 말을 들었다. 그의 형은 노동당에 가입하지 말라는 조언을 했다.<sup>63)</sup> 전쟁준비를 위해 어떤 방법이든 다 동원하는 북한의 관료적이고 하향적 사회주의체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도전하지는 않았지만 실망하는 사람들도 상당수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61) AVP RF Fond 1 Dvo, Opis 6, Papka 9, Delo 4, Ll. 70~71.

62)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 문서와 자료, 1950~53년, 41~42쪽. 1949년 정치범 숫자 5,762명은 그 전 해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1946년에는 90명, 1947년에 1,289명, 1948년에 1,792명이었다. 전현수, 「해방 직후 북한의 과거청산(1945~1948)」, 『대구사학』 제69호(2002년), 16쪽.

63) 장학수, 『붉은별 아래 청춘을 묻고』, 문학사상사, 1990, 165~166쪽.

#### 4. 전쟁 무기·물자의 생산과 수입

해방 후 군대가 전혀 없던 상황에서 군대를 창설해야 했던 북한으로서는 무장에 관한 한 거의 대부분 소련의 호의에 의존해야 했다. 그러나 1946년 7월부터 스탈린의 한반도 정책의 일환으로 일부의 재산 및 공장들이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의 관할 하에 넘어가게 되자 북한은 비록 소련 군정의 후견 아래였지만 자체적으로 국가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가운데서 이미 국가 권력의 장악력을 확실하게 갖춘 김일성의 군사적 관심은 국가 정책과 그에 따른 예산 편성에 큰 영향을 미쳤다. 김일성은 해방 전 항일무장투쟁 과정에서 무기 부족으로 고생했던 경험을 떠올리며 무기의 자체 생산 능력에 깊은 관심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자체 무기생산 능력을 갖고자 하는 김일성의 열망이 컸다할지라도 북한 기술자들의 기술수준은 낮은 것이었다. 복잡한 기계 생산 능력을 갖지 못한 북한에서 시도될 수 있는 것은 간단한 무기체계일 수밖에 없었다. 1947년 처음으로 시도된 것이 그해 9월 김일성의 지시로 시행된 기관단총과 권총 생산시설의 착공이었다. 그 생산라인은 평양의 동쪽인 성천(成川)에 지어진 '평양기계제작소'에 설치되었고, 후에 확장되어 제65호 공장(병기공장)으로 불렸다. 1948년 12월 12일에는 처음으로 기관단총 국가시험 사격행사가 열렸다. 제65호 공장은 1949년 2월에는 박격포, 소총탄, 수류탄, 박격포탄 생산을 위한 생산 규모 확장공사에 들어갔다. 같은 해 10월 31일 김일성은 제65호 병기공장을 방문하여 공장 대표자들에게 '우리는 자체의 힘으로 무기를 만들어 무장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연설을 했는데, 이때 처음으로 북한은 기관단총 양산에 들어갈 수 있었다.<sup>64)</sup> 이 공장의 명칭은 처음에는 '평양기계제작소'라는 명칭을 썼으나, 1949년 6월 18일부터는 3월 1일자로

64) 김일성, 「우리는 자체의 힘으로 무기를 만들어 무장하여야 한다」, 『김일성저작집』 제5권, 297~301쪽.

소급해 산업성 제65호 공장으로 바뀌었다.<sup>65)</sup> 1949년 3월에 소련과 맺은 비밀군사협정에 의해 이 생산시설이 급격히 소련식 생산공정으로 바뀐 것과 관련이 있고, 대형화되는 무기공장의 보안을 위해 취해진 조치일 것이다. 1949년 6월에 발행된 한 공문은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 제65호 공장 종업원들에게는 공민증을 일시 회수보관하고 특별신분증을 휴대하도록 했다.<sup>66)</sup>

이 공장은 시설부터 기술적인 운영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서 소련의 도움을 받아야 했다. 기계들은 모두 소련에서 도입한 자동화된 생산시설이었다. 소련 자료에 의하면 전쟁 전에 북한에 기술지원을 위해 파견된 110명의 소련 기술고문 중 이 공장에서만 55명의 소련군 병기기술자들이 일했다. 1950년 2월까지의 모든 시설들이 양산 체제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2월 1일 현재 82mm 박격포는 170문, 그리고 수류탄(F-1형) 19,684발이 생산되었다. 그 외에도 이 공장에는 120mm 박격포 생산라인, PPSH 기관단총(속칭 따발총) 생산라인, 탄알생산 라인, 박격포탄 생산라인이 갖추어져 있었다.<sup>67)</sup> 이 공장은 1950년 9월 현재 3,000명의 노동자들이 일하는 상당히 큰 규모의 공장이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병기공장은 어떤 돈으로 지어졌는가? 소련의 자료는 이러한 공장 생산 시설은 다른 산업 시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소련 측으로부터의 유상 차관에 의해 지어졌음을 보여주고 있다. 최초 병기공장을 구축할 때의 그 비용에 대한 소련과 북한간의 협상 조건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 없다. 그러나 1949년 3월 17일 모스크바에서 맺어진 경제차관 협정에는 군수공장에 들어가는 비용 역시 책정되어 있었다.<sup>68)</sup> 소련과의 무역에서 '기

65) 산업성 제65호공장, 『통지』(1949년 3월 18일). 이 문서의 내용은 3월 1일부로 종전의 '평양기계제작소'를 '산업성 제65호공장'으로 바꾸며, 공장지배인 직인은 3월 17일자로 새 직인으로 바꾼다는 내용이다.

66) [내무성] 부상 겸 보안국장 박용삼, 보안처장 주치옥, 『내정보보공비 제220호 평특시 및 각도내무부장 앞: 65호 공장 종업원 신분증 소지에 관하여』(1949년 6월 30일),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자료.

67) Bukhtoiarov, "Uchastie...", p.31. 원 사료 출처는, AVP RF, Fond 1 DVO, Opis 6, Delo 5, Papka 18, L. 140.

68) 『한국전쟁 관련 소련극비외교문서 (3)』, 13~15쪽.

계공업 설비'에는 민간 산업기계뿐만 아니라 무기생산에 필요한 플란트와 관련 기계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소련자료에 의하면 1949년 한 해 동안 경제건설을 위해 총 30억 4,000만원의 차관이 들어왔는데, 그중 4억 5,000만 원은 군수산업 건설에 사용되었다.<sup>69)</sup> 이 액수는 예산에 '경제비'로 계상되었겠지만, 사실상 은폐된 군사비의 일부였다. 아마도 그것은 주로 위에 언급한 제65호 병기공장의 건설과 운영에 투입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비용뿐만 아니라 날로 확장되는 조선인민군의 무장과 부대 유지를 위해서 북한의 군사예산은 1949년부터 전체 예산의 절반 이상으로 엄청나게 증액되었다. 북한은 공식적으로 1949년 예산 중 조국보위비(국방비)를 전체 예산의 15.8%로 발표하였으나, 소련대사관 연례보고서에 의하면 이해의 실제 북한군사비가 전체 예산의 52%인 103억 8,460만원이었다.<sup>70)</sup> 북한이 『조선중앙년감』에 '조국보위비'라고 공표한 군사비는 사실은 전체 군사비의 약 1/3에 해당하는 정도였을 뿐임을 알 수 있다. 『조선중앙년감』에 공개된 1949년도 북한 예산에서 총 세출은 197억 2,600만원으로, 그중에서 '조국보위비(국방비)'는 31억원이 배당되어 전체 예산 지출의 15.8%에 해당되는 것으로 공표되었다. 한편 '국가운영비'는 36억 2,200만원이 배정되어 전체 예산 지출의 18.2%에 해당되었다.<sup>71)</sup> 소련대사관 자료에 나타난 북한 군사비 총액을 고려한다면 북한이 공표한 예산에서 '조국보위비'는 다만 군의 운영비에 해당하고, '국가운영비'의 대부분이 군사비로 사용되었으며, 경제건설 중에 포함한 군수산업 시설 투자비용 역시 '경제비'로 계상되어 은폐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액수를 모두 합한다면 어떤 명목으로든 공식 예산안에 포함된 북한 군사비(조국보위비+국가운영비+경제차관 중 군사시설비)는 71억 7,200만원이었다. 그렇다면 소련 자료에 나타나는 103억 8500만원에서 이 액수를 뺀 32억 1,000만원은 어떻게 마련했을까?

69) Bukhtoiarov, "Uchastie..." pp.30~31. 원 자료 출처는, AVP RF, Fond I DVO, Opis 6, Delo 5, Papka 18, L. 91.

70) Ibid., p. 31. 원 자료 출처는, AVP RF, Fond I DVO, Opis 6, Delo 5, Papka 18, Ll. 89~91.

71) 『조선중앙년감: 1950』, 66~67쪽.

일부 액수는 1949년 3월 17일에 모스크바에서 맺어진 '비밀군사협정'에 의한 무기구매 차관에 의해서 지불되었다. 그것은 2억 1,200만 루블(약 8억 5천만원) 규모로 1949년, 1950년, 1951년에 7,070만 루블로 나누어 쓸 계획이었으나 1949년 말에서 1950년 초 북한의 갑작스런 군비확장 때문에 1951년 2월까지의 이 모든 차관들을 앞당겨 끌어 써야 했다.<sup>72)</sup> 일부 액수는 북한이 물물교환의 형태로 무기를 구매한 것이었다. 북한은 1949년 11월부터 50년 2월 사이에 새로운 무기와 탄약을 구매하기 위해 약 5억원(1억 2,000만 루블) 상당의 돈을 쌀과 금, 은, 동, 기타 희귀금속으로 갚기로 했다.<sup>73)</sup> 김일성은 이 무기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1950년 2월과 3월에 희귀금속 탄광노동자들에게 특배를 주면서 생산의욕을 고취했고, 직접 생산 현장을 방문에 노동자들에게 연설함으로써 생산을 고무했다.

일부 액수는 조국보위후원회가 인민들에게 호소해서 모은 '군기헌납기금'에 의해서 충당되었을 것이다. 조국보위후원회는 1949년 11월 2일 비행기, 탱크를 인민의 힘으로 구입해 인민군에게 헌납할 것을 결정하고 '군기기금'을 모금하는 운동을 펼쳤다. 헌납은 도시에서는 주로 현금, 농촌에서는 쌀을 내는 것으로 이루어졌다. 1949년 12월말 현재 2억 8천여만원의 현금, 48,000가마의 쌀이 거두어졌다.<sup>74)</sup> 이 운동은 1950년 봄까지 지속되어 1950년 3월 26일까지 누적 액수로 3억 4,223만원과 쌀 77,600가마(4,656톤에 상당)가 모아졌다.<sup>75)</sup> 북한 정부는 '군기 헌납 운동'을 통해 일부의 무기 구매 대금과 군량미를 마련할 수 있었다. 결국 우리는 북한이 무기구매 대금 중 약 5억원에 해당하는 금액이 쌀과 금, 은, 동 및 희귀금속에 의한 지불에 의해, 그리고 3억원에 해당하는 금액이 인민들로부터 모은 '군기기금'에

72) 『평양의 스티코프대사가 외무상 비신스키에게』(1950년 2월 7일): 『비신스키가 스티코프에게』(1950년 2월 9일): 『스티코프가 비신스키에게』(1950년 3월 9일), 『한국전쟁 관련 소련극비외교문서 (4)』, 46~47, 49쪽.

73) 『스티코프가 비신스키에게』(1950년 3월 9일), 위의 사료집, 49쪽.

74) 조선중앙통신사, 『조선중앙연감: 1950년도판』, 166쪽: 박명림, 『한국전쟁의 발발과 기원』 II, 780~781쪽.

75) Bukhtoiarov, "Uchastie...", p.30. 원 사료 출처는, AVP RF, Fond 1 DVO, Opis 10, Delo 8, Papka 11, L. 77.

의해 해결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소련대사관 연례보고서는 소련으로부터 들여온 무기를 구매하는데 “예산 이외에 북한은 23억 6천만원이 부족했다”고 쓰고 있는데<sup>76)</sup>, 이 금액은 이미 우리가 보았던 32억원 중에서 현물, 군기기금에 의해 마련한 8억원을 빼고 남은 액수였던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인민들에 대한 호소에 의해서 모은 ‘군기기금’으로는 마련하고자 하는 무기 구매 대금의 극히 일부분도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1950년 1월 30일 스탈린이 김일성의 ‘무력에 의한 통일’안을 지원할 의사가 있다는 전문을 보낸 직후, 소련측은 전쟁에서 압도적인 우세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기계화 장비와 3개의 추가적인 사단 편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했다. 그러나 소련이 이를 무상으로 지원하겠다는 약속은 없었다. 김일성은 이러한 군비확장을 위해 소련측과 ‘국가 공채’를 발행해 군비확장 자금을 마련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스탈린은 2월 9일에 북한의 공채 발행계획을 승인해주었다.<sup>77)</sup>

북한은 이 국채를 기채할 때 인민들에게는 그것이 ‘경제 발전’을 위한 것이라고 속여야만 했다. 공채 발행의 의의를 선전하기 위해 수많은 선전원들이 움직였고, 북한의 문화선전성은 경제 건설을 위해 인민들이 국가 공채를 사는데 동참해야 한다는 팸플릿을 찍어내 선전원으로 하여금 이를 많은 인민들에게 적극 호응하도록 했다.<sup>78)</sup> 북한 정부는 ‘공화국 경제 발전’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10년의 상환기간을 설정한 국채 15억원 어치를 1950년 5월에 발행했다. 이에 대한 호응은 매우 높아서 발행 2일 후에는 13억 7천

76) Ibid.

77) 『비신스키가 스티코프 대사에게』(1950년 2월 9일), 『한국전쟁 관련 소련군비외교문서(4)』, 47쪽.

78) 북한은 국가공채의 의의를 인민들에게 선전하는데 사용할 많은 팸플릿을 제작 배포했는데, 그 내용에서는 이 돈들이 일반 산업시설 확장에 사용된다고 역설하고 있다. 로동당 중앙본부 선전선동부, 『공화국북반부의 장엄한 인민경제건설과 공채발행의 의의-강사들에게 주는 자료』(평양, 1950); 로동당중앙본부 선전선동부, 『조선인민들은 조국의 부강발전과 인민의 복리를 위한 국가공채를 발행할 것을 열렬히 환영하고 있다』(평양, 1950).

만원 어치가 매각되었다. 7일후인 5월 22일까지는 예정 액수를 10억원 초과한 25억 473만원의 공채가 팔렸다. 25억원에 도달하자 더 이상의 국채발행을 중지했다.<sup>79)</sup> 이 공채 판매는, 일부는 처음에 현금을 내고, 일부 대금은 차후에 지불하겠다는 예약제였기 때문에 당장 모든 액수가 국가에 들어온 것은 아니었고, 지방의 당과 인민위원회는 이의 징수를 위해 그 후에도 인민들과 공채 미납 대금 납부 문제로 실랑이를 벌였던 것으로 추측된다.<sup>80)</sup> 아마도 이때 공채 발행으로 인한 수입은 전쟁 발발 이후인 1950년 8월에 소련으로부터 추가적으로 공급된 150대의 탱크와 120대의 항공기 및 기타의 군사 장비 구매 대금으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sup>81)</sup> 결국 북한은 무기 구매에 필요한 금액을 충당하기 위해 예산외의 공채 발행으로 이를 해결했다.

무기는 물론 전쟁 수행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지만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식량, 탄약, 연료의 확보 문제였다. 이미 상당한 정도로 현대화된 군부대를 가진 인민군의 작전을 위해 이러한 전쟁 수행 수단을 확보하는 일은 중요시할 문제였다. 이 면에서 북한은 무기체계의 준비에서처럼 약체인 국군을 상대해서 속전속결전을 치를 수 있는 정도의 물자를 확보하는데 신경을 썼다.

먼저 가장 중요한 식량 문제를 보자. 우리는 북한이 전쟁 수행을 위해 얼마나 많은 양의 군량을 확보했는가에 대한 데이터를 확보할 수는 없다. 그러나 김일성이 전쟁 중인 1951년 4월 17일 한 연설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전쟁 전에 마련하여 놓았던 전략물자의 예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79) 공채 모금 내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조선중앙통신사, 『조선중앙연감: 국내편 1951~1952』(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53), 366~367쪽 참조.

80) 철원군 어운면 노동당부의 한 문서(절대비밀)는 처음에 공채를 예약한 것과는 달리, 그 대금 징수가 아주 미약한 것이 나타나는데, 초기에 인민들이 보인 호응은 사실상 노동당원들과 선전원들의 강권에 의한 것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북조선로동당철원군어운면당부, 『비망록(절대비밀)』,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자료.

81) 소련학자 키르쉰(Iu. Kh. Kirshin)의 자료에 입각한 다음의 논문을 참조. 신범식, 「소련의 북한 군사지원」, 『한국전쟁사의 새로운 연구』 1권,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1, 614쪽.

전선부대들에 후방물자를 보장하는 것이 큰 문제로 나서지는 않았습다”고 말한 것으로 보면<sup>82)</sup> 전쟁 전에 군수용 예비 식량을 확보하는데 상당한 준비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전쟁 전 인민군의 식량 준비는, 소련고문관들의 말에 따르면, “거의 완벽하였다.” 평양의 중앙기지에는 30일분의 양식을 보유하고 있었고, 전방 창고에는 30일분, 그리고 부대에는 5일간의 식량을 보유하고 있었다. 추가적으로 양식을 조달하지 않아도 18만 8천명의 인민군이 두 달간의 전투를 치를 수 있는 양이었다.<sup>83)</sup> 한편 북한 포로의 심문 결과에 의하면 조선인민군은 전쟁을 준비하면서 남한 지역 작전에서 군에 필요한 식량의 1/3을 남한 현지에서 조달한다는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여겨진다.<sup>84)</sup> 이러한 조치들은 미국이 참전하지 않는 상태에서 남한의 국군과의 전쟁만을 가정할 때는 아마도 충분한 양이었을 것이다.

피복과 기타 보급품 역시 단기 작전을 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 정도의 보급량을 갖고 있었다. 하기 피복에 있어서는 약 10%의 예비량을 확보하고 있었다. 그 외 취사 기구, 마구 등은 편제에 의해 전부 보급되었다.<sup>85)</sup>

유류의 공급도 전쟁의 지속을 위해서는 중요한 것이었다. 미군 정보에 의하면 전쟁전 북한은 원유를 전량 소련으로부터 수입했지만, 원산에 대규모 처리 능력을 갖는 정유공장이 있어서 군에 필요한 전체 유류의 80%를 이 정유공장을 통해 공급받을 수 있었다.<sup>86)</sup> 유류도 식량의 보급체계와 유사하게 중앙창고, 전방창고, 그리고 부대 소유 분으로 나누어져 있었다. 평양과 문천의 2개의 중앙 창고와 3개의 전방창고를 운용하였고, 창고에 저장할 수 있는 규모는 34,600톤이었다. 항공유, 자동차유, 등유, 디젤유를 포함하여 중앙 창고들에는 약 6,000톤, 전방 창고들에는 약 1,500톤, 그리

82) 김일성, 「장기전에 대처한 후방보장대책을 철저히 세우자」(조선인민군 후방총국장조 상학 참가자들 앞에서 한 연설, 1951년 4월 17일), 『김일성전집』 제13권, 342쪽.

83) S. S. Lototskii and N. L. Volkovskii(eds.), *Voina v Koree, 1950~1953*(Sankt-Petersburg: Poligon, 2000), p.745.

84) Charles R. Shrader, *Communist Logistics in the Korean War*(Westport, Connecticut: Greenwood Press, 1995), p.64.

85) *Voina v Koree, 1950-1953*, p.753.

86) Shrader, *Communist Logistics*, p.61.

고 각 부대에 500톤 정도를 보유하여 약 8,000톤을 확보하였다.<sup>87)</sup>

탄약의 마련은 일부 생산 가능한 박격포탄과 수류탄, 경기관총 탄약, 지뢰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야포와 전차 포탄은 소련으로부터의 공급에 의존해야 했다.<sup>88)</sup> 앞서 살폈듯이 소구경 화기 탄약과 박격포 포탄은 1950년 초에 비로소 양산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지만, 그것도 소요량의 극히 일부만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었다. 전쟁 전의 탄약 비축량에 대한 통계는 없다. 그러나 탄약 역시 식량, 유류의 경우와 유사하게 약 60~65일의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정도의 예비량을 확보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인민군은 현대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보유량은 비교적 낮은 편이었다. 전쟁 전에 인민군은 전체 지프 390대, 트럭 1,113대, 포병 견인차량 863대, 특수자동차 193대를 갖고 있었다.<sup>89)</sup> 이는 사단 당 병력 혹은 물자 수송용 차량이 약 100여대에 불과한 정도로, 결국 보병사단의 병력 이동은, 철도이동이 가능한 경우를 제외한다면, 전적으로 도보에 의존해야 하는 형편이었다. 따라서 기동력에는 한계가 지어질 수밖에 없었다. 북한은 1949년 4월 29일에 국가계획위원회가 정부 부처들에게 그들이 소유한 모든 자동차의 숫자를 파악해 보고하게 함으로써<sup>90)</sup> 전시 동원 가능한 차량을 파악해두었고, 1950년 6월 22일에는 은밀하게 내무성 시설처가 민간 차량들을 징발하여 일부 군부대에 공급함으로써 부분적으로 군 보급부서의 운송을 지원했다.<sup>91)</sup> 그러나 민간의 보유 차량대수가 본래 적었기 때문에 인민군의 기동력을 높이는 조치는 되지 못했다.

요약컨대 북한은 실로 전쟁 준비를 위해 다양한 수단으로 전쟁 준비자금을 확보했다. 일부는 예산으로, 일부는 '군기 헌납 기금'으로, 일부는 금,

87) *Voyna v Koree, 1950~1953*, pp.748~749.

88) Shrader, *Communist Logistics*, p.65.

89) *Voyna v Koree 1950-1953*, p.764.

90) 국가계획위원회 위원장 정준택, 부위원장 김두삼, 「외무성 앞: 자동차조사에 관하여」(1949년 4월 29일).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자료. 이 공문은 외무성 앞으로 보낸 것이지만, 공문의 내용에 각도(各道)에 소속한 예하 부서를 언급하는 것으로 보아 다른 내각 부서에도 같은 내용의 공문이 발송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91) [내무성 시설처] 운수과, 「비서류철(秘書類綴)」(1950), NARA RG 242, Box 45, Document No. 200991.

은, 동 및 기타 희귀금속의 채굴에 의한 현물로 자금을 마련했다. 김일성은 예산외로 비밀군사협정에 의한 군사차관, 국가 공채 발행 등 어떤 방법이든 전쟁의 성공을 위해 매진했다. 이러한 자금을 통해 그는 소련으로부터 유상차관과 직접 구매에 의해 많은 수의 탱크, 항공기, 함정, 군용 오토바이, 고사포 및 화포를 수입했다. 특히 많은 물량이 1949년 11월, 1950년 3~4월에 비밀리에 북한에 들어왔고, 수입된 무기들은 5월말까지 모든 부대들에게 공급될 수 있었다.

## 5. 결 론

지금까지 논의에서 명백하게 드러나듯이 전쟁 전 북한 지도부는 1948년 말 이래 전쟁에 의한 무력통일안과 남한 빨치산 봉기를 통한 대한민국 체제 전복의 두 가지 통일방책을 놓고 내부 논의를 거쳤으며 결국에는 양자를 적절히 배합하는 배합전략을 실현하기 위해 은밀히 전쟁에 대비한 준비를 했다. 처음부터 김일성, 최용건, 강건 등 이른바 만주빨치산파들은 무력통일안을 중심으로 남노당 빨치산의 활동을 배합하고자 했고, 박헌영의 남노당 세력은 남한 빨치산 활동을 중심으로 남한체제 전복을 기도하되 북한군이 이를 지원하는 전략을 선호했다. 1949년 3월 김일성과 박헌영의 모스크바 방문 시 스탈린이 선제 무력공격에 대해 이것이 시기적절하지 못하며 남한의 선제공격이 없는 한 전쟁은 승인할 수 없다고 하자 김일성과 박헌영 등 북한지도부는 남한빨치산을 지원하면서 동시에 전쟁준비를 비밀리에 진행시키는 방향으로 나갔다.

1949년 한해 동안 북한지도부는 매우 은밀하게 인민동원체제를 강화해 갔으며 군비확장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과 물자를 비축하는데 주력했다. 노획된 북한문서들과 구 소련문서를 통해 볼 때 북한지도부는 북한이 먼저 남한을 무력침공 한다고 할 경우 '인민'들이 이에 반감을 갖을 것임을 우려

했다. 따라서 그들은 미국과 남한으로부터 위협을 막기 위해 청년들이 인민군에 입대하거나 직장에서 군사훈련에 적극 임해야 된다고 선전함으로써 '인민'을 속여야 했다. 또한 '전국민체력검사'라는 명목으로 전쟁에 동원할 대상자의 신상과약과 함께 군사등록카드를 만드는 작업을 내무서들이 담당하도록 했다. 노동당과 조국보위후원회 그리고 민청, 여맹, 농맹 등 모든 사회단체들은 주민들이 국가시책에 호응하도록 각종의 회합과 선전물들을 통해 선전 선동하는데 힘을 쏟았다.

이와 함께 북한은 비밀리에 전쟁 비용과 물자를 비축하기 위해 인민들을 기만했다. 특히 주목할만 한 점은 전쟁 무기들을 소련으로부터 구매하는데 필요한 국채를 주민들에게 판매하면서 그것을 '경제차관 도입을 위한 것'이라고 속였다. 뿐만 아니라 군비확장과 전쟁자금 마련을 은폐하기 위해 실제 국방비는 국가예산 상 국방비 이외의 다른 항목 아래 은폐한 채 축소해 발표했다.

선전, 선동, 강제, 은폐, 기만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한 북한의 전쟁준비는 남한과 미국의 이목을 속임으로써 인민군의 기습남침 성공에 일조했지만 인민의 기만에 입각한 그러한 전쟁준비는 전세가 북한에 불리하게 변했을 때 많은 주민들과 상당수의 노동당원이 북한체제에 등을 돌리게 되는 부메랑이 되었다. 북한은 식량, 유류, 탄약, 피복 등 인민군이 약 2개월 정도 작전을 시행하는데 충분한 군수품을 마련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 이상으로 전쟁이 장기화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대비하지 못했다. 동족간 전쟁에 동원되고 전쟁 물자 비축을 위해 고통을 감내해야 했던 많은 수의 북한 주민과 십수만의 노동당원들이 인천상륙작전 이후 북한체제가 급격히 위기에 빠지게 되었을 때 북한체제에 등을 돌렸다.

(원고투고일 : 2011. 4. 1, 심사수정일 : 2011. 4. 25, 게재확정일 : 2011. 4. 29.)

주제어 : 6·25전쟁, 한국전쟁, 김일성, 박헌영, 동원, 군사비, 군수물자, 65호 공장, 군사차관

<ABSTRACT>

North Korea's Unification Strategy Discussion and War  
Preparation after the Establishment of Government  
- From September 1948 to January 1950 -

Kim, Kwang-soo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plore how unification strategies were discussed among chief leaders in North Korea and how preparations for war were made along lines of these discussions during the period between the establishment of the North Korean regime and the outbreak of the Korean War. So far, the main academic debates about the war have been mainly on the origins and causes of the War. Based on the Soviet archive materials partially opened in the 1990s and "the captured North Korean Documents" which had not received much attention, many researchers have focused on the relations between North Korea and the Soviet Union surrounding the war and have made a long debate about who was the leader in determining the War. By contrast, researches on the unification strategy discussions and the mobilization for the War made within North Korea have not been conducted enough. For example, how the North raised the war fund and prepared war resources and materials before the starting of the war has never been studied. Furthermore, the relations between the unification strategy discussion and the actual ideological and material mobilization have not been identified. This paper is an attempt to fill the gap in historical knowledge on these subjects, based on a variety of historical source and personal testimonies.

First of all, it should be noted that North Korea's strategy discussions

for unification was made almost simultaneously with the establishment of the regime. The leadership of the Government declared the “complete reconstruction of the country” and “national unification” as their policy priority among the new government’s political principles, right after establishing their government in September 1948. In addition, the Labor Party determined the reunification of North and South Korea and the extension of North Korea’s system to the whole country (both Korea) to be their top priority. However, opinions of the concrete methods of unification were divided between the leading groups. The Manchurian Partisan faction including Kim Il Sung, Choi Yong-Gun, and Kang Gun insisted the unification through the Army’s invasion of the South should be put first and that the South Labor Party’s partisan activities should assist this, while the South Labor Party faction including Park Hun Young claimed the South Korean partisans should overthrow the ROK mainly through the people’s uprisings and that North Korea just aid this. During his official visit to Moscow in March 1949, Kim Il Sung suggested the unification by armed force to Stalin, but Stalin refused flatly to approve this by pointing out the unfavorable international situation and the agreement with the United States on keeping the 38th latitude division. He mentioned that if the South attacked first, the North’s counterattack could be allowed but the North should not make a preemptive attack on the South. After this, Kim Il Sung several times urged Stalin to approve his proposal of the unification by armed force but could not get the consent before the end of January 1950. Under these circumstances, Kim Il Sung was establishing the system of mobilization secretly having a war in mind, while supporting the South Labor Party’s partisan activities.

Throughout the year 1949, the North leadership was making efforts very secretly to strengthen the mobilization system of the people and also putting time and energy on raising the fund to increase armaments and reserve war materials. The North Korean leadership presumed that the people of North Korea would have aversion on them if the North Korea invaded the South Korea first. Therefore, they were to deceive the people

by propagandizing that young people should enlist in the military or be trained in the workplace to prevent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from invading the North. Also, under the name of 'the national physical fitness test,' each department at all levels of the government was in charge of identifying the population to be mobilized to a war and making the military registration card. The Labor party, the Defensive Committee for Fatherland, and all the social organizations such as Democratic Youth's Union, Women's Union, and Farmers' Union gave it their best shot through various meetings and brochures to incite the people to respond to this national policy.

Furthermore, the North Korean leadership deceived the people to secretly accumulate funds for the war. In order to raise capital to purchase weapons of war from the Soviet Union, they sold government bonds to residents by making an excuse that the money was necessary for "loans for 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Also, in order to conceal their armament expansion and war fund raising, they announced only a portion of the actual defense budget as "Defense Fund for the Fatherland (National Defense Budget)" and hid the remaining funds into the other budget items. In 1949, the "Defense Fund for the Fatherland" was announced to be 3.1 billion won, 15% of the total expenditure 19.7 billion 26 million won, but the actual military spending amounted to 7.1 billion won. Besides, the money collected from the people in the name of 'donation fund for military equipments,' the loans of about 850 million won by barter from the Soviet Union, and 2.5 billion won collected for economic development in the name of national bonds were added to this military budget. Therefore, North Korea's actual military expenditure in 1949 amounted to 10 billion 384 million 600 thousand won.

At the same time, through various means, North Korea prepared enough war materials for People's Army to carry out a war for two months with no difficulty. These were partly from the loans and partly from the people's contributions in the name of 'voluntary fund for military equipment.' Thus, North Korea was able to stockpile supplies needed to sustain a short term

war for duration of 2 months, such as food, fuel, ammunition, clothing, etc. However, it ran short of provisions for a longer term war.

Key Words : the Korean War, North Korea, War Preparation, Unification Strategy, Mobilization, Military Budget, *Kim Il Sung*, *Choi Young Gun*, *Kang Gun*, *Park Hun Young*, Military Budget

# 6·25전쟁 초기 장사상륙작전의 전개과정과 성격\*

양 영 조\*\*

1. 서 언
2. 유격대의 편성과 훈련
3. 장사상륙작전 계획과 준비
4. 장사상륙작전 전개과정
5. 결언-장사상륙작전의 성격

## 1. 서 언

1950년 9월초 유엔군사령관 맥아더 장군은 전세를 일거에 역전시킬 인천 상륙작전을 한창 준비하고 있었다. 그러나 당시 동부전선을 방어하던 한국군 제1군단을 포함하여 낙동강방어선 일부가 돌파될 위기를 맞고 있었다. 특히 한국군 제1군단 예하의 국군 제3사단이 구룡포로 해상 철수한 후 포항 남쪽에서 북한군 제5사단과 대치하였고, 포항 서쪽의 안강 지역에서는 수도사단 예하부대들이 북한군 제12사단에 맞서 분전하고 있었으나 경주마저

\* 이 글은 2009년 6월 22일 경북 영덕군과 장사상륙참전유격동지회가 공동 주관한 『장사상륙작전 학술세미나』(한국언론재단 프레스센터)에서 발표한 글을 일부 보완한 것이다.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책임연구원

위태로운 상황이었다.

이때 육군본부는 포항지역 방어선의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1개 대대 규모의 유격대를 해상으로부터 장사동 해안에 투입할 계획을 수립하였다. 육군본부의 계획은 유격대대를 투입하여 “한국군 제3사단이 포항 남쪽에서 공격을 개시할 때, 적의 후방을 교란하도록 한다”는 것이었다.<sup>1)</sup> 장사 부근의 지형적인 특징은 동해안 포항 북쪽 약 25km 지점에 위치한 좁은 해안이고, 서남북의 삼면이 산악으로 둘러싸인 분지형태라는 것이다. 장사 남쪽에 위치한 지경리 고지와 북쪽의 부흥리 고지는 해발 200m로서 당시 북한군이 방어진지를 구축하고 있었다.

장사상륙계획은 당시 한국군의 작전을 통제하던 유엔군사령부 지휘계통으로 부산에 있는 한국 해군의 미군 수석 고문관 루시(Michael I. Luosey) 중령에게 지원 지시가 내려질 만큼 유엔 해군과 사전에 긴밀하게 협조가 이루어진 작전이었다.<sup>2)</sup>

이 작전이 계획될 때 서해안에서도 유사한 작전이 전개되고 있었다. 즉 1950년 9월 12일 밤 전북 군산 해안에 미 육군의 엘리 대령이 지휘하는 미군과 영국군 연합상륙부대가 인천상륙작전을 기만하기 위해 양동 상륙작전을 감행한 것이다. 이 작전은 상륙돌격의 일환인 것처럼 북한군을 기만하기 위해 군산 해안정찰까지 시도한 양동작전이었다. 그러나 상륙부대가 상륙하자마자 북한군에게 노출되어 위기에 처하게 되었고, 지원요청을 받은 유엔 함대와 항공기가 출동하여 북한군을 제압하였다. 결국 군산상륙부대는 3명의 사상자를 내고 13일 새벽 특별한 성과 없이 철수하고 말았다.<sup>3)</sup>

1) Roy E. Appleman, *South to the Nactong, North to the Yalu*. USGPO, 1961, p.568.

2) Walter Karig, Malcolm W. Cagle and Frank A. Manson, *Battle Report: The War in Korea*(New York: Rinehart, 1952), pp.211~222. 최초에는 미 제8213특공중대에게 상륙작전의 임무가 부여될 예정이었으나 국군 제3사단으로 변경되었으나 제3사단도 여유가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밀양에서 훈련받고 있는 유격대를 선정했다고 했다. Ed. Evanhoe, *Dark Moon: 8th Army Special operations in the Korean War*(Annapolis: Naval Institute Press, 1955), pp.25~27; 조성훈, 『한국전쟁시 유격전사』, 2003, 군사편찬연구소, p.96. 이 자료 이외에도 2009년 10월 1일자 MBC에서 제작 방영한 「장사상륙작전 다큐멘터리」에서의 한국군 및 미군 참전자 및 관련자 인터뷰 내용도 참조가 된다.

3) Walter Karig, *Battle Report: The War in Korea*, pp.211~212.

이 무렵 대부분의 유엔 해군의 함정들은 인천상륙작전을 위해 인천방면으로 투입되었지만, 일부의 화력지원함정들이 동서해안의 전선부대를 지원하는 동시에 인천상륙을 기만하기 위한 작전을 실시하고 있었다. 서해안기동전대(앤드류스 소장)와 동해안기동전대(하트만 소장)가 각각 동서해안에 함포사격을 집중하였다. 동해안 하트만 제독의 함정들은 9월 14일~15일 삼척 일대를 집중적으로 포격하였으며, 특히 15일 한국해역에 최초로 도착한 미조리(Missouri)함이 헬레나함과 브러쉬함에 합류하여 16인치 함포로 삼척 일대의 도로와 집결지, 보급소 등을 강타하였다.<sup>4)</sup>

본고에서는 인천상륙작전을 성공적으로 기만하고 안강-포항 일대의 한국군 제1군단의 위기를 타개하는데 크게 기여한 장사상륙작전의 전개과정과 성격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관해서는 몇 편의 연구들이 있으나, 부대편성과 명령, 그리고 상륙작전 전개과정에 있어서 많은 편차를 보이고 있다.<sup>5)</sup> 따라서 본고에서는 기존 연구와 1차 자료 및 참전자들의 증언 등을 기초로 하여 장사상륙부대의 편성과 훈련, 상륙작전의 전개과정, 그리고 상륙작전의 성격 등 문제를 분석하고자 한다.

## 2. 유격대의 편성과 훈련

### (1) 유격대의 부대 편성

6·25전쟁이 발발한 직후 전황이 급격히 악화되어 수도가 대구로 이전되

4) 6·25전쟁에서 참전하여 활동한 미조리(Missouri) 함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함정 중의 하나이다. 미조리함은 5년 전 일본의 항복을 받기 위해 도쿄만에 머물러 있었고, 5주전 순항훈련 중 1950년 9월 15일 동해안에 도착하였다. Walter Karig, *Battle Report: The War in Korea*, p.244.

5) 해군본부 전사편찬감실, 『해군사』 제1집, 해군본부, 1954; Walter Karig, *Battle Report: The War in Korea*;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3권, 국방부, 1970;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 전투사: 인천상륙작전』, 국방부, 1983; 육군본부, 『한국전쟁과 유격전』, 육군본부, 1995; 육군본부 『한국전쟁 시 학도의용군』, 1994; 조성훈, 『한국전쟁의 유격전사』, 군사편안연구소, 2003.

자, 많은 사람들이 자원하여 참전하였다. 특히 대구로 피난 온 전국의 많은 학생들이 조국을 지키고자 자발적으로 참전을 지원하였다. 전쟁 전 기간 가운데 이 시기가 가장 많은 학도의용군들이 참전을 지원하여 활동하였다. 전쟁초기 한국군은 병력이 절대 부족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유격대의 편성은 이들 학도의용군의 지원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었다. 통상 육군본부 정훈감실이 수천 명의 학도기간대원들의 자원을 기초하여 유격대 편성을 지원하거나 협조하였다.

전쟁 초기 유격전의 필요성은 최초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 먼저 제기된 바 있었다. 1950년 9월 15일 인천상륙작전 이전인 8월 초에 이 대통령은 유엔군사령관 맥아더 장군에게 북한군 후방에서 상륙작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내면서 많은 한국청년들이 싸울 의사가 있으며, 심지어 유격대원으로 활용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sup>6)</sup> 이에 개전 직후 임명된 육군 총참모장 정일권 소장도 이 대통령의 발언 직후 예하부대에 유격대를 편성하도록 지시했다. 그는 유격대를 편성하여 신속하게 북한군 후방에 침투시켜 동부전선의 포항지구에서 북한군의 공세를 차단할 것을 강조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한국군 내에는 다양한 형태의 유격대가 편성되기 시작하였다. 즉 육군본부 직할 유격대, 일선 부대 유격대, 낙오병 등으로 편성된 유격대 등 여러 형태의 유격대가 편성되었다.<sup>7)</sup> 육군본부는 적의 남진을 지연시키기 위하여 후퇴하는 정규군의 병력을 정비 및 재편하는 한편 유격대를 편성했다. 유격대의 창설 시기는 전세가 매우 어려웠던 전쟁초기 북한군의 남진시기 주로 편성되었으며, 유격대원들은 모두 단기간 작전을 위주로 하고 북한군 후방에서 조직을 확대하여 장기적으로 유격전을 전개하지는 않았다.

전쟁 초기 유격대는 대체로 육본 직할 유격대와 육본 독립 유격대로 구분된다. 먼저 육본 직할 유격대로는 유격사령부, 을지병단, 결사유격대, 제

6) 「이승만 대통령이 맥아더 장군에게」(1950.9.9), 『대한민국사료집』 제29집, 국사편찬위원회, pp.339~340.

7) 조성훈, 『한국전쟁의 유격전사』, p.81.

9172부대 등이 있다. 유격사령부 예하 유격대는 북한군 후방을 교란하기 위한 부대라기보다는 패잔병과 좌익 빨치산에 대한 토벌작전을 위한 부대로 북한군 유격부대에 대치한다는 의도에서 편의상 부여한 수준이었다. 육본직할 유격대대는 6개 대대로 편성되었으나, 각 대대가 일시에 편성된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임시로 창설된 후 1950년 10월초 유격사령부가 창설된 것이었다.

유격사령부는 사령관이 전 청년방위군 고문단 김관오 대령, 참모장이 전 선호 대령이었으나 조직이 완전하게 편성된 상황이 아니었다.<sup>8)</sup> 김관호 대령은 중국 군관학교인 운남강무당을 졸업한 후 장개석 국민당군에서 대령까지 진급하였고, 참모장 전성호 대령은 일제시기 독립군의 하나인 북로군중대장을 역임했다. 이들의 편성은 유격전의 경험을 고려한 것이었으며, 이들을 통해 훈련과 장비가 부족한 대원들을 효율적으로 지도하도록 한 것이었다.<sup>9)</sup>

한편 육본 독립 유격부대로는 유격총사령부 예하 제1, 제1유격대대가 있었다. 유격대총사령부(최윤동 의원)는 거의 이름뿐인 사령부에 지나지 않았으나 병력을 모집하여 유격대를 편성하거나 육군본부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sup>10)</sup> 1950년 8월 초순 육군본부 작전국장 강문봉 대령은 작전계장 방원철 소령에게 예비 병력을 동원하여 유격대를 편성하라는 지시를 하달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 편성된 부대가 육군 독립 유격대대였다.<sup>11)</sup>

육본 독립 제1, 제2유격대대는 육본직할 유격대대와는 달리 육군 정훈감실의 협조로 조직된 학도기간대원 가운데 일부가 북한군 후방에 침투시킬 유격대로 육본 독립대대로 편성된 것이었다. 이들은 유격총사령부 예하로

8) 육군본부, 「특별명령」 제191호(1950.9.18).

9) 조성훈, 『한국전쟁의 유격전사』, pp.85~86.

10) 하명윤, 『내 생애의 여적』, 2002, p.59. 일부 참전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밀양에 유격총사령부(사령관 최윤동)가 있었다고 증언하고 있으나, 자료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다. 이것은 육군 직할 유격사령부(원주)와는 구분되는 것으로 보인다. 최윤동 의원은 최세창 장군의 부친으로 일제시기 독립운동을 했고 제헌국회의원을 역임하였다. 조성훈, 『한국전쟁의 유격전사』, p.97.

11) 방원철, 『무명용사의 열혈전기실기』, 1958, pp.243~244.

편성되었으며 육본 작전교육국장 강문봉 대령 명의로 조직된 유격대였다.

이들 중 독립 제2유격대대는 육본 정훈감실 문이정 소령이 편성한 부대였다. 문 소령이 경상북도 학도기간대를 창설하여 대구지역 중학교 3학년 이상 학도호국단 간부를 중심으로 학생들을 모집하여 편성한 것이었다. 대원들 가운데에는 일부 피난민도 있었으나 90% 이상이 경북지역 출신 학생들이었다. 때문에 대원들은 자신의 부대를 학도병부대로 인식했다.<sup>12)</sup> 이 부대는 영천 금호초등학교에 주둔했다가 잠시 대구에서 훈련을 한 후 8월 20일 밀양으로 이동하여 독립 제2유격대대로 편성되었다. 제2유격대대는 얼마 후 9월 8일 동해지구경비사령부 제1경비대대로 재편되어 9월 하순까지 전술교육을 받았으며, 밀양에서 부산까지 기차로 이동하였다. 그 후 이들은 10월 8일 부산항에서 강원도 죽변 지역에 상륙하여 주변 일대의 공공시설을 경비하는 임무를 수행하였다.<sup>13)</sup>

다음으로 독립 제1유격대대는 육본 계엄민사부 동원과장 이명흠 대위가 편성한 부대였다. 이 부대는 이 대위가 대구역 광장에서 학생들을 모집하여 창설한 유격대였다. 이들은 대구역 광장에 나가 적극적으로 모병운동을 전개하여 많은 학생들을 모집하였다. 독립 제1유격대대의 편성에는 이명흠 대위의 역할이 컸으므로 먼저 그에 관한 이력을 살펴보기로 한다.

이명흠(후에 이종훈으로 개명) 대위는 육사 제5기생으로서 전쟁 전에 소위로 임관하여 전방에서 소대장, 중대장을 마친 후 국방부 내에 정훈국이 창설될 때부터 정훈업무에 종사하기 시작하였다. 전쟁 직전 서울시내 형무소에 수감 중이던 사상범과 이북에서 월남한 젊은이들을 한 곳에 모아서 교화하는 임무를 수행하기도 했다. 전쟁이 발발한 후에는 1950년 8월경까지 대구를 중심으로 군·관·민의 사기양양, 적군의 귀순공작 등 선무공작을 주로 전개하였다. 당시에 그는 국방부 정훈국 '대적공작대장'(對敵工作隊長)이라는 직책을 수행하면서 유격부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12) 이 부대의 단대호는 참전자 증언과 자료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여기에서는 하명운의 증언내용에 따라 제2유격대대로 기술한다. 하명운, 『내 생애의 여적』, p.59.

13) 육군본부, 『호국용사 6.25참전 전투수기』 4, 육군본부, 2000, p.340.

되었다. 특히 그는 북한군이 전면공격 전에 항상 유격대를 후방에 침투시켜 아군을 교란시킴으로써 국군과 유엔군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즉시 유격대 조직의 필요성을 정훈국장 이선근 대령에게 건의하였으나 여의치 못하였다.

그러던 중 이 대위는 보직이 변경되어 육군본부 계엄민사부 동원과장으로 모병 임무를 수행하게 되었다.<sup>14)</sup> 그는 계속하여 유격대 편성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육본 작전교육국장 강문봉 대령에게 이를 건의하였다. 그는 마침내 아군이 낙동강전선에서 위기를 맞고 있던 1950년 8월 중순경 유격대를 조직하도록 육본으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이 대위는 최초 강척모(후에 함북 지사)의 대한애국단 단원 몇 명을 인수하여 이들과 함께 대구시내에서 대원들을 모집하였다.<sup>15)</sup> 이 대위는 대구역 앞에 있는 광장으로 나가 모병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는 인파로 북적대는 틈바구니 속에서 마이크를 잡고 3일 동안 밤낮없이 “조국을 우리 학생의 힘으로 지키자”고 외쳤다. 당시에 대구 계성중학교 3학년(19세)으로서 자원했던 강정관(현 유격동지회 부회장 겸 대구 지회장)은 자신의 유격대 참여 동기와 경위를 다음과 같이 회상하고 있다.<sup>16)</sup>

당시에 학교는 휴교 중이었다. 매일 학교에 나가서 지키고는 있었으나 전세는 더욱 아군에게 불리해지는 듯이 보였다. 그래서 어린 마음에서도 나라 없는데 학교가 무슨 소용이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생각 끝에 자원입대를 결심하고 유격대 모병소를 찾아갔으나 너무 어렵다고 하면서 학교장의 추천서를 요구하였다. 당시 계성중학교 신태식 교장 선생님을 찾아뵙고 나의 생각을 말씀드리니까 기꺼이 추천서를 써주시기에 이를 받아들고 곧바로 모병소로 다시 가서 입대수속을 하였다. 나는 무남독녀의 몸이라 차마 부모님께 직접 말씀드리지도 못한 채로 나의 교회 및 동리 친구 12명과 함께 유격대에 입대하였다.

14) 육군본부, 『한국전쟁과 유격전』, p.55.

15) 육군본부, 『한국전쟁과 유격전』, pp.55~56.

16) 육군본부, 『한국전쟁시 학도의용군』, p.132.

특히 이 시기는 대구 시내에 북한군 박격포의 포탄이 십여 발 떨어져 정부와 주요 군사령부가 부산으로 이전하는 등 가장 위기의 순간을 맞고 있었다. 이때 많은 피난민들이 다시 짐을 꾸려 남하하기도 하였지만, 일부의 시민들은 군에 자원하여 나르고 있었다. 이에 고무되어 많은 수의 학생들도 군의 모병운동에 적극 참여하였다. 이 대위는 모병 장소에 온 인원이 예상보다 훨씬 많았기 때문에 이들 중에서 사상이 건전하며 키가 크고 담력 있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심사를 거쳐 선별했다.

대구역 광장에는 상당수 인원이 모병에 응해 자원하였다. 그는 간단한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200명을 선발하여 당시 유격대총사령부가 위치한 밀양으로 향하였다. 이들은 대구역에서 화물열차를 이용하여 1950년 8월 24일 16:00경에 밀양역에 도착하였다. 밀양에 도착한 대원들은 역에서 약 10분 정도 거리에 있는 농협 미곡창고로 이동하였다. 여기서 이들은 가마니 2장씩을 받아 취침준비를 하고 23:00쯤 되어서야 주먹밥 한 덩어리로 허기를 채울 수 있었다. 대부분 부모 곁을 처음 떠난 학생들이니 어려움은 호소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들은 첫 날을 보내고 부대편성을 위해 어느 정도 준비를 한 후 도착한 3일이 지난 후 8월 27일 대대 편성을 단행하였다. 부대 편성에는 당시 제헌의원으로서 밀양에서 유격대총사령부를 조직하여 유격대원 모병운동과 부대편성을 지원하던 최윤동 의원의 역할이 컸다. 그는 국군이 후퇴를 거듭하자 밀양에서 영남지역의 청년들을 개인적으로 규합하여 일종의 유격부대를 편성하고 있었다. 제1유격대대의 전체인원은 처음부터 대구에서 모집된 200명과 밀양에서 최윤동 의원에 의하여 이미 모집되어 있던 학생과 청년 560명이 합쳐져 최종적으로 772명이 편성되었다.<sup>17)</sup>

17) 이명흠 대위와 최윤동 의원이 모집한 유격대 인원에 대해서는 자료마다 다소 차이가 있는 편이다. 육군본부, 『한국전쟁 시 학도의용군』, p.133에서는 이 대위가 대구에서 560명, 밀양의 최윤동의 160명 혹은 200명을 합하여 772명을 편성하였다고 기술하였고, 최재명의 증언에 의하면, 최윤동 의원이 1,000여명을 모집하여 이 가운데 560명만 대원증을 받았다고 하였다. 최재명, 『버림받은 충혼』, 1993, p.6; 이명흠 부대장은 제1유격대대가 1951년 2월 육군 정훈 제1대대로 전환되자 제1유격대대의 772명을 기념하여 제772부대로 제정했다고 진술했다.

독립 제1유격대대 부대장은 이명흠 현역 대위였고 부대 통상명칭은 부대장 이명흠의 ‘명’자를 따서 명부대라 하였다.<sup>18)</sup> 밀양에서 제1유격대대를 편성할 때에는 대대본부 및 예하 3개 중대 편성으로 이루어졌지만, 아래의 명부대 편성은 실제 상륙작전에 투입되기 직전(9월 13일) 편성된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하였다.

이 부대에는 유격전 전문가로 알려진 전성호 현역 대령이 전술고문으로, 전 중국 국민당군 소장출신이며 민간인 신분인 박영선을 정략고문으로 편성하였다. 이들이 어떤 연유로 명부대의 고문으로 편성되었는지는 명확치 않지만 미처 훈련되지 않은 유격대원들의 상륙작전을 지도하기 위해 육본에서 지시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명부대의 주요 편성은 다음과 같다.

부대 고유 명칭 : 육군 독립 제1유격대대  
 부대 통상 명칭 : 명부대  
 총사령관(대대장) : 육군 임시 소장 이명흠(현역 대위)  
 전술고문 : 육군 현역 대령 전성호  
 정략고문 : 전 국민당군 소장 박영선  
 참 모 장 : 육군 임시 대령 백운봉(유격대 부관)  
 본부사령 : 육군 임시 소령 조 경  
 인사참모 : 중령 이수희  
 작전참모 : 중령 김응록  
 정보참모 : 중령 이용삼  
 군수참모 : 중령 이태호  
 정훈부장 : 소령 서상덕  
 의무부장 : 소령 이봉구  
 통신부장 : 소령 권찬두  
 연 락 관 : 현역 중위 이흥배  
 제28연대장(제1중대) : 육군 임시 대령 이영훈(9월 14일부 이수희)

18) 명부대의 창설 명령은 국본 「일반명령」(육) 제72호에 의거하여 4283(1950년)년 9월 18일 00시부로 사후에 이루어진 조치였다.

제29연대장(제2중대) : 육군 임시 중령 문학경  
 제32연대장(제3중대) : " 대령 이원직  
 제37연대장(제5중대) : " 대령 오운환

명부대는 4개 중대로 편성된 대대규모의 부대였으나 북한군을 기만하기 위해 부대 규모를 대대를 사단으로, 중대를 연대로 각각 위장하여 편성하였고, 지휘관 및 계급도 위장하여 부여하였다. 각 연대병력은 180여명으로 편성되었으며, 부대장은 동해안지구소공총사령관, 부관은 참모장, 제1중대장은 제28연대장, 제2중대장은 제29연대장, 제3중대장은 제32연대장, 제5중대장은 제37연대장으로 각각 호칭되었고, 계급도 임시 대령으로 부여했다.<sup>19)</sup> 독립 제1유격대대는 유격대원들 중에서 약 80%에 해당하는 600여명이 주로 18, 19세에 불과한 학생들이었고 심지어 15세의 어린 학생도 일부 포함되어 있었다.<sup>20)</sup>

## (2) 유격대의 훈련

독립 제1유격대대는 1950년 8월 27일 편성 당일부터 훈련을 시작하였다. 이들은 중고등 학생들이 대부분이었으므로 기초부터 구보와 제식훈련을 시작하였다. 이들은 개인화기는 고사하고 무기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주로 체력단련이나 정신교육을 위주로 교육을 받았다. 유격전과 특수작전 훈련 시에는 전 인민군 장교출신 국군 박창암 중위가 2명의 현역 사병과 함께 와서 유격대대를 지도하였다.<sup>21)</sup>

19) 이명흠 부대장은 장사상륙작전이 끝난 후 뒤에 1951년 4월경 부하들의 계급사칭을 방지했다는 이유로 대위로 강등 당했다고 했으나(『무명용사의 열혈전투실기』, pp.78~79), 명부대 뿐만 아니라 통상 유격대 대원들의 계급은 적을 기만하기 위해 원계급보다 높게 부여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었다. 독립 제1유격대대원들은 작전개시 후인 9월 18일 정규군으로 입대명령과 군번이 부여되었으며, 군번은 0365427-6157번이었다. 조성훈, 『한국전쟁의 유격전사』, p.99.

20) Walter Karig, *Battle Report: The War in Korea*, p.248.

21) 일부에서는 독립 제1유격대대의 군사훈련은 방원철 소령이 담당했다고 증언하고 있다.

유격대는 비록 부대편성 직후 장비나 훈련 등 여러 가지가 미비하였지만, 본인들이 직접 자원하였기 때문에 정신력만큼은 충만해 있었다. 유격대원들의 정신력은 훈련과정에서 육체적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훈련일정은 짧았으나 훈련내용은 비교적 강도 높고 밀도가 있는 편이었다. 훈련 과정에서 사격훈련 도중 조교 2명이 사망하는 불행한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sup>22)</sup>

밀양에서 독립 제1유격대대의 훈련은 짧은 일정으로 끝났다. 훈련을 시작하지 일주일 후인 8월 31일에 명부대는 육군본부 작전국장 강문봉 대령으로부터 밀양에서의 훈련을 중단하고 즉시 부산으로 이동하라는 지시를 받았던 것이다. 이들은 작전국장의 지시에 따라 부산으로 이동하였고, 부산 문현동에 있던 육군본부 청사 내에서 숙식하며 대기하면서 훈련을 계속하게 되었다.

명부대는 육군본부 작전국장 강문봉 이름으로 발행된 '육본직할 유격대원'이란 대원증을 발급받고 본격적으로 유격훈련에 재돌입하였다. 여기에서는 밀양에서의 훈련에 비해 좀 더 체계 있고 전문적인 유격전 훈련내용이 마련되었다. 훈련은 크게 두 분야 즉 정신교육과 전술교육으로 구분되어 실시되었다. 전자에서는 국가관을 함양시킨다는 목적 하에 민주주의 이념과 민족문화사 등이 교육되었으며, 후자에서는 군사학, 병기조작법, 사격술, 소대 및 분대공방, 교량 파괴법, 토치카 파괴법 등 주로 유격대 활동에 필요한 훈련이 실시되었다. 이 외에 북한군후방지역에서의 작전 시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장백산 줄기줄기...'로 시작되는 빨치산 군가와 함께 몇 곡의 인민군 군가를 학습하였다.

훈련 시에 사용된 장비는 대부분 북한군으로부터 직접 노획한 북한군 장비였다. 대원들은 소련제 소총을 비롯하여 기관총, 막심중기관총, 박격포 등의 장비와 북한군 복장으로 무장하였다. 그러나 훈련은 또다시 미처 약 2주일도 되지 못해 끝나고 말았다. 나중에 알려진 것이지만, 이때 이미 명부대의 실전 투입이 논의되고 있었던 것이다.

22) 조성훈, 『한국전쟁의 유격전사』, p.98.

### 3. 장사상륙작전 계획과 준비

#### (1) 장사상륙작전 계획

이명흠 부대장은 육본에서 부대를 훈련시키던 중 1950년 9월 10일경 작전국장 강문봉 대령의 호출을 받았다. 그는 실전에 참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왔지만 강 국장으로부터 전혀 이해하기 어렵고 실행 불가능한 임무를 지시받았다. 강 국장은 회의용 탁자위에 놓여 있는 군사지도(5만분의 1) 지도상의 어느 한 지점을 응시하며 명부대장에게 그 지점으로 상륙작전을 전개할 것을 지시하였다. 포항북쪽 적의 후방지역에 위치해 있는 장사 해안이었다. 강 국장은 육해군총사령관 겸 육군 총참모장인 정일권 소장으로부터 유격대를 투입하라는 명령을 받고 장사상륙작전을 지시하기 위하여 이명흠 대위를 호출한 것이었다.

명부대장은 강 국장으로부터 장사지역 상륙하라는 지시를 받고 전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아무리 생각해도 상륙작전은 유격대 역량으로는 도저히 수행하기 어렵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득하였다.<sup>23)</sup> 이 대위는 훈련도 제대로 안된 대대급 유격대 병력으로는 이 작전을 수행하기 어려우며 자칫 유격대 대원들 전원이 희생될 수 있음을 상기시켰다. 또한 포항-기계 일대에는 북한군 제12사단과 제5사단 등 북한군 정예부대가 전선을 돌파하기 위해 전력을 집중하고 있었고, 유격대의 작전지역인 영덕 남정면 장사리 일대에도 북한군의 방어진지가 편성되어 있었다. 때문에 그는 유격대대만으로 상륙작전을 전개한다는 것은 너무나 무모하다고 생각하여 수차례 재고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장사상륙작전 계획은 이미 육군본부에서 결정한 사항으로 반복할 수 없는 작전이었다.

강 국장은 이명흠 부대장에게 당시의 전선 병력배치 상황을 대략적으로 설명하고 정규부대로는 이 작전을 감행할 여유가 도저히 없음을 강조하였다.

23) 육군본부, 『한국전쟁 시 학도의용군』, p.133.

이 무렵은 나중에 알려진 바이지만, 유엔군사령관의 단호한 지시 하에 인천상륙작전을 감행할 시점에 있었으며, 이를 위하여 가용한 병력이 모두 동원되었기 때문에 장사지역에 상륙시킬 마땅한 여유 병력이나 부대가 없는 상황이었다. 강 국장의 요점은 현재의 상황에서 포항지구에 공세를 취하고 있는 북한군 제2군단의 공격을 견제하고 아울러 전면적인 아군의 반격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독립 제1유격대가 장사에 상륙하여 적의 보급로를 차단하고 그곳을 거점으로 유격활동을 전개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표면적인 이유에 지나지 않았다. 그 내면의 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인천상륙작전의 성공을 위하여 적의 관심을 동해안에 묶어 두자는 것과 적의 보급로를 차단함으로써 부산을 압박하는 북한군 제2군단의 공격예봉을 꺾는다는 것이었다. 강 대령은 불원간 유엔군에 의한 대규모 상륙작전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이 대위에게 암시적으로 전달해 주었다. 강 대령의 간곡한 지시에 처음에는 완강하게 불가함을 표명하던 이명흠 부대장은 육본의 결정사항이고 작전의 의미가 적지 않다는 것을 듣고 난 후 결국 수락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막내 동생과 같은 어린 학생들을 사지로 내보내야 하는 악역을 맡게 되었던 것이다.<sup>24)</sup>

마침내 육군본부 「작전명령」 제174호(1950. 9. 10)에 의거하여 출동명령이 하달되었다. 그 내용은 독립 제1유격대대를 동해안 영덕군 남정면 장사리 해안에 적전 상륙을 전개시켜 북한군 제2군단의 보급로를 차단하고 아울러 적의 후방을 교란한다는 것이었다. 즉 교량을 파괴하여 북한군의 보급로를 차단하고 총 반격작전 시 적의 퇴로를 차단한다는 것이었다.<sup>25)</sup> 육군본부의 작전명령문은 장사상륙작전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문건이므로 아래와 같이 전문을 소개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24) 위와 같음.

25) Walter Karig, *Battle Report : The War in Korea*, p.244.

군사극비

육본 작명 제174호, 육군본부 경남부산, 4283.9.10.16:00

1. (1) 적 약 2개 사단은 포항(1234-1461) 안강(1220-1455) 선을 점령하고 계속 남침을 기도하고 있음.

(2) 아군 제3사단은 차 적에 대하여 맹렬한 섬멸을 전개하고 있음.

2. 군은 일부 부대를 이동하려 함.

3. (1) 육본 직할 유격대장은 예하 제1대대를 D일 H시 P장소에 상륙을 감행시켜 동대산(1225-1493)을 거점으로 적의 보급로를 차단하여 제1군단 작전을 유리하게 하라.

(2) 세부는 작전교육국장으로 하여금 지시케 함.

4. 행정사항

(1) 보급

가. 제3사단장은 유격대장과의 연락에 성공하면 유격대에 대한 보급을 담당하라.

(2) 후송 및 의료

가. 제3사단장은 유격대장과의 연락에 성공하면 유격대에 대한 후송 및 의료를 담당하라.

(3) 수송

가. 별도 군수국장의 지시를 받으라.

5. 통신사항

(1) 제51통신대대장은 좌기 인원과 기재를 동 동격대대에 파견하라.

1) 인원

선임하사관 1명, 무선통신사 2명(SCR694용), 무선통신사 5명(SCR300용), 암호병 1명, 무선정비병 1명, 유선가설병 2명, 계 12명

2) 기재

SCR694 1대

(2) 유격대대장은 우기 인원을 장악 지휘하라.

(3) 유격대대장은 제1군단지휘무선망을 경우 육본과 연락하라. 통신제원은 별도 지시함.

(4) 제1군단장은 우 유격대대와 육군본부와의 무선통신을 군단 지휘망을 이용 중계하라(단 현 군단지휘망의 변동은 없으며 단지 우 유격대대와의 군단 지휘망 내 가입뿐이며). 전 대대호출부호는 XF2임.

(5) 제4항 실시는 전 대대가 P 점 도착 즉시로 개시하라.

(6) 유격대대장은 기타 세부지시를 육본 통신감실에서 수령함과 동시에 항공기와의 연락규정 수령 차 장교 1명을 출두케 하라.

(7) 제1항 기입 이외 필요 통신기재도 통신감실에서 수령하라.

총참모장 육군 소장 정일권(직인)

하달법 : 구달 후 인쇄 배포

배포구분 : 국방부 1부, 국방부 1부, 제1유격대, 1부, 인사국 1부, 정보국 1부, 선전국 1부, 토신 1부, 보관 1부 등.

육군 총참모장 정일권 소장은 독립 제1유격대대에게 상륙작전을 전개하여 동대산을 거점으로 적의 보급로를 차단하여 제1군단 작전을 유리하게 하도록 지시하였으며, 작전에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작전교육국장 강문봉 대령이 조치하도록 명령하였다. 이 명령에 따라 강 국장이 명부대장을 호출하여 작전의 취지를 설명하였던 것이다.

총참모장 명의로 된 작전명령은 먼저 구두로 전달된 후 추후에 문서로 정리하여 하달된 것이었다. 따라서 명령문이 작전되기 전에 이미 작전국장은 총참모장과 논의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명흠 부대장의 증언에 의하면, 9월 12일 육군본부 작전교육국장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명령을 하달 받았다고 하였다.<sup>26)</sup>

- ① 임무 : 동해안 영덕지구로 상륙하여 북한군 제2군단(군단장 김무정)의 후방을 교란하라.
- ② 작전 개시일 : 1950년 9월 13일<sup>27)</sup>
- ③ 보급 : 제1군단에서 수령하라. 곤란할 시에는 항공보급을 실시한다.
- ④ 상륙작전대책 : 대형 LST를 이용한다. 상륙전을 감행하기에 앞서 상륙지구 전역에 걸쳐 항공기 폭격 및 해군 함포사격을 실시, 적을 섬멸한 다음 상륙을 개시한다.
- ⑤ 전술 고문관으로 전성호 대령을 파견한다.
- ⑥ 통신 : 통신감실에서 12명으로 편성된 무선전신반을 배속 받아 국군 제1군단 지휘 무선망을 경유 육군본부와 통신을 유지하라.

작전지역에 대한 상륙방법은 대형 LST를 이용하며, 유격대의 상륙전 감행 직전에는 상륙작전을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유엔군 항공기의 지원도 계획되어 있었다. 명령에 의하면 연락장교 1명을 포함하도록 조치하고 있었다.

이 작전에 참여한 유격대원들은 미처 훈련조차 끝마치지 못한 자신들에게 총참모장을 비롯하여 군 수뇌부가 왜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었는지 그리고 작전개시일이 왜 9월 14일인지에 대하여 그 이유를 알 리가 없었다.

26) 육군본부, 『한국전쟁서 학도의용군』, pp.56~57; 『무명용사의 열혈전투실기』, pp.65~66.

27) 장사상륙작전 개시 일자에 관해서 이명흠 부대장은 9월 13일로 증언하였으나, 해군본부 전사편찬감실, 『해군사』 등 여러 공식 문헌에 의하면 1950년 9월 14일로 확인된다.

실제로 상륙전이 실행되고 부대가 부산으로 철수한 후에야 이들은 자신들의 상륙전이 인천상륙작전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하여 수행된 일종의 양공작전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9월 12일에 출동준비를 위해 명부대 대원들은 부산하게 움직였다. 1인당 3일분에 해당하는 피복과 식량, 그리고 토치가 파괴용 폭약 및 각종 탄약이 운반되어 곧바로 대원들 각자에게 분배되었다.<sup>28)</sup> 영문도 모르는 학생대원들은 들뜬 마음으로 보급품을 수령하였다. 어떤 학생은 이제야 진짜 군인과 같이 제대로 무장을 하게 되었다고 좋아하기도 했으며, 어떤 학생은 다소 당황하고 두려움에 젖은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들은 자원한 학생들이었기 때문에 국가를 위해 무엇인가를 해야겠다는 각오가 남달랐다.

이튿날(9월 13일) 오전에 출동을 위한 부대편성이 있었다. 이때 편의상 제1유격대대를 사단규모의 병력으로 확대 가정하여 편성하였다. 사단 예하 각 연대를 약 180명으로 편성하고 지휘관은 이에 적합한 계급장을 임시로 부착하도록 하였다. 일반 대원들 마찬가지로 각각 임의로 계급장을 부착하도록 지시되었다. 명부대 대원들 대부분은 정식으로 군번도 부여되지 않았고 계급도 없는 민간인 상태였지만 작전 수행을 위한 부대편성을 완료하였다.

## (2) 상륙작전 준비

1950년 9월 14일 오전 독립 제1유격대대는 육본 연병장에서 출동준비를 완료하였다. 이날 한국 육군은 육해공 총사령관 겸 육군 총참모장 정일권 소장과 다수의 군 장성들이 참석한 가운데 출정식을 거행하였다. 통상 유격작전을 계획할 때에는 엄격한 보안이 유지된 가운데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장사상륙작전의 경우는 특이하게도 완전히 계획을 노출시킨 채 추진하였고 심지어 출정식 행사에 육군 최고수뇌부까지 참석하여 주목을 끈 것이다.

28) Walter Karig, *Battle Report: The War in Korea*, p.243에 의하면, 유격대는 식량도 없이 오직 탄약 50여발 정도만을 수령한 채 장사동으로 상륙하였다고 기술하고 있다.

출정식에 참석한 유격대 대원들은 좁은 육군본부의 연병장에 질서정연하게 집합하였다. 이들 전원은 출동에 앞서 각자의 머리카락, 손톱, 발톱의 일부를 잘라서 봉투에 넣어 육본에 보관시켰다. 작전지역으로 출동하기에 앞서서 죽음을 각오하지는 결의의 표시였다. 이들은 시간이 충분치 않아 제대로 훈련을 마치지도 못하고 대부분 어린 학도의용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지만, 실제 이들의 정신력만큼은 하늘을 찌를 듯하였다. 유격대의 기술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육군 제51통신대대에서 통신병 12명을 차출하여 배속하였다. 이들을 통해 상륙부대와 사령부와의 통신연락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장사상륙작전의 출정식 행사를 대대적으로 거행한 것은 당시 전선 상황, 즉 인천상륙작전과 낙동강선 총반격작전 계획과 관련시켜 볼 때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것이었다고 판단된다. 즉, 적의 오열에 부산에서 상륙작전을 준비 중이라든지 동해상에 상륙작전을 실시할 것 같다든지 하는 오보를 흘려 적어도 포항 일대의 북한군을 혼란스럽게 하거나 위협한다든지 또는 인천상륙작전을 기만하려는 의도를 갖고 행해진 것이다. 이미 서해상에서는 이들 전 인천상륙작전을 적에게 기만하기 위해 미군과 영국군 연합부대가 군산에 양동상륙작전을 전개한 바 있었다.<sup>29)</sup> 일개 대대규모의 그것도 현역 병력이 아닌 학병으로 구성된 유격대의 출정에 총참모장까지 참석하여 출정식을 하였다는 사실은 출정식 자체보다는 다른 의미가 담겨져 있음이 분명하다고 하겠다. 장사상륙작전 계획도 군단 또는 사단에서 계획한 것이 아니라 육군본부의 정일권 총참모장 명의로 직접 하달된 것이었다.<sup>30)</sup>

출정식을 마친 후 대원들은 육본 식당에서 마지막 점심을 하였다. 이들은 곧바로 군용트럭에 분승하여 부산항 제4부두로 이동하였다. 부두로 이동하는 도중에도 학도병들은 연도에서 시민들로부터 열렬히 환송을 받았다. 이동하는 장면도 여느 다른 유격대와는 다른 모습이었다. 통상 유격작전은 극비리에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는데, 오히려 드러내놓고 광고하는 격

29) Walter Karig, *Battle Report: The War in Korea*, pp.211~212.

30) 육군본부, 「작전명령」 제174호(1950.9.10.16:00).

이었다. 작전을 위해 이동 중이라는 것을 짐짓 노출시켰던 것이다.

제4부두에 도착하였을 때 유격대원들은 자신들과 운명을 함께 할 약 2,700톤에 달하는 LST 문산호(대한해운공사 소속)가 부둣가에 정박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sup>31)</sup> 부두에 도착한 유격대원들은 육군본부 작전국 장교들의 통제 하에 승선준비를 갖추었다. 이때 유격대원들은 부두에서 몇 가지 이해할 수 없는 점들을 목격하였다. 즉, 부두에는 유엔군에 소속 미군 병사들이 상당수 집결해 있음을 목격하였고 또 유격대원들은 이들과 함께 번갈라 문산호에 승선과 하선을 두세 차례 반복하도록 지시받았다. 대원들은 그것이 적을 기만하기 위한 것이라고 단순히 생각하고 지시대로 승선절차를 따라 승선을 완료하였다.

미군 병사들을 미리 대기시켜 놓았다는 것은 미군과 사전 협조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 미군 병사들에게 승선과 하선을 몇 차례 반복시켰다는 것은 미군도 문산호에 승선한다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노출시키려는 뜻이 담겨져 있었음을 의미한다. 즉 적을 기만하기 위한 것이었다. 주지의 사실이지만, 북한군 최고사령부는 이 무렵 유엔군이 대규모의 상륙 작전을 전개할 것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정확한 지점과 규모는 파악하고 있지 못하였다. 이러한 적을 기만하기 위해 미군 병사들도 문산호에 승선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행동들은 장사상륙 작전이 갖는 성격을 충분히 대변해 준다고 생각된다. 물론 학도병들이나 미군 병사들은 그러한 행동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전혀 알 수 없었지만 지시에 의해 별다른 불평 없이 승하선을 반복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9월 14일 오후 상륙부대는 육군 수뇌부에 신고를 한 후 16:00경

31) LST 문산호는 1943년 9월에 미국 인디애나의 제퍼슨빌에서 건조된 2,366톤의 LST-1 Class 전차 상륙함이었다. 이 함정은 건조 후 태평양 함대사령부에 배치되었으며 1944년 6월에서 7월 사이에 있었던 마리아나 작전에 참가하였으며,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 많은 해전에 참전하여 활동하였다. 종전 이후 그 함정은 1946년 1월 임무가 해제되어 재고로 처리되어 보관되다가 1947년 2월 다시 한국정부에 매각되어 '문산함'이라는 새로운 함정의 이름을 부여받았다. 문산함은 대한해운공사에서 운영하다가 6.25전쟁이 발발하자 해군에 징발되었다. <http://www.betanews.net/bbs/read.html?tkind=6&lkind=45&num=313600>.

부산항 제4부두에서 LST 문산호에 승선을 완료하였다. 출발 당시 승선한 총인원은 명부대장 이명흠 대위 이하 독립 제1유격대대 772명, 육본 파견 제51통신대 통신병 12명, 문산호 선장 황재중 등 선원 42명, 해군 헌병 5명, 선박안내 미군 장교 1명(해리슨 중위)과 하사관 1명(쿠퍼 상사), 통역 1명, 전성호 대령과 연락원 3명, 민간 고문인 박영선 외 2명 등 총 841명이었다.<sup>32)</sup>

## 4. 장사상륙작전의 전개과정

### (1) 장사로의 항진과 상륙작전

부산항 제4부두에서 상륙부대를 실고 출항준비를 마친 문산호는 1950년 9월 14일 16:00 마침내 출항하였다. 병력을 가득히 실은 문산호(선장 민간인 황재중)는 미 해군 구축함 엔디코트함(Endicott, John C. Jolly)의 호위를 받으며 부산항을 북상하여 장사리를 향해 나아갔다.<sup>33)</sup> 문산호와 구축함 엔디코트함과의 통신망이라고는 해리슨 중위의 소형 휴대무선기뿐이었다.

동해 바다는 태풍 케지아의 마지막 영향으로 바람이 세차고 파도가 높은 편이었다. 작전 내용이나 행선지도 모르는 채 승선한 대원들은 처음 타보

32) 육군본부, 『한국전쟁과 유격전』, p.57에는 840명으로 기술하였으나, 이 숫자는 미군 하사관 1명이 빠고 계산된 수치이다. 『무명용사의 열혈전투실기』, pp.80~81에 의하면, 총답승 인원이 부대장, 4개 중대, 육본 통신병 12명 등 772명, 문산호 선원 42명, 해군 헌병 5명, 미군 고문 1명, 통역 1명, 전성호 대령과 연락원 3명, 민간 고문인 박영선 외 2명 등 총 828명으로 기록하고 있다. 이는 772명에 통신병 12명을 포함시킨 기억의 착오라고 판단된다.

33) 일부 연구에서는 이명흠 부대장의 증언을 근거로 LST 문산호를 호위한 것이 영국 구축함 Q-34호라고 기술하고 있으나(육군본부, 『한국전쟁시 학도의용군』, p.58; 조성훈, 『한국전쟁의 유격전사』, p.101), 이는 미 해군구축함 엔디코트(Endicott)함을 잘못 기록한 것이다. James A. Field, 김종기 역, 『미 해군 한국참전사』, 해군본부, 1985, p.269; Walter Karig, *Battle Report: The War in Korea*, p.244;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3권』, p.647;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인천상륙작전』, p.125.

는 군함과 선상에서 지급된 푸짐한 식사와 보급품에 다소 흥분한 듯하였으나, 어린 학생들을 사지에 보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부대장의 마음은 사뭇 달랐다.

문산호가 부산항 출발 후 약 1시간쯤 지나면서부터 배멀미하는 대원들이 속출하였으나, 몇 시간의 항해 끝에 마침내 9월 15일 새벽 장사리 해안에 접근하였다. 본래 LST는 주로 상륙에만 이용될 뿐 장거리 항해에는 부적합하였다. 문산호 선장은 9월 15일 새벽 05:00 무렵 상륙 목적지 해상 4Km 떨어진 곳에 도달했을 때 짙은 안개가 끼어 지척을 분간하기 어려웠다. 이때부터 바람이 일어 상륙을 개시할 때에는 파도가 더욱 높아졌다. 엔티코트함의 지시에 의해 즉시 투묘(뚫을 내림)하여 착안하려 했으나 심각한 농무와 풍파로 인해 착안하기 어려웠다.

이때 갑자기 북한군이 장사동 북방 부흥리 고지와 남방 지경리 고지에서 상륙부대를 향하여 맹렬한 사격을 가하기 시작했다. 이명흠 부대장은 선장실에서 지도를 펼쳐놓고 전성호 대령 등과 함께 상륙작전을 검토하고 있었다. 이때 북한군의 박격포탄이 선장실을 뚫고 들어와 전성호 대령을 비롯하여 몇몇이 부상을 입었으며 선장실의 기기와 주요 기관부가 파손되는 피해가 있었다. 불행하게도 유격전에 경험이 많은 전성호 대령은 적의 사격에 대퇴부에 부상을 입어 과다출혈로 전사하고 말았다.<sup>34)</sup> 문산호는 순식간에 적의 화력권에서 이탈할 수도 백사장에 델 수도 없는 어려운 상황에 처하고 말았다.

명부대장은 진퇴양난의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특공대를 편성하였다.

34) 유격대의 전술고문인 전성호 대령의 전사 경위에 관해서는 관련 연구마다 다소 상이하게 기술하고 있다. 육군본부, 『한국전쟁과 유격전』, p.60에서는 17일 15:30경 문산호 선장인 황재중과 함께 작은 배로 남하하다가 전복되어 사망했다고 했으며, 전사편찬위원회, 『인천상륙작전』, p.127과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3권, p.650에서는 첫날의 재난에서 전성호 대령을 비롯하여 많은 병사들이 적의 사격을 받아 또는 심한 파도에 휩쓸려 목숨을 잃었다고 했다. 육군본부, 『한국전쟁사 학도의용군』에서는 전성호 대령이 적탄에 대퇴부를 맞고 출혈이 심해 사망했다고 하여 전사경위를 각기 다르게 기술하고 있다. 이에 관한 고증은 현재 자료의 부족으로 확인하기 어렵지만 육군본부의 기록에 따랐다.

그는 먼저 7명의 특공조를 차출하여 문산호에 밧줄을 걸어 백사장에 있는 소나무와 연결하도록 지시하였다. 이는 통상 상륙작전 시 불가피한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강구할 수 있는 방법이었다. 최후의 수단으로 대원들이 밧줄에 의지하여 상륙을 시도한다는 것이었다. 강풍으로 인해 밧줄을 잇던 몇 명의 대원들이 5~6m에 달하는 강한 파도에 휩쓸려 순식간에 희생되었다. 그들의 뒤를 이어 몇 명의 특공대원들이 다시 밧줄연결을 시도하였고, 이들은 결국 미 구축함 엔디코트함의 맹렬한 함포 지원사격에 힘입어 해안에 도달하는데 성공하였다. 그리하여 마침내 문산호와 해안의 상륙지점간에 4조의 밧줄이 이어졌다.

상륙부대는 해안 약 30미터 거리에서 로프를 이용하여 상륙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바로 이때 북한군 진지에서 사격이 집중되기 시작하였다. 대원들은 적의 사격에 그대로 노출되어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풍파는 더욱 심해지고 적의 포화 역시 더욱 맹렬해졌다. 결국 집중포화를 받고 있던 문산호는 05:30경에 선미가 파괴되면서 선체가 기울어지기 시작하였으며, 06:00경에 이르러 암초(북위 36도 16'30", 동경 129도 22'36"에 얽혀 선복에 구멍이 뚫린 채 썩기처럼 단단히 박혀 완전히 횡으로 완전히 좌초되고 말았다.<sup>35)</sup>

문산호가 암초에 좌초되어 접안하지 못하였으나, 명부대장은 계속 상륙을 독려했다. 대원들은 밧줄을 의지하여 빗발치는 적의 사격과 포화를 무릅쓰고 상륙을 강행하였다. 전면에 있는 적의 초소와 좌우 고지에 위치한 박격포와 기관총 진지에서 뿜어져 나오는 사격망을 뚫고 상륙한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에 다름 아니었다. 하지만 현 상황에서 다른 대안이 없었다.

곧이어 양측 간에 치열한 사격전이 전개되었다. 장사리의 새벽 해안은 불빛과 소음으로 가득 찼다. 일부 대원들은 강한 파도에 휩쓸려 희생되었으며 상륙 중에도 적의 사격에 쓰러지는 대원들이 속출하였다. 작전에 참

35) 해군본부 전사편찬감실, 『해군사 제1집, 124~125.』

전하였던 장사상륙작전동지회 사무국장 배수용은 훗날 “당시의 처절했던 상황이 머릿속을 스쳐갈 때마다 지금도 온몸에 경련이 일어나는 것을 느낀다”고 회상하였다.<sup>36)</sup>

제1차로 상륙을 완료한 제28연대(제1중대) 대원들은 문산호에 대해 사격을 가하고 있는 적의 도치카로 육박하였다. 양측 간에 수류탄전이 전개되는 중에 선두에서 대원들을 지휘하던 제28연대장 이영훈 대령(중위)이 적이 쏜 탄환에 맞아 전사를 하고 말았다. 상륙부대는 09:00경 전원이 상륙을 완료하였다. 그러나 상륙작전 중에 연대장이 전사하고 다수의 병사가 사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탄약을 해중에 유실하게 되어 부대원의 사기가 극도로 약화되었다. 당시 유격대 부관이었던 백운봉의 회고에 의하면, 상륙시에 60여명이 전사하고 90여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한다.

적에게 포위된 상륙부대는 이 상황을 미 구축함에 알리기 위해 전마선 1척을 부상병 20명과 경계병을 편승시켜 출발하도록 했으나, 높은 파도에 휩쓸려 배가 전복되었고 그 과정에서 9명이 익사하고 말았다. 이에 미 구축함과의 연락이 두절되자 선원들도 상륙하여 유격대와 함께 전투에 참가하였으나, 선장 이하 7명이 전사하는 등 고전을 겪었다.<sup>37)</sup>

출발 전에 명부대장은 육본 관계관들로부터 유격대가 상륙 시에 유엔군 측으로부터 항공폭격과 함포지원을 해줄 것이라고 들었다. 상륙전에 먼저 유엔 해·공군이 북한군 진지에 화력 집중하여 적의 화력을 무력화시킨 후 유격대가 상륙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문산호를 인도하여 장사동으로 출동한 것은 미 구축함 엔디코트함 1척뿐이었다. 엔디코트함은 도착 즉시 함포지원 사격을 실시하였다. 최초 계획되었던 항공기에 의한 공중지원은 아예 없는 상황이었다.

항공지원 계획은 그야말로 계획에 불과한 것이었다. 실제로 육군본부는 공군본부나 유엔공군과 항공지원에 관해 논의한 적이 없었다. 한국 해군으로부터 문산호가 지원된 사실은 상륙작전 자체에 관해 해군본부와 협의가

36) 육군본부, 『한국전쟁시 학도의용군』, pp.58~59.

37) 해군본부 전사편찬감실, 『해군사』 제1집, p.125.

있었으며 또 미 해군 엔디코트함이 지원되었다는 사실은 유엔 해군과도 지원협력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공군은 아예 지원이 없는 상황이었다. 정일권 육군 총참모장의 명령에 의하면, “유격대대장은 항공기와의 연락규정 수령 차 장교 1명을 출두케 하라”고 한 것으로 보아, 한국 또는 유엔 공군으로부터 공중지원을 검토하였음은 파악할 수 있으나, 실제 작전에서는 왜 계획대로 실행되지 않았는지 확인되지 않는다.

## (2) 구조와 철수작전

문산호가 좌초되었다는 사실이 육본에 보고되자, 육본은 즉시 그 사실을 유엔 해군에도 보고하여 협조를 요청하였다. 이에 동해안 삼척 전방 해상에 위치하고 있던 동해안전대사령관 하트먼 소장은 엔디코트함이 중계하는 해안사격 요청을 받고, 그의 기함 헬레나호로 뒤늦게 조난 해역에 도착하였다. 그는 먼저 헬리콥터를 보내 해안의 상황을 확인하도록 했으나, 기상 악화로 피아의 식별마저 곤란한 상황이었다.

하트먼 소장은 일기가 다소 호전되자 다시 두 번째 헬리콥터를 투입하였고, 이때 구조되어 온 해리슨 중위와 쿠퍼 상사를 통해 비로소 대체적인 해안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다.<sup>38)</sup> 그러나 그는 당시의 상황과 기상 상태로 보아 자체 보유한 소형 주정르로나, 또는 다른 방법으로 이 위급한 상황을 호전시킬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는 조난선을 구조하기 위한 선박을 즉시 파견해 주도록 부산에 무전으로 요청하는 한편, 함포 사격으로 상륙 부대를 지원하였다.

급보를 접한 해군본부는 곧 부산항에서 구조용 예인선 LT 1호를 급파하였다. 22:00경 출항한 LT 1호는 기상상태가 좋지 않아 16일 07:00 현지에 도착하여 구조에 착수하였다. 그러나 문산호가 깊이 좌초되어 일몰과 동시에 감포로 돌아왔고, 해군 304정도 출동하였으나 풍량이 심하고 시계가 불량하여 소재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구룡포로 돌아왔다.<sup>39)</sup>

38) Walter Karig, *Battle Report: The War in Korea.*, p.246.

39) 해군본부 전사편찬감실, 『해군사』 제1집, p.126.

하트먼 제독은 다음날(17일)도 좌초된 문산호의 구조는 기대할 수 없게 되자, 헬리콥터 편으로 이명흠 유격대장을 불러 다른 구조선이 오기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음을 이해시키고 다른 애로사항을 물었다. 헬레나호에는 동승하고 있던 한국해군 연락장교 정익조 소령이 통역을 담당하였다. 이 대위는 식량과 탄약이 부족하다고 말하고 함포의 계속 지원을 요청하였다. 하트먼 제독은 이 대위를 격려하여 해안으로 다시 돌려보내고 휴대용 식량을 해안으로 지원해 주었다.<sup>40)</sup>

문산호의 구출이 어렵다는 보고를 받은 해군본부는 9월 18일 아침 즉시 육군본부에 “현 상륙부대를 구출하려면 증원부대를 증파하거나 또는 철수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통보하였다. 그리고 상륙부대의 철수를 지원하고자 해군중위 김형봉 책임장교로 조치원호(LST)를 현지에 급파하였다. 동시에 이날(18일) 15:00경 항공기를 현지에 보내어 전단을 살포하여 구조 LST가 곧 현지에 급파되며 상륙부대는 선박 근처를 확보하고 있도록 하였으며, 아울러 약간의 탄약과 의료품을 투하해 주었다.<sup>41)</sup>

마침내 9월 19일 06:00, 부산에서 급파된 해군 수송선인 LST 조치원호가 조난 현장에 도착하였다.<sup>42)</sup> 당시 부근 해상에는 미군 함대 LT 2척과 LST 3척이 부유하여 지원하고 있었다. 현지에 도착한 조치원호는 미군 LT 미육군소령 스피어 함장의 지시로 곧 문산호 구축작업에 착수하였다.<sup>43)</sup> 스피어 소령은 곧장 문산호로 올라와 구조작업을 상의하였다.<sup>44)</sup> 논의를 통해 먼저 환자를 싣고 제28연대, 제37연대, 사령부 제32연대, 제29연대의 순위

40)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인천상륙작전』, p.127.

41) 해군본부 전사편찬감실, 『해군사』 제1집, p.126.

42) Walter Karig, *Battle Report: The War in Korea*, p.250에는 9월 18일 이른 아침에 도착하였다고 기술하고 있어, 자료마다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43) 미 육군 스피어 소령은 미 상륙전 훈련센터 소속으로 상륙작전 전문가로 한국전 초기작전시 육군으로는 유일하게 미 해군으로부터 해군 십자훈장을 수여받았다. Walter Karig, *Battle Report: The War in Korea*, p.7에는 스피어 소령이 장사동으로 간 것은 유격대에게 큰 행운이었다고 기술하고 있다.

44) 육군본부, 『한국전쟁시 학도의용군』, pp.147~148에서는 19일 05:00경 LST 조치원호로부터 미 해군소령 1명이 철수작전을 논의하기 위하여 유격대 사령부가 있는 문산호로 올라왔다고 하였으나, 조치원호의 도착 시간은 06:00이며, 스피어 소령은 미 육군 장교이다.

로 철수 순서가 정해졌다.

스피어 소령은 조치원호를 문산호가 좌초한 북한 약 400야드 지점에 착안할 것을 조언했으나, 선장이 좌초를 걱정하여 거절하자, 직접 조치원호에 뛰어 올라 직접 조타하여 육지로부터 약 30m 지점에 착안시켰다. 그는 곧 높은 파도를 무릅쓰고 해안에 상륙하여 구조작업을 지휘하였다. 이때 큰 문제 중의 하나는 조치원호의 해안 접안이 불가능하다는 점이었다. 그러므로 조치원호와 육지를 밧줄로 연결한 후 밧줄을 잡고 승선하도록 결정하였다.

유격대원들은 구명대에 5~6명씩 타고 육지로부터 연결된 로프를 잡고 조치원호까지 이동하였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북한군의 사격이 집중되어 사상자가 속출하였다. 대부분 나이가 어리고 훈련이 부족했던 유격대원들은 파도에 겁을 먹어 밧줄만을 붙들고 떨고 있는 상황이었다. 대부분의 어린 대원들이 패닉상태에 빠져 있어 구조가 순조롭지 못하였다.

조치원호가 조난선 북쪽으로 접근하자 한동안 잠잠했던 부근 고지일대에 위치한 북한군의 박격포화가 다시 불을 뿜기 시작하였다. 적은 아군이 다시 상륙을 기도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필사적으로 사격을 가해왔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드디어 06:30경부터 철수가 시작되었다. 아군 공군기 3대가 접근하는 북한군 진지에 대해 기총소사로 엄호해 주었다. 아군 함포와 항공기가 엄호사격을 개시하여 북한군 방어진지에 로케트포와 네이팜사격이 집중되고 함포가 측방으로 차단사격을 실시하여 적의 화력을 제압하였다. 북한군의 공격이 주춤한 틈을 이용하여 육지와 LST 사이에 밧줄을 연결하고 그 밧줄을 이용해서 보트로 일단 환자들을 수송하기 시작하였다. 환자 수송이 마무리된 후 곧이어 대원들의 철수가 이루어졌다.

대원들은 천신만고 끝에 갑판에 올랐으나 그곳 역시 안전하지가 않았다. 1진으로 승선한 대원들은 적의 박격포탄이 조치원호 갑판에 낙탄되어 상당수 목숨을 잃는 희생을 치렀다. 갑판의 군데군데에 살점과 피가 엉겨 붙어 있었고, 부상한 대원들이 서로 부둥켜안고 통곡하였지만 이미 때는 늦은 상황이었다.

유격대원들은 처음에는 하나의 장비라도 회수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완전

군장한 채로 승선을 시도하였으나, 배에 오르는 도중에 파도에 휩쓸리는 대원들이 속출함에 따라 비무장으로 승선하도록 변경하였다. 대원들은 로프에 주렁주렁 매달려 조치원호로 승선하였다. 도중에 힘이 다하여 엉겁결에 손을 놓은 몇몇 대원들이 파도에 떠밀려 바다 속으로 끌려들어갔다.<sup>45)</sup> 구조작업 중에도 미군 장교 1명이 부상을 당하고 상륙대원들 중 전사 9명, 부상 12명의 피해를 입었다.<sup>46)</sup>

이날(19일) 13:00경 결국 조치원호가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아직 해안에는 2개 대대 병력 60명이 남아 북한군과 교전을 계속하고 있었다. 당초 조치원호 승선 완료시간이 12:00경까지 예정되었으나 승선을 완료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의 박격포탄과 소총탄이 주위와 함상에 집중되었다. 조치원호 함장은 북한군의 공격으로 LST가 손상될 위험에 놓였다고 판단하여 더 이상의 승선을 중지하고 떠날 것을 재촉했다. 명부대장은 간곡히 사정하기도 하고 위협도 하면서 대원들의 전원 철수를 독려하여 30여명의 대원들이 더 철수하였다. 상황이 악화되고 설상가상으로 간조가 시작되자 스피어 소령은 결국 밧줄을 절단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그리하여 조치원호는 7시간에 걸친 구조 작업에 중지부를 찍고 13:33경 해안을 빠져 나와야 했다.

결국 유격대원과 문산호 승조원 등 110명의 부상자를 포함하여 725명을 구출하고 다음날 20일 20:00 부산항으로 돌아오는데 성공했다.<sup>47)</sup> 그러나

45) 후에 알려진 바로는 유격대의 철수작전이 끝나고 난 직후 해변가에 많은 유격대원들의 시체가 떠밀려 와서 동리 주민들이 수거하여 장사를 치러 주었다고 한다. 육군본부, 『한국전쟁사 학도의용군』, p.148. 현재 장사상륙지 일대는 영덕군과 참전자동지회가 국가보훈처의 지원을 받아 장사상륙작전 기념공원을 조성하고 있다.

46) 해군본부 전사편찬감실, 『해군사』 제1집, p.127.

47) 위의 책, pp.127~128. 조치원호에 탑승 구조된 총인원과 부산항에 도착한 시간, 그리고 장사동 해안에 잔류된 인원수 등에 대해서는 자료마다 다소 차이가 있다. Walter Karig, *Battle Report: The War in Korea*, p.254에는 조치원호에는 110명의 부상자 및 선원을 포함하여 총 725명이 탑승 구조되었다고 하였으며, 전사편찬위원회, 『인천상륙작전』, p.128에는 유격대원과 문산호 승조원 등 110명의 부상자를 포함하여 700여명을 구조하였으나, 129명이 전사하였으며, 39명이 잔류하였다고 하였다. 해군본부 정작참모부 군사연구실, 『작전경과보고서』 1-12, 육군본부, 2001, pp.190~194.에는 대원 640명을 승선시킨 LST가 9월 20일 새벽 2시경 무사히 부산항에 귀환했다고 되어 있다. 육군본부, 『한국전쟁과 유격대』, p.63에는 640명의 생존대원들을 승선시켜 9월 20일 06시 부산항에 입항하였다고 하였다.

장사상륙작전에서 대원 139명이 전사하였으며<sup>48)</sup>, 조치원호가 철수할 때까지 마지막 지상 엄호부대인 제29연대 제5대대 병력 39명이 미처 배에 오르지 못하고 해안에 남겨졌다.<sup>49)</sup>

장사 해안에 잔류한 대원들은 조치원호가 철수한 직후 적에 의해 포로가 되었다. 이들 중 후에 극적으로 탈출한 고규혁은 당시의 절망적이던 상황을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다. 즉, “우리들은 먼저 승선하는 대원들을 엄호하며 승선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조치원호가 문을 닫아 버리고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곧이어 사격을 가하고 있던 적들이 일시에 해안으로 몰려와서 결국 우리들은 포로가 되고 말았다”고 했다. 그는 또 “포로가 된 대원들은 해안에서 하루를 보낸 후 이튿날 북한군의 퇴각대열에 끼여 북으로 끌려갔다. 대원들은 4명 1개조로 북한군 환자 1명씩을 운반했다. 가는 도중에 북한군 여러 부대와 합류하여 행군 대열은 길어졌으며, 어느날 저녁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나는 다른 3명과 극적으로 탈환하여 진격 중이던 아군에 의해 구출되었다”고 했다.<sup>50)</sup>

한편 조치원호가 부산항에 도착하자마자 이명흠 부대장은 즉시 결과보고를 위해 즉시 육군본부로 향했다. 그러나 그가 육군본부에 도착했을 때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 부딪혔다. 그의 증언에 의하면, 그가 강문봉 작전국장 이하 상륙작전에 관계하였던 장교들을 만났을 때 모두가 살아 돌아온 것을 보고 크게 놀라고 당혹스러운 표정이었다고 했다.<sup>51)</sup> 최초 장사로 출항하기 위한 출정식에서 육군 총참모장까지 배석하여 대대적인 행사를 마련해 준 것에 비해 너무도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었다. 육본의 사후 조치는 전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당시의 정황이야 어찌되었든 육본의 조치는 너무나 무책임한 것이었다. 통상 유격전은 극비리에 추진하고 사후에도 극비를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

48) 국방부의 공식 발표(국방부, 인근 제24176-881호, 1980.7.24)에 근거한 수치이다. 육군본부, 『한국전쟁시 학도의용군』, p.128 재인용.

49) Walter Karig, *Battle Report : The War in Korea*, p.254에는 유격대원 중 32명이 선박으로 돌아오는 것을 거부하고 해안에 잔류하였다고 기술하고 있다.

50) 육군본부, 『한국전쟁시 학도의용군』, p.149.

51) 위의 책, pp.149~150.

이란 점을 감안하더라도, 육본 관계관들의 태도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유격대를 장사해안으로 투입한 후이나 유격대가 부산으로 귀환한 이후에나 아무런 후속 조치도 없이 방기한 점은 무책임한 것이었다.<sup>52)</sup>

명부대장에 의하면, 보고서를 작성하여 작전국장과 총참모장에게 상륙작전의 전모를 보고함으로써 공식적으로 작전을 완료하였다. 유격대 대원들은 부두에서 대기하던 중에 우연히 뿌려진 신문호위를 읽고 난 후에야 자신들이 참여한 장사동 상륙작전이 인천상륙작전 수행을 기만하기 위하여 계획된 양공작전이었음을 알았다고 한다.<sup>53)</sup>

#### 4. 결어-장사상륙작전의 성격

이상으로 육군본부 독립 제1유격대대의 장사상륙작전과 철수과정 등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본 장에서는 결어에 대신하여 장사상륙작전의 성격에 관해서 정리하기로 한다. 장사상륙작전에 투입된 유격대원들은 대부분 어린 학도의용군으로 편성되어 현역 군인들 이상의 투혼을 발휘하며 상륙작전을 수행하였다.

최초 독립 제1유격대대가 육군 총참모장 정일권 소장과 작전국장 강문봉 대령으로부터 부여받은 임무는 “유격대장은 예하 제1대대를 D일 H시 P장소에 상륙을 감행시켜 동대산을 거점으로 적의 보급로를 차단하여 제1군단 작전을 유리하게 하라”는 것이었다. 이러한 최초의 임무를 고려하면 장사상륙작전의 의미는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독립 제1유격대대는 문산호의 좌초와 태풍으로 인한 파고 등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명부대장의 지휘 아래 피해를 최소화하고 상륙작전을 전

52) 장사 앞바다에 좌초되었던 문산호도 당시 장사 부근에 거주했던 주민들의 증언에 의하면, 휴전 이후 상당기간까지 처리되지 않고 해안에 방치되어 있었다고 한다.

53) 육군본부, 『한국전쟁시 학도의용군』, p.149.

개하여 교두보를 확보함으로써 작전에 성공하였다. 교두보의 확보는 장사일대의 북한군뿐만 아니라 포항일대의 북한군주력에 대해서도 위협을 가할 수 있었으며, 무엇보다 적의 주보급로상의 교량을 폭파함으로써 북한군의 주요 병참선인 포항, 영천 방면으로 통하는 국도를 차단하여 적군의 보급 작전을 마비시키는데 기여하였다. 비록 유격대가 많은 피해를 입고 또 적의 배후에서 고립되긴 하였지만 일단 교두보를 확보함으로써 상륙작전의 목표는 성공적으로 달성한 것이었다.

둘째, 낙동강선 일대의 북한군 주력의 전력을 약화시킴으로써 한국군 제1군단 작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정일권 총장의 명령대로 '아군 제1군단 작전에 유리하게 하라'는 임무를 성공적으로 달성한 것이었다. 당시 낙동강선의 북한군 제2군단은 주력은 형산강 지역에서 부산으로의 진격로를 돌파하기 위해 거의 전력을 투입하고 있었으나, 아군이 후방지역인 장사에 상륙작전을 전개하자 전선에 투입된 일부 부대를 후방 지역으로 전용하지 않을 수 없었다. 후방과 퇴로 차단 위협을 느낀 북한군 제2군단은 아군 유격대를 격퇴하고 보급로를 개척하기 위해 제5사단 일부부대를 전용하였다. 이 사실은 낙동강선의 북한군주력의 전력을 약화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였음을 보여준다.

셋째, 아군의 유격부대가 적의 후방인 영덕지구에 상륙하여 적의 판단을 흐리게 함으로써 인천상륙작전의 성공에 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었다.<sup>54)</sup> 장사상륙작전은 북한군 지휘부에 심리적이며 전략적인 타격을 주었던 것이다. 당시 북한군 최고사령부는 국군과 유엔군이 상륙작전을 전개할 것이라는 사실은 판단하고 있었지만, 정확한 상륙지점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아군이 동해안 장사 지역으로 상륙작전을 전개하였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적의 지휘부에게 적지 않은 충격과 혼란을 주었다. 따라서 이는 유격대 최초의 목표인 양공작전 임무가 성공적으로 수행되었음을 의미한다.

54) 「맥아더가 이종훈 부대장에게 보낸 서한」(1960.10.31), 육군본부, 『한국전쟁시 학도의용군』, p.129에 의하면, 맥아더 장군은 장사상륙작전이 인천상륙작전을 지원하는 작전이었으며, 유격대에 참전한 772명은 큰 귀감이 되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장사상륙작전은 전술적인 측면 즉, 작전 계획, 부대 편성, 훈련 및 장비 수준, 해군과 공군 지원 상황, 그리고 구조, 철수, 피해 규모 등 측면 - 에서는 무모하였을 뿐만 아니라 체계가 갖추어지지 못한 작전이었으나, 전략적인 측면 즉, 육군본부 지휘부가 목표로 설정하였던 국군 제1군단 전선을 유리하게 하고 나아가 인천상륙작전을 기만한다는 측면 - 에서는 성공한 작전이었다고 평가된다.

(원고투고일 : 2011. 4. 1, 심사수정일 : 2011. 4. 21, 게재확정일 : 2011. 4. 29)

주제어 : 인천상륙작전, 장사상륙작전, 군산상륙작전, 기만, 양동, 양공작전, 포항전투, 명부대, 이명흠, 문산호, 상륙정

<ABSTRACT>

## The *Jangsa's* Landing Operations during the Korean War

Yang, Yong-jo

This study is on the *Jangsa's* Landing Operations right before the *Incheon's* Landing Operations during the Korean War. At night on September 12, a Combined Forces of the ROK, US and British troops dared to make a feint amphibious operations in *Gunsan*, while on the east coast for two consecutive days, on September 14 and 15, UN aircraft hit hard on the *Samcheok* area, another possible landing area, to divert enemy's concern on the west.

The student volunteer soldiers of the ROK 1st Independent Anti-Guerrilla Battalion led by Capt. *Lee Myeong-hum* (Later renamed *Lee Chong-hun*) even practically landed at the beach in *Jangsa*, south of *Pohang*, at dawn on September 15.

Unfortunately, however, as their Landing Ship Dock had run aground because of the typhoon *Kezia*, they were exposed to enemy troops there. They fought against the enemy on the beach capturing a nearby hill position. But they withdrew suffering heavy losses.

In brief, the *Incheon's* Landing Operations had been in progress under a carefully thought-out deception operations. Operational security measures had been so thorough that the US Far East Command had not transmitted their reports to the Joint Chiefs of Staff at the right moment and the JCS misunderstood the FEC.

This *Jangsa's* Landing Operations is analyzed that it was successful in

the view they have achieved the operational purpose in spite of many victims of soldiers.

Key Words : *Incheon* Landing Operations, *Jangsa* Landing Operations, *Gunsan* Landing Operations, Feint Operations, The Battle of *Pohang*, *Myeong* Battalion, *Lee Myeong-hum*, *Munsan* Ship, LST

# 6·25전쟁시 이승만의 초기 대응과 전시지도자로서 역할\*

남 정 옥\*\*

1. 머리말
2. 북한의 기습남침과 이승만의 초기 대응
3. 전시지도자로서 이승만의 역할
4. 맺음말

## 1. 머리말

6·25전쟁 때 대한민국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이었다. 북한군의 기습남침 이후 전쟁의 주요 고비마다 기적과 같은 일들이 벌어져 대한민국은 살아남게 됐다. 마치 애국가 구절의 “하느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처럼 기적 같은 일들이 전쟁의 어려운 국면마다 빈번히 일어나곤 했다.

미국의 신속한 참전 결정이 그렇고, 유엔안보리의 신속한 소집과 한국지원이

---

\* 본 논문은 연세대학교 현대한국학연구소 제11차 우남학술회의(2010.11.19) 발표문을 다시 정리한 것임.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책임연구원

그렇고, 소련이 유엔안보리에 불참한 것도 그렇고,<sup>1)</sup> 북한군이 서울 입성시 김일성(金日成)이 최초 계획을 바꾸어 한강 교량 대신 중앙청과 방송국 등 주요시설을 우선 점령하라고 명령한 것도 그렇고,<sup>2)</sup> 북한군이 서울을 점령한 후 그곳에서 3일간이나 지체한 것도 그렇고,<sup>3)</sup> 맥아더(Douglas MacArthur) 장군의 적시적절한 한강방어선 시찰이 그렇고, 낙동강의 불리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인천상륙작전이 그렇고, 남한에서 20만 명의 '인민봉기'와 부산에서 노동자들의 집단 파업이 일어나지 않은 것이 그렇고,<sup>4)</sup> 전쟁 초기 적 전차에 의해 전차공포증에 걸렸음에도 국군이 중국의 국공내전(國共內戰) 시장개석(蔣介石)의 군대처럼 집단투항하지 않은 것이 그렇고,<sup>5)</sup> 북한이 최초 그들의 남침공격계획대로 전쟁이 진행되지 않는 것 등이 그렇다.<sup>6)</sup> 이들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차질이 있었다면 한국의 운명은 크게 달라졌을 것이다.

그런데 과연 위와 같은 일들이 모두 천우신조의 보살핌에 의해 그저 기적처럼 벌어진 행운이었을까.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수차례에 걸쳐 일어나는 일이 과연 가능한 것이었을까. 그것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한다. 위싱턴의 한국전쟁 기념공원에는 “자유는 거저 주어지지 않는다(Freedom is

1) 소련은 6·25발발 한 달 후인 8월 1일 유엔안보리에 복귀했다. 박실, 『한국외교비사』, 기린원, 1980, p.149.

2) 김일성은 6월 27일 북한인민군총참모장 강건에게 중앙청 등 주요 건물들을 점령하라고 해서 북한은 한강교를 점령하지 못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보고서』 제1권, 군사편찬연구소, 2001, p.138; 김광수, 『한국전쟁 중 북한군의 기습운동 연구』, 화랑대연구소, 2004, pp.29~30.

3) 소련군사고문단은 “서울을 점령한 후 조선인민군이 3일간 그곳에 머물러 이승만 군대에 대한 승리를 자축할 뿐 적을 계속 추격하지 않아 적이 한강 남쪽 강변을 따라 방어선을 구축하게 됐다.”고 비판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보고서』 제2권, 군사편찬연구소, 2001, p.16.

4) 김일성은 박헌영을 숙청하면서, “미국 놈의 고정간첩 박헌영이 남조선에 지하당원이 20만 명이나 되고, 서울에만 6만 명이 있다고 떠벌였는데 20만 명은 고사하고 우리가 낙동강 계선에 진출할 때까지 단 한 건의 폭동도 없었다.”고 비난했다.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1권, 전사편찬위원회, 1977, p.145; 육군본부, 『북괴 6·25남침분석』, 정보참모부, 1970, p.318; 유성철, 「나의 증언」 (10), 『한국일보』, 1990.11.13일자.

5) 6.25이전 군내 반란사건과 숙군은 오히려 대한민국을 구하였고, 국군을 반공군대로 육성하는 계기가 됐다.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해방과 건군』 제1권(구권), 1967, p.498.

6) 북한사회과학역사연구소, 『조선전사』 제25권, 사회과학연구소, 1981, p.85.

not Free).”라는 명문이 새겨져 있다. 이것은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말과 일맥상통한다. 세상 모든 일이 노력 없이 또는 사전 준비 없이, 그리고 창조적 지도자 없이 그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뜻일 것이다. 성공의 뒤안길에는 그에 상응하는 노력의 대가가 반드시 뒤따른다는 평범한 교훈이 숨겨져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한 점에서 6·25전쟁 초기 국군의 투철한 반공정신 없이 미군의 증원을 가능케 한 한강선 방어작전이 가능했을까. 예비전력 확보 없이 미군만으로 지연전과 낙동강 방어작전이 가능했을까. 숙군 없이도 군이 정상적인 지휘체계를 갖추고 싸울 수 있었을까. 전쟁 이전 남로당에 대한 척결 없이도 20만명의 ‘인민봉기’를 막아낼 수 있었을까. 유엔군사령관에게 한국군의 작전지휘권에 대한 이양 없이도 효과적인 전쟁수행이 가능했을까. 미군 속의 한국군인 카투스사(KATUSA)의 지원 없이도 인천상륙작전이 가능했을까. 전쟁 이전 해병대 창설 없이도 인천상륙작전에 미군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참전할 수 있었을까. 전 세계를 놀라게 한 반공포로 석방 없이 한 미상호방위조약 체결이 가능했을까. 방위조약 없이 주한미군이 존재할 수 있었을까. 휴전 이후 국군이 60만 대군으로 그렇게 빨리 성장할 수 있었을까. 오늘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대한민국이 이렇게 온전히 존재할 수 있었을까는 의문이다.

이처럼 대한민국은 6·25때 그저 행운에 의해서만 지켜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6·25전쟁 중 미국과 유엔을 상대로 ‘벼랑끝 전술’을 구사하며 전후 국가생존을 위해 노력한 국가지도자 이승만(李承晩, 1875~1965) 대통령이 없었다면 오늘날 대한민국은 지구상에서 이미 사라졌거나, 제주도예 제2의 대만과 같은 정부형태로의 존립하고 있거나, 아니면 태평양 군도의 어느 섬에서 망명정부 형태로 존재하고 있지 않을까.<sup>7)</sup>

7) 6·25전쟁시 한국의 망명정부를 기술한 관한 참고자료는 다음과 같다. JCS Decision on Evacuation of ROK Personnel from Korea, February 4, 1951, RG.218, CCS 383.21 Korea(3-19-45), Sec., 81, N.A.; 전쟁기념사업회, 『한국전쟁사: 북한군 침공과 한국군 방어』 제3권, 행림출판사, 1992; 프란체스카 도너 리, 『이승만과 6·25: 프란체스카의 난중 일기』, 기파랑, 2010; 정일권, 『전쟁과 휴전』, 1986.

역사에서 가정은 무의미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만일 그가 아니었으면' 하는 'if not 방식'으로 역사를 되돌아보는 것만큼 진실과 교훈, 많은 이해와 성찰을 가능케 하는 방법도 없다고 본다.<sup>8)</sup> 이것은 6·25전쟁 동안 이승만 정부의 노력과 이승만의 전시지도자로서 역할<sup>9)</sup>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이전까지 연구에 대한 비판과 함께 역사의 진실을 알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의 하나가 아닐까 싶다.

따라서 이 글은 대한민국을 건국한지 채 2년도 안된 시점에서 북한의 기습남침을 당해 어려운 국내의 주변정세에도 불구하고 이승만이 전시지도자로서 전시내각을 이끌며 어렵게 수행했던 일련의 조치들을 국가수호 및 민족생존이라는 큰 틀 속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나아가 기존의 이승만에 대한 저평가 및 오해의 일단을 다소나마 해소시키고,<sup>10)</sup> 이승만이 건국대통령으로서 6·25라는 민족 최대의 국난을 이겨내고 한국을 지켜낸 대한민국의

- 8) 송복, 「이승만 저작의 현황과 역사적 의미」, 『저서를 통해 본 이승만의 정치사상과 현실 인식』,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부설 현대한국학연구소 제10차 학술회의(2009.11.13), p.5.
- 9) 6·25때 이승만의 전시지도자로서 역할을 다룬 국내 연구는 아주 미미한 수준이다. 온창일, 「전쟁지도자로서 이승만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재평가』,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6; 남정옥, 「6·25전쟁과 이승만 대통령의 전쟁지도」, 『군사』 제63호, 군사편찬연구소, 2007; 남정옥, 『이승만 대통령과 6·25전쟁』, 이담Books, 2010.
- 10) 이승만에 대한 국내 학계의 일반적 평가는 극과 극을 달리고 있다. 이승만에 대해 긍정적 평가는, “건국의 원훈(元勳)이자 한민족의 독립과 번영의 기초를 다진 국부(國父)로 세계 역사상 보기 드문 대정치가”로 보고하고 있는데 이의 논저는 다음과 같다. 유영익, 『이승만의 삶과 꿈: 대통령이 되기까지』, 중앙일보사, 1996; 유영익, 「이승만 대통령의 업적」, 『이승만 대통령 재평가』(유영익 편), 연세대학교출판부, 2006. 김인서, 『망명노인 이승만 박사를 변호함』, 독학회출판사, 1963; 曹正煥, 「머리말」, 『外務行政의 十年』(外務部 편), 외무부, 1959; 허정, 『우남 이승만』, 태극출판사, 1974; 허정, 「내일을 위한 증언: 허정 회고록」, 샘터사, 1979; 임종명, 「이승만 대통령의 두 개의 이미지」, 『한국사 시민강좌』 38집, 일조각, 2006; 로버트 올리버 지음·황정일 옮김, 『신화에 가린 인물 이승만』, 건국대학교 출판부, 2002.
- 이에 반해 이승만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한반도의 통일을 저해하고 민주주의를 압살시킨 우리나라 역사의 수레바퀴를 뒤로 돌려놓은 시대착오적 독재자”로 매도하고 있는데 이의 논저는 다음과 같다. 김상웅, 「이승만은 우리 현대사에 어떤 '악의 유산'을 남겼는가?」, 『한국 현대사 뒷얘기』, 가람기획, 1995; 송건호, 「李承晩」, 『韓國現代史人物論』, 한길사, 1984; ohn M. Taylor, *General Maxwell Taylor: The Sword and the Pen* (New York Doubleday, 1989); Richard C. Allen, *Korea's Syngman Rhee: An Unauthorized Portrait* (Rutland, Vermont and Tokyo, Japan: Charles E. Tuttle Co., 1960).

국권수호자라는 것을 재인식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 2. 북한의 기습남침과 이승만의 초기 대응

### (1) 북한의 남침과 전황

김일성과 스탈린(Iosif Vissarionovich Stalin)이 모택동(毛澤東)과 협의하여 수립한 북한의 남침공격계획의 기본개념은 전쟁 개시 2일만에 서울을 신속히 점령하고 한강 이남을 우회, 차단하여 전선에 배치된 국군의 주력을 격멸한 다음 남한 내 20만 명 이상의 공산당원에 의한 '인민봉기'를 유발하여 한국정부를 전복하는 하는 것이었다. 이때 북한군은 신속히 남해안까지 진출하여 미 증원군의 한반도 상륙을 저지하고 1개월 내에 전쟁을 종결함으로써 8월 15일 해방 5주년 기념일에 서울에 이른바 그들이 말하는 '통일인민정부'를 수립한다는 것이었다.<sup>11)</sup>

북한군은 이러한 남침공격계획과 전차 및 전투기 등 막강한 전력을 앞세워 1950년 6월 25일 04:00를 전후하여 전 전선에 걸쳐 포격을 개시했고, 동해안에서는 특수훈련을 받은 게릴라 부대를 강릉일대와 부산지역으로 기습적으로 상륙시키려고 했다.<sup>12)</sup> 또한 전쟁 당일인 6월 25일 10:00부터 벌써 북한군 전투기가 김포와 여의도 공군기지에 출현했고, 정오경에는 야크(YAK) 전투기 4대가 서울상공에 출현하여 용산역과 통신소 등 서울시내 주요 시설에 기총소사를 하고 폭탄을 투하했다.<sup>13)</sup> 이어 북한군은 개성과 동두천을 점령하고, 전쟁 다음날 13:00경에는 서울의 관문인 의정부를 함

11) A. V. 토르쿠노프, 구종서 역, 『한국전쟁의 진실과 수수께끼』, 에디터, 2003, p.114;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역,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보고서』 제1권, 군사편찬연구소, 2001, pp.135~137; 러시아 국방부 저, 김종국 역, 『러시아가 본 한국전쟁』, 교육사령부, 2002, p.31.

12)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북한의 전면남침과 초기방어전투』 제2권, 군사편찬연구소, 2005, p.55.

13) 합동참모본부, 『한국전사』, 합참 군사연구실, 1984, p.787.

락시키고 서울 진입을 시도했다.

한편 북한군의 기습남침을 받은 육군본부 상황실은 전선의 예하부대로부터 적의 공격 상황을 접수하고 육군총참모장 채병덕(蔡秉德) 소장에게 이를 보고했다. 채총장은 지난 토요일 밤 육군회관 낙성식에 참가하고 이날 02:00경 총장공관으로 돌아와 취침 중 05:00경 당직사령으로부터 상황보고를 받은 뒤, 좀 더 자세한 상황을 알기 위해 상황장교 김종필 중위를 공관으로 불러 이를 확인한 다음, “현시간부로 전군에 비상을 발령하고 각 국장을 소집하라.”고 명령했다.<sup>14)</sup>

채병덕은 지체없이 신성모(申性模) 국방부장관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전화를 받지 않자 장관비서인 신동우 중령에게 연락을 취한 다음 신 중령과 함께 공관인 마포장으로 달려갔다. 자고 있던 신 장관은 채총장의 방문을 받자 가운데 입을 채 채병덕 총장이 휴대하고 간 상황판을 보고 남침사실을 보고 받았다. 이때가 07:00경이었다.<sup>15)</sup>

이승만은 10:00경 경무대 경찰서장 김장홍 총경으로부터 남침상황을 보고 받았다. 이후 이승만은 경무대에서 신성모 장관으로부터 전쟁 상황을 보고 받고, 14:00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각 군 총장으로부터 좀 더 자세한 전황보고를 받았다.<sup>16)</sup> 이승만은 군사경력자회의를 비롯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신성모 국방부장관에게 지시했다. 그리고 이승만은 무초(John J. Muccio) 대사와 맥아더 원수, 그리고 장면(張勉) 주미 한국대사를 통해 한국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는 등 주로 외교에 의한 군사적 조치를 강구했다.

그렇지만 전차를 앞세운 북한군의 막강한 전력 앞에 서울 북쪽에 형성된 국군의 방어선이 차례로 무너지면서 이승만의 피난, 정부의 이전, 한강교의 폭파, 서울 함락 등 전세는 급속히 악화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맥아더 장군의 한강방어선 시찰, 유엔안보리 결의에 따른 미국을

14)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 상, 1995, p.108.

15)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1권, pp.576~577.

16) 위의 책, pp.610~611.

비롯한 유엔회원국의 군대 파병, 유엔군을 통합 지휘할 유엔군사령부 설치 등으로 한국에서의 전쟁은 새로운 국면으로 전개됐다.

## (2) 이승만의 초기 대응과 조치

6·25전쟁이 발발한 6월 25일 이승만은 여느 일요일과 마찬가지로 아침 식사를 마치고 09:30쯤 경희루로 낚시를 하러 갔고, 프란체스카(Francesca Donner Rhee)는 이보다 빠른 09:00시경에 어금니 치료를 받으러 치과로 갔다.<sup>17)</sup>

이승만은 10:00경 비원의 반도지에서 낚시를 하다가 경무대경찰서장<sup>18)</sup> 김장흥 총경으로부터 ‘북한의 대거남침’ 상황을 보고받고 경무대로 돌아왔다.<sup>19)</sup> 이승만은 10:30경에 경무대에 도착한 신성모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최초의 전황을 보고받고 임시국무회의의 소집을 지시했다.<sup>20)</sup> 이때 이승만은 한국군 단독으로는 북한의 남침을 막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미국의 지원과 유엔의 개입을 위한 전시외교에 주력했다.

이승만은 11:35에 무초 미국대사의 방문을 받고 전쟁사태에 관한 중요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승만은 이 자리에서 전쟁을 어떻게 수행해야 될 것인지를 밝혔다. 그는 “국군에게 시급히 필요한 소총과 탄약을 미국에게 요청하면서 서울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국민들에게 돌멩이라도 들고 싸울 수 있도록 총력전 태세로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한국이 제1차 세계 대전의 배경이 되었던 제2의 사라예보(Sarajevo)가 되어서도 안 되겠지만,

17) 프란체스카 도너 리, 『프란체스카의 난중일기』, p.22. 이승만은 경희루에서 낚시한 것이 아니라 비원의 반도지에서 낚시를 하고 있었다(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1권, p.610).

18) 경무대경찰서는 6·25전쟁 당시 서울시경찰국 산하에 편제된 정식 경찰서 명칭이다. 경무대경찰서는 1949년 2월 23일 경무대 지역을 관할하던 창덕궁경찰서를 폐지함과 동시에 ‘국가원수와 중앙청 경호경비’를 담당하기 위해 설치됐다. 경찰청, 『경찰50년사』, 경찰사편찬위원회, 1995, pp.106~107.

19) 프란체스카 도너 리, 『프란체스카의 난중일기』, p.22: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1권, p.610

20)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1권, p.610.

이 위기를 이용하여 절호의 기회가 될 '한국의 통일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리고서 그는 "미국의 여론이 공산주의 침략에 더욱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sup>21)</sup>

[무초 대사에 의하면] 대통령(이승만)은 이 사태를 논의하기 위해 14시에 국무회의(cabinet meeting)를 개최할 것이며, 서울에 계엄령(martial law) 선포를 고려하고 있으며, 국민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필요할 경우 모든 남녀와 어린아이들까지도 돌맹이나 몽둥이라도 들고 나와 싸워야 한다는 것을 호소해 왔다며, 무기와 탄약이 가용하다면 국민들의 사기가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한국이 제2의 사라예보가 되는 것을 피해야 하고, 현재의 위기가 한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 한번 뿐인 '절호의 기회(best opportunity)'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sup>22)</sup>

무초와 회담이 끝난 후 이승만은 13:00에 주미대사관에 전화를 걸어 장면 대사에게 미국의 원조를 얻어내도록 지시했다. 이어 14:00에는 비상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사태를 논의했으나 전차나 전투기를 막을 수 있는 뾰족한 수단을 강구하지 못한 채 산회했다.<sup>23)</sup>

그후 전선 상황이 계속 악화되자 이승만은 25일 22:00에 무초 미국대사를 경무대로 불러 대책을 논의했다. 여기에는 이범석(李範奭)과 신성모 등 전·현직 국무총리가 자리를 함께 했다. 이 회의에서 대통령이 "대전으로의 천도를 밝히자 무초 대사는 이를 반대하면서 자신은 대통령이 서울을 떠나더라도 떠나지 않겠다."고 말했다.<sup>24)</sup> 이는 이승만이 '서울 천도'를 내세워

21) 무초 미국대사는 이승만과의 대화 내용을 25일 14시에 워싱턴의 국무장관에게 보고했다(The Ambassador in Korea(Muccio) to the Secretary of State(1950.6·25), *FRUS 1950*, Vol. VII, pp.129~131). 또한 무초 대사는 이승만을 경무대로 방문하기 전인 25일 10시에 "한국에 대한 북한의 전면공격"을 알리는 전문을 국무장관에게 보고했다(The Ambassador in Korea(Muccio) to the Secretary of State(1950.6·25), *FRUS 1950*, Vol. VII, pp.125~126).

22) The Ambassador in Korea(Muccio) to the Secretary of State(1950.6·25), *FRUS, 1950*, Vol. VII, pp.129~131.

23) 부산일보사 편, 『임시수도천일』 상, 부산일보사, 1985, p.20.

24) The Ambassador in Korea(Muccio) to the Secretary of State(1950.6.26), *FRUS 1950*, Vol. VII, pp.141~143.

미국의 신속하고도 적극적인 지원을 얻기 위한 외교적 제스처로 판단됐다.<sup>25)</sup> 이승만은 미국이 이제까지 한국지원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지 않자 이를 압박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승만은 25일 밤을 앓은 채로 꼬박 세웠다. 경무대 비서들도 눈을 붙이지 못했다. 북한 야크기는 이날 밤에도 서울 상공을 선회했고 그때마다 공습경보가 요란하게 울렸다.<sup>26)</sup> 그런 상황에서도 이승만은 미국의 지원을 끌어내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다.

이승만은 26일 03:00에 맥아더 장군에게 전화를 걸어 한국에서의 전쟁 사태에 대한 미국의 책임을 묻는 전화를 했고<sup>27)</sup>, 04:30에는 무초 대사에게 다시 전화를 해서 “극동군사령관과 참모장에게 한국군에게 필요한 전투기와 탄약 등을 요청하려고 전화했는데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무초 대사는 05:00에 이승만과의 통화내용을 애치슨 국무장관과 극동군사령관 맥아더 원수에게 알리고 신속한 지원을 요청했다.<sup>28)</sup>

이승만은 이날(6월 26일) 아침에 치안국을 방문해 경찰계통으로 들어온 전황을 확인했다.<sup>29)</sup> 한편 이날 10:00에는 이승만의 지시에 따라 신성모 국방부 장관이 주재하는 군사경력자회의가 중앙청에서 열렸다.<sup>30)</sup> 대통령은 14:00에 육군본부와 치안국 상황실을 방문하고 전황보고를 들었다. 대통령이 전황보고를 받고 경무대로 돌아올 때 서울 상공에는 적의 야크기가 맴돌고 있었다. 적기가 나타날 때마다 이승만과 프란체스카는 방공호로 피신해야 했다.<sup>31)</sup>

25) 온창일, 「전쟁지도자로서 이승만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재평가』,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6, p.215.

26) 부산일보사 편, 『임시수도천일』 상, p. 24.

27) 프란체스카 도너 리, 『프란체스카의 난중일기』, p.23.

28) Muccio to the Secretary of State, June 26, 1950, *FRUS 1950*, Vol. VII, pp.147~148.

29) 군사편찬연구소, 『북한의 전면남침과 초기방어전투』 제2권, p.81.

30) 군사경력자회의에는 채병덕 육군총장, 김정렬 공군총장, 김영철 해군총장 대리, 김홍일 소장, 송호성 준장, 前 통위부장 유동열, 前 국무총리 이법석, 前 광복군사령관 이청천, 前 1사단장 김석원 준장 등이 참석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북한의 전면남침과 초기방어전투』 제2권, p.67.

31) 프란체스카 도너 리, 『프란체스카의 난중일기』, p.24.

그런데 6월 26일 13:00경 서울의 관문인 의정부가 함락된 이후 대통령의 피난문제가 나왔다. 그러나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다. 이는 전황 보고가 뒤죽박죽인데다 신 장관의 “계속 걱정하실 것 없다”는 말로 사태를 흐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날 16:00께 프란체스카 여사는 비서들에게 기밀서류를 챙기게 한 뒤 자신이 교통부장관에게 특별열차를 대기하도록 했다. 그런데 신성모 장관이 경무대로 들어와서 “각하 별일 없습니다. 사태는 호전돼 가고 있습니다.”라고 말하자, 프란체스카는 피난준비를 취소시켰고 이승만도 내일 아침(27일) 국무회의를 소집하라고 지시했다. 그런데 밤 10시가 넘자 비서들이 피난열차를 대기하도록 교통부장관에게 연락했다.<sup>32)</sup>

그런데 21:00에 김태선 서울시경국장이 경무대에 들어와 “서대문형무소에 수천 명의 공산분자들이 갇혀 있습니다. 그들이 탈옥한다면 인왕산을 넘어 제일 먼저 여기로 옵니다. 각하께서 일시 피난하셔서 이 전쟁의 전반을 지도하셔야 합니다.”라고 보고했다.<sup>33)</sup> 그럼에도 이승만은 새벽 01:00에 주미대사관에 전화를 걸어 군사원조의 시급함을 트루먼(Harry S. Truman) 대통령에게 알리고 지원을 요청하라고 지시했다.<sup>34)</sup> 이후 02:00경 신성모 장관을 비롯하여 조병옥(趙炳玉)과 서울시장 이기봉(李起鵬)이 들어와서 “각하, 사태가 여간 급박하지 않습니다. 빨리 피하셔야겠습니다.”라고 말하자, 이승만은 “날보고 서울을 버리고 떠나란 말인가? 서울시민은 어떻게 하란 말인가?”라고 말했다. 조병옥은 프란체스카 여사와 비서들에게 “각하의 고집을 꺾어야 합니다. 빨리 서둘러 피난을 보내셔야 합니다.”라고 말했다.<sup>35)</sup> 적 전차가 청량리까지 들어왔다는 경찰 보고<sup>36)</sup>와 서대문형무소가 무너지면 경무대가 위험하다는 김태선(金泰善) 치안국장의 말에 이승만도 할 수 없이 서울역으로 가서 기차를 탔다.<sup>37)</sup> 이승만 일행이 탄 기차는 기관사를

32) 부산일보사 편, 『임시수도천일』 상, p.24.

33)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1권, 1977, p.617.

34) 한표옥, 『한미외교 요람기』, 중앙일보사, 1984, p.86.

35) 부산일보사 편, 『임시수도천일』 상, p. 24;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1권, p.617.

36) 프란체스카 도너 리, 『프란체스카의 난중일기』, p.25.

37) 부산일보사 편, 『임시수도천일』 상, p.26.

찾느라 지체하다가 04:00에야 비로소 서울역을 출발했다.

이승만은 27일 11:40에 대구에 도착하자, “[내가] 일생일대의 실수를 저질렀어. 열차를 돌리게, 그리고 조재천 경북지사와 제3사단장 유승렬 대령을 불러오라.”고 말해 두 사람이 역까지 나왔다. 이승만은 이 두 사람에게 “국민들을 격려해서 한 뭉치가 되어 공산당을 물리치게. 나는 올라갈테니 그쯤 알고 잘들 하라.”고 당부했다.<sup>38)</sup> 이승만의 지시로 기차를 다시 돌려 16:30에 대전역에 도착했다. 이때 이승만이 서울로 올라가겠다고 하자 이곳에 대기하고 있던 허정(許政) 전 교통부장관이 극구만류하고 이영진 충남지사는 직접 모시고 올라가겠다고 말하는 등 의견이 엇갈려 잠시 주춤하고 있었다.<sup>39)</sup> 이때 미 대사관의 드럼라이트(Everett F. Drumright) 참사관이 와서 유엔안보리에서 소련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한 경위와 그 결과로 얻어진 유엔의 결의, 그리고 미국의 공식적인 태도를 밝히면서 “이제는 각하의 전쟁이 아니라 우리들의 전쟁이다.”라고 말했다.<sup>40)</sup>

이승만은 이 말을 듣고 대전 역장실에서 충남도지사 관사로 자리를 옮겼다.<sup>41)</sup> 이승만은 27일 24:00경 전쟁 이후 처음으로 잠자리에 들었다. 이때 이승만이 권총을 꺼내 베개 밑에 넣는 것을 본 비서가 “각하, 무슨 일입니까? 어, 자네가 보았구먼. 권총이야.” 이승만이 내민 소형 모젤 권총엔 탄환이 장전돼 있었다. “내 아까 누구 보고 얘기하여 한 자루 구해달라고 했지. 급해지면 나도 한두 놈쯤 거꾸러뜨릴 수 있지 않겠어. 마지막 남은 총알은 우리 몫이고...”<sup>42)</sup> 이승만은 이때부터 대구와 부산 피난시절 3년 동안 권총을 침대머리 시트 밑에 숨겨 놓고 잠자리에 들었다.

6월 27일 저녁부터 7월 1일 부산으로 이동할 때까지 이승만은 대전에서 전쟁을 지도했다. 6월 28일 아침 이승만은 충남도지사실에서 임시 각료회

38)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1권, p.618.

39) 위의 책, p.618; 존 톨랜드, 김익희 옮김, 『존 톨랜드의 6·25전쟁』 1권, 바움, 2010, p.58.

40)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1권, p.610.

41) 프란체스카 도너 리, 『프란체스카의 난중일기』, p.27;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1권, p.610.

42) 부산일보사 편, 『임시수도천일』 상, p.41.

의를 열었고, 이날 회의에서 총무처장관이 신 국방부장관을 경질하고, 대신 이범석 장군을 임명하자고 건의했으나 채택되지 않았다.<sup>43)</sup>

6월 29일 08:30에 무초 대사는 충남지사로 이승만을 예방하고 맥아더 장군의 내한 소식을 전했고, 이튿날 이승만은 수원비행장에서 맥아더 장군과 회동했다. 맥아더 장군의 한강방어선 시찰은 전쟁의 흐름을 바꾸어 놓았다. 맥아더의 한국전선 결과 보고서가 미 지상군 참전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다. 미국은 6월 30일 한국 전선에 미 지상군을 참전하기로 결정했고, 여기에 맥아더의 미 극동군이 참전하게 됐다.

이로써 이승만의 미국의 지원을 얻어내기 위한 전시 외교노력은 미국의 참전으로 그 결실을 맺게 됐고, 한국군은 이제 강력한 미국의 군사적 지원을 받게 됐다. 이승만은 이제 미국의 참전과 유엔군의 지원에 힘입어 북진통일을 위한 힘찬 거보를 내딛게 됐다.

### 3. 전시지도자로서 이승만의 역할

#### (1) 전쟁목표 수립과 북진통일 추진

승만은 전쟁 당일 개성과 동두천이 함락되고, 이튿날 서울의 관문인 의정부도 함락되는 불리한 전황(戰況) 속에서도 북진통일을 부르짖었다. 이승만은 개전 첫날 무초 미국대사를 만나 “6·25가 제2의 사라예보가 되어서도 안 되겠지만 통일을 위한 절호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sup>44)</sup>

나[이승만]는 자유와 민주제단에 생명을 바치려니와 나의 존경하는 민주국

43) 프란체스카 도너 리, 『프란체스카의 난중일기』, pp.28~29.

44) The Ambassador in Korea(Muccio) to the Secretary of State(1950.6.25), FRUS, 1950, Vol. VII, pp.129~131.

민들도 끝까지 싸워 남북통일을 이룩해야 할 것이다.<sup>45)</sup>

이승만은 그만큼 북한의 남침으로 불리한 환경 속에서도 국제정세의 흐름을 파악한 후 앞으로 한반도의 운명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미리 알고 행동했다. 이처럼 이승만은 개전 초기부터 북진통일을 주장했다. 이는 유엔군과 함께 북한의 남침을 응징함과 동시에 1947년 이후 미국의 목표이자 유엔의 목표이며 자신의 목표인 '자주·독립된 통일한국'을 건설하는 것이었다. 이승만은 1950년 7월 10일 한미연합군이 힘겨운 지연작전을 전개하고 있을 때 "이제 38도선은 자연스럽게 해소됐다."고 말했다.<sup>46)</sup>

그리고 1950년 7월 13일 이승만은 "북한의 공격으로 과거의 경계는 완전히 사라졌으며, 분단된 한국에선 평화와 질서를 유지할 수 없다."고 천명했다.<sup>47)</sup> 또한 그는 1950년 7월 19일 트루먼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소련의 후원으로 수립된 북한 정권이 무력으로 38도선을 파괴하고 남침한 이상 38도선이 더 이상 존속할 이유가 없어졌으며, 이에 전쟁 전의 상태로 돌아간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다."며 유엔군의 38도선 돌파의 당위성을 강조했다.<sup>48)</sup>

인천상륙작전 성공 후 이승만은 북진통일의 의지를 다시 한 번 내외에 천명했다. 그는 1950년 9월 20일 인천상륙작전 경축대회에서, "지금 세계 각국 사람들이 38도선에 대해 여러 가지로 말하고 있으나 이것은 다 수포로 돌아갈 것이다. 본래 우리 정부의 정책은 남북통일을 하는데 한정될 것이요. 소련이 북한을 도와 민주정부를 침략한 것은 민주세계를 토벌하려는 것이므로 유엔군이 들어와서 공산군을 물리치며 우리와 협의하여 싸우고 있다. 이에 우리가 38도선에서 정지할 리도 또 정지할 수도 없다. 지금부터 이북 공산도배를 소탕하고 38도선을 압록강과 두만강까지 밀고 올라가서

45) 프란체스카, 『프란체스카 난중일기』, pp.31~32.

46) 외무부, 『한국외교 30년』, 1979, p.105.

47) The Secretary of State to the Embassy in Korea(1950.7.14), *FRUS, 1950*, vol. VII, p.387.

48) 한표육, 『한미외교 요람기』, pp.94~95.

철의 장막을 쳐부술 것"이라고 결의를 다졌다.<sup>49)</sup>

그러나 1950년 9월 29일 서울 환도식이 끝난 후 이승만이 맥아더 장군에게 "지체없이 북진을 해야 한다."라고 말했을 때, 맥아더 장군이 "유엔이 38도선 돌파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고 대답하자, 이승만은 "유엔이 이 문제를 결정할 때까지 장군은 기다릴 수가 있겠지만, 국군의 북진을 막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요. 내가 명령을 내리지 않아도 국군은 북진할 것이다."고 말하고,<sup>50)</sup> 그날부로 정일권 육군총장에게 북진명령을 내려 국군이 38도선을 돌파하도록 했다. 나아가 이승만은 우리 국군이 평양에 먼저 입성하고, 유엔군에 앞서 진격하여 압록강과 두만강을 확보하라고 지시했다.<sup>51)</sup>

이후 유엔군과 공산군 측과의 휴전협상 과정에서도 한반도 통일을 지향하는 이승만의 북진통일은 그의 전쟁목표로 정립돼 전쟁기간 내내 일관되게 추진됐다. 그는 이를 위해 전쟁 초기 일찌감치 국군 작전지휘권을 유엔군사령관에게 이양함으로써 유엔회원국이 아닌 한국군이 유엔군에 편입되게 함으로써 유엔군의 일원으로 싸우게 했다. 이러한 조치는 모두 북진통일을 위한 사전 포석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북진통일에 반(反)하는 미국과 유엔, 그리고 참전 자유우방국의 어떠한 정책과 결의에 대해서도 이승만은 조금도 양보하지 않았다. 그가 분단을 고착화시키는 휴전을 결사적으로 반대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다시는 통일의 기회가 없을 것이라는 것을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대통령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번에 38도선을 넘어 압록강과 두만강까지 진격하여 중공군과 공산군을 완전히 몰아내고 통일을 이룩해야만 가장 큰 민족적 비극을 막을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sup>52)</sup>

49) 대한민국 공보처, 『대통령 이승만 박사 담화집』, pp.39~40.

50) 프란체스카 도너 리, 『프란체스카의 난중일기』, p.166.

51) 위의 책, p.167.

52) 위의 책, p.141.

그렇기 때문에 전시 이승만의 행보에는 전혀 거리낌이 없었다. 6·25전쟁 기간 이승만에게 이러한 전쟁목표가 없었다면 한국도 베트남 전쟁에서 '자유월남'처럼 공산화되었을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다. 이에 미 제8군사령관을 역임했던 테일러(Maxwell D. Taylor) 장군은 이승만을 회고하면서 "한국의 이승만 같은 지도자가 베트남에도 있었다면, 베트남은 공산군에게 패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sup>53)</sup> 이처럼 이승만은 불리한 상황에서도 오로지 국가이익만을 생각하고 행동했다.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 무리수를 두었던 반공포로석방은 그 좋은 실례가 됐다.

휴전정책에 반대하는 이승만은 미국에게 골치 아픈 존재였다. 미 제8군사령관과 유엔군사령관을 역임했던 리지웨이(Matthew B. Ridgway) 장군은 이런 이승만 때문에 "자신의 머리털이 많이 빠지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많은 사람들이 그가 멀리 어디론가 멀리 가버렸으면 하고 남몰래 바라기까지 했다."며 당시 이승만 때문에 겪은 어려운 심경을 밝히고 있다.<sup>54)</sup> 오죽했으면 미국은 그들의 정책에 고분고분하지 않은 이승만을 제거할 '에버레디 계획(Everready Plan)'까지 수립했을까.<sup>55)</sup> 그렇지만 미국이 이 계획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한국에 이승만한 리더십을 갖춘 반공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이승만은 6·25전쟁이라는 국가적 위기를 오히려 호기로 판단하고 전쟁을 지도해 나갔던 위대한 지도자였다.

이렇듯 전쟁수행 과정에서 보여준 이승만의 북진통일에 대한 지나칠 정도의 집념과 무리수는 미국과 유엔에게는 커다란 부담이 되었을지 몰라도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들로부터는 반드시 달성해야 될 전쟁목표로 전폭적인

53) 프란체스카 지움, 조혜자 옮김, 『이승만 대통령의 건강』, 도서출판 햇불, 2006, p.57.

54) 매튜 B. 리지웨이, 김재관 역, 『한국전쟁: 제2대 유엔군사령관 매튜 B. 리지웨이』, 정우사, 1981, pp.176~177.

55) 에버레디 계획의 주요 내용은 ①반항적인 지도자를 제거하고 미군에 충성하는 지휘관으로 교체할 것 ②불응하는 한국군에 대한 연료와 탄약 공급을 중지할 것 ③포와 공군지원을 철수할 것 ④유엔군사령부 명의로 계엄령을 선포할 것 ⑤유엔군사령부에 의한 군사정부수립을 선포할 것 등이다. "Paper Submitted by the Commanding General of the United States Army(Taylor), May 4, 1953" *FRUS 1952~1954*, Vol. XV, Korea Part 1, 1984, pp.965~967. 이 계획은 1953년 5월 29일 국무부와 합동참모본부 회담에서 논의됐다.

지지를 받았다.<sup>56)</sup>

## (2) 전시 국정수행 및 치안유지

이승만은 전쟁 당일 전국이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대통령령 제377호(비상사태하의 법령공포식의 특례에 관한 건)를 공포하여 라디오, 신문,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법령을 공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긴급명령 제1호(비상사태하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를 하달하여 비인도적인 범죄자를 엄중처벌하기로 했다.<sup>57)</sup>

한편 전쟁이 발발하자 38도선 지역을 담당하고 있던 일부 지휘관에 의해 계엄령이 선포됐다. 이는 1949년 11월 24일 법률 제69호로 공포된 계엄법에 따른 것이었다. 계엄법 제1조에 의하면 대통령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대처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하도록 했다. 계엄은 경비계엄과 비상계엄으로 구분하고 이의 선포권자는 대통령이였다.<sup>58)</sup> 그런데 교통, 통신의 두절로 인하여 대통령의 계엄선포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는, 계엄법 제6조에 당해 지방을 관할하는 군사책임자가 임시로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여기서 군사책임자는 특명의 사령관, 군사령관, 사단장, 병단장, 요새사령관, 위수사령관인 독립단대장, 합대사령장관, 합대사령관, 통제부사령관, 경비부사령관 등이였다.<sup>59)</sup>

위 근거에 의거하여 중동부 및 동해안 지역을 담당하던 제8사단장(사단장 이성가 대령)은 전쟁이 발발하자 6월 25일 10:00시부로 사단전투지경내에 경비계엄령을 단독으로 선포하고 이소(李蘇) 대위를 민사부장에 임명하여 강릉의 민정업무를 관장하도록 했다. 또한 사단장은 민사부장으로 하여

56) 남정욱, 『이승만 대통령과 6·25전쟁』, p.197.

57)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1권, p.611.

58) 경비계엄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인하여 질서가 교란된 지역에 선포한다(계엄법 제3조). 비상계엄은 전쟁 또는 전쟁에 준할 사변에 있어서 적의 포위공격으로 인하여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된 지역에 선포한다(계엄법 제4조).

59) 계엄법 제6조, 1949.11.24.

금 전황의 추이에 따라 주요 행정기관의 소개와 금융기관의 보유현황 및 직원의 대구로의 철수를 준비하도록 지시했다.<sup>60)</sup>

또한 춘천의 중부지역을 담당하고 있던 제6사단장 김종오 대령도 전쟁 발발 당일인 6월 25일 저녁, 육군본부 참모부장 김백일 대령은 전화통화에서 “전황이 매우 불리하다. 당신은 강원도지구계엄사령관이다. 인적·물적 자원에 대한 동원권한이 있으니 최선을 다하십시오.”라는 말을 듣고, 전면전쟁이 벌어졌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에 제6사단장은 우선 기동력을 확보하고자 춘천시내와 영월 탄광에 있는 트럭을 모두 징발시키고 춘천에 있는 정부 양곡 등을 확보하여 전투태세를 갖추었다.<sup>61)</sup>

이승만도 대통령의 자격으로 헌법에 보장된 계엄선포와 긴급조치 및 명령권을 행사하여 민심을 수습하고 전시의 치안유지에 노력했다. 대통령은 헌법 제64조 및 계엄법 제1장(계엄의 선포)의 제1조에 의하여 계엄령을 선포했다. 1950년 7월 8일 계엄령선포시 이승만은 계엄법에 의거 선포의 이유는 “북한의 전면적 불법 무력 침구(侵寇)에 의하여 군사상의 필요와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고 했고, 계엄의 종류는 비상계엄으로서 “전라남도과 전라북도를 제외한 남한 전역”을 대상으로 했다. 계엄사령관에는 “육군총참모장 육군소장 정일권”을 임명했다.<sup>62)</sup> 계엄사령관은 7월 8일 “포고 제1호”에서 “국내의 모든 체제를 전시체제로 전환함으로써 과감한 작전수행을 도모하고 신속한 승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헌법 및 계엄법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되었음을 국민들에게 알렸다.<sup>63)</sup>

이승만도 7월 15일 ‘계엄선포에 대한 대통령 특별담화’를 통해 “작전지역에는 계엄령을 선포하였으니 관민을 막론하고 말을 삼감으로써 무근한 풍설(風說)로 민심을 동요시키거나 국방치안에 손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고

60)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1권, p.214.

61)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2권(구권), 1968, p.156. 김백일 참모부장의 말에 의하면, 비록 정부의 계엄령은 7월 8일 선포되었으나, 군에서는 전쟁 당일 이미 지역별로 계엄령을 선포한 것으로 판단된다.

62) 국방부 전사편찬회, 『한국전란 1년지』, 1951, p.C49.

63) 「계엄령 선포」(포고 제1호, 1950. 7. 8), 국방부 전사편찬회, 『한국전란 1년지』, p.C3.

강조했다.<sup>64)</sup> 또한 대통령은 전쟁을 당하여 헌법에 보장된 긴급명령 및 처분권을 행사했다.

또한 이승만은 전쟁 당일부터 휴전 무렵까지 대통령으로서 군사·경제·치안과 관련된 각종의 비상조치를 공포하는 등 전시 국정수행에 필요한 헌정 질서 및 치안유지, 인적 및 물적 동원, 피난민 대책 및 구호, 장교보충 등에 관한 법령 등을 공포하여 시행했다.<sup>65)</sup>

### (3) 망명 정부의 결사반대

이승만은 전쟁 중 망명정부 운운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반대했다. 망명정부에 대해서는 전황이 불리해질 때마다 미국측에 의해 꾸준히 제기됐다. 즉, 망명정부는 낙동강선 방어 형성 전후와 중공군 개입 이후 미국은 한국 정부의 해외 및 제주도 이전 문제를 제기했다.

낙동강선 방어는 자연적, 군사적, 심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특히 이 선을 군사적으로 안정시켜 이른바 부산교두보를 방어하는 것은 한국의 영토적 실체를 보존한다는 정치적 의미를 담고 있었다. 그렇지 않을 경우 한국정부는 제주도에 가서 또 하나의 대만을 만들거나, 아니면 인접국이나 다른 지역에서 망명정부가 될 수밖에 도리가 없었다. 이에 미국 정부는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여 철수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었다. 철수 지역으로는 필리핀, 사모아, 피지의 남양군도, 하와이, 훗카이도 등을 고려했으나, 최종 후보지역은 제주도, 일본, 류큐열도(오키나와 제외), 대만 등으로 선정해 놓고 있었다.<sup>66)</sup>

이승만은 미군 참전에도 불구하고 전선이 계속 남쪽으로 내려가며 후퇴

64) 「계엄령선포에 대한 이승만 대통령 특별담화」, 국방부 전사편찬회, 『한국전란 1년지』, p.C3.

65) 국방부전사편찬회, 『한국전란 1년지』, pp.C47~C85; 국방부전사편찬회, 『한국전란 2년지』, 1953, pp.C215~C238; 국방부정훈부, 『한국전란 3년지』, 1954, pp.C120~C177.

66) JCS Decision on Evacuation of ROK Personnel from Korea, February 4, 1951, RG.218, CCS 383.21 Korea(3-19-45), Sec., 81, N.A.; 전쟁기념사업회, 『한국전쟁사: 북한군 침공과 한국군방어』 제3권, 행림출판사, 1992, p.303에서 재인용.

를 하고, 급기야 최후의 보루인 낙동강방어선까지 밀리는 위기인 상황인 1950년 7월 29일 밤, 프란체스카를 불러 도쿄의 맥아더사령부로 떠나라고 했다.<sup>67)</sup> 이승만은 거의 명령조로 “마미, 적이 대구방어선을 뚫고 가까이 오게 되면 제일 먼저 당신을 쏘고 내가 싸움터로 나가야돼요. 그쪽에 부탁을 해놓았으니 당신만은 여기를 떠나주세요.”라고 강권하다시피 했다.<sup>68)</sup> 프란체스카는 “절대로 대통령의 짐이 되지 않을 것이며 최후까지 대통령과 함께 있겠다.”며 잔류의사를 밝혔다. 프란체스카의 말에 감동한 이승만은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나는 다시는 망명정부를 만들지 않을 거야. 우리 아이[병사]들과 같이 여기서 최후를 마칩시다.” 하며 그녀의 등을 토닥여주었다.<sup>69)</sup>

낙동강 전선에서 전투가 치열하게 전개되던 1950년 8월 9일 임시수도 대구에서는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방·내무·교통·상공·재무부장관으로 구성된 전신내각이 소집됐다. 전신내각에서는 비상시에 정부를 어디로 옮겨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논의됐다. 이 자리에서 이승만은 “최악의 경우 정부는 제주도도로 옮겨야 하겠지만, 자신은 대구를 사수하겠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sup>70)</sup>

또한 낙동강 방어선이 최악의 위기에 빠진 8월 14일 적의 총공세에 의해 대구가 적의 공격권에 들어가자 무초 미국대사는 정부를 제주도도로 옮길 것을 건의했다.<sup>71)</sup> 무초는 그곳이 적의 공격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고 최악의 경우 남한 전체가 공산군에 점령된다 해도 망명정부를 지속시켜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무초가 한참 열을 올려 얘기하고 있을 때 이승만은 허리에 차고 있던 모젤권총을 꺼내들었다. 순간 무초의 입이 굳어져버렸고 얼굴색도 하얗게 질려버렸다. 옆에 있던 프란체스카도 깜짝 놀랐다. 이승만은 권총을 아래위로 흔들면서 “이 총은 공산당이 내 앞까지 왔을 때 내 처

67) 프란체스카 도너 리, 『프란체스카의 난중일기』, p.69.

68) 위의 책, p.69.

69) 위의 책, p.69.

70) 위의 책, p.85.

71) 위의 책, p.98.

를 쏘고 적을 죽이고 나머지 한 알(발)로 나를 쏠 것이요. 우리는 정부를 한반도 밖으로 옮길 생각은 없소. 모두 총궐기하여 싸울 것이요. 결코 도망가지 않겠소.”라고 단호히 말했다. 이승만이 권총으로 어쩔 것은 아니지만 긴장한 무초 대사는 더 이상 말을 못하고 혼비백산하여 돌아갔다고 한다.<sup>72)</sup>

한편 낙동강 방어전시 육·해·공군총사령관 겸 육군총참모장 정일권 소장도 1950년 9월초 대구방어의 전략적 요충지인 영천이 적에게 점령당했을 때 미 제8군사령관 워커(Walton H. Walker) 중장으로부터 망명정부에 관한 내용을 듣고 이를 이승만에게 보고한 적이 있다.<sup>73)</sup> 워커 장군은 “이것은 극비 중의 극비입니다. 제너럴 정과 나, 두 사람만이 알고 있어야 합니다. 당분간은 이승만 대통령한테도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한국군 중에서 가장 믿을 수 있고 가장 잘 싸우는 2개 사단과 각계각층의 민간인 10만명을 극비리에 선정해 주기 바랍니다.”라고 말했다.<sup>74)</sup> 정일권은 “[이것이] 누구의 구상입니까? 워커 장군의 생각입니까?”라고 묻자, 그는 “맥아더 사령관의 극비 긴급지시입니다.”라고 말했다.<sup>75)</sup>

워커는 9월 7일 영천방어가 가망 없어졌을 때 맥아더 사령관이 미 제8군의 전면철수를 고려하라고 했다면서 정일권에게 이에 대한 배경을 설명해 주었다. 한국군 2개 사단과 민간인 10만명에 대한 철수계획은 워커 자신의 생각이라고 했다. 워커는 정 장군이 승낙하면 맥아더 사령관에게 건의하여 수송선박을 준비하겠다고 했다. 철수장소에 대해서는 아메리카 군도라고 했으나, 정일권은 괌 아니면 하와이가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sup>76)</sup>

정일권은 사태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이튿날 새벽 부산경무대로 이승만을 긴급 방문하고 미군 철수계획을 보고했다. 꼴꼴한 자세로 눈을 지그시 감고 보고를 받던 이승만은 “워커, 그 사람 보기보다는 여간 겁쟁이가 아니구

72) 위의 책, p.98.

73) 정일권, 『전쟁과 휴전』, p.84.

74) 위의 책, p.85.

75) 위의 책, p.86.

76) 위의 책, p.86.

먼. 망명의 설움을 안고 하와이에서 외롭게 일본 제국주의와 싸웠던 나, 이승만에게 이제는 겨레를 이끌고 다시 그곳으로 망명하라는 것인가!”라며 격노했다. 그리고서 이승만은 “워커 장군에게 말하십시오. 나, 대한민국 대통령 이승만은 누가 가자고 해서 나의 조국을 등질 비겁자가 아니라고 말하십시오. 나, 이승만은 영천이 무너져 공산군이 여기 부산에 오면 내가 먼저 앞에 나서서 싸울 것이요. 그래서 내 침실 머리맡에는 언제나 권총이 준비돼 있다고 말하십시오!”라고 의연하게 대처했다.<sup>77)</sup>

이승만은 계속해서 “가려거든 떠나라고 하시오. 미군들은 왜 여기에 왔는가. 공산침략군을 물리치고 정의와 자유를 위해 온 것 아닌가. 그런데도 전황이 위태롭다 해서 가고 싶다면 자기들끼리만 떠나라고 하시오!”라며 강한 어조로 말했다.<sup>78)</sup>

한국 망명정부 문제는 중공군 개입 이후 유엔군이 철수하는 과정에서 다시 제기됐다. 중공군의 신정공세에 따라 미국은 최악의 경우 망명정부를 유지하여 저항을 계속하도록 한국을 지원할 것을 정책목표로 설정했다. 미국 정부가 1951년 1월 12일 마련한 유엔군의 전쟁지도지침을 보면, “유엔군은 일단 일본으로 철수시키되, 한국정부와 군경을 제주도로 이전시켜 저항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것이었다.<sup>79)</sup>

미국이 극비리에 추진한 한국 정부의 제주도 이전계획에 포함된 대상인원은 행정부와 그 가족 36,000명, 한국 육군 260,000명, 경찰 60,000명, 공무원·군인 및 경찰가족 400,000명, 기타 요원 등 총 100만 명으로 판단했다. 미국은 어떠한 경우에도 한국인을 일본으로 이동시키지 않는다는 방침을 정했다.<sup>80)</sup>

이처럼 6.25때 이승만 같은 국제정세를 꿰뚫는 강단있는 지도자가 없었다면 대한민국은 전황이 불리해 질 때마다 제주도 및 해외에 망명정부를 수립하지 않으면 안 되었을 것이다.

77) 위의 책, p.86.

78) 위의 책, p.86.

79)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 중, 1996, p.351.

80) 위의 책, p.352.

#### (4) 국군 통수권자로서 전쟁지도와 전력증강

이승만은 국군 통수권자로서 작전지휘권을 유엔군사령관에게 위임했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한국군사사절단을 편성했으며, 또 헌법상에 명시된 국군총사령관을 임명했고, 전쟁 초기 미군 병력을 보충하기 위한 카투스사(KATUSA) 제도의 도입을 비롯해 전쟁 이전 현역 및 예비역을 합쳐 14명에 불과했던 장성들을 부대증편과 지휘구조에 맞춰 대장(大將)으로 임명하는 등의 군 인사권을 행사했다.

이승만은 맥아더 장군이 한국전선 시찰 때 육군총참모장 교체 제의와 전쟁초기 실패 책임을 물어 채병덕 장군을 그 직에서 해임하고 정일권(丁一權) 육군준장을 소장으로 승진시켜 육군총참모장 겸 육·해·공군 총사령관에 임명했다.<sup>81)</sup> 정일권의 육군총장 기용은 이승만에 의해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

이승만은 6월 30일 18시경 임시 집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충남도지사실로 정일권을 호출했고, 정일권은 수원에서 출발하여 대전에 21:00에 도착했다. 이승만이 정일권에게 임명장을 수여할 때 신국방장관이 배석했다. 이승만이 준 임명장에는 대통령 친필로 다음과 같이 쓰여 있었다. “임명장. 육군준장 정일권, 명(命) 육군소장. 보(補) 육·해·공군총사령관 겸 육군총참모장. 1950년 7월 1일 대통령 이승만”이라고.<sup>82)</sup> 이승만이 정일권 장군을 육해공군총사령관에 임명한 것은 헌법 제72조에 명시된 ‘국군총사령관 임면(任免)’에 근거를 두고 실시한 인사였다.<sup>83)</sup>

이승만은 7월 7일 유엔안보리에서 유엔군창설결의안이 채택된 다음날 맥

81) 해롤드 노블, 박실 역, 『비록 전화속의 대사관』, 한성사, 1980, p.105; 짐 하우스만·정일화 공저, 『한국대통령을 움직인 미군 대위』, p.213.

82) 정일권, 『전쟁과 휴전』, p.38.

83) 「제헌헌법」 제72조 7항. 전쟁 발발 당일 공군총장이던 김정렬 장군은 채병덕 육군총참모장에게 “형님! 오늘부터 형님이 육해공군 총사령관이 되셔야 하겠습니까. 그래야 나와 해군의 김영철 부장을 거느리고 3군을 통수하면서 긴급한 전쟁상황에 대비하실 것 아닙니까?” 해서 이때부터 채병덕 장군이 육해공군 총사령관이 되었다고 한다. 김정렬, 『김정렬 회고록』, 을유문화사, 1993, pp.140~142. 그렇지만 이것은 어불성설이다. 국군총사령관은 당시 헌법에 나와 있는 직책이고 대통령에 의해서만 임명될 수 있었다.

아더 원수가 유엔군사령관에 임명되자, 그는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을 맥아더 장군에게 위임했다. 이승만은 7월 14일 맥아더 장군에게 보낸 개인 서신에서 “현재의 전쟁상태가 계속되는 동안(during the period of the continuation of the present state of hostilities)” 한국의 육·해·공군에 대한 지휘권을 맥아더에게 위임한다고 밝혔다.<sup>84)</sup> 이에 맥아더 장군은 7월 17일 주한미 지상군총사령관 겸 제8군사령관인 워커(Walton H. Walker) 장군에게 한국군에 대한 지휘권 행사를 지시했다.<sup>85)</sup> 7월 18일 맥아더 장군은 주한미국대사를 통해 이승만에게 답신을 보냈다. 그러나 미 제8군사령부의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는 제8군과 한국의 육군본부가 상하관계라는 위치 때문에 작전을 하는데 있어 복잡한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었다. 이에 제8군사령관 워커 장군은 작전을 실시함에 있어서 한국의 육군본부에 명령하기보다는 요청하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한국군과 조화를 이루며 효율적인 관계를 유지해 나갔다.<sup>86)</sup>

또한 이승만은 전쟁 초기 미 지상군의 병력 보충을 위해 카투스사(KATUSA: Korean Augmentation to the US Army) 제도를 도입했다. 카투스란 미군 부대에 증원된 국군병력이란 의미로 1950년 8월 15일 이승만과 맥아더 간의 합의에 따라 공식화되었으며, 이것의 주목적은 미군 사단의 부족병력을 보충하여 전력을 유지하는 데 있었다.<sup>87)</sup> 그 결과 미군은 낙동강 전선을 유지할 수 있었고, 인천상륙작전에 참가하는 미 제7사단 병력 24,854명 중 카투스 8,637명이 참전할 수 있었다. 이승만 정부의 노력으로 6·25전쟁 기간 중 카투스 43,660명이 미군과 함께 참전하여 11,365명이 전사 또는 실종됐다.<sup>88)</sup>

84) “The Korean President Syngman Rhee to the American Embassy(1950.7.15)”,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편, 『국방조약집, 1945~1980』 제1집, 1981, pp.629~631; 서울신문사, 『주한미군 30년』, 1979, p.169.

85) James F. Schnabel, *Policy and Direction*(Washington D.C., GPO, 1990), p.102.

86) Roy Kenneth Flint, “The Tragic Flaw: MacArthur, The Joint Chiefs, and the Korean War”, Ph. D. dissertation, Duke University, 1976, p.98; 백선엽, 『군과 나』, p.183.

87)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 상, p.347.

88) 남정욱, 『6·25전쟁 이것만은 알아야 한다』, 삼우사, 2010, p.257; 육군본부, 『낙동강에서 압록강까지』, 군사연구실, 1968, p.364.

그러나 중공군 개입 이후 이승만은 유엔군과 작전수립과정에서 한·미간에 갈등이 발생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유엔군부사령관을 한국군 장성으로 임명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미국이 언어장벽 및 작전상의 혼선을 들어 한국군 부사령관 임명에 반대하자 대신 작전계획 수립과정에서 한국의 의견을 반영할 한국군사사절단(Korean Liaison Group)을 편성하여 유엔군사령부에 파견했다.<sup>89)</sup> 이승만의 한국군 장성이 맡는 유엔군부사령관 제도는 오늘날 한미연합군사령부의 부사령관 제도와 일맥상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이승만은 군의 문민통제 우위와 3군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노력했다. 이승만은 전쟁 기간 국방을 책임지는 국방부장관에 민간 출신들을 전격적으로 기용하여 전쟁을 수행했다. 전쟁 3년 중 전반기 2년간을 신성모와 이기봉이 국방부장관직을 맡아 수행했다. 이후 이승만은 전후 군의 전력증강을 위해 육해공군 출신의 장성들을 번갈아 가며 국방부장관에 임명됐다. 육군총장 출신의 신태영 장군, 해군총장 출신의 손원일 제독, 공군총장 출신의 김정렬 장군이 그들이다.<sup>90)</sup>

이승만은 전쟁 이전 일부 대령이 보직했던 사단장을 준장 또는 소장으로 격상하여 미군과 그 격을 맞추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장성들도 전쟁 이전에는 현역과 예비역 등 총 14명에 불과했으나<sup>91)</sup>, 미군 참전 이후 육군본부 참모 및 사단장에 보직된 대령들을 장군으로 진급시켰다. 또한 전쟁 초기 군단 참모장과 연대장을 지낸 대령들을 장군으로 진급시켜 사단장에 보직했다. 그리고 군단장 보직을 받은 유재홍과 김백일을 준장에서 소장으로 진급시켰다. 이후 군단장에 백선엽, 이형근, 정일권, 강문봉 장군 등을 발탁하여 등용했다.<sup>92)</sup> 총참모장 가운데 육군은 채병덕, 정일권, 이종찬, 백선

89) 김정렬, 『김정렬회고록』, pp.151~153.

90) 남정옥, 『6·25전쟁 이것만은 알아야 한다』, pp.109~110.

91) 6·25당시 장성은 육군현역 9명(채병덕 소장, 김홍일 소장, 이웅준 소장, 신태영 소장, 유재홍 준장, 이형근 준장, 송호성 준장, 정일권 준장, 이준식 준장)과 예비역 2명(김석원·원용덕 준장 준장)이고, 공군 2명(김정렬 준장, 최창덕 준장), 해군 1명(손원일 소장) 등 14명이었다.

92) 「장교 자력표」, 군사편찬연구소 소장 자료.

엽 장군이 역임했고, 해군은 손원일 제독이, 그리고 공군은 김정열과 최용덕 장군이 역임했다.

한편 국군 최초의 중장은 1951년 2월 22일 육군 중장으로 진급한 정일권 장군이었고<sup>93)</sup>, 최초의 대장은 백선엽 장군이 차지했다. 그는 1953년 1월 31일 대장으로 진급했다. 미군은 병력 20만 명당 1명의 대장을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었으나, 당시 국군으로서는 누구도 대장에 승진하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던 시기였다.<sup>94)</sup> 1953년 2월 백선엽 대장이 육군총장으로 재임시 밴플리트(James A. Van Fleet) 장군 후임은 테일러 중장이었다. 이는 이승만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파격적인 인사였다.

이승만은 국군 장병의 사기양양을 위해 군목(軍牧)제도를 도입하여 운용했다. 프란체스카 여사에 의하면 군목제도의 설치는 해군총장 손원일 제독의 건의로 이루어졌다고 한다. 손 제독은 “어느 국군사병이 일선에서 전사하면서 목사님의 기도를 들으며 평안한 마음으로 숨을 거둘 수 있게 해 달라.”는 청원을 들고 와서 대통령에게 건의했던 것이다.<sup>95)</sup>

감리교 목사의 아들인 손 제독은 “해군에는 이미 몇 사람의 목사가 종군하고 있어서 여러모로 도움이 된다.”고 했다.<sup>96)</sup> 대통령은 국군 창설 당시 이범석 장군과 군목제도에 대해 상의한 적이 있었다. 그런데 군에는 기독교 신자도 있고, 불교·천주교·원불교 신자도 있기 때문에 특정 종교인을 위한 군목제도는 차차 연구해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범석 국무총리의 의견에 따라 그때까지 미루었다. 그러나 이번 전시 중에 국군의 절실한 요청이 있자 이승만은 신성모 국방부장관에게 군목제도를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실시할 것을 지시했다.<sup>97)</sup>

이에 따라 국방부는 1950년 12월 21일 「대통령비서 국방 제29호」를 통해 육군본부에 군목제도를 설치한데 이어, 1951년 2월 27일에는 국본일반명령

93) 정일권, 『전쟁과 휴전』, p.300. 두 번째 중장 진급은 1952년 1월 12일부로 진급한 이종찬 육군총참모장, 손원일 해군총참모장, 백선엽 제2군단장 등 3명이었다.

94) 백선엽, 『군과 나』, p.262.

95) 프란체스카 도너 리, 『프란체스카의 난중일기』, p.249.

96) 위의 책, p.249.

97) 위의 책, p.249.

제31호에 의거 육군본부 인사국에 군승과(軍僧課)를 설치했다. 군승과는 1951년 3월 10일 군목과(軍牧課)로 개칭되면서 김형도 목사가 과장에 보임됐다. 전쟁 때 군목과는 장병의 사상·신앙·인격지도, 종교도덕 교육, 야전예배를 수행해 장병의 전투의식을 고취시켰고, 국군이 종교적 신앙에 입각해 멸공성전(滅共聖戰)을 완수케 했다. 휴전이후인 1954년 군목과는 군중감실로 승격하여 군의 종교에 관한 제반업무를 수행했다. 이렇듯 이승만은 반공과 한국의 기독교적 국가건설을 바탕으로 전시에 군중제도를 도입하여 신앙전력화를 꾀했다.

특히 이승만은 전쟁의 와중에 국군의 확대를 위해 노력했다. 전쟁 발발 당시 육군은 8개 사단 23개 연대였으나, 휴전 무렵 18개 사단으로 증설되었고 병력도 94,000명에서 55만 명으로 증강됐다.<sup>98)</sup> 즉, 1950년 7월 5일과 7월 15일 사이에 제1·제2군단을 창설했고 8월부터 11월에는 개전 초에 해체되었던 제2·제5·제7사단 등 3개 사단을 재창설했다. 이어 제9·제11사단을 새롭게 창설했으며, 10월 16일에는 제3군단을 창설했다. 이후 제2·3군단은 중공군의 한국군에 대한 집중 공세에 의해 커다란 손실을 입고 해체됐다. 그러나 제2군단은 1952년 4월 5일에, 그리고 제3군단은 1953년 5월 1일에 재창설했다. 특히 전쟁 기간 중 국군은 9개의 전차중대를 보유하고 됐다.<sup>99)</sup>

해군은 전쟁 당시 4개 정대에 33척의 함정으로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휴전 무렵 해군은 6개의 전대를 기간으로 1개 함대를 창설했고, 병력도 6,954명에서 12,000명 수준으로 증강됐다.<sup>100)</sup> 공군도 1개의 전투비행단과 1개의 훈련비행단 등 2개의 비행단으로 성장했고, F-51전투기 80대를 포함하여 총 110대의 항공기를 보유했다. 병력도 1,897명에서 11,000명으로 증원됐다.<sup>101)</sup> 이는 이승만이 휴전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미국으로

98) 국방부, 『국방사』 1, p.337.

99) 국방부, 『국방사』 2, 1987, p.343.

100)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 요약』, 1986, p.81.

101) 위의 책, p.85.

부터 얻어낸 일종의 전리품이었다.<sup>102)</sup> 이로써 이승만은 전쟁 이전 미국으로부터 얻고자 했던 전투기와 전차 등을 확보하게 됐다.

### (5) 전선지역 방문과 장병 격려

6·25때 이승만은 국군통수권자로서 역할과 소임을 다했다. 80세를 바라보는 노령에도 불구하고 그는 매주 전선시찰을 통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사기를 진작시켰다. 그를 '한국 현대사의 가장 위대한 사상가·학자·정치가·애국자'라고 칭송했던 미 제8군사령관 벤플리트 장군은 전쟁이 끝난 다음 이승만의 당시 모습을 다음과 같이 회고했다.

내[벤플리트] 재임 거의 2년간을 [이승만은] 평균 1주일에 한 번씩 나와 함께 온갖 역경을 마다않고 전방과 훈련지역을 시찰했다. 추운 날 지프를 타야 할 때면 죄송하다는 내 말에 미소로 답하고는 자동차에 올랐다. 목적지에 도달할 때까지 그의 밝은 얼굴과 외투 밖으로 보이는 백발은 검은 구름 위에 솟은 태양처럼 빛났다.<sup>103)</sup>

이승만은 장병들과 고난을 같이한다는 애군(愛軍)정신으로 계절이나 기후에 관계없이 노구(老驅)를 이끌고 전선지역을 방문, 격려했다. 그의 전선시찰은 한 여름의 폭염과 장마, 겨울의 혹독한 추위에 관계없이 전쟁이라는 가장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뤄졌다.

낙동강전선의 최대 위기인 영천전투가 끝날 무렵 이승만은 영천의 국군 제8사단을 방문하고 격려했다. 이때 주변에는 적의 박격포가 떨어지는 상황인데도 전선을 방문하고 장병들을 격려해 주었다.<sup>104)</sup>

또한 그는 1951년 9월 중동부전선의 최대 격전지인 단장의 능선 전투를

102) CINCUNC to Joint Chiefs Staff(1953.6.28), *FRUS 1952~1954*, Vol. XV, Part 2, pp.1280~1282; Rhee to Eisenhower(1953.7.11), *FRUS 1952~1954*, Vol. XV, Part 2, pp.1368~1369.

103) 로버트 올리버, 황정일 역, 『신화에 가린 인물 이승만』, p.329.

104) 정일권, 『전쟁과 휴전』, p.97.

앞둔 장병들을 격려하기 위해 부산에서 강원도 양구의 편치불까지 쌍발기와 연락기를 번갈아 타고 최전선지역을 방문했다. 그가 탄 연락기는 조종사 뒤에 겨우 한 사람이 앉도록 마련된 뚜껑이 없는 비무장 소형비행기였다.<sup>105)</sup>

이승만이 전선시찰을 마치고 임시 경무대가 있는 부산으로 복귀할 때 기상악화로 부산에 착륙하지 못하고 연료부족으로 대구로 회항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나 그곳도 짙은 구름에 휩싸여 착륙할 수 없게 되자 할 수 없이 열게 안개가 깔린 포항 근처 비행장에 불시착했다. 예정에 없던 비상착륙으로 뒤늦게 연락을 받은 인근부대에서 이승만 일행을 태울 차량을 뒤늦게 보냈다. 저녁 7시 30분쯤 비행장 근처의 소령이 지휘하는 부대에 도착한 이승만 일행은 먹다 남은 음식을 데워 먹은 후 폭우가 그치기를 기다려 밤 11시 지프에 분승하여 인근 역으로 이동해 열차를 타고 부산에 도착했다. 그날은 혈기왕성한 젊은이에게도 힘든 하루였으나 그는 내내 웃음을 잃지 않고 농담을 하며 주위 사람들을 위로했다.<sup>106)</sup>

특히 이승만은 1952년 10월 중부전선에서 백마고지를 놓고 중공군과 혈전을 치르고 있는 국군 제9사단을 방문하여 “귀관들이 막강한 미군 사단들 못지않게 용감하게 싸워 국위를 선양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용기를 얻어 국정을 보살피고 있다.”고 격려했고, 부상병들에게 “후방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실을 잘 새겨 뒤야지...”라며 눈물을 머금은 채 말문을 잇지 못했다. 이승만의 격려를 받은 김종오 사단장은 “노(老)대통령이 내손을 꼭 잡고 눈물을 적실 때 가슴이 메웠으며, 기필코 이 전투를 이기고야 말겠다는 각오를 되새기게 됐다.”고 술회했다. 이승만은 백마고지 전투에서 국군 제9사단이 승리하자 이를 격려하기 위해 부슬비가 오는 곳도 날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경비행기로 전선지역을 방문하여 사단 장병들을 감읍케 했다.<sup>107)</sup>

이승만의 전방의 전선시찰은 날씨나 기후에 관계없이 이른 새벽이나 늦은 밤에 움직여야 했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었으나, 그는 늙은 아버지가 사

105) 로버트 올리버, 황정일 역, 『신화에 가린 인물 이승만』, p.330.

106) 위의 책, pp.330~331.

107) 전사편찬위원회, 『백마고지전투』, 1984, pp.243~244.

랑하는 자식을 찾아가듯 밝고 활기찬 모습으로 전선지역을 방문하여 상무 정신에 바탕은 둔 국가수호정신을 역설했다. 그는 전선시찰을 통해 자칫 후방에서 망각할 수 있는 통수권자로서의 막중한 책무를 추스르는 한편, 죽음을 앞두고 작전에 투입될 장병의 사기를 앙양시키는 진정한 국군의 통수권자였다.

## (6) 반공포로 석방과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한미상호방위조약은 한국이 정전협정을 조건으로 미국으로부터 얻어낸 최대의 성과였다. 전쟁 기간 중 유엔군과 공산군 간에 휴전회담을 위한 예비회담이 진행되자 한국은 범국민적 차원에서 휴전회담을 결사적으로 반대했다.

더욱이 1953년에 이르러 휴전협상이 타결될 단계에 접어들자 국내에서는 휴전반대운동이 전개되면서 이승만은 휴전회담이 성립될 경우, 국군을 유엔군으로부터 분리시킬 준비를 할 것이며, 필요시 단독이라도 공산군과 싸울 것이라는 의사를 미 국무부에 통보했다.<sup>108)</sup>

미 국무부는 유엔군사령부를 통해 이승만의 북진 정책을 포기하도록 종용하면서 정전협정체결 및 수락 이후에도 미국은 미국과 필리핀, 미국과 일본, 앤저스(ANZUS) 조약과 같은 상호방위조약 및 동맹조약을 한국과 체결할 수 있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그러나 이승만은 휴전 전에 체결해야 한다는 주장을 앞세워 완강히 거부반응을 나타냈다.<sup>109)</sup>

또한 이승만은 아이젠하워(Dwight D. Eisenhower)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한에서 “중공군의 북한잔류는 한국의 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협이 되기 때문에 대공(對共) 유화적인 휴전협정의 체결보다는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하에 공산군과 유엔군의 동시 철수”를 제의했다.<sup>110)</sup>

108) 국방군사연구소, 『국방정책변천사, 1945~1994』, 1995, p.99.

109) 남정옥, 『이승만 대통령과 6·25전쟁』, p.217.

110) 온창일, 「한국전쟁과 한미상호방위조약」, 『군사』 제40호, 2000, p.127.

이승만의 서신에 대해 아이젠하워는 휴전협정의 체결 및 수락과 한국통일 문제는 정치적 접근에 의해 해결한다는 원칙을 한국이 수락하면, 상호방위조약 체결과 한국의 경제부흥을 위한 경제원조를 제공할 것이라는 내용의 답신을 보내왔다. 하지만 이승만은 계속되고 있는 대공 유화적인 휴전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그러한 휴전과 연결되는 상호방위조약은 그 실효성이 적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중공군의 철퇴와 유엔의 제반 결의의 이행을 주장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자, 이승만은 미국과의 상호방위조약 체결을 촉구하기 위한 압력조치의 하나로 반공포로 석방을 단행했다.<sup>111)</sup>

반공포로 석방은 이승만과 국군헌병총사령관 원용덕 장군에 의해 비밀리에 추진됐다. 이것은 이승만이 국군지휘관에게 혹여 해가 될까봐 백선엽 육군참모총장을 비롯해 군 수뇌부에게 비밀로 해 그들을 보호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이승만으로부터 직접 비밀지령을 받은 원용덕은 철저한 보안속에 이 일을 처리해 나갔다. 이승만은 이를 위해 이미 3개월 전인 1953년 3월 24일 대통령령 제153호에 의거 국군헌병총사령부를 국방부내에 설치했고, 원용덕 육군소장을 중장 진급과 동시에 헌병총사령관에 임명했다. 그리고 휴전협상의 마지막 관문인 포로문제가 타결되기 2일전인 6월 6일 원용덕을 경무대로 불러 포로석방문제를 비밀리 연구하도록 지시했고, 원용덕은 포로문제가 타결된 6월 8일 경무대로 이승만을 예방했다. 이 자리에서 이승만은 “나의 명령이니 반공한인애국청년들을 석방하라. 가만(可晩).”이라는 친필명령서를 내렸다.<sup>112)</sup> 이때 이승만은 일부에서 반공포로를 은밀히 도피시키자는 의견을 내자 정정당당하게 석방시키라고 지시했다.<sup>113)</sup>

원용덕은 이승만의 밀명을 은밀히 추진했다. 이 일은 국방부장관과 육군총장에게도 비밀로 했다. 모든 일은 육군헌병사령부와 포로경비부대를 통해

111) 차상철, 「이승만과 한미상호방위조약」, 『한국과 6·25전쟁』, 연세대 현대한국학연구소 제4차 국제학술회의(2000), p.206

112) 남정옥, 『이승만 대통령과 6·25전쟁』, p.205.

113) 박실, 『한국외교비사』, p.242.

진행됐다. 작전은 6월 18일 24:00에 일제히 개시되어 27,000여명의 반공포로를 석방했다. 6월 19일 06:00 원용덕은 중앙방송국에서 반공포로석방에 대한 담화문을 발표했다. 그의 목숨을 건 대명(大命)이 성공한 순간이었다. 이를 들은 애국학생들은 헌병총사령부 정문 앞으로 몰려들어 “원용덕 장군 만세!”를 외쳤다. 이승만은 원용덕에게 ‘義勇(의용)’이라는 휘호를 하사하고 그의 공을 치하했다.<sup>114)</sup>

이에 당황한 미국은 1953년 6월 25일 대통령 특사로 로버트슨(Walter S. Robertson) 국무부차관보를 한국에 급파하여 이승만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첫째, 미국은 평화적 수단으로 한국을 통일하는데 계속 노력한다. 둘째, 전후 한미방위조약을 체결한다. 셋째, 장기적인 경제 원조를 제공한다.<sup>115)</sup>

이를 토대로 이승만은 휴전문제와 주한미군 감축 등 긴급 현안문제를 로버트슨 특사와 협의했다. 그 결과 한미 간에 정전 후 상호방위조약 체결, 경제 원조 제공, 한국군의 20개 사단 미 해·공군력 증강 등에 대해 합의했다.<sup>116)</sup>

정전협정이 체결된 후인 1953년 8월 4일 딜레스는 한국에 도착하여 8월 8일까지 이승만과 상호방위조약에 관해서 논의했다. 이 조약은 1953년 8월 8일 서울에서 가조인됐고, 10월 1일 워싱턴에서 정식 조인됐다. 미국은 어렵게 확보한 휴전을 지키기 위하여 이승만의 요구를 대폭 수용함으로써 한국의 안전을 보장해주는 역할을 사실상 떠맡게 됐다.<sup>117)</sup>

이로써 이승만은 6·25전쟁 이전 한반도에서 전쟁 방지를 위해 미국에게 그토록 매달리며 요청했던 태평양동맹, 상호방위조약, 미군 주둔을 모두 성사시켰다. 이는 이승만이 아니면 그 어떤 지도자도 해낼 수 없는 한국 외교사상 최대의 성과였다.

114) 남정욱, 『이승만 대통령과 6·25전쟁』, p.205.

115) 한배호, 「한·미방위조약체결의 협상과정」, 『군사』 제4호, 1982, p.169.

116) 국방군사연구소, 『국방정책변천사, 1945~1994』, p.101.

117) 온창일, 「전쟁지도자로서 이승만 대통령」, p.233.

#### 4. 맺음말

이승만은 정부 수립 이후 '국가건설(state building)'이라는 시급한 당면 과제에도 불구하고 전쟁대비를 위해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고, 전쟁 중에는 전시내각과 군은 물론 전 국민을 반공정신으로 일치단결시켜 북진통일을 목표로 전쟁을 일관되게 지도하여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대한민국을 수호했다. 또한 전후에 대비하여 그는 국가의 안위와 민족의 생존권을 위해 국군의 전력증강을 도모하고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지구상에 존재케 한 역량 있는 전시 최고의 국가지도자였다. 이승만의 전지도자로서의 이러한 역할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 지상군의 증원을 보장했다. 북한 김일성은 전쟁 모의과정에서 스탈린이 가장 우려했던 미군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신속히 남해안까지 진출하여 미 증원군의 한반도 상륙을 막아냄으로써 전쟁을 1개월 내에 끝내고 한반도에 공산정부를 수립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국군 제14연대와 제6연대의 반란사건 이후 국군은 숙군을 통해 반공군대로 무장되었다. 이로 인해 국군은 전쟁 초기 불리한 상황에서도 적에게 개별 또는 집단으로 투항하지 않고 계속 후퇴하면서 축차적인 방어선을 형성하여 미군이 상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다. 만약 국군의 방어선이 좀 더 일찍 붕괴되었거나, 미군이 좀 더 늦게 증원되었더라면 한국에서의 전쟁 상황은 회복하기 어려운 단계로 접어들었을 것이다. 이는 이승만 정부가 미 군정기 군과 사회에 침투하여 암약하고 있던 공산당 세력을 일소하고 군을 튼튼한 반공군대로 육성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둘째, 국군을 유엔군의 일원으로 싸우게 하는 한편, 전쟁을 미국과 유엔의 책임하에 두도록 조치했다. 이승만은 개전 초기 국군의 작전지휘권을 미국의 맥아더 장군이 아닌 유엔군사령관에게 이양함으로써 유엔회원국이 아닌 한국의 군대가 유엔군과 함께 나란히 전쟁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제평화를 파괴하고 침략한 북한에 대해 응징하도록 했다. 아울러 이 전쟁이

단순히 남북한 간의 전쟁이 아니라 유엔에 의해 주도되는 국제전쟁(international war)이라는 것을 명확히 인식시켜 전쟁 수행의 책임을 미국과 유엔이 책임 지도록 했다.<sup>118)</sup> 이승만이 정전협정에 한국대표로 하여금 서명을 하지 못하도록 한 것도 이런 까닭에서이다. 그는 어디까지나 이 전쟁이 북한이 유엔에 도전하고 평화를 파괴한 전쟁이라는 점을 주지시켜 유엔으로 하여금 끝까지 책임을 지게 했다. 만약 한국이 정전협정에 서명했다면 미국은 베트남전쟁에서처럼 ‘자유월남’이 서명한 했던 것을 구실로 한국에 미군을 주둔시키지 않았거나 조기에 철수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승만은 이런 우려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선견지명이 있는 조치를 취했던 것이다.

셋째, 한반도 통일과 북진통일이라는 전쟁목적과 목표를 확고히 추진했다. 이로 인해 이승만은 결과적으로 한국의 국권을 수호했을 뿐만 아니라 전후 미국으로부터 한미동맹과 한국군 전력증강이라는 기대 이상의 성과를 얻었다. 전적으로 지원받는 입장에도 불구하고 이승만은 확고한 전쟁목표 아래 국군의 통수권자로서 의연하게 군림했고, 도움을 주고 있는 미국에게 오히려 큰소리를 치면서 전쟁의 주도권을 행사했다. 이승만에게 그러한 뚜렷한 국가적 목표가 없었다면 한국은 이미 공산화되었거나 제주도 및 태평양 군도의 어느 섬에 망명정부 형태로 남게 되었을 것이다.

넷째, 국가이익에 바탕을 둔 전시외교를 펼쳤다. 이승만은 전쟁 기간 내 내 오로지 국가이익을 위해 처신했고 행동했다. 이에 미국이 고분고분하지 않은 이승만을 제거할 계획까지 수립했으나, 미국이 이를 수용한 것은 이승만을 대신할 강력한 리더십을 갖춘 반공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

118) 이승만은 38도선 문제 및 전쟁의 성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견해를 피력했다. 즉, 그는 “38도선 문제에 대해서는 본래 38도선은 없는 것이다. 사상적 대립은 있을지 모르나 우리는 처음부터 이것을 허용 안했다. 이 38도선 문제를 여태껏 참아온 것은 국제적 관계였는데, 이번에 공산군이 이 선을 넘어 불법 남침한 것이니 자연 없어졌다. 그것은 소련이 북한괴뢰군으로 하여금 남침을 시켜 대한민국을 공산화시키려는데 있어 유엔민주진영이 민주우방을 살리기 위하여 일어나 국제 전쟁이 됐다. 그럼으로 이번 전쟁은 한국전쟁이 아니고 국제 전쟁이라고 대통령은 설명했다.” 프란체스카 도너 리, 『프란체스카의 난중일기』, p.155.

는 국가이익을 위해 반공포로 석방 등 전후 미국의 안전보장을 얻기 위해 고집을 피우고 완고하게 행동했지만 합리성과 국제정세를 정확히 읽고 판단할 줄 아는 견식이 풍부한 국제정치지도자로서 전쟁의 주체인 미국의 생각을 미리 읽고 행동했기에 가능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신감을 갖고 미국과 여러 정책을 놓고 협의할 때도 먼저 원칙론을 내세워 강력히 주장을 펴며 충돌하지만, 이는 미국으로부터 보다 많은 실리를 얻어내기 위함이었다. 휴전협상 무렵 그가 강력히 주장했던 단독 북진통일도 한국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이승만 자신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유엔군사령관 클라크 장군은 이러한 이승만을 보고 “명분을 적절히 구사해 실리를 얻어내는 외교적 수완을 도대체 어디에서 터득했는지 알 수 없다.”며 탄복했다.<sup>119)</sup>

다섯째, 한국에서 싸웠던 한국과 미국의 장군들로부터 진정한 애국자 및 국가지도자로 높이 평가받았다. 대한민국 초대 육군총장을 지낸 이응준 장군은 “이승만 박사는 현세기가 낳은 한국 최대의 정치가 중 한 사람입에 틀림없다며 그를 제1급의 애국자, 혁명가, 지도자”로 높이 평가했다.<sup>120)</sup> 백선엽 장군도 “전쟁의 위기를 이승만이 아닌 어떠한 영도자 아래서 맞이했다고 해도 그보다 더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을 것이다.”라고 술회했다.<sup>121)</sup> 유엔군사령관을 지낸 클라크 장군도 “한국의 애국자 이승만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반공지도자로 존경한다.”라고 치켜세웠다.<sup>122)</sup> 미 제8군사령관을 지낸 밴플리트 장군도 “이승만을 위대한 한국의 애국자, 강력한 지도자, 강철 같은 사나이이자 카리스마적인 성격의 소유자”라고 칭하면서<sup>123)</sup>, “자기 체중만큼의 다이아몬드에 해당하는 가치를 지닌 인물”이라고 칭송했다.<sup>124)</sup> 밴플리트 장군 후임인 테일러 장군도 “한국의 이승만 같은 지도자가 베트

119) 백선엽, 『군과 나』, p.277.

120) 이응준, 『이응준자서전: 회고 90년 1890~1981』, 삼아원책사, 1982, p.490.

121) 백선엽, 『군과나』, p.351.

122) 프란체스카, 조혜자 옮김, 『이승만 대통령의 건강』, p.56.

123) Paul F. Braim, 육군교육사령부 역, 『위대한 장군 밴플리트』, 2001, p.489.

124) 로버트 올리버, 황정일 옮김, 『신화에 가린 인물 이승만』, p.345.

남에도 있었다면, 베트남은 공산군에게 패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sup>125)</sup>

특히 미 제8군사령관과 유엔군사령관을 차례로 역임한 리지웨이 장군은 “이승만은 공산주의에 대한 증오에서는 타협을 몰랐고, 자기 국민에 대한 편애가 심했고, 불가능한 일을 끈질기게 요구했으나 마음속에는 깊은 애국심으로 가득했고, 애국심에 의지해 오랜 망명생활을 보내고 귀국한 이후 눈 뜬 시간의 거의 전부를 나라를 위해 바쳤다.”고 회고했다.<sup>126)</sup>

이렇듯 이승만은 개전 초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미군의 신속한 개입을 재촉하기 위해 노력했고, 미군 참전 이후에는 작전통제권을 위임하여 미국의 책임하에 전쟁이 전개되도록 만든 후 그는 오로지 민족의 숙원인 북진통일을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중공군 개입으로 미국의 대한정책이 휴전협정으로 통한 종전정책으로 바꾸자, 제2의 6·25를 방지하기 위해 미국으로부터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한국군 전력 증강 등 전쟁억지력 확보에 노력했다. 그는 미래의 민족의 생존과 국가이익을 위해 진정성을 갖고 위국헌신(爲國獻身)했던 대한민국 건국 및 호국대통령으로서 손색이 없는 ‘제1급의 국가지도자’였다.

(원고투고일 : 2011. 4. 1, 심사수정일 : 2011. 4. 21, 게재확정일 : 2011. 4. 29.)

주제어: 이승만, 6·25전쟁, 전쟁목표, 전쟁지도, 북진통일, 망명정부, 한미상호방위조약, 맥아더, 김일성, 정일권

125) 프란체스카, 조혜자 옮김, 『이승만 대통령의 건강』, p.57.

126) 매튜 B. 리지웨이, 김재관 역, 『한국전쟁: 제2대 유엔군사령관 매튜 B. 리지웨이』, p.176.

<ABSTRACT>

## The Role as Wartime Leader of President *Syngman Rhee* during the Korean War

Nam, Jeong-ok

This article aims to explain about the role as wartime leader of President *Syngman Rhee* during the Korean War(1950~1953).

The Korean War was the most difficult and potentially the most disastrous of the early Cold War period, a conflict which directly involved one of superpowers in open war with the most populous state in the world. The other superpower was only indirectly involved but there was always the possibility that it might intervene: a third world war could erupt.

This study has tried answer the following key questions: (1) How did President *Syngman Rhee* act the initial stage and after of the North Korea's surprise attack against the Republic of Korea (ROK)? (2) What was war policy and objective of President *Syngman Rhee*? (3) When and Why did President *Syngman Rhee* try to penetrate 38th parallel? (4) Why did President *Syngman Rhee* involve the United States into the Korean War? (5) What was role of President *Syngman Rhee* as a wartime leader during the Korean War? (6) What did President *Syngman Rhee* obtain from the United States after the Armistice?

In seeking answers to the above questions this paper used the State Department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Documents and Files of the Korea Government, the Korean War History of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of the ROK, and the Memoirs of those officers and generals who

played an active part in policy-making were consulted.

In conclusion, President *Syngman Rhee* achieved an enforcement of the Korean armed forces and the ROK-US alliance relations through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n this concept, he was a great patriot, national leader, wartime leader like Winston Churchill or Franklin Roosevelt, and international political scholar and leader.

Key Words : *Syngman Rhee*, the Korean War, War Objective, Conduct of War, Unification to North, Government in Exil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Douglas MacArthur, *Kim Il-Sung*, *Chung Il-kwon*

# 주한미군사고문단(KMAG)의 한국전쟁 인식과 대응

박 동 찬\*

1. 머리말
2. 전쟁 전 군사고문단의 한반도 위기상황 인식
3. 전쟁의 발발과 군사고문단의 초기 대응
4. 군사고문단의 전선 복귀와 조직 재편
5. 맺음말

## 1. 머리말

주한미군사고문단(U.S. Military Advisory Group to the Republic of Korea: KMAG)은 1948년 8월 24일 임시군사고문단(Provisional Military Advisory Group: PMAG)으로 출발해 1971년 4월 1일 주한미합동군사원조단(Joint U.S. Military Assistance Group-Korea: JUSMAG-K)에 통합될 때까지 약 23년간 한국에 존재했던 미국의 '군사자문기구'였다.

주한미군사고문단의 주요 임무는 한국군에 대한 자문활동과 한국에 제공

---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선임연구원

되는 군사원조의 계획 수립 및 원활한 집행을 감독하는 것이었다. 군사고문단은 1948~49년 주한미군의 철수에 따른 '군사적 보완장치'의 성격을 띠고 창설되었던 만큼 미국의 대한군사정책을 현지에서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으며, 한국군의 편성, 작전, 교육훈련, 군수업무 등 한국군과 관련된 모든 분야를 활동의 영역으로 삼았다. 따라서 군사고문단의 계획과 결정사항은 한국군의 운용기조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다. 특히 1949년 7월 고문단 창설 이후부터 1950년 7월 초미군 전투부대의 한반도 복귀전까지 약 1년간은 군사고문단의 계획과 결정 사항이 한국군에 그대로 적용되는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이 기간 동안에 한국군은 경찰로부터 완전히 독립해 군대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나갔으며, 또 남북한 사이에 전개된 군사적 충돌의 주체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렇듯 1949~50년 시기 군사고문단과 한국군은 순치(脣齒)의 관계에 있었다. 따라서 이 시기 한국군의 형성을 비롯해 한국전쟁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군사고문단의 정책과 활동에 대한 분석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러한 군사고문단과 한국군 관계의 중요성에 주목하여 일찍부터 군사고문단에 관한 연구가 국내외에서 진행되어 왔다. 국외의 대표적인 연구로는 소이어(Robert K. Sawyer)의 “주한미군사고문단: 평화와 전쟁 시기의 주한미군사고문단(*Military Advisor in Korea: K MAG in Peace and War*)”이 있으며<sup>1)</sup>, 국내의 대표적인 연구로는 조이현의 “1948~49년 주한미군의 철수와 주한미군사고문단의 활동”과 안정애의 “주한미군사고문단에 관한 연구”가 있다.<sup>2)</sup> 이들 연구를 통해 1948~50년 시기 군사고문단이 시행한 한

1) Robert K. Sawyer, *Military Advisor in Korea: K MAG in Peace and War*, Office of the Chief of Military Department of the Army, 1962. 소이어는 1951~55년 미 육군 군사연구실에 근무하면서 '군사고문단사'를 집필하였다. 당시 현역 대위였던 소이어는 근무지 변경으로 원고를 완성하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그의 원고는 초고로 남겨져 있다가 험즈(Walter G. Hermes)에 의해 수정과 보완을 거친 후 1962년에 공간되었다. 그의 초고는 RG 319, Entry No. 181, Office of the Chief of Military History BKGD-Military Adv. Korea: K MAG Peace & War, Correspondence to Supporting Documents, Box 2에 들어 있다.

2) 조이현, 1995, 「1948~49년 주한미군의 철수와 주한미군사고문단의 활동」, 서울대 국사학과 석사학위논문; 안정애, 1996, 『주한미군사고문단에 관한 연구-한국군 창군과정(1945~1950)에서의 역할 및 기능을 중심으로』, 인하대 정치외교학과 박사학위논문.

국군 각 사단에 대한 체계적인 훈련계획의 수립과 시행, 각종 군사학교의 개편과 신설, 장교들의 미국유학 주선, 한국의 내부 안정화를 위한 공세적인 게릴라 토벌작전의 지원 등에 관한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밝혀졌다. 또한 이들 연구를 통해 군사고문단은 남북이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었던 한국의 특수한 상황에서 전쟁을 억제하는 임무도 병행했음이 밝혀졌다. 그러나 이러한 많은 연구 성과에도 불구하고 한국전쟁 발발 후 전후로 한 시기의 고문단 활동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밝혀진 바가 거의 없다. 즉 당시 군사고문단이 판단하던 전쟁 발발 가능성의 정도와 범위, 그에 따른 한국군 작전지원의 내용, 개전 직후의 군사고문단 활동 등에 관한 연구가 전무하다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군사고문단의 한국전쟁 인식과 초기 대응이 어떠한가 하는 점을 구체적으로 밝혀보고자 한다. 이는 전쟁 전 군사고문단 활동의 성격과 함께 전쟁 초기 상황의 재구성과 재평가의 기초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새로운 자료들의 발굴을 통해 전쟁 발발 전후로 한 시기의 군사고문단 활동을 실증적으로 정리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참전고문관들의 증언과 수기를 적극 활용하였다. 그 중 대표적인 자료를 소개하면 '그린우드 문서'와 '에머리치 문서'를 들 수 있다. '그린우드 문서'는 「1950년 6월 25일 오전 4시 30분부터 1950년 6월 28일 정오까지의 사건 경과(Sequence of Events, 0430 25 June 1950-1200 28 June 1950)」라는 제목의 자료이다. 이 자료는 작성자와 작성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문서상에서 참모회의를 주도하고 민간인 소개작전(疏開作戰)을 지시하는 등의 내용이 나오고, 등장하는 주요 참모진의 명단을 비교해 볼 때, 당시 고문단 부참모장이었던 그린우드(Walter Greenwood Jr.)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문서이다. 이 문서는 전쟁 발발 초기 군사고문단 사령부의 활동을 이해하는 데 매우 귀중한 자료이다.

그린우드의 문서가 전쟁 발발 초기 군사고문단 사령부의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라면, 한국군 제3사단 선임고문관이었던 에머리치(Rollins S. Emerich)가 작성한 「1950년 한국전쟁 초기 역사(Early History of the Korean

War 1950)」는 지역에 파견된 고문단의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다. 이 문서는 에머리치가 1953년 11월부터 1954년 1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소이어에게 보낸 편지에 동봉된 초고로 분량은 78페이지이다. 각각의 원고가 보내진 날짜는 1953년 11월 20일(1쪽~13쪽), 12월 1일(14~26쪽), 12월 3일(27~41쪽), 12월 28일(42~58쪽), 1954년 1월 13일(59~78쪽)이며, 소이어가 이를 종합하여 묶은 것이다. 이 원고에는 1950년 6월 22일부터 한국군 제3사단과 관련된 내용이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는데, 한국전쟁 초기 경상도지역의 상황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sup>3)</sup>

## 2. 전쟁 전 군사고문단의 한반도 위기상황 인식

주한미군사고문단(KMAG)은 1949년 7월 1일 임시군사고문단을 모체로 하여 정식 창설되었다. 창설 당시 군사고문단의 정식 인가병력은 479명(장교 186명, 부사관 4명, 간호사 1명, 사병 288명)이었으며, 약 2개월 후인 10월 19일에 472명(장교 181명, 부사관 7명, 간호사 1명, 사병 283명)으로 조정되어 전쟁 발발 때까지 유지되었다.<sup>4)</sup> 하지만 군사고문단의 실제 병력은 인가 병력과 다소 차이가 있었는데, 1949년 12월에 497명(장교 178명, 사병 298명, 군무원 21명)이었다가 1950년 6월 1일 479명(장교 176명, 간호사 1명, 부사관 5명, 사병 278, 군무원 19명)으로 줄어들었다.<sup>5)</sup>

3) RG 319, Entry No. 181, Office of the Chief of Military History BKGD-Military Adv. Korea: KMAG Peace & War, Correspondence to Supporting Documents, Box 2.

4) "Status of Military Problems on Korea"(1949. 7. 1), "Status of Military Problems on Korea"(1949. 7. 1), RG 319, Entry No. 154, ACofS(G-3) Operations Decimal File 1949-1950, Box 163; Office of the Chief, KMAG, *Semi-Annual Report, Period 1 Jan 1950-30 June 1950*, RG 554, Entry No. A-1 1355, KMAG 8202nd Army Unit AG Section, *Semi Annual Historical Report, 1 July 1949 to 30 June 1950*, Box 29.

5) Office of the Chief, KMAG, *Semi-Annual Report, Period Ending 31 December 1949*, Annex No. II: *Semi-Annual Report, Period 1 Jan 1950-30 June 1950*, Annex No. II, RG 554, Entry No. A-1 1355, Box 29.

군사고문단은 주한미대사관, 경제협조처, 합동행정위원회(Joint Administration Services: JAS)와 더불어 주한미사절단(American Mission in Korea: AMIK)의 일부로 편성되었으며, 주한미대사의 통제를 받았다. 원래 미 육군부는 군사고문단의 작전 권한을 극동군사령관인 맥아더(Douglas MacArthur)에게 허용한 상황에서, 고문단을 무초(John J. Muccio) 대사의 행정 통제 하에 두려고 했다. 그러나 맥아더 극동군사령관은 군사고문단에 대한 예속<sup>6)</sup> 권한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고문단을 미 대사의 통제하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육군부에 전했다.<sup>7)</sup> 이러한 맥아더의 주장은 군사고문단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나겠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군사고문단을 극동군사령부 예하의 정식 편제부대로 설치해 직접 통제하겠다고 의사를 표시했다. 하지만 당시 미국은 국무부를 중심으로 하여 주재국 대사가 '컨츄리팀(Country Team)'을 이끄는 재외공관 운영 방식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이었다. 이 제도는 미국이 1947년 그리스와 터키에 대한 원조를 시작하면서 구상한 것으로 각국에 파견된 미 행정부와 군의 파견기관들을 현지 주재 미국대사가 지도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제도의 적용은 한국도 예외가 아니었다.<sup>8)</sup>

결국 군사고문단은 주한미사절단의 일부로 무초 대사의 통제를 받게 되었으며, 군 지휘체계상 극동군사령부가 아닌 미 육군부의 직할기구가 되었다. 주한미사절단과 군사고문단의 관계는 미국의 대한군사원조를 매개로 연결되어 있었다. 원조의 수단·방법·범위와 관련한 모든 문제에 대해 군사고문단은 주한미대사관과 공식적인 회합이나 개인적인 관계를 통해 협조하였다. 그 밖에 군사적인 명령과 행정에 관해서는 직접 미 육군부와 교통하였다.<sup>9)</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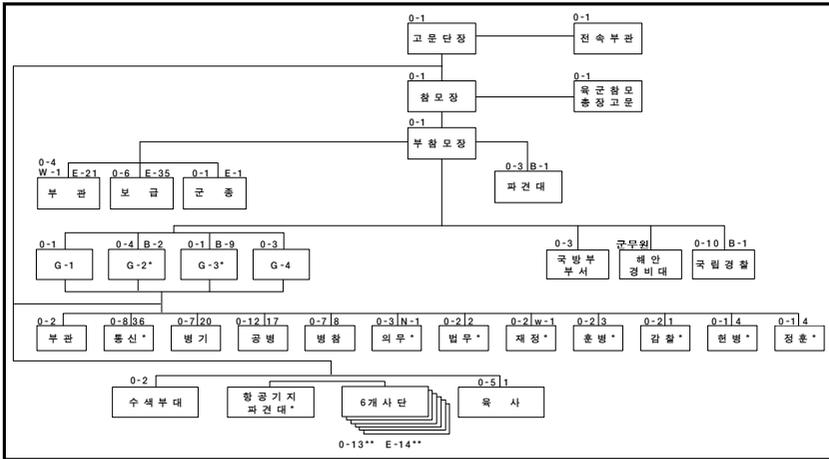
6) 예속(隸屬)이란 배치된 부대나 인원의 기본적인 기능 또는 그 대부분의 기능을 통제 관장(행정적)하는 것을 말한다(김광석, 1993, 『용병술어연구』 병학사, 346쪽).

7) "CINCFE to DA"(1949. 4. 23), *GHQ, SCAP and FEC History Report, 1949*, vol. II. Robert K. Sawyer, 앞의 책, 46쪽 재인용.

8) Robert B. Okley, Michael Casey, Jr., "The Country Team : restructuring America's first line of engagement", *Strategic Forum*, Sept., 2007.

9) "Interview, Col. W. H. Steling Wright"(1953. 1. 5), RG 319, Entry No. 181, Office

이러한 지휘체계로 인해 동북아지역의 군사업무를 실질적으로 관장하는 극동군사령부는 고문단의 병참지원과 유사시의 미국인 소개작전을 지원하는 임무로 권한을 제한받았으며, 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하지 않고서는 고문단과 직접 관계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극동군사령부는 1949년 6월 서울에 설치한 한국연락사무소(Korean Liaison Office: KLO)를 통해 군사고문단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자 했으며, 또 '소개작전의 협의'라는 명목하에 군사고문단 책임자의 정기적인 극동군사령부 방문을 주선했다.<sup>10)</sup>



〈그림〉 전쟁 발발 전 주한미군사고문단 조직도

※ 출처 : Office of the Chief, K MAG, Semi-Annual Report, Period Ending 31 December 1949; Semi-Annual Report, Period 1 Jan 1950-30 June 1950, RG 554, Entry No. A-1 1355, K MAG 8202nd Army Unit AG Section, Semi Annual Historical Report, 1 July 1949 to 30 June 1950, Box 29.

of the Chief of Military History BKGD-Military Adv. Korea : K MAG Peace & War, Box 2: "Advisor's Handbook"(1949. 10. 17), 국사편찬위원회, 1999, 『한국현대사자료 총서: 주한미군사고문단 문서』 46, 376쪽.

10) "DA, WARX 90992"(1949. 7. 1), Office of the Chief, K MAG, *Semi-Annual Report, Period Ending 31 December 1949*, RG 554, Entry No. A-1 1355, Box 29: "K MAG Relationship with FEC", Orientation Folder(OFLdr), sec. I. 날짜 미상의 이 폴더는 후임자를 위해 로버트 장군이 1950년 3월경에 작성한 것으로 OCMH 파일에 수록되어 있다.

- ※ 참고 : 1. O(장교), W(부사관), N(간호사), E(사병), 숫자만 기록(사병)  
 2. \*는 해당 병과의 한국군 고문관 업무와 고문단 참모 임무 동시 수행  
 3. \*\* 한국군 각 사단에 배치될 예정 인원

주한미대사와 미 육군부로부터 이중적으로 통제를 받던 군사고문단의 내부 구조는 앞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문단장 밑에 참모장과 부참모장, 그리고 일반·특별참모부로 고문단사령부가 구성되고, 각 지역의 한국군 주둔지역에 파견대가 배치되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었다.

한국군의 편성, 작전, 교육훈련, 군수업무 등에서 활동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군사고문단은 소위 '상대역제도(Counterpart System)'라는 운영 방식을 한국군에 적용했다. 상대역제도는 한국군의 국방부장관, 육군총참모장, 육군본부의 일반 및 특별참모, 각 기술·행정 근무부대장, 각 사단장, 연대장, 대대장이 효율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각각 고문관 1명씩을 붙여 함께 근무하고 행동하면서 상호 토의하고 조언하도록 하는 제도였다. 고문단에서는 상대역제도를 "고문관과 한국군 지휘관간의 밀접한 관계 유지를 통해 작전지휘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sup>11)</sup>

이러한 조직과 제도하에서 한국전쟁이 발발하기 전까지 군사고문단의 주요 활동은 한국군의 교육훈련 지도와 비정규전 지원에 중점을 두었다. 군사고문단의 한국군에 대한 훈련지도는 크게 한국군 각 사단에 대한 체계적인 훈련계획의 수립과 시행, 각종 군사학교의 설치를 통한 지도, 장교들의 해외유학 등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는 부대의 전술훈련 강화와 지휘관 양성교육으로 요약될 수 있는 것이었다. 군사고문단이 계획한 한국군에 대한 훈련계획은 여러 가지 장애 요소로 인해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했지만, 한

11) Robert K. Sawyer, 위의 책, 58쪽. 당시 고문단에서는 상대역제도를 'Counterpart System' 또는 'Opposite Number System'으로 혼용했는데, 의미상에서의 차이는 없었다. 이러한 사례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Hq. Eighth army, *Information Brochure: United States Military Advisory Group and Republic of Korea Army*, 12 March 1953, RG 550, Records of HQ, U.S. Army, Pacific Military Historian's Office, Organizational History Files, KMAG to History of the Korean War, Box 44.

국군에 대한 최초의 체계적인 미국식 훈련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었다.<sup>12)</sup> 이와 더불어 군사고문단은 1948~50년 남한에서 활발히 전개되던 게릴라 활동을 한국정부의 존망이 걸린 문제로 간주하고서 공세적으로 대처했다. 그 결과 1950년 6월의 군사고문단 <반년간보고서>에는 “1949년 10월 1일부터 1950년 5월 1일까지 태백산, 지리산, 호남지역을 중심으로 강력한 게릴라 토벌작전을 전개해 3개의 대규모 게릴라 집단을 거의 와해시켰으며”<sup>13)</sup>, “현재 강원도에 60명, 경상도에 70명, 전라도에 130명의 잔여 게릴라들이 존재하지만, 더 이상 국가안보와 공공의 평화에 위협 요소가 되지 않는다”고 결론지을 만큼 대비정규전에 대한 고문단의 평가는 ‘대단히 성공적’인 것이었다.<sup>14)</sup>

하지만 군사고문단은 한국군의 교육훈련과 비정규전에서의 적극적인 개입과는 달리 38선 분쟁에 대해서는 방어적인 입장을 취했다. 미국은 한국정부의 대규모 군대 증강과 복진 주장에 대해 여러 통로를 통해 반대하였다. 이와 관련해 1949년 5월 초 개성에서 남북 사이에 무력 충돌이 발생한 후 5월 7일 이승만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로버츠 군사고문단장과 무초 대사의 다음과 같은 발언은 38선 분쟁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였다. 이 자리에서 로버츠는 “개성사건의 원인과 진상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시작했다”고 하면서, “한국정부가 침략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미국은 어떠한 원조도 제공할 수 없다”고 밝혔다.<sup>15)</sup> 군사고문단은 이후 계속해서 발생했던 38선 분쟁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대사관과의 협조 하에 한국정부와 한국군을 적절히 제어하고자 했다. 이러한 군사고문단의

12) 이 시기 한국군 교육훈련에 대해서는 조이현, 「1948~1949년 주한미군의 철수와 주한미 군사고문단(KMAG)의 활동」 『한국사론』 35,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사학과, 1996, 310~316쪽; 안정애, 『주한미군사고문단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사학위 논문, 1996, 142~146쪽 참조.

13) Office of the Chief, KMAG, *Semi-Annual Report, Period 1 Jan 1950-30 June 1950*, 14쪽, RG 554, Entry No. A-1 1355, Box 29.

14) Office of the Chief, KMAG, *Semi-Annual Report, Period 1 Jan 1950-30 June 1950*, Annex No. X III, RG 554, Entry No. A-1 1355, Box 29.

15) “주한미대사 무초의 회담비망록”(1949. 5. 10), *FRUS 1949*, vol. VII, 1016~1018쪽.

입장은 한국군 작전계획의 수립에도 그대로 반영되었다.

군사고문단은 1949년 말부터 북한의 전차·야포·자주포 등 소련제 무기의 도입, 중공군내 한인사병의 북한 입국 및 병력 증강, 교량과 도로 보수, 병력의 남진배치 등에 관한 무수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미 육군부에 보고하였다. 특히 1950년 1월부터 4월까지 전차들이 남진 배치되고 있다는 정보들이 군사고문단 정보망에 접수되었으며, 이는 고문단과 긴밀한 연락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KLO부대원들에 의해서도 확인되었다.<sup>16)</sup> 이를 통해 볼 때, 고문단에서는 전쟁 징후들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군사고문단에서는 이러한 전쟁 징후들을 포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전면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이는 1950년 3월 25일에 작성된 ‘육군본부 작전명령(약칭 ‘작명’) 제38호’, 일명 ‘육군방어계획’에서 확인된다. 작명 제38호는 본문과 별지부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별지부록 제4호의 ‘육군방어계획’이 작전명령의 핵심내용이다. 현재 ‘작명 제38호’는 두 가지 판이 존재한다. 하나는 육군본부에서 영인한 『한국전쟁 사료』(62)에 수록된 것이며, 또 하나는 군사편찬연구소에 소장되어 있는 원문서의 사본이다. 본고에서는 후자를 통해 ‘작명 제38호’의 성격과 작성주체를 규명해 보고자 한다.<sup>17)</sup>

‘작명 제38호’의 내용과 작성주체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가장 최근의 연구서는 『6·25전쟁사 : 전쟁의 배경과 원인』이다.<sup>18)</sup> 『6·25전쟁사』에서는 작명의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16) 주한미군사고문단과 KLO의 대북 정보 수집에 대해서는 정병준, 『한국전쟁』, 2006, 돌베개, 653~661쪽 참조.

17) 『한국전쟁사료』에 수록된 ‘작명 제38호’는 필체와 한글 사용법 등을 고려할 때, 이기(移記)한 것으로 판단된다. 원문과 비교했을 때 가감한 부분이 많으며, 본문과 부록을 혼합해 기술한 경우도 발견된다. 이에 대한 면밀한 사료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안용현의 저서에도 ‘작명 38호’가 수록되어 있는데(안용현, 1987, 『한국전쟁의 허와 실』, 고려원), 『한국전쟁사료』와 원문 자료를 혼합한 것으로 정리되어 있다.

18)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5, 『6·25전쟁사: 전쟁의 배경과 원인』, 641~650쪽. 정병준의 연구에서도 ‘작명 제38호’가 분석되어 있지만, 주로 웅진지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본 연구에서는 『6·25전쟁사』를 비교 대상으로 하였다.

- ① 국군 방어계획의 기본개념은 다음의 3가지로 구분하여 계획하였다. 첫째, 웅진지구의 육군부대는 적의 공격시 인천으로 철수하는 것이었다. 둘째, 개성지구의 육군부대는 적의 공격을 받으면 지연전을 실시하면서 설정된 임진강 남안의 방어선으로 철수하고, 기타 다른 부대는 계속 지연전을 실시하도록 계획하였다. 셋째, 후방지역 예비사단은 적의 공격시 역습부대로 운용되도록 계획하였다. 후방지역 경계는 청년방위대 등으로 후방경계 부대를 편성하여 관할 지역내의 해·공군 부대와 협조하여 후방지역작전을 수행하도록 계획하였다.
- ② 그러나 38도선에서 적을 저지하지 못할 경우에는 남한 지역의 큰 강을 이용하여 지연전을 전개한다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지연전은 최초 한강 이남으로 전략적인 철수작전을 수행하면서 한강선, 대전선, 낙동강선에서 축차적인 지연전을 전개하도록 계획하였다.<sup>19)</sup>

이 글의 원 출처는 전사편찬위원회가 1978년에 발간한 『한국전쟁사』 제2권이다.<sup>20)</sup> 그런데 전사편찬위원회의 『한국전쟁사』에서는 위의 『6·25전쟁사』 내용 중 ②부분, 즉 “그러나 38도선에서 … 전개하도록 계획하였다”고 하는 내용이 확인되지 않으며, 단지 ①번 내용만이 기술되어 있다. 실제로 ‘작명 제38호’에는 ②와 관련한 내용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②의 내용은 사후(事後) 전쟁의 전개과정을 염두에 두고 기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①과 관련해 ‘작명 제38호’ 원문에는 북한군 공세를 서울 이북지역에서 단계별로 격파한다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 방침 : 군은 투명도 제1과 같이 중점을 의정부 정면에 보지(保持)하고 진전(陣前)에 적을 섬멸하려 함.
- 전투 각 기(期)의 지도(指導):
  - A. 초기(경계선 전투) : 투명도 제1 (A)선에서 진출을 지연시킴. 지연 전

19)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5, 『6·25전쟁사: 전쟁의 배경과 원인』, 641~650쪽.

20)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78, 『한국전쟁사: 북한 괴뢰군의 남침』 제2권, 56~57쪽.

투는 주진지 전면의 교량 및 도로 파괴를 실시하여 (B)선까지 전진함 (교량 및 도로 파괴계획에 의거), 일방(一方) 제2, 제3, 제5사단을 집결하는 동시에 웅진방면과 제8사단은 주작전이 유리하게 전개할 수 있도록 극력 견제공격을 취하고 적의(適宜) 유격전을 감행하여 적의 동서측방을 위협함.

- B. 제2기(주저항선 전투) : 투명도 제1 (B)선에서 전군의 전 화력 및 역습으로 가장 강력한 전투를 실시하여 적을 섬멸시키고 만약 부득이한 경우에도 동 선상에 교착시킴. 전투지도상 불리한 경우에는 (C)선까지 지연전투를 유지하여 전진함.
- C. 제3기(최후 저항선 전투) : 전 화력 및 역습으로 적 전력을 철저히 분쇄 섬멸하여 차(此) 진지에서 최후까지 확보함.

여기서 말하는 (A), (B), (C)선은 모두 문산-의정부-춘천-주문진선의 이북지역에 위치한다. 따라서 이 작전계획은 남한 전역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38선 부근의 충돌이 확대될 경우를 대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6·25전쟁사』에서는 ‘작명 제38호’의 작성주체와 관련해 “당시 미군사고문단측에서는 38선의 방어계획이나 적 침공시의 철수작전, 또는 공세이전의 작전계획 등에 관해서 이를 지도한 바 없었고, 모든 계획은 한국군이 독자적으로 수립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1978년도 『한국전쟁사』에서도 발견되는 언술이다. 하지만 군사고문단이 1949년 12월에 작성한 <반년간보고서(Semi-Annual Report)>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 방어계획의 기본틀이 고문단에 의해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다. ‘반년간보고서’ 중 ‘제4부 한국군 상황, 4. 방어계획’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38선 방어를 위해 대한민국은 21개 연대, 2개 독립대대, 1개 기갑연대로 구성된 8개 사단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군은 현재 전술부대의 약 30%가 대게릴라전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방어계획은 서울로 향하는 접근로상의 ‘거점(Strong Point)’방어를 요구한다. 한국 외부의 군대로부터 공격을 받을 시에 웅진반도의 부대들과 임진강 서쪽의 부대들은 병렬적으로 철수할 것이다. 매우 우려되는 접근로를 포함하고 있는 제1사단과 제7사단 지역이 가

장 중요하다. 동쪽의 제6사단과 제8사단은 기동을 제한하는 지형 때문에 쉽게 공격받지 않을 것이다. 제6사단과 제8사단은 한국군의 예비 병력이 도착할 때까지 침략행위를 저지해야만 할 것이다. 한국군의 예비 병력은 수도사단, 제2사단, 제3사단, 제5사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사단들은 현재 예하 연대들 대부분이 대게릴라전에 투입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군은 긴급 상황을 대비한 이들 예비대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 국내 문제에 대한 책임을 줄이고 경찰이 담당하게 하는 것을 기대한다. 우선 순위에 따라 예비대에 부과된 임무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의 계획에 따라 반격한다. 둘째, 제1사단과 제7사단을 증원한다. 셋째, 제6사단과 제8사단을 증원한다. 넷째, 국내 게릴라들을 토벌한다. 한국군이 현재의 계획을 준수한다면 중공군이 지원하지 않을 경우 북한군을 견제하고 일소할 수 있다.<sup>21)</sup>

‘반년간보고서’에 나타난 방어계획은 다소 추상적이지만, 분명 4개월 후에 만들어진 ‘국군 방어계획’의 원형임에 틀림없다. 이를 통해 볼 때, 1950년 3월 25일 하달된 ‘육군본부 작전명령 제38호’는 주한미군사고문단이 직·간접적으로 깊이 관여해 작성한 것이며, 그 내용은 북한군에 의한 전면전을 가정한 계획이라기보다 서울-38도선 사이에서 발생할지도 모를 ‘국지도발’, 즉 서울 이북 지역에서의 군사적 충돌에 대한 방어계획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정리하자면, 고문단은 북한군의 군사력 강화와 38선 전진배치라는 전쟁 징후를 감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면전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낮게 보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당시 미국 내에서 만연했던 ‘소련은 미국과의 전쟁을 원치 않으며, 소련의 괴뢰인 북한이 독자적으로 행동할 수 없다’는 논리<sup>22)</sup>가 군사고문단내에서도 만연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1) Hq. KMAC, *Semi-Annual Report, Period Ending 31 December 1949*, RG 319, Entry No. 154, Box 162.

22) 정병준, 앞의 책, 672쪽.

### 3. 전쟁의 발발과 군사고문단의 초기 대응

#### (1) 군사고문단사령부의 동향

전쟁 발발 당시 군사고문단의 병력은 장교 181명, 사병 286명 등 총 467명이었으며, 군사고문단의 구조는 고문단사령부와 각지의 파견대로 구성되어 있었다.<sup>23)</sup>

개전 당일 군사고문단은 고문단장과 참모장이 공석이었다. 임시군사고문단 시절부터 단장직을 수행하던 로버츠 준장은 전역을 위해 1950년 6월 15일 한국을 떠났으며, 참모장 라이트(W. H. S. Wright) 대령도 미 국방산업대학 입교를 위해 일본에 머물고 있었다.<sup>24)</sup>

군사고문단장과 참모장이 부재한 상황에서 북한군의 전면적인 공격을 받게 되자 군사고문단의 지휘체계는 일시에 마비되었다. 군사고문단은 6월 26일 라이트 대령이 한국으로 복귀하기 전까지 통신 선임고문관이었던 스투라이스(Carl H. Sturies) 중령에 의해 임시로 운영되었지만, 고문단사령부 내에서조차 누가 고문단을 지휘하는 지 혼선이 야기될 정도였다.<sup>25)</sup> 그리고

23) "KMAG, Historical Data, G-1 Section, TAB E: G-1 Activities"(Undated), RG 554, Entry No. A-1 1355, Box 29.

24) Robert K. Sawyer, Robert K. Sawyer, *Military Advisor in Korea: KMAG in Peace and War*, Office of the Chief of Military Department of the Army, 1962. 119쪽.

25) 1949년 9월에서 1950년 7월까지 군사고문단장 부관이었던 메이(Ray B. May) 소령은 1950년 6월 25일 당시 마호니(Mahoney) 중령이 군사고문단을 책임지도록 임명되었지만, 현 계급으로의 진급일이 빠른 스투라이스가 지휘하게 되었다고 증언하였다. 또한 당시 군수참모였던 비어만(L. D. Vieman)도 마호니가 군사고문단의 책임자라고 알고 있었다("Ray B. May to Robert K. Sawyer"(1954. 2. 11), "Taegu Paper of L. D. Vieman"(1951. 2. 15), RG 319, Entry No. 181, Office of the Chief of Military History BKGD-Military Adv. Korea : KMAG Peace & War, Box 2). 하지만 1950년 6월 25일 당시 군사고문단장직을 대리한 이는 스투라이스 중령이었다. 이는 1950년 6월 23일 주한미대사 무초가 군사고문단장에게 보내는 전문에서 고문단장 대리인 스투라이스를 지목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며("주한미대사(Muccio)가 주한미군사고문단장(Sturies)에게"(1950. 6. 23), *FRUS 1950*, vol. Ⅷ, 123쪽), 또 스투라이스 본인도 "1950년 6월 20일부터 26일까지 군사고문단장직을 수행했다"고 증언하였다("Carl H. Sturies to the Captain Robert K. Sawyer"(1954. 1. 9), RG 319, Entry No. 181, Office of the

휴일이라는 상황에서 서울의 군사고문단 사령부와 전투부대간의 연락체계도 제대로 가동되지 못했다. 이로 인해 군사고문단 작전참모인 세드베리(George R. Sedberry) 소령이 고문단 주요 참모들에게 상황을 전달한 것은 북한군의 공격이 있는 지 약 2시간 후인 6월 25일 오전 6시였으며, 이러한 사실이 대사관에 전달된 것은 그보다 1시간 후인 오전 7시였다.<sup>26)</sup> 그리고 오전 8시에 이르러 전쟁 발발 이후 처음으로 군사고문단 참모회의가 열렸다.

비공식으로 진행된 참모회의에는 무초 대사, 드럼라이트(Everett F. Drumright) 참사관, 에드워즈(Bob Edwards) 육군무관, 스투라이스 중령, 그린우드 중령, 마호니(William J. Mahoney) 중령, 비어만(Lewis D. Vieman) 중령, 세드베리 소령 등이 참석했으며, 전선 상황과 미국인 소개 문제가 주로 논의되었다. 하지만 이때까지도 군사고문단에서는 북한군의 공격을 '전면전'이 아닌 '38선상의 충돌' 정도로 간주하였다. 전술 브리핑을 담당한 마호니 중령은 북한 공군기의 출현이 없고, 지상군의 활동에 대한 더 많은 정보가 수집될 때까지 38선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북한군의 공격을 '대규모 병력에 의한 수색 정찰'로 간주할 것이라고 결론지었다.<sup>27)</sup>

비공식 참모회의가 진행되는 동안에 군사고문단사령부에서는 고문관들의 원대 복귀를 지시하였다.<sup>28)</sup> 하지만 휴일 오전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빠르게

---

Chief of Military History BKGD-Military Adv. Korea: KMGAP Peace & War, Entry, Box 2). 그러나 스투라이스는 명목상 고문단장직을 수행했을 뿐 개전 당일 실제로 군사고문단을 지휘한 이는 고문단 부참모장이었던 그린우드(Walter Greenwood Jr.)였다. 이러한 사실은 위의 <그림> "전쟁 발발 전 주한미군사고문단 조직도"의 지휘체계도에서 확인되며, 또 개전 당일 고문단 본부사령에게 미국인 소개 명령을 내리는 것도 부참모장 그린우드로 확인되기 때문이다("Sequence of Events, 0430 25 June 1950-1200 28 June 1950"(Undated), RG 319, Entry No. 181, Office of the Chief of Military History BKGD-Military Adv. Korea: KMGAP Peace & War, Box 2).

26) 해롤드 노블 저, 박실 역, 1980, 『전화속의 대사관』, 한성사, 19쪽.

27) "Sequence of Events, 0430 25 June 1950-1200 28 June 1950"(Undated), RG 319, Entry No. 181, Office of the Chief of Military History BKGD-Military Adv. Korea: KMGAP Peace & War, Box 2.

28) "Ray B. May to Sawyer"(1954. 2. 11), RG 319, Entry No. 181, Office of the Chief of Military History BKGD-Military Adv. Korea: KMGAP Peace & War, Box 2.

진행되지 못하였다. 선임고문관들과 주요 행정장교들이 집결을 완료한 것은 오전 9시 30분경이었으며, 일부 고문관들은 오전 11시에 있었던 교회 예배 때까지 지시를 전달받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군사고문단이 북한군의 공격을 단순한 38선 충돌이 아니라 전면전의 양상으로 파악한 것은 오전 9시경이었다. 이때 용진의 한국군 제17연대 고문관들이 북한군으로부터 강력한 공격을 받고 있으며, 연대가 궤멸되고 있다는 긴급 보고를 전하면서 항공 철수를 요청하였다.<sup>29)</sup> 뒤이어 문산의 한국군 제1사단에서도 개성이 북한군에게 함락되었다는 무전이 전해졌다.<sup>30)</sup>

군사고문단은 오전 10시경에 북한군의 공격에 관한 첫 전문을 육군부에 전송하였다. 이 무렵 주한미대사 무초도 국무부에 한국 상황 전문을 발송하였다. 이들의 전문은 약간의 시차를 두고 육군부와 국무부에 수신되었는데, 수신 시각은 군사고문단의 전문이 워싱턴 시각 6월 24일 오후 9시 21분, 무초 대사의 전문이 오후 9시 26분이었다.<sup>31)</sup>

이 보고서를 시작으로 군사고문단은 매 4시간마다 상황보고서를 육군부에 발송하였으며, 발신문의 요약본을 극동군사령부에 전달하였다. 하지만 전선에서 전달되는 정보는 극히 제한적이었으며, 또 부정확하고 시기적절하지도 않은 경우가 많았다.<sup>32)</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사고문단은 계속해서 한

29) 위의 문서. 용진에 주재하던 고문관은 5명이었으며, 이들은 스윅크(Lloyd Swink) 소령과 브라운(Frank Brown) 중위가 몰고 온 L-5기에 동승해 오전 10시 35분 용진을 출발, 서울로 복귀하였다(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77, 『한국전쟁사』 1권(개정판), 467쪽). 용진 지구 고문관들의 소개 작전을 수행했던 2명의 조종사는 그 공로로 동성무공훈장을 받았다.

30) Roy E. Appleman 저, 육군본부 역, 1963, 『낙동강에서 압록강까지』, 27쪽.

31) "Memorandum for General Collins, sub: Invasion of South Korea"(1950. 6. 25), RG 319, Entry No. 2, Army Chief of Staff 1950 Decimal Files-Korea, Box 557. 전쟁 발발이 미국내에 처음으로 알려진 것은 연합통신 기자에 의해서였다. 군사고문단과 무초의 전문에 앞서 연합통신 한국 주재기자 제임스(Jack James)가 전쟁 발발 기사를 연합통신 본사에 전송하였으며, 이 기사는 워싱턴 시각 오후 9시 4분에 도착하였다(James F. Schnabel & Robert J. Watson 저/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역, 1990, 『미합동참모본부사: 한국전쟁』(상), 58쪽). 당시 주한미대사관 1등서기관이었던 노블의 회고에 의하면, 주한미대사관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뉴스로 취급하는 데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충고했지만, 제임스 기자가 무초 대사의 전문에 앞서 기사를 발송했다고 하였다(해롤드 노블 저, 박실 역, 1980, 『전화속의 대사관』, 한성사, 21쪽).

32) "Sequence of Events, 0430 25 June 1950-1200 28 June 1950"(Undated).

국 상황을 보고하는 한편, 동경의 극동군사령부에 긴급전문을 보내 한국군이 보유하고 있는 무기에 대한 10일분의 탄약 보급을 요청하였다.<sup>33)</sup>

하지만 전쟁 발발 당일 미 육군부와 극동군사령부에서는 향후 군사고문단의 활동과 관련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6월 25일 군사고문단사령부에 내려진 지시는 극동군사령부가 무초 대사를 통해 전달한 '미국인 소개' 명령이 유일하였다.<sup>34)</sup> 군사고문단의 실질적인 상위 책임 기관인 미 육군부는 이날 어떠한 지시 사항도 하달하지 않았다. 또 1년 전 미 육군부가 제시한 군사고문단 훈령에도 전쟁이 발발할 경우 군사고문단의 임무가 무엇인지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군사고문단 참모진은 자체적으로 향후 행동방향을 모색하였는데, 핵심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요약되었다. 첫째는 고문관들이 무기를 들고 한국군과 함께 싸워서 북한군을 격퇴시킨다. 둘째는 한국군의 작전 수행을 조언한다. 셋째는 한국의 운명을 그들 자신의 손에 맡기고 군사고문단은 철수한다는 것이었다.<sup>35)</sup> 이 밖에 또 한 가지 방안으로 제시된 것이 북한군의 서울 점령시 미국 대사관 직원들과 더불어 '외교적 특권'을 주장하는 것이었다. 이는 무초 대사가 제의한 것이었지만, 대다수의 고문관들이 반대하여 철회되었다.<sup>36)</sup> 이러한 여러 대안 중에서 군사고문단이 선택한 방안은 철수에 중점을 두고 소수의 인원만으로 한국군의 작전을 지원한다는 것이었다.

군사고문단은 즉시 주한 미국인 소개작전에 들어갔다. 소개작전은 1949년 7월 14일 마련된 '크룰러계획(Plan Cruller)'에 따라 진행되었다.<sup>37)</sup> 크룰러

33) Robert K. Sawyer, 앞의 책, 120쪽.

34) Roy E. Appleman 저, 육군본부 역, 앞의 책, 38쪽.

35) Robert K. Sawyer, 앞의 책, 121쪽.

36) 중앙일보사 편, 1983, 『민족의 증인』 1, 112쪽, 115쪽.

37) 크룰러계획이 군사고문단에서 준비한 주한미국인 철수작전계획이었다면, 극동군사령부에서도 이와 유사한 계획이 준비되어 있었다. 미 극동군사령부는 오래전부터 한반도 내의 자국민들에 대한 소개계획을 준비하였으며, 1947년 12월 8일 'STRONGBARK', 1948년 4월 10일 'STRETCHABLE', 1949년 2월 23일 'TAILRACE'와 개정판인 'CULDESAC', 1949년 7월 'CHOW CHOW' 등으로 발전했다. 이 계획에서 극동군사령부는 96시간(4일) 이내에 민간인들의 소개를 완료해야 한다고 예상하였다(이상호, 2007, 『맥아더와 한국전쟁, 1945~1951』,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117~118쪽).

계획은 국내소요 또는 북한 침략시 한국에 있는 미국인과 특정 외국인을 일본으로 안전하게 후송하는 계획이었다. 이 계획은 대사관과 군사고문단의 합동계획으로 실행될 수도 있었고, 분리하여 각각 독자적으로 실행될 수도 있었다. 계획의 실행은 군사고문단의 작전참모(G-3)가 총괄하게 되어 있었다.<sup>38)</sup>

전쟁 발발 직후 소개작전의 실행까지는 대사관과 군사고문단 사이에 실행 시점을 놓고 여러 차례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전쟁 발발 직후 고문단사령부가 처음으로 소개작전을 추진한 것은 6월 25일 오전이었다. 이때 군사고문단에서는 보급참모 겸 본부사령인 맥코넬(Thomas. MacConnell III) 소령이 주한미사절단 소개 계획을 준비하였다. 그러나 주한미대사 무초는 소개 작전의 실행을 원하지 않았다. 그는 소개 작전이 현재 한국인들의 공황 현상을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라는 점에서 이를 반대했다.<sup>39)</sup>

군사고문단에서는 6월 25일 오후 1시 무초 대사에게 소개 계획의 조속한 실행을 재차 요구했지만, 무초 대사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이를 거부했다.<sup>40)</sup> 미국인 소개 문제와 관련해 군사고문단과 미 대사관 사이의 논쟁은 이날 밤까지 계속되었다. 그동안 군사고문단에서는 주한미대사의 견해와는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소개준비를 착수하였다. 군사고문단 부참모장인 그린우드 중령은 맥코넬 소령에게 군인가족들을 자동차나 열차편으로 부산에 이동시킬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했다.<sup>41)</sup> 이 무렵 “무초대사의 요청을 받은 모든 기관은 즉시 철수하라”는 지시가 극동군사령부로부터 전달되었다. 오후 10시경에 지시를 전달 받은 무초 대사는 오후 11시경에 민간인 소개를 명령하였고, 26일 오전 1시에 인천으로의 이동이 시작되었다.<sup>42)</sup>

민간인 소개작전이 진행되면서 군사고문단도 자체적으로 철수작전을 준

38) Robert K. Sawyer, 앞의 책, 110~113쪽.

39) “Sequence of Events, 0430 25 June 1950-1200 28 June 1950”(Undated).

40) 중앙일보사, 1983, 『민족의 증언』 1, 112~113쪽.

41) “Sequence of Events, 0430 25 June 1950-1200 28 June 1950”(Undated).

42) Roy E. Appleman, 앞의 책, 38쪽. 6월 26일 오후 7시, 682명의 미국인들이 한국을 떠난 것을 시작으로 29일까지 총 2,000명의 미국인이 수송기와 선박편으로 한국을 떠났다 (중앙일보사, 앞의 책, 114~116쪽).

비하기 시작했다. 고문단의 철수계획은 부참모장 그린우드 중령과 작전참모 세드베리 소령에 의해서 준비되었다. 26일 그린우드 중령은 세드베리 소령과 함께 향후 현실적으로 가장 타당한 고문단의 행동노선으로 한국군 전술 부대에 있는 전술고문관들을 제외하고 기술 및 행정담당 고문관들과 이미 와해된 한국군 부대에 배속된 전술 고문관들을 한국에서 완전히 소개시키는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그린우드 중령은 한국에 최소한의 인원만을 남기고 일본으로 철수하는 계획안을 고문단장 대리인 라이트 대령에게 제출했다. 그러나 라이트 대령은 처음에 이 건의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sup>43)</sup> 이때 라이트는 미 육군부에 “상황이 악화될 경우 서울-부산간의 어느 한 지점에서 군사고문단이 한국에서 철수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문의해 놓고 있는 상태였다.<sup>44)</sup> 미 육군부의 명령이 없는 상황에서 라이트는 독자적으로 철수를 결정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전선 상황이 예상보다 빠르게 악화되고, 또 26일 저녁에 무초 대사가 필수 요원들을 제외한 미 사절단원의 전원 철수를 지시함에 따라 라이트 대령은 그린우드와 세드베리가 작성한 고문단의 철수계획안에 동의했다.

라이트 대령은 6월 27일 주요 핵심요원들만을 한국에 잔류시키고 모든 고문관들을 일본으로 철수시키라고 명령하였다. 이 명령에 의하면, 육군본부와 대구·부산 지역의 제3사단에 배속된 고문관들을 제외하고 모든 요원들을 한국에서 철수시키는 것이었다. 한국에 잔류하는 고문관들도 ‘자신들이 배속된 부대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에만’이라는 단서가 붙었다.<sup>45)</sup>

고문단 철수 명령은 곧바로 실행되었는데, 약 400명의 고문관들이 일본으로 철수하기 위해 수원비행장에 집결하였다. 고문단사령부도 27일 오전 9시 경 주한미대사관 무선국이 폐쇄된 직후에 철수를 시작했다. 그러나 이

43) “Sequence of Events, 0430 25 June 1950-1200 28 June 1950”(Undated).

44) “Message from the Chief of K MAG to DEPTAR”(1950. 6. 26). RG 319, Assistant Chief of Staff, G-3, Operations Records Section, March 1950~51, 091 Korea, Box 121.

45) “Sequence of Events, 0430 25 June 1950-1200 28 June 1950”(Undated).

러한 상황은 극동군사령부에 제대로 전해지지 않았으며, 그로 인해 고문단의 초기 혼란 상황을 더욱 크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sup>46)</sup>

수원에서의 고문단원 철수가 진행되는 동안 극동군사령관이 군사고문단 장에게 보낸 다음과 같은 내용의 메시지 한 통은 고문단의 향후 행동방향에 일대 전환을 가져왔다. 고문단에 전달된 극동군사령관 맥아더의 전문은 “한국에 대한 지원이 진행 중이다. 당신의 이전 위치로 되돌아가라. 행운을 빈다”는 짧은 메시지였다. 하지만 이것으로 인해 고문단사령부는 철수 작전을 멈추고 아직 철수하지 않은 약 100명의 고문관들을 서울로 복귀시켰다.<sup>47)</sup>

이렇듯 개전 초기에 고문단사령부의 혼란은 한국군을 공황 상태로 몰아넣었다. 한국군 사단에 배속된 고문관들이 떠나는 과정에서 일부 한국군 사단장들은 울면서 만류하기도 했으며, 떠나기 전에 차후 작전방침을 만들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sup>48)</sup> 문제는 이러한 상황이 왜 발생했는가 하는 점이다. 이는 전쟁 발발 당시 고문단의 지휘체계를 살펴봄으로써 설명이 가능하다. 1949년 7월 고문단이 정식으로 창설된 이후 군사고문단은 주한미사절단의 일부로서 주한미대사의 직접 통제하에 있었다. 극동군사령부는 병참지원 이상의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고문단은 육군부를 통해 극동군사령부와 연락을 취할 수밖에 없었고, 군 조직이면서도 민간사절단으로서의 역할이 크게 강조되면서 군사기구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했기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다.

46) “George I. Back to Sawyer”(1953. 12. 16), RG 319, Entry No. 181, Office of the Chief of Military History BKGD-Military Adv. Korea: KMAG Peace & War, Box 2. 그린우드는 “27일 오전에 극동군사령부 부참모장 알몬드(Edward M. Almond) 장군과 대화를 시작하자마자 대사관의 스위치보드가 나가 동경과의 무선전화가 무용지물이 되었다”고 증언하였다. 이에 따라 고문단사령부가 극동군사령부와 연락을 제대로 취하지 못한 가운데 서울 주변의 고문관들이 수원으로 집결하였으며, 중동부지역 및 대구 지역의 고문관들이 부산으로 집결하였다(위의 문서).

47) “Sequence of Events, 0430 25 June 1950-1200 28 June 1950”(Undated).

48) “Early History of the Korean War 1950 by Lieutenant Colonel Rollings S. Emmerich”(1953. 11. 20), RG 319, Entry No. 181, Office of the Chief of Military History BKGD-Military Adv. Korea: KMAG Peace & War, Box 2; 백선엽, 1989, 『군과 나』, 대륙연구소 출판부, 31쪽.

군사고문단사령부는 6월 27일 오후 6시경 다시 서울로 복귀했지만, 다음 날 한강교 폭파를 계기로 오전 3시에 잔류 고문단원들에게 서울을 떠날 것을 명령하였다. 한강교 폭파와 관련해 당시 일선부대의 사단장들은 한강 이북지역의 부대를 철수하지 않은 상황에서 육군본부의 독단적인 행동이 초래한 비극에 대해 훗날 회고와 저서 등을 통해 비판하고, 한강 도하에 대한 적절한 상황을 묘사하기도 했다.<sup>49)</sup> 또한 한강교 폭파의 책임 소재와 관련해 다양한 추론들이 제기되었다.<sup>50)</sup>

한국군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활동하던 군사고문단은 한강교 폭파 사건을 어떻게 기술하고 있을까? 민감한 문제로 인식했기 때문인지 대부분의 미국 전사(戰史)에서는 폭파 과정과 그 결과만을 단순하게 기술하고 있으며<sup>51)</sup>, 관련 자료도 확인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군사고문단 부참모장이었던 그린우드의 다음과 같은 증언은 한강교 폭파와 관련한 문제들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27일 밤 12시경 라이트 대령은 우리에게 잠시 휴식을 취하고 28일 오전 4시 까지 고문단사령부로 복귀할 것을 지시하였다. 나는 숙소로 가서 약간의 음식을 먹고 잠자리에 들었다. 내가 침상에 들어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세드베리 소령이 전화를 걸어왔다. 그는 분개한 목소리로 한국인들이 지체 없이 한강교를 폭파하겠다고 언급한 사실을 보고했다. 나와 통화할 때 세드베리는 병력과 장비, 보급품들이 철수될 때까지 교량 폭파를 미루어 달라고 김백일 장군과 이야기 하고 있는 중이었다. 나는 즉시 육군본부로 갔다. 그곳에서 나는 군수참모부(G-4) 선임고문관 비어만 대령 및 세드베리 중령과 격렬한 논쟁을 벌이고 있는 김 장군을 발견했다. 김 장군은 교량이 지체 없이 폭파되어

49) 이웅준, 『회고 90년』, 281~184쪽; 백선엽, 앞의 책, 40~42쪽; 이형근, 『군번 1번의 외길인생』, 56~57쪽; 장도영, 2001, 『장도영 회고록 : 망향』, 숲속의 꿈, 196~198쪽.

50) 이러한 주장은 언론사들을 통해 제기되었는데, 대표적으로 중앙일보사, 앞의 책, 144쪽과 조선일보사, 1982, 『전환기의 내막』, 348~376쪽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이 제기될 무렵 관련자들이 모두 작고한 상태여서 확인이 불가능하였다.

51) Robert, K. Sawyer, 앞의 책, 125~126쪽; Roy E. Appleman 저, 육군본부 역, 앞의 책, 40쪽.

야 한다(the bridges must be blown forthwith)는 국무총리(Prime Minister) 겸 국방부장관의 결정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렸다. 우리는 적이 실제로 가까이 올 때까지 교량이 폭파되지 않기를 간절히 열망했다. 우리는 교량의 조기 폭파에 대해 격렬히 반대했다. 그런 후 그는 떠났으며, 우리는 거의 24시간 동안 그를 보지 못했다. 나는 즉시 라이트 대령의 숙소로 갔다. 내가 육군본부를 떠날 때 거대한 폭발이 있었으며, 교량이 폭파되었다. 그 시각이 오전 1시 35분이었다.<sup>52)</sup>

그린우드의 증언은 장교들의 당시 계급과 폭파 시간의 오류를 제외한다면, 매우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또한 교량 파괴 이후의 상황 설명이 소이어나 애플만의 저서에 그대로 인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의 증언은 신빙성이 높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한강교 폭파는 군사고문단과 무관하게 이루어졌으며, 명령은 최소한 국무총리 선에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한강교 폭파 이후 군사고문단은 오전 3시에 라이트 대령의 명령에 따라 한강 이남으로의 철수를 시작했다. 군사고문단은 중요 자료들을 소각한 후 가솔린과 식량, 그리고 극히 제한된 개인 물품만을 소지한 채 약 50대 가량의 수송단을 구성하고 광진교로 향했다. 하지만 광진교도 이미 폭파된 이후였기 때문에 군사고문단은 서빙고로 돌아와 한강변에서 뗏목을 타고 강을 건넜다. 군사고문단은 수원에 도착한 후 처지 준장이 지휘하는 극동 군사령부 전방지휘소에 소속되었으며, 7월 4일 미 제24사단 딘 소장의 통제하에 들어가게 되었다.<sup>53)</sup>

## (2) 전방부대 파견 고문관들의 동향

전쟁 발발 당일 38선에 배치된 한국군 전투부대는 서쪽에서부터 제17독립연대(웅진), 제1사단(개성), 제7사단(동두천), 제6사단(춘천), 제8사단

52) "Sequence of Events, 0430 25 June 1950-1200 28 June 1950"(Undated).

53) 한강교 폭파 이후의 철수 과정에 대해서는 Robert K. Sawyer, 앞의 책, 128~135쪽 참조.

(강릉) 순이었다. 이들 부대에는 전쟁 발발 이전부터 5명~17명에 이르는 고문관들이 배치되어 한국군 훈련 및 작전을 지원하고 있었다.

〈표〉 한국군 전투부대 및 선임고문관 현황(1950년 6월 25일)

구 분	부대명칭	예하부대	지휘관	선임고문관	
전방부대	웅진반도	제17연대	제1·2·3대대	백인엽 대령	스칼라키(Emil Skalicky) 소령 <sup>54)</sup>
	개성지구	제1사단	제11·12·13연대	백선엽 대령	로크웰(Lloyd H. Rockwell) 중령
	동두천지구	제7사단	제1·9·25연대	유재홍 준장	비렐로(Joseph W. Bilello) 중령
	춘천지구	제6사단	제2·7·19연대	김종오 대령	맥페일(Thomas D. McPhail) 중령
	강릉지구	제8사단	제10·21연대	이성가 대령	라슨(Gerald E. Larsen) 소령
후방부대	서울지구	수도경비사령부	제3·8·18연대, 기갑연대(육본)	이종찬 대령	페리스(Franklin G. Paris) 중령
	중부지구	제2사단	제5·16연대	이형근 준장	갤러거(James. S. Gallagher) 중령
	영남지구	제3사단	제22·23연대	유승렬 대령	에머리치(Rollins S. Emmerich) 중령
	호남지구	제5사단	제15·20연대	이응준 소장	밀러(LeRoy B. Miller) 중령

※ 출처 : “Lloyd H. Rockwell to Lt Col, Roy E, Appleman”(1954. 5. 21), “James S. Gallagher to Robert K. Sawyer”(1953. 10. 5), “Early History of the Korean War 1950 by Lieutenant Colonel Rollings S. Emmerich”(1953. 11. 20), RG 319, Entry No. 181, Office of the Chief of Military History BKGD-Military Adv. Korea : KMAG Peace & War, Box 2; “Colonel Wright to Lt Col McPhail, sub: Letter of Instructions”(1950. 7. 8), RG 338, KMAG, Adjutant General, Decimal File, 1948~53, Box 7.

전쟁이 발발하자 군사고문단 참모들은 몇 개월 전에 수립했던 방어계획의 실행을 한국인들에게 권고하였다. 이는 웅진반도에서의 철수, 임진강 서쪽 부대의 남쪽 제방으로의 철수, 후방지역에 주둔하는 예비사단의 복상과

54) 전쟁발발 당일 웅진반도의 제17연대 선임고문관에 대한 기록은 현재 자료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 다만 1950년 7월 8일 스칼라키(Skalicky) 소령이 선임고문관으로 나오는 문서를 고려할 때, 전쟁 발발 당일에도 제17연대 선임고문관이 스칼라키였을 것으로 추정된다(“Colonel Wright to Lt Col McPhail, sub: Letter of Instructions”(1950. 7. 8), RG 338, KMAG, Adjutant General, Decimal File, 1948~53, Box 7).

명령에 따른 반격을 요구하고 있었다. 한국군 총참모장 채병덕 소장은 이에 동의하였으며, 그의 참모들은 즉시 각 사단에 경계경보를 발령했다.<sup>55)</sup>

한국군 각 사단에 육군본부의 경계경보가 발령된 것은 오전 8시였다. 이때 육군본부에서는 유·무선 통신망을 이용해 경계경보를 발령하고 후방부대의 복상 명령을 하달하였다.<sup>56)</sup> 물론 이보다 2시간 앞서 육군본부에서는 비상사태 돌입을 지시하였지만, 그 내용은 휴가·외출·외박·교육 중인 장병들의 긴급 소집을 발령한 것으로 부대이동에 관한 사항은 아니었다.<sup>57)</sup> 따라서 실제 한국군이 작전계획에 따라 비상조치를 시행한 것은 오전 8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국군에 대한 비상조치가 내려질 무렵 군사고문단에서도 부참모장 그린우드 중령이 고문관들에게 경보를 발하여 원대 복귀할 것을 지시하였다.<sup>58)</sup> 그러나 이러한 지시는 고문단사령부 소속의 고문관들에게만 전달되었으며, 일선 전투부대의 고문관들에게는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25일 오전에 고문단사령부로부터 메시지를 받았다고 증언하는 한국군 전투부대 소속 고문관은 대전에 주둔하던 한국군 제2사단 선임고문관 갤러거(James S. Gallagher) 중령이 유일하다. 그는 “25일 오전 9시에 고문단사령부로부터 전선 상황을 처음 들었지만, 이미 1시간 전에 한국군 제2사단 참모들로부터 북한군의 공격 사실을 들었다”고 회고하였다.<sup>59)</sup> 또한 대구 주둔 한국군 제3사단의 선임고문관 에머리치 중령은 “오전 11시에 한국인 통역관이 북한군의 38선 월경을 알려주었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볼 때, 고문단사령부의 경보발령은 오전 9시 이후에 그것도 제한적으로 이루어진

55) Robert K. Sawyer, 앞의 책, 119쪽.

56) 이 명령은 오전 8시에 구두명령으로 전달되었으며, 12시에 작전명령 제84호로 정식 하달되었다. 작전명령 원문 사본은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5, 『6·25전쟁사: 북한의 전면남침과 초기방어전투』 제2권, 806쪽에 수록되어 있다.

57) “작전명령 제83호”(1950. 6. 25. 06:00), 위의 책, 805쪽.

58) “Ray B. May to Sawyer”(1954. 2. 11), RG 319, Entry No. 181, Office of the Chief of Military History BKGD-Military Adv. Korea : KMAG Peace & War, Box 2.

59) “James S. Gallagher to Robert K. Sawyer”(1953. 10. 5), RG 319, Entry No. 181, Office of the Chief of Military History BKGD-Military Adv. Korea: KMAG Peace & War, Box 2.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고문단사령부의 경보발령이나 행동지침과는 무관하게 38선에 인접한 사단의 고문관들은 개별적으로 행동했음이 각종 증언들을 통해 확인된다. 개전 당일 오전에 웅진반도를 철수한 제17연대를 제외하고 나머지 4개 사단에 배속된 고문관들의 행동 양태는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개전 당일 서울로 철수하는 고문관이 있는가 하면, 서울에서 주둔지역으로 복귀하는 고문관도 있었다. 하지만 38선 인접 사단의 고문관들은 대부분 6월 26일까지 모두 철수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27일 오전에 발령되는 라이트 군사고문단장 대리의 명령이 있기 전의 일이었다. 각 사단별 선임고문관의 행적을 중심으로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개성과 문산 지역을 담당하던 한국군 제1사단의 선임고문관 로크웰(Lloyd H. Rockwell) 중령에 대해 살펴보자. 로크웰은 1949년 11월에 한국군 제1사단 선임고문관으로 부임했으며, 그 전에는 6개월간 강릉의 제8사단 선임고문관으로 근무했던 인물이었다. 개전 당일 그의 행적과 관련해 로크웰 자신은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다.

전쟁 발발 당일 모두가 그러했듯이 나도 서울에 있었다. 6월 27일(역자 주: 25일의 오기) 오전 5시에 백 대령과 그의 참모 몇 명이 내 집 문을 두드리고서 북한군의 공격을 알렸다. 내 집에서 백 대령은 자신의 참모들 중 2명을 서울로 보내 사단 장교들을 수소문하게 하였다. 나는 아내에게 제1사단 고문관들에게 북한군의 공격 사실을 알리게 하였다. 백 대령은 제13연대에 사전 준비된 방어진지로 이동할 것을 명령하고서 우리는 문산으로 달렸다. 약 1시간 반 만에 우리는 문산에 도착하였다. ... 내가 생각하기로는 6월 29일 밤늦게 고문단사령부로부터 유선상으로 한국인들에게는 알리지 말고 모든 미국인들은 즉시 서울의 미군사령부로 돌아오라는 지시를 받았다. 우리는 그들에게 알리지 않고 떠날 수가 없었지만 서울로 돌아왔다. 그리고 이날 일본으로 소개되었다.<sup>60)</sup>

60) "Lloyd H. Rockwell to Lt Col. Roy E. Appleman"(1954. 5. 21), RG 319, Entry No. 181, Office of the Chief of Military History BKGD-Military Adv. Korea: KMAG Peace & War, Box 2.

앞의 증언에서 로크웰은 개전 당일 오전 5시에 북한군의 공격사실을 알았으며, 개전 이틀 후에 고문단사령부로부터 철수 명령을 받고 서울로 철수했다고 하였다. 그러나 당시 제1사단장 백선엽 대령은 로크웰 중령과는 사뭇 다른 주장을 제기한다. 이와 관련해 백선엽은 『군과 나』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1950년 6월 25일 아침 7시경, 사단작전참모 김덕준(金德俊) 소령의 숨겨진 전화가 내가 받은 6·25전쟁의 제1보였다. ... 차편을 얻을 겸 육군본부 근처의 관사에 사는 1사단의 수석고문관 로크웰 중령 관사를 찾았다. 그는 아무것도 모른 채 집에 있었고 다행히 지프도 있었다. 급보를 전해주고 나는 로크웰 중령이 운전하는 지프를 타고 최경록(崔慶祿) 대령의 자택이 있는 남대문 쪽으로 향했다. 11연대장 최대령은 내가 사단을 비우고 있는 동안 선임 연대장으로서 사단장 대리도 근무중이었다. 이리하여 우리 세 사람은 수석의 사단사령부로 직행하게 됐다. 사단사령부에 도착한 것은 9시경이었다. ... 과주국민학교까지 동행했던 로크웰 중령이 한낱쫓 군사고문단에서 철수 명령이 내려 서울로 돌아간다고 말하고 총총히 사라졌다.<sup>61)</sup>

백선엽의 증언에 따르면, 로크웰은 25일 오전 7시 이후에 전황 소식을 접했으며, 9시경에 임진강 방어선을 돌아본 후 점심 무렵에 전선을 이탈한 것으로 된다.

로크웰과 백선엽의 증언을 비교해 보았을 때, 신뢰성 면에서 백선엽의 증언이 보다 더 사실적이라고 할 수 있다. 로크웰의 증언 중 날짜의 오류 문제는 차지하더라도 25일 오전 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6월 25일 오후부터 7월 초까지의 상황 설명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29일 고문단사령부의 명령에 의해 철수했다”는 그의 주장은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단 선임고문관의 전선 이탈은 강릉의 제8사단에서도 발생했다.

61) 백선엽, 1989, 『군과 나』, 대륙연구소 출판부, 29~31쪽.

선임고문관인 라슨(Gerald E. Larsen) 소령과 소속 고문관들에 대해 당시 제8사단장이었던 이성가(李成佳) 대령은 고문관들이 25일 저녁에 모두 임의 철수했다고 하였다.<sup>62)</sup> 하지만 제8사단 소속으로 삼척의 제21연대 고문관이었던 캐슬러(George D. Kessler) 소령은 라슨(Gerald E. Larsen) 제8사단 선임고문관과 소속 고문관들이 “6월 26일 오후까지 강릉에 머물렀으며, 한국군 제6사단 선임고문관의 명령에 따라 철수”했다고 하였다.<sup>63)</sup> 그리고 자신들은 철수 전에 한국군 제8사단의 철수로까지 마련해 주었다고 하였다. 양자의 증언 중 어느 것이 정확한지는 현재 확인하기가 어렵다. 다만 “한국군 제6사단과 제8사단 출신 고문관들이 지프차로 며칠 밤낮을 달려 부산에 도착했다”는 한국군 제3사단 선임고문관 에머리치(Rollins S. Emmerich)의 증언으로 미루어 볼 때, 제6사단과 제8사단 고문관들은 함께 행동했음이 분명하다.<sup>64)</sup> 하지만 이들의 철수도 고문단사령부의 명령에 의한 것은 아니었다.

한편 제6사단 선임고문관 맥페일(Thomas D. McPhail) 중령은 제1사단과 제8사단 고문관들의 초기 행동과는 조금 달랐다. 맥페일은 “북한이 38선 연변의 주민들을 소개시키고 38선 바로 북쪽의 ‘제한된 지역’에 위장한 탱크와 대포들을 숨겨놓고 있다는 것”을 정보참모부에 보고하기 위해 서울로 향했으며, 6월 25일 오전에 춘천으로 돌아왔다.<sup>65)</sup> 이에 대해서는 당시 제6사단장 김종오 대령도 “25일 아침까지 서울에 있던 맥페일이 춘천으로 돌아왔다”고 증언하였다.<sup>66)</sup> 이를 통해 볼 때, 맥페일이 파악한 북한군 동향에 따라 한국군 제6사단은 장병들의 외출·외박을 제한하고 전 병력을 방어위

62) 「이성가 증언」(1965. 3. 9), 전사편찬위원회 증언록 HA01502.

63) Robert K. Sawyer, 앞의 책, 117~118쪽. 이 기록은 소이어가 1954년 2월 24일 캐슬러와 인터뷰 한 내용이다.

64) “Early History of the Korean War 1950 by Lieutenant Colonel Rollings S. Emmerich”(1953. 11. 20), RG 319, Entry No. 181, Office of the Chief of Military History BKGD-Military Adv. Korea : KMAG Peace & War, Box 2.

65) Bruce Cumings, *The Origins of the Korean War volume II: The Roaring of the Cataract 1947~1950*,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0, 582~583쪽.

66) 「김종오 증언」(1965. 3. 4), 전사편찬위원회 증언록 HA01164.

치에 배치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군의 주공(主攻)이 지향된 한국군 제7사단의 경우 선임고문관 비렐로(Joseph W. Bilello) 중령에 관한 기록은 찾을 수가 없다. 당시 제7사단장이었던 유재홍 준장도 고문관들에 대해서는 “(25일 오전에) 무어 중위가 허겁지겁 달려와 2.36인치 로켓포를 쏘아도 전차가 파괴되지 않는다고 하였다”라는 아주 단편적인 내용만을 증언한다.<sup>67)</sup> 소이어 또한 동두천-의정부지역을 설명하면서 “6월 26일 오전 3명의 고문관이 서울에서 의정부를 향해 떠났는데, 이들의 복상 목적은 한국군 제2사단의 계획된 반격을 관찰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여 제7사단 고문관들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sup>68)</sup> 다만 당시 포천 지역을 담당하던 무어 중위가 언급되고, 제2사단 고문관들이 26일까지 의정부 지역에 남아있던 것으로 보아 제7사단 고문관들도 최소한 26일 오전까지는 의정부지역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이들도 다른 38선 인접사단들의 고문관들처럼 26일 저녁 무렵에는 전선에서 모두 철수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와 같이 전선부대의 고문관들은 6월 25~26일 일본으로의 철수를 위해 대부분 전선에서 이탈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고문관들의 전선이탈은 27일 오전에 군사고문단장 대리 라이트 대령이 승인한 고문단 철수계획과는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이었다. 전투부대에서의 고문관 철수는 ‘미국이 한국을 포기했다’라는 인식을 한국군 내에 급속하게 확산시켜 전투력 약화를 가속화시켰다. 이는 한편으로 고문단이 전쟁 전 북한군의 군사력 강화와 38선 전진배치라는 전쟁 징후를 감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군사고문단 내에서는 이것이 결코 전면 전쟁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확고한 신념’이 만연되어 있었음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했다.

67) 유재홍, 1994, 『격동의 세월』, 을유문화사, 121쪽; 「유재홍 증언」(1967. 10. 2), 전사편찬위원회 증언록 HA03894.

68) Robert K. Sawyer, 앞의 책, 116쪽.

### (3) 후방부대 파견 고문문관들의 동향

1950년 6월 25일 후방지역에는 제2사단이 대전에, 제5사단이 광주에, 제3사단이 대구에 각각 주둔하고 있었다. 이들 사단은 2개 연대의 병력을 보유한 예비사단으로 예비부대들은 대부분 후방지역 게릴라 토벌작전을 위해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었다. 육군본부에서는 이날 오전 8시에 제2, 제5사단 전 병력과 제3사단 제22연대 병력을 전선으로 이동시키는 명령을 내렸다.<sup>69)</sup> 하지만 이들 후방사단의 실제 병력 이동은 이날 오후부터 시작되었으며, 26일까지도 완료되지 않을 정도로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대전의 제2사단은 서울 이동 명령이 내려진지 6시간 후인 오후 2시 30분에 이르러서야 대전에 주둔하던 제5연대 제2대대와 사단본부 병력을 열차편에 탑승시켜 서울로 향했다. 이들이 후방지역 부대들 중 첫 번째로 전선을 향해 출발한 부대였다.

이와 관련해 당시 제2사단장이었던 이형근 대령은 '오전 10시경'에 긴급 사태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듣고 즉시 비상소집을 건 후 가용할 수 있는 병력과 더불어 서울로 향했다고 증언한다.<sup>70)</sup> 그의 증언이 사실이라면 육군본부가 오전 8시에 구두로 하달했다는 '작전명령 제84호'는 실재(實在)하지 않는 것이 되며, 개전 당일 육군본부의 대응에 대한 책임 회피를 위해 누군가가 사후에 조작했을 가능성을 남겨두게 된다. 또한 반대로 그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면, 개전 초기 육군본부의 명령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한 사단장으로서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게 되며, 또 개전 초기의 상황에 대한 그의 증언이 신뢰성을 갖기가 어렵게 된다. 이렇듯 그가 말하는 '오전 10시'는 단순히 시간적인 문제가 아니라 전쟁 초기 한국군의 전반적인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되기도 한다.

69) 「육군본부 작전명령 제84호」(1950. 6. 25). 육군본부는 25일 오전 8시에 '작명 제84호'를 하달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제2사단은 안동에 1개 대대만을 남기고 전 병력을 서울로 출동하게 하였으며, 제5사단은 남원에 제15연대 1개 대대, 백운산에 제20연대 1개 대대만을 남기고 모두 서울로 이동하게 하였다. 그리고 제3사단은 제22연대를 서울로 차출하였다.

70) 이형근, 1993, 『군번1번의 외길인생』, 중앙일보사, 50쪽.

이와 관련해 이형근 대령의 장인으로 당시 광주의 제5사단장이던 이응준(李應俊) 소장은 “25일 아침 8시경에 지급 전보 한통이 광주에 있는 내 숙소(宿舎)로 날아들었는데, 공산군이 오늘 새벽 38선 전역에 걸쳐 남침을 개시했고, 제5사단은 12시까지 용산에 이동하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회고한다.<sup>71)</sup> 또한 당시 제2사단 선임고문관인 갤러거(James S. Gallagher) 중령도 “오전 8시에 한국군으로부터 북한군의 월경 사실을 들었으며, 그로부터 1시간 후인 오전 9시경에 고문단사령부에서 보낸 메시지를 통해 이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증언하였다.<sup>72)</sup> 갤러거의 증언에 의하면, 제2사단 참모들과 군사고문관들은 이날 오전 8~9시경에 북한군의 38선 월경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볼 때, 육군본부가 오전 8시에 하달했다는 ‘작전명령 제84호’는 실재했던 것으로 보이며, 제2사단장은 그러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거나 또는 자의적으로 묵살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다. 어찌되었든 이는 지휘관으로서의 치명적인 실수임이 분명하다.

제2사단장과 선임고문관 갤러거 중령과의 관계는 매우 불편했던 것으로 보인다. 갤러거는 “제2사단장이 전술 장교가 아니었으며, 전술에 대해서 거의 알지 못했다. 그는 “정치적으로 임명된 자(political appointee)’였다”고 혹평하였다. 나아가 그는 “첫 번째 경계명령<sup>73)</sup>이 발효된 지 8시간이나 지난 후인 오후 2시 30분에야 첫 번째 기차를 출발시켰는데, 이를 두고 참 잘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하면서 제2사단장의 지휘에 문제가 있었음을 지적했다.<sup>74)</sup> 이렇듯 제2사단은 사단장과 선임고문관 사이의 불편

71) 이응준, 1982, 『회고 90년』, 산운기념사업회, 278쪽.

72) “James S. Gallagher to Robert K. Sawyer”(1953. 10. 5), RG 319, Entry No. 181, Office of the Chief of Military History BKGD-Military Adv. Korea: KMAG Peace & War, Box 2.

73) 갤러거가 말하는 ‘첫 번째 경계명령’은 오전 6시에 있었던 ‘장병 긴급소집 명령’인 ‘육군본부 작전명령 제83호’를 일컫는다.

74) “James S. Gallagher to Robert K. Sawyer”(1953. 10. 5), RG 319, Entry No. 181, Office of the Chief of Military History BKGD-Military Adv. Korea: KMAG Peace & War, Box 2.

한 관계가 전선으로 이동한 후에도 지속되었으며, 이로 인해 전투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sup>75)</sup>

한편 6월 27일 오전까지 한국군 후방부대의 전선 이동이 완료됨에 따라 후방지역에는 제3사단 소속 고문관들만이 남게 되었다. 제3사단 선임고문관인 에머리치 중령이 개전 소식을 들은 것은 25일 오전 11시 함안에서였다. 당시 제3사단장 유승렬 대령과 에머리치 선임고문관은 전날 진주에서 있었던 지리산지역 게릴라 토벌작전 회의를 마치고 대구로 복귀하던 중이었다. 무전 시설을 갖지 못한 제3사단장과 에머리치 선임고문관 일행은 제3사단사령부로부터 함안경찰서로 걸려온 전화를 통해 개전 사실을 알게 되었다.

개전 당일 제3사단 고문관은 제22연대의 서울 차출로 인해 3명의 고문관들이 서울로 떠남에 따라 사단 선임고문관 에머리치 중령과 제23연대 고문관들만이 남게 되었다. 에머리치 중령은 제23연대 고문관들과 함께 27일 오전 8시에 전달된 무초 대사의 부산집결 메시지를 받고 12시에 대구를 떠났다.<sup>76)</sup>

대구에서 부산으로 이동한 제3사단 선임고문관 에머리치는 극동군사령부와의 연락을 담당할 목적으로 6월 28일 임시군사고문단사령부(Provisional Korean Military Advisory Group Headquarters)를 설치하였다. 임시군사고문단은 고문단사령부의 명령에 의해 설치된 것은 아니었지만, 7월 1일 수원에 처치 준장이 지휘하는 극동군사령부 전방지휘소(ADCOM)가 설치될 때까지 실제로 극동군사령부의 정보연락사무소 역할을 수행했다.

규모는 비교적 작았지만, 부산의 임시군사고문단은 이 시기 극동군사령부와 긴밀한 연락관계를 취하면서 각종 정보를 제공하였다. 극동해군은 임시고문단과 접촉을 유지하면서 동해안 도로의 목표물에 대한 함포지원을 제공하였으며, 극동군사령부 정보참모부는 한반도 상황에 대한 약간의 정보라도 얻기 위해 임시고문단과 계속해서 연락을 취했다. 임시고문단에서는

75) 위의 문서.

76) “에머리치 문서”(1953. 11. 20), 4~5쪽.

매일 두 차례에 걸쳐 확인 가능한 지역의 날씨 정보를 극동공군의 이타츠크(板付) 기지로 송신하였다.<sup>77)</sup>

임시고문단사령부는 6월 28일 한국군 제6사단과 제8사단 소속 고문관들이 부산에 도착함으로써 빠르게 확장되었다. 6월 29일 부산의 임시고문단 규모는 22명의 장교와 34명의 사병, ECA 직원 6명, 의사 2명 등 총 64명이었다.<sup>78)</sup>

임시군사고문단은 6월 30일 당시 대전에 위치하던 군사고문단사령부와 연락이 닿으면서 자연스럽게 제3사단 고문단 지부로 환원되었다. '임시군사고문단'이라는 공식 명칭은 사라졌지만, 에머리치 중령이 지휘하는 한국군 제3사단 고문단 지부는 한국군 지원과 후방지역 안정화라는 고유 업무 이외에 주일 미군의 한반도 이전에 따른 지원업무와 극동 미 해·공군의 작전지원이라는 추가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특히 7월 1일부터 미 지상군이 부산을 통해 들어오면서 제3사단 고문관들은 이들을 위한 철도수송 체계를 마련하는 등 근무지원에 동원되었으며, 극동공군의 항공기와 극동해군의 함포사격을 유도하는 전방항공통제관이나 함포사격통제관의 역할을 수행기도 했다. 또 고문관들은 통역관을 대동하고 북한군 포로 심문을 담당하기도 했으며, 비행장 경비 감독도 그들의 몫이었다.<sup>79)</sup>

#### 4. 군사고문단의 전선 복귀와 조직 재편

1950년 6월 27일 일본으로 철수한 약 400명의 고문관들이 한국으로 다시 돌아 온 것은 7월 2일이였다. 고문단원들의 복귀는 한국 전선에 처음으로 투입될 예정이었던 미 제24사단 딘(William F. Dean) 사단장의 지시에 따

77) "에머리치 문서"(1953. 12. 1), 15쪽.

78) "에머리치 문서"(1953. 12. 1), 16~17쪽.

79) "에머리치 문서"(1953. 12. 3), 27~30쪽, 32~40쪽 참조.

른 것이었다. 당시 일본으로 철수한 군사고문관들은 일본 규슈(九州) 고쿠라(小倉)의 미 제24사단 주둔지에 머물고 있었다. 한국으로의 복귀 명령이 내려지자 고문관들은 7월 1일 개전 이후 극동군사령부의 첫 탄약 수송선인 키슬리(Sergeant Keathley)호에 승선해 오후 2시에 일본을 출발했다. 이들은 7월 2일 오전에 부산항에 입항한 후 고문단사령부가 있는 대전으로 향했다.<sup>80)</sup>

주한미군이 한반도에서 철수한 후 약 1년 만인 7월 1일 미 전투부대가 복귀함에 따라 군사고문단의 지휘관계도 새롭게 정립될 수밖에 없었다. 미 제24사단장 딘 소장은 7월 3일 한국에 도착하여 극동군사령관 맥아더의 지시에 따라 주한미군의 지휘권을 장악하고 대전에 주한미군사령부(USAFIK)를 설치했다. 아울러 그는 7월 4일부로 고문단의 작전지휘권도 맡게 되었다. 이로써 군사고문단은 주한미사절단(AMIK)의 일부로 주한미대사의 통제를 받던 것에서 벗어나 주한미군사령관의 작전통제하에 놓이게 되었다. 이때 고문단사령부 요원 중 일부가 미 제24사단의 일반참모 및 특별참모부로 소속이 전환되었다.<sup>81)</sup>

미 제24사단장의 통제하에서 고문단사령부가 실시한 첫 번째 조치는 전투부대 소속 고문관들의 원대(原隊) 복귀였다. 각 사단별로 고문관 복귀 일자 는 확인할 수 없으나 한국군 제8사단의 사례를 볼 때, 7월 4~5일경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당시 한국군 제8사단장 이성가 대령은 “제천에 가서 이틀 있으니까 부대를 떠났던 고문관들이 돌아왔다”고 증언하였다.<sup>82)</sup> 제8사단이 제천으로 철수한 것이 7월 2일이었으며,<sup>83)</sup> 그로부터 ‘이틀 후’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고문관들이 사단에 복귀한 것은 7월 4일경이었다. 한국군 제8사단이 대전의 고문단사령부로부터 가장 먼 거리에 위치하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다른 사단도 이와 비슷한 시기에 고문관들의 복귀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80) “에머리치 문서”(1953. 12. 1), 24~25쪽.

81) Robert K. Sawyer, 앞의 책, 135쪽.

82) 「이성가 증언」(1965. 3. 9), 전사편찬위원회 증언록 HA01502.

83)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6, 『6·25전쟁사: 한강선 방어와 초기 지연작전』 3권, 560쪽.

고문관들이 원 소속의 한국군 사단으로 복귀할 무렵 한국군은 대폭적인 조직 개편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7월 5일 한국군은 전쟁 발발 전에 8개였던 사단을 5개로 줄이고, 이를 지휘하는 군단사령부를 설치하였다. 개전 초기부터 전투력을 비교적 온존하고 있던 중동부전선의 제6사단과 제8사단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단들은 모두 재편성되었다. 특히 제3, 제5, 제7사단이 해체되어 수도, 제1, 제2사단에 흡수되었다.<sup>84)</sup>

한국군 사단의 조직 개편에 따라 군사고문단도 재편 작업에 착수했다. 라이트 고문단장 대리는 7월 8일 맥페일(Thomas D. McPhail) 중령을 제1군단 선임고문관에 임명하고, 각 사단 선임고문관과 연대고문관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정을 실시했다. 이때 한국군 수도사단과 제17연대를 제외하고 선임고문관 전원이 교체되었다.<sup>85)</sup>

이러한 고문단 내부의 조직 재편과 더불어 고문단사령부에서는 기존의 공식적인 임무를 종료하고 한국군의 재편성과 작전지원에 주력하는 것으로 임무를 전환하였다. 1950년 7월 8일 라이트 대령은 고문관들에게 다음과 같은 명령을 내려 고문단의 주요 임무가 한국군의 작전지원임을 분명히 했다.

초기 작전기간 동안에 군사고문단은 불확실한 상황으로 인해 필요할 경우에 한해서 고문단 순회팀들(roving teams)을 활용하였다. 이는 고문단이 제 자리를 찾을 때까지의 임시방편이었다. 현재 고문관들의 배치는 본래의 운영 방식대로 제 자리를 찾았으며, 고문단 부관감실에서 맡고 있다. 아직까지 순회 활동을 하는 고문관들에게는 가능한 한 빨리 보직을 부여할 것이다. 한국군 부대들은 재편성과 재장비되고 공세작전 단계로 나가기 전에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방어선을 형성, 유지하는 데 불굴의 의지를 발휘하도록 주입시키는 것이 절실한 상황이다. 그대들의 상대역(Counterpart)에게 이것을 강력하게 주시키는 것이 그대들의 주된 임무이다. 사실상 그대들이 한국군 부대를 지휘(command)한다.<sup>86)</sup>

84)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위의 책, 254~257쪽.

85) "Colonel Wright to Lt. Col. McPhail, sub: Letter of Instruction"(1950. 7. 8), RG 338, KMAG, AG, Decimal File, 1948-53, Box 7.

라이트 고문단장 대리의 명령에 따라 고문단 인사참모인 버트 중령이 작성한 이 비망록은 6월 27일 고문단 철수 명령 이후 11일 만에 고문단사령부에서 소속 고문관들에게 보낸 첫 번째 명령이었다. 이 문서에 의하면, 7월 8일경에 이르러 전쟁 전의 상태는 아니더라도 고문단이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았음을 보여 준다. 이는 7월 6일부터 고문단의 실제 병력이 파악되어 미 육군부에 보고되는 것에서도 확인된다. 7월 7일자 극동군사령부가 미 육군부에 보내는 일일 정기보고서에는 고문단의 총인원을 장교 176명, 사병 272명 등 총 448명으로 기록하고 있다.<sup>87)</sup>

이 시기 군사고문단이 안정화를 추구할 수 있었던 것은 유엔에서 미군의 참전을 공식 승인한 것과는 무관하지 않다. 7월 7일 유엔안보리는 미국이 준비한 '연합군 형성 지침 결의안'을 수정 없이 통과시켰다.<sup>88)</sup> 이에 따라 미국은 7월 8일 당시 극동군사령관으로 있던 맥아더를 유엔군사령관에 임명하고 극동군사령부 자체를 유엔군사령부로 전환시켰다.<sup>89)</sup>

7월 8일을 기점으로 유엔군사령부가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군사고문단도 정비 작업을 일단락 지었지만 전선의 상황은 미군과 한국군에 계속해서 불리하게 전개되었다. 이에 군사고문단은 7월 14일 대전의 고문단사령부를 공식적으로 폐쇄하고 대구로 이동해 제8군사령부의 통제하에서 한국군에 대한 지원을 수행하게 되었다.<sup>90)</sup>

86) "Memorandum from R. L. Butt Jr. to all KA Advisors, KMAG"(1950. 7. 8), RG 338, KMAG, AG, Decimal File, 1948-53, Box 7.

87) "To DEPTAR From CINCFE"(1950. 7. 7), RG 330, Entry No. 208, Korea Teletype Conference July 1950, 군사편찬연구소 MF 1153. 극동군사령부가 미 육군부로 보내는 일일보고서에는 병력의 증감 현황을 자세하게 적고 있다. 고문단과 관련한 기록은 1950년 7월 7일~8월 26일까지 나타나며, 8월 27일부터는 미 제8군사령부 병력에 포함시켜 적고 있다. 1950년 7월 7일~8월 26일의 고문단 병력 현황은 [부록 11] "1950년 7월 7일~8월 26일 군사고문단 병력" 참조.

88) "1950년 7월 7일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1950. 7. 7), *FRUS 1950*, vol. VII, 329쪽.

89) "히커슨 유엔문제 국무차관보가 국무장관에게"(1950. 7. 8), *RUS 1950*, vol. VII, 333~335쪽. 공식적으로 '유엔군사령부'가 설치된 것은 1950년 7월 25일이었지만, 맥아더가 유엔군사령관으로 임명된 후 곧바로 극동군사령부가 유엔군 지휘본부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90) Robert K. Sawyer, 앞의 책, 137쪽.

## 5. 맺음말

지금까지 한국전쟁 발발을 전후로 한 시기에 주한미군사고문단의 전쟁 인식과 대응 양상을 살펴보았다. 이상의 내용을 요약하면서 맺음말을 대신하고자 한다.

미국은 주한미군의 철수에 앞서 1948년 8월 24일 241명으로 구성된 임시군사고문단(PMAG)을 설립했다. 임시군사고문단은 주한미군사고문단(KMAG)을 정식으로 창설하기 위한 준비 기구였다. 1949년 6월 30일 주한미군이 완전 철수함에 따라 7월 1일 부대 통상명칭 '제8668부대'로 군사고문단이 정식으로 창설되었다. 군사고문단은 주한미사절단(AMIK)의 일부로 편성되었으며, 미 대사의 통제를 받았다.

한국전쟁 이전에 군사고문단은 한국군의 교육훈련 지도와 비정규전 지원에 중점을 두고 활동하였다. 한국군에 대한 군사고문단의 교육훈련 지도는 부대의 전술훈련 강화와 지휘관 양성교육으로 요약될 수 있었다. 군사고문단이 마련한 훈련계획은 38선 충돌사건과 비정규전 상황의 빈번한 발생으로 인해 제대로 실행되지 못했으며, 실행되더라도 훈련성고가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사고문단이 주관한 군사훈련은 한국군에 대한 최초의 체계적인 미군식의 훈련이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었다.

한국군의 교육훈련을 지도하는 것과 더불어 군사고문단은 작전지원과 관련해 비정규전 지원과 한국군 방어계획 수립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비정규전과 관련한 군사고문단의 활동은 매우 공세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다. 1949~50년 겨울, 남한 전역에서 실시된 한국군의 동계토벌작전에 군사고문단은 작전계획의 수립에서부터 부대운용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 걸쳐 한국군을 지원했다. 이 작전의 결과에 대해 군사고문단은 '대단히 성공적'이었다고 자평할 정도로 만족스러워 했다.

군사고문단은 비정규전에서의 적극적인 개입과는 달리 38선 분쟁에 대해서는 방어적인 입장을 취했다. 이 시기 38선 분쟁에 대한 군사고문단의 방어적인 입장은 미국정부의 공식적인 견해이기도 했다. 미국은 한국정부의

북진 주장에 대해 여러 통로를 통해 이를 반대하였으며, 또 38선 분쟁과 같은 민감한 군사문제에 대해서는 군사고문단을 통해 한국군을 적절하게 제어하고자 했다. 남·북한간의 군사적 충돌에 대한 군사고문단의 방어적인 입장은 작전계획의 수립에도 그대로 반영되었다. 1950년 3월 25일자 '육군본부 작전명령 제38호'는 군사고문단에서 마련한 것으로 그 내용은 북한군에 의한 '전면전'을 가정한 계획이라기보다는 서울-38도선 사이에서 발생할 지도 모르는 '국지도발'에 대한 방어계획이었다. 군사고문단은 북한군의 군사력 강화와 38선 전진 배치라는 전쟁 징후를 감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면전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문시하였다. 이는 당시 미국 내에서 만연하던 '소련은 미국과의 전쟁을 원하지 않으며, 소련의 괴뢰인 북한이 독자적으로 행동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논리가 군사고문단 내에서도 만연하여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전면전의 가능성을 도외시 했던 군사고문단은 개전 2~3일 내에 조직이 급속하게 와해되었다. 전선부대에 파견된 고문관들은 6월 25~26일 일본으로 철수하기 위해 모두 전선에서 이탈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고문관들의 전선이탈은 27일 오전에 군사고문단장 대리 라이트 대령이 승인한 고문단 철수계획과는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이었다. 전투부대에서의 고문관 철수는 '미국이 한국을 포기했다'라는 인식을 한국군 내에 급속하게 확산시켜 전투력의 약화를 가속화시켰다. 고문단의 전선 재복귀는 1950년 7월 4일경에 이루어졌다. 이때 고문단사령부에서는 고문단의 조직재편과 더불어 기존의 공식적인 임무를 종료하고 한국군의 재편성과 작전지도에 주력하는 것으로 임무를 전환하였다. 1950년 7월 8일 라이트 대령은 고문관들에게 한국군을 직접 지휘하는 것도 고려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군사고문단은 1951년 중엽 휴전회담이 이루어지고 전선이 교착상태에 이를 때까지 한국군의 작전지도에 중점을 두고 활동하게 되었다.

(원고투고일 : 2011. 4. 1, 심사수정일 : 2011. 4. 25, 게재확정일 : 2011. 4. 29.)

주제어 : 임시군사고문단, 주한미군사고문단, 주한미사절단, 극동군사령부, 한국전쟁, 작전명령 제38호, 상대역제도, 크렐러계획, 국지도발, 전면전

<ABSTRACT>

## The Recognition and Response of the U.S. Military Advisory Group to the Republic of Korea about the Korean War

Park, Dong-chan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tudy KMAG's recognition and response about the Korean War. If summarizing what is examined in this manuscript, it is as follows.

After the Truman Doctrine was announced in 1947, United States provided a military aid to a region except Europe and dispatched the U.S. Military Advisory Group. The U.S. Army Group was dispatched to Greece·Turkey·Iran, and the Provisional Military Advisory Group was installed in August 24, 1948 in Korea. PMAG was formally established as KMAG in July 1, 1949, since withdrawal of U.S. Army Force in Korea was complete. The U.S. Military Advisory Group was organized as a part of American Mission in Korea with the Embassy of United States in Korea and the Economic Cooperation Administration(ECA) and received control of Ambassador of United States in Korea

KMAG selected all fields related to the Korean Army such as organization, operation, education and training, and logistics as a domain of activities, and accomplished their plan and decisions to the Korean Army through a "Counterpart System". Activities of the U.S. Military Advisory Group has developed while varying its scope and emphasis according to United States' military policy to Korea and changes of the situation of Korea, and continued changes in a command channel and scale by corresponding to it.

Before the Korean War, activities of KMAG laid emphasis on training and educational guidance, and anti-guerilla warfare of the Korean Army. Training guidance of the U.S. Military Advisory Group can be summarized as reinforcement of unit's tactical training and training education of commanders. The training plan on the Korean Army that the U.S. Military Advisory Group planned was not properly performed, and training results were also not good, but there was a meaning in that the first systematic American-style training on the Korean Army was carried out. In relation with operational support, it had direct influence on support of anti-guerilla warfare and establishment of a defense plan of the Korean Army. The U.S. Military Advisory Group evaluated the result of winter subjugation operation against guerrillas during 1949~50 as 'very successful'. The U.S. Military Advisory Group took a defensive position on the 38th parallel's dispute, unlike active intervention in subjugation operation against guerrillas. United States tried to properly control the Korean War through KMAG, while opposing assertion of going-north of the Korean Government actively. The defense plan of the Korean Army that KMAG visualized in this standpoint was connected to an 'operation order No. 38 of the Headquarter of the Army'. Its core content was a defense plan against 'local provocation' of the North Korean Army instead of preparing a full-scale war.

Even if KMAG sensed a war symptom such as reinforcement of military strength and forward deployment to the 38th parallel of the North Korean Army before outbreak of the Korean War, it was convinced that it would never be connected to a full-scale war. As soon as the Korean War broke out due to this, organization of KMAG was seriously collapsed, and confusion was generated even in a command system. Councilors dispatched to forward units had withdrawn from the battle line in June 25~26. Withdrawal of councilors accelerated weakening of fighting power by rapidly spreading recognition like "United States gave up Korea" inside the Korean Army. What councilors again returned to the battle line was around July 4, 1950. At this time, the KMAG headquarters completed existing official duties and converted its duties into concentration on operational guidance

of the Korean Army. In July 8, 1950, an order that makes councilors consider direct command of the Korean Army was delivered to councilors.

Keywords : Provisional Military Advisory Group, U.S. Military Advisory Group to the Republic of Korea, American Mission in Korea, Hq. Far East Command, Operation Order No. 38, the Korean War, Counterpart System, Plan Cruller, Local Provocation, Full-scale War

# 6·25전쟁의 국내 및 국제정치적 영향에 관한 연구\*

김 영 호\*\*

1. 서 론
2. 6·25전쟁의 국내적 영향
3. 6·25전쟁의 국제정치적 영향
4. 결 론

## 1. 서 론

6·25전쟁은 해방과 건국 이후 시작된 한국현대사에서 가장 중요한 역사적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다. 세계사적으로도 6·25전쟁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시작된 냉전의 전개과정과 국제정치질서의 변화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그동안 6·25전쟁 연구는 전쟁의 발발 원인, 전개과정, 휴전과 관련된 주제에 그 연구가 집중되어 왔다. 이에 비하면 6·25전쟁이 끼친 국내외적 영향에 대한 연구는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적다고 할 수 있다.

---

\* 이 논문은 2010년도 성신여자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성신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전쟁 발발 60년이 지난 시점에서 그동안 6·25전쟁 영향에 대한 연구 성과를 재검토하고 향후 새로운 연구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매우 뜻깊은 학문적 작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6·25전쟁은 전쟁의 범위가 한반도에 국한된 국지전이었지만 참전 군인의 규모와 희생자 숫자에 비추어볼 때 ‘축소판 제3차 세계대전’이었다.<sup>1)</sup> 전쟁의 지역적 범위가 좁혀지면서 오히려 양측에 의해 사용된 군사력의 집중도가 높아진 결과 전쟁 기간 중 민간인의 피해는 더욱 늘어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또한 북한의 남침에 의해 시작된 이 전쟁은 남북한뿐만 아니라 두 초강대국이었던 미국과 소련, 아시아의 신흥공산국가였던 중국이 개입한 국제전의 양상을 띠면서 인명과 재산 피해를 더욱 키웠다. 이런 참혹한 전쟁의 경험 때문에 전쟁의 비도덕적, 부정적 측면만 강조되는 경향이 있다.<sup>2)</sup> 이러한 경향성 때문에 전쟁의 대내외적 영향에 대한 객관적, 이론적 고찰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전쟁 발발 60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고 전쟁의 대내외적 영향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야 필요가 있다.<sup>3)</sup>

이 글의 목적은 6·25전쟁이 끼친 중요한 국내 및 국제정치적 영향들을 분석하는 데 있다. 우선 이 글은 6·25전쟁이 근대국가로서 대한민국의 발전에 끼친 영향을 검토할 것이다. 전쟁을 거치면서 한국이 어떻게 국가기반능력을 구축하고 베버(Max Weber)가 정의하는 근대국가의 모습을 갖추게 되는지 살펴볼 것이다. 나아가 한국은 국가재정의 과도한 대외의존성으로 인하여 ‘렌티어 국가’(rentier state)의 모습을 띠게 된다는 점을 지적하

1) 6·25전쟁을 제3차 세계대전의 ‘대안물’(substitute)로 보는 입장에 대해서는 William Stueck, *The Korean War: An International History*(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5), p.3. 스투크의 입장은 6·25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미국과 소련 사이에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는 강대국적 시각을 반영하고 있다. 그렇지만 전쟁의 피해 당사자였던 우리 민족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전쟁은 또 다른 세계대전의 축소판이었다고 할 수 있다.

2) 이채진, 『한국전쟁의 숨은 뜻: 6·25가 남한에 미친 영향』, 『계간 사상』, 1990년 봄, p.186.

3) 이와 관련된 가장 최근의 연구로는 김영호 외저, 『6·25전쟁의 재인식』, 기파랑, 2010 참조.

고 이것이 한국의 정치발전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비판적으로 분석할 것이다. 또한 이 글은 6·25전쟁을 통해서 한국 사회가 토크빌(Alexis Tocqueville)이 제시한 '제조건의 평등'에 기초한 민주사회로 발전했다는 점과 반공의식이 강화되었다는 점들을 지적하고 그 대내적 영향을 분석할 것이다.

이 글의 또 다른 목적은 6·25전쟁이 끼친 국제정치적 영향을 분석하는데 있다. 6·25전쟁은 지역적 범위가 한반도에 국한된 제한전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국제정치적 영향은 유럽뿐만 아니라 동북아 지역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6·25전쟁이 어떻게 유럽 나토(NATO)의 군사화를 촉진시키고 동북아 지역 냉전 구조 고착화에 결정적으로 기여하게 되는지 살펴볼 것이다. 나아가 미국이 6·25전쟁 이후 적국 일본을 동맹국으로 삼고 한국, 대만, 필리핀을 비롯한 동북아 지역 국가들과 일련의 군사방위조약을 체결하는 배경을 구체적으로 분석할 것이다. 또한 이 글은 6·25전쟁이 국제정치이론과 유엔 체제에 끼친 영향을 비판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 글은 6·25전쟁 발발 60년 이후 중국의 부상과 함께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동북아 지역 질서 형성 과정에서 6·25전쟁이 여전히 커다란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동북아 지역의 지속적 평화와 번영을 위해 6·25전쟁으로부터 도출해야 할 역사적 교훈들을 제시할 것이다.

## 2. 6·25전쟁의 국내적 영향

6·25전쟁은 근대국가로서 대한민국의 발전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건국을 전후하여 남한 내에 존재했던 체제대항무력 세력은 완전히 제거되지 않고 있었다. 여수·순천반란 사건과 남한 내 게릴라 세력의 존재에서 보듯이 이러한 대항무력 세력의 존재로 인하여 건국 그 자체도 순조롭게 진행

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건국 이후에도 이런 세력을 제거하는 데 많은 경찰과 군대가 동원되었다. 김일성과 박헌영은 이런 대항세력의 존재와 남침시 그들에 의한 대규모 인민봉기 가능성을 내세워 스탈린의 남침 지원을 끌어냈다는 것을 소련 비밀문서들은 보여주고 있다.<sup>4)</sup> 베버(Max Weber)는 “국가를 일정 영토 내부에서 정당한 물리적 폭력 행사의 독점을 실효적으로 요구하는 인간공동체”로 정의하고 있다.<sup>5)</sup> 그 기준에 비추어볼 때 남한 내에서 근대국가 대한민국의 의한 ‘물리적 폭력 행사의 독점’은 6·25전쟁 이후 확보된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6·25전쟁은 남한 내에 존재하던 대항무력 세력을 완전히 제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sup>6)</sup> 그 결과 대한민국은 대내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근대국가로서 본격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건국 직후 근대국가로서 군사력과 국가재정의 측면에서 대한민국의 국가능력기반은 매우 취약했다. 6·25전쟁 이후 군사력이 획기적으로 증강되면서 근대국가로서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6·25전쟁 직전 채 10만명이 되지 않았던 국군은 종전시 55만명으로 증강되었고, 한미 합의에 따라서 20개 사단 65만 5천명으로 증원을 보장받게 되었다.<sup>7)</sup> 이러한 대규모 군사력 증강은 6·25전쟁 이후 미국의 대아시아 전략에 커다란 전략적 변화가 일어나면서 가능했다. 6·25전쟁 직전 미국은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낮게 평가하여 500여명의 군사고문단만을 남긴채 주한미군을 완전히 철수시킨 바 있다. 6·25전쟁 이후 미국의 대아시아전략은 ‘일본중심성’에서 벗어나서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게 된다.<sup>8)</sup> 이런 전략적 전환

4) 이 회담 기록은 Kathryn Weathersby, “Should We Fear This?” Stalin and the Danger of War with America”, CWIHP Working Paper No.39(July 2002), pp.9~11 참조.

5) Max Weber, “Politics as a Vocation”, H. H. Gerth and C. Wright Mills, eds., *From Max Weber: Essays in Sociology*(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58), p.78.

6) 이 점은 노재봉, 「대한민국 건국의 세계사적 의의」, 『대한민국 건국 60년의 재인식』, 기파랑, 2008), p.28 참조.

7) 온창일, 「6·25전쟁과 한국군의 팽창」, 『한국과 6·25전쟁』(유영익, 이채진 편), 연세대출판부, 2002, p.82.

8) 이종원, 「6·25전쟁과 미국의 동아시아 지역통합전략의 변천」, 『한국과 6·25전쟁』(유영익, 이채진 편), 연세대출판부, 2002), p.316.

의 결과 미국은 두개 미군 사단을 한반도에 주둔시키기로 결정함과 동시에 국군의 대폭적 증강을 지원하게 된다.

군사력의 대규모 증강과 함께 이승만대통령의 '벼랑끝 외교'의 결과 체결된 한미동맹은 한국 안보의 버팀목이 되었다.<sup>9)</sup> 이승만은 국제정치질서가 미소 사이의 냉전체제로 재편된 상황 하에서 미국과 군사동맹을 체결하는 것이 신생 공화국 대한민국의 생존을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굳게 믿었다. 이를 위해 이승만은 6·25전쟁 직전 미국에게 군사동맹 체결을 요청했지만 미국은 한국의 군사전략적 가치를 낮게 평가하여 이승만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승만은 휴전협정 체결 거부와 반공포로 석방 등과 같은 '벼랑끝 외교' 전략을 통해서 결국 미국과 동맹 체결에 성공했다. 한미동맹을 통해 한국은 대북한 억지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한미동맹 체결은 한국이 대륙문명권에서 해양문명권으로 편입되었다는 것을 의미했다. 이와 함께 한국은 미국 중심의 개방적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로 편입되어 경제적 번영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국군의 증강은 국내정치에서 군부의 영향력을 키우는 결과를 가져왔다.<sup>10)</sup> 전쟁 직후 한국과 같은 개발도상국가에서 군부는 가장 잘 훈련되고 조직화된 집단이었다. 전시대통령이었던 이승만은 군에 대한 문민통제를 유지하고 군을 장악하는 데 성공했다. 그렇지만 뒤이어 등장한 장면정부는 군부에 대한 계속된 정책의 실패로 인하여 쿠데타의 빌미를 제공하고 말았다. 예를 들어 장면은 4·19 직후 실시된 선거에서 당시 60만명이던 군의 규모를 10만으로 감축하겠다는 안을 발표했지만 그것은 실현불가능한 것이었고 군의 불만을 야기하고 말았던 것이다.<sup>11)</sup> 개발도상국에서 군부 개입의 성공 여부는 문민정부의 효율성 정도와 국민의지지 여부에 달려 있다.<sup>12)</sup> 한국정치사에서 군부가 국내정치에 개입할 수 있는 계기가 6·25전쟁 직후

9) 차상철, 「건국과 보국」, 『대한민국 건국의 재인식』(이인호 외편), 기파랑, 2009, p.481.

10) 김학준, 『한국전쟁: 원인, 과정, 휴전, 영향』(제4수정증보판), 박영사, 2010, p.403.

11) 김영명, 『고쳐쓴 한국현대정치사』, 을유문화사, 1998, p.151.

12) *Ibid.*

단행된 대규모 국군의 증강에 의해 마련되었다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6·25전쟁 중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이 유엔군사령관에게 이양되었다. 유엔군의 일원으로 미국의 참전이 확실시되자 이승만 대통령은 남한 단독으로 북한의 남침을 막아내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고 유엔군사령관 맥아더에게 일체의 지휘권을 이양하기로 결정했다. 1950년 7월 14일 이승만 대통령은 “현 적대행위의 상태가 지속되는 한 대한민국 육해공군의 모든 지휘권을 이양”한다는 서신을 맥아더에게 발송했다. 미국은 ‘모든 지휘권’이라는 용어에 오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작전지휘권’만 이양받는 것으로 이해한다는 답신을 보냈다. 6·25전쟁 중에도 한국은 엄연히 한국군에 대한 인사와 부대편제에 대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었다. 이로써 한국과 미국 및 유엔참전국의 협력 하에 작전의 효율성을 높여 북의 남침을 저지하기 위해 한국군은 미국인 유엔군사령관 맥아더의 단일 작전 지휘 하에 들어가게 되었다. 유엔군사령관이 행사하던 작전통제권은 1978년 한미연합사의 창설과 함께 주한미군사령관을 겸하는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이양되었다. 1994년 12월 평시작전통제권은 한미연합사로부터 한국군으로 이양되었다. 한미 양국이 합의한 바와 같이 2015년 전시작전통제권이 한국으로 이양될 경우 6·25전쟁 초기 이관된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은 완전히 회복될 것이다.

국가재정능력의 측면에서 근대국가로서 대한민국은 6·25전쟁 직전 군사력과 마찬가지로 그 기반능력이 매우 취약했다. 해방 직후부터 1950년대에 걸쳐 한국은 약 27억달러의 해외원조를 받았다.<sup>13)</sup> 이 중 6·25전쟁 휴전 직후 전후 복구를 위해 미국으로부터 들어온 부흥원조가 50%를 넘어서고 있다. 미국 원조와 함께 유엔을 비롯한 여타 국가들로부터의 경제원조는 전쟁의 폐허 위에서 한국이 가난을 극복하고 경제적으로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는 데 커다란 도움이 되었다. 전쟁 이후 미국 중심의 대외원조가 국가세입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국가재정의 과도한 대외원조의존성으로 인하여 한국은 ‘렌티어 국

13) 이대근, 『해방후~1950년대의 경제』, 삼성경제연구소, 2002, p.341.

가'(rentier state)의 성격을 띠게 되었다.<sup>14)</sup> '렌티어 국가'는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한 국가가 국가재정 수입의 전부 혹은 많은 부분을 원유와 같은 자원을 팔아서 벌어들이는 국가를 말한다. 이때 국가수입이 일종의 렌트, 즉 지대와 같은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해서 이를 '렌티어 국가'라고 부르는 것이다. 이런 국가는 국가 수입을 국민들의 세금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 원래 이 개념은 원유와 광물을 팔아서 국가재원을 확보하는 '석유수출기구'(OPEC) 국가들과 아프리카 국가들을 지칭할 때 사용되었다. 중동의 '렌티어 국가'들은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징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들의 요구를 들어줄 필요가 없다. 그 때문에 대부분의 중동국가들의 민주화가 지지부진하고 권위주의체제를 갖고 있다.

이 용어는 6·25전쟁 직후 한국과 같이 외국의 경제원조가 국민들로부터 거둬들이는 세금을 훨씬 능가하는 국가의 성격을 설명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 군사력은 경제력의 뒷받침없이 불가능하다. 나아가 경제력을 넘어서서 군사력을 과대팽창(overextention)시킬 경우 국가 기반 자체가 붕괴될 수도 있다.<sup>15)</sup> 그런데 6·25전쟁 직후 재정적 기반이 취약했던 한국이 그 능력을 훨씬 넘어서는 60만 대군을 창설하고 유지할 수 있었던 것도 미국 원조에 의존하는 '렌티어 국가'였기 때문이었다.

또한 이승만정부는 군사력 증강과 경제 재건을 위해 국민의 세금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에 종종 국회를 무시하고 권위주의적 방식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었다. 이승만이 전쟁 기간 중 군대를 동원하여 국회를 협박하고 헌법을 개정하여 장기집권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던 것도 한국의 렌티어적 국가 성격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렌티어 국가적 성격은 이승만 권위주의 정권의 한계를 설정하고 자유민주주의의 궤

14) 이 점은 Gregg Brazinsky, *Nation Building in South Korea: Koreans, Americans, and the Making of a Democracy*(Chapel Hill: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2007), pp.23~26; 그레그 브레진스키, 「한국민주주의의 가능성」, 『대한민국 건국의 재인식』, pp.656~660 참조.

15) Paul Kennedy, *The Rise and Fall of the Great Powers*(New York: Vintage Books, 1989), p.xvi.

도를 완전히 이탈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기여했다. 이승만정부는 미국의 원조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한국의 렌티어적 국가성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경제 발전과 함께 정치적 민주화의 가능성이 항상 열려 있었던 것이다.<sup>16)</sup>

6·25전쟁이 국내정치에 미친 또 다른 가장 커다란 영향 중 하나는 토크빌(Alexis Tocqueville)이 민주사회의 특징으로 지적한 “제조건의 평등”(equality of conditions)을 초래했다는 점이다.<sup>17)</sup> 토크빌은 제조건의 평등화는 저항할 수 없는 혁명적 현상으로서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고 그것이 만들어낸 잔해물을 헤치고 앞으로 계속 나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sup>18)</sup> 토크빌이 말하는 평등은 법적 평등뿐만 아니라 사회적 평등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헌법 제정과 보통선거권의 확립으로 인하여 법적 평등이 주어졌지만 근대민주사회의 특징인 사회적 평등이 실현된 것은 6·25전쟁 이후의 일이다.

농지개혁은 사회적 평등화를 촉진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해방 직후부터 농지개혁의 정치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던 이승만대통령에 의해 6·25전쟁 직전 농지 70~80%에 대한 분배가 이루어졌다.<sup>19)</sup> 6·25전쟁은 농지개혁을 더욱 촉진시켰고 한국 사회에서 지주제도가 더 이상 재생할 수 없을 정도로 철저하게 단행되었다.<sup>20)</sup> 농지개혁은 한국사회가 산업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로 작용했다. 전후 농지개혁을 철저하게 실시한 한국, 일본, 대만 모두 산업화에 성공하게 된다. 또한 지주제의 폐기와 함께 신분

16) 브레진스키, 『한국민주주의의 가능성』, pp.659~660.

17) 이 점은 Bruce Cumings, *Korea's Place in the Sun*(New York: Norton, 2005), p.302; 박명림, 『한국 1950: 전쟁과 평화』, 나남, 2002, p.34; 송호근, 『한국의 평등주의, 그 마음의 습관』, 삼성경제연구소, 2006, p.107; 장상환, 「한국전쟁과 경제구조의 변화」,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한국전쟁과 사회구조의 변화』, 백산서당, 1999, p. 153; 전상인, 『6·25전쟁과 한국의 사회변동, 그리고 사회적 유산』 『6·25전쟁의 재인식』(강규형 외편), 기파랑, 2010, pp.434~435 참조.

18) Alexis Tocqueville, *Democracy in America*, vol. I, trans. by Arthur Goldhammer (New York: Liberty of America, 2004), pp.6~7.

19) 김일영, 『건국과 부국』, 생각의 나무, 2004, p.118.

20) 장상환, 위의 논문, pp.146~152.

없는 평등사회가 도래하면서 6·25전쟁 이후 한국사회는 토크빌이 말하는 민주사회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에서 모든 인간들이 생사의 갈림길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다는 인식은 한국인의 평등의식을 더욱 강화시켰다. 나아가 전쟁 기간 중 일어난 인구이동과 급격한 사회적 유동성의 증가는 불평등한 신분사회가 갖고 있던 유대감을 철저하게 파괴시켰다. 이 과정에서 인간들은 모래알처럼 흩어져 원자화되고 만다. 6·25전쟁 이후 국가는 전통사회에서 볼 수 있는 소규모 집단사회를 통하지 않고 곧 바로 국민과 직접 연결고리를 마련하고 국민을 동원할 수 있게 된다. 시민사회가 형성되고 시민의 정치경제적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계약적 방식을 통해서 근대국가 성립되는 서구의 과정과 달리 한국의 시민사회는 6·25전쟁의 영향으로 여전히 미성숙한 상태에 머물게 된다. 시민사회에 대한 국가의 우위성 확보는 위로부터의 동원체제를 통한 단기간 내에 압축적 산업화를 가능하게 하였다. 산업화 이후 한국 사회는 민주화를 달성했지만 여전히 성숙한 시민사회에 의해 뒷받침되지 못함으로써 정당체제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는 등 정치적 불안정이 계속되고 있다.

6·25전쟁의 영향으로 강화된 한국인의 평등관은 평등주의적 열정과 질투심으로 항상 타락할 소지를 안고 있다.<sup>21)</sup> 민주사회는 평등에 대한 집단적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불평등을 망각하게 만든다. 이런 양상은 한국 사회가 하향평준화의 길로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었을 뿐만 아니라 개인의 자유와 창의성을 진작시킬 수 있는 제도를 정착시키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한국과 같은 평등의식이 매우 강한 민주사회에서 평등에 관한 존중없이 개인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한국정치의 과제는 평등 의식을 존중한 바탕 위에서 어떻게 자유민주주의의 요체인 개인의 자유를 유지하고 진작시켜 나갈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토크빌이 지적하는 것처럼 한국인의 평등의식이 '노예

21) 이 점은 Jean-Claude Lamberti, *Tocqueville and the Two Democracies*, trans. by Arthur Goldhammer(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89), p.48 참조.

상태 하의 평등'을 선호하지 않고 자유와 평등이 동시에 존중되고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정치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한국 정치의 중요한 과제이다.

6·25전쟁의 결과 한국인의 반공의식이 매우 강화되었다.<sup>22)</sup> 그 영향은 다양한 방향으로 나타났다. 우선 북한의 기습남침에 의해 전쟁의 피해자가 된 사람들은 강력한 반공주의자가 되지 않을 수 없었다. 북한으로부터 남하한 피난민들과 석방된 반공포로들 때문에 한국사회의 반공의식은 더욱 강화되었다. 다음으로 반공의식의 강화는 한국정치에서 중도세력이 존재할 수 있는 기반을 빼앗고 말았다.<sup>23)</sup> 건국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던 중도세력은 6·25전쟁 직전 실시된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하여 국회에 진출하는 데 성공했다.<sup>24)</sup> 그러나 북한의 남침으로 인하여 남북협상을 주도한 중도세력은 국민의 신뢰를 완전히 상실하게 된다. 그 결과 한국정치는 1987년 민주화 이전까지 우익보수세력을 제외한 여타 정치세력은 그 존재 기반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었다.

한국의 보수주의는 서구의 보수주의와 마찬가지로 특정의 제도와 관행의 존재를 위협할 정도의 도전과 공격에 대한 대응으로서 생겨났다. 그러한 역사적 경험 때문에 보수주의는 그 자체의 독특한 내재적 성격을 선형적으로 갖고 있다기보다는 도전과 공격의 성격에 따라서 보수주의적 대응 양식이 달라질 것이고 보수주의의 내용도 결정될 것이다. 보수주의가 직면하는 위기는 시공의 차원에 따라서 독특하기 때문에 보수주의가 발생하는 시대적, 국가적 상황에 따라서 보수주의의 성격은 매우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사회주의 혹은 공산주의와 달리 초국가적 보수주의는 성립될 수 없는 용어일 뿐만 아니라 보수주의의 일반화는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도전과 공격에 대한 응전과 방어로써의 보수주의는 '상황적'일

22) 이 점은 김학준, 『한국전쟁』, pp.399~400; 김일영, 『건국과 부국』, p.173; 김충남, 「한국 국가건설의 도전과 이승만의 응전」, 『대한민국 건국의 재인식』, p.451 등을 참조.

23) 전상인, 「한국전쟁과 정계구도의 변화」, 『한국전쟁과 한국사회변동』(한국사회학회 편), 풀빛, 1992), p.291.

24) 김학준, 『한국전쟁』, p.399.

뿐만 아니라 상대 이념과의 차별화 속에서 자신을 정의한다는 점에서 '위상적'(位相的)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sup>25)</sup>

보수주의의 원조라고 불리는 버크(Edmund Burke)의 사상은 프랑스 혁명의 급진성에 대한 반발로서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한국의 보수주의는 그 형성 과정에서 위상적 성격을 강하게 갖고 있다. 한국의 보수주의는 신생 공화국 대한민국은 적화시키려는 북한의 도발에 의한 일어난 6·25전쟁에 의해 지대한 영향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보수주의는 서구 보수주의에서 보는 것처럼 분명한 철학적, 종교적 기반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반공주의에 기초한 정치이데올로기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sup>26)</sup> 이런 반공주의적 경향은 6·25전쟁의 경험 때문에 더욱 강화되었고 1987년을 기점으로 보수와 진보의 양분화 현상이 뚜렷이 나타나고 노태우정부의 북방정책과 대북한 화해정책이 본격화될 때까지 계속되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한국정치는 보수와 진보 세력 사이의 수평적 정권 교체가 이루어짐으로써 한국 보수주의는 무엇을 지키려고 하는지와 관련하여 자신의 정체성과 사상을 더욱 분명하게 정립해야 할 필요성을 요청받고 있다.<sup>27)</sup>

반공의식의 강화와 함께 6·25전쟁은 남북대화와 남북관계의 진전에 매우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북한은 전쟁 도발 직전에 남한에 대해서 일련의 평화공세를 전개했다. 전쟁 발발 1주일전 북한은 민족주의 지도자 조만식 선생과 남포당 지도자 김삼룡과 이주화를 교환할 것을 제의하고 평화통일 방안을 제의한 것이 대표적인 예들이다. 북한은 비밀리에 전쟁 준비를 다 마친 상태 하에서 남침 사실을 감추기 위해 위장평화전술을 채택했던 것이다.

25) 이 점에 관해서는 Samuel Huntington, "Conservatism as an Ideology",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51(1957), p.455; 강정인, 『서구중심주의를 넘어서』, 아카넷, 2004, pp.305~306.

26) 김용민, 「서구 보수주의의 기원과 발전」, 『한국의 보수주의』(김병국 외저), 인간사랑, 1999, p.47.

27) 이 점은 Jerry Z. Muller, "Introduction", *Conservatism: an Anthology of Social and Political Thought from David Hume to the Present*(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7), p.3 참조.

이런 전술은 이미 김일성과 박헌영이 스탈린과의 비밀회담에서 논의된 것이었다.<sup>28)</sup> 이 두 사람은 남침할 경우 남북한 주민 모두 전쟁 책임을 자신들에게 돌릴 것을 우려하려 스탈린의 지시에 따라서 전쟁 직전 위장 평화 공세를 취하고 남한이 먼저 전쟁을 도발한 것처럼 꾸몄다. 당시 북한의 신문들뿐만 아니라 북한의 공식기록인 『조선통사』도 북침에 대한 반격으로 전쟁이 시작되었다고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sup>29)</sup> 냉전의 종식과 함께 소련의 문서가 공개되면서 이런 선전공세는 전면기습남침을 숨기고 남북한 국민을 속이기 위한 조치였음이 분명하게 되었다. 이런 사실은 전쟁 이후 북한의 남한에 대한 일련의 대화 제의를 의심하게 만들었고 그 결과 남북관계의 진전을 급속하게 이루어질 수 없었다. 1970년대초 미중관계 개선으로 주변 국제정세가 급격하게 돌아가자 남북한은 7·4남북공동성명에 합의하지만 불과 1년뒤 남북관계는 또다시 경색되고 말았다. 전쟁 직전 북한의 일련의 위장평화공세는 그 이후 북한 제의에 대한 신뢰도에 심각한 의문을 갖게 만들었다.

6·25전쟁이 끼친 사회적 영향 중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국민의 높은 교육열을 자극했다는 점이다.<sup>30)</sup> 전쟁 중 대학생들에게 병역 연기 또는 면제의 혜택을 줌으로써 교육에 대한 열망을 자극했다. 또한 집이나 재물이 허망하게 파괴되는 전쟁이라는 극단적 상황에 직면하여 사람들은 어떤 물질적 재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교육을 시켜주는 것이 오히려 낫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 전쟁의 영향과 함께 이승만정부의 6년제 의무교육의 실시는 1950년대 그 어떤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한국 특유의 ‘교육의 기적’을 이룩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이런 교육을 통해서 문맹이 퇴치되고 국

28) 이 회담 기록은 Kathryn Weathersby, “Should We Fear This?’ Stalin and the Danger of War with America”, CWIHP Working Paper No. 39(July 2002), pp.9~11 참조.

29) 북한 언론 보도에 대한 분석으로는 한국언론연구원, 『한국전쟁의 동서보도 비교』, 한국언론연구원, 1990, pp.12~13 참조.

30) 김경동, 「오늘의 시점에서 본 6·25의 사회적 흔적」, 『현대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동아일보사 편), 동아일보사, 1988, p.450; 정성호, 「한국전쟁과 인구사회학적 변화」,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한국전쟁과 사회구조의 변화』, pp.47~48.

민통합이 이루어지고 국민 의식이 향상됨으로써 점진적으로 한국에서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는 정치문화적 기반이 마련될 수 있었다.

교육 기회의 확대와 함께 전쟁 기간 중 본격적으로 실시된 국민개병제도(國民皆兵制度)는 국민형성과 통합에 크게 기여했다.<sup>31)</sup> 3·1운동을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근대적 의미의 민족주의가 등장하면서 근대국가의 기반이 되는 국민적 정체성이 형성되기 시작했다.<sup>32)</sup>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일제에 대항해서 독립을 쟁취해야 한다는 '저항적 정체성'에 머물러 있었다. 대한민국 건국 이후 한국인의 정체성은 여전히 '조선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강하게 갖고 있었음을 부정할 수 없다.<sup>33)</sup> 이러한 정체성의 모호성은 6·25전쟁을 계기로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6·25전쟁 이후 남한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확고한 국민적 정체성을 형성하게 된다.

6·25전쟁이 미친 정치적 영향과 함께 가장 중요한 경제적 영향의 하나는 재벌의 형성과 관련된 것이다. 오늘날 한국 경제를 주도하고 있는 재벌의 등장 여건은 6·25전쟁에 의해 마련되었다. 6·25전쟁으로 인하여 산업 시설은 대부분 파괴되었다. 전쟁의 피해는 비극적이었지만 한국 사회 재건 과정에서 기업들이 자본을 축적하고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 6·25전쟁을 전후하여 이루어진 귀속기업체 불하, 미국 중심의 원조 물자와 재정 지원, 한국 정부의 재정 융자와 은행 대부 등을 배경으로 하여 재벌이 등장하기 시작했다.<sup>34)</sup> 특히 전쟁 발발 이후 심각한 인플레이션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시장에서 새롭게 창출된 시장 수요에 부응하여 급격하게 성장해 나갔다. 전후 복구 정책의 일환으로 정부는 방직공업 등 시설 복구에 많은 지원을 했고, '3백산업'(三白産業: 면방, 제당, 제분)을 중심으로 급증한 소비재 수요는 기업들이 급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sup>35)</sup> 6·25

31) 강인철, 「한국전쟁과 사회의식 및 문화의 변화」, 『한국전쟁과 사회구조의 변화』, pp.204~205.

32) 노재봉, 「한국민족주의와 자유주의」, 『사상과 실천』, 녹두출판사, 1984, p.349.

33) 김일영, 『건국과 부국』, pp.170~171.

34) 류상영, 「6·25전쟁과 재벌형성의 역사적 기원」, 『한국과 6·25전쟁』(유영익·이재진 편), 연세대출판부, 2002, p.173.

35) 류상영, *ibid.*, p.150.

전쟁 직후 1950년대 중반에 접어들면서 삼성그룹과 같은 재벌 그룹들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6·25전쟁이 끼친 국내정치적 영향을 논의할 때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이 전쟁이 북한에 끼친 영향이다. 6·25전쟁 이후 김일성은 북한 내부에서 권력 기반을 더욱 공고히 다질 수 있었다. 물론 그것은 정상적 방법이 아니라 정적에 대한 대대적 숙청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전쟁 직전 북한에는 박헌영을 중심으로 한 토착 공산주의세력, 중국에서 돌아온 연안파, 소련 한인으로 구성된 갑산파 등이 권력연합을 형성하고 있었다. 원래 소련은 북한 최고 지도자 선택 과정에서 김일성과 박헌영을 놓고 심각하게 저울질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sup>36)</sup> 스탈린에 의해 김일성이 낙점을 받았지만 김일성과 박헌영의 경쟁관계는 계속되었다. 그러나 그들은 남침을 해야 한다는 데에는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었다. 전쟁 직전 스탈린과의 비밀회담에서 그들은 북한이 남침할 경우 남한에서는 이승만정부에 반대하는 대규모 봉기가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스탈린을 설득했다.<sup>37)</sup> 그들은 북한 남침시 남한 내부에 있는 20만 남로당원들이 폭동을 일으켜 전쟁은 빨리 끝날 것이라고 스탈린을 설득했다. 그러나 그들의 주장과 달리 6·25전쟁 발발 직전에 남한 내의 게릴라 세력은 거의 소멸되어 가고 있었다. 북한이 남침을 했을 때 남한 내에서 그들이 기대했던 폭동은 일어나지 않았다. 전쟁 책임은 김일성과 박헌영 모두에게 공동으로 있었지만 김일성은 박헌영과 남로당 세력을 미제국주의 간첩이라는 혐의를 덮어씌워 모두 숙청시켜 자신의 권력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게 된다. 그 이후 북한은 김일성 중심의 유일사상체제를 구축하고 부자세습이라는 공산주의사에서 전례없는 시대착오적 노선을 추구하게 된다.

36) 이지수, 「제2차 세계대전과 소련의 한반도 정책」, 『대한민국 건국의 재인식』(이인호 외 편), 기과당, 2009, pp.76~77.

37) Weathersby, "Should We Fear This? Stalin and the Danger of War with America", CWIHP Working Paper No. 39(July 2002), pp.9~11.

### 3. 6·25전쟁의 국제정치적 영향

6·25전쟁은 한반도와 동북아라는 지역적 범위를 넘어 유럽 냉전 질서의 군사화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sup>38)</sup> 1949년 결정되어 명목상으로 존재하던 나토(NATO)는 6·25전쟁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공산세력의 군사적 위협에 대처하여 무장화의 길로 나아가게 된다. 나토 가입국 병력은 약 300만명으로 증가했다. 미국은 6개 사단을 유럽에 주둔시키게 된다. 그리스와 터키의 나토 가입으로 회원국 숫자가 늘어났다. 6·25전쟁 이후 미국은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서독의 재무장화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런 조치들은 제2차 세계대전 직전 영국과 프랑스가 히틀러의 팽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함으로써 유럽 전역이 전화에 휩싸이고 말았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취해졌다. 6·25전쟁 이후 미국은 유럽 방어를 위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나토의 군사력 증강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것이다.

미소 대결이라는 양극적 질서 하에서 일어난 6·25전쟁은 국제정치에서 위신과 신뢰도와 같은 '소프트 파워'(soft power)의 중요성을 미국에게 일깨워 주었다. 미국의 도움으로 탄생한 대한민국이 소련의 지원을 받은 북한에 의해 적화된다고 하는 것은 미국의 위신에 심대한 타격을 가져올 수 있었다. 한국이 적화된다면 자유진영 국가들은 공산주의와 대결하려는 미국의 결의에 대해 의심을 품게 될 것이고 미국의 신뢰도는 크게 떨어질 것이었다. 미국의 신뢰도 약화는 미국의 동맹 전략에도 심각한 문제점을 야기시킬 수 있었다. 동맹에는 일반적으로 헤게모니를 추구하는 국가에 대항하는 '세력균형 방식의 동맹'과 그 반대로 위협적인 국가에 동조하는 '편승(bandwagon) 방식의 동맹'이 있다.<sup>39)</sup> 미국이 북한의 남침으로 야기된 공산세력의 위협에 군사적으로 적극 대응하지 않을 경우 미국 동맹권 이탈과 소련 편승 경향이 강하게 나타날 수 있었다. 이런 부정적 현상을 막기 위

38) Stueck, *The Korean War*, pp.4~5.

39) Stephan M. Walt, *The Origins of Alliances*(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87), pp.17~21.

해 미국은 유럽에서는 나토 강화 정책을 추진하고 아시아 지역에서는 역내 국가들과 일련의 쌍무 조약을 체결하게 된다.

6·25전쟁은 동북아 지역 냉전 질서 형성과 고착화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유럽에서는 1947년 미국이 유럽경제부흥계획인인 '마셜플랜'을 추진하고자 했을 때 소련이 코민포름을 결정하고 동구권을 소비에트화하면서 냉전이 본격화되었다.<sup>40)</sup> 이와 달리 동북아 지역은 1949년 중국 공산혁명의 성공으로 지역적 세력균형이 급격하게 공산세력에게 유리하게 기울고 있었다. 중국이 대소일변도 정책을 선언한 후 스탈린이 장개석과의 동맹조약을 폐기처분하고 모택동과 새로운 중소군사동맹조약을 체결하면서 동북아 지역 냉전 질서는 구체화되기 시작했다.<sup>41)</sup> 스탈린은 중소동맹조약 체결과 동시에 김일성의 남침 요청을 받아들임으로써 6·25전쟁이 발발하게 된다. 동북아 지역 냉전 질서는 냉전 초기 6·25전쟁이라는 열전을 겪으면서 고착화되었다.

6·25전쟁에서 미국과 중국이 직접 전쟁을 하기 이전까지 미국은 유럽의 티도와 같이 모택동의 민족주의적 성향을 이용하여 소련과 중국의 관계를 이간질시키려는 '썰기전략'을 추구했다.<sup>42)</sup> 1949년 12월 모택동이 모스크바를 방문하여 소련과 새로운 군사동맹조약 체결을 논의하고 있었을 때 애치슨(Dean Acheson) 국무장관은 유명한 내셔널프레스클럽 연설에서 소련이 중국의 만주와 신장 지역을 식민지화하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중

40) 이 점은 Scott D. Parrish and Mikhail M. Narinsky, "New Evidence on the Soviet Rejection of the Marshall Plan, 1974: Two Report", Working Paper No. 9, Woodrow Wilson Center, Washington, D.C., pp.1~51 참조.

41) 개디스는 세력균형과 같은 구체적 정책적 이슈를 둘러싸고 미소 사이의 의견 대립으로 냉전이 시작된 유럽과 달리 동북아지역은 두 초강대국의 부주의와 실수로 인하여 냉전이 시작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불분명한 점은 중국 공산혁명 성공 이후 스탈린이 동북아지역의 급격하게 변화된 세력균형을 고려하여 김일성의 남침을 지원하기로 결정하면서 이 지역의 냉전은 구체화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이런 사실은 개디스가 주장하는 것처럼 동북아 냉전이 단순히 부주의와 실수에 의해 발생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볼 수 있다. 개디스의 주장은 John Lewis Gaddis, *We Now Know*(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7), p.82 참조.

42) Sergei N. Goncharov, John W. Lewis, and Xue Litai, *Uncertain Partners*(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3), p.99.

국이 6·25전쟁에 개입한 이후에도 미국은 중국을 '슬라브 만주국의 확대판'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sup>43)</sup> 그러나 중국의 6·25전쟁 개입은 미국이 추구한 '빼기전략'이 희망적 사고에 그치고 말았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이것은 중국의 대소일변도정책이 6·25전쟁 이후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 결과 미국과 소련 블록 중심의 양극적 질서로 재편된 전후 국제정치질서는 당분간 지속될 것임을 의미했다. 6·25전쟁 이후 고착된 양극적 질서가 해빙기를 맞아 다극적 질서로 재편되는 계기를 맞게 되는 것은 1960년대말 키신저(Henry Kissinger)에 의해 주도된 '삼각외교'(triangular diplomacy)를 통해 미중관계 개선이 극적으로 이루어지면서부터였다.<sup>44)</sup>

6·25전쟁 이후 미국은 적국이었던 일본을 미국의 동맹국으로 편입시키기로 결정하게 된다. 대소련 봉쇄정책을 입안한 미국의 전략가 조지 케넌(George F. Kennan)은 미국이 아시아에서 일본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여 일본을 완전히 패배시킨다고 하더라도 아시아가 안고 있는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본의 패배는 오히려 아시아에서 소련의 영향력의 증가를 가져와서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 수립을 더욱 더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경고했다.<sup>45)</sup> 중국의 공산화와 6·25전쟁은 이런 경고가 더욱 현실화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동북아시아에서 대소봉쇄정책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일본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민주화된 일본을 미국의 확고한 동맹국으로 만드는 것이 긴요하게 되었다.

6·25전쟁 기간 중 1951년 미국은 소련을 배제하고 샌프란시스코 회담에서 일본과 평화조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미일군사동맹조약을 체결하게 된다.<sup>46)</sup> 이 조약은 동북아 지역에서 미국이 추구한 '이중의 봉쇄정책'(dual

43) Thomas J. Schoenbaum, *Waging Peace and War*(New York: Simon & Schuster, 1988), pp.222~223.

44) Henry Kissinger, *Diplomacy*(New York: Simon & Schuster, 1994), p.723.

45) George F. Kennan, *American Diplomacy*(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51), pp.51~52.

46) Kimie Hara, "Rethinking the 'Cold War' in the Asia-Pacific", *The Pacific Review*, Vol.12, No.4(1999), pp.517~520; Michael Schaller, *The Origins of the Cold War in Asia* (New York: Oxford, 1985), pp.293~294.

containment policy)의 근간을 이루었다. 소련의 팽창을 억제하면서 동시에 일본의 군사력 증강을 경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미국은 오키나와를 중심으로 대규모 미군을 주둔시켜 건국 이후 최초로 동북아 지역에 군대를 주둔시키는 결단을 내리게 된다. 같은 해 미국은 필리핀과도 상호방위조약을 맺는다. 또한 미국은 1953년 한국, 1954년 대만과 군사방위조약을 각각 체결하게 된다. 1954년 미국은 동남아조약기구(SEATO)를 결성하여 동남아 지역 집단안보체제를 구축하게 된다. 전쟁 직전 체결된 중소군사동맹조약과 함께 미국이 동북아 지역 국가들과 체결한 일련의 동맹조약은 유럽과 마찬가지로 동북아 지역에서도 미국과 소련 중심의 양극적 냉전구조가 고착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했다.

6·25전쟁 이후 체결된 일련의 동맹 조약은 유럽과 달리 동북아 지역 안보는 다자주의적 동맹이 아니라 쌍무적 동맹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유럽의 경우 미국의 봉쇄선을 중심으로 자유세력과 공산세력의 구분이 분명하게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에 다자주의적 안보체제가 구축될 수 있었다. 공산세력은 나토에 대항하여 바르샤바조약기구를 창설했다. 이와 달리 동북아 지역은 일본 제국주의적 유산이 완전히 청산되지 않은 가운데 6·25전쟁이 발발하면서 공산세력 팽창의 위협이 현실화되면서 일본을 포함하는 다자주의적 동맹체제 구축은 매우 어렵게 되었다. 6·25전쟁 직후 형성된 이러한 쌍무주의적 안보동맹체제는 동북아 지역에서 탈냉전 이후에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6·25전쟁 이후 미국이 한국과 대만과 체결한 군사방위조약은 ‘애치슨 라인’이 철회되었다는 것을 의미했다. 6·25전쟁 직전 미국무장관 애치슨은 한국과 대만을 미국의 도서방위선에서 제외시키는 유명한 연설을 했다. 이 연설은 전후 제한된 미국 국방비와 군사력의 한계를 고려하여 중국 내전에 미국이 더 이상 개입하지 않겠다는 점과 소련과의 전면전 발생시 군사전략적 가치가 낮은 한국을 방어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대외적으로 천명할 것이었다. 그러나 미국은 6·25전쟁이 발발한 직후 바로 미제7함대를 대만 해협으로 보내서 대만 방위에 즉각적으로 나섰다. 이것은 중국 공산화 이

후 중국 내전에 더 이상 개입하지 않겠다고 하는 미국의 기존 정책에 커다란 변화가 왔다는 것을 의미했다. 나아가 조약 비준권을 갖고 있는 미국 상원 내부의 친중국 세력은 일본이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고 외교 관계를 맺지 않을 경우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을 거부할 것이라고 위협했다.<sup>47)</sup> 그 결과 1952년 일본은 대만과 국교를 정상화하게 된다. 6·25전쟁 이후 이런 일련의 미국 정책의 변화로 인하여 미국과 중국의 관계 정상화는 매우 어렵게 된다.

‘에치슨 라인’의 철회와 함께 6·25전쟁 이후 미국은 공산세력의 팽창이 현실화되면서 국민적 여론을 업고 대규모 군비 증강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후 미국은 1947년 국방비를 130억불로 상한선을 그어두고 있었고, 1950년의 경우 150억불을 넘지 못하도록 했다.<sup>48)</sup> 그러나 소련의 핵 실험 성공과 함께 미국 내에서는 국방비를 대폭적으로 증액시켜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되었다. 그것은 유명한 미국 국가안보회의 문서 NSC-68에 의해 구체화되었다. 이 문서는 미국 국방비를 500억불로 세배 이상 증액할 것을 요구했다. 일부 수정주의자들에 의해서 미국이 이런 국방비 증액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에치슨 라인’을 설정하여 남한을 미국방어선에서 배제하여 의도적으로 북한의 남침을 유도했다는 음모론이 제기된 바 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사실과 배치된다. 미국은 북한의 남침 이후 NSC-68을 승인하게 된다. 또한 중국의 개입 이후 전쟁 소요를 충당시키기 위해서 비상경제체제에 돌입하게 된다. 6·25전쟁의 결과 미국은 국방비의 대폭적 증액과 함께 본격적인 안보국가(national security state)로 등장하게 된다.

6·25전쟁은 미국과 소련이 약소국의 분쟁에 군사적으로 개입할 경우 또 다른 세계대전이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국제정치질서가 냉전과 같이 양극적 구조로 재편되어 있을 때에는 초강대국이 자신의 영향권 내에 있는 국가가 침략을 받았을 경우 개입하지 않고

47) Schaller, *ibid.*, p.294.

48) Kenneth W. Condit, *The History of the Joint Chiefs of Staff, 1947~1950*, Vol. II (Wilmington, DE: M. Glazier, 1979), pp.213~214.

다른 국가에게 책임전가(buck-passing)하는 것이 어렵다.<sup>49)</sup> 나아가 양극적 질서 하에서는 각자의 영향권 내에 있는 약소국의 손실의 결과로 초강대국의 영향력과 위신에 부정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초강대국들은 주변부의 분쟁에 과잉반응(overreaction)할 가능성을 안고 있다.<sup>50)</sup> 그러나 초강대국들이 주변부의 문제로 과도하게 힘을 허비하게 될 경우 중심부의 세력균형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개입하더라도 자체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 여부가 위기 상황에서 정책결정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 중 하나이다. 6·25전쟁은 두 초강대국 사이의 전면전으로 비화될 수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까지 갔었지만 미국이 전쟁 개입 초기부터 제한전을 염두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또 다른 세계대전으로 비화되지 않았다.<sup>51)</sup> 전쟁 기간 중 소련 역시 공군력을 만주 지역에 투입했지만 유엔군 전선 후방 지역으로 소련 공군을 투입하지 않는 자체력을 발휘함으로써 6·25전쟁은 제한전으로 끝날 수 있었다.<sup>52)</sup>

6·25전쟁은 냉전체제를 가장 잘 이론화시켰다는 구조주의적 현실주의(structural realism) 혹은 신현실주의(neorealism)의 이론적 한계점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신현실주의는 미국과 소련과 같은 두 초강대국에게 냉전체제 유지 역할을 부여하고 있다.<sup>53)</sup> 우선 국제정치체제 유지 기능을 구조가 아니라 국가들에게 부여함으로써 구조주의 이론으로서 신현실주의가 갖고 있는 이론적 한계점이 지적되어야 하겠다.<sup>54)</sup> 나아가 소련은 북한과 중

49) Kenneth N. Waltz,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New York: McGraw-Hill, 1979), pp.170~171; Thomas Christensen and Jack Snyder, "Chain gangs and passed bucks: predicting alliance patterns in multipolarity",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44, No. 2(Spring 1990), pp.140~144.

50) Waltz, *ibid.*, p.172.

51) Memorandum by Philip Jessup, June 25, 1950,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이하 *FRUS*로 약칭), Vol. VII(Washington, D.C.: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76), p.160.

52) Jon Holliday, "Air Operations in Korea: The Soviet Side of the Story", William J. Williams, ed., *A Revolutionary War*(Chicago: Imprint Publications, 1993), p.150.

53) Waltz, *ibid.*, pp.204~209.

54) Kenneth W. Thompson, *Schools of Thought in International Relations*(Baton Rouge: Louisiana State University Press, 1986), p.143.

국과 사전에 긴밀하게 협의하여 6·25전쟁을 일으킴으로써 오히려 냉전 체제 유지가 아니라 타파 혹은 변화를 꾀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6·25전쟁은 구조를 내세우는 신현실주의가 논리적, 경험적 측면에서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6·25전쟁은 미국이 개입한 대외전쟁 중 최초의 제한전이였다. 이 경험은 6·25전쟁 이후 미국의 대외정책과 전쟁관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제2차 세계대전 중 미국은 포츠담선언에서 '무조건항복'을 일본에게 제시했다. 이런 전통을 이어받아 6·25전쟁 중 맥아더는 "승리 이외에는 대안이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만주로의 확전과 공산세력에 대한 완전한 승리를 주장했다. 이런 맥아더의 주장은 한반도에서 제한전을 추구한 트루먼의 정책에 반하는 것이었고 미국 헌법이 보장한 '문민우위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었다.<sup>55)</sup> 맥아더 해임 이후 미국은 서울을 재탈환하고 '무조건항복'이 아니라 휴전협상을 통해서 제한전으로 전쟁을 끝내게 된다. 6·25전쟁 이전 미국 외교는 이상주의적 노선 하에서 완전한 승리추구와 그 이후 고립주의로의 회귀라는 커다란 진폭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6·25전쟁 이후 미국 외교는 제한전도 수용할 수 있는 현실주의적 노선으로 전환되고 소련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평시에도 군사동맹을 체결하는 국제주의적 노선을 채택함으로써 냉전의 평화적 종식에 기여하게 된다.

6·25전쟁은 유엔이 국제분쟁에 군사력을 동원하여 참전하게 되는 최초의 사례가 되었다. 대한민국은 유엔 감시 하의 자유선거와 유엔총회의 승인을 거쳐 탄생한 국가였기 때문에 미국이 유엔 결의를 통해서 6·25전쟁 참전 결정을 내린 것은 당연한 논리적 결과였다고 봐야 할 것이다. 유엔을 통한 미국의 6·25전쟁 참전은 미국 국내정치적으로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유엔결의안을 통한 미국의 참전은 전쟁선포권을 갖고 있는 의회의 승인을 회피하기 위한 방편이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sup>56)</sup> 유엔결의안이

55) John W. Spanier, *The Truman-MacArthur Controversy and the Korean War*(New York: Norton, 1965), p.13.

56) Louis Fisher, "The Korean War: On What Basis Did Truman Act?"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89, No. 1 (January 1995), pp.32~33.

통과되기 이전부터 의회의 승인없이 미군을 투입시켰고 6·25전쟁 개입을 기정사실화하고 유엔 결의안을 통해 사후적으로 개입 명분을 확보하려고 했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비판은 중공군 개입 이후 유엔군에게 전세가 불리하게 전개되고 휴전협상이 지연되면서 유엔군 사상자가 늘어나자 미국 내에서는 6·25전쟁이 '트루먼의 전쟁'이라는 비판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흔히 인용되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중국의 개입과 함께 전쟁 상황이 악화되자 트루먼 행정부는 비난하기 위한 사후적 해석의 측면이 짙다고 할 수 있다. 유엔을 통한 미국의 참전 결정은 미국 의회 내에서도 적극적인 지지를 받았다.<sup>57)</sup> 예를 들어 상원 외교분과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코널리(Tom Connally) 의원은 도둑이 집을 침범할 경우 경찰서에 가서 허가를 받지 않고서도 도둑을 총으로 쏠 수 있음을 지적하고 한국 문제가 의회로 넘어올 경우 장기간에 걸친 논란으로 인해 미국의 대응이 늦어질 수 있음을 우려했다. 그리고 그는 트루먼에게 미국은 유엔헌장의 정신에 따라서 유엔 결의에 따라 6·25전쟁에 개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러한 사실은 트루먼이 6·25전쟁 결정 과정에서 의회를 완전히 무시했다거나 군사력 투입 후 기정사실화된 것을 의회에 사후적으로 통보했을 뿐이라는 주장과 배치된다. 맥아더는 전쟁 발발 10일 가장 중요한 기간이었다고 회고하고 있다. 만약 소련과 북한의 전쟁 계획대로 북한군이 서울에 3일간 지체하지 않고 더 빨리 남쪽으로 진격했다면 미국이 참전했다라도 그 성공 여부는 매우 불투명했을 것이라고 맥아더는 회고하고 있다. 한국 참전 여부를 둘러싸고 미국 의회 내에서 논란이 일고 참전 결정이 지연되었다면 전쟁 상황은 예측하기 매우 어려웠을 것이다. 지금까지 미국 참전을 둘러싸고 계속되고 있는 미국 국내정치적 논란에도 불구하고 유엔을 통한 신속한 트루먼 대통령의 참전 결정은 한국의 적화를 막는 데 결정적이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유엔이 유엔군의 깃발 하에 최초로 6·25전쟁에 개입함으로써 국제기구

57) Tom Connally, *My Name is Tom Connally*(New York: Crowell, 1954), p.346.

로서 유엔 체제에 6·25전쟁은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유엔은 국제기구를 통한 세계평화 유지라는 이상적 목표를 추구하면서도 상임이사국을 구성하는 강대국에게 거부권을 주는 현실주의적 입장을 유엔체제에 반영했다. 그러나 유엔의 입안자들은 미소 냉전이 상임이사국 기능의 마비를 가져와서 유엔의 순조로운 작동을 방해하리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유엔이 6·25전쟁에 개입한 이후 미국과 소련 사이의 의견 대립으로 인하여 안보리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된다.

안보리에서 계속된 소련의 거부권 행사에 직면하여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세계는 “평화를 위한 단결” 결의안(the Uniting for Peace Resolution)을 채택하게 된다.<sup>58)</sup> 이 결의안은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를 위한 일차적 책임이 안보리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안보리가 상임이사국들의 의견불일치로 인하여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와 침략 행위가 발생했을 때 일차적 책임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 유엔총회가 그 문제를 즉시 토론하여 집단적 조치에 관해 유엔회원국들에게 적절한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결의안은 미국이 중심이 되어 통과시켰다. 이로써 안보리를 대신하여 총회가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 기능을 떠맡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6·25전쟁 기간 중 유엔군은 소련의 거부권 행사로 인하여 전쟁 수행의 걸림돌을 제거할 수 있었다. 또한 이 결의안 1950년 11월 본격화된 중국의 6·25전쟁 개입 이후 이 문제에 유엔이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데 기여했다. 그렇지만 6·25전쟁 기간 중 채택된 이 결의안은 유엔 현장 전체의 구조적 변화뿐만 아니라 유엔의 작동 방식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1960년대초 독립한 신생국들의 발언권이 유엔 총회에서 강화되어 두 초강대국의 국익에 반대되는 결의안들이 채택되었을 때 제3세계의 발언권이 강화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58) 결의안 내용은 Resolution 376 (V), October 7, 1950, *FRUS*, 1950, Vol. VII, pp.904~906 참조.

## 4. 결 론

6·25전쟁은 남북한 사이의 군사적 균형이 깨질 때 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1949년초부터 김일성은 스탈린에게 남침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스탈린은 북한이 남한에 대해서 압도적 군사적 우위를 확보하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남침에 동의하지 않았다. 중국공산혁명의 성공과 함께 스탈린은 동북아지역에서 국제정세가 공산세력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다고 보았다.<sup>59)</sup> 그렇지만 스탈린은 북한이 남한에 대해서 군사적 우위를 확보하는 것이 남침 준비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보았다. 스탈린은 유고 공산당 지도자 질라스(Milovan Djilas)가 교황의 영향력을 높이 평가했을 때 “교황이 도대체 몇 개 군 사단 병력을 갖고 있는나?”고 물을 정도였다.<sup>60)</sup> 스탈린은 전쟁 직전 최신 T-34 소련제 탱크를 비롯하여 북한에게 대규모 군비지원을 했다. 전쟁 초기 북한의 우세한 전략에 밀린 경험 때문에 한국은 대북한 군사적 균형과 역지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절감하게 되었다. 전쟁 직후 한국경제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60만대 군을 창설하게 된 것은 6·25전쟁에서 얻은 교훈 때문이었다. 나아가 이승만대통령은 어떻게 해서든지 한미군사동맹을 체결하여 대북한 억지체제를 확고히 구축해야 된다고 믿고 이를 외교적으로 관철시켰던 것이다.

지난 60년간 한미동맹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 지역 안정의 초석이였다. 21세기에도 한미동맹을 시대의 변화에 맞게 새롭게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탈냉전 이후 미국은 군사력, 경제력, 소프트 파워 등 국력의 모든 측면에서 유일 초강대국으로서의 지위를 누리고 있다. 6·25 전쟁 이후 성립된 한미동맹은 한국의 정치 및 경제 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했다. 또한 미국은 역사상 처음으로 아시아 지역에서 평시동맹을 체결하여

59) Weathersby, “Should We Fear This?’ Stalin and the Danger of War with America”, pp.9~11.

60) Milovan Djilas, *Conversations with Stalin*, Michael B. Petrovich, trans. New York: Harcourt, Brace & World Inc., 1962, p.114.

동북아 지역 균형자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미국의 역할 때문에 동북아 지역에서는 60년이 넘는 '장기간 평화'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정부 당시 자주노선과 '동북아 균형자노선'을 내세워 한미관계는 소원해졌다. 독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협조 없이는 한반도 평화뿐만 아니라 통일의 달성이 어려워진다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21세기 한국과 미국은 과거처럼 단순히 군사적 동맹관계에 머물러 있지 않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이념을 공유하는 가치동맹으로 나아가고 있다. 또한 한국의 국제적 위상도 높아져서 과거와 같은 수혜자의 지위를 벗어나서 국제적 책임을 다할 것을 국제사회로부터 요구받고 있다. 한국은 국가 존망의 위기시 유엔 회원국들과 국제사회로부터 군사적, 경제적, 인도적 도움을 받았다. 세계 10위권의 국가로 부상한 한국은 6·25전쟁 당시 세계로부터 받은 도움을 되돌려 주어야 한다. 저개발 국가들에 대한 경제적 원조뿐만 아니라 국제평화 유지를 위한 유엔평화유지군(PKO) 활동 등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이다.

전쟁 발발 60년 후 전쟁을 일으킨 북한은 열악한 인권 상황 하에서 기아 선상을 헤매는 '실패국가'로 전락하고 말았다. 신생 공화국이었던 대한민국은 건국된지 2년도 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북방 공산 3국의 긴밀한 사전 협조 하에 발생한 전쟁으로 인하여 존망의 기로에 섰다. 국내정치적으로 6·25전쟁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원리라는 대한민국의 핵심적 가치(core value)에 대한 도전이었다. 이 점에서 우리에게 6·25전쟁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자유세계와 함께 싸운 '호국전쟁'이었다. 최근 한국 현대사의 커다란 분기점으로 건국, 산업화, 민주화를 잡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다. 그렇지만 6·25전쟁 연구는 대한민국의 핵심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호국의 노력이 실패했다면 오늘날 대한민국이 누리는 정치적 민주화와 경제적 번영은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북한의 핵 개발과 최근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의한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사건에서 보듯이 한반도 상에서는 여전히 긴장상태가 유지되고 있다.

이런 사건들은 한반도가 여전히 평화상태가 아니라 정전상태, 즉 준전시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전쟁상태를 완전히 종식시킬 평화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지 못함으로써 6·25전쟁 유산은 완전히 청산되지 못하고 있다. 1954년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제네바 회담이 개최되었지만 공산측의 무모한 요구로 무위로 끝나고 말았다. 그 이후 평화협정 체결 문제가 제기되었지만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를 협정 체결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움으로써 6·25전쟁의 법적 해결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평화협정을 체결하지 않았지만 한국과 중국은 국교를 정상화함으로써 전쟁상태를 사실상 종식시켰다. 이에 반해서 북한은 교차승인의 일환으로 제기된 미국과의 외교관계 개선에 적극적용을 나서지 않음으로써 평화상태로의 실질적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북한은 체제 유지를 위해 핵을 포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대북한 적대시정책'이라는 외부의 위협을 지속적으로 강조함으로써 평화협정 체결과 6·25전쟁 유산의 완전한 청산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개혁과 개방을 거부하고 핵 개발을 시도하고 있고 계속해서 도발을 일으키고 있는 북한 때문에 한반도에서 국지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고 동북아 지역에 불안정이 존재하고 있다. 그렇지만 6·25전쟁 직전 상황과 비교해 볼 때 전쟁 60년이 지난 현재 동북아 지역에서 국가들 사이의 전면전이 일어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볼 수 있다.<sup>61)</sup> 한반도에는 6·25전쟁 이전과 달리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에 의한 확고한 대북한 억지체제가 구축되어 있다. 중국은 개혁과 개방 정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원하고 있다. 중국이 6·25전쟁 당시와 같이 북한의 재남침을 지지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봐야 할 것이다. 일본의 경우 주변국가들과 미해결된 영토 문제가 남아 있지만 과거 제국주의 시대처럼 이 문제 때문에 동북아 지역에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봐야 할 것이다. 또한 21세기 동북아 지역은 구한말과 달리 북한을

61) Robert A. Scalapino, "The United States and Asia in 2008: A Time of Challenge", *Asian Survey*, Vol.49, No.1(2009), p.5.

제외한 모든 국가들이 세계화의 흐름에 발맞추어 개혁과 개방을 추구하는 국제협력주의 노선을 채택하고 있다. 과거처럼 팽창적 민족주의 노선을 채택하여 주변국가들 침략하는 것이 아니라 개방 노선을 통하여 경제적 번영을 추구하고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동북아 지역은 21세기 가장 경제적으로 가장 역동적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는 역내 모든 국가들이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혁과 개방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유럽과 달리 동북아 지역에서 북핵 문제를 포함하여 역내 문제 해결을 위한 다자협의체 구성은 여전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은 임시방편적일 뿐만 아니라 지난 수년간 뇌사상태에 빠져 있다. 6·25전쟁의 유산을 완전히 청산하고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는 안보와 경협을 위한 다자협력체제의 구축이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다자협력체제의 구축은 기존 미일동맹과 한미동맹과 같은 쌍무적 동맹 관계를 유지하면서 점진적, 기능주의적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자협력체 형성이라는 이상을 추구한 나머지 지금까지 6·25전쟁 이후 동북아 지역에서 대규모 전쟁 재발에 기여한 양자 동맹을 선불리 해체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것이다.

6·25전쟁 직전의 중국 공산화와 마찬가지로 중국의 재부상은 21세기 동북아 지역뿐만 아니라 국제정치질서 변화에 커다란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미일동맹과 한미동맹을 통해 동북아 평화 정책을 추진해나가던 미국은 베트남전쟁의 늪에 빠지면서 커다란 위기를 맞게 된다.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현실주의 노선을 대변하는 키신저는 '삼각외교'(triangular diplomacy)를 적극 추진하게 된다. 약화된 미국의 국력을 만회하기 위해 숨돌릴 틈을 만들고 대소련 봉쇄전략을 재정비하기 위해 미국은 중국과의 관계 개선이라는 외교 카드를 던지게 된다. 당시 악화되고 있던 중소관계도 중국으로 하여금 미국의 관계 개선 요구를 수용하게 만들었다. 6·25전쟁 종식 20년 후 키신저 외교를 통하여 비로소 중국은 공산혁명과 6·25전쟁 이후 미국과의 관계 개선뿐만 아니라 동북아 질서 구축의 한 축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21세기 중국은 미국과 함께 국제정치질서를 G2 국가로 부상하게 되었다.

중국의 부상에 직면하여 한미일 3국은 기존의 양자 관계를 돈독히 하면서 어떻게 중국을 포용해 나갈 수 있는가 하는 전략적 딜레마에 직면하고 있다. 우선 미국의 경우 중국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해 나간다면 기존 동맹국가들의 이해관계와 상충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sup>62)</sup>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고 동북아 평화 질서를 구축하기 위해서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 ‘포용과 균형’을 적절히 배합시키는 정책을 추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sup>63)</sup> 우선 중국을 미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일방적 포용정책만으로는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없다. 한국과 일본은 1970년대와는 다른 국력의 수준을 갖고 있는 동맹국가들이다. 미국은 양국의 안보 우려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기존 동맹관계에 기초한 세력균형정책을 활용하여 중국의 부상에 대한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6·25전쟁이 끼친 국제정치적 영향에 관한 연구는 이 글에서 다룬 주제들뿐만 아니라 더욱 광범한 영역에 걸쳐서 향후 학문적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유엔군으로 참전한 21개국의 경우 이들 국가들이 참전하게 된 국내외적 배경에 대한 연구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들 국가들은 모두 유엔 회원국으로 의무를 다하고 한국의 공산화를 막기 위해 참전했다. 이와 함께 이들 국가들이 참전을 결정하면서 자신들의 국익을 어떻게 정의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이들은 국제정치질서가 미소 대결이라는 양극적 구조로 갈라진 상황에서 미국과 함께 공산세력의 팽창에 대항하기 위해 한국 참전을 결정한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런 연구를 위해서는 전쟁 발발과 전개과정과 관련하여 미국과 과거 공산권의 자료를 다국적 차원에서 연구해온 것과 마찬가지로 참전 국가들의 외교정책과 관련한 다국적 차원의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런 연구를 바탕으로 비교정치학적 방법론을 동원하여 이들 국가들의 참전 배경과 관련

62) Robert Kagan, "Obama's Year One", *World Affairs*(January/February 2010), pp.14~15.

63) Michael J. Green, "Asia in the Debate on American Grand Strategy", *Naval War College Review*, Vol.62, No.1(Winter 2009), p.21.

하여 유사점과 차이점을 연구한다면 6·25전쟁의 국제정치적 영향을 다차원으로 이해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원고투고일 : 2011. 3. 14, 심사수정일 : 2011. 4. 25, 게재확정일 : 2011. 4. 29.)

주제어 : 6·25전쟁, 냉전, 렌티어 국가, 알렉시스 토크빌, 한미동맹, 반공주의, 나토, 썬기전략, 신현실주의

<ABSTRACT>

## A Study on the Impacts of the Korean War on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Politics

Kim, Young-ho

The Korea War can be construed as the most important historical event of modern Korean history. The war had great impacts on the development of the Cold War and the international order since the end of World War II. The research on the war has been focused on the war's origins and developments and the issues related to the armistice negotiations. As a result, the studies on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impacts of the war has been relatively few. With the 60th anniversary of the war, it is very important to review the extant research on the subject and to present new research agenda. The horrendous experiences of the war tended to put emphasis on the immoral and negative aspects of the Korea War. This tendency resulted in the neglect of the objective and theoretical studies of the war's internal and external influences. The war's 60th anniversary provides us with an opportunity to begin the study on the subject in earnest. This article will explore the war's impact on the develop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ROK) as a modern state. It will analyze how the ROK developed its military and financial capabilities as a modern state with specific reference to Max Weber's definition of the state. The articles will argue that the ROK became a 'rentier state' because of its over-dependence on foreign aid for its state budgets. It will analyze the impact of the 'rentier stateness' on the political development. It will also argue that Korean society has become a Tocquevillian democratic society with the end of the war and a strong anti-communistic society. On the international

level, the war had great impact on the Cold War development in Europe as well as on the Korean Peninsula. The war contributed to the militarization of the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NATO) and the consolidation of the Cold War structure in the northeast Asian region. The article also explains why the United States decided to sign a series of mutual defense treaties with Japan, ROK, and Taiwan during and at the end of the war. It will also discuss the impact of the war on the operations of the United Nations. It will conclude by discussing what kind of lessons the states in the region can draw from the war to keep the region peaceful and prosperous with the rise of China in the 21st century.

Key Words : The Korean War, Cold War, Rentier State, Alexis Tocqueville, US-ROK Alliance, Anti-communism, NATO, Wedge Strategy, Neorealism

# 황산벌전투의 신라군 전투서열 연구

- 신라군의 투입부대, 지휘관, 병력수 -

윤 일 영\*

1. 서 론
2. 신라군의 전투부대 수 및 명칭
3. 황산벌전투에 투입된 전투부대 명칭
4. 황산벌전투시 전투부대의 지휘관 성명 및 투입 병력수
5. 결 론

## 1. 서 론

황산벌전투는 신라군과 백제군이 660년 음력 7월 9일(양력 8. 20) 황산원(黃山原)<sup>1)</sup>에서 벌인 전투다. 당시 황산벌전투 경과는 다음과 같다. 660년 음력 6월 21일 신라군은 황산벌전투에 앞서 중간 집결지였던 금돌성<sup>2)</sup>과 삼

\* 대전대학교 군사학과 전쟁사교수

- 1) 『삼국사기』 권 제36 잡지 제5 지리 3 熊州條에 의하면 黃山郡은 본래 백제 黃等也山郡이었는데, 경덕왕이 개칭했다. 고려 때 連山縣이다. 현 논산시 연산면이다.
- 2) 『동사강목』 제4(상) 경신년 신라 태종 7년 여름 6월 : 왕이 기뻐하며 다시 법민을 보내어 유신 및 품일 흠춘과 함께 정병 5만을 거느리고 응전하게 하고 금돌성(경북 상주시 尙東面 白華山)으로 나가 주둔하였다.

년산성(三年山城)에 전투부대들을 집결시킨 상태였고, 당의 함대도 덕물도와 그 주변에 대기하고 있었다. 신라는 덕물도에서 당나라 소정방군과 연합작전계획을 합의하였다.<sup>3)</sup> 양군은 계획에 따라 660년 7월 10일 백제의 남쪽에서 만나기로 약속했다.<sup>4)</sup>

이러한 계획에 의거 중간집결지에서 대기중이던 신라 전투부대들이 출동했다. 당나라군과 만나기로 약속한 진구(津口)<sup>5)</sup>를 향해 행군했다. 중간집결지-오늘날 옥천-금산-탄현(全北 完州郡 雲州面 三巨里)-황산-논산으로 이어지는 길이었다.

진구<sup>6)</sup>는 사비성 부근이었다. 신라와 당나라의 두 군대가 진구에서 합류하면 백제 군대에 비해 절대적으로 우세한 병력이 된다. 때문에 백제군은 나당연합군이 진구에 집결하기 전에 신라군을 먼저 각개격파하고자 했다. 그래서 이 전투는 신라군과 백제군 모두가 반드시 결정적 승리를 쟁취해야 하는 결전적(決戰的) 회전(會戰)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이 전투는 백제 계백장군과 5,000결사대가 절망적 상황 하에서도 국가에 대한 절대적 충성을 죽음으로 보여주고 무인으로써 지조와 충절을 지킨 전투로 유명하다. 그리고 신라 반굴과 관창이 화랑정신을 보여준 싸움으로도 이름 나 있다. 이와 같이 문화사 측면에서 잘 알려진 싸움이기는 하지만 군사사 측면에서 피아가 어느 정도의 병력과 부대들을 투입하여 어떠한 전투편성으로 어떻게 전투를 벌였는지는 알려진 바가 없다.

문화사적 측면에서는 많은 관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군사사

3) 윤일영, 「신라군의 행군과 군수」, 『군사학연구』 통권 제6호, 대전대 군사연구원, 2008, 31~40쪽.

4) 『삼국사기』 권 제5 신라본기 제5 태종 무열왕 7년 6월 21일, “王遣太子法敏 領兵船一百艘 迎 定方 於德物島 定方謂法敏曰 吾欲以七月十日至百濟南與大王兵會屠破 義慈 都城.”

5) 『삼국유사』 권 제1 기이 제1, 太宗春秋公, “進軍合兵薄 津口 瀕江屯兵.”

6) 필자 주(註) : 진구(津口)는 충청남도 논산시 강경읍(江景邑)과 성동면(城東面)일대이다. 삼국사기는 당나라군이 진구에 상륙하였다고 전하고 있다. 당나라 소정방의 대군이 함대를 정안시켜 상륙할 수 있는 공간은 지형적으로 길고 넓은 강변(오늘날 금강)이어야 한다. 이러한 지형적 조건을 갖춘 곳은 금강(錦江)과 논산천(論山川)이 만나는 합류점 일대의 강변 및 벌판이다.

측면에서 전투실상을 복원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이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초적인 고증이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신라군이 백제지역 및 황산벌 전투장에 투입하였던 전투부대의 수 및 명칭, 지휘관의 성명, 총 병력 수를 밝히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오늘날 우리는 신라가 황산벌 전투장에 투입한 부대들의 전투서열을 정확히 식별할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신라 및 백제군의 전투배치와 작전개념, 전투경과를 체계적으로 밝힐 수 있다.

## 2. 신라군의 전투부대 수 및 명칭

신라가 황산벌 전투장에 투입한 전투부대를 식별함에 있어서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고자 한다. 첫째는 신라군의 장군인사기록을 분석하여 참전 지휘관과 휘하 부대를 규명하는 것이다.

둘째는 신라가 대백제전에 전투부대를 투입하였던 여러 가지 사례들을 분석하여 당시 6정급(六停級)부대<sup>7)</sup>, 서당급(誓幢級)부대<sup>8)</sup>, 10정급(十停級)부대<sup>9)</sup> 가운데 어느 것을 황산벌 전장에 투입하였는가를 밝히는 것이다.

---

7) 六停級部隊은 신라가 王京과 各州의 治所에 배치하였던 부대들이다. 대당·상주정·한산정·하주정·우수정·하서정·귀당을 뜻한다. 이 부대들은 重步兵부대였던 黑衣長槍末步幢을 주력부대로 하고 重騎兵인 步騎幢과 경보병인 軍師幢을 혼성시킨 합동부대이다. 6정급부대의 편제병력수는 각 부대마다 상이하다. 예를 들어 大幢은 4,763명, 上州停은 3,753명, 下州停은 3,548명 등이다.

8) 誓幢級部隊은 신라가 왕정에 배치시킨 誓幢과 郎幢을 지칭한다. 이들 부대는 신라가 통일 후 各州에 誓幢級부대를 배치할 당시 기본모델이 된 부대들이다. 이 부대들은 黑衣長槍末步幢을 주력부대로 하고 輕騎兵인 著衿騎幢과 經步兵인 軍師幢을 혼성시킨 합동부대이다. 誓幢級부대의 편제 병력수는 誓幢의 경우 5,762명이며 낭당의 경우 5,562명이다.

9) 十停級部隊은 신라가 各州의 요충지에 배치하였던 일명 三千幢이라고 칭하였던 부대였다. 신라는 통일 후 십정급부대를 10개 보유하였으나 660년 당시에는 7개 부대(율리화정·삼랑화정·소삼정·남천정·골근내정·벌력천정·이화혜정)였다. 10정급 부대의 편제 병력수는 3,012명이었다.

## (1) 대백제전에 투입한 전투부대 수 및 명칭

신라가 660년 7월 나·제전쟁 때 백제지역에 투입한 부대명칭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신라가 보유하고 있던 부대를 파악해야 한다. 그리고 이 중에서 백제지역에 투입한 부대들을 식별해 내야 한다.

삼국사기의 신라본기와 열전에 보이는 단위부대를 면밀하게 분석한 결과 신라는 660년 음력 7월 나·제전쟁을 전개할 당시 총 36개 단위부대를 보유하고 있었다.

즉, ① 시위부(侍衛府), ② 귀당(貴幢), ③ 법당(法幢), ④ 경여갑당(京餘甲幢 : 법당 15개로 구성), ⑤ 소경여갑당(小京餘甲幢 : 법당 16개로 구성), ⑥ 외여갑당(外餘甲幢 : 법당 52개 또는 68개로 구성), ⑦ 여갑당(餘甲幢 : 법당 15개로 구성), ⑧ 외법당(外法幢 : 법당 51개로 구성), ⑨ 사자금당(師子衿幢), ⑩ 수군(水軍) ⑪ 대당(大幢), ⑫ 상주정(上州停), ⑬ 한산정(漢山停), ⑭ 우수정(牛首停), ⑮ 하서정(河西停), ⑯ 하주정(下州停), ⑰ 서당(誓幢) ⑱ 낭당(郎幢), ⑲ 음리화정(音里火停), ⑳ 삼량화정(參良火停), ㉑ 소삼정(召參停), ㉒ 남천정(南川停), ㉓ 골내근정(骨乃斤停), ㉔ 벌력천정(伐力川停), ㉕ 이화혜정(伊火兮停), ㉖ 급당(急幢), ㉗ 계금당(鬪衿幢), ㉘ 사천당(四千幢), ㉙ 군사당(軍師幢), ㉚ 백관당, ㉛ 노당(弩幢), ㉜ 운제당(雲梯幢), ㉝ 충당(衝幢), ㉞ 석투당(石投幢), ㉟ 한산주궁당(漢山州弓幢), ㊱ 하서주궁당(河西州弓幢) 등 36개였다.<sup>10)</sup>

아울러 신라는 660년 7월 당시 보유하고 있던 이들 36개 단위부대 중에서 나·제전쟁 때 백제지역에 20개 단위부대를 투입하였는데, ① 대당, ② 귀당, ③ 상주정, ④ 하주정, ⑤ 서당, ⑥ 낭당, ⑦ 남천정, ⑧ 음리화정, ⑨ 삼량화정, ⑩ 소삼정, ⑪ 이화혜정, ⑫ 계금당, ⑬ 군사당, ⑭ 노당, ⑮ 운제당, ⑯ 충당, ⑰ 석투당, ⑱ 사자금당, ⑲ 시위부, ⑳ 수군 등이다.<sup>11)</sup>

10) 윤일영, 「신라가 대백제전(서기 660년) 투입하였던 부대수, 병력수, 부대편제, 전투대형」 『군사학연구』 제5호, 대전대학교 군사연구원, 2007, 413쪽

11) 윤일영, 앞 논문, 2007, 425쪽.

## (2) 황산벌 전투장에 투입한 전투부대 수 및 명칭

신라가 무열왕 7년(660) 7월 나·제전쟁 때 백제지역에 20개 단위부대를 투입하였다면 7월 9일 황산벌 전투장에는 몇 개의 단위부대를 투입하였을까? 이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7월 9일 황산벌 전투를 전후하여 신라가 대백제전 때 전투부대를 투입하였던 사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3개 사례 중 첫째는 신라 진평왕 46년(624) 10월 백제군이 속함성(速含城) 등을 포위했을 때 신라군 투입부대의 사례다([A-1], [A-2]). 둘째는 무열왕 7년(660) 7월 9일 황산벌 전투 때 전투부대를 투입하였던 사례다. 그리고 무열왕 8년(661) 2월 백제 부흥군이 사비성을 공격할 때 신라군의 투입부대 사례들이 다([A-3], [A-4]).

[A-1] 겨울 10월, 백제 군사가 우리의 속함·앵잠·기잠·봉잠·기현·혈책 등 여섯 성을 포위하였다. 이때 3성이 함락되거나 항복하였다. 급찬·눌최가 봉잠·앵잠·기현 3성의 군사를 합하여 굳게 지키다가 이기지 못하고 죽었다(『삼국사기』 권 제4 신라본기 제4 진평왕 46년 10월).

[A-2] 진평왕 건복 41년 기묘 겨울 10월에 백제가 대거 침입하면서 군사를 나누어 속함·앵잠·기잠·봉잠·기현·용책 등 여섯 성을 포위 공격하였다. 왕은 상주·하주·귀당·법당·서당 등 5군에 명하여 이들을 구원하게 하였다(『삼국사기』 권 제47 열전 제7 눌최).

[A-3] 백제의 잔적이 사비성을 공격하였다. 왕은 이찬 품일을 대당 장군으로 임명하고, 잡찬 문왕과 대아찬 양도와 아찬 충상 등으로 하여금 그를 돕게 하였다. 또한 잡찬 문충을 상주 장군으로 임명하고, 아찬 진왕으로 하여금 그를 돕게 하였으며, 아찬 의복을 하주 장군, 무홀·육천 등을 남천 대감, 문품을 서당 장군 의광을 낭당 장군으로 임명하여 사비성을 구원하게 하였다(『삼국사기』 권 제5 신라본기 제5 태종 무열왕 8년 2월).

[A-4] 여름 4월 19일에 군사를 칠수하면서 대당과 서당을 먼저 보내고, 하주의 군사를 뒤따라오게 하였다. 그들이 빈골양에 이르렀을 때, 백제 군사를 만나 싸웠으나 패배하였다. 사망자는 비록 적었으나 병기와

군수품을 상당히 많이 잃었다. 상주 낭당은 각산에서 적을 만나 공격하여 승리하고, 마침내 백제의 진중으로 들어가 2천 명을 참살하였다. 왕은 군사가 패배했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놀라서 장군 김순·진흙·천존·죽지를 보내서 구원하게 하였다. 그들이 가시혜진에 도착했을 때, 적군이 가소천까지 퇴각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되돌아 왔다. 왕이 여러 장수들의 패전 책임을 물어 정도에 따라 벌을 주었다(『삼국사기』 권 제5 신라본기 제5 태종 무열왕 8년 4월).

신라 진평왕 46년(624) 10월 당시의 신라군의 투입부대 사례〔A-1〕,〔A-2〕와 무열왕 8년(661) 2월 백제 부흥군이 사비성 공격 때 신라군의 투입부대 사례(〔A-3〕,〔A-4〕)를 분석하면 네 가지 공통점 및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신라는 백제지역에 전투부대를 투입하였을 경우 신라·고구려 국경지역에 배치해 놓고 있던 ‘한산정, 우수정, 하서정, 골내근정, 벌력천정 등을 현지에 잔류시켜 놓고 신라·백제 국경지역과 왕경지역 등에 배치시켜 놓은 전투부대들을 투입하였다.’는 것이다. 둘째는 신라가 백제지역에 전투부대를 투입하였을 경우 ‘상주정·귀당·하주정·서당 등을 주로 백제지역에 투입하였다.’는 것이다. 셋째, 신라는 한산주지역에 십정급 부대 가운데 남천정 골내근정 등 2개 부대를 배치하고 있었는데 ‘2개 부대 가운데 남천정만을 백제지역에 투입하였다.’는 것이다. 넷째는 신라가 백제의 수도였던 사비성 지역을 평정할 당시 대당·상주정·하주정·남천정·서당·낭당·귀당 등 7개 부대를 투입하였다는 것이다.<sup>12)</sup>

신라가 백제와의 전쟁을 할 때마다 투입하였던 상기 부대들은 공통적으로 백제 국경선에 위치해 있던 부대(예 : 상주정·귀당·하주정)들이었거나 또는 나·려국경(羅麗國境)에 가까운 곳이면서도 나·제국경(羅濟國境)에도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던 소위 등거리 내선(內線) 상에 위치해 있던 부대(예 : 남천정)들이었다. 그리고 일부는 왕경지역에 위치해 있던 부대(예 : 대당·서당·낭당)들이었다. 군사 배비와 전략적 의미에서 본다면 이들 부

12) 윤일영, 앞 논문, 2007, 422쪽.

대들은 신라가 백제와의 전쟁 때 투입할 수 있는 전략 기동부대인 동시에 전략 예비부대들이다.

사례 [A-1], [A-2]에서 보면 신라는 진평왕 46년(624) 10월 당시 백제가 봉잠성·앵잠성·기현성 등을 포위하자 신라는 상주정·귀당·하주정·서당 등 4개 전투부대를 투입하였다. 그런데 [A-3]과 [A-4] 사례에서 보면 무열왕 8년(661) 2월 당시 백제 부흥군이 사비성을 공격하자 신라는 상주정·귀당·하주정·서당에 추가하여 대당·낭당·남천정 등 7개 부대를 투입하였다. 3개 부대를 추가로 투입한 것은 신라가 백제의 속함성 등을 공격하는 것보다 백제의 사비성을 공략하는데, 더 많은 전투부대를 필요로 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상기 무열왕 8년(661) 2월의 사례를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신라는 660년 7월 12일 백제의 사비성을 나·당 연합으로 공략하기 위하여 행군도중에 7월 9일 황산벌에서 백제의 계백군과 전투를 벌였는데, 이 당시 신라군 규모는 무열왕 8년 2월 당시 백제 부흥군이 사비성을 공격하자 신라가 투입하였던 부대들의 규모와 같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 첫 번째 이유는 660년 7월 9일 신라군의 군사목표(사비성 공략)와 661년 2월의 그것과 같다는 점이다. 동일한 군사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군대를 백제지역에 출동시켰다면 투입했던 부대규모도 거의 같았을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이유는 661년 2월 신라의 사비성을 공략에는 660년 7월 황산벌 전투와 사비성 공략에 참전했던 유경험 부대를 투입하고자 하였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660년 7월 9일 신라가 황산벌 전장에 투입한 부대는 대당·상주정·귀당·하주정·서당·낭당남천정 등 7개 부대일 것이다.

여기서 추가로 고려해야 할 투입부대가 있는데, 사설당이다. 신라는 황산벌 전투를 벌이고 7월 12일에 나·당 연합으로 사비성을 공략하였는데, 공성(攻城) 전문부대를 반드시 대동하였을 것이다. 신라는 660년 7월 당시 공성 전문부대였던 사설당(四設幢: 弩幢·雲梯幢·衝幢·石投幢)을 보유하고 있었다. 사설당은 사비성 공성을 위한 필수부대인 만큼 신라는 사설당

을 사비성으로 가기 전에 치렀던 황산벌전투에도 대동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신라가 660년 7월 9일 황산벌 전장에 투입한 부대는 【도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당·상주정·귀당·하주정·서당·낭당·남천정·사설당 등 8개 부대일 것이다.

【도표 1】 신라가 대백전 때 백제지역에 투입한 전투부대(사례별 분석)<sup>13)</sup>

660년 보유부대	지휘관 관등	복색	부대 주둔지	황산벌 전투(660. 7. 9) 시 투입 신라 부대	신라가 백제부흥군 사비성 공격시 661년 2월~4월 19일까지 투입한 부대
六停	1.大幢	장군 4인	紫白 王京(현 경북 경주)	1參戰	1參戰
	2.上州停	장군 4인	靑赤 上州(현 경북 상주)	2參戰	2參戰
	3.漢山停(新州停)	장군 3인	黃靑 漢山州(현 경기 광주)		
	4.比列忽停(牛首停 首若州停)	장군 2인	綠白 比列忽州(현 함남 安邊 / 現 강원 春川)		
	5.河西停(悉直停)	장군 2인	綠白 河西州(현 강원 강릉)		
	6.下州停(比自伐停)	장군 3인	白紫 下州(현 경남 창녕)	3參戰	3參戰
7.貴幢	장군 4인		上州(현 경북 상주)	4參戰 (추가투입)	4參戰(추가투입)
九 誓 幢	8.誓幢-綠衿誓幢	장군 2인	綠紫 서울(王都 : 경북 경주)	5參戰	5參戰
	9.卽幢-紫衿誓幢	장군 2인	紫綠 서울(王都 : 경북 경주)	6參戰	6參戰
十停	10.音里火停	隊大監 1인	靑 上州(현 경북 상주 청리면)		
	11.三良火停	제대감 1인	黑 良州 推火郡 密津縣(현 경남 밀양 삼량진읍)		
	12.召參停	제대감 1인	黑 居烈郡(현 경남 함안군 군북면)		
	13.南川停	제대감 1인	黃 漢山州(현 경기 이천시 邑內面)	7參戰	7參戰
	14.骨乃斤停	제대감 1인	黃 漢山州(현 경기 여주시 南平面)		
	15.伐力川停	제대감 1인		牛首州 伐力川縣(현 강원 홍천군 홍천읍)	
16.伊火兮停	제대감 1인	綠色 河西州 也尸忽郡 伊火兮縣(현 경북 청송군 안덕면 명당리)			
四 設 幢	17.髡幢	無衿		8參戰	
	18.雲梯幢	無衿			
	19.衝幢	無衿			
	20.石投幢	無衿			
합계				8개 부대	7개 부대

### 3. 황산벌 전투에 투입된 전투부대 명칭

삼국사기가 전하고 있는 신라의 장군인사기록을 분석도구로 사용하여 신

13) 윤일영, 앞의 논문, 207, 416~421쪽.

라가 황산벌 전장에 투입하였던 전투부대의 명칭을 규명하려 한다. 그런데 삼국사기는 이들 전투부대의 명칭을 직접적으로 전하지 않고 다만 [A-5], [A-6] 기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라본기 무열왕 7년(660) 7월 9일 조(條)와 김유신 열전에서는 장군들의 이름만을 전하고 있다.

[A-5] 가을 7월 9일에 유신 등이 황산(黃山) 벌판으로 진군하니……장군 흠순이 아들 반굴(盤屈)에게 말하였다.……좌장군 품일이 아들 관장(官狀)을 불러 말 앞에 세우고 여러 장수들을 가리키며 말하였다.……백제의 무리가 크게 패하였다. 계백은 죽고, 좌평 충상(忠常)과 상영(常永) 등 20여 명은 사로잡혔다. (7월 10일) 유신 등이 당나라 군대의 진영에 이르자, 정방은 유신 등이 약속 기일보다 늦었다고 하여 신라의 독군(督軍) 김문영(金文穎)을 군문(軍門)에서 목을 베려 하였다(『삼국사기』 권 제5 신라본기 제5 태종 무열왕 7년 7월 9일, 10일).

[A-6] 장군 정방이 유신, 인문(仁問), 양도(良圖) 세 사람에게 말하였다(『삼국사기』 권 제42 열전 제2 김유신 <중>).

【도표 2】 황산벌 전투 시(660.7.9) 신라군 지휘관 성명, 직책, 부대구성에 관한 정보<sup>14)</sup>

구 분	내 용	비 고
직책 및 성명	대장군 김유신·좌장군 김품일, 장군 김흠춘 <sup>15)</sup> 김문영 <sup>16)</sup> , 김양도 <sup>17)</sup>	직책 : 대장군·좌장군·장군 성명 : 김유신·김품식·김흠춘
부대구성 관련 명칭	대장군, 좌장군, 삼군(三軍)	직책 : 대장군·좌장군 군구성 : 3군(左·中·右軍)

14) 도표 내용은 필자가 신라본기 무열왕 7년(660) 7월 9일 조와 열전 김유신(중)의 내용을 바탕으로 황산벌 전투에 참가하였던 장군들의 성명을 정리한 것이다.

15) 『삼국사기』 권 제5 신라본기 제5 태종 무열왕 7년 7월 9일 : 장군 흠순이 그의 아들 반굴에게 말하기를 …… 좌장군 품일이 아들 관장[관창이라고도 한다.]을 불러 말 앞에 세우고 여러 장수들에게 보이며 말했다.

16) 『삼국사기』 권 제5 신라본기 제5 태종 무열왕 7년 7월 9일 : 이 날 정방이 부총관 김인문 등과 함께 기벌포에 도착하여 백제 군사와 마주쳤다. 그는 백제병과의 전투에서 크게 승리하였다. 유신 등이 당나라 진영에 도착하니, 정방은 유신 등이 늦게 왔다는 이유로 군문에서 신라 독군 김 문영[穎을 ‘永’으로도 쓴다.]의 목을 베고자 하였다

17) 『삼국사기』 권 제42 열전 제2 김유신(중) : 이 싸움에서 유신의 공로가 컸다. 당나라 황제가 이를 듣고 사신을 보내 그를 표창하였다. 장군 정방이 유신·인문·양도 등 세 사람

【도표 2】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신라군은 황산벌 전투에 대장군 김유신, 좌장군 김품일, 장군 김흠춘, 김문영, 김양도 등을 투입하였고 이들이 지휘하였던 부대들을 좌군(左軍)·중군(中軍)·우군(右軍)으로 재편성하여 전투를 벌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신라 장군들의 직책 및 성명, 삼군구성(三軍構成)과 관련된 사실, 그리고 추가로 유추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신라가 황산벌 전투에 투입하였던 전투부대의 명칭을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삼국사기가 전하는 신라군 지휘관들의 인사와 관련된 기록, 전투부대의 편제, 부대구성과 관련된 기록들을 추가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장군들의 인사기록 가운데 극히 일부는 계급 및 장군성명, 부대명칭, 부대의 장군 직위수(職位數) 등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계급·성명·부대·장군 직위수 등의 상관관계를 통하여 일부 전투부대의 명칭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장군들의 인사와 관련된 기록을 분석하면 한 부대에 근무하였던 근무기간과 전방과 수도권을 번갈아 근무하였던 장군인사의 관행을 파악할 수 있는데, 이를 사용하여 결락(缺落)된 신라군의 인사기록을 복원할 수 있다.

비록 장군인사와 관련된 기록들이 계급·성명·부대·장군 직위수 등 3가지 정보를 완전히 포함하지 못하고 일부만을 포함한 불완전한 것일지라도 오늘날 우리는 당시 장군들의 인사기록, 인사 관행, 장군 편제(직위수) 기록, 부대구성 등과 관련된 기록을 상호 유기적으로 융합시킬 경우 신라가 황산벌에 투입하였던 장군들과 전투부대들의 관계를 밝힐 수 있을 것이다.

삼국사기는 신라군의 군주(軍主：職責)와 관련된 인사기록을 【도표 3】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벌휴이사금(伐休尼師今) 2년(185)부터 남기고 있는데<sup>18)</sup> 주로 “누구를 언제부터 어느 부대의 군주로 삼았다.”라는 형식을 빌려서 군주의 성명과 직책을 중심으로 기술하고 있다. 삼국사기가 완전한 인사기록을 남기기 위해서는 군주의 관등, 성명, 직책, 부대를 포함하여 기

에게 말했다. “내가 황제의 명을 받아 일을 처리하게 되었다. 이제 빼앗은 백제 땅을 공들의 식읍으로 나누어 줌으로써 여러분의 공에 보답코자 하는데 어떨까?”

18) 『삼국사기』 권 제2 신라본기 제2 벌휴이사금 2년(185) 2월: “파진찬 구도와 일길찬 구수혜가 좌우 군주가 되어 소문국을 정벌하였다. 군주라는 명칭이 이로부터 시작되었다.”

술해야 했겠지만 그러하지 못하다. 군주라고 하는 직책이 벌휴이사금 2년(185)부터 무열왕 3년(656)까지 인사기록에 사용되고 있는데 여기서 군주의 관등이 장군이었는지 아니면 보다 낮은 계급이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군주가 장군급 관등을 지녔던 직책이었다면 오늘날 우리는 이러한 인사기록을 장군인사기록으로 간주하여 해당 장군이 지휘하였던 전투부대를 식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도표 3】 군주(軍主)에 대한 인사기록<sup>19)</sup>

시기	관등 (A)	성명 (B)	부대(C) 및 직책(C)	장군 직위수 (E)	시기	관등	성명	직책	장군 직위수
벌휴이사금 2년(185)		仇道/仇須兮	좌우 군주		진평왕 40년 (618)	㉑	邊品	北漢山州軍主 (한산정)	1개
조분이사금 2년(231)	大將軍	于老			진평왕 51년 (623)	大將軍 副將	龍春, 舒玄, 庚信	㉒	3개
자비마립간 16년(473)	左右將軍	伐智/德智			선덕왕 5년 (636)	將軍	關川, 莚吞	㉓	
소지마립간 8년(486)	將軍	實竹			선덕왕 6년 (637)	大將軍	關川	㉔	
지증마립간 6년(505)	①	異斯夫	何瑟羅州軍主 (실직정)	1개	선덕왕 11년 (642)	㉕	品釋	大耶城 都督 (하주정)	1개
법흥왕 12년 (525)	②	伊登	沙伐州軍主 (상주정/귀당)	1개	선덕왕 11년 (642)	大將軍	金庚信	押梁州 軍主 (하주정)	1개
진흥왕 9년 (548)	將軍	朱玲	③		선덕왕 13년 (644)	大將軍	金庚信	㉖	
진흥왕 14년 (553)	④	武力	新州 軍主 (한산정)	1개	진덕왕 원년 (647)	㉗	守勝	牛頭州 軍主 (우수정)	1개
진흥왕 15년 (554)	⑤	于德/脫知	軍主		진덕왕 2년 (648)	㉘	金庚信	押梁州 都督 (하주정)	1개
진흥왕 17년 (556)	⑥	成宗	比列忽州軍主 (우수정)	1개	진덕왕 3년 (649)	大將軍 將軍	庚信, 陳春, 竹旨, 天存	㉙	4개
진흥왕 18년 (557)	⑦	起宗	甘文州 軍主 (상주정)	1개	무열왕 3년 (656)	㉚	金仁問	軍主	
진평왕 36년 (614)	⑧	日夫	一善州軍主 (상주정)	1개	무열왕 6년 (659)	左武衛將軍	文王	㉛	
					무열왕 7년 (660)	大將軍 左將軍	庚信, 品日, 欽春	㉜	

【도표 3】은 벌휴이사금 2년(185)부터 무열왕 3년(656)까지 삼국사기가 전하고 있는 6정급(六停級) 부대 및 서당급(誓幢級) 부대의 인사기록을 도

19) 『삼국사기』 신라본기가 전하고 있는 신라 벌휴이사금 2년(185)부터 무열왕 3년(656)까지 군주와 관련된 『삼국사기』 기록을 발췌하였다.

표화한 것이다. 참고로 당시 신라는 6정급부대 및 서당급부대들에만 장군들의 직위를 운용하고 있었다.

이 기간 동안의 장군 인사기록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도표 3】에서 관등(A), 성명(B), 부대(C), 직책(D), 장군 직위수(E)의 공란을 채워야 한다.

관등과 성명만을 남긴 인사기록일 경우 부대와 직책, 장군직위 수를 알 수 없고 성명과 직책만을 남긴 인사기록일 경우 관등과 부대, 장군직위 수를 알 수 없다.

【도표 3】은 관등(A), 성명(B), 부대(C), 직책(D), 장군 직위수(E)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 관등(A)를 먼저 확인하고자 한다. 즉 【도표 3】에서 우선 ① (실직정 군주의 관등), ② (상주정 군주의 관등), ④ (한산정 군주의 관등), ⑥ (비열홀정 군주의 관등), ⑦ (상주정 군주의 관등), ⑧ (상주정 군주의 관등), ⑨ (한산정 군주의 관등), ⑩ (하주정 군주의 관등), ⑭ (우수정 군주의 관등)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하여 신라 선덕왕 11년(642) 기사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이 기사는 “대장군 김유신에게 명하여 결사대 1만 명을 거느리고 나아가게 하였다. 유신이 행군하여 한강(漢江)을 넘어 고구려 남쪽 경계에 들어가니, 고구려 왕이 이를 듣고 춘추를 놓아 돌려보냈다. 유신을 압량주(押梁州) 군주로 삼았다.”<sup>20)</sup>는 내용이다.

이 기사는 군주에 대한 관등(大將軍), 성명(金庾信), 직책(軍主), 부대(押梁州)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그런데 이 기사에서 오늘날 우리는 당시 김유신이 압량주 군주로서 장군급의 관등을 지니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도표 3】에서 신라의 ‘군주급 지휘관의 관등이 장군급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 【도표 4】는 삼국사기가 전하는 629년부터 660년까지 장군인사기록을 종합한 것이다. 이를 분석하면 신라가 이 기간 동안에 실시하였던 장군 인사경향을 가늠할 수 있다. 신라는 가급적 동일부대에 특정한 인물을 중복배치하지 않았으며 장군의 보직기간을 2년~3년으로 제한하였다.

20) 『삼국사기』 권 제5 신라본기 제5 선덕왕 11년.

【도표 4】 『삼국사기』의 629~660년 신라 장군 인사기록  
(부대명, 창설시기, 장군직위 수, 장군성명)

구분	大唐	上州停	漢山停	牛首停	河西停	下州停	舊幢	郎幢	貴幢	兵部令
별칭		사별주 일선주	新州停 南川停	比列忽停	悉直停	比子伐停 押梁州	綠衿舊幢	紫衿舊幢		
부대창설 시기	진흥왕 5년(544)	진흥왕 13년(552)	진흥왕 14년(553)	진흥왕 17년(556)	지증왕 6년(505)	진흥왕 16년(555)	진명왕 5년(583)	진평왕 47년(625)	진흥왕 23년(562)	
장군 직위수	4인	4인	3인	2인	2인	3인	2인	2인	4인	
629			龍春·舒玄 ·庾信							
636							關川·弼吞			
637	關川									
638	關川									
639					眞珠					
642						庾信				
644										
645		庾信								
647						庾信				
647				守勝						
648						庾信				
648		庾信 <sup>21)</sup>								
649		庾信·竹 旨·陳春· 天存 <sup>22)</sup>								
655	大角滄 유신 <sup>23)</sup>									
656						金仁問				
659										眞珠
660	庾信									
661	眞珠									

21) 『삼국사기』 권 제41 열전 제1 김유신/54세(648) 유신이 백제의 영토에 들어가 嶽城 등 12성을 공격하여 함락시키고 2만여 명을 목베고, 9천 명을 사로잡았다. 공로를 논하여 이 찬으로 승진시키고 上州 행군대총관에 임명하였다.

22) 『삼국사기』 권 제5 신라본기 제5 진덕왕 3년 8월조에서 “가을 8월 백제의 장군 은상이 무리를 거느리고 와서 石吐城 등 7성을 공격하여 함락시켰다. 왕이 대장군 유신과 장군 진춘·죽지·천존 등에게 명하여 나아가 막게 하였다.”고 전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어느 부대 소속인지는 전하지 않고 있다. 김유신이 648년 대량성 전투에서 승리한 이후에 상주총관으로 임명되었다는 점과 신라가 상주정에 4명의 장군을 보직시키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유신·죽지·진춘·천존 등 4장군은 상주정 소속이었음을 알 수 있다.

23) 『삼국사기』 무열왕 2년(655) 10월에 왕의 딸인 智照를 대각찬 유신에게 시집보냈다.

예를 들면 김유신의 경우 압량주(押梁州 : 현 경북 경산시 압량면)<sup>24)</sup> 군주를 3년간(642~645) 수행하고 645년에 상주정의 장군 직위였던 상주장군(上州將軍)으로 재보직을 받아 2년간 역임하였다. 그리고 진주(眞珠)도 659년부터 661년까지 병부령(兵部令)으로 2년간 근무하다가 661년에 대당장군(大幢將軍)으로 발령을 받았다.

또한 신라는 왕경(王京 : 현 경북 경주)에 주둔하고 있던 대당의 장군인 품일과 충상을 661년 7월에 상주정(上州停 : 현 경북 상주)으로 전출시켰는데, 이는 왕경에서 전방부대로 전출시킨 것이다. 이와 같이 신라는 가급적 전후방을 번갈아 가면서 장군들을 보직시켰다.

### (1) 김흠순이 지휘한 전투부대 명칭

660년 7월 9일 황산벌 전투장에서 신라 김흠순(金欽純) 장군이 지휘하였던 부대의 명칭을 규명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하여 [A-4] 기사는 무열왕(武烈王)이 8년(661) 4월 19일 “군대(大幢·誓幢·下州군대)가 패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놀라 장군 김순(金純 : 金欽純 誤記)·진흠·천존·죽지를 보내 군사를 증원하여 구원케 하였다.”고 했다.

【도표 5】 661년 4월 19일 신라가 6정급부대 및 서당급부대 가운데 백제지역에 투입했던 부대와 신라·고구려 국경지대 및 왕경(王京) 일대에 잔류시킨 부대명칭

6정 및 서당급 부대명칭		장군직위 편제 수	부대 고유주둔지	백제지역 투입부대	신라 잔류부대
六停級 부대	大幢	4명	현 경북 慶州	패배	
	漢山停	3명	현 경기 廣州		잔류
	牛首停	2명	현 강원 春川		잔류
	河西停	2명	현 강원 江陵		잔류
	上州停	4명	현 경북 尙州	승리	
	下州停	3명	현 경남 昌寧	패배	
誓幢級 부대	貴幢	4명	현 경북 尙州		잔류
	誓幢	2명	현 경북 慶州	패배	
	郎幢	2명	현 경북 慶州	승리	

24) 신라는 押梁州를 押梁 또는 押督이라고도 칭하였다. 압량주의 州治所는 현재 경북 경산시 압량면이다. 신라는 선덕여왕 11년(642) 8월에 大耶州를 백제에게 빼앗긴 후 그 주치소를 압량으로 옮겼다. 무열왕 8년(661)에 김유신이 대야성(현 경남 함천군 함천읍 함천리 산2)을 회복하고 州治를 다시 大耶로 옮겼다. 이를 종합하면 신라는 하주의 주치소를 하주(下州)-대야주-압량주-대야주로 이동시켰다.

여기서 무열왕이 증원군으로 보낸 부대, 즉 장군 김흠순·진흠·천존·죽지 등이 지휘하였던 부대의 고유 명칭이 무엇인지를 확인해 보고자 한다.

【도표 5】는 661년 4월 19일 당시 신라가 백제지역에 투입하였던 부대들의 명칭과 신라영토 내에 잔류시켰던 부대들의 명칭을 필자가 작성한 것이다. 당시 신라는 6정급 부대 7개 부대와 서당급 부대 2개를 보유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때 신라가 백제지역에 투입한 부대는 대당·상주정·하주정 등 6정급 부대 3개 부대와 서당·낭당 등 서당급 부대 2개 부대였다. 그리고 9개 부대 가운데 영토 내에 잔류시키고 있던 부대는 한산정(현 경기 광주)·우수정(현 강원 춘천)·하서정(현 강원 강릉)<sup>25)</sup>·귀당(현 경북 상주) 등 4개 부대였다.

신라는 당시 한산정·우수정·하서정 등 3개 부대를 신라·고구려 국경 지대에 배치시켜 놓고 고구려의 남진을 억제하고 있었다. 만약 신라가 이 국경지역에 배치시켜 놓고 있던 3개 부대 중에서 1개 부대를 차출하여 백제지역으로 전환시킬 경우 신라는 차출된 부대가 담당하고 있던 지역을 부득이 무방비 상태로 비워놓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국경지역의 취약성을 증대시키면서까지 전방부대를 빼는 것은 전략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하였을 것이다.

이런 전략적 이유로 당시 신라는 고구려와의 북쪽 국경지역에 배치시켜 놓은 한산정·우수정·하서정을 백제지역으로 전환시킬 수 없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신라가 백제지역에 증원시키기 위해 잔류부대 가운데 전환시킬 수 있는 가용한 부대는 상주(上州: 현 경북 상주)에 주둔시키고 있던 귀당<sup>26)</sup>뿐이었다.

25) 하서정 : 신라가 하서주의 州治所에 배치시켜 놓은 군부대다. 658년 실직정을 혁파하고 하서정을 설치하였다. 신라가 하서정을 배치하였던 하서주의 주치소는 현 강원도 강릉시다.

26) 『삼국사기』 권 제6 신라본기 제6 문무왕 1년(661) 7월 17일, “가을 7월 17일에 金庾信을 大將軍으로 삼고, 仁問·眞珠·欽突을 大幢將軍으로, 天存·竹旨·天品을 貴幢總管으로, 品日·忠常·義服을 上州총관으로, 眞欽·衆臣·自簡을 下州총관으로, 軍官·戴世·高純을 南川州총관으로, 述實·達官·文穎을 首若州총관으로, 文訓·眞純을 河西州총관으로, 眞福을 誓幢총관으로, 義光을 郎幢총관으로, 慰知를 계급대감(關衿大監)으로 삼았다.” 661년 위 기록을 보면 上州停과 貴幢은 별개의 부대로 활동하고 있었다. 그러나 신라는 문무왕 13년(673)에 상주정을 貴幢으로 통합시켜 하나의 부대로 만들었다.

이와 관련하여 [A-4] 기사에 의하면 무열왕은 김순(김흠순 誤記)·진흠·천존·죽지 등 4명의 장군을 보냈다고 했는데 이 기사는 왕이 파견한 증원부대에 소속된 장군수를 말해준다. 신라가 무열왕 8년(661) 4월 19일 당시 영토 내에 잔류시켜 놓고 있던 한산정, 우수정, 하서정, 귀당 등 4개 부대 가운데 '4명의 장군직위를 운용하고 있던 부대'는 귀당(【도표 5】 참조)뿐이었다.

신라가 당시, 전략적 측면에서 백제지역으로 전환시켜 증원할 수 있는 부대는 귀당밖에 없었고 또한 영토 내 잔류시켜 놓은 4개 부대 가운데 장군 직위 4개를 운용하고 있던 부대도 역시 귀당뿐이었다. 그렇다면 신라가 무열왕 8년(661) 4월 19일 백제 지역으로 출동시킨 증원부대는 귀당이 확실하다.

한편 신라는 장군들을 6정급 부대 및 서당급 부대에 보직시키면 통상 2년 내지 3년 동안 근무토록 하고 있었다. 무열왕 8년(661) 4월(귀당 출동시기) 당시에 김순·진흠·천존·죽지 등이 귀당에 소속되어 있던 장군들이었다면 근속기간(2년~3년)을 고려할 경우 9개월 전이었던 무열왕 7년(660) 음력 7월 9일에도 이들 4인은 귀당에 소속되어 있었을 것이다.

이와 같이 근속기간을 적용해 본 결과 김흠순 장군은 무열왕 7년(660) 7월 9일 당시 귀당에 소속되어 있던 장군이었다. 삼국사기는 무열왕 7년 7월 9일 조에서 김흠순 장군이 황산벌 전투에 참전하여 그의 아들 반굴(盤屈)을 적진에 뛰어들게 한 것으로 전하고 있다.<sup>27)</sup> 따라서 김흠순 장군이 660년 7월 9일 소속되었던 부대가 귀당이었고, 7월 9일 황산벌 전투장에서 김흠순 장군이 지휘한 전투부대는 귀당이었다.

## (2) 김유신과 김품일이 지휘한 전투부대 명칭

[A-3]에 의하면 신라 무열왕은 8년(661) 2월에 김품일(金品日) 장군을

27) 『삼국사기』 권 제5 신라본기 제5 태종 무열왕 7년(660), “장군 흠순이 아들 盤屈에게 말하였다. 신하된 자로서는 충성만한 것이 없고 자식으로서는 효도만한 것이 없다. [이런] 위급함을 보고 목숨을 바치면 忠과 孝 두 가지 모두를 갖추게 된다. 반굴이 삼가 분부를 알아들겠습니다.” 하고는 곧 적진에 뛰어들어 힘써 싸우다가 죽었다.

대당(大幢)의 지휘관으로 발탁하였다고 한다. 인사발령 시점에서 보면 이 기사는 김품일 장군이 대당 장군으로 임명되기 전까지 대당이 아닌 다른 부대에서 근무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그러면 김품일 장군이 대당장군으로 임명되기 전까지 근무하던 부대는 무슨 부대였을까?

참고로 고대군(古代軍)의 경우 야전에서 융통성 있는 전술운용을 위하여 통상 전군(全軍)을 좌군, 중군, 우군 등 3군으로 나누어 공격 당시 상황에 따라 각군에게 주공(主攻)과 조공(助攻), 예비대(豫備隊)의 임무를 부여하였다. 최고사령관은 통상 중군에 위치하여 전군을 지휘하였고, 공격 때 중군에게는 통상 주공의 임무를 부여하였다. 그리고 최고 사령관은 통상 좌군의 지휘자를 우군의 지휘자보다 상위 서열자에게 맡겼고 우군을 그 다음 서열자에게 맡겼다. 그리고 좌군과 우군에게 조공 및 예비대 임무를 부여하였다. 좌장군과 우장군은 각각 좌군과 우군을 지휘하는 직책이었다.

신라의 경우 부대 서열상 대당은 4명의 장군직을 운용하고 있던 최상위급 부대였다. 그래서 신라는 대당의 지휘관을 통상 대장군으로 칭하였다. 삼국사기는 무열왕 7년(660) 7월 9일 황산벌 전투 때 김유신의 직위를 대장군<sup>28)</sup>으로 칭하고 있다. 이는 ‘김유신이 대당의 지휘관이며, 동시에 신라군의 최고사령관이었다.’는 사실을 뜻하는 것이다.

상주정과 귀당도 4명의 장군직위를 운용하였던 부대들로서 대당 다음가는 위상을 지닌 부대들이었다. [A-5] 기사에 의하면 신라는 황산벌 전투 때 대장군 김유신을 최고사령관으로 하고 김품일을 좌장군으로 삼았다. 아울러 삼국사기는 황산벌 전투 때 전투부대를 지휘하였던 신라장군을 3명으로 기술하고 있는데 다름 아닌 대장군 김유신, 좌장군 김품일, 장군 김흠순 등 이다. 삼국사기는 전투부대 구성과 관련하여 김품일의 직책을 좌장군으로 기술하고 있는 반면 김흠순의 직책을 명기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김품일 장군과 김흠순 장군 2명 가운데 김품일 장군이 좌장군을 맡고 있었다면 전투부대 구성과 관련된 전후 내용으로 보아 김흠순 장군이 우장군을 맡았을 것이다.

28) 『삼국사기』 권 제5 신라본기 제5 태종 무열왕 7년(660).

그런데 김품일이 좌장군을 맡고 김흠순이 우장군을 맡았다면 좌장군이 우장군보다 서열이 앞선 직위였으므로 김품일이 맡았던 부대는 김흠순이 지휘하였던 귀당보다 규모가 크거나 귀당과 동급부대였을 것이다.

신라가 660년 7월 9일 당시 장군직위를 운용하고 있던 부대는 【도표 5】에서 볼 수 있듯이 8개 부대였다. 즉 대당·상주정·귀당·하주정·하서정·우수정·서당·낭당 등이다. 【도표 5】의 장군직위 편제수는 『삼국사기』 제군관(諸軍官) 조<sup>29)</sup>에 나오는 장군공석을 도표화한 것이다.

이 8개 부대 가운데 4명의 장군직위를 편제하고 있었던 부대는 대당과 상주정 귀당 등 3개 부대뿐이었다. 이들 3개 부대 가운데 대장군 김유신이 대당을 지휘하고 있었고 우장군 김흠순이 귀당을 지휘하고 있었다. 그러면 좌장군 김품일이 지휘할 수 있는 부대는 상주정뿐이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는 황산벌 전투 때 신라 '좌장군 김품일이 지휘하였던 전투부대는 다름 아닌 상주정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3) 문영과 양도가 지휘한 전투부대 명칭

삼국사기 신라본기와 김유신 열전(중)에 의하면 신라군이 황산벌 전투에 투입하였던 인물은 【도표 6】에서 볼 수 있듯이 신라 태자 김법민, 대장군 김유신, 장군 김품일, 장군 김흠춘(金欽春: 김흠순), 독군 김문영, 장군 양도, 제감 천복 등이다. 여기서 문영과 양도가 지휘하였던 부대의 명칭을 확인해 보자.

29) 『삼국사기』 권 제40 잡지 제9 무관 諸軍官 장군: 장군은 모두 36명이다. 대당은 4명이 맡는다. 귀당은 4명이 맡는다. 한산정은 3명이 맡는다. 완산정은 3명이 맡는다. 하서정은 2명이 맡는다. 우수정은 2명이 맡는다. 관동은 진골 上堂으로부터 上臣까지로 삼았다. 녹금당은 2명이 맡는다. 자금당은 2명이 맡는다. 백금당은 2명이 맡는다. 비금당은 2명이 맡는다. 황금당은 2명이 맡는다. 흑금당은 2명이 맡는다. 벽금당은 2명이 맡는다. 적금당은 2명이 맡는다. 청금당은 2명이 맡는다. 관동은 진골 급찬으로부터 각간까지로 삼았다. 경덕왕 때에 이르러 熊川州停에 3명을 더 두었다.

【도표 6】 황산벌전투에 참전한 신라 주요 인물과 장군<sup>30)</sup>

구 분	삼국사기 신라본기 : 參戰者 성명	삼국사기 김유신 열전 : 參戰者 성명
660. 6. 21~7. 9	삼국사기 권 제5 신라본기 제5 태종 무열왕 7년(660) 7월: 태자, 대장군 庾信, 장군 品日·欽春	
660. 7. 9	삼국사기 권 제5 신라본기 제5 태종 무열왕 7년 7월 9일: 庾信·장군 欽純·盤屈, 좌장군 品日·官狀(또는 官昌)	
660. 7. 10	삼국사기 권 제5 신라본기 제5 태종 무열왕 7년 7월 10일: 庾信·金文穎	
660. 7. 30~9. 2		삼국사기 권 제42 열전 제2 김유신(중) : 庾信·인문·良圖
660. 7. 9. 황산벌 전투에 참전한 인물	1太子 金法敏, 2大將軍 金庾信, 3左將軍 金品日, 4장군 金欽純, 5盤屈, 6官昌, 7督軍 金文穎, 8 弟監 天福,	1大將軍 金庾信, 2良圖 <sup>31)</sup>

먼저 문영이 지휘한 전투부대 명칭이다. 신라 독군 김문영(金文穎)은 황산벌 전투 때 어느 부대에 속해 있었을까? 당시 김문영은 신라군의 독군이였다. 독군은 예하부대 작전수행을 감찰하는 장수였다. 그래서 독군은 항상 최고사령관이었던 대장군 김유신과 같은 대당에 위치하면서 업무를 보필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김문영은 대당에 소속되어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도표 7】을 보면 상주정에는 문충(文忠)이 있고 서당에는 문품(文品)이 있는데 돌림자를 쓰고 있는 것으로 보아 김문영과 문충·문품은 같은 문중일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신라는 김문영을 상주정과 서당에 같은 문중의 장군끼리 근무하도록 배치하지 않았을 것이다.

참고로 【도표 7】은 무열왕 7년(660) 7월 9일 황산벌 전투 때 6정급부대와 서당급부대를 지휘하였던 장군들의 성명을 복원한 도표이다. 검고 굵은 한글 글씨는 삼국사기 기록을 인용한 것이다. 검으며 고딕체 한문글씨는 필자가 신라의 인사관행과 전후사정을 분석하여 황산벌 전투 때 전투부대를 지휘하였던 장군들의 성명을 복원(復元)한 것이다.

30) 【도표 6】은 무열왕 7년 기사와 김유신 열전(중) 내용을 바탕으로 서기 660년 7월 9일 황산벌 전투에 참전하였던 인물들을 정리한 것이다.

31) 『삼국사기』 권 제42 열전 제2 김유신(중): 당나라 장군 소정방이 유신·인문·양도 세 사람에게 말하였다. 양도는 앞의 기사와 전후 상황을 고려할 경우 황산벌 전투에 참전한 다음 백제 사비성으로 갔을 것이다.

다음은 양도가 지휘한 전투부대 명칭이다. [A-3] 기사에서 볼 수 있듯이 신라는 무열왕 8년(661) 2월 양도(良圖)를 대당장군으로 임명하였다. 신라는 장군들을 한 부대에서 대략 2년 내지 3년을 근무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인사경향을 고려할 경우 양도는 무열왕 8년 2월을 기준하여 1년 전인 무열왕 7년 7월 9일 황산벌 전투 당시 대당에 근무하였을 것이다. 그러다가 무열왕 8년 2월에 다시 대당장군으로 재임명되었을 것이다.

#### 4. 황산벌전투시 전투부대의 지휘관 및 투입 병력수

##### (1) 지휘관 성명

앞에서 신라가 황산벌 전장에 투입하였던 전투부대를 식별하였다. 그 결과 신라는 당시 대당·상주정·귀당·하주정·서당·낭당·남천정 등 7개 부대와 더불어 사설당(노당·운제당·충당·석투당)을 황산벌 전투장에 투입하였다는 것을 규명하였다.

【도표 7】 황산벌전투 때 신라 6정급 부대와 서당급 부대의 지휘관 성명

구분	大幢	上州停	漢山停	牛首停	河西停	下州停	誓幢	郎幢	貴幢
별칭			新州停	比列忽停 首若停	悉直停	比子伐停 押督州 大耶州	綠衿誓幢	紫衿誓幢	문무왕 13년 (673) 상주정과통합
창설시기	진흥왕 5년(544)	진흥왕 13년(552)	진흥왕 14년(553)	진흥왕 17년(556)	지증왕 6년(505)	진흥왕 16년(555)	진평왕 5년(583)	진평왕 47년(625)	진흥왕 23년 (562) 활동
장군 직위수	4인	4인	3인	2인	2인	3인	2인	2인	4인
660.7.9	유신·文王· 良圖·文類	품일·文忠· 眞王·欽突	軍官·戴世· 高純	述實·述官	文訓·眞純	義服·衆臣	文品·眞福	義光·宗貞	흠춘·眞欽· 天存·竹旨
661.2	품일·문왕 양도·충상	문충·진왕				의복	문품	의광	흠춘·진흠· 天存·竹旨
661.4.19		의복				종경			흠춘·진흠· 천존·죽지
661.7.17	유신·인문· 진주·흠들	품일· 충상·의복	군관· 수세·고순	술실· 달관·문영	문훈·진순	진흠·중신· 자간 <sup>32)</sup>	진복	의광	흠춘·천존· 죽지·천품

32) 『삼국사기』 권 제5 신라본기 제5 무열왕은 7년(660) 11월 22일: 백제 佐平 忠常과 常英, 達率 自簡에게 一古浪의 관등을 주어 總管의 직을 맡겼다.

여기서는 이를 바탕으로 지금까지의 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황산벌 전투 때 신라 6정급 부대와 서당급 부대의 지휘관 성명을 밝히고자 한다.

첫째, 대당을 지휘한 장군 성명이다. 신라 무열왕 7년(660) 7월 9일 황산벌 전투장에서 대당을 지휘하였던 인물은 대장군 김유신이었다. 신라는 대당에 4명의 장군을 두었으므로 대장군 김유신 이외에 3명의 장군이 더 있었을 것이다. [A-3] 기사는 무열왕 8년(661) “2월에 백제의 남은 적병들이 사비성을 공격해 왔으므로 왕이 이찬 품일을 대당장군으로 삼고, 잡찬 문왕, 대아찬 양도, 아찬 충상(忠常) 등으로 [그들] 보좌케 하였다”고 했다.

신라는 통상 장군들을 한 부대에 2년 내지 3년을 근무토록 하였다. 따라서 양도는 무열왕 8년 2월 대당에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1년 전인 7월 9일에도 대당에 근무하고 있었을 것이다.

품일은 황산벌 전장에서 좌장군으로서 상주정을 지휘하였다. 그러나 【도표 7】에서 볼 수 있듯이 661년 2월 상주정에서 대당으로 자리를 옮겼다. 5개월 만에 다시 부대를 옮겼던 특이한 사례다.

충상은 본래 백제의 좌평으로서 황산벌 전투에 참전하여 신라군에게 패배한 후에 상영 등과 함께 포로가 되었다가 전향하여 신라의 일길찬 관등을 받았다. 또한 충상은 648년(의자왕 7)에 백제 장군 8명과 대야성(大耶城) 도독 김품석 부부의 유해를 교환하자는 신라 김유신의 제의를 수용하도록 의자왕을 설득한 경력의 소유자였다. 상충은 661년 2월에는 대당장군이 되어서 대당장군 김품일을 도와 사비성의 구원에 참가하였다.

아울러 독군 김문영은 대장군을 측근에서 보좌하는 독군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므로 황산벌 전투 시 대당에 속해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황산벌 전투 당시(660.7.9) 대당에 소속되어 있던 장군들은 김유신·문왕·양도·문영 등 4인이었다.

둘째, 상주정을 지휘한 장군 성명이다. 상기 분석에서 언급하였듯이 황산벌 전장에서 상주정을 지휘하였던 장군은 김품일이었다. 당시 상주정은 4명의 장군을 운용하고 있었다. [A-3] 기사에서 볼 수 있듯이 신라는 무열왕 8년(661) 2월 문충과 진왕을 상주장군으로 삼았다. 신라는 대부분 장군을 한 부대에 2년 내지 3년 정도 근무토록 하였다. 문충과 진왕은 무열왕 8년

(661년) 2월 상주장군이였으므로 1년 전인 660년 7월 9일의 황산벌 전투에도 상주장군으로 참전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A-5] 기사를 보면 신라는 무열왕 8년(661) 7월 17일 김흠돌을 대당장군으로 임명하였다. 전후사정을 고려할 경우 김흠돌은 황산벌 전투 때 상주정에 소속되어 있다가 이듬해(661) 7월 17일에 새로 대당장군으로 재임명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황산벌 전투에서 상주정을 지휘하였던 장군들은 김품일·문충·진왕·흠돌 등 4인이었다.

셋째, 한산정에 소속된 장군 성명이다. [A-5] 기사에 의하면 신라 무열왕은 8년(661) 7월 17일 군관·수세·고순을 남천주 총관으로 임명하였다. 그런데 여기서 잡고 넘어갈 문제가 있다. 신라는 660년 7월 당시 6정급 부대 7개와 서당급 부대 2개, 10정급 부대 7개를 보유하고 있었다. 그리고 장군 직위를 6정급 부대와 서당급 부대에만 운용하고 있었다.

그런데 삼국사기는 무열왕 8년(661년) 7월 17일 조에서 신라가 10정급 부대였던 남천정에 장군급 총관 3명을 임명하였다고 전하고 있다. 이는 찬술자(撰述者)가 오기(誤記)한 것이다. 한산정에 임명한 장군들을 남천정의 총관으로 오기한 것이다. 전후문맥으로 보면 신라는 군관·수세·고순을 남천주 총관이 아닌 한산주 총관으로 임명하였을 것이다. 신라는 당시 한산정에 장군직위 3개를 운용하고 있었다. 이를 고쳐서 보면, 군관·수세·고순 등 3인은 무열왕 7년(660) 7월 당시에도 한산정에 근무하였을 것이다. 그러다가 이듬해(661) 7월 17일 다시 한산정 장군으로 재임명을 받았을 것이다. 따라서 무열왕 7년(660) 7월 한산정 장군들은 군관·수세·고순 등 3인이었다. 참고로 한산정은 황산벌 전투에 참가하지 않았다.

넷째, 하주정을 지휘한 장군 성명이다. [A-3] 기사에 의하면 신라는 무열왕 8년(661) 2월 의복(義服)을 하주정 장군으로 임명하였다. 신라는 대부분 장군을 한 부대에 2년 내지 3년 정도 근무도록 하였기 때문에 1년 전이었던 660년 7월 9일에도 의복의 근무처는 하주정이었을 것이다. 당시 상주정은 3명의 장군직위를 운용하고 있었다. [A-4] 기사와 [A-5] 기사를 보면 신라는 661년 2월에 종정을 하주정 장군으로 보내고 하주정에 근무하던

의복(義服)을 상주정으로 보냈다.

그런데 [A-5] 기사에 의하면 신라는 661년 7월 17일 진흙·중신·자간을 하주정장군으로 임명하였다. 이 과정에서 신라는 진흙을 귀당장군에서 하주정장군으로 보냈는데 이를 [A-4] 기사와 [A-5]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진흙·중신·자간 등 3인 가운데 중신은 장군의 한 부대 근무기간을 고려할 때, 660년 7월 9일에도 하주정에서 근무하였을 것이다. 하주정에서 계속 근무해 오다가 이듬해(661) 7월 17일 다시 하주정 장군으로 재임명받은 것으로 보인다. 자간(自簡)은 백제사람으로서 달솔(達率)이었다. 자간은 무열왕으로부터 660년 11월 22일 일길찬(一吉澣)의 관등을 받았고 문무왕으로 부터 661년 6월 다시 하주총관을 임명받았다. 따라서 황산벌 전투 당시(660.7.9) 하주정을 지휘하였던 장군들은 의복·중신 등 2명이었다. 삼국사지 제군관 조에 의하면 하주정은 3개의 장군직위를 운용하고 있었는데, 신라는 660년 7월 9일 당시에는 2개의 장군직위를 운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서당을 지휘한 장군 성명이다. 신라는 당시 서당에 2명의 장군직위를 운용하고 있었다. [A-3] 기사를 보면 신라는 무열왕 8년(661) 2월 문품을 서당장군으로 임명하였다. 신라는 대부분 장군을 한 부대에 2년 내지 3년 정도 근무도록 한 사례로 미루어 볼 때 문품도 1년 전인 660년 7월 9일 서당장군으로 근무하였을 것이다.

[A-5] 기사를 보면 신라는 661년 7월 17일 문품 대신에 진복(眞福)을 서당장군으로 임명하였다. 【도표 7】에서 보면 진복이 다른 부대에서 근무한 기록이 전혀 없다. 이를 고려해 볼 때 진복은 무열왕 7년(660) 7월 9일 이래 서당에서 지속 근무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보면 문품과 진복은 모두 함께 660년 7월 9일 서당에 근무했었고 이듬해 7월 17일 다시 서당장군으로 재임명받았을 것이다. 따라서 황산벌에서 서당을 지휘하였던 장군들은 문품과 진복 등 2명이었을 것이다.

여섯째, 낭당을 지휘한 장군 성명이다. 신라는 당시 낭당에 2명의 장군직위를 운용하고 있었다. [A-3] 기사를 보면 신라는 661년 2월 의광(義光)을 낭당장군으로 임명하였다. 신라 장군이 통상 한 부대에 2년 내지 3년 정도

근무한 사례로 볼 때 의광도 1년 전인 660년 7월 9일에도 낭당에 근무하였을 것이다.

[A-4] 기사를 보면 신라는 무열왕 8년(661년) 4월 19일 종정(宗貞)을 하주정장군(下州停將軍)으로 임명하였다. 그런데 【도표 7】을 보면 종정은 전후 사정으로 보아 무열왕 8년 4월 19일 이전에 다른 부대에서 근무하였을 것이다. 종정이 다른 부대에서 근무하였다면 【도표 7】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경우 종정이 근무할 만한 부대는 낭당밖에 없다. 따라서 무열왕 7년(660) 7월 9일 황산벌 전투장에서 낭당을 지휘하였던 장군들은 의광과 종정 등 2명이었다.

일곱째, 귀당을 지휘한 장군 성명이다. [A-4] 기사에 의하면 신라는 무열왕 8년(661) 4월 19일 흠춘·진흠·천존·죽지 등 4명을 귀당장군으로 임명하였다. 당시 귀당은 장군직위 4개를 운용하고 있었다.

[A-7] 6월, 당 나라에 들어가 숙위하던 인문과 유돈 등이 돌아왔다. 그들은 왕에게 “황제가 이미 소정방으로 하여금 35도의 수륙군을 거느리고 고구려를 치게 하면서, 마침내 왕께도 군사를 파견하여 응원하라고 하였습니다. 비록 상중일지라도 황제의 칙명을 어기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라고 말했다. 가을 7월 17일, 김유신을 대장군, 인문·진주·흠돌을 대당 장군, 천존·죽지·천품을 귀당 총관, 품일·충상·의복을 상주 총관, 진흠·중신·자간을 해주 총관, 군관·수세·고순을 남천주 총관, 술실·달관·문영을 수약주 총관, 문훈·진순을 하서주 총관, 진복을 서당 총관, 의광을 낭당 총관, 위지를 계급 대감으로 임명하였다. 8월, 대왕이 모든 장수를 거느리고 시이곡에 도착하여 머물렀다(『삼국사기』 권 제6 신라본기 제6 문무왕 원년).

[A-7] 기사에 의하면 신라는 무열왕 8년 7월 17일에는 흠춘·천존·죽지를 다시 귀당장군으로 재임명하였다. 그리고 진흠을 하서정장군으로 보내고 천품을 대신 귀당장군으로 임명하였다. 전후 사정으로 비추어 보아 황산벌 전투 때 흠춘·진흠·천존·죽지 등 4명은 귀당장군으로 근무하였다

가 무열왕 8년 4월 19일 다시 귀당장군으로 재임명받았을 것이다. 따라서 무열왕 7년(660) 7월 9일 황산벌 전투장에서 귀당을 지휘하였던 장군들은 흠춘·진흠·천존·죽지 등 4명이었다.

## (2) 신라 투입 병력 수

지금까지 신라가 황산벌 전장에 투입하였던 8개 부대들을 규명하였다. 그리고 8개 부대들을 지휘하였던 장군들을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8개 부대들의 총병력수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하여 필자는 신라가 무열왕 7년(660) 7월 9일 당시 보유하고 있던 부대 수, 병력수, 부대편제를 이미 선행연구에서 밝힌 바 있다.<sup>33)</sup> 이를 인용하여 신라가 황산벌 전투 시 투입하였던 8개 부대의 부대명칭, 장군수, 참모수, 당급전투부대수, 부대별 병력 수와 총병력 수를 산출하였다.

【도표 8】 신라가 황산벌에 투입한 부대명칭, 장군·참모수, 당급 전투부대수, 총병력 수

구분	부대명칭	장군수	참모수	당급 전투부대수	병력 수
1	大幢	4명(金庾信·文王·良圖·文穎)	56명	軍節幢 1개, 大匠尺幢 1개, 步騎幢 6개, 黑衣長槍末步幢 30개	4,763명
2	上州停	4명(品日·文忠·眞王·欽突)	46명	군사당 1개, 대장척당 1개, 보기당 4개, 흑의장창말보당 22개	3,753명
3	貴幢	4명(欽春·眞欽·天存·竹旨)	46명	군사당 1개, 대장척당 1개, 보기당 4개, 흑의장창말보당 22개	3,753명
4	下州停	2명(義服·衆臣)	42명	군사당 1개, 대장척당 1개, 보기당 4개, 흑의장창말보당 20개	3,548명
5	誓幢	2명(文品·眞福)	57명	군사당 1개, 대장척당 1개, 보기당 1개, 著衿騎幢 18개, 흑의장창말보당 24개	5,762명
6	郎幢	2명(義光·宗貞)	57명	군사당 1개, 대장척당 1개, 보기당 1개, 著衿騎幢 18개, 흑의장창말보당 20개	5,562명
7	南川停	장군직 없음	5명	三千幢 6개	3,017명
8	四設幢 弩幢 雲梯幢 衝幢 石投幢	장군직 없음		노당 15개	1,500명
				운계당 6개	600명
				총당 12개	1,200명
				석투당 12개	1,200명
합계		18명	309명	幢級부대수 : 257개, 幢級병력 수 : 34313	34,658명

33) 윤일영, 앞 논문, 2007.

【도표 8】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신라가 황산벌 전장에 투입하였던 부대는 전투부대 7개(대당·상주정·귀당·하주정·서당·낭당·남천정)와 공성작전 전문부대였던 사설당 1개(노당·운제당·충당·석투당)였는데 이들 전투부대들을 지휘하였던 장군들은 18명이고 부대의 참모수는 309명이었다.

즉 대당에 소속되어 있던 장군들은 김유신, 문왕, 양도, 문영 등 4인이었다. 상주정에 소속되어 있던 장군들은 김품일·문충·진왕·김흠돌 등 4인이었다. 귀당에 소속되어 있던 장군들은 김흠춘·진흠·천존·죽지 등 4인이었다. 하주정에 소속되어 있던 장군들은 의복, 중신 등 2인이었다. 서당에 소속되어 있던 장군들은 문품·진복 등 2인이었다. 낭당에 소속되어 있던 장군은 의광·종정 등 2인이었다.

그리고 신라가 황산벌 전장에 투입한 당급부대(幢級部隊:100명 급 부대) 수는 257개(도표 8 참조)였다. 따라서 황산벌 전투장에 투입하였던 총 병력 수는 34,658명이었다. 이 가운데 전투부대 병력 수는 30,158명이었고 공성작전을 위한 전투지원 병력 수는 4,500명이었다.

## 5. 결 론

신라가 무열왕 7년(660) 나·당 연합으로 나·제전쟁을 전개할 당시 보유하고 있던 부대 수는 36개였다. 그리고 무열왕 7년(660) 나·제전쟁 때 신라가 백제지역에 투입한 부대 수는 20개 부대였으며, 20개 부대별 병력 수를 산출하면 다음과 같다.

① 대당 4,763명 ② 귀당 3,753명 ③ 상주정 3,753명 ④ 하주정 3,548명  
 ⑤ 서당 5,762명 ⑥ 낭당 5,562명 ⑦ 남천정 3,017명, ⑧ 음리화정 3,017명,  
 ⑨ 삼량화정 3,017명 ⑩ 소삼정 3,017명 ⑪ 이화혜정 3,017명 ⑫ 계금당  
 611명 ⑬ 군사당 1,003명 ⑭ 노당 1,500명 ⑮ 운제당 600명 ⑯ 충당 1,200명

⑰ 석투당 1,200명 ⑱ 사자금당 3,000명 ⑲ 시위부 180명 ⑳ 수군 9,100명 등 20개 부대며, 총 병력수는 60,620명(수군 9,100명+지상병력 51,520명)이었다.

그런데 시위부(侍衛附: 180명)는 왕을 시위 및 호종(扈從)하는 부대였고, 사자금당(師子衿幢: 3,000명)은 왕궁을 경비하는 부대다. 시위부와 사자금당은 무열왕과 함께 금돌성(今突城)에 머물고 있다가 전투부대들이 사비성을 함락시킨 이후에 황산벌을 거쳐 사비성에 도착하였다. 이들 2개 부대를 빼면 순수한 전투부대는 18개 부대다. 18개 부대의 병력은 57,440명(수군 9,100명+지상전투부대병력 48,340명)이었다. 여기서 수군병력을 빼면 순수한 지상군 전투병력은 48,340명이다. 수군 9,100명 가운데 전투병력은 2,602명이었고 비전투병력인 수부(水夫)는 6,498명이었다.<sup>34)</sup> 따라서 신라가 백제지역에 투입한 순수한 전투병력은 50,942명(지상 전투병력 48,340명+수군 전투병력 2602명)이다.

아울러 신라가 백제지역에 투입하였던 20개 부대 중에서 황산벌 전투장(660.7.9)에 투입하였던 전투부대는 ① 대당 ② 상주정 ③ 귀당 ④ 하주정 ⑤ 서당 ⑥ 낭당 ⑦ 남천정 ⑧ 사설당(노당·운제당·충당·석투당) 등 8개 부대였다. 그 중에서 ① 대당 ② 상주정 ③ 귀당 ④ 하주정 ⑤ 서당 ⑥ 낭당을 지휘하였던 장군들은 【도표 9】와 같다.

【도표 9】 황산벌 전투 때 신라 6정급 부대와 서당급부대를 지휘한 신라 장군 성명

구분	大幢	上州停	漢山停	牛首停	河西停	下州停	舊幢	郎幢	貴幢	南川停
장군 직위 수	4인	4인	3인	2인	2인	3인	2인	2인	4인	장군직위 없음
장군 성명	庾信· 문왕· 양도· 문영	품일· 문충· 진왕· 흠돌	군관· 수세· 고순	술실· 달관	문훈· 진순	의복· 중신· 자간	문품· 진복	의광· 종정	흠춘· 진흠· 천존· 죽지	장군직위 없음

34) 윤일영, 앞 논문, 2007, 591쪽.

또한 신라가 황산벌 전투장에 투입하였던 8개 부대들을 지휘한 장군들은 18명(대당 4명, 상주정 4명, 해주정 2명, 서당 2명, 낭당 2명, 귀당 4명)이었다. 그리고 투입한 당급부대(100명급 단위부대) 수는 257개였고 총병력 수는 34,658명이었다. 이 가운데 전투부대 병력은 30,158명(대당·상주정·해주정·서당·낭당·귀당·남천정)이었고, 공성작전을 위한 전투지원 병력은 4,500명(노당·운제당·충당·석투당)이었다.

참고로 백제가 황산벌 전장에 투입한 병력 수는 5,000명이었다.<sup>35)</sup> 계백 장군이 거느렸던 부대의 병력이 5,000명이었다는 것은 이 부대가 신라의 6정급 부대 및 서당급 부대에 해당하는 1개 편제부대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울러 백제가 660년 7월 나·제전쟁 때 동원하였던 전체병력은 60,000명이었다.<sup>36)</sup>

본고에서 필자는 황산벌 전투시 신라군의 지휘관 명칭, 투입부대 수, 전투부대 명칭, 부대편제, 투입 병력 수 등 전투서열을 밝혔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상기 전투서열이외도 많은 군사사 과제를 선행연구를 해 왔는데 이는 황산벌 전투의 실상을 복원하여 오늘날 우리 군이 교훈으로 삼고자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우리 군은 사관학교나 군사교육과정에서 전쟁사, 군사사상, 군사이론을 간부들에게 가르치고 있을 뿐 아니라 모든 군인들은 누구나 전쟁사 학습을 중요한 기본 임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를 태면 군인들에게 전쟁사는 신앙생활을 하는 교인들의 경전과 같이 중요하다. 그런데 오늘날 각국이 군인들에게 교육하는 대부분의 내용은 1900년대 독일의 실증사학자

35) 『삼국사기』 권 제47 열전 제7 계백: “계백은 백제인이다. 벼슬하여 달솔이 되었다. 당나라의 顯慶 5년 경신(의자왕 20 : 660)에 고종이 소정방을 神丘道大總管으로 삼아 군대를 이끌고 바다를 건너 신라와 더불어 백제를 칠 때 계백은 장군이 되어 결사병 5천명을 뽑아 대항하였다.”

36) 『구당서』는 동이열전 백제조에서 “백제에 兵이 6만이 있다. 方은 十郡을 통괄한다.”고 전하고 있다. 이는 백제가 평시 현역 및 예비역을 합하여 동원할 수 있는 병력 수가 60,000명이라는 뜻이다. 백제는 서기 660년 나·당연합군에 대항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국가자원을 총동원하였을 것이다. 백제의 당시 국가위기상황으로 보아 가능한 60,000명을 모두 동원하였을 것이다.

델브뤽(Hans Delbrück)<sup>37)</sup>이 20여년에 걸쳐서 평생사업으로 복원하였던 고대 페르시아 전쟁(마라톤 전투)으로부터 나폴레옹 전쟁(워터루 전투)까지의 서양 전쟁사들이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 군은 우리나라의 고대 전쟁 및 전투사를 복원하여 교육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전쟁 및 전투사를 서양의 마라톤 전투, 칸네 전투 등과 같은 수준으로 복원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필자는 이를 매우 안타깝게 여기던 중 황산벌 전투를 복원해 보기로 하였다. 델브뤽이 언급하였듯이 전투복원은 전쟁사를 전문적으로 공부한 직업군인이나 전투부대를 직접 지휘·운용한 바 있는 지휘관 및 참모, 또는 현재의 군사교리를 체계적으로 수학한 군인들이 해야 할 일들이다. 아니면 델브뤽처럼 20여년 정도 장기간 군인들에게 군사학을 배우면서 이를 토대로 접근할 수 있는 분야이다.

이런 제반 문제들을 감안하여 필자는 황산벌 전투복원을 통하여 미려하나마 군사사에 관심이 있는 장병은 물론 일반 연구자들에게도 연구 방법론을 제시하여 일조하고자 한다. 최근 논산시에서 황산벌 전투를 매년 재현하고 있는데, 전국적 관심을 끌면서 지역 문화 사업에 크게 기여한 바 있다. 당시 필자는 병력수, 부대편제, 무기 및 장비, 전투대형, 진법, 전투배치, 부대기동 등 군사관련 사항을 복원하여 논산시의 복원사업에 일조한 바 있다. 이와 같이 전투의 복원은 군사사 연구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콘텐츠 개발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원고투고일 : 2011. 3. 5, 심사수정일 : 2011. 4. 25, 게재확정일 : 2011. 4. 29.)

주제어 : 황산벌전투, 투입부대, 지휘관, 병력수, 신라부대, 김유신, 대당, 상주정, 하주정, 귀당

37) 민경길 역(델브뤽 저), 『병법사』, 「제1편 고대 그리스와 로마」, “델브뤽 Hans Delbrück의 《정치사적政治史的 측면에서의 병법사兵法史 Geschichte der Kriegskunst in Rahmen der politischen Geschichte》는 서기 1900년에 제1권, 제1권이 발간된 이후 서기 1920년 제IV권까지 발간되어 완성된 책으로서 병법과 전쟁사 연구의 기념비적 작품임과 동시에 실증사학實證史學의 대표 저작 가운데 하나다.”

<ABSTRACT>

A Study on the Battle Order of the *Silla* Forces  
in the Battle of *Hwangsabeol*

- Committed Troops, Commander, and Number of Troops -

Yoon, Ill-young

The Battle of *Hwangsabeol* was the battle at *Hwangsanswon*(黃山原 : *Hwangsansbeol*) between the *Silla* Forces and the *Baekje* Forces on the ninth day of the seventh month in AD 660 by the lunar calendar (August 20 according to the solar calendar) during the 7th ruling year of *King Muyeol*.

However, in spite of a lot of concerns for this combat from the academic circles, the reality of The Battle of *Hwangsabeol* has not been restored yet.

With the aim of restoring The Battle of *Hwangsabeol*, this research is going to distinguish the name of the combat unit *Silla* troops sent in at the *Hwangsansbeol* battlefield, and the name of a commander, and clarify the number of troops by combat unit, and a total number of troops.

In addition, this research analyzed the two examples in which *Silla* sent in to the counter-*Baekje* fighting with the aim of inquiring into the name of the combat unit which *Silla* troops put to the *Hwangsansbeol* battlefield.

The first example is the account that at the time of August in the 46th ruling year of *King Jinpyong*(AD 624) when *Baekje* besieged *Sokham Castle*(速含城), *Bongjam Castle*(烽岑城), *Aengjam Castle*(櫻岑城), and *Kihyeon Castle*(旗懸城), *Silla* put 4 combat units such as *Sangujeong*(上州停) *Guidang*(貴幢), *Hajujeong*(下州停), and *Seodang*(誓幢), etc. The second example is the account that at the time of spring in February in the 8th ruling year of *King Muyeol*(AD 661) when *Baekje* Revival forces attacked *Sabi Castle*(泗泌城), *Silla* reinforced its forces by adding *Daedang*(大幢),

*Nangdang*(郎幢), and *Namcheonjeong*(南川停) to the existing *Sangjujeong Guidang*(貴幢), *Hajujeong*(下州停), and *Seodang*(誓幢). As shown in the second example, the fact that Silla additionally sent in three combat units to the battlefield suggests that Silla might need a lot more combat units in attacking Baekje Sabi Castle than in attacking *Sokham Castle*, *Bongjam Castle*, *Aengjam Castle*, and *Kihyeon Castle*.

Here, it's necessary for us to look at the above-mentioned case that happened in the spring of February during the 8th ruling year of King *Muyeol*(AD 661).

Silla fought a battle against the troops led by general *Gyebaek*(階伯) of *Baekje* at the *Hwangsanbeol* on July 9 by lunar calendar on their march to attack the *Sabi Castle* of *Baekje* in alliance with Tang on July 12 by lunar calendar in the 7th year reign of King *Muyeol*(AD 660). At that time, the size of the *Silla* combat forces might have been similar to that of the combat units which were put when the *Baekje* Revival Forces attacked the *Sabi Castle* in February during the 8th ruling year of King *Muyeol*(AD 661).

The reason for such a guess is that the military objective(the occupation of *Sabi Castle*) of *Silla* troops on July 9(by the lunar calendar) marking the 7th ruling year of King *Muyeol*(AD 660) and that of *Silla* troops in the spring of July 9(by lunar calendar) marking the 8th ruling year of King *Muyeol*(AD 661): in short, premising that *Silla* mobilized their combat units into *Baekje* territory in order to achieve the same military objective(the occupation of *Sabi Castle*) on July 9(by the lunar calendar) marking the 7th ruling year of King *Muyeol*(AD 660) and February by lunar calendar in the 8th ruling year of King *Muyeol*(AD 661), it can be concluded that the size of mobilized troops might be almost the same.

The second reason for such a guess is that if *Silla* tried to attack the *Sabi Castle* in February in the 8th ruling year of King *Muyeol*(AD 661), *Silla* might intend to put experienced combat units which had entered the Battle of *Hwangsanbeol* and the attack on *Sabi Castle* already in July by lunar calendar in the 7th ruling year of King *Muyeol*.

In other words, *Silla* might try to put the combat units once again which had entered the Battle of *Hwangsanbeol* on July 9 by the lunar

calendar in the 7th ruling year of King *Muyeol* and attacked the *Sabi* Castle on July 12 by the lunar calendar, in February in the 8th ruling year of King *Muyeol*. Like this, when making inferences based on the military objective and experience in war entry, it is estimated that the Silla-mobilized combat units which were put into the attack on *Sabi* Castle in February in the 8th ruling year of King *Muyeol*(AD 661) and in July in the 7th ruling year of King *Muyeol*(AD 660) might be the same. Accordingly, the Silla-mobilized combat units into the *Hwangsanbeol* battlefield on July 9 in the 7th ruling year of King *Muyeol*(AD 660) might have been *Daedang*, *Sangjujeong*, *Guidang*, *Hajujeong*, *Seodang*, *Nangdang*, and *Namcheonjeong*, etc.

By the way, here is one more dispatched combat unit we have to consider additionally: that is the mobilization of *Saseoldang*. *Silla* entered the Battle of *Hwangsanbeol* on July 9 by lunar calendar in the 7th ruling year of King *Muyeol*(AD 660) and attacked the *Sabi* Castle on July 9 by lunar calendar in alliance with *Tang*. Then, *Silla* might need a castle-attacking unit to attack the *Sabi* Castle. Due to such necessity, *Silla* troops might definitely be accompanied by a specialized unit for attacking a castle. *Silla*, at the time of July by lunar calendar in the 7th ruling year of King *Muyeol*(AD 660), was possessed of the specialized units for attacking a castle such as *Saseoldang*(四設幢 : *Nodang*弩幢, *Wunjedang*雲梯幢, *Chungdang*衝幢, and *Seoktudang*石投幢). Accordingly, *Silla* troops might be accompanied by *Saseoldang*(四設幢) in time of the Battle of *Hwangsanbeol* and put it into the combat in time of attack on the *Sabi* Castle.

Thus, the number of combat units *Silla* put into the *Hwangsanbeol* battlefield on July 9 by the lunar calendar in the 7th ruling year of King *Muyeol*(AD 660) were 8, including ① *Daedang*(大幢) ② *Sangjujeong*(上州停) ③ *Guidang*(貴幢) ④ *Hajujeong*(下州停) ⑤ *Seodang*(誓幢) ⑥ *Nangdang*(郎幢) ⑦ *Namcheonjeong*(南川停) ⑧ *Saseoldag*(四設幢 : *Nodang*弩幢, *Wunjedang*雲梯幢, *Chungdang*衝幢, *Seoktudang*石投幢).

Meanwhile, this research made an analysis of the personnel records for generals in *Silla* based on the Chronicles of the Three States in order to

clarify the name of the generals who commanded their combat units dispatched into the *Hwangsanbeol* battlefield. As the result of analysis, this research identified 18 generals, who commanded the combat units including ① *Daedang* ② *Sangjujeong* ③ *Guidang* ④ *Hajujeong* ⑤ *Seodang* ⑥ *Nangdang* ⑦ *Namcheonjeong* which were put into the *Hwangsanbeol* battlefield on July 9 by lunar calendar in the 7th ruling year of *King Muyeol*(AD 660), as follows:

In short, there existed four generals belonging to *Daedang* including *Kim Yu-shin*, *Munwang*, *Yangdang*, and *Munyoung*, etc. ; the 4 generals belonging to *Sangjujeong* include *Kim Pum-il*, *Munchung*, *Jinwang*, and *Kim Heum-dol*; the 4 generals belonging to *Guidang* include *Kim Heum-chun*, *Jin-Heum*, *Cheonjon*, and *Juk-Ji*, etc.; the 2 generals belonging to *Hajujeong* include *Uibok*, *Junshin* etc.; the 2 generals belonging to *Seodang* include *Munpum* and *Jinbok*, etc., and the 2 generals belonging to *Nangdang* include *Uikwang*, and *Jongjeong*.

In addition, the number of Dang-grade units (100-soldier grade) which Silla put into the *Hwangsanbeol* battlefield was 257. The total number of military troops which were put into the *Hwangsanbeol* battlefield was 34,658, among which the number of combat support troops was 4,500).

For reference, the number of the combat troops *Baekje* put into the *Hwangsanbeol* battlefield was 5,000. That the number of military unit troops which general *Gyebaek* commanded was 5,000 means that this unit was one military unit corresponding to *6-jeong* grade unit and *Seodang*-grade unit. In addition, total numbers of the troops which *Baekje* mobilized in time of the *Silla-Baekje* War on July by the lunar calendar AD 660 were 60,000.

Key Words : The Battle of *Hwangsanbeol*, Battle Order, Committed Troops, Commander, Number of Troops, *Silla* troops, the *Silla* Forces, *Kim Yu-sin*, *Daedang*, *Sangjujeong*, *Guidang*, *Hajujeong*

# 발해 8위제에 관한 검토\*

강성봉\*\*

1. 머리말
2. 발해의 군제와 8위제
3. 8위제의 성립시기
4. 8위의 편성과 역할
5. 맺음말

## 1. 머리말

발해는 698년에 현재 길림성 돈화시에 있는 동모산에서 건국하였다. 발해는 926년 거란의 침입에 의해 멸망하기까지 약 200여 년 동안 한반도 북부와 만주일대 및 연해주 일대를 포함한 지역에서 동아시아 역사의 한 범주로 자리매김하였다. 발해가 오랜 시간동안 왕조를 유지할 수 있었던 요인 중의 하나는 다름아닌 군사력을 들 수 있다. 발해의 군사는 외침을 대비하고 영토확장을 위한 필수요소임과 동시에 지배통치체제를 유지할 수

---

\* 이 논문은 2006년 2월 성균관대 사학과에서 받은 석사학위 논문 「渤海의 8衛制 研究」의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임.

\*\* 성균관대학교 박사과정 수료

있는 근간이 되기 때문이다. 발해의 군사는 어떠한 조직을 통하여 운영되고 있었을까.

발해는 넓은 영역에서 半農半獵 및 漁撈에 기초한 사회경제 생활을 하였다.<sup>1)</sup> 또한 발해는 지배층인 소수의 고구려인과 피지배층인 여러 말갈족으로 이루어진 다종족 국가의 모습을 지니고 있었다. 발해의 지배층은 안정된 지배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자국의 상황에 맞게 효율적인 군사제도를 수립하려고 노력했다. 발해 군사제도의 실체를 밝히는 작업은 당시의 국가 지배체제나 사회구조를 밝히는 데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발해의 군사제도 연구는 사료부족으로 인하여 간략한 소개만 이루어졌다.<sup>2)</sup> 『신당서』 발해전의 사료를 근거로 8衛<sup>3)</sup> 또는 10衛<sup>4)</sup>가 있었다는 두 견해로 나뉜다. 이것은 사료해석에 있어서 구두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차이가 나타난 것이다. 하지만 발해의 군사조직이 당의 16위와는 달리 왜 10위 또는 8위의 편제로 이루어졌는지, 성립시기와 각 위들의 편성과 역할은 어떠하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발해의 병력충원과 관련해서는 당과 마찬가지로 부병제가 실시되었다는 견해<sup>5)</sup>와 실시되지 않았다는 견해<sup>6)</sup>가 있었다. 전자는 727년 발해가 1차로

- 1) 발해의 자연지리구역은 크게 ①소흥안령과 삼강(송화강, 흑룡강, 우수리강)평원지구 ②장백산지구 ③시호태산지구 ④송눈평원지구로 구분되며, 그에 따른 경제구역은 다시 ①서부의 농업지역 ②중부의 농업 및 어업·수렵구역 ③동부·북부의 어업·수렵 구역의 3가지 형태로 구분되어 설명되기도 한다(王承禮 著·宋基豪 譯, 『발해의 역사』,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1987, pp.103~107).
- 2) 鳥山喜一, 「渤海國王の制度と文化」, 『渤海史上の諸問題』, 風間書房, 1968; 박시형, 「발해의 국가제도」, 『발해사』,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79; 李基白, 「統一新羅와 渤海의 社會」, 『韓國史講座 I - 古代篇』, 一潮閣, 1982; 王承禮 著·宋基豪 譯, 앞의 책, 1987; 崔茂藏, 「渤海의 政治와 對外關係」, 『渤海의 起源과 文化』, 藝文出版社, 1988; 주보돈, 「남북국시대의 지배체제와 정치」, 『한국사』 3, 한길사, 1994; 한규철, 「지방·군사제도」, 『한국사』 10 발해, 국사편찬위원회, 1996; 장국중(사회과학원), 『발해국과 말갈족』, 도서출판 중심, 2001.
- 3) 李基白, 앞의 책, 1982, pp.357~358; 主보돈, 앞의 책, 1994, p.356.
- 4) 金毓敳, 『渤海國志長編』 卷15, 職官考, 1934; 鳥山喜一, 앞의 책, 1968, pp.82~83; 박시형, 앞의 책, 1979, pp.131~134; 王承禮 著·宋基豪 譯, 앞의 책, 1987, pp.147~148; 崔茂藏, 「渤海의 政治와 對外關係」, 『渤海의 起源과 文化』, 藝文出版社, 1988, pp.187~188; 한규철, 앞의 책, 1996, pp.150~152; 姜華昌·沈仲衡, 「試論渤海國의 軍事制度」, 『高句麗渤海研究集成』 4, 1997, pp.314~316; 장국중(사회과학원), 앞의 책, 2001, pp.72~73.

일본에 德周를 果毅都尉로, 舍航을 別將으로 파견한 것에 근거를 둔다.<sup>7)</sup> 이것은 발해의 文武散官 및 職事官의 명칭이 당제와 유사한 점에 근거한 것이다.<sup>8)</sup> 후자는 발해의 지배층과 피지배층 사이에 종족적인 차별이 심했을 것으로 추정하면서 부병제가 실시되지 않았다는 견해이다. 이 견해는 발해의 군사조직을 중앙군과 지방군으로 나누어 중앙군에는 모병제로, 지방군은 村長인 首領을 지휘관으로 하고 촌락민을 兵員으로 하는 병농일치의 군사편제가 이루어졌다고 설명한다.<sup>9)</sup> 그러나 구체적인 모병선발의 기준이 제시되지 않았으며, 발해가 반농·반렵 및 어로의 사회경제적 기반을 지닌 점을 생각한다면 병농일치의 군사편제는 재고될 소지가 있다.

본고에서는 기존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하면서, 발해의 군사제도와 관련한 사료부족의 문제를 비교사적 방법으로 극복하고자 한다. 발해 전후시기에 존재하였던 왕조들과 동시기에 인접하였던 당과의 비교연구를 통하여 발해 군사제도의 면모를 확인할 것이다. 또한 현재의 자국중심적인 해석에 입각하여 발해사 연구가 진행되어온 것을 지양하면서<sup>10)</sup>, 객관적인 발해의 군사상을 그려보고자 한다.

이와 같은 시각으로 10위설과 8위설을 재검토하고, 당·요·여진과의 비교연구를 통하여 발해의 군사조직이 8위로 이루어졌음을 논증하고자 한다.

5) 鳥山喜一, 앞의 책, 1968, p.83; 崔茂藏, 앞의 책, 1988, pp.187~188; 한규철, 앞의 책, 1996, pp.151~152; 姜華昌·沈仲衡, 앞의 논문, 1997, pp.314~316; 鈴木靖民 저, 임상선 편역, 『발해의 首領制』, 『발해사의 이해』, 신서원, 1991, pp.128~129.

6) 李基白, 앞의 책, 1982, p.358.

7) 『續日本紀』卷10, 神龜 5年 正月, “甲寅 天皇禦中宮 高齊德等上其王書并方物 其詞曰……謹遣寧遠將軍郎將高仁義 遊將軍果毅都尉德周 別將舍航等廿四人.”

8) 당은 전국에 折衝府를 두고 이를 부병제의 기본단위로 하여 각 府에 折衝都尉, 左·右果毅都尉, 別將, 兵曹, 參軍 각 1인, 그리고 校尉 5인을 두었다. 『續日本紀』에 나타난 과의 도위·별장은 모두 절충부의 속관이기 때문에 발해가 당과 유사한 부병제를 실시하여, 전국 각지에 절충부를 두고 10위 내지는 8위 아래에 예속시켰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발해의 군사제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당의 무관직 명칭만의 비교보다는 그 내용의 비교분석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9) 李基白, 앞의 책, 1982, pp.356~358.

10) 중국학계에서는 발해의 군제가 당제를 그대로 수용하여 위제와 더불어 부병제를 실시하였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남·북한학계에서는 발해를 한국사의 범주에 넣으려는 선입관에 근거하여 부병제 실시여부를 부정하였다.

또한 8위의 성립시기, 편성과 운영에 관한 분석을 행하여 발해 군사제도의 실체를 파악하고자 한다.

## 2. 발해의 군제와 8위제

발해의 군사제도 연구는 그동안 아래의 사료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A-1. 武員에는 左猛賁衛·右猛賁衛·左熊衛·右熊衛·左羆衛·右羆衛·南左右衛·北左右衛가 있으며 각각 大將軍 1인과 將軍 1인이 있다.(『新唐書』卷219, 列傳144, 渤海)

A-2. 太祖 8년(925) 9월 丙申, 渤海將軍 申德 등 500인이 來投하였다. 庚子, 발해의 禮部卿 大和鈞, 均老司政 大元鈞, 工部卿 大福謨, 左右衛將軍 大審理 등이 백성 100戶를 거느리고 來附하였다.(『高麗史』卷1, 世家1)

A-3. 太和 6년(832) 12월 戊辰, 內養 王宗禹가 渤海에 사신으로 갔다가 돌아왔다. 발해가 左右神策軍과 左右三軍, 그리고 120司를 설치했다고 말하고, 그 모습을 그려서 바쳤다.<sup>11)</sup>(『舊唐書』卷17下, 本紀, 文宗下)

사료 A-1은 발해 군사제도의 편제를 보여준다. 이 사료는 대이진 시기(830~857)에 발해를 다녀갔던 당 行軍司馬 張建章의 견문기인 『渤海國記』 내용 중 일부로 이해되고 있다.<sup>12)</sup> 주목되는 것은 사료 해석에 따라 군사제도의 편제가 8위설과 10위설로 나뉜다는 점이다. 위의 사료 중 좌맹분위·우맹분위·좌옹위·우옹위·좌비위·우비위의 사료해석에는 일치를 보이지만, '남좌우위'와 '북좌우위'의 사료해석에는 차이를 두고 있다. 8위설은 '남

11) 한편, 당에서는 左右衛·左右驍衛·左右武衛·左右威衛·左右領軍衛·左右金吾衛·左右監門衛·左右千牛衛의 16衛와, 左右羽林軍·左右龍武軍·左右新武軍·左右神策軍의 8軍이 있었다(『唐六典』卷24 諸衛; 『新唐書』卷49上, 志39上, 百官4上).

12) 장건장의 墓誌에 따르면 유주절도사의 휘하에 있던 그는 太和 7년(833) 발해에 사신으로 가서 太和 9년(835)에 귀국 후 『渤海國記』를 저술하였다고 한다(河上洋 저·임상선 편역, 『발해의 지방통치체제』, 1991, p.236).

좌우위'와 '북좌우위'를 독립된 하나의 위로 보고 있으며, 10위설은 이를 '남좌위'·'남우위'·'북좌위'·'북우위'로 보고 있다.

사료 A-2는 8위설을 주장하는 근거로 사용되고 있다. 사료 A-1에서 문제가 된 '좌우위'가 독립된 위의 명칭으로 나타나고 있다. 고려로 내투한 대심리의 관직명이 '좌우위장군'이기 때문에 8위설을 주장하는 것이다.<sup>13)</sup> 반면 10위설을 주장하는 입장은 좌우위장군이 좌위장군과 우위장군의 겸임일 개연성도 있고, 다른 사례를 찾을 수 없으므로 '좌우위'가 독립된 위의 명칭이 아니라고 설명한다.<sup>14)</sup> 또한 10위는 연원적으로 5개였으며, 좌맹분위·우맹분위가 맹분위에서 파생된 것으로 파악하여 다른 위들도 본래 하나였던 것이 두 개로 분화된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었다.<sup>15)</sup> 하지만 위의 견해들은 구체적인 분석보다는 사료해석에만 치우친 경향이 있다.

사료 A-3은 그동안 소홀히 취급되었으나 새롭게 해석될 여지가 있어 주목된다. 왕종우는 당 사신으로서 발해에 들어갔다가 太和 6년(832) 12월에 당으로 귀국하였다. 이때 발해의 군사조직에 대한 중요한 사실을 당 조정에 보고하였다. 발해가 좌우신책군과 좌우삼군, 120사 등을 설치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왕종우의 이러한 보고는 사료 A-1에서 보이는 발해 군사조직의 명칭과는 표현방식에 있어 차이가 난다. 이에 대해 사료 A-3은 두 개의 위가 누락된 것이라 하여 10위설을 주장하는 견해도 있었다.<sup>16)</sup> 그러나 왕종우가 당 조정에 발해의 군사조직을 그림까지 그려서 보고하였다고 한다면, 단순한 누락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사료 A-3을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해보자. 먼저 좌우신책군과 좌우삼군에 관하여 당의 제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당에서는 장안성의 大明宮을 호위하는 군영을 左右三軍이라고도 하는데, 좌우신책군은 삼군의 하나이다. 좌우삼군은 北衙三軍이라고도 하는데, 南衙(皇城)에 배치된 16위가 전국에

13) 李基白, 앞의 책, 1982, pp.357~358.

14) 韓圭諷, 앞의 책, 1996, pp.150~151.

15) 이러한 견해는 당의 16위와 관련없이 고구려 5部の 군대와 연관을 짓는 경우라 할 수 있다(장국중, 앞의 책, 2001, pp.72~73).

16) 박시형, 앞의 책, 1979, p.132.

서 번상하는 부병에 의해 편성된 정규군인데 반해, 이는 황제 직속의 근위 군단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다.<sup>17)</sup> 때문에 사료 A-3의 좌우신책군은 발해에서도 존재하였다고 볼 수 있다.<sup>18)</sup> 주의할 점은 발해에서는 당의 경우와는 달리 좌우신책군과 좌우삼군을 별개로 편제한 점이다. 이것은 발해가 당의 군사제도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발해 나름대로의 현실적 상황에 맞추어 편제가 이루어졌음을 짐작할 수 있다.

120사와 관련해서는 발해 황성에 존재하는 중앙관청으로 이해하는 경우와, 120이라는 수가 중앙관청수로는 지나치게 많기 때문에 부정하는 견해가 있다.<sup>19)</sup> 그러나 사료 A-3을 해석함에 있어서 官署의 증설이 아닌 황성의 관아 및 군대배치도로 본다면 120사는 발해의 중앙관청으로 이해된다.<sup>20)</sup>

사료 A-3은 사료 A-1과 어떠한 관련성이 있을까. 두 사료는 830년대의 발해 군사조직을 표현한 기사이다. 그러므로 별개의 군사조직이 아닌 동일한 군사조직을 달리 표현한 것으로 생각된다. 사료 A-3은 왕종우가 발해의 군사조직을 당 조정에 보고함에 있어서 이해하기 쉽도록 당시 당의 군사조직명칭을 차용하여 보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사료 A-3을 통하여 당시 발해의 군사제도에는 좌신책군, 우신책군, 좌삼군, 우삼군과 같이 당 군제의 명칭을 차용한 8개군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사료 A-1, A-3은 수치상 8개의 군사조직으로 일치름을 나타낸다. 사료 A-1의 좌우맹분·웅위·비위를 사료 A-3의 좌우삼군으로, 사료 A-1의 남좌우위, 북좌우위를 사료 A-3의 좌우신책군으로 연결시켜보면, 당시 발해의 군사제도가 8위로 이루어졌음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8위 내지는 8군과의 연관성을 지니는 다음의 사료를 살펴보자.

17) 徐松 撰·愛宕元 譯註, 『唐兩京城坊攷』, 平凡社, 1994, pp.38~39.

18) 이와 관련하여 그 규모가 너무 크고, 사료 A-1의 기록과도 일치하지 않아서 믿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金毓黻, 앞의 책, 職官考, 1934; 王承禮 著·宋基豪 譯, 앞의 책, 1987, p.98) 일반적으로 이를 받아들이고 있다(鳥山喜一, 앞의 책, 1968, pp.82~83; 酒寄雅志, 『渤海國家の史的展開と國際關係』, 『朝鮮史研究會論文集』 16, 1979, p.28; 魏國忠·朱國忱, 『渤海史稿』, 黑龍江人民出版社, 1984, p.76).

19) 金毓黻, 앞의 책, 職官考, 1934; 王承禮 著·宋基豪 譯, 앞의 책, 1987, p.98.

20) 金鍾福, 『渤海 上京城의 성립과 구조』, 『한국의 도성』, 서울학연구소, 2003, pp.131~134.

B. 隋 『北蕃風俗記』에 이르기를, 처음 開皇 연간(581~600)에 粟末靺鞨이 高句麗와 더불어 싸웠으나 이기지 못하여 厥稽部の 우두머리 突地稽라는 자가 忽賜來部, 窟突始部, 悅稽蒙部, 越羽部, 步護賴部, 破奚部, 步步括利部 등 무릇 8部の 勝兵 수천인을 거느리고 扶餘城 서북쪽으로부터 部落을 이끌고 關內(隋)에 투항하였으므로 柳城에 살게 하였다.(『太平寰宇記』 卷71, 河北道 20, 燕州)

사료 B는 발해의 건국 이전에 속말말갈의 추장이었던 돌지계가 고구려의 압박을 피해 집단적으로 수에 투항하였던 기사이다. 고구려는 583년 돌궐이 수에게 격파되자 속말말갈을 공격하였고, 그 결과 고구려에 패한 속말말갈의 일부집단은 수로 망명하였다. 속말말갈의 궤계부 우두머리인 돌지계는 홀사래부, 굴돌시부, 열계몽부, 월우부, 보호뢰부, 파해부, 보보괄리부 등 여타 7부를 포함한 8부를 대표하여 勝兵 수천인을 인솔하여 수에 망명하였다. 6세기 말~7세기 초 속말말갈로 불리는 지역집단 안에는 다수의 부가 존재하였고, 각각의 부에는 군대가 있었다.<sup>21)</sup> 특이한 점은 돌지계가 이끌었던 궤계부를 중심으로 8개의 부가 연합적 행동을 취하는 점이다. 평상시에는 각각의 독립된 부로 존재하다가 유사시에는 8개의 부들이 궤계부를 중심으로 연합적 행동을 취하는 모습은 말갈의 군사편제에 관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 유목 및 수렵사회에서는 목축과 사냥이라는 경제적 특성으로 인하여 부락의 사회편제가 곧바로 군대의 편제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시 속말말갈의 여러 부 중에서 돌지계가 이끌었던 8부는 사회적 편제인 동시에 군대가 징집되기도 하는 군사적 편제가 될 수 있다.<sup>22)</sup> 한편, 거란에 있어서도 8부의 존재는 확인이 된다.

C-1. 顯祖(獻文帝465~471)때에 莫弗紇 何辰을 使者로 보내 奉獻하여 諸

21) 흑수말갈은 16부로 이루어졌다(『舊唐書』 卷199下, 列傳149下, 靺鞨). 따라서 속말말갈 역시 휘하 수십 개의 집단으로 이루어짐을 짐작할 수 있다(盧泰敦, 『渤海 建國의 背景』, 『大丘史學』 19, 1981, p.11).

22) 이와 관련하여 돌지계가 이끌었던 8부는 小部로, 이러한 8부가 연합체로 된 후에는 大部로 파악하는 견해가 있다(權恩姝, 『渤海의 靺鞨服屬과 支配』,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p.9).

國의 末席에 앉아 饗宴을 받았다. (使者가) 돌아가 北魏의 恂容함을 말하니 (契丹人들은) 마음으로부터 (北魏의 德을) 僞모하게 되었다. 그리고 東北의 群狄은 이 말을 듣고 臣服하겠다고 생각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 悉萬丹部, 何大何部, 伏不郁部, 日連部, 羽陵部, 匹黎部, 黎部, 吐六于部 등은 각각 名馬와 文皮를 가지고 天府에 入獻하여 마침내 이들이 朝貢을 구하는 것이 상례가 되었다. (『魏書』 卷100, 列傳88, 契丹)

C-2. (契丹은) 勝兵이 43,000명이며 8部로 나뉘어 구성되었다. 만약 (군사의) 徵發이 있으면 여러 部에서는 모두 반드시 合議를 해야 하므로 독단적으로 擧兵 할 수 없었다. 狩獵은 部別로 행하였으며 戰爭은 각 部들이 함께 수행하였다. (『舊唐書』 卷199下, 列傳149下, 契丹)

사료 C-1은 5세기 후반에 거란의 여러 부족과 북위와의 조공기사이다. 이것을 통하여 거란은 실만단부, 하대하부, 복불옥부, 일련부, 우릉부, 필혈부, 려부, 토육우부의 8부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사료 C-2를 통하여 거란은 유사시에 諸部族長이 모여서 전쟁에 따른 동원 등을 회의를 통해 결정하고 전쟁을 수행하지만, 평상시에는 각 부족이 독립된 단위로 수렵생활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sup>23)</sup>

다음으로 속말말갈 추장 돌지계의 아들인 이근행이 당의 군사와 함께 평양에 이르러 8營을 설치한 다음 사료를 살펴보자.

D. 12년(672) 가을 7월에 唐나라 장수 高侃이 군사 1만 명, 李謹行이 군사 3만 명을 이끌고 일시에 平壤에 이르러 8營을 설치하고 주둔하였다. (『三國史記』 卷7 新羅本紀7, 文武王下)

사료 D는 이근행이 이끈 말갈의 군대가 8영을 설치하였다는 것으로 말갈의 사회편제 및 군사편제에 일면을 알려 준다.<sup>24)</sup> 말갈의 군대는 다른 왕조

23) 김영하는 거란 8부의 이러한 사실을 통하여 유목·수렵사회에서 차지하는 수렵과 전쟁의 상관관계를 강조하였으며, 유목 및 수렵사회에서의 정상적인 경제생활과 지속적인 군사 훈련이 일치하는 현상을 농경사회와는 다른 특징으로 보았다(金瑛河, 『韓國古代社會의 軍事와 政治』,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2, pp.110~135).

24) 참고로 고려 명종 8년(1178)에도 금의 군대가 8개 부대로 편성되어 來屯한 기록이 있어 주목된다(『高麗史』 卷19, 世家19, 明宗 8년(1178), 11月, “是月 金遣八將軍兵來屯義州關外”).

의 지배통치를 받더라도 전투참여에 있어서는 항상 독자적인 부대편성으로 구성되었다. 즉 고구려에서도 말갈의 군사조직을 운영함에 있어서는 고구려인으로 지휘관을 임명한다고 하여도 부대편성은 토착적인 말갈의 군사편제로 전투에 참여시키고 있었다.<sup>25)</sup> 따라서 사료 D에 나타나는 8영은 토착적인 말갈의 군사편제가 그대로 軍營으로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sup>26)</sup>

앞에서 살펴보았던 거란의 8부, 속말말갈의 8부·8영은 발해의 8위와 연관성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발해의 8위는 삼림이 펼쳐져 있는 만주 내지는 연해주 지역의 사회경제적 요인에 의해 형성된 군사조직의 편제로 볼 수 있겠다.<sup>27)</sup> 발해는 말갈의 토착적인 8영 내지는 8부의 요소 위에 당의 위제를 변용하여 군사조직인 8위를 편성하였을 것이다.

25) 李仁哲, 『고대국가의 군사조직과 그 운영』, 『강좌 한국고대사』 2,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2003, pp.324~336.

26) ‘營’과 관련해서는 여진사회의 구성을 통해 그 의미를 살펴볼 수 있다. 즉 삼림에서 수렵 생활을 하던 수렵인이나 강가에서 고기잡이를 하던 어로인은 짐승이나 물고기를 잡기 위해 수시로 이동해야 하므로 한곳에 머무를 수가 없다. 따라서 2·30인이 집단적으로 이동을 하면서 막사를 한곳에 세우고 공동 사냥을 하게 된다. 이러한 영을 “Tatan”이라고 하는데 Tatan은 수렵사회를 형성하는 기초가 된다. 다시 이것이 연합하여 정치적 세력을 가지게 되면 하나의 큰 집단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를 Aiman(部落 또는 部:니루)이라고 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여진의 부락구성은 사냥하고 이동하는 생활의 단위가 되었으며, 이것이 군사적인 기능을 발휘할 때는 곧 군대의 편제로 전환하여 막강한 힘을 발휘할 수가 있었다. 참고로 금의 군사제도인 猛安謀克과 淸의 군사제도인 八旗制의 기원은 위와 같은 수렵사회의 성격과 관련된다(金九鎮, 『13~17C 女眞 社會의 研究 - 金 滅亡 以後 淸 建國 以前까지 女眞社會의 組織을 중심으로 -』,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8, pp.287~291; 徐正欽, 『明末 建州女直과 八旗制의 起源』, 『歷史教育論集』 2, 경북대 사범대학 역사교육과, 1981, 179~182).

27) 그렇다면 유목 및 수렵사회에서의 숫자 8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의문이 간다. 먼저 ‘8方位’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유목사회나 수렵 및 어로사회에서는 수시로 이동하면서 영을 세우게 된다. 따라서 영을 세워 주둔할 경우에는 안정적인 방어체계를 위하여 동·서·남·북의 4方과 4隅인 동북·동남·서북·서남을 포함하는 ‘8방’으로 방어와 경계의 임무를 행하였을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두 번째로는 심양고궁에 나타나는 八旗亭이 참고가 된다. 심양고궁의 건축배치는 東路·中路·西路로 나누어지는데, 동로에는 팔각 지붕으로 이루어진 大政殿과 ‘八’자로 만들어진 양쪽 길 위에 左翼王亭·右翼王亭을 필두로 팔기정이 배치되어 있다. 이 팔기정은 여진족의 수렵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청의 군사제도인 팔기제와 상관되는 것으로 말갈족과 여진족의 상관관계를 고려해 볼 때 시사하는 바가 크다(中國建築藝術全集編輯委員會 編, 『中國建築藝術全集』 3, 中國建築工業出版社, 1999, pp.1~26).

### 3. 8위제의 성립시기

발해의 군사조직인 8위는 언제 성립되었을까. 건국초기에는 전반적인 체제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아 군사제도에 관한 사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2대 무왕대 이후에는 견당사의 파견이 늘어나 당과의 교류가 활발해지고, 이에 따라 당으로부터 무관직을 제수받은 견당사들이 자주 나타난다. 아래의 <표 1>은 무왕대에 당으로 파견된 견당사 중에서 무관직을 제수받은 경우만을 한정하여 작성한 것이다.

<표 1> 武王代 遣唐使의 唐 武官職 授爵

	時 期	遣唐使名	武散官名	職事官名	唐 官品
1	武王 3년(721) 11月 己酉	靺鞨大首領		折衝	正4品上~正5品下
2	武王 4년(722) 11月 辛未	大臣 味勃計		大將軍	正3品
3	武王 6년(724) 2月 己巳	臣 賀作慶	遊擊將軍		從5品下
4	武王 7년(725) 4月 甲子	首領 謁德		果毅	正5品下~從6品下
5	武王 7년(725) 5月	王弟 大昌勃價		左威衛員外將軍	從3品
6	武王 8년(726) 4月 乙丑	長子 大都利行		左武衛大將軍員外置	正3品
7	武王 10년(728) 9月 壬寅	菸夫須計		果毅	正5品下~從6品下
8	武王 11년(729) 2月 甲子	王弟 大胡雅	遊擊將軍		從5品上
9	武王 11년(729) 8月 壬寅	王弟 大琳		中郎將	正4品下
10	武王 12년(730) 2月 戊寅	大首領 智蒙		中郎將	正4品下
11	武王 12년(730) 5月 己酉	烏那達利		果毅	正5品下~從6品下
12	武王 13년(731) 2月 己未			將軍	從3品
13	武王 13년(731) 10月 癸巳	大取珍		果毅	正5品下~從6品下
14	武王 19년(737) 4月 丁未	大臣 公佰計		將軍	從3品
15	武王 19년(737) 8月 戊申	大首領 多蒙固		左武衛將軍	從3品

\* <표 1>은 『冊府元龜』 卷974·975, 外臣部, 褒異1·2를 참조하여 작성하였음.

〈표 1〉을 살펴보면, 무왕대에 당으로부터 무관직을 제수받은 계층은 왕자·왕제·대신·수령 등의 지배층들이다. 이들은 朝貢·賀正·宿衛 등을 목적으로 당에 사신으로 파견되어 당의 정3품에서 종6품에 해당되는 무관직을 제수 받았다.<sup>28)</sup> 당으로부터 수여받은 무관직은 크게 세 가지로 유형화될 수 있다. 첫째, 당의 절충부에 속하는 折衝, 果毅와 같은 직사관을 수여받는 경우이다. 1번의 말갈대수령이 제수 받은 절충은 당에서 정4품상~정5품하의 품계에 해당되고, 4번 수령 알덕이 제수 받은 과의는 당에서 정5품하~종6품하의 품계에 해당된다. 따라서 발해에서 대수령과 수령의 서열이 확인이 되며, 또한 이를 통해 수령층이 견당사로 파견되었을 때에는 대체로 당의 절충부에 속하는 무관직을 제수 받았던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sup>29)</sup> 7, 11, 13번의 견당사들도 발해에서의 정확한 지위는 알 수 없지만 당으로부터 과의라는 직사관을 제수 받았으므로 대체로 수령급의 지위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당의 16위에 속하는 대장군, 장군, 중낭장의 직사관을 제수받은 경우이다. 먼저 5, 6, 15번의 견당사들은 각각 좌위위원의외장군, 좌무위대장군원의외치, 좌무위장군을 당으로부터 제수 받아 좌위위 내지는 좌무위에 속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2, 9, 10, 12, 14번의 경우에는 단지 대장군, 장군, 중낭장의 직사관만을 당으로부터 제수 받아 당의 16위 중에서 어느 위에 속하는지 알 수가 없다. 그러나 대장군, 장군, 중낭장의 직사관을 제수 받은 견당사들은 발해에서 높은 지위에 있는 왕제, 왕자, 대신, 대수령의 신분으로 수령과 단지 臣으로 표현된 지위계층보다는 신분적 우위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세 번째로, 당으로부터 무산관만을 제수 받는 경우이다. 3번의 신 하조경과 8번의 왕제 대호아는 당의 품계로 종5품하에 해당되는 산관만을 제수받았다. 그러나 이에 따른 구체적인 사실은 자세히 알 수가 없다.

28) 〈표 1〉의 5, 6, 8, 9번의 견당사들은 발해에서의 신분이 왕제 및 왕자의 지위에 있는 왕족으로서 조공은 물론 숙위를 행할 목적으로 당에 파견된 것이라 할 수 있다.

29) 다만 무왕 대에 대수령의 지위에 있는 견당사들은 〈표 1〉에 1번의 절충과 같이 당으로부터 절충부에 속하는 최고무관직을 제수 받는 경우도 있지만, 당의 16위에 해당되는 무관직을 제수 받았을 경우에는 10번의 중낭장, 15번의 좌무위장군과 같이 최하 중낭장급 이상의 무관직을 제수 받았다.

위와 같은 사실을 통하여 무왕 대에 당으로부터 무관직을 제수 받은 견당사들은 좌위위, 좌무위와 같은 당의 16위제는 물론, 절충·과의와 같은 부병제의 양상을 인지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견당사들은 발해로 귀국한 후에는 국내의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군사제도를 비롯한 여러 분야의 체제정비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sup>30)</sup> 그것은 이후 당의 선진문물을 토대로 전반적인 제도정비를 실시하는 문왕대의 체제변화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문왕 대에는 무왕의 무력정복이 일단락되면서 내부 통치에 힘을 기울여 국가 기틀을 확립하던 시기이다. 문왕은 문치를 추진하기 위한 일환으로 당의 문물제도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sup>31)</sup> 먼저 중앙정치기구로는 문왕대 후반부터 政堂省, 司賓寺가 견일사의 관직명에 나타난다.<sup>32)</sup> 그것은 적어도 이 시기부터 기존의 관직체계에서 중국식 관직체계로 대체되었음을 보여준다.<sup>33)</sup> 지방제도에 있어서는 府州의 명칭이 문왕대부터 나타나기 시

30) 권덕영은 신라에서도 견당사는 주로 진골과 6두품 출신이 수행하였으며, 견당사의 임무를 수행한 후에는 대부분이 特進되었다고 한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견당사로 활동한 사람 가운데 6명이 왕이 되었고, 그 외 사람들도 각기 골품제의 테두리 내에서 上大等·侍中·兵部令·都督·將軍·執事侍郎·翰林學士 등의 높은 관직을 역임하여 국내정치에 많은 영향력을 행사한 점을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군사제도와 관련해서는 김춘추가 당 태종을 만나기 위하여 수차례 당의 궁성을 출입하는 과정에서 당 衛軍의 형세와 활동을 직접 경험하였고, 그것을 근거로 이후 신라의 侍衛府를 三徒로 개편하는 등의 관제개혁을 실시한 점을 들고 있다(權惠永, 『古代韓中外交史』, 一潮閣, 1997, pp.260~274).

31) 이것은 문왕이 당에 사신을 자주 파견한 데에서도 짐작된다. 그는 57년 동안에 61회 이상 사신을 파견하였고, 많을 때는 한해에 4차례 내지 5차례나 파견하였다(宋基豪, 앞의 책, 1995, p.107).

32) 『續日本紀』 卷24, 天平寶字 6年(762), 10月 丙午朔, “正六位上伊吉連益麻呂等 至自渤海. 其國使紫綬大夫行政堂左允開國男王新福已下廿三人 相隨來朝”; 『續日本紀』 卷34, 寶龜 7年(776) 12月 乙巳, “渤海國遣獻可大夫司賓少令開國男史都蒙等一百八十七人”; 『續日本紀』 卷35, 寶龜 10年(779) 正月 壬寅朔, “天皇禦大極殿受朝 渤海國遣獻可大夫司賓少令張儁壽等朝賀.”

33) 727년 제1차 견일사부터 759년 제5차 사절까지 발해사신들은 무관으로 구성되었다가, 762년 제6차 사절 이후에는 문관으로 바뀌었다. 이때의 문관들은 政堂省, 文籍院, 司賓寺의 관리들이 중심을 이루었다(宋基豪, 앞의 책, 1995, pp.108~114). 또한 문왕 大興 3년(739) 일본에 파견한 발해사신 已闕棄蒙의 관직은 수령이었으나 이후의 발해사신들은 수령의 관직이 사라지고, 문산계 관직들이 파견되었다. 이 사실로 발해의 정치제도의 정비가 문왕대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겠다.

작하였다.<sup>34)</sup> 또한 문왕대에는 수도를 상경과 동경으로 천도하여, 종래의 산성과 평지성이 결합된 고구려식 도성체제에서 당의 장안성과 같은 평지성의 도성체제를 받아들였다.<sup>35)</sup> 이와 같이 발해가 당의 장안성과 유사한 평지성을 건축하였다면, 군사제도에 있어서도 당의 장안성과 비슷한 도성방어체제를 수립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sup>36)</sup>

문왕대의 전반적인 체제 정비 속에는 군사조직의 새로운 편제 또한 포함되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앞에 나왔던 사료 A-1의 『신당서』 발해전 기사는 이미 언급하였듯이 장건장의 『渤海國記』를 바탕으로 기록한 것이다. 장건장은 806년부터 866년까지 60년간 생존하였던 인물로, 833년 당 幽州府의 파견을 받고 발해국을 방문하였다가 835년에 유주로 돌아갔다. 이 시기는 발해 11대왕 대이진 시기에 해당된다. 그러나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장건장이 기록한 군사제도인 8위가 대이진 시기 이전에 이미 존재하였다는 점이다.

34) <표 2> 渤海的 府·州·縣 관런기사

구분 지방제도	기 사	연 대	출 처
府	自南海府吐號浦	文王 40, 777	『續日本紀』卷34, 光仁天皇 寶龜 8年
州	若忽州都督胥要德 行木底州刺史 玄菟州刺史	文王 2, 739 文王 22, 758 文王 23, 759	『續日本紀』卷13, 聖武天皇 天平 11年 『續日本紀』卷21, 淳仁天皇 天平寶字 2年 『續日本紀』卷23, 淳仁天皇 天平寶字 3年
縣	貴國使永寧縣丞王文矩	大霧震 19, 849	『續日本後記』卷19, 仁明天皇 嘉祥 2年

위의 <표 2>를 통하여 부·주는 문왕대에 나타나기 시작하고, 현은 대이진 시기부터 나온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최소한 849년에는 부·주·현 체제가 완비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늦어도 무왕대에는 발해 지방통치구조의 근간이 되는 부주제의 초기형태가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문왕대에 이르러서는 어엿한 제도로서 성립이 되고, 선왕대 이후는 그 제도가 완비되었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김동우, 앞의 글, 1996, pp.321~325).

- 35) 발해의 첫 도읍지였던 舊國은 산성과 평지성이 결합된 형태이다. 즉 동모산에 있는 城山子山城과 평지에 있는 永勝유적이 결합된 방식은 고구려식 방어체계로서 길림성 집안이나 평양 대성산 일대의 고구려 유적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宋基豪, 『발해 城地の 조사와 연구』, 『韓國史論』 19, 국사편찬위원회, 1989, pp.454~456). 반면에 상경성, 중경성, 동경성은 모두 중국식인 평지성 중심의 방어체계를 나타내고 있고, 그 구조면에서 장안성을 본뜨고 있다.
- 36) 상경성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는 김종복, 『발해정치외교사』, 일지사, 2009, pp.231~253 참고.

E. 12月 壬寅日, 渤海國에서 使臣을 보내 方物을 바쳤다. 그 啓에 이르기를, “嵩璘이 아됩니다. ……삼가 慰軍大將軍·左熊衛都將·上柱國·開國子 大昌泰 등을 使臣으로 삼아 당신의 나라에 가게 하였습니다.”(『日本後紀逸文』 卷7, 桓武天皇 延曆 17年(798): 발해 강왕 4年)

사료 E는 강왕 4년(798)에 일본으로 파견된 발해대사 대창태의 관직이 ‘좌옹위 도장’이었음을 알려준다. 문왕의 치세가 792년까지임을 상기해 볼 때, 좌옹위를 비롯한 8위는 최소한 강왕이전에 성립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왜냐하면 문왕 사후에는 국왕 즉위를 둘러싼 내부적 갈등으로 인하여 폐왕(793년 즉위)·성왕(794년 즉위)이 각각 1년간 재위를 하였고, 이후 강왕(795년)이 즉위하였기 때문이다. 폐왕 및 성왕 대에는 새로운 군사조직의 편제를 정비할 수 있는 여지가 없었다. 그러므로 발해의 군사조직인 8위는 대이진대에 성립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문왕대의 전반적인 제도정비와 맞물려 성립되었다고 할 수 있다. 문왕대에는 당의 장안성을 본따 상경성·동경성을 건축하였으므로, 당과 비슷한 궁성 및 경성 방비의 역할을 지닌 군사조직이 이때에 수립되었을 것이다.

## 4. 8위의 편성과 역할

### (1) 8위의 편성

본 장에서는 사료에 나타나는 발해의 무관직을 크게 무왕대, 문왕대, 문왕 이후의 3시기로 나누어 살펴보고, 당의 무관직 품계와의 비교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사료 F는 무왕 10년(728)에 일본에 처음으로 파견된 발해사신에 관한 기사로서, 일본에 전해진 발해국서의 내용과 건일사의 무관직 명칭이 나타나 주목된다.

F. 正月 甲寅, (大武藝의 國書에 이르기를)……武藝가 列國을 주관하고, 諸蕃을 총괄하며, 高句麗의 옛땅을 회복하고 扶餘의 遺俗을 잇게 되었습니다. ……오늘에야 옛날의 禮에 맞추어 善隣을 도모하고자 귀국(일본)에 사신으로 寧遠將軍郎將 高仁義, 遊將軍果毅都尉 德週, 別將捨航 등 24인을 외교 문서와 함께 보내게 되었습니다.(『續日本紀』卷10, 神龜 5년(728: 발해 무왕 10년)

발해사신으로 일본에 파견된 대사는 영원장군낭장 고인의였다. 영원장군은 당의 정5품하의 품계를 지니는 무산관의 명칭이다. 낭장(정5품상)은 당의 16위에 속하는 직사관으로 대장군(정3품), 장군(종3품), 중낭장(정4품하)의 아래에 있는 관직명이다. 한편 덕주는 유장군의 무산관과 과의도위라는 직사관을 지녔다. 당에서는 遊騎將軍(종5품상), 遊擊將軍(종5품하)의 무산관이 있으므로, 유장군은 대체로 이와 비슷한 것으로 볼 수 있다.<sup>37)</sup> 과의도위와 별장과 관련해서는 당의 부병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즉 당에서는 전국의 道에 절충부를 두고, 책임자인 절충도위(정4품상~종5품하) 아래에 좌우의 과의도위(종5품하~종6품하)를 두었다. 별장(정7품하~종7품하)은 좌우과의도위 다음에 해당한다.

무왕대에 견일사가 지니는 직사관의 명칭은 낭장, 과의도위, 별장이었다. 따라서 무왕대에 일본으로 파견된 사신들은 당의 품계로 그 상한이 정5품상, 하한이 종7품하에 해당되어 비교적 낮은 지위를 지녔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과의도위, 별장과 같이 당의 절충부에 속하는 관직명이 나타난 점과, 이러한 직사관의 명칭이 이후에는 나타나지 않는 점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후 문왕 대의 견일사들은 어떠한 양상을 지니는지 살펴보자.

G-1. 12月 戊辰日, 渤海使 己玼蒙 등이 朝政에 拜謁했다. 발해왕의 啓와 方物을 올렸는데, 그 啓에 이르기를, “欽茂가 아뢰입니다.……그래서 若忽州都督 胥要德 등을 使臣으로 삼아 廣業 등을 거느리고 당신의 나라에 가게 하였습니다.……”(『續日本紀』卷13, 聖武天皇 天平 11년(739): 발해 문왕 3년)

37) 유득공 저·송기호 역, 『발해고』, 흥익출판사, 2001, p.77.

G-2. 9月 丁亥日, 小野朝臣田守 등이 渤海로부터 도착하였다. 渤海大使 輔國大將軍 겸 將軍 行木底州刺史 겸 兵署少正<sup>38)</sup> 開國公 揚承慶 이하 23인이 田守를 따라 來朝하니 越前國에 安置하였다(『續日本紀』卷21, 淳仁天皇 天平寶字 2년(758): 발해 문왕 22년).

G-3. 10月 辛亥日, 渤海使臣 輔國大將軍 겸 將軍 玄菟州刺史 겸 押衙官<sup>39)</sup> 開國公 高南申이 따라와서 來朝하였다(『續日本紀』卷22, 淳仁天皇 天平寶字 3년(759): 발해 문왕 23년).

사료 G-1, 2, 3은 공통적으로 약홀주, 목저주, 현토주와 같이 주의 명칭이 두 글자로 이루어졌음을 알려준다. 이것은 『신당서』 발해전에 기록된 62주의 명칭이 한 글자로 이루어진 것과는 차이를 두고 있다.<sup>40)</sup> 이를 놓고서 고구려식 지명을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으나<sup>41)</sup>, 발해가 원활한 대일외교와 무역의 진흥을 위한 외교적 의도에서 고구려의 계승성을 강조한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sup>42)</sup>

문왕 대의 견일사는 행목저주자사, 현토주자사와 같이 일반 주를 관장하는 자사급의 지위계층과 사료 G-1의 '약홀주도독'처럼 도독주를 관할하는 도독급의 지위계층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sup>43)</sup> 또한 사료 G-2, 3의 보국대장군은 당에서 정2품에 해당되는 무산관이고, 장군은 그 소속 위를 알 수 없으나 당의 품계로는 종3품에 해당된다.

문왕 대의 견일사들은 대체로 보국대장군의 무산관과 도독, 자사, 장군과 같은 직사관을 지니고 있었다. 따라서 문왕 시기의 견일사들은 당 품계로

38) 한편 병서소정과 관련해서는 兵署를 兵部 소속 관청으로 비정하여 무기를 관할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少正은 그 職名의 하나였다는 견해(박시형, 1979, 앞의 책, p.133)와 병서소정을 당 衛尉寺 소속의 武器署 丞(종9품하)과 같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金鍾福, 앞의 책, 職官考, 1934).

39) 송기호는 당에서 압아관이 막부 직책의 하나이며, 절도사 營內의 일을 담당한다고 보았다(유득공 저·송기호 역, 앞의 책, 2001, p.82).

40) 예를 들어, 서경압록부에는 神州, 桓州, 豊州, 正州 등 4개의 주가 있었다(『新唐書』卷219, 列傳144, 渤海).

41) 유득공 저·송기호 역, 앞의 책, 2001, p.78.

42) 金鍾福, 앞의 논문, 2002, p.106.

43) 일반적으로 당의 지방관에는 도독(중2품~중3품), 자사(중3품~정4품하), 령(정5품상~종7품하)이 있었다.

그 상한이 정2품, 하한이 정4품하에 해당되어 비교적 높은 지위를 지녔음을 알 수 있다.

문왕 26년(762) 이후부터는 당으로 파견된 발해의 사신들 중에 무산계의 관직명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고, 문산계 관직들이 나타난다. 이러한 사실은 발해의 對日交涉이 군사적인 목적에서 경제적인 목적으로 전환되었음을 의미하며<sup>44)</sup>, 발해의 중앙정치제도가 이 시기에 정비되었다고 할 수 있다.<sup>45)</sup>

762년 이후의 발해 무관직에 관한 검토를 위해서는 아래의 사료들이 참고가 된다.

H-1. 12月 壬寅日, 渤海國에서 使臣을 보내 方物을 바쳤다. 그 啓에 이르기를, “嵩璘이 아됩니다. ……삼가 慰軍大將軍·左熊衛都將·上柱國·開國子 大昌泰 등을 使臣으로 삼아 당신의 나라에 가게 하였습니다.”(『日本後紀逸文』 卷7, 桓武天皇 延曆 17年(798): 발해 강왕 4년)

H-2. 大使인 楊成規과 副使인 李興晟 등 20인이 入京하여 鴻臚館에 안치시켰다. 大使인 政堂省左允·正四品·慰軍大將軍·上鎮將軍 楊成規에게 紫金魚袋를 하사하고, 副使인 右猛賁衛少將·正五品인 李興晟에게도 紫金魚袋를 하사하였다(『日本三代實錄』 卷21, 清和天皇, 貞觀 14년(872): 발해 경왕 3년).

H-3. 太祖 8年(925) 秋 9月 丙申日, 渤海의 將軍인 申德 등 500인이 來投하였다. 庚子日, 渤海의 禮部卿 大和鈞·均老司政 大元鈞·工部卿 大福謨·左右衛將軍 大審理 등이 民 100戶를 거느리고 來附하였다. ……12月 戊子日, 渤海의 左首衛小將 冒豆干·檢校開國男 朴漁 등이 民 1,000戶를 거느리고 來附하였다(『高麗史』 卷1, 世家1).

사료 H-1의 위군대장군은 당에서 보이지 않는 무산관이다. 따라서 발해의 고유한 무산관이라 생각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다.<sup>46)</sup> 좌옹위

44) 石井正敏 저·임상선 편역, 『日本交涉에서의 渤海高句麗繼承國意識』, 『渤海史의 理解』, 신서원, 1991, pp.295~298.

45) 宋基豪, 앞의 책, 1995, pp.108~114.

46) 당에서는 위군대장군이라는 무산관이 존재하지 않지만, 이와 비슷한 漢字의 冠軍大將軍(정3품)은 나타난다. 따라서 위의 사료가 당의 무산관인 위군대장군을 잘못 쓴 오기일 수도 있다.

도장과 관련해서는 대창태가 좌옹위 낭장이라는 오류도 있었다.<sup>47)</sup> ‘도장’의 지위를 놓고서는 장군의 아래로 비정하는 견해가 있었다.<sup>48)</sup> 그러나 ‘도장’이라는 명칭은 당·오대 시기에 있던 관호로써, 정식 관명이 아닌 호칭이었다. 참고로 819년 李師道가 이끌었던 변진은 이사도의 부하인 都知兵馬使 劉悟의 배반으로 멸망하였다. 이때 유오의 직함인 ‘도지병마사’는 ‘都將’ 또는 ‘都頭’라고도 불렸으며, 元代의 胡三省이 “諸部の 軍을 총괄하는 자를 도장이라 한다”라는 언급도 참고가 된다.<sup>49)</sup> 아울러 왕족인 대창태의 훈관이 당에서 제일 상층에 속하는 上柱國(정2품)이었고, 봉작 또한 開國子(정2품~중2품)임을 감안할 때 ‘도장’은 좌옹위를 총괄하는 대장군을 달리 표현한 호칭으로 보여진다.

사료 H-2를 살펴보면, 李興晟은 대현석 시기에 일본으로 파견된 사신으로 右猛賁衛 少將이었으며, 사료 H-3에서 고려로 내투한 冒豆干도 左首衛<sup>50)</sup> 小將이었다. 小將(少將)과 관련해서는 武寧軍에서 ‘軍中小將’의 직함을 지녔던 장보고가 참고된다.<sup>51)</sup> 당시 소장이라는 호칭은 『당육전』과 『신당서』 병지 등에 구체적인 직명으로 보이지 않고, 개별 사례에서만 나타난다. 따라서 소장이 구체적인 직명이었다기보다는 일정한 직위와 직책을 가진 군장들을 폭넓게 가리키는 범칭이었다고 볼 수 있다.<sup>52)</sup> 발해의 좌맹분위 소장 이흥성은 정5품의 품계를 지닌 상급의 무관이었다. 그러므로 각 위의

47) 王承禮著·宋基豪역, 앞의 책, 1987, p.147; 한규철, 앞의 책, 1996, p.151.

48) 박시형, 앞의 책, 1979, p.133.

49) 『資治通鑑』卷239, 唐紀55, 元和 10년 2월, p.7708; 渡邊孝, 「唐五代の都將に關する覺書」(上), 『名古屋大學文學部研究論集』史學38, 1992, pp.3~4; 정병준, 「李師道 蕃鎮의 滅亡에서 張保阜의 登場으로」, 『대의문물교류연구』2(해상왕장보고기념사업회), 청아출판사, 2003, p.206 재인용.

50) 左首衛는 8위중 어느 한 위의 별칭인지, 左熊衛 左羆衛를 잘못 기록한 것인지, 또는 발해 최종기에 새로 생긴 어떤 위인지 확실치 않다(박시형, 앞의 책, 1979, p.133; 유득공저·송기호 역, 앞의 책, 2001, p.94).

51) 소장과 관련해서는 정병준, 앞의 논문, 2003, pp.212~224 참고.

52) 정병준은 대장과 소장을 반드시 직명과 대응된 명칭이었다기 보다는 상황에 따라 사용된 상대적 범칭이었다는 것으로 보았다. 아울러 장보고를 무녕절도사가 직접 지휘하는 牙軍의 소장, 즉 무녕군의 牙將이 되었다고 보았으며, 구체적으로는 副十將 또는 同十將과 같은 소장이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정병준, 앞의 논문, 2003, pp.214~224 참고).

장군 아래에 있던 '郎將'급의 무관직을 지닌 인물들에게 소장이라는 호칭을 사용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사료 H-3의 신덕과 대심리는 각각 장군, 좌우위장군이라는 종3품의 직사관을 지녔다. 하지만 신덕의 경우는 구체적으로 어느 위에 속하였는지는 알 수 없다.

문왕 26년(762) 이후에 나타나는 발해의 무관직은 좌우위 도장, 우맹분위 소장과 같이 8위의 명칭이 직접적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중앙관제, 지방제도 등의 정비가 이루어진 문왕대 후반에 8위제가 성립되었음을 나타낸다. 또한 발해 멸망 직전에 고려로 내투한 좌우위장군 대심리, 좌수위소장 모두간을 통해서 8위제는 멸망 직전까지 유지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발해 군사조직의 규모는 어떠하였을까. 8위와 관련한 직접적인 사료가 나타나지 않으므로 여기에서는 고왕 대조영 시기부터 나타나는 발해의 군사력을 추정토록 하겠다.

I-1. 祚榮은 군세고 용맹스러우며, 用兵을 잘하였으므로 靺鞨의 무리 및 高麗(고구려)의 餘黨이 점점 모여들었다. 聖曆(698~700)연간에 스스로 振國王에 올라 突厥에 使臣을 보내고 通交하였다. 그 땅은 營州 동쪽 2천리 밖에 있어 남쪽은 新羅와 서로 닿고, 越憲靺鞨에서 동북으로 黑水靺鞨까지 地方이 2천리에 編戶가 10여 만이며, 勝兵이 수만 명이다.(『舊唐書』卷199下, 列傳149下, 渤海靺鞨)

I-2. 이에 나라를 세워 스스로 震國王이라 부르며 突厥에 使者를 보내어 通交하였다. 땅은 사방 5천리에 戶가 10여 만이고 勝兵이 수만이며, 書契도 제법 알아서 扶餘·沃沮·弁韓·朝鮮 등 바다 북쪽에 있던 여러나라의 땅을 다 차지하였다. ……아들 武藝가 왕위에 올라 영토를 크게 개척하니 동북의 모든 오랑캐들이 겁을 먹고 그를 섬겼다.(『新唐書』卷219, 列傳144, 渤海)

I-3. (則天)武后때에 契丹이 북쪽 변방을 침공하자, 高句麗의 別種인 大乞乞仲象이 靺鞨의 酋長 乞四比羽와 함께 遼東으로 달아나 高麗(고구려)의 옛 땅을 나누어 임금노릇을 하니, 武后가 장수를 파견하여 乞四比羽를 공격하여 죽였고, 乞乞仲象도 병들어 죽었다. 仲象의 아들 祚榮이 즉위하여 比羽의 民衆을 병합하였는데, 그 무리가 40만 인으로서 挹婁에 응거하여 唐에 신속하였다.(『新五代史』卷74, 四夷附錄, 渤海)

위의 사료들을 통해서 '編戶'의 출현이 주목된다. 편호는 국가의 재정확보를 위한 조세수취는 물론 병력충원에 근간이 되는 국가적 편제단위이다. 따라서 이러한 편호의 증가는 영역의 확장, 인구 증가는 물론 군대수의 증가를 살필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이러한 관점으로 볼 때 사료 I-1과 I-3은 건국초기의 상황으로서 영역은 2천리에 펼쳐져 있으며, 국가에 의해 편제되어진 호가 10여 만이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勝兵이 수만 명이며, 인구가 40여 만으로 이루어졌음을 추정할 수 있다.<sup>53)</sup> 한편 사료 I-2의 사방 5천리는 발해 전성기의 영역을 의미하지만, 호가 10여 만이고 승병이 수만 명으로 기술되어 있는 점은 의구심이 간다. 즉 건국초기에 이미 편호가 10여 만으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영역확장과 인구 증가를 이룬 전성기에 단순히 호가 10여 만으로 구성되었다고 하는 점은 용납되기 쉽지 않으므로 오기로 보여 진다.

발해는 무왕 대무예 시기에 영토를 더욱 확장하였다. 동북의 여러 말갈 지역을 통합하고, 남쪽으로는 신라와 접경을 이루게 되었다.<sup>54)</sup> 그러나 이후 흑수말갈과 당의 밀착에 따라 발해는 대외적인 위기에 처하였고, 내부적으로는 왕위계승을 둘러싼 지배층 내부의 갈등이 증폭되었다.<sup>55)</sup> 발해는 이러한 대내외적인 위기를 돌파하기 위하여 당의 등주를 공격하였다.<sup>56)</sup> 이와 관련하여 당시 발해의 군사력을 짐작해 볼 수 있는 아래의 사료가 있어 주목된다.

J. [大門藝의 발언] 지난날 高麗(고구려)의 全盛期에 强兵 30여 만으로 唐과 맞서서 복종하지 않다가, 唐兵이 한번 덮치매 땅을 쓴 듯이 다 멸망하였습니니다. 오늘날 渤海의 무리가 高句麗의 몇 분의 일도 못되는데, 그런데도 唐을

53) 송기호는 40만 명의 인구수는 동모산에 정착하여 다시 주변의 고구려 유민과 말갈족들이 통합된 뒤의 사정을 나타낸 것으로 본다(宋基豪, 『渤海政治史研究』, 一潮閣, 1995, pp.75~76).

54) 『三國史記』卷8, 新羅本紀 8, 聖德王, 20年 秋7月.

55) 김종복, 앞의 책, 2009, pp.104~133.

56) 『資治通鑑』卷213, 唐紀29, 開元 20年 9月 乙巳; 『舊唐書』卷199下, 渤海靺鞨, 開元 20年; 『舊唐書』卷8, 玄宗本紀, 開元 20年 9月 乙巳.

저버리려 하니, 이 일은 결단코 옳지 못합니다.(『舊唐書』卷199, 列傳149, 渤海靺鞨)

사료 J는 대문예가 그의 형인 무왕에게 당과 맞서지 말 것을 당부하는 기사이다. 이를 통해 고구려 전성기 때의 强兵은 30여 만이었으며, 발해에서는 그 무리가 고구려에 비해 수배로 적었음을 알 수 있다. 『신당서』 발해전에서는 발해의 무리가 고구려에 비하여 3분의 1로 표현되어 있다.<sup>57)</sup> 주목되는 점은 고구려의 군사력이 ‘强兵’ 내지는 ‘士’로 표현되지만 발해에서는 단순히 ‘衆’으로 표현된다는 점이다. 그러나 대문예가 발해의 군사력이 당에 비해 쇠약함을 강조한 것으로 생각한다면 ‘중’은 당시 발해의 병력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sup>58)</sup> 따라서 당시 무왕 대의 군사력은 고구려 강병의 3분의 1인 10만 여명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후 구체적인 발해의 인구수와 총군대수를 알려주는 사료는 존재하지 않지만, 발해 멸망기에 거란의 공격에 대하여 발해의 수도를 방어하는 군사적 행동이 있어 주목된다.

K. 天贊 初에 홀로 騎兵 5백을 거느리고 老相軍 3만을 물리쳤다. 渤海를 함락시키고 東丹國으로 고쳤다.(『遼史』卷73 第3 蕭敵魯條)

사료 K는 遼가 부여부를 함락시키고, 일주일 후에 발해의 수도인 흘한성을 포위하여 老相<sup>59)</sup>이 이끄는 발해 수도방위군대 3만 명을 물리친 기사이다. 즉 발해 멸망직전의 상황을 나타내는 사료로서, 궁성 및 경성을 방비하는 발해 수도방위부대의 규모가 약 3만 명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57) 『新唐書』卷219, 列傳144, 渤海, “昔高麗盛時 士三十萬 抗唐爲敵 可謂雄彊 唐兵一臨 掃地盡矣 今我衆比高麗三之一 王將違之 不可.”

58) 방학봉은 ‘衆’을 고구려의 군사력에 대칭되는 발해의 병력으로 파악한다(방학봉, 「발해유적과 발해군사문제에 관한 연구」, 『발해의 유물유적』 下, 천지출판사, 2003, pp.7~24).

59) ‘老相’을 발해 政堂省의 장관인 大內相으로 비정하는 견해가 있다(金恩國, 「渤海滅亡에 관한 재검토」, 『白山學報』 40, 1992, pp.113~115). 한편 발해가 멸망한지 1개월 후에 渤海老相은 東丹國의 右大相이 되었다는 기사가 있다(『遼史』卷2 天顯 元年, 2月 丙午, “以皇弟迭剌爲左大相 渤海老相爲右大相 渤海司徒大素賢爲左次相 耶律羽之爲右次相”).

그렇다면 발해에서는 이러한 군사조직의 병력충원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궁금해진다. 우선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727년 발해가 덕주를 과의도위로, 사향을 별장으로 일본에 파견하였다. 이로 인해 그동안 발해에서도 부병제가 실시되었을 것이라는 견해들이 대부분이었으나<sup>60)</sup>, 구체적인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여기에서는 당의 부병제도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당의 부병제는 원래 지방에서 행해지던 병제로서 宇文泰의 西魏와 北周에서 시작되어 수·당에 이르러 완비되었다. 전국에 600여개의 절충부를 설치하고 병부의 관할 하에 있었으며, 각 府에는 折衝都尉, 左·右果毅都尉, 別將, 兵曹, 參軍 각 1인, 그리고 校尉 5인을 두었다. 각 절충부에는 다시 많은 支部가 있었으며, 이 지부에서 부병의 징병, 훈련, 동원 등의 병사를 맡아보았다. 부병을 구성하는 인원은 일반적으로 균전제하의 농민들로 충원되었으며, 따라서 이들에 대한 군사훈련은 주로 농한기에 이루어졌다. 기초적인 훈련이 끝나면 경사에 올라가 衛士로서 복무하고 다시 변방으로 전속되어 2년간 근무하였다. 유사시에는 중앙에서 파견되는 行軍總管의 통할 하에 들어가 출정하였다. 부가 설립된 곳에서는 20세가 되면 복역을 시작하였고, 60세가 되면 퇴역하였다. 복무형태를 보면 평상시에는 耕田에 종사하였고 겨울에는 군사훈련을 하도록 되어 있었으며, 필요한 물품은 각 부에서 징발하여 지급자족하였다.<sup>61)</sup>

이와 같은 당의 부병제에 관한 내용을 발해에서는 좀처럼 찾을 수가 어렵다. 하지만 발해의 지방제도와 관련하여 새로운 추측은 가능하다. 발해의 지방제도는 『신당서』 발해전의 기사를 통하여 전성기 때에 5경, 15부, 62주와 3개의 獨奏州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주 아래에는 100여개

60) 鳥山喜一, 앞의 책, 1968, p.83; 崔茂藏, 앞의 책, 1988, pp.187~188; 한규철, 앞의 책, 1996, pp.151~152; 姜華昌·沈仲衡, 앞의 논문, 1997, pp.314~316; 鈴木靖民 저·임상선 편역, 앞의 논문, 1991, pp.128~129; 유득공 저·송기호 역·앞의 책, 2001, p.77.

61) 김성한, 『중국토지제도사연구-중세의 균전제』, 신서원, 1998; 金舞圭, 「唐代 府兵制에 관한 一考察」,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2; 金明姬, 『中國 隋·唐史 研究』, 國學資料院, 1998, pp.73~82.

의 현이 있어, 발해의 지방제도는 부·주·현의 3단계 행정관리체제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 부에는 도독, 주에는 자사, 현에는 현승을 두었는데, 이는 당의 道·府·州·縣제도를 모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병력 충원과 관련하여 발해에서는 절충부가 보이지 않는다. 대신에 발해에서는 5경 15부 62주 중에서 15부와 관련한 군사편제의 모습을 확인 할 수 있다. 이것은 발해의 현실적 상황에 맞추어 지방제도인 15부가 그 역할을 수행하였을 가능성이 있다.<sup>62)</sup> 먼저 아래의 사료를 통하여 군사적 긴장감이 높은 접경지역에 해당하는 부의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자.

- L-1. 扶餘의 옛 땅에는 扶餘府를 삼아서 항상 勁兵을 주둔시켜 契丹을 방어하며, 扶州·仙州 등 2州를 통치한다.(『新唐書』 卷219, 列傳144, 渤海)
- L-2. 上京臨潢府……定霸縣은 본래 扶餘府 強師縣이다. 太祖가 扶餘를 함락시켜 그 백성을 京西로 옮기고, 漢人和 더불어 살게하면서 땅을 나눠주고 농사케 하였다.(『遼史』 권37, 地理志 1, 上京道)

사료 L-1과 L-2는 부여부가 거란도의 경유지이면서 항상 勁兵을 두어 거란에 방비하였음을 알려준다. 또한 부여부 아래에 強師縣이 있는데, 그 명칭으로 보아 발해가 이곳을 군사적 요충지로 생각하였음을 짐작 할 수 있다.<sup>63)</sup> 따라서 부여부는 발해의 15부 중에서 군사적 긴장감이 높은 접경지역에 해당되며, 병력충원에 있어서도 부여부의 군사들은 상경성을 비롯한 5경지역에 번상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충원이 되어 상비군의 군사체제를 갖추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다음으로 15부 중에서 발해의 수도인 상경성을 비롯한 5경지역에 해당되는 부에서는 어떻게 병력이 충원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와 관련하여 5경 중의 하나인 서경 압록부에 관한 아래의 사료가 있어 참조된다.

62) 발해의 15부는 수도를 비롯한 5경을 포함하고 있으며, 발해의 전 지역을 관할 할 수 있는 지방제도의 편제이다. 발해에서는 넓은 영역과 반농·반렵의 사회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자국적 상황에 맞추어 병력충원을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당에서처럼 균전제하의 절충부를 설치하지 않고, 15부의 지방제도를 활용하여 병력동원을 행하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도 있다.

63) 宋基豪, 앞의 책, 1995, p.226.

M. ……이미 降伏한 郡縣에서 다시 叛亂이 일어나 盜賊들이 蜂起하였다. 阿古只是 康默記와 더불어 이들을 토벌하러 나섰는데, 鴨滌府에서 구원하러 온 賊 游騎7천을 만났다. (적의) 氣勢는 매우 높았다. 阿古只是 麾下의 精銳兵을 거느리고 곧바로 그 銳鋒을 꺾어 한번 싸워 물리쳤다. (『遼史』 卷73, 列傳3, 蕭阿古只)

사료 M은 발해의 수도인 상경성이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서경 압록부에서 游騎 7천명의 군사가 구원하지만 실패하였음을 알려준다. 여기에서 압록부에서 구원하러 온 병사는 유기 7천명이므로, 압록부 전체에서는 그 이상의 병사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서경 압록부의 군사들은 수도에 있는 상경성과는 별도로 서경 관할에 있는 부에서 병력을 충원하여 군사방비체제를 갖추었을 것으로 생각된다.<sup>64)</sup> 참고로 당에서는 장안을 중심으로 하는 경기지역에 절충부가 집중적으로 설치되어 있었다.<sup>65)</sup> 발해에서는 자국의 상황에 맞게끔 효율적인 군사적 징발을 행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즉 당의 부병제를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하지 않고 수도를 비롯한 5경 및 경기지역을 중심으로 병력충원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따라서 발해의 15부 중에서 5경의 관할아래 있는 부에서는 부병제가 제한적이거나 이루어져 5경지역에 번상하였을 것으로 유추할 수 있겠다.

한편 오늘날의 연해주 지역에 해당되는 지역인 발해의 동북지역은 당에서처럼 모두 농민으로 존재하지 않고, 수렵·어로에 기인하는 사회경제적 토대를 지니므로 부병제의 실시가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의 사료를 살펴보도록 하자.

64) 한편 남경에서도 구체적인 군사제도의 면모를 확인할 수 없지만 그 군사적 기능을 유추할 수는 있다. 즉 이 곳에 청해토성·북해토성 등으로 불리는 토성이 있으며, 그 주위에는 토성 북쪽 남대천 右岸의 용전리산성과 左岸의 안곡산성, 그리고 평리의 거산성이 확인된다. 또한 이곳에서 활축·창·칼 등이 발굴되었으며, 그 주위에서 군사적 목적으로 많이 이용되는 봉수대도 발견되고 있어 남경의 군사적 기능을 더욱 분명히 해준다 하겠다(한규철, 앞의 책, 1996, p.174).

65) 전국 320개 주 가운데 절충부가 설치된 곳은 90주에 불과하였다. 그것도 長安, 洛陽, 太原에 집중되어 있다. 특히 장안을 둘러싼 關內道에 260여개, 장안을 중심으로 하는 京兆府에 131개가 두어졌다. 결국 부병제도하의 절충부가 경기지역에 50% 이상을 차지한다 할 수 있다(박한제, 『중국역대 수도의 유형과 사회변화』, 『역사와 도시』, 서울대출판부, 2000, pp.49~68).

N. 그 나라는 사방 2천리이며, 州, 縣, 館驛이 없으며, 곳곳에 村里가 있는 데 모두 靺鞨部落이다. 그 백성은 말갈인이 많으며, 土人是 적다. 모두 토인이 촌장이 되었으며, 大村에는 都督, 다음에는 刺史이며, 그 아래는 백성들이 모두 首領이라 부른다. 토지는 극도로 축고, 水田이 마땅치 않다. 자못 풍속에 글을 안다. (『類聚國史』 卷193, 殊俗部 渤海上 延曆 15년(796) 4월 戊子)

사료 N은 발해를 전문한 일본인에 의한 소개 기사로서, 8세기 초에 말갈족이 집단을 이루어 살고 있었던 동북부의 연해주지역의 상황을 알려준다. 이 지역은 首領을 중심으로 부족제가 실시되었던 것을 짐작할 수 있다.<sup>66)</sup> 따라서 이곳은 당의 부병제처럼 균전제하의 농민이 절충부에 속하면서, 징집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그것은 이 지역의 경제적 상황이 농업에 중심을 두지 않고, 수렵·어로에 기반을 두었던 지역이기 때문이다.<sup>67)</sup> 그러므로 이 지역은 발해의 수도인 상경성을 비롯한 5경지역에 해당하는 부, 부여부와 같이 군사적 긴장감이 높은 접경지역에 해당되는 부와는 다른 군사체제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즉 수령을 중심으로 부족자치제가 이루어지며, 평상시에는 일반적인 생활을 영위하다가 유사시에만 병력이 동원되는 군사체제라고 추정할 수 있겠다.

## (2) 8위의 역할

8위의 역할과 관련한 연구는 당의 각 衛·軍을 비교하여 그 임무를 추정하는 김육불의 견해가 있어 주목된다. 김육불은 10위설을 따르고 있지만 각위의 역할을 참고하기에는 무리가 없다. 그의 견해를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66) 金鍾圓, 「渤海의 首領에 대하여—地方 統治 制度와 關聯하여—」, 『全海宗博士華甲記念史學論叢』, 1979.

67) 당에서도 사회·경제적기반이 다른 유목민들을 통치하려 할 때 부병제를 실시하지 않으려 한 점이 주목된다. 당태종은 來降하는 酋長 및 降戶(유목민)들을 당 방위체계에 편입하고자 할 때 부병제에 포함시키지 않으려 했다. 즉 부병제의 형식을 빌리지 않으면서 부병제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변경방위책인 '河南分治論'을 실시하려 했다. 그것은 降戶들을 故土로 돌려보내되 단, 그 부락을 갈라서 권위를 약하게 하고 세력을 나누게 하면서 그들 스스로 邊塞을 지키게 하는 통치방식이다(金羨珉, 「당태종의 對外膨脹政策」, 『황원구선생정년기념논총』, 1995).

〈표 3〉 金毓黻의 10衛에 대한 役割 비정

渤海	唐	役割
左右猛賁衛	左右衛, 左右驍衛, 左右武衛, 左右威衛, 左右領軍衛	宮闕宿衛
左右熊衛 · 左右羆衛	左右金吾衛, 左右監門衛, 左右千牛衛	京城防備
南左右衛 · 北左右衛	左右羽林軍, 左右龍武軍, 左右神策軍	禁軍

먼저, 좌우맹분위는 당의 좌우위, 좌우효위, 좌우무위, 좌우위위, 좌우령군위로 비정하고 있다. 이것은 사료 G를 통하여 좌우위가 궁궐숙위를 행하고, 좌우효위 · 좌우무위 · 좌우위위 · 좌우령군위가 같은 역할로 수행하였음을 근거한 것이다.

G. 左右衛에는 從2品の 上將軍 각 1人和 正三品の 大將軍 각 1人, 從三品の 將軍 각 2인이 있다. 宮禁宿衛를 管掌한다.

左右驍衛에는 上將軍 각 1人, 大將軍 각 1人, 將軍 각 2인이 있다. 左右衛와 같은 일을 맡는다.

左右武衛에는 上將軍 각 1人, 大將軍 각 1人, 將軍 각 2인이 있다. 左右衛와 같은 일을 맡는다.

左右威衛에는 上將軍 각 1人, 大將軍 각 1人, 將軍 각 2인이 있다. 左右衛와 같은 일을 맡는다.

左右領軍衛에는 上將軍 각 1人, 大將軍 각 1人, 將軍 각 2인이 있다. 左右衛와 같은 일을 맡는다. (『新唐書』 卷49上, 志39上, 百官4上 16衛)

좌우맹분위는 '猛賁'이란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날래고 용감한 최정예의 부대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사료서술의 순서상 맨 먼저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부대 규모와 비중도에 있어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관련하여 金代 여진사회의 통치조직이었던 猛安謀克이 발해의 맹분위와 연관성은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sup>68)</sup>

68) 맹안모극제의 기원을 살펴보면 猛安은 원래 여진족사회에서 '千'의 뜻으로서 '千戶' 또는 '千戶長'을 의미했는데 대체로 여진사회에서 전시에 군대 지휘자를 말한다. 그리고 謀克은 '族長', '鄉里', '族'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여진사회에서는 字董이라고 하는 部長에 의하여 다스려지던 지역적 자치집단이 戶를 단위로 하는 행정 및 군사조직단위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즉, 여진족은 300호를 1謀克部, 10謀克部를 1猛安部로 하는 행정단위를 정하고 다시 1謀克部에서 100명의 장정을 징집하여 1謀克軍 그리고 10謀克軍

다음으로 좌우옹위와 좌우비위를 살펴보자. 먼저 ‘熊’·‘羆’와 관련된 사료가 있어 주목된다.

H-1. 거주는 대부분 산과 강가에 의지하며, 우두머리를 大莫弗瞞咄이라고 한다. 그 나라 남쪽에 從太山이 있는데, 중국말로 太皇이라는 뜻이다. 풍속에 (그 산을) 매우 숭상하고 무서워하여 사람들이 산 위에서 소변이나 대변을 보지 못하고, 그 산을 경유하는 사람은 소변이나 대변을 물건에다 담아가지고 간다. 산 위에는 곰(熊), 큰곰(羆), 표범, 이리가 있으나 모두 사람을 해치지 않으며, 사람도 이들을 함부로 죽이지 않는다. (『北史』 卷94 列傳82, 勿吉國)

H-2. 거주는 대부분 산과 강에 의지하며, 우두머리를 大莫弗瞞咄이라고 한다. 東夷 가운데에서는 強國이다. 徒太山이라는 산이 있어 풍속에 (그 산을) 매우 숭상하고 두려워한다. 산 위에는 곰(熊), 큰곰(羆), 표범, 이리 등이 있으나 모두 사람을 해치지 않으며, 사람도 이들을 함부로 죽이지 않는다. (『隋書』 卷81 列傳46, 靺鞨)

사료 H-1, H-2는 같은 내용의 사료로서, 從太山과 徒太山은 태백산의 異音으로 오늘날의 백두산을 의미한다.<sup>69)</sup> 또한 熊·羆의 곰과 豹·狼의 이리 때는 만주지역의 산악지대나 초원지대에서 살던 가장 무서운 짐승으로, 말갈족은 곰과 이리를 그들의 토템으로 섬겨 이들을 죽이지 않고 숭배하였으며, 또 이들 짐승도 사람을 해치지 않았던 사실을 알 수 있다.<sup>70)</sup> 이러한

을 1猛安軍으로 하는 군사제도를 수립하였다(이동복, 『金初 女眞社會의 構成』, 『역사학보』 106집, 역사학회, 1985, pp.224~225). 이러한 제도는 여진족 내지는 그 이전 말갈의 부족제도 및 관습에 영향을 받아 조직되었을 것이다. 때문에 발해 대다수의 주민이 말갈이었던 점을 상기해 본다면 금의 맹안군 명칭이 발해의 군사조직 명칭(左右猛安衛)에서 그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도 있을 수 있겠다.

69) 통구스계의 종족들이 산을 숭배하여 徒太라고 불렀는데, 『新唐書』 黑水靺鞨傳을 보면 ‘太白山’을 徒太山이라고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新唐書』 高句麗傳이나 『通典』 高句麗條에 나오는 白山은 오늘날의 白頭山을 의미한다(國史編纂委員會, 『中國正史朝鮮傳譯註』 2, 1988, pp.208~209).

70) 이와 관련하여 단군신화에서도 곰은 시조모의 역할이었다. 동물은 단순히 인간과 동화되지만 할 뿐 아니라, 동물 자체가 신격화될 수도 있으며, 신에 대한 사자, 인간을 위한 수호령으로 간주되는 경우도 있다(김열규, 『한국의 신화』, 일조각, 1979, p.22). 참고로 이러한 동물에 대한 영혼관은 이미 수렵·채집의 경제단계에서 형성된 것으로 이는 현재에도 전 시베리아에 퍼져 있는 종족들간에 행해지고 있고, 그들이 행하는 사냥제외에 아직까지 그 전통을 보존하고 있다(이정재, 앞의 책, 1997, p.27).

수렵사회의 물길 내지 말갈에서는 꿈을 신성시하는 습속이 존재하였으며, 이것이 발해의 군사제도에 영향을 주어 웅위·비위와 같은 군사조직의 명칭으로 나타난 것은 아닐까 생각할 수 있다.

그렇다면 좌우웅위와 좌우비위의 역할은 어떠하였는지 살펴보자. 이에 대한 직접적인 사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앞에서 살펴본 좌우맹분위는 당의 좌우위, 좌우효위, 좌우무위, 좌우위위, 좌우령군위로 비정되어 궁궐에 숙위를 행하는 정예부대였었다. 따라서 당의 16위 중에서 이를 제외한 좌우금오위·좌우감문위·좌우천우위가 발해의 좌우웅위, 좌우비위에 비정될 수 있다. 그러므로 당의 좌우금오위·좌우감문위·좌우천우위를 참조하여 발해의 좌우웅위, 좌우비위의 역할을 추정코자 한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의 사료들을 살펴보자.

I-1. 左右金吾衛에는 上將軍 각 1人, 大將軍 각 1人, 將軍 각 2人이 있으며 宮中 및 京城의 巡警과 烽候·道路·水草의 일을 管掌한다.(『新唐書』卷49上, 志39上, 百官4上, 16衛)

I-2. 左右監門衛에는 上將軍 각 1人, 大將軍 각 1人, 將軍 각 2人이 있으며, 諸門의 禁衛 및 門籍을 管掌한다.(『新唐書』卷49上, 志39上, 百官4上, 16衛)

I-3. 顯宗 22년(1031) 丁卯일에 渤海監門軍 大道行郎 등 14인이 來投하였다.(『高麗史』卷5, 世家5)

I-4. 德宗 2년(1033) 癸巳일에 渤海監門隊正 奇叱火 등 19인이 來投하였다.(『高麗史』卷5, 世家5)

I-5. 左右千牛衛에는 上將軍 각 1人, 大將軍 각 1人, 將軍 각 2人이 있으며, 侍衛 및 供御와 兵仗을 管掌한다.(『新唐書』卷49上, 志39上, 百官4上 16衛)

사료 I-1은 당의 금오위가 궁성 및 경성을 巡警하였음을 알려준다. 사료 I-2는 당의 감문위가 궁성 내외의 諸門을 禁衛하는 임무를 지닌 것을 알려준다. 사료 I-3, 4는 '발해 감문군', '발해 감문대정'의 표현이 나타난 『고려사』 기사이다. 두 사료는 고려 顯宗 22년(1031)에 고려로 내투한 발해 감문군 대도행랑 등 14인과 德宗 2년(1033)에 내투한 발해 감문대정 기질화

등 19인의 내투관련 기사이다. 이 시기는 발해가 멸망한지 이미 100여 년이 지난 후로서, 발해왕손 大延琳이 興遼國을 세워(1029) 부흥운동을 일으켰지만 실패하였던 바로 직후의 시기였다.<sup>71)</sup> 따라서 위에 나타난 발해 감문군 내지 감문대정의 관직을 지냈던 인물들은 홍료국에 속한 발해유민일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감문군·감문대정의 관직은 遼가 발해인의 회유를 위해 수여했던 관직이라고 볼 수 있으나<sup>72)</sup>, 발해유민들이 그와 같은 관직의 역할을 홍료국에서 수행하였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발해멸망 이전에도 감문위와 같은 역할은 행해졌으리라 추정된다. 사료 I-5는 천우위가 왕을 시위하고 황제에게 진상되는 물건과 병기를 관장하는 일을 맡았음을 알려준다.

지금까지 당의 좌우금오위·좌우감문위·좌우천우위의 역할을 살펴보았다. 발해에서 좌우옹위·좌우비위가 이러한 역할을 하였다는 직접적인 사료는 없지만, 당의 군사제도에 영향을 받았던 발해에서도 당과 비슷한 궁성 및 경성의 방비체제가 존재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sup>73)</sup>

마지막으로 남좌우위·북좌우위를 살펴보겠다. 이들 위에 관한 사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앞서 살펴본 사료 A-1과 A-3을 접목시켜 발해의 남좌우위·북좌우위가 당의 금군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였음을 추정코자 한다.<sup>74)</sup> 우선 사료 A-1의 좌우맹분·옹위·비위가 사료 A-3의 좌우삼군에 해당된다면, 사료 A-1의 남좌우위, 북좌우위는 사료 A-3의 좌우신책군으로

71) 이 시기부터 거란의 관직을 가진 발해인의 내투, 거란·해 등 타민족과 함께 고려로 내투하는 사례 등이 자주 나타난다. 이것은 거란의 지배하에 있던 발해인들이 거란에 불만을 갖고 있던 타민족들을 규합하여 고려로 내투한 사실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하겠다(林玉杰, 『高麗時代의 歸化人 研究』, 國學資料院, 1996, pp.102~106 ; 韓圭哲, 『발해의 대외관계사』, 신서원, 1994, pp.260~267).

72) 朴玉杰, 앞의 책, 1996, p.99.

73) 참고로 발해의 상경성은 당의 장안성을 본따 수축하였으며, 도성의 수비나 관서의 배치도 장안성을 모범으로 삼았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견해가 있다(金鍾福, 앞의 논문, 2003, pp.131~134). 이를 통해 궁성 및 경성을 방비하는 발해의 군사조직들 또한 당의 군사조직 역할과 비슷하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겠다.

74) 당에서의 금군의 역할은 左右羽林軍·左右龍武軍·左右神武軍·左右神策軍 등이 수행하였다(『新唐書』 卷49上, 志39上, 百官4上, 16衛).

연결시킬 수 있다. 당의 신책군은 황제직속의 근위군단의 성격을 지니며 좌우 2개의 부대로 편성되어 있었다.<sup>75)</sup> 따라서 발해에서는 남좌우위와 북좌우위가 그 역할을 수행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맹분위·옹위·비위가 궁성의 숙위를 담당하는 데 대해서, 남북의 좌우위가 각기 남위금병·북위금병을 관장했을 것으로 추측하는 견해가 있다.<sup>76)</sup> 漢代에도 황제의 친위군인 南軍과 北軍이 존재하였다.<sup>77)</sup> 그러므로 발해에서도 친위군의 역할을 수행한 것은 남좌우위·북좌우위가 아닐까 생각된다. 1960년 4월에 상경성에서 발견된 銅印에 새겨진 ‘天門軍’이 이와 관련 있다고 추정하는 견해도 있다.<sup>78)</sup> 이것은 황제를 지키는 군대로서의 의미라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왕 직속의 친위부대인 금군의 성격을 띤다고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때 발해의 남좌우위와 북좌우위가 당의 좌우신책군에 비정되어 국왕의 정예부대인 친위대의 역할을 수행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 5. 맺음말

본고에서는 발해의 군사제도가 8위로 이루어졌음을 논증하였다. 그것은 건국이전 속말말갈의 주장인 돌지계가 이끈 8部, 그의 아들인 이근행이 이끈 8營, 거란 8部 등의 비교연구를 통하여 얻어낸 결과이다. 발해는 말갈의

75) 당의 좌우신책군은 원래 변경을 지키는 지방병이었다. 당 玄宗대(713~756)에 河西節度使 哥舒翰은 황하 九曲에 병사를 주둔시키고 神策軍이라고 했다. 당 숙종대(757~762)에는 衛伯玉을 神策軍節度使로 임명하고 陝州를 지키게 하였다. 대종대(763~779)에 이르러 토번의 침략을 막기 위하여 환관이었던 魚朝思는 신책군을 불러들여 천자의 금군으로 있게 하였다. 당 덕종대(780~805)에 이르러 정식으로 좌우신책군으로 나누었다(李殿福·孫玉良 저·정진현·서길수 옮김, 『渤海國』, 고구려연구회, 1987, pp.40~41).

76) 金毓黻, 앞의 책, 職官考, 1934.

77) 『中國官制大辭典』下, 黑龍江人民出版社, p.984, “漢代屯衛京城的禁衛軍 南軍以衛尉統率 掌管宮城門內的兵 以守衛皇宮 北軍以中尉統率 掌管京城門內的兵 以守衛京城.” 또한 後漢 시대의 도성은 낙양으로서 南宮과 北宮의 구조로 되어 있다(와타나베 신이치로 지음, 문정희·임대희 옮김, 『天空의 玉座』, 신서원, 2002, pp.49~53).

78) 宋基豪, 앞의 책, 1995, p.155.

토착적인 8명 내지는 8부의 요소 위에 당의 위제를 변용하여 군사조직인 8위를 편성하였을 것이다.

8위제의 성립시기는 798년 강왕 대에 나타난 좌옹위도장 대창태를 통하여 적어도 그 이전에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문왕 사후에는 국왕 즉위를 둘러싼 내부적 갈등으로 인하여 폐왕·성왕이 각각 1년간 재위를 하였고, 이후 강왕이 즉위하였다. 폐왕 및 성왕대에는 정치적 혼란으로 새로운 군사조직의 편제를 이룰 수 있는 여지가 없었다. 따라서 전반적인 체제정비가 이루어진 문왕대에 8위가 성립된 것으로 보았다.

8위의 편성과 관련해서는 우선 발해의 무관직을 크게 무왕대, 문왕대, 문왕 이후의 3시기로 나누어 당의 무관직 품계와의 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 무왕대에 건일사가 지니는 직사관의 명칭은 낭장, 과의도위, 별장이었다. 이것은 당 품계로 그 상한이 정5품상, 하한이 종7품하에 해당되어 비교적 낮은 지위를 지녔음을 알 수 있었다. 주목되는 점은 과의도위, 별장과 같이 당의 절충부에 속하는 관직명이 나타난 점과, 이러한 직사관의 명칭이 이후에는 나타나지 않는 점을 들 수 있다. 문왕 대의 건일사들은 대체로 보국대장군의 무산관과 도독, 자사, 장군과 같은 직사관을 지니고 있었다. 이들은 당 품계로 그 상한이 정2품, 하한이 정4품하에 해당되어 비교적 높은 지위를 지녔다. 문왕 26년(762) 이후부터는 당으로 파견된 발해의 사신들 중에 무산계의 관직명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고, 문산계 관직들이 나타난다. 이것은 발해의 대일교섭이 군사적인 목적에서 경제적인 목적으로 전환되었음을 의미하며, 발해의 중앙정치체도가 이 시기에 정비되었다고 할 수 있다. 문왕대 이후부터는 8위에 해당하는 무관직 명칭이 사료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 가운데 '都將'이라는 호칭은 제부의 군을 총괄하는 의미로써 대장군 급에 해당되는 관호로 파악하였다. 또한 小將(少將)이란 호칭 또한 상황에 따라 사용된 상대적 범칭으로써, 본고에서는 정5품의 품계를 지닌 장군 아래에 있던 낭장 급의 인물을 부를 때 사용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발해 군사조직의 규모는 건국초기 勝兵 수만 명과 10여만 편호로 이루어지다가 영역확장과 인구증가에 따라 그 수가 늘어난 것으로 추정하였다.

또한 발해 멸망직전의 상황을 나타내는 老相軍의 존재를 통하여 수도인 상경성을 방어하는 수도방위부대의 군사력이 3만 명으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하였다.

병력충원은 발해의 지방제도인 15부와 당의 부병제를 통해 살펴보았다. 수도를 비롯한 5경 지역에 해당되는 부에서는 군사들이 각 관할 내에서 충원되어 제한적인 부병제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군사적 중요도가 높은 변방의 접경지역에서는 상비군을 주둔시켰을 것으로 보았다. 그 이외의 동북지역에서는 수렵·어로에 해당하는 경제적 상황을 고려할 때 수령을 중심으로 부족자치제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8위의 역할은 당 군제와의 비교연구를 통해서 추정하였다. 좌우맹분위는 궁궐속위를, 좌우옹위·좌우비위는 경성의 방어임무를, 남좌우위·북좌우위는 금군의 역할을 하였음을 추정하였다.

(원고투고일 : 2011. 3. 30, 심사수정일 : 2011. 4. 21, 게재확정일 : 2011. 4. 29.)

주제어 : 발해, 말갈족, 8위, 당, 무왕, 문왕, 좌우맹분위, 좌우옹위, 좌우비위, 남북좌우위

&lt;ABSTRACT&gt;

A Study on the Eight Guards System of *Balhae*

Kang, Sung-bong

*Balhae*(渤海) corresponds to a stretch of the northern part of the Korean Peninsula, the northeast part of China, and the Maritime Province of Russia in modern times. It took on the socioeconomic character based on farming combined with hunting, and fishing. Also, a majority of ruled class was a multiracial country which was composed of *malgal* tribes(靺鞨族). Thus, the rulers of *Balhae* tried to establish the military system based on social and economic structures to secure stable ruling system. Its Eight Guards System, therefore, can be said to have resulted from the social organization based on the economic life of combining farming with hunting which was projected as it was on the military system. A study on the system has important significance in examining the character of the society closely.

Chapter 2 reexamined ten and eight guards theories related to the military system. The result showed that *Balhae* had organized Eight Guards(8衛), the military system, by transforming *Tang's*(唐) guards system besides the elements such as *malgal's* eight native camps or parts.

Chapter 3 analysed the ambassadors dispatched to Tang who secured military officer position from the country in the period of *Muwang*(武王). Also, it explored the system improved overall in central political machinery and local system in the period of *Munwang*(文王). The result revealed that the Eight Guards System, as *Balhae's* military system, was formed in the period.

Chapter 4 first divided *Balhae's* military officer position broadly into the ones of three periods and made a comparative study with *Tang's* military officer position

ranks. Also, it briefly examined relevant historical materials which enabled me to presume the scale of *Balhae's* military organization. Regarding the supplement of military force it explained mainly the Fifteen Parts(15府) as *Balhae's* local system by dividing it into three types of military systems. On the other hand, a comparative study with Tang's military system allowed me to presume the role of the Eight Guards System. The result showed that in *Balhae* the Left and Right Fierce and Great Guards(左右猛賁衛) kept the royal palace all night, that the Left and Right Bear Guards(左右熊衛) and the Left and Right Big Bear Guards(左右羆衛) fulfilled the duty of defending the capital, and that the Southern and Northern Left and Right Guards(南北左右衛) played the role as royal guards.

Key Words : *Balhae*(渤海), *Malgal Tribes*(靺鞨族), Eight Guards(8衛), *Tang's* (唐), *Muwang*(武王), *Munwang*(文王), the Left and Right Fierce and Great Guards(左右猛賁衛), the Left and Right Bear Guards(左右熊衛), the Left and Right Big Bear Guards(左右羆衛), the Southern and Northern Left and Right Guards(南北左右衛)

# 고려 태조대 북방 개척과 鎭頭 파견

이 정 기\*

1. 머리말
2. 태조대 북방개척과 진두의 역할
3. 진두 파견의 특징과 의미
4. 맺음말

## 1. 머리말

태조 왕건은 고려를 건국한 후 국가의 기틀을 세우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였다. 특히 북방개척을 진행하면서 북진정책을 통해 고구려가 통치했던 영토를 계승하고자 하는 의식을 표출하였고, 나아가 來投해 오는 발해 유민과 여진족을 포용하는 동시에 거란의 침입에 대비하고 정국을 안정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태조의 북진정책은 명분적일 뿐만 아니라 고려 영토의 확장이라는 실질적인 측면이 강했다.<sup>1)</sup> 이는 태조는 물론이고 고려

\* 숙명여자대학교 사학과 박사과정 수료

1) 북진정책에 대한 연구성과는 다음과 같다(해당 연구의 인용쪽수는 후발표지에 의거함).

이기백, 「고려의 북진정책과 鎭城」, 『동양학』7, 1977; 『군사』 창간호, 1980.

강성문, 「고려초기의 북방개척에 대한 연구」, 『백산학보』 27, 1983.

방동인, 「고려전기 북진정책의 추이」, 『영토문제연구』2, 1985; 『한국의 국경확정연구』, 일조각, 1997.

의 국경이 확정되는 시점<sup>2)</sup>까지 양계지역이 중요하게 관리되었던 배경이기도 하다.<sup>3)</sup> 이처럼 고려의 북방개척은 태조의 북진정책에 의해 이루어진 괘목할 만한 성과이다. 또한 태조는 북진을 통해 확장된 영토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방어를 위한 성을 쌓고 백성들을 그 지역으로 이주시킨 후 이들이 안전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노력하였다. 태조가 양계에서 북진과 더불어 시행한 다양한 사업들을 통틀어 북방정책이라 부르기로 하겠다.

태조는 북방을 개척하는 과정에서 일련의 일들을 담당할 만한 인물을 선택하여 보내는데, 이들이 바로 진두(鎭頭)이다. 진두에 대한 연구는 태조의 북진정책이나 태조대 진의 설치를 비롯한 군사운영과 함께 간단히 언급하는 정도로만 다루고 있다. 이는 진두에 대한 기록이 매우 소략하고 진두로 파견된 인물에 대해 추측할 만한 단서를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진두에 대한 선행연구는 필자에게 매우 고무적이다. 이 기백은 태조대 북진의 설치에 관한 사례 검토를 통해 築城과 設鎭 이후의 조치로 鎭戍와 徙民의 문제를 제기하였고, 이들 진의 長으로 鎭頭를 설정하였다. 더불어 신라의 패강진의 長이었던 頭上大監의 존재를 통해 某鎭頭上에서 鎭頭가 기원한 것이라 추측하였다.<sup>4)</sup> 내용이 성글지만 진두 칭호에 대한 기원과 진의 長인 진두를 언급한 최초의 연구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변태섭은 이보다 좀 더 상세한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고려초 군사적

2) 고려의 북방지역 국경은 통일신라의 대동강을 지나 태조대의 청천강의 완전 확보, 그리고 성종대 鴨綠江口까지 이르러 완성되었다(강성문, 앞의 논문, 1983; 방동인, 앞의 책, 1997; 송용덕, 「고려전기 국경지역의 주진성편제」, 『한국사론』 51, 서울대, 2005).

3) 국경은 한 국가의 관할권이 미치는 범위로 다른 국가와의 경계선을 의미한다. 고려도 '國境'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는 했으나 이보다 '邊境'이라는 용어가 훨씬 많으며 이밖에 '邊邑'·'郡'·'北鄙' 등의 다양한 용어가 확인된다. 이러한 용어들은 모두 국경을 의미하며, 특히 고려의 국경은 경계선적인 의미보다는 일정한 지역 범위를 지칭하였다. 한반도의 특성상 국경은 이북에만 존재하였으므로, 국경은 물론 양계를 의미하기도 한다. 이 글은 태조대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양계가 편제되기 이전이지만, 이후 시기와의 단절된 인식을 지양하기 위해 양계라는 표현을 썼으나 태조대의 경우에는 북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고려의 국경인식에 대해서는 송용덕, 앞의 논문, 2005, 85~92쪽 참고.

4) 이기백, 「고려 태조 時의 鎭」, 『역사학보』 10, 1958; 『고려병제사연구』, 일조각, 1968, 재수록, 235~238쪽(이후 인용쪽수는 단행본에 한함).

거점인 諸鎭에 진두를 파견하였으며 이들은 이후의 진사(鎭使)나 진장(鎭將)과 같은 행정적 수령이 아닌 군사적 수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하였다. 諸鎭이 행정조직으로 전환하면서 진두도 진사나 진장으로 개편되어 갔다고 주장하였다.<sup>5)</sup> 조인성은 진두가 중앙군에서 파견되어 鎭戍를 맡고 있었고 진의 설치와 함께 이루어진 徙民을 관리하기 위해 諸鎭의 행정을 맡았을 것이지만 역시 국방의 임무가 더 중요하였다고 하였다.<sup>6)</sup> 이밖에 이러한 연구에 도움을 받아 진두는 사민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민의 정착과 안정을 위해 파견되었고 鎭戍뿐만 아니라 민사행정 업무도 담당하였다는 소견이 있으나<sup>7)</sup> 이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를 진행하지 못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태조의 북진으로 대표되는 북방개척과 그 과정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파견된 진두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특히, '태조대 諸鎭에 진두가 파견되었다'는 정도의 기존 연구에서 벗어나 진두의 파견시기, 파견지역, 파견인물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태조대 진두의 실체에 접근해 보고자 한다.

## 2. 태조대 북방개척과 진두의 역할

태조는 고려를 건국하기 이전부터 변경의 일(邊事)에 대해 상당한 조예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태봉시기 궁예의 변경관리에 대한 물음에 변경을 안정시키고 국경을 개척할 방책(安邊拓境之策)을 제시하였는데, 좌우의 사람들이 눈여겨 볼 정도로 탁월한 계책이었던 듯하다.<sup>8)</sup> 이후 태조는 고려를 건국하자마자 蕃人들의 邊邑침략에 대비하기 위해 황폐화되었던 고

5) 변태섭, 「고려양계의 지배조직」, 『고려정치제도사연구』, 1971, 196~197쪽.

6) 조인성, 「고려 양계의 국방체제」, 『고려군제사』, 육군본부, 1983, 135~138쪽.

7) 이정기, 「고려시기 양계 병마사의 성립과 기능」, 『한국중세사연구』24, 2008, 145쪽.

8) 『고려사』 권1, 태조1, 天復三年(903), “是歲良州帥金忍訓告急裔令太祖往救. 及還裔問邊事太祖陳安邊拓境之策左右皆屬目裔亦奇之進階爲闕祭.”

구려의 옛 수도인 평양을 정비하여 백성을 이주시키고 藩屏을 굳게 하고 평양을 대도호(大都護)로 삼았다.<sup>9)</sup> 태봉(泰封)의 북쪽 경계가 청천강까지였으나<sup>10)</sup> 그 이남 지역인 평양도 황폐화되어 고려 건국 후에도 邊扈의 침략이 잦았던 것을 알 수 있다. 아마도 평양에서 청천강까지의 영역은 실제적인 국경의 역할을 하지 못하였던 듯하다. 따라서 태조가 건국과 동시에 폐허가 된 평양을 정비하고 백성을 옮겨 정착케 한 일은 실질적인 국토회복과 북방개척의 첫 단계를 밟은 중요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알려진 대로 평양을 중심으로 한 북방개척은 옛 고구려 땅을 회복하고자 했던 태조의 생각이 반영된 것이다.<sup>11)</sup>

태조가 국초에 가졌던 북방개척의 의지는 재위 기간 내내 끊임없이 북계를 순행하는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더구나 발해가 멸망한 이후에는 이러한 의지가 더욱 강하여져서 옛 고구려 땅을 회복할 마음을 굳혔고 역시 그 교두보로서의 역할을 서경<sup>12)</sup>이 담당하였다. 이는 태조가 북계를 순행할 때 이전과는 달리 먼저 서경에 간 후 주변 주진을 둘러보는 형세를 띠었다는 것에서 알 수 있다.<sup>13)</sup> 이러한 태조의 북계 순행은 구체적인 사업으로 진행되어 가는데, 이것이 곧 축성과 설진이다.

다음 <표 1>은 태조의 재위기간 동안 북방지역에서 일어났던 일 중 북계

9) 『고려사』 권1, 태조 원년 9월 丙申.

10) 방동인, 앞의 책, 1997. 『海東繹史續』 권10, 地理考, 高麗1, 西北界沿革, “西北界考 今平安道也 …… 大氏之衰 弓裔始取溟西十三鎮 及高麗興 因弓裔舊疆 以安北府爲界 清川江以北爲女眞所據 後入高麗.”

11) 『고려사』 권2, 태조2, 태조 26년 李齊賢贊, “我太祖卽位之後 金博未賓甄萱未虜而屢幸西都親巡北鄙 其意亦以東明舊壤爲吾家青甌必席卷而有之 豈止操雞搏鴨而已哉.” 고려가 북방 개척을 위해 그 전진기지로써 평양(서경)을 부각하여 이를 중심으로 개척을 추진하였으며, 이 지역에 도호부를 설치하여 거점으로 인식하였다는 지적은 이미 있었다(신안식, 「고려 전기의 북방정책과 성곽체제」, 『역사교육』 89, 2004; 윤경진, 「고려 태조대 도호부 설치의 추이와 운영」, 『군사』 64, 2007).

12) 『고려사』 권58, 지리3, 西京留守官, “太祖元年 以平壤荒廢量徙塩白黃海鳳諸州民以實之爲大都護府尋爲西京.”라 하여 태조 원년에 평양을 정비한 후 얼마 후 서경이 되었다고 하였다. 서경은 태조 4년에 처음 보인다.

13) <표 1>에서 北界 巡行을 정리한 부분을 보면, 태조 9, 12, 14, 17, 18년에 태조가 친히 서경에 행차한 후 주변 주진을 순행하였다고 하였다.

순행, 축성, 진두의 파견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것이며, 이것들은 태조가 북방에 쏟았던 열정의 산물들이라 하겠다.

〈표 1〉 태조대 북방개척과 관련한 巡行·築城·鎭頭파견

재위년	北界 巡行 <sup>14)</sup>	築城 <sup>15)</sup>	鎭頭 파견
2년		龍岡縣/平壤	
3년	是歲 巡幸北界	咸從/安北城/鶻巖	
4년	九月己亥 遣郎中撰行往巡邊郡存撫百姓 十月壬申 幸西京	雲南縣	
5년	是歲...幸西京新置官府吏始築在城	西京在城	
8년	三月 幸西京 王巡北界移築鎭國城(城堡條)	成州	
9년	十二月癸未 幸西京親行齋祭巡歷州鎭 <sup>16)</sup>		
11년	是歲 王巡北界移築鎭國城(鎭戍條) 是歲 巡幸北界	安北府/鎭國城	安北府/通德鎭(肅州)
12년	九月乙巳 幸西京歷巡州鎭	安定鎭/永清鎭/安水鎭/興德鎭	安定鎭/安水鎭/興德鎭
13년	五月壬辰 幸西京 六月庚子 至自西京	馬山/安北府	馬山
14년	十一月辛亥 幸西京親行齋祭歷巡州鎭		剛德鎭(成州)
15년	七月 遣正胤武巡北邊		
17년	一月甲辰 幸西京歷巡北鎭	連州/通海鎭	通海鎭
18년	九月甲午 幸西京歷巡黃海州	肅州	
20년		順州	
21년		永清縣/陽岳鎭/西京羅城/龍岡/平原	
22년		肅州/大安州	
23년		殷州城	

〈표 1〉에 정리한 것처럼 태조는 북계를 순행하면서 성을 쌓고 진을 설치하는 것을 통해 1차적으로는 새로운 영역의 확보와 방어에 힘을 기울였다. 특히, 태조는 고려를 건국한 후 황폐화된 평양을 재정비하고 그 이듬해에

14) 『고려사』 권1·2, 태조1·2에서 태조의 북계 순행 기록을 정리한 것이다. 출전이 「세가」가 아닌 경우에만 ( )에 출전을 표기하였다.

15) 최종석, 「고려시대 '治所城'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07, 248~250쪽 〈부표 1〉을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16) 고려시대 양계지역은 태조대의 북진정책으로 인해 이미 남도(5도)와 분리되었는데, 지방 행정단위로도 남도의 '州縣'과 달리 양계는 '州鎭'이라 칭하였다(이기백, 「고려 양계의 주진군」, 앞의 책, 1968, 240~243쪽). 곧 주진을 순행하였다는 것은 양계지역을 순행하였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평양에 성을 쌓았으며 통일을 완수하는 태조 18년까지 거의 매년 친히 서경에 행차하였다. 서경을 거점으로 한 북방개척의 일단을 보여주는 것인데, 이는 또한 축성의 사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고려는 태조 즉위 초부터 북방지역, 특히 서북 방면으로 꾸준히 축성을 진행하면서 진을 설치해 나갔다.<sup>17)</sup> 이는 물론 고려의 영토 확장 과정이며 태조의 북방개척이 표명되는 실체이다. 태조대 북방지역의 축성은 축성되는 순서에서 특별한 규칙성을 발견할 수는 없다. 그러나 대동강의 서경과 청천강의 안북부를 기본 축으로 하여 이 축을 중심으로 한 주변부에, 특히 서경을 거점으로 하여 비교적 빠르게 축성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sup>18)</sup> 따라서 축성된 지역은 대동강 이북에서 청천강 이남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sup>19)</sup> 진을 설치하는 방법에는 독립된 성을 국가 군대의 주둔지인 진으로 개편하는 경우와 새로운 성을 쌓은 후 진을 설치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sup>20)</sup> 어쨌든 築城과 진의 설치는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諸鎭뿐만 아니라 諸州의 경우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런데 <표 1>의 축성 사례를 보면, 동일한 지역에 복수의 축성이 이루어진 경우가 있다. 이는 평양이나 안북의 축성처럼 해당 지역의 위상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축성이 이루어진 경우도 있지만, 성의 증축이나 수리도 포함하는 것이 아닐까 한

17) 고려시기 양계지역의 축성은 총 149건이며, 이중 태조대에 축성된 사례가 29건으로 전체의 1/5을 차지한다. 또한 태조대 전체 축성 사례가 35건이므로 80%가 양계지역에 축성된 셈이며, 모두 서북면에 속한다. 양계지역의 축성건수는 최종석, 앞의 논문, <부표 1>에서 計數한 것임.

18) 윤경진은 일반적으로 축성을 통한 영토 확장은 두 가지 형태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기존 영역에서 가까운 곳에 거점을 확보한 후 특정 방향으로 축성을 진행하는 것과 다른 하나는 먼저 깊이 진출하여 거점을 확보한 후 그 사이에 추가로 축성하여 영역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 중 태조대의 경우에는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영토 개척 과정을 반영한 전자의 형식을 띠었다고 판단하였다(윤경진, 『고려 태조-광종대 북방개척과 州鎭 설치』, 『규장각』37, 2010, 254쪽). 그러나 청천강의 안북에 태조 3년에 이미 성을 쌓았다는 기록(『고려사절요』 권1, 태조 3년 9월)이 있으므로, 앞서 제시된 두 가지 형태가 모두 어느 정도 활용되었다고 생각한다. 물론 윤경진의 이 주장은 태조 3년에 축성한 안북을 골암성, 곧 성주에 비정하였기 때문이다.

19) 태조대 축성 지역과 시기는 다음 장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 이기백, 앞의 책, 1968, 236~237쪽.

다.<sup>21)</sup> 따라서 이런 경우 처음 축성이 이루어졌을 때에 진이 설치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옳겠다.

이처럼 태조대 북방개척은 서경을 거점으로 하여 북쪽 방면으로 진행되었는데, 북계 순행과 축성, 진의 설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데 <표 1>에서 보면 후삼국통일이 마무리되는 태조 18년 이후에는 태조의 북계 순행도, 진두의 과건도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다. 통일 이후 축성은 9건의 사례가 있는데, 이를 검토해 본 결과 이 중 順州·陽岳鎭의 2건을 제외하고 永淸縣·西京·龍岡·平原·肅州·太安州·殷州는 모두 이미 이전에 축성되었다. 태조는 후삼국통일을 성취한 동시에 북방을 개척하던 이전의 노력들을 마무리한 것으로 보인다. 태조에게 북방개척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일까.

고려를 건국한 후 태조에게 가장 시급한 사안은 수도를 정비하고 후백제와의 전투에서 수도를 방어하여 국위를 보존하는 데에 있었다고 생각한다. 태조 2년 송악(松嶽)에 수도를 정하고 그 해 10월에 평양에 성을 쌓은 것은 수도 개경을 방어하기 위함이었다.<sup>22)</sup> 이미 평양 축성을 위해 건국하자마자 폐허로 변한 평양을 재정비하였다. 앞서 <표 1>을 통해 설명한 대로 매년 평양을 순행한 것이나 평양과 안북부를 중심으로 축성이 이루어진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조가 끊임없이 북방개척에 관심을 보이면서 북계로의 순행과 축성을 단행한 이유는 후백제와의 전쟁에서 승산이 없을 경우 최후의 보루로 북계를 염두에 두었기 때

21) 고려의 鎭城은 낮은 산과 평지를 함께 연결하여 쌓은 성이었다(이기백, 앞의 논문, 1980, 53~54쪽). 태조가 주진을 순행하면서 城柵을 수리하고 완성하는 데에〔修完〕백성들의 勞役에 힘쓰고 있다는 기록이 있다. 이 글의 각주 29)에서 해당 기록을 참고할 수 있다. 이처럼 동일한 지역에 중복된 축성을 오류로 판단하기에는 그러한 사례가 많을 뿐더러 축성시기의 차이에서 어떠한 규칙성을 발견할 수 없어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22) 신안식은 양계의 성곽체계가 서경을 중심으로 수도 개경을 방어하는 것이 최우선이었다고 하였다(신안식, 「고려시대 양계의 성곽과 그 특징」, 『군사』 66, 2008, 8쪽). 서경 개척은 수도 개경을 방어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서경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양계의 성곽체제도 기본적으로는 수도 방어에 목적이 있는 것은 맞다. 대신 통일전쟁기에 이루어졌던 축성은 다른 의미를 포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문이며, 더 나아가 최종적으로 통일전쟁에서 패배했을 때 고려의 영토와 백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였을 것이다.<sup>23)</sup> 비록 통일 후에도 축성은 계속 되지만 이 또한 모두 청천강 이남에 한정되어 있다는 것도 태조대 북방개척이 계속적인 북진을 위한 조치가 아니었다는 하나의 반증이 된다.<sup>24)</sup>

그러므로 태조의 북방개척은 1차적으로 새로운 영역의 확보와 방어에 목적이 있었지만, 확보된 영역을 관리하고 유지하는 것이 더욱 중요했을 것이다. 북계의 축성 지역은 국경의 방어를 목적으로 한 지역거점이며, 백성들의 거주지이기도 하였다.<sup>25)</sup> 곧 북계의 새로운 州鎮에 축성이 이루어지면 백성을 이주시키고, 이주된 백성들이 토지를 경작하고 정착하면서 鎮城을 지키는 둔전군(屯田軍)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하겠다.<sup>26)</sup> 이는 태조 자신이 직접 백성들이 살 곳을 정하여 이주시키거나<sup>27)</sup> 자신들의 측근을 보내 백성들을 이주시키고 편히 살도록 지시하는<sup>28)</sup>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렇듯 태조는 그 지역에 백성들을 옮겨 안정된 삶을 꾸려나가도록 힘썼으며, 이를 통해 북방개척을 위한 안정적인 물적·인적자원의 보급에도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 이러한 의미에서 태조대 ‘取民有度’라고 일컬어지는

23) 발해의 멸망으로 발해유민과 蕃人の 유입과 來投를 받아들인 것도 백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생각해볼 수 있다. 태조가 北蕃人은 人面獸心이라 이익을 보면 수치심도 있다고 혹평하면서도 주진성 바깥에 그들을 접대할 館을 세우도록 조서를 내리기도 하였는데(『고려사』 권2, 태조 14년), 이 또한 위와 같은 생각에서 나온 조치라 생각된다.

24) 이정신은 태조대 鎮들이 모두 청천강 이남에 한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북진은 별다른 효과를 얻지 못하였다고 평가하였다(이정신, 『고려 태조의 건국이념의 형성과 국내의 정세』, 『한국사연구』118, 2002, 51쪽).

25) 송용덕도 민호의 이주와 행정구역의 편성작업 등이 州鎮城 축조와 거의 동시에 이루어졌다고 하면서, 주진성은 행정의 기초이자 방어의 거점 기능을 하고 城內에서 백성들이 생활하는 거주지로서의 기능까지 담당하였다고 하였다(송용덕, 앞의 논문, 87~94쪽).

26) 이기백, 앞의 논문, 1980, 53~57쪽. 실제로 양계지역의 조세는 京倉에 납부하지 않고 해당 지역 군수에 충당하였으므로, 이 지역에는 屯田의 설치가 보편화되어 있었다. 둔전은 신개척지에 군대가 주둔하여 설치되었으므로 방수군이나 주진군을 동원하여 경작되었으며, 徙民이 이루어지면 그들에게 둔전 경작의 책임이 있었고 이들을 둔전군으로 불렀다(안병우, 『고려전기의 재정구조』, 2002, 168~180쪽).

27) 『고려사』 권1, 태조 5년, “親定牙善城民居.”

28) 『고려사』 권1, 태조 1년 9월, 김창겸, 「고려 태조대 유이민정책의 성격」, 『국사관논총』 35, 1992, 209~211쪽에는 태조가 대민정책의 일환으로 유이민들을 이주시키고 안집케 하는 사안을 정리하고 있는데, 양계의 사례는 아니지만 참고할 수 있다.

여러 조치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태조는 통일전쟁이 막바지에 접어들던 태조 17년(934) 5월에 예산진(禮山鎭)에 행차하여 조서를 내렸는데, 같은 해 정월에도 북진을 순행하였다. 이 조서에서 태조는 백성들을 勞役시키는 것에 대해 안타까워하면서 자신이 巡省하고 城柵을 修完하는 것이 모두 백성들을 위함이라고 토로하였다.<sup>29)</sup> 이처럼 태조는 건국 후 한동안 주진을 순행하면서 축성에 매진하였는데, 축성은 상당한 물적·인적 자원이 동원되어야 하므로 백성들에 의한 勞役이 상당하였음을 알 수 있다. 성을 수리하거나 새로이 쌓기 위해서는 역 징발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했다. 또한 태조는 고려를 건국하자마자 泰封主가 시행하던 조세가 합리적이지 않아 백성들이 流亡하게 되니 조세의 부과는 천하통법(天下通法)을 恒例로 삼자거나<sup>30)</sup> 백성들에게 農桑을 권하며 3년 동안 조세와 역을 면제하여주라는 파격적인 조서를 반포하기도 하였다.<sup>31)</sup>

태조의 북방개척이 끊임없는 북진으로 인한 영토 확장에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확보한 영역의 안정적인 관리와 유지가 필요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담당할 외관 과건이 절실하였을 것이라 생각한다. 물론 당시의 외관을 관할 지역에 상주하는 외관으로 보기 어렵더라도 이들을 통해 백성들의 이주와 그들의 지속적인 거주, 역 징발과 국경의 방어까지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 기존에 존재하던 성에든, 새로 쌓은 성에든 주진을 설치하였다면 군사적인 방어와 민의 안정을 위해 외관을 과건하는 것은 당연한 순서이다. 진두의 과건이 축성과 함께 이루어졌다는 것도 눈여겨 볼 부분이다.

29) 『고려사』 권2, 태조 17년 5월 乙巳, “朕承其危緒造此新邦 勞役瘡痍之民豈予意哉 但草昧之時事不獲已 櫛風沐雨巡省州鎭修完城柵欲令赤子得免綠林之難 由是男盡從戎婦猶在役 不忍勞苦或逃匿山林或號訴官府者不知幾許.”

30) 『고려사절요』 권1, 태조 1년 7월, “秋七月 詔曰 泰封主以民從欲 惟事聚斂不遵舊制 一頃之田租稅六碩 置驛之戶 賦絲三束 遂使百姓輟耕廢織 流亡相繼 自今租稅征賦 宜用天下通法以爲恒例”. 이 사료에서 ‘天下通法’은 什一, 곧 1/10稅를 의미하는데 고려 건국 직후부터 1/10조가 시행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당시에 10분의 1세가 제대로 시행되었을지는 의문이다. 조세율에 대한 연구는 박종진, 『고려시기 재정운영과 조세제도』, 2000, 84~92쪽을 참고.

31) 『고려사절요』 권1, 태조 1년 8월, “然承圯運 苟不蠲租稅勸農桑 何以臻家給人足乎 其免民三年租役 流離四方者令歸田里 仍大赦與之休息.”

태조의 북방개척이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진행되었기 때문에 태조가 파견한 진두에게도 새로운 영토의 개척과 방어라는 군사적인 부분과 안정된 영토와 백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민정적인 부분으로의 임무가 주어졌을 것이다. 바로 이 점이 중앙에서 국초 북방의 諸州鎮에 진두를 파견한 배경이라 할 수 있겠다. 태조는 진두를 통해 성공적인 북방개척과 안정적인 영토 확보를 이루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후삼국 통일에 큰 보탬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순행·축성·설진으로 이어졌던 북방으로의 관심들이 태조 23년 지역 편제라는 큰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한다.<sup>32)</sup>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다음 장에서는 진두의 구체적인 성격과 의미를 검토하겠다.

### 3. 진두 파견의 특징과 의미

평양을 중심으로 한 북방개척의 시도가 성공하면서 태조는 동왕 14년(931)에 안북부(安北府)를 설치하였는데, 이는 그동안 평양과 안북성을 중심으로 진행되던 축성 사업에서 안북성의 역할을 인정하고 위상을 높여 주는 결과였다. 태조는 즉위 이후 후삼국 통일 이전까지 거의 매년 친히 국경을 순행하였다. 특히 태조 재위기간 중 원년의 평양대도호부와 14년의 안북부 설치 사이에 이루어진 영토와 백성의 안정적인 확보는 이 시기 평양과 안북부 사이 주요 진에 파견된 진두에 기댄 바가 크다. 곧 진두의 파견은 통일전쟁의 최후 보루로, 혹은 고려의 최종 영토로 마련될 북방개척이라는 대전제 속에서 진행되었을 것이며, 이는 군사적인 측면 이외의 상황까지 해결되어야 가능한 것이었다.

32) 태조의 북방정책을 보다 안정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점진적인 군현 편제가 이루어졌으며, 이는 태조 23년의 읍호개정으로 나타난다. 읍호개정은 단순히 군현의 이름만 바꾸는 정도의 개편이 아니라는 것은 이미 연구되었으며, 양계도 태조대에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改名된 사례가 보인다(이정기, 앞의 논문, 142~143쪽). 지방제도의 편제는 기본적으로 중앙집권화에 목적이 있는데, 곧 지리적인 지역재편과 더불어 외관 파견을 통해 최대의 효과를 양산할 수 있다.

다음 <표 2>는 진두가 파견된 시기와 지역, 축성에 참여한 인물과 진두로 파견된 인물을 정리한 것이다.

<표 2> 태조대 진두파견의 개관<sup>33)</sup>

시기 <sup>34)</sup>	지역	연혁 <sup>35)</sup>	축성시기	축성책임자	鎭頭
11년02월	安北府	태조14안북부→성종2영주안북대도호부 →현종9안북대도호부	3년 11년/13년	大相 廉卿·能康	元尹 朴權
11년	通德鎭(肅州)	성종2 숙주방어사	11/18/22년		元尹 忠仁
12년 3월	安定鎭 <sup>36)</sup>	(성종2 자주방어사)	12년	大相 廉相	元尹 彦守 <sup>37)</sup>
12년 9월	安水鎭 <sup>38)</sup>	현종9 연주방어사	12년	大相 式廉	元尹 昕平
	興德鎭	성종2 은주방어사	12년		元尹 阿次城
13년 8월	馬山	현종9 연주방어사	13년	大相 廉相	正朝 昕幸
14년	剛德鎭(成州)	현종8 성주방어사	8년		元尹 平奂
17년	通海鎭	통해현	17년	大相 廉相	元甫 才萱

<표 2>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의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진두의 파견은 태조가 후삼국을 통일한 태조 19년 이전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이후에는 전혀 그 모습을 찾을 수가 없다. 둘째, 진두가 파견된 지역은 대동강 이북에서 청천강 이남의 서북면 지역이며, 축성

33) 『고려사』 권82, 지36, 병2-진수.

34) 시기는 태조의 재위연도와 월을 표기한 것이다.

35) 『고려사』 권58, 지리3, 북계.

36) 안정진은 「지리지」에서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위치도 연혁도 알 수 없다. 보통 안정진은 安定驛에 비정되어 왔는데, 윤경진은 당시 진의 설치 분포에서나 축성시기의 문제점 등을 들어 안정진을 慈州에 비정하였다(윤경진, 앞의 논문, 262~264쪽). 진두를 파견할 만큼의 중요한 鎭이 이후 방어주로 승격되는 정황으로 볼 때 타당성이 있는 지적이라 생각한다. 또한 그의 주장처럼 서경-통덕진(숙주)-안북부를 잇는 중심축에 서경과 숙주 사이에 또 다른 진의 설치와 진두 파견이 불필요했다고 생각한다.

37) “太祖十二年 三月 遣大相廉相 城安定鎭 以元尹彦守考鎭之(『고려사』 권82, 병2, 鎭戊)”라고 하여 鎭頭라는 표현이 없지만 앞뒤 문맥상 진두로 파견된 것이 확실하다.

38) 윤경진은 다양한 가능성을 제시하면서 안수진을 영천현에 비정하였다(윤경진, 앞의 논문, 257~258쪽). 「지리지」 朝陽鎭條에 ‘마산에 성을 쌓고 안수진이라 불렀다’는 기록에 따르면, 마산=안수진이며 현종 9년에 연주방어사가 된다. 태조의 북진 과정에서 진두 파견의 역할을 생각해 봤을 때 1년 사이에 같은 지역인 마산과 안수진으로 진두가 파견되었을 것 같지는 않다. 그런데 안수진에 파견된 元尹 昕平和 마산에 파견된 正朝 昕幸의 이름이 매우 유사하여 둘이 어떠한 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언급하겠다. 더구나 이 두 지역을 너무나 다른 곳으로 비정하는 것도 석연치 않다. 따라서 기존 견해였던 「지리지」 위치를 따르고자 한다.

이 함께 이루어졌다. 셋째, 축성 책임자의 관계는 대상(大相), 진두로 파견된 인물의 관계(官階)는 대체로 원윤(元尹)이다.

첫 번째, 진두의 파견시기에 대해 살펴보자. 진두는 태조대, 특히 발해가 멸망한 태조 9년(926)에서 후삼국을 통일한 태조 18년(935) 사이에 파견되는 경향을 보인다.<sup>39)</sup> 당시는 발해의 멸망으로 거란에 대한 경계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었고<sup>40)</sup>, 아직 통일을 완수하지 못한 혼란한 시기였기 때문에 해당 시기에 집중적으로 진두가 파견된 것이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태조는 황폐화된 평양을 재정비하여 이곳을 중심으로 북방 개척을 진행하였는데, 이는 안정된 영토의 확보를 염두에 둔 계획이었다. 태조의 북계 巡行 기록을 보면, 거란족에 의해 발해가 멸망하는 926년 이전에는 북계나 邊郡을 순행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는 서경에 행차하여 그 주변 주진을 순행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발해가 멸망한 상황에서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거란과의 직접적인 접촉에 이미 안정되어 있던 서경을 중심으로 하여 주진을 대비케 하는 측면을 엿볼 수 있다.

또한 진두의 파견도 태조의 북계 순행과 함께 이루어졌으며, 특히 진두의 파견시기와 해당 지역의 축성시기가 거의 동일하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는 태조가 북계 순행을 통해 진두가 파견될 지역을 미리 선택한 후 축성과 함께 진두를 파견한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곧 이 시기 태조가 북방 개척의 최종적인 전략이 바로 진두의 파견이었고, 그 과정은 巡行—(築城+)設鎮—鎮頭라는 연결고리를 통해 완성되었다.<sup>41)</sup>

39) 여기서는 진두 파견시기의 전반적인 양상만을 설명하였으며, 각 지역의 진두 파견과 관련된 사항은 두 번째 파견지역에 대한 검토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었다.

40) 태조 9년(926) 2월 20일에 고려가 거란에 사신을 파견하였는데, 이때는 발해가 멸망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다. 고려는 태조 5년(922)부터 거란에 수차례 사신을 파견하여 왔으며, 특히 이때의 사신 파견은 거란의 발해 정복을 축하하는 의미였다는 주장이 있어 설득력을 갖는다(한규철, 『후삼국시대 고려와 거란관계』, 『부산사학』1, 1985, 26쪽; 이정신, 앞의 논문, 2002, 60쪽). 그러면서도 태조는 같은 해 12월에 친히 서경을 행차하여 齋祭를 지내고 주변 州鎮을 순행하면서 북방개척의 의지를 다진다. 이는 고려가 발해를 멸망시킨 거란을 경계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

41) 태조대에 축성된 지역 중 절반 정도에 진두가 파견되었으며, 통일 전 축성된 지역에는 국초에 축성된 용강·평양·함흥을 제외하고 전체에 진두가 파견되었다.



통일 이전에 대동강과 청천강 사이 주요 지역에 축성이 상당히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그럼 구체적으로 태조대에 축성된 19사괘 중 진두가 파견된 지역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 지역일까. 이 문제의 해답에 접근하기 위해 몇 가지 가능한 경우를 상정해 볼 수 있다. 먼저 군사적·지리적 요충지인가, 개경·서경과 안북부, 혹은 청천강 이북을 연결해 주는 주요 교통로인가, 축성 책임자나 진두와 관련이 있는 지역인가 하는 점이다.<sup>44)</sup>

안북부는 진두 파견 지역 중에서 가장 빠른 축성과 진두 파견이 이루어진 곳이다. 또한 앞서 언급한 대로 대동강의 서경과 청천강의 안북부가 중심축이 되어 태조의 북진정책에서 밑그림에 해당하는 지역이기도 하다. 더구나 안북부는 태조 11년 진두 파견 2년 뒤인 14년에 도호부로 승격하면서 북방개척에 진전을 보였으니<sup>45)</sup> 잘 그려진 밑그림의 결과라 하겠다. 통덕진은 안북부와 같은 해에 진두가 파견된 지역으로 서경과 안북부 축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다. 이로써 서경—통덕진—안북부의 중심축에 진두가 우선 파견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sup>46)</sup>

다음 안정진은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자주(慈州)에 비정할 수 있는데, 중심축에서 동쪽 방면으로 진두가 파견되는 시작점이다. 안수진은 「지리지」에 마산과 동일한 지역으로 비정되어 논란이 많지만, 이 지역을 같은 곳으로 볼 수 있겠다. 곧 안수진과 마산은 연주(連州)에 해당한다. 태조 12년 9월 안수진에 大相 식렴을 보내 성을 쌓고 元尹 혼행(昕平)을 진두로 삼았는데

44) 가능성으로 상정한 '축성 책임자나 진두와 관련이 있는 지역인가'에 대한 부분은 후술할 세 번째 검토 대상인 이들의 官階에 대한 논의에서 다루었다.

45) 안북부에 진두가 파견된 것으로 처음에는 이곳에 鑿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이후 鑿이 府로 승격된 것이다(윤경진, 앞의 논문, 2010, 260쪽).

46) 윤경진도 서경 북구 후 북쪽으로 진행된 축성 중 가장 빠른 사례인 안북부와 통덕진을 주목하면서, 서경에서 청천강에 이르는 북방 개척의 중심 축이 마련되었다고 평가하였다(윤경진, 위의 논문, 2010, 262쪽). 그는 통덕진을 설치하고 안북부를 축성하였다고 하였는데, 태조 11년 2월 안북부에 축성하고 진두가 파견되었고 통덕진은 같은 해에 축성과 더불어 진두가 파견되었지만 월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통덕진에 축성과 진두파견이 1월이고 바로 다음 달에 안북부의 진두 파견이 진행되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통덕진은 안북부보다 늦게 축성과 진두 파견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한다.

어떠한 이유에서 다시 13년 8월에 마산에 대상 염상을 보내 성을 쌓고 정조(正朝) 혼행(昕幸)으로 진두를 삼았다. 이는 처음 12년 축성 후 진두로 삼았던 昕平이 어떠한 이유로 면직되고 다시 일족인 昕幸이 진두를 맡게 되었던 것이 아닐까 한다.<sup>47)</sup> 다시 13년에도 성을 쌓았다고 나오는 것은 진두 과건과 함께 축성하는 鎭戍條 기록에 맞춰 정리한 것이며 축성책임자를 염상으로 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나온 결과가 아닐까 생각한다. 1년 반정도 전에 안정진에 축성책임자로 같던 염상을 또다시 마산에 보낸 것처럼 기록된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인 듯하다. 안수진(마산)과 같은 시기에 진두를 과건한 흥덕진은 殷州이며, 자주에서 동북쪽에 위치해 있다. 이를 통해 중심축의 동쪽 방면인 자주—은주—연주로 이어지는 주요 교통로에 진두가 과건된 것이다.

강덕진은 성주(成州)인데, 중심축의 동쪽 방면으로의 진두과건이 일단락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서경 주변 지역에 진두를 과건한 것이다. 또한 <표 2>에서 보면 진두가 과건되는 시점과 축성시점이 일치하는 데에 반해 강덕진은 그렇지 않다. 곧 강덕진은 진두가 과건되는 시점보다 무려 4년이 나 이른 태조 8년에 축성되었으니 특이한 이력이다. 서경 재성이 축조되는 6년 동안<sup>48)</sup> 축성사례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유독 강덕진이 태조 8년에 축성된 이유는 단순하지만 강덕진(성주)이 중요했기 때문이겠다. 태조가 서경에 가서 친히 齋祭를 지내고 주변 주진을 순행한 경우가 딱 두 번 있는데, 한번은 서경 재성 축성이 완료되기 바로 전인 태조 9년(926) 12월이고 다른 한번은 강덕진에 진두가 과건된 해인 태조 14년 11월이다.<sup>49)</sup> 또한 현종 초에 거란이 침입하자 왕이 지채문에게 군사를 주어 서경을 원조하도록 명하였는데, 지채문이 강덕진에 머물렀다<sup>50)</sup>고 하니 서경 방어를 위한 지역으

47) 『세종실록』 「지리지」에 「昕」氏가 한 건 확인되는데, 경상도, 안동대도호부, 예천군의 토성이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설명하였다.

48) 『고려사』 권82, 병지2, 城堡, 태조 5년, “五年 始築西京在城〔在者方言畎也〕凡六年而畢.”

49) 『고려사』 태조 9년 12월 癸未 : 태조 14년 11월 辛亥.

50) 『고려사』 권94, 열전7, 智蔡文, “智蔡文鳳州人 顯宗元年補中郎將 王聞契丹兵至遣蔡文將兵鎭和州以備東北 及康兆敗兆及李鉉雲盧顛等皆被執 命蔡文移兵援西京 蔡文即與軍容使侍御史崔昌進次剛德鎭.”

로 강덕진이 매우 중요한 지역이었던 것 같다.<sup>51)</sup>

이렇게 태조 11년에서 14년까지 매년 숨가쁘게 진두가 파견되었는데, 짧은 시기이지만 세 시기로 나눌 수 있겠다. 제1기는 태조 11년에 서경—통덕진(숙주)—안북부로 이어지는 중심축으로의 파견이고, 제2기는 태조 12~13년에 중심축의 동쪽 방면인 안정진(자주)—홍덕진(은주)—안수진·마산(연주)으로의 파견이며, 제3기는 태조 14년에 서경 방어를 위한 강덕진(성주)으로의 파견이다. 앞 장에서 지적한 것처럼 태조의 북방개척이 1차적으로는 수도 개경의 안정과 방어에 있었기 때문에 제1기에 파견된 진두는 파견 지역의 안정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임무를 담당하였을 것이다. 제2기에 파견된 진두는 중심축을 방어·엄호하는 동시에 이 지역이 최후의 보루로 혹은 최종 고려의 영토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영토를 확보하고 청천강 이북으로 진출하기 위해 필요한 임무를 담당하였을 것이다. 제3기에 파견된 진두는 제1·2기의 진두 파견이 안정적으로 진행되면서 서경의 이중 방어를 위해 필요한 임무를 담당하였을 것이다. 진두의 임무란 확보한 영역의 군사적 방어와 영역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한 민정적인 업무, 곧 북방지역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徙民, 역징발, 조세와 역의 부과나 면제 등의 일이다. 이제 중심축의 서쪽 방면으로의 진두파견이 이루어지면 그에 기대하는 효과가 최대가 될 것이었다. 그런데 이후 진두 파견은 통해진으로 마무리된다.

마지막 진두 파견지인 통해진은 서경과 연결되는 해안 지역들인 ‘용강-함종-영청-통해진-안음진’ 線에 포함되어 있으며, 서경-안북부 중심축 중간에 있는 통덕진(숙주)의 서쪽을 보완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태조는 진두의 파견을 시작하고 매년 한두 건의 파견을 진행하였던 데에 비해 중심축 동쪽 방면의 진두파견이 마무리 된 후에는 서쪽 방면으로의 진출에 잠시

51) 성주는 서경 방어를 위한 지역이면서 이후에는 동계와 연결되는 동서교통로 위에 위치하고 있었다(한정훈, 「고려 전기 兩界의 교통로와 운송권역」, 『한국사연구』 141, 2008, 140~141쪽). 당시 태조가 강덕진(성주)에 진두를 파견한 것이 동북 방면으로 진출할 것을 의중에 두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이 지역이 지리적인 요충지임은 분명하다.

추출거렸다. 이는 열정적으로 진행하던 진두파견의 적신히였을까.

태조 14~17년 사이 고려의 상황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태조 15년 5월 태조가 群臣들에게 訓諭하면서 전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勞役으로 백성들이 쉴 수도 없고 供費의 부담도 많은 것에 대해 편치 않은 심정을 털어 놓지만, 역시 軍國을 위한 貢賦를 감면하기는 어렵다고 하였다.<sup>52)</sup> 이전까지의 축성과 이를 위한 인적·물적 자원의 보급이 상당하였음을 의미한다. <표 1>을 보면 이 시기에 북계 순행은 있었으나 축성도 휴지 상태인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같은 해 9월에 견훤이 예성강으로 침입해 들어와 개경을 위협하였고 태조 16년에는 후당으로부터 왕의 책봉을 받게 된다.<sup>53)</sup> 이러한 이유로 태조는 잠시 진두 파견을 미뤘고 이미 진두파견으로 얼마만큼의 기대한 효과를 얻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리고 이후 태조는 다시 중심축의 서쪽 방면인 통해진에 진두를 파견하였으나 다음 해에 후삼국을 통일하면서 통해진을 끝으로 더 이상 진두를 파견하지 않았다. 이는 태조의 북방 정책에서 진두의 역할이 수도의 방어와 전쟁의 패배나 통일국가를 수립하지 못할 경우 차선책으로 새로운 영역의 확보·관리에 있었던 것인데, 후삼국을 통일했으니 이에 대한 임무가 해제된 것이다. 통일 후 축성은 계속 이루어졌으나 진두를 파견하지 않은 것은 바로 이때문이다.

진두가 파견된 지역은 앞서 상정한 가능성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데, 곧 군사적으로 중요한 요충지이면서 개경과 서경을 연결하는 지리적인 요충지일 뿐만 아니라 혹시 북진할 경우에 청천강 이북으로 진출할 수 있는 주요 통로라는 측면에서 그러하다.

세 번째로 축성책임자와 진두의 관계(官階)에 대해 살펴보자. <표 2>를 보면 진두가 파견된 지역의 축성은 모두 대상(大相)이 담당하였고, 진두로

52) 『고려사』 권2, 태조2, 태조 15년 5월 甲申, “十五年 夏五月 甲申 諭群臣曰 頃完昔西京徙民實之冀憑地力平定三韓將都於此 …… 今四方勞役不息供費既多貢賦未省竊恐緣此以致天譴夙夜憂懼不敢違寧 軍國貢賦難以蠲免 尙慮群臣不行公道 使民怨咨或懷非分之心致此變異 各宜懷心毋及於禍.”

53) 『고려사』 권2, 태조2, 태조 15년 9월 및 태조 16년 3월 辛巳.

파견된 인물들은 원윤(元尹)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대상·원윤 등은 고려 건국 초기에 독자적인 관계인데, 성종 14년 중국의 관계를 도입하여 정식으로 채택한 문산계가 마련되기 이전에 사용되었던 관계이다. 고려초기의 관계는 9품계 16등급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sup>54)</sup>, 대상은 4품 7등급이고 원윤은 6품 10등급에 해당한다. 대상은 한눈에 보아도 상위 관계인 것이 확실하나 원윤은 전체 관계로 볼 때에는 중간 이하의 지위인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광종 11년에 마련된 백관의 공복 체계에서 자삼(紫衫)을 입을 수 있는 최상층을 '원윤 이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경종 원년에 제정된 시정 전시과에서도 자삼층, 곧 원윤 이상이 기준이 되었고, 성종 2년에도 문·무 원윤 이상에게 말 1필씩을 하사한 기록이 있다. 따라서 고려 초기 관계의 구조는 크게 원윤 이상과 좌윤 이하로 나누어져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sup>55)</sup> 대상과 원윤 둘 다 상당한 위치의 관계임을 알 수 있다.

태조는 통일전쟁기였던 당시 관직이 아닌 관계만을 통해서도 공적 질서 체계를 수립하여 관계 수여자들을 통해 필요할 때마다 군사적 역할 등을 수행하도록 조치하였다. 관계를 수여받은 사람들은 대체로 고려에 귀부하거나 협조한 호족(성주·장군)으로<sup>56)</sup>, 특히 원윤 이상은 강력한 호족이었다.

54) 다음은 고려 초기의 관계를 표로 나타낸 것이다(박용운, 『고려시대 관계·관직 연구』, 1997, 35쪽 인용).

품계	관계명	등급	품계	관계명	등급
1품	三重大匡	1	5품	正甫	9
	重大匡	2		6품	元尹
2품	大匡	3	7품		佐尹
	正匡	4		正朝	12
3품	大丞	5	8품	正位	13
	佐丞	6		甫尹	14
4품	大相	7	9품	軍尹	15
	元甫	8		中尹	16

55) 박용운, 『고려시대 관계·관직 연구』, 1997, 33~37쪽.

56) 호족은 신라말에 새로운 사회세력으로 등장하여 지방사회에서 일정한 지역에 대한 정치적·경제적·군사적 지배권을 행사하고 있던 독자적인 지방세력이며, 이들은 신라말과 고려초에 사회변동을 주도한 지배세력으로, 흔히 장군이나 성주로 대표되기도 한다(정청주, 『한국사』11, 국사편찬위원회, 1996, 63~67쪽).

또한 태조와 함께 고려를 건국한 개국공신들에게도 관계를 수여하였다. 태조는 중앙과 지방에서 이들에게 정치·군사·경제적 역할을 배분하여 지배해 나갔고, 특히 이러한 성격의 호족은 간혹 그 지역에 파견된 외관으로 간주되기도 하였다.<sup>57)</sup> 더구나 관계는 質子에게 수여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성주·장군은 직접 上京·來朝하였을 때에 받을 수 있었다. 곧 성주·장군이 귀부의 뜻으로 자신의 친속을 보내고 자신은 본거지에 남아 있다면 관계를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sup>58)</sup> 이런 의미에서 관계를 받은 자들은 이전의 독립적인 상황에 비해 고려 정부에 편입되어 관리되었을 가능성이 있다.<sup>59)</sup>

태조는 관계를 수여한 자들을 여러 방면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진두 파견 때처럼 大相들을 보내어 축성을 책임지도록 하거나 元尹을 진두로 파견하는 경우가 동일 官階를 가진 사람들이 동일한 직임을 받은 다수 사례로 주목된다. 이외에도 국초에는 태조에게 귀부를 청해오는 성주들에게 이미 귀부하여 元尹의 관계를 받은 자를 파견하여 慰諭하기도 하였다.<sup>60)</sup> 그리고 大相을 파견하여 그들로 직접 백성들의 사민과 안집을 담당하도록 하였으며<sup>61)</sup>, 甫尹을 파견하여 신라왕에게 예물을 보내거나<sup>62)</sup> 大相을 당나

57) 김일우, 『고려초기 국가의 지방지배체제 연구』, 1998, 148~174쪽.

58) 윤경진, 「나말여초 성주의 존재양태와 고려의 대성주정책」, 『역사와 현실』40, 2001; 최중석, 「고려초기의 관계 수여 양상과 광종대 문산계 도입의 배경」, 『역사와 현실』67, 2008. 최중석은 위의 논문에서 고려초 성주·장군이 관계를 수여받을 수 있는 다양한 전제조건들을 제시하면서 귀부한 성주·장군 모두에게 관계가 수여된 것이 아니며, 중앙 관인조차도 관계를 소지하지 않았던 경우가 있었음을 검토하였다. 따라서 관계를 통해 해당 지역의 통치권을 확보할 수 있었다는 견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관계는 '중앙세력의 導管 역할을 하는 것이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역시 관계는 수여 대상자의 기득권을 존중하는 의미가 있으며, 이를 세력에 따라 차별적으로 수여되고 있다고 하였다. 이는 고려에 귀부·협조한 호족들 모두에게 관계가 수여된 것은 아니지만, 관계를 받은 자들은 고려 정부의 승인과 예측을 동시에 받았을 것이 확실하다.

59) 大匡·大相 등 고위 관계를 받은 사람들 중 이후에 宰臣이 되는 사례가 많다(김일우, 앞의 책, 1998, 65쪽 <표 2>).

60) 『고려사』 권1, 태조 5년 11월 辛巳, “冬十一月 辛巳 眞寶城主洪術遣使請降 遣元尹王儒卿含弼等慰諭之.”: 같은 책, 권92, 열전5, 王儒卿.

61) 『고려사절요』 권1, 태조 2년 8월, “改烏山城爲禮山縣 遣大相哀宣洪儒 安集流民五百餘戶.”

62) 『고려사』 권2, 태조 14년 8월 癸丑, “秋八月 癸丑 遣甫尹善規等 遣羅王鞍馬綾羅綵錦并賜百官綵帛軍民茶幘頭僧尼茶香有差.”

라에 보내 方物을 바치는 등의 사신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sup>63)</sup> 또한 元尹·正朝 등이 통일전쟁에서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였으며<sup>64)</sup>, 태조 19년 일리천 전투에는 다양한 관계를 지닌 중앙 관인들이 대거 전쟁에 참여하였다. 태조는 고려에 귀부·협조한 자들에게 관계를 수여하기도 하였지만, 관계를 받은 자들을 파견하여 고려가 필요로 하는 일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이처럼 축성책임자와 진두로 파견된 인물들은 강력한 호족이나 그의 친속으로, 이들은 태조에게 귀부의사를 밝히고 직접 上京·來朝하여 고위 관계를 받아 고려의 관리 대상이 된 자들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진두는 고려에 의해 관계를 수여받고 북방개척의 주요한 지역들인 鎭에 파견되어 鎭戍의 역할과 함께 민사행정적인 사무도 관장하였을 것이다. 이들은 이후의 파견되는 고려의 외관이 일반적으로 중앙의 관직을 갖고 일정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각 지역에 파견되는 것과 같은 형태이다. 따라서 이들을 양계 지역에 파견된 외관의 시초라고 평가할 수도 있겠다.<sup>65)</sup>

앞서 진두와 파견 지역의 관련성에 대한 의문으로 축성 책임자와 진두는 파견된 지역과 어떠한 관련이 있을지에 대해 생각해보았다. 당연하지만 해당 지역은 태조가 북진에 의해 개척한 지역이므로 이들의 출신지이거나 본관일리는 전혀 없다. 대신 이들이 해당 지역에 파견되어 사민을 진행하면서 거주지가 옮겨져 이적했을 가능성은 있다. 그런데 축성책임자로 파견된 大相들은 동일 인물이 다른 지역에 파견되었기 때문에 해당 지역과는 전혀 관련성이 없다고 볼 수 있다.<sup>66)</sup> 진두들은 大相과 같은 경우는 아니지만 어

63) 『고려사』 권2, 태조 15년, “是歲 遣大相王仲儒 如唐獻方物.”

64) 『고려사』 권92, 林守卿傳, “事太祖爲元尹 百濟數侵新羅 太祖命守卿爲將軍往鎭之 值甄萱再至守卿輒以奇計敗之 曹物郡之戰 太祖部分三軍以大相帝弓爲上軍元尹王忠爲中軍守卿股率爲下軍 及戰上軍中軍失利 守卿等獨戰勝.”; 같은 책, 권1, 태조 11년 정월 乙亥, “乙亥 元尹金相正朝直良等 將往救康州經草八城 爲城主興宗所敗金相死之.”

65) 태조대 북방지역은 크게 북계·동계의 양계로 정리되고 각 지역들이 도호부-방어주진-진(현)의 계서적인 관계로 편제되면서 각각 도호부사-방어사-진사(진장)·현령 등의 수령이 파견된다.

66) 축성책임자 중 염상과 왕식렴만이 확인되는데, 염상은 개국공신 2등이며 태조 26년에는 宰臣으로 나타나 있고 왕식렴은 태조의 堂弟로 태조 원년에 서경에 대도호부를 설치하는 데에 참여하였고 이후 大匡까지 오른 인물이다(『고려사』 해당연도 기사 참고).

는 한 사람도 진두과건 이외의 기사를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짐작조차 하기 어렵다. 『세종실록』 지리지에서 진두가 과건된 지역의 성씨조를 확인해 보니 모두 入鎭姓만이 확인된다. 이 지역에는 土姓이 없이 이주하여 온 성씨만이 있고 이들에게는 해당 지역이 본관이 되는 것이다. 진두로 과건된 인물들을 입진성에서 확인해봤으나 안북부에 과건된 박권(朴權)을 제외하고는 나타나는 성씨가 없다. 양계로 사민된 자들은 자신이 원할 때 일정한 절차를 거쳐 移籍이 이루어지고 그 후에야 입진성에 오르게 되며, 반대로 이적하지 않으면 거주하고 있더라도 성씨조에는 없을 수 있다.<sup>67)</sup> 따라서 북계 鎭으로 과건된 진두들은 그곳에 거주하였지만 이적하지 않아 입진성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며, 한 사례뿐이지만 진두 중 관할 지역에 거주하다가 아주 이적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추측해 볼 수 있다.<sup>68)</sup> 진두가 과건된 지역은 태조대 새롭게 확보된 지역이기 때문에 진두와 연고 있는 곳은 아니다. 그러나 진두가 徙民을 관리하고 안정시키면서 자신들도 이곳에 터전을 잡아 대대로 살았을 가능성도 있다.

67) 박은경, 「고려시대 사민연구」, 『인하사학』6, 1998, 48~60쪽.

68) 안북부의 진두인 朴權은 과건되었던 지역인 안주목(安州牧)에 입진성으로 박(朴)(교동(交同))이 올라있다. 다른 진두의 忠·彥·昕·阿·平·才를 모두 성씨로 보았을 때, 그들이 과건된 해당 지역에서는 찾아지지 않으니 당시 진두로 과건되어 거주하였더라도 이적을 하여 본관으로 삼지는 않은 듯하다. 그래서 『세지』 성씨조에서 진두인 위의 성씨들을 찾아보니 '평'씨와 '훈'씨가 하나씩 확인되었다. '평'씨는 전라도, 나주목, 해진군(海珍郡)에 가흥(嘉興)의 성씨로, '훈'씨는 경상도, 안동대도호부, 예천군(醴泉郡)의 토성으로 찾아진다. '훈'씨는 해당 기사에 세주에 "權本昕氏 神宗元年 避明宗舊諱 改賜權."라고 되어 있어 昕氏가 신종 원년에 권씨로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곧 원운 평환과 원운 훈평·정조 훈행은 각각 전라도와 경상도 출신이며, 태조의 명을 받아 진두로 과건되었으나 이적하지 않아 자신의 본거지에 그대로 남아 『세지』에 올라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른 네 명의 진두들은 이름 첫 자가 성씨가 아닐 경우와 새로운 성씨로 바뀌었을 가능성이 있는데, 전자의 경우는 다른 네 명의 경우가 성씨로 판단되어 가능성이 희박하며 후자의 경우가 가능하겠다. 그러나 이들의 성씨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지금으로서는 전혀 알 수 없어 추적이 불가능하다.

#### 4. 맺음말

태조는 고려를 건국한 후 나라의 기틀을 잡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마련해 나갔다. 태조는 직접 북계를 순행하는 일이 잦았는데, 이는 이 지역에 대한 태조의 관심과 중요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특히, 그는 새롭게 확장된 영토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방어하기 위해 재위 기간 내내 꾸준히 성을 쌓고 진을 설치하였으며, 진이 설치된 곳 일부에 진두를 파견하였다. 태조의 북방개척은 서경을 거점으로 하여 진행되었는데, 국초부터 비교적 빠른 축성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이 대동강 이북에서 청천강 이남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나마 북계로의 순행은 통일을 이룬 후에도 전혀 보이지 않으며, 축성은 계속 진행된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이미 완성된 성을 수리하거나 보수하는 정도였다. 태조는 후삼국을 통일한 이후 북방개척도 마무리한 것인데, 태조에게 북방정책은 북진으로의 영토 확장이 아니었던 것이다.

태조는 국초부터 수도를 정비하고 동시에 서경을 거점으로 삼아 수도 개경을 방어하는 데에 총력을 기울였다. 서경과 안북부를 중심으로 성을 쌓고 그 주변에도 연달아 축성과 진의 설치를 단행하였다. 이와 동시에 그는 후백제와의 전쟁에서, 최종적으로는 통일전쟁에서 패배했을 때 북방지역을 최후의 보루로 여기고 고려의 영토와 백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이를 위해 태조는 백성을 새롭게 개척한 지역으로 옮겨 이들이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였고, 이는 또다시 북방개척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의 보급과 연결된다. 고려는 북방개척을 위한 일련의 일들을 담당할 외관 파견이 절실하였는데, 이를 진두를 파견하여 해결한 것이다. 곧 진두는 확보한 영역의 군사적 방어와 영역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한 민정적인 업무를 동시에 담당하였다. 진두는 백성들을 새로운 영토로 옮기고 그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축성에 필요한 역을 징발하고 조세의 부과나 면제 등의 일도 맡았을 것이다. 그런데 후삼국을 통일한 이후

에는 북방개척의 필요성이 감소하면서 더 이상의 북계 순행이나 진두파견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북방개척을 위해 파견된 진두는 파견된 시기와 지역, 파견 인물 등에서 특징을 파악할 수 있다. 진두는 발해가 멸망한 태조 9년(926)에서 후삼국 통일이 이루어진 태조 18년(935) 사이에 집중적으로 파견되었다. 이는 앞서 설명한 북방개척의 목적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으며, 이를 위해 태조의 북방개척 과정은 북계 순행—(축성+)설진—진두파견이라는 연결고리를 갖고 진행되었다. 진두의 파견지역은 모두 청천강 이남에 한정되어 있는데, 이 또한 영토의 안정적인 확보의 일환이었기 때문이다. 진두가 파견된 지역은 군사적으로 중요한 요충지이면서 개경과 서경을 연결하는 지리적인 중심지일 뿐만 아니라 혹시 북진할 경우 청천강 이북으로 진출할 수 있는 주요 통로이다. 구체적으로 서경—통덕진(숙주)—안북부로 이어지는 중심축은 수도 개경의 방어를 위해 서경을 거점으로 하여 형성된 지역이다. 안정진(자주)—홍덕진(은주)—안수진·마산(연주)은 서경과 안북부의 중심축을 방어하면서 새로운 영토를 확보할 수 있는 지역이다. 중심축 동쪽 방면의 마지막 진두 파견지인 강덕진(성주)은 다시 개경과 서경을 이중으로 방어하는 지역이다. 진두로 파견된 인물들의 관계는 원윤인데, 이들은 당시 강력한 호족이나 그의 친속으로 태조에게 귀부·협조하여 관계를 받았고 고려는 관계를 통해 이들을 파악하고 관리하였다. 태조는 관계를 받은 자들을 북방지역에 파견하여 진두로 삼고, 그들에게 해당 지역의 군사적 방어와 더불어 사민된 백성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시한 것이다. 따라서 진두는 양계지역에 파견된 외관의 시초라고 평가할 수 있다.

(원고투고일 : 2011. 4. 1, 심사수정일 : 2011. 4. 21, 게재확정일 : 2011. 4. 29.)

주제어 : 태조 왕건, 북진, 북방개척, 북방정책, 양계(兩界), 진두(鎭頭), 축성(築城), 설진(設鎭), 북계순행, 사민(徙民)

<ABSTRACT>

The expansion to northern region and the dispatch of *Jindu* during the reigns King *Taejo* in *Goryeo* Dynasty.

Yi, Jung-ki

In this article, I studied *Jindu*(鎭頭) that dispatched for the going-north policy of King *Taejo* and stable performance of the process. It accessed truth of *Jindu* through analysis about dispatched time, region, character. After establish the *Goryeo* Dynasty, King *Taejo* suggested various policy for set up the foundation of a nation. He built a castle for systematical management at new domain, next he moved the people to the new domain and made an effort for stabile settlement. Also King *Taejo* decided the capital, after defended the capital *Gaekyeong*(開京) through base of defense *Seokyeong*(西京). It built a castle at *Seokyeong* and *Anbukbu*(安北府), build a castle and install a camp on a fringe of the axis. At the same time, he regarded northern region as the last bastion at the war with *Hubaekje*(後百濟) so he tried for secure territory and the people. The people became material resources and human resources for the expansion to northern region. *Jindu* took charge of a series of works for the expansion to northern region, that is defense of the military and stable management of the new domain.

We can understand feature of *Jindu* through dispatched time, region, character. The *Jindu* was intensively sent to defense at between the King *Taejo*'s own reign year of 9 to 18. The *Balhae*(渤海) was destroyed in 926, the King *Taejo*'s own reign 9 year and the *Goryeo* Dynasty unified Later Three Kingdoms in 935, the King *Taejo*'s own reign 18 year. It is immediately related to goal of expansion to northern region. In other words,

the going-north policy of King *Taejo* advanced by coupling device that 1<sup>st</sup> royal tour, 2<sup>nd</sup> build a castle and install a camp, 3<sup>rd</sup> dispatch *Jindu*. The dispatched of *Jindu* was limited to south of the *Cheongcheon* River, it also was a part of stable management of the new domain. There was an army base, not only connected between *Gaekyeong* and Seokyeong but also expanded into north of the *Cheongcheon* River. The *Jindu* was generally dispatched to *Wonyoon*(元尹), government official *Gwangye*(官階). They was a powerful clan or their relative, the King *Taejo* was conferred on them who surrendered or cooperated to the *Goryeo* Dynasty. The King *Taejo* ordered for defense of the military and stable management of the new domain to *Jindu*. As a result, the *Jindu* was the beginning of the local government official dispatched to *Yanggye*(兩界) area.

Key Words : King *Taejo*, Going-north, *Jindu*(鎭頭), Royal Tour, Building a Castle, Installation a Camp, the Expansion to Northern Region, Moving the People to the New Domain, *Yanggye*(兩界)

# 고려 현종말~문종초 北界 州鎮 설치와 長城 축조

윤 경 진\*

1. 머리말
2. 국경지대 州鎮의 추가 설치
3. 長城 축조의 배경과 경유 州鎮
4. 맺음말

## 1. 머리말

고려는 성종 14년 강동 6주를 개척한 데 이어 현종 초에도 거란과 여러 차례 전쟁을 치르면서 북방 개척을 진행하였다. 이 시기에 압록강 어귀의 麟州와 내륙 방면의 安義鎭, 朔州, 昌州 등을 설치하였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기존의 영토를 발판으로 각기 압록강 방면으로 진출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었다.<sup>1)</sup>

그런데 현종말부터 고려의 북계 주진 설치는 그 성격에 변화가 나타나게 되었다. 현종초까지 주진의 설치는 영토를 새로 확보하고 해당 지역에 행정 및 군사 거점을 수립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현종말 이후로는 영토 개척

\* 경상대학교 사학과 부교수 및 인문학연구소 연구원

1) 윤경진, 「고려 성종-현종초 북방 개척과 州鎭 설치」, 『역사문화연구』 38, 2011

보다 기존 영토를 토대로 방어선을 구축하는 데 주안점을 두게 되었다. 실제 북계 방면에서 현종초 이후 추가적인 영토 확보는 거의 없었다.

이것은 거란이 압록강 남안의 保州를 장악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고려는 압록강을 건너 개척을 진행할 수 없었고, 한편으로 거란의 위협에 대비하여 국경 지역의 방어력을 높여야 했다. 이에 고려는 기존에 확보된 지역을 토대로 방어선을 구축하였고, 이것은 덕종대 장성 축조의 토대가 되었다. 이후 정종대에 장성이 연장 축조되었고, 문종초까지 주진 설치가 진행되었다. 따라서 현종말에서 문종초에 이르는 시기의 북계 주진 설치는 이전 시기와는 역사성에 차이가 있으며, 통상적인 영토 확보의 관점이 아니라 기존 영토를 지키기 위한 방어체계의 형성이라는 관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 북방 영토정책 및 契丹·金과의 영토 분쟁과 관련된 연구는 어느 정도 성과를 축적하고 있다. 압록강 방면의 영토를 둘러싼 거란과의 분쟁은 자료적으로 뒷받침되어 일찍부터 연구자의 관심을 끌었다. 여기에 근래 발생한 중국의 동북공정은 북방 영토와 관련된 주제의 연구를 활성화시켰다.

하지만 기존의 연구는 대개 국가간의 '분쟁'을 고찰한다는 시각에서 접근함으로써 외교사적 맥락에 무게를 두는 경향을 보인다.<sup>2)</sup> 반면 영역 편제와 지방통치의 수립, 방어체계의 형성과 같은 관점에서 당시에 진행된 州鎮 설치나 長城 축조의 실제 내용을 파악하는 연구는 많지 않다.<sup>3)</sup> 이것은 무엇보다 영토 분쟁에 대한 자료에 비해 주진 편제나 장성 축조에 대해 직접

2) 김순자, 「10-11세기 高麗와 遼의 영토 정책: 압록강선 확보 문제 중심으로」, 『北方史論叢』 11, 2006.

김우택, 「11세기 對契丹 영역 분쟁과 高麗의 대응책」, 『韓國史論』 55, 2009.

허인욱, 「高麗의 歷史繼承에 대한 契丹의 認識變化와 領土問題」, 『한국중세사연구』 24, 2008.

허인욱, 「高麗 德宗·靖宗代 契丹과의 鴨綠江 城橋·城堡問題」, 『歷史學研究』 38, 2010.

3) 長城 지역의 州鎮 편제를 구체적으로 다룬 논고로는 다음이 있으나 지방제도의 측면에서 천착되지는 못하였다.

尹武炳, 「高麗北界地理考」, 『歷史學報』 4·5, 1953.

申安湜, 「高麗의 北方政策과 城郭體制」, 『歷史教育』 38, 2004.

宋容德, 「高麗前期 國境地域의 州鎮城編制」, 『韓國史論』 51, 2005.

적으로 알려주는 자료가 적다는 한계에 기인한다. 하지만 자료 이해 및 연구 방법과 관련된 적극적인 모색이 부족했다는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문제를 짚어둘 필요가 있다. 먼저 장성은 덕종대부터 축조가 시작되었지만, 이것은 현종말에 진행된 압록강 방면의 주진 설치를 토대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종 20년부터 압록강 의주 방면에는 威遠鎮과 定戎鎮, 寧德鎮이 설치되었고, 덕종 때에는 靜州가 설치되었다. 이들은 새로운 영토 개척에 따라 설치된 것이 아니라 기존의 영역을 토대로 실질적인 국경 방어선을 형성하기 위한 측면이 강했다. 장성은 이 주진들을 연결하는 데서 출발하였으며, 주진 신설과 장성 설치의 배경이 된 국제 정세 또한 하나의 흐름 속에 있었다. 그런 만큼 압록강 방면의 주진 신설과 장성 축조는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에 덕종대에 시작해서 정종대에 마무리되는 장성 축조는 북방 국경선의 획정이라는 점에서 하나의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그 안에는 시기에 따른 단계적 차이도 존재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덕종대에 이어 정종 원년 松嶺 以東에 장성을 축조하였고, 정종 7년 寧遠鎮과 平虜鎮을 신설하면서 關城, 곧 長城이 함께 축조되었다. 곧 북계 장성은 크게 세 단계에 걸쳐 축조된 것으로, 각 단계에 조응하여 각각의 역사적 배경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

아울러 장성의 단계별 구간 및 구체적인 경유 지역을 확정하는 것도 필요하다. 덕종 2년 장성 축조 기사에는 장성의 경유 지역이 열거되어 있다. 곧 장성은 압록강 하구에서 시작하여 동쪽으로 威遠, 興化, 靜州, 寧海, 寧德, 寧朔, 雲州, 安水, 淸塞, 平虜, 寧遠, 定戎, 孟州, 朔州 등 '13'성을 지나 동계의 耀德, 靜邊, 和州를 거쳐 바다로 이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다.<sup>4)</sup>

지금까지 이 기사의 내용은 별다른 의심없이 수용되고 있으나 실제로는 상당한 논란의 소지를 안고 있다. 우선 이 기사에서 북계 장성의 경유 지역은 '13'성이라 하였으나 실제 열거된 주진은 14개이다. 주진의 수를 잘못

4) 『高麗史』 권82, 兵2 城堡 덕종 2년. 世家에는 장성 축조가 덕종 2년 8월 기사로 되어 있다.

적은 것이거나 어느 하나가 잘못 들어간 것이므로 이에 대한 판단이 요구된다.

또한 열거된 주진 중에는 寧海鎮처럼 다른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sup>5)</sup>, 安水鎮처럼 장성이 경유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sup>6)</sup> 興化鎮은 현종 21년에 靈州防禦使로 개정되었음에도 그 읍호 변동이 반영되지 않았다. 그리고 본문에서 다루겠지만 昌州와 延州처럼 장성 경유가 분명한데도 열거되지 않은 경우도 있다. 이러한 양상은 장성의 실제 경유 지역이 위 기사에 열거된 것과 다르거나 열거된 내용이 달리 해석될 여지가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기사에 대한 분석과 보정을 통해 장성의 경유 지역을 확정하는 것이 요구된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함으로써 북계 장성의 실체를 이해하려는 목적에서 작성되었다. 논의는 크게 장성 경유 지역에 새로 설치되는 주진의 구체적인 연혁을 파악하는 것과 장성 축조의 배경과 경유 지역을 확인하는 것으로 나뉜다.

우선 현종말부터 문종초에 걸쳐 장성 경유 지역에 추가로 설치된 주진의 연혁을 구체적으로 분석 보정할 것이다.<sup>7)</sup> 이들의 설치 시점은 비교적 분명한 편이지만 연혁과 달리 이해될 사례도 없지 않다. 그리고 그 위치가 명확하지 않은 주진에 대해서는 그에 대한 논의도 함께 진행할 것이다.

한편 장성의 축조는 세 단계로 나뉘는데, 이를 처음 장성이 축조되는 단계와 이를 연장하는 단계로 나누어 그 배경과 의미를 살펴볼 것이다. 자료에서 장성 축조의 목적은 외적 방어를 위한 關防의 설치라는 일반적 의미

5) 이에 대해서는 앞서 麟州로 비정한 바 있다(윤경진, 앞의 논문(2011)).

6) 安水鎮은 『고려사』 지리지에 朝陽鎮(連州·价州) 연혁에 포함되어 있으나 근래 永清縣에 새롭게 비정된 바 있다(윤경진, 「고려 태조-광종대 북방 개척과 州鎮 설치: 『高麗史』地理志 北界 州鎮 연혁의 분석과 補正」, 『奎章閣』 37, 2010①). 어느 경우든 장성 경유 지역이 될 수 없다.

7) 필자는 淸塞鎮에 대해 당초 현종 18년에 설치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현종초까지 대상으로 한 선행 논문(윤경진, 앞의 논문(2011))에서는 다루지 않았다. 그러나 長城 축조와 연계하여 검토하는 과정에서 청새진은 安義鎮 등과 마찬가지로 현종초에 설치된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결과적으로 본고에서 설정한 시간 범위에서 벗어나지만, 선행 논문을 보완하는 의미에서 여기서 함께 다루기로 한다.

이상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 하지만 당시의 국제 정세나 주진의 지정학적 위치, 장성 설치 구간 등을 통해 설치 배경을 추출할 수 있다. 아울러 장성의 경유 지역이 분명치 않은 내륙 구간에 대해서는 그 경유 주진을 확정할 것이다.

## 2. 국경 지대 州鎮의 추가 설치

### (1) 압록강 방면의 州鎮 설치

고려는 거란과 1차 전쟁을 벌인 후 강화 협상을 통해 압록강 以東의 영유권을 인정받았다. 그리고 현종초 2차 전쟁을 벌이고 이후 강동 6주를 둘러싼 분쟁을 치르는 과정에서 압록강 방면으로 추가적인 축성을 진행하였다. 해안 쪽에서는 麟州를 설치하면서 압록강 하구에 도달하였고, 내륙 방면으로도 기존의 영역에서 압록강 방면으로 접근하였다.

그러나 거란이 압록강 교두보의 남안을 장악하고 保州를 설치함으로써 고려는 더 이상 개척을 진행할 수 없었다. 대신 예상되는 거란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보주를 에워싸는 형태로 방어선을 구축하게 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일부 주진이 신설 또는 증축(이축)되었다. 이 작업은 현종말부터 시작되었으며 후일 이를 토대로 장성을 축조하게 된다.

여기서는 먼저 장성 축조 이전에 압록강 방면에서 진행된 축성과 그에 따른 방어선의 형성 과정을 해당 주진의 연혁 분석을 토대로 고찰하기로 한다. 여기에는 신설 주진 외에 이 시기에 연혁 변화가 있었던 경우도 포함된다.

#### 1) 威遠鎮

연혁	顯宗二十年 遣柳韶 修古石城 置之 鎮在興化鎮西北
성보(1)	현종 20년 遣平章事柳韶等 修古石城 置威遠鎮 築城八百二十五間 門七 水口一 城頭十二 遮城十二

## 2) 定戎鎮

연혁	顯宗二十年 遣柳韶 修古石壁 置鎮 徙永平民 實之 鎮在興化鎮北
성보(1)	현종 20년 遣平章事柳韶等 (중략) 城定戎鎮八百三十五間 門七 水口三 城頭十二 遮城五

威遠鎮은 柳韶 열전에는 興化鎮을 기준으로 서북쪽 40리에 있다고 되어 있으며, 『新增東國輿地勝覽』에는 의주 남쪽 25리에 있다고 되어 있다.<sup>8)</sup> 홍화진은 의주 남쪽 55리에 있다. 여기서 위원진이 의주와 홍화진을 연결하는 선을 기준으로 그 중간 지점에서 서쪽으로 나아간 위치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定戎鎮은 현종 20년 위원진과 함께 설치되었다.<sup>9)</sup> 정용진은 의주 동쪽 80리에 있으며, 유소 열전에는 홍화진 북쪽에 위치한 것으로만 나온다. 곧 홍화진에서 압록강을 향해 북쪽으로 전진 기지를 건설한 것이다.

고려는 거란과의 전쟁으로 압록강 남안 지역을 상실함으로써 홍화진이 실질적인 최전방 기지가 되었다. 이에 홍화진이 보주를 마주보는 선을 축으로 그 양편에 날개처럼 聲援할 수 있도록 위원진과 정용진을 건설한 것이다. 그 결과 3개의 주진이 보주 지역을 견제하며 둘러싸는 형태로 배치되었다.

이처럼 고려가 현종 20년 압록강 방면에 주진을 신설하고 방어선을 구축한 것은 같은 해에 일어난 興遼國의 반란으로 압록강 방면의 정세가 불안해졌기 때문이다. 현종 20년 9월 거란의 東京將軍 大延琳이 고려에 사신을 보내 건국을 통보하였는데, 이것이 興遼國이다. 渤海를 건국한 大祚榮의 7대손인 대연림은 동경을 거점으로 거란에 반기를 들면서 고려에 원조를 청하였다.<sup>10)</sup> 12월에는 高麗國의 大師 大延定이 東北女眞을 이끌고 거란과 전투를 벌이면서 재차 지원을 요청했으나 고려는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 인해 거란과의 교통로가 막히게 되자<sup>11)</sup> 고려는 西北面判兵馬事 柳韶로 하여

8) 이하 『新增東國輿地勝覽』에 수록된 위치를 채용한 경우 일일이 전거를 밝히지 않기로 한다.

9) 『高麗史』 兵志 城堡조 기사 중 성곽 규모가 함께 정리된 것은 성보(1), 기타 축성 사실만 언급된 것은 성보(2)로 구분하기로 한다.

10) 『高麗史』 권5, 현종 20년 9월 戊午, “契丹東京將軍大延琳 遣大府丞高吉德 告建國 兼求援 延琳 渤海始祖大祚榮七代孫 叛契丹 國號興遼 建元天興.”

11) 『高麗史』 권5, 현종 20년 12월 庚寅.

금 赴鎮하여 대비하도록 하였다.<sup>12)</sup> 고려는 홍요국의 반란으로 인해 국경 지대의 정세가 불안해지자 유소를 보내 방비를 강화한 것이다.

그런데 같은 해 이루어진 위원진 등의 설치 또한 유소가 주도한 것이었다. 열전 기록에 따르면 유소는 이 해에 왕명을 받아 위원진 등을 설치하였는데, 세가에는 당시 유소가 홍요국을 대비하기 위해 赴鎮한 것으로 정리되어 있다. 홍요국 반란에 대응하여 고려가 수립한 방어체계가 바로 위원진 등의 축성이었던 것이다.

홍요국은 이듬해까지도 고려에 거듭 사신을 보내 지원을 요청했지만 고려는 수용하지 않았다.<sup>13)</sup> 결국 홍요국은 거란의 토벌로 건국 1년여 만에 멸망하였다. 이에 고려는 거란에 사신을 보내 동경의 수복을 축하하고 외교를 재개하였다.<sup>14)</sup>

### 3) 麟州

麟州는 현종 즉위년 경에 寧海鎮으로 설치되었으며 현종 9년에 麟州防禦使로 전환되었다. 그런데 인주는 현종 21년에도 축성이 이루어졌는데, 이것은 증축을 나타낸 것으로 이해된다.<sup>15)</sup> 인주의 증축은 『고려사절요』에 2월 기사로 나오고 있어 9월 기사로 나오는 寧德鎮 설치보다 먼저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前年에 있었던 위원진 등의 설치와 연결해 볼 때 인주의 증축은 압록강 방어선의 강화를 위한 조치로 해석할 수 있다.

### 4) 寧德鎮

연혁	文宗十年 避契丹興宗諱 改鎮爲城 以鎮字從眞字也	
성보(1)	현종 21년	城麟州 (중략) 城寧德八百五十二間 門七 水口一 城頭十四 遮城七

12) 『高麗史』 권5, 현종 20년 12월 壬辰, “命西北面判兵馬事柳詔 赴鎮 以備興遼.”

13) 『高麗史』 권5, 현종 21년 정월 丙寅; 『高麗史』 권5, 현종 21년 7월 乙丑. 고려가 홍요국의 요청을 거부한 것은 거란과 재차 전쟁을 치를 수 있다는 부담 때문으로 추정된다. 후술하듯이 고려는 거란 정세의 혼란을 틈타 보주 방면을 경략하자는 논의가 제기되었으나 끝내 실행에 옮기지 못하였다.

14) 『高麗史』 권5, 현종 21년 9월 甲戌.

15) 윤경진, 앞의 논문(2011).

寧德鎮은 의주의 동남쪽 40리에 있다. 정유진이 의주 동쪽 80리에 있으므로 영덕진은 홍화진과 정유진 사이에 위치하게 된다. 영덕진의 설치 시점은 연혁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성보(1)에는 현종 21년으로 되어 있으며, 『고려사절요』에는 동년 9월 기사에 보여 이 해에 설치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정유진 설치에 이어 홍화진과 정유진 사이를 보강한 것이다.

영덕진은 거란의 전초 기지인 來遠城과 마주하며 문서를 교환하는 곳이었다. 정종 원년 5월 거란은 고려 興化鎮에 통첩하였는데<sup>16)</sup>, 같은 해 6월 내원성에 回牒한 주체는 寧德鎮이었다.<sup>17)</sup> 그리고 정종 3년 내원성이 다시 고려에 통첩할 때 이를 접수한 곳은 영덕진이었다.<sup>18)</sup>

이를 통해 당초 고려의 변경에서 거란과 통첩하던 곳은 홍화진이었으나 영덕진이 건설된 후 그 창구가 영덕진으로 변경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정종 원년 당시 거란은 종전과 같이 홍화진으로 통첩했으나 고려의 회신이 영덕진으로부터 오자 이후로는 영덕진으로 통첩하게 되었던 것이다. 문종 때 거란 興宗의 이름을 피하여 寧德鎮을 寧德城으로 改號한 것도 이곳이 거란에 통첩하는 창구로서 문서에 그 명칭이 기재되었기 때문이다.

##### 5) 靈州(興化鎮)

고려의 압록강 방면 최전방 기지였던 홍화진은 현종 21년에 靈州防禦使로 개편되었다. 홍화진은 강동 6주 중에서 유일하게 현종 9년까지도 州로 개편되지 않고 鎮으로 남아 있었다. 그 이유는 분명하지 않으나 압록강 교두보로 나아가는 요새의 성격이 강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고려는 강동 6주를 건설하면서 내륙 경로와 해안 경로 두 방향으로 개척을 진행하였다. 이때 내륙 방면의 전략적 중심지가 된 곳은 홍화진 후방에 있는 龜州였다. 귀주를 중심으로 압록강 건널목 방면으로 홍화진이 전진 배치된 구도인 것이다. 그리고 현종초에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귀주 북쪽

16) 『高麗史』 권6, 靖宗 원년 5월, “契丹來遠城 使檢校右散騎常侍安署 牒興化鎮.”

17) 『高麗史』 권6 靖宗 원년 6월, “是月 寧德鎮廻牒契丹來遠城.”

18) 『高麗史』 권6, 靖宗 3년 9월, “是月 契丹來遠城 奉皇帝宣旨 牒寧德鎮.”

에 추가로 安義鎭을 설치하였다.

현종 9년 거란 蕭排押이 침공했을 때 姜邯贊이 이끄는 고려군은 홍화진에서 거란군을 공격하여 대승을 거두었다. 그리고 거란군이 개경을 直攻했다가 퇴각할 때 고려군은 龜州로 이동하여 길을 차단하고 거란군을 섬멸하였다. 이것은 홍화진과 귀주의 전략적 차이를 반영하고 있다. 홍화진이 최전방 요새로서 적의 예봉을 꺾는 위치에 있었다면, 귀주는 이 방면을 지휘하는 전략 중심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위원진과 정용진, 영덕진 등이 추가로 건설되면서 최전방 요새로서 홍화진의 역할은 줄어들었다. 한편으로 이 지역에 밀집 배치된 주진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전략 중심이 요구되었다. 후방의 귀주가 이 주진들을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홍화진을 영주방어사로 개편하여 압록강 방어선의 전략 중심으로 삼은 것이다. 곧 영주는 과거 귀주가 담당하던 역할을 일정하게 이어받은 것이라 할 수 있다.

홍화진의 현종 21년 연혁은 덕종 원년 기사에 靈州의 용례가 보여 그 사실성이 인정된다.<sup>19)</sup> 그런데 한편으로 현종 21년 이후에도 興化鎭의 용례가 나오고 있어 이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이에 해당하는 용례는 덕종 2년 장성 축조 기사와 정종 원년 거란 來遠城에서 홍화진에 통첩한 기사가 있다.<sup>20)</sup>

우선 장성 축조 기사는 시점의 혼선이 보인다. 곧 정종 7년에 비로소 설치되는 寧遠鎭과 平虜鎭도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寧海鎭은 현종 9년에 麟州로 개정된 상태였다. 마찬가지로 靈州가 興化鎭으로 나오는 것도 시점의 혼선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음에 정종 원년 기사는 거란의 來遠城에서 통첩한 문서에 수령자를 興化鎭으로 적은 결과로 보인다. 곧 거란은 홍화진이 영주로 개편된 상황을 인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령자를 그대로 홍화진으로 적은 것이다. 문서의 회신자가 寧德鎭이었던 것에서 드러나듯이 거란은 당시 외교 문서의 수발

19) 『高麗史』 권53, 五行1 火 덕종 원년 2월 癸酉, “靈州火.”

20) 『高麗史』 권6, 靖宗 원년 5월.

창구 변경을 모르는 상태였다. 이에 이전처럼 수령자를 홍화진으로 적어 보낸 것이 『고려사』 기사에 그대로 반영된 것이다.

## 6) 靜州

연혁	本 高麗 松山縣 德宗二年 築城 徙民一千戶 實之 文宗三十二年 又以靜州等五城 城大民小 徙內地民 各百戶 實之		
성보(1)	덕종 2년	又城靜州鎮一千五百五十三間 門十 水口一 城頭四十五 遮城九 重城二百六十間	

靜州는 의주의 남쪽 25리에 있으며 압록강에 바로 인접해 있다. 인주와 위원진 사이에 해당하는데, 조선 태종 때 위원진과 함께 의주에 폐합되었다. 다른 주진의 연혁에 비추어 정주 역시 鎭에서 출발했을 가능성이 있다. ‘本’ 음호가 松山縣으로 되어 있는데, 이를 설치 당시 鎭의 명칭으로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성종-현종대에 후방의 鎭이 대부분 州로 전환되었고, 장성 기사에 홍화진(영주)이나 영해진(인주)과 달리 靜州로 나오고 있어 처음부터 州였을 가능성이 높다.<sup>21)</sup> 성보조에는 靜州鎭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는 정주로 설치된 것을 주변의 위원진 등과 같은 맥락에서 鎭으로 인식한 결과가 아닌가 한다.

한편 『고려사』 樂志에는 정주와 관련된 내용으로 다음 기사가 보인다.

來遠城은 靜州에 있으니 水中에 있는 땅이다. 狄人이 來投하면 이곳에 두는데 그 城의 이름을 來遠이라 하고 노래를 만들어 기록하였다.<sup>22)</sup>

위의 기사는 三國俗樂 중 高句麗 항목에 있는 ‘來遠城’이라는 노래에 대한 설명인데, 가사는 전해지지 않는다. 이 기사는 고구려 속악에 대한 설명이므로 고구려 때의 지명으로 파악될 수도 있다. 그러나 실제 고구려 때 이 지역에 來遠城을 두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 고구려의 영토를 고려

21) 松山은 『新增東國輿地勝覽』에 義州의 鎭山으로 나오는데, 본래 정주의 관할이었다가 조 선초기 정주가 의주에 병합된 후 의주의 鎭山으로 전환된 것으로 추정된다.

22) 『高麗史』 권71, 志25 樂2 三國俗樂-高句麗, “來遠城 在靜州 卽水中之地 狄人來投 置之於此 名其城曰來遠 歌以紀之.”

할 때 변경도 아닌 이 지역에 내투한 '狄人'을 둘 이유도 생각하기 어렵다. 내투한 狄人을 압록강의 섬에 둔다는 것은 이 지역이 접경 지대임을 의미하며, 따라서 고려 때의 상황으로 보아야 한다. 다음 자료는 이러한 이해를 뒷받침한다.

西京將軍 柳涉이 압록강의 船兵을 防守하는데, 契丹人이 來投하자 追捕하는 자가 長城을 넘어 들어와 靜州를 압박하였음에도 涉이 守禦하지 못하므로 制를 내려 免官케 하였다.<sup>23)</sup>

위의 기사는 문종 27년의 것으로서 거란에서 장성을 넘어 정주로 내투하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내투한 적인을 정주 관할의 섬에 안치시키는 조치와 부합한다. 이는 정주가 거란 방면에 가장 근접한 곳이었기 때문에 나타난 상황이다.<sup>24)</sup>

한편 의종 19년 金의 장수가 인주와 정주 관내의 섬들을 공격하고 방수 하던 靜州의 別將을 잡아간 일이 있었다.<sup>25)</sup> 여기서 정주가 인주와 함께 압록강의 섬들을 관할하고 있었다는 것도 알 수 있다. 결국 고려는 정주 방면으로 들어오는 거란인들을 정주 관내의 섬에 안치시켰던 것이<sup>26)</sup> 樂志에서는 고려 때의 사적으로 오인하여 정리한 것이다.<sup>27)</sup>

23) 『高麗史』 권9, 문종 27년 6월 己卯, “西京將軍柳涉 防守鴨綠船兵 有契丹人來投 其追捕者 越入長城 逼靜州 涉不能守禦 制令免官.”

24)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따르면 정주와 위원진은 의주 남쪽 25리, 영주(홍화진)는 의주 남쪽 55리, 영덕진은 의주 동남쪽 40리로 되어 있다. 특히 정주는 압록강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거란 쪽에서 강을 건너면 바로 고려 영내로 진입하게 된다.

25) 『高麗史』 권18, 의종 19년 3월 辛亥, “金大夫營主 道鏡卒七十餘人 攻麟靜二州境內之島 執防守靜州別將元向等十六人 以歸.”

26) 『고려사』에는 주로 南地에 안치시키는 것으로 나오고 있어 정주 관내의 섬에 안치시킨 것은 초기에 있었던 임시적인 조치였다고 생각된다.

27) 이때 내투한 적인들을 안치한 지역을 來遠城으로 불렀다는 점이 주목된다. 내원성은 거란이 고려에 외교 문서를 통첩하는 창구로서 홍화진 또는 영덕진과 교통로가 연결되어 있었다. 이로 보면 거란의 행정 단위로써 내원성이 정주 관할의 섬에 있었다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것은 고려 쪽의 인식에 따른 혼동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 문제는 따로 논할 기회를 가질 것이다.

## (2) 내륙 방면의 州鎮 설치

이번에는 정유진 이동의 내륙 방면에 설치된 주진 중 선행 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던 국경 지역 주진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 1) 淸塞鎮

연혁	高宗四年 以禦丹兵有功 陞威州防禦使 後 投狄背國 改稱熙州 爲价州兼官	
성보(1)	현종 18년	城淸塞鎮八百二十一間 門七 水口四 城頭十五 遮城四
성보(2)	경종 4년	城淸塞鎮

淸塞鎮은 곧 熙州로서 延州의 동쪽, 德州의 북쪽에 위치하고 있다. 朔州와 雲州를 거친 장성이 동계 방면으로 넘어가는 지점에 위치하며, 후술하듯이 寧遠鎮 축성 이전까지 장성의 동단이었다.

연혁에는 축성과 설치에 관련된 기사가 없으며, 성보(1)에는 현종 18년, 성보(2)에는 경종 4년의 축성 기사가 있다. 후자를 취할 경우, 광종말 연주 등이 축성된 뒤 경종대에 이 방면에 대한 추가적인 개척이 진행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나 당시 정황으로 볼 때 가능성은 높지 않다.

고려는 광종대 개척된 嘉州 지역을 상한으로 더 이상 북계 방면으로 영토 개척을 진행하지 못하였다. 성종 4년까지 고려는 雲州와 泰州, 博州를 연결하는 선을 경계로 삼고 있었으며, 성종 13년부터 강동 6주를 개척하면서 비로소 압록강 방면으로 진출하는 데 주력하였다. 현종초 태주와 운주에서 다시 압록강 방면으로 개척을 진행하여 朔州와 昌州가 설치되었다. 따라서 이보다 앞서 경종대에 내륙 방면으로 개척이 진행되어 청새진을 두었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한편 경종 4년(己卯)을 1주갑 내려 정종 5년에 설치된 것으로 이해할 여지도 있다. 정종 원년부터 장성을 연장하였으므로 그 과정에서 청새진이 설치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후술하듯이 1차 장성이 3개월만에 끝난 점과 정종 7년에 關城 축조가 있었던 점으로 보아 정종 원년에 시작한 장성 연

장이 정종 5년 청새진 설치로 이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청새진이 2차 장성의 동단이 되었다면 정종 원년 이전에 이미 설치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하지만 청새진의 설치를 성보(1)처럼 현종 18년으로 보는 것도 난점이 있다. 현종 9년 蕭排押의 침공을 끝으로 고려는 거란과 국교를 정상화하는 과정을 밟았다. 이후 현종 20년 압록강 방어선을 형성할 때까지 고려가 국경 지역에 주진을 추가 설치할 만한 상황이 발견되지 않고, 당시 설치를 확정할 만한 사례도 찾을 수 없다. 이에 비추어 청새진만 현종 18년에 설치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여기서 새로운 가능성으로 현종 18년에서 12년 올라간 현종 6년을 생각할 수 있다. 현종 6년의 간지는 乙卯이다. 성보조에 기록된 현종 18년은 丁卯, 경종 4년은 己卯이다. 모두 오독의 가능성이 상정된다. 곧 실제 축성 시점은 현종 6년인데, 간지의 오독으로 경종 4년 및 현종 18년이라는 시점이 생성된 것이다.

현재로서는 청새진의 설치 시기를 확정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고려가 현종초 기존 영토를 토대로 추가 진출하는 방향에서 다수의 주진을 설치하였음을 고려할 때, 연주 내지 덕주에서 추가 진출한 위치에 있는 청새진 역시 이 즈음에 설치되었다고 보는 것이 무리가 없을 것이다.

## 2) 寧遠鎮

연혁	靖宗七年 命崔冲 築城	
성보(1)	정종 7년	崔冲城寧遠平虜二鎮 寧遠城七百五十九間 堡子八 區內金剛戌四十二間 宣威戌六十一間 宣德戌五十間 長平戌五十三間 鼎岑戌三十八間 鎮河戌四十二間 鐵壠戌六十一間 定安戌三十二間 關城一萬一千七百間

## 3) 平虜鎮

연혁	靖宗七年 命崔冲 築城	
성보(1)	정종 7년	崔冲城寧遠平虜二鎮 (중략) 平虜城五百八十二間 堡子六 區內擣戎戌三十六間 鎮兎戌三十間 直岑戌四十一間 降魔戌五十間 折衝戌三十間 靜戎戌三十間 關城一萬四千四百九十五間
성보(2)	목종 4년	城永豐 平虜二鎮

고려는 현종초 내륙 방면에서 삭주, 창주, 청새진을 차례로 설치하였으나 현종 20년부터 압록강 방어선 구축에 주력하면서 내륙 방면의 개척은 진전을 보지 못하였다. 정종 원년 장성을 내륙 방면으로 연장하면서 삭주에서 청새진까지 장성이 축조되었다. 당시 청새진 동쪽은 공백 지역으로 남아 있었다. 고려는 이 지역으로 장성을 연장하면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새로 鎭을 설치했는데, 이들이 寧遠鎭과 平虜鎭(柔遠鎭)이다.

정종 7년 최충은 왕명에 따라 邊境에서 城池를 拓定하고 寧遠鎭·平虜鎭과 堡 14개를 설치하였다.<sup>28)</sup> 이 조치는 청새진에 이른 장성을 동계 방면으로 연결하기 위해 내륙 깊은 곳을 추가로 개척한 것으로서 14개의 堡는 바로 장성 축조에 수반하여 설치된 것이다.

두 鎭은 몽고의 침입으로 永淸縣 지역에 僑寓하다가 조선에 들어 그대로 폐합되었다. 이에 영청현과 영원진의 읍호를 따서 永寧縣이라 하였으나 세종 때 永寧殿의 이름을 피하여 평로진의 개정된 명칭인 柔遠鎭의 읍호를 따서 永柔縣으로 바꾸었다. 그리고 세조 때 예전 자리에 새로 寧遠郡을 두었다.

이로인해 『新增東國輿地勝覽』에서 유원진은 영유현 고적조에 수록되었는데, 그 위치는 교우하던 곳에 해당한다. 반면 영원진은 영원군 연혁으로 들어갔는데, 영원진이 교우하던 곳은 영유현 고적조에 古寧遠으로 수록되었다.<sup>29)</sup>

본래 자리에서는 평로진이 영원진의 서쪽에 위치하고 있었다. 이는 다음 자료를 통해 유추된다.

보낸 군사 6천 명이 淸塞鎭에서 싸웠는데, 적을 생포하고 죽인 것이 아주 많았다. 平虜鎭都領 祿進도 역시 70여 명을 격살하니 적이 드디어 청새진을 넘어 도망갔다.<sup>30)</sup>

28) 『高麗史』 권95, 列傳8 崔冲, “王命冲行邊境拓定城池 賜衣遣之 冲置寧遠 平虜等鎭及諸堡十四.”

29) 寧遠鎭과 平虜鎭의 僑寓에 대해서는 윤경진, 「고려후기 北界 州鎭의 海島入保와 出陸 僑寓」, 『震檀學報』 109, 2010 ② 참조.

30) 『東文選』 권69, 金平章行軍記, “所遣六千人 戰于淸塞鎭 擒殺過當 平虜鎭都領祿進亦擊殺七十餘級 賊遂踰淸塞鎭遁去.”

위의 기록은 李齊賢이 찬한 「金平章行軍記」의 일부로서 고종 3년 거란의 침입을 막아낸 金就礪의 공적을 적은 것이다. 위의 전과는 청새진 방면에서 이루어진 것인데, 여기에 平虜鎮都領이 참여하여 전과를 올렸다. 이는 청새진과 평로진이 서로 인접해 있음을 시사한다.<sup>31)</sup>

이에 따르면 평로진은 청새진과 영원진 사이에 위치하게 된다. 예종 4년 關外蕃長을引見한 기사에서 延州와 淸塞鎮, 平虜鎮이 차례로 언급된 것에서도 이러한 위치 관계를 가늠할 수 있다.<sup>32)</sup>

한편 平虜鎮의 경우 성보조에 목종 4년에 축성되었다는 기사가 있는데, 평로진 설치의 정종 7년이 확실하므로 목종 4년은 오기이다. 목종 4년의 간지가 辛丑이고, 정종 7년의 간지가 辛巳라는 것을 볼 때, 간지의 오독에 의해 시점이 잘못 비정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간지 오독이 분명하게 확인되는 사례로서 다른 주진의 연혁을 유추하는 데 단서를 제공한다.

#### 4) 寧朔鎮

연혁	古 榛田 高麗 改今名 文宗四年 築城	
성보(1)	문종 4년	城安義鎮榛子農場 爲寧朔鎮 以扼蕃賊要衝 六百六十八間 門六 水口三 城頭十三 遮城五
성보(2)	광종 20년	城寧朔鎮
성보(2)	정종 9년	城寧朔 樹德二鎮

寧朔鎮은 安義鎮의 榛子農場에 새로 설치한 鎮으로서 의주 동쪽 120리에 있었다. 이곳은 안의진에서 장성 쪽으로 더 올라온 위치이다. 곧 영삭진은 장성이 통과하는 지역으로 정유진과 삭주 사이에 자리한 것이다.

연혁에서 문종 4년에 축성했다는 기록은 성보(1)의 내용과 일치한다. ‘古’ 읍호로 되어 있는 榛田과 성보(1)에 나오는 榛子農場은 같은 지역이다. 그런데 성보(2)에는 광종 20년과 정종 9년 두 개의 축성 기사가 수록되어 있다.

영삭진은 그 위치로 보아 광종 20년에 설치되었을 가능성은 없다. 이 연

31) 金希礪 열전에는 淸虜鎮의 용례가 보인다(『高麗史』 권103, 列傳16 金希礪, “是夜 冰合乃渡 入自淸虜鎮”). 청로진은 지리지에서 확인되지 않는 鎮인데, 의미상 청새진이나 평로진의 오기이거나 두 진을 合稱한 것이 아닌가 한다.

32) 『高麗史』 권13, 예종 4년 2월 己亥.

혁은 泰州 연혁과 관련된 것이다. 태주는 광종 20(21)년에 설치된 것으로 파악되며, 연혁 중 주기로 “一云寧朔鎭”이라는 기사가 들어 있다. 정보(1)에 광종 20년에 태주에 축성한 기사가 있는데, 이 기사와 광종 20년 영삭진 축성 기사는 실제로는 같은 사실을 나타낸 것으로 추정된다.

다음에 정종 9년의 축성 기사의 실체는 분명하지 않으며, 축성과 관련된 특별한 정황도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영삭진 설치를 문종 4년의 일로 보는 것이 적절할 듯하다. 榛子農場과 陳田으로 명칭을 조금 달리하면서도 시점이 같은 것이나 기사 내용에 蕃賊의 요충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목적까지 밝힌 것에서 그 사실성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寧朔鎭과 관련하여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은 덕종 2년 장성 축조 기사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영삭진이 장성 경유 지역임은 분명하지만, 북계 장성은 정종 7년 영원진과 평로진을 설치하고 관성을 축조하면서 완성되었다. 기사가 수록된 덕종 2년은 장성 축조가 시작된 시점으로서 여기에 완성된 장성의 경유 주진들을 정리한 것이다. 따라서 그 시점은 정종 7년으로 파악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런데 문종 4년에 비로소 설치된 영삭진이 들어 있는 것이다.

이 문제는 장성 축조 기사에 열거된 북계 주진의 수가 14개인데 기사에는 13개로 적고 있다는 데서 이해의 단서를 찾을 수 있다. ‘十四’를 ‘十三’으로 잘못 적었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 열거된 주진의 수를 센 것이므로 단순한 오류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여기서 새로운 가능성으로 ‘追記’의 요소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곧 본래 자료에는 정종 7년을 기준으로 13개 주진을 열거했는데, 뒤에 하나가 추가로 들어갔다는 것이다. 이것은 원 자료에서 추기된 것일 수도 있고, 편집 과정에서 추가한 것일 수도 있으나 후자의 경우 당연히 열거된 수를 ‘十四’로 적었을 것이라고 보면 전자의 가능성이 높다. 食貨志 外官祿 규정에서 이러한 원 자료상의 추기가 구분없이 그대로 전제되어 기준 시점과 내용을 이해하는 데 난점을 초래한 사례를 찾을 수 있다.<sup>33)</sup>

33) 外官祿 규정에 들어 있는 追記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윤경진, 『『고려사』 식화지(食貨志) 외관록(外官祿) 규정의 기준 시점과 성립 배경』, 『역사와현실』 78, 2010③ 참조.

이때 장성 경유 주진으로 추가된 것이 바로 寧朔鎮으로 판단된다. 다시 말해 13개 주진을 수록한 원 자료에 영삭진이 추기되었는데, 그에 연동하여 전체 숫자는 고치지 않음으로써 자료에 기재된 전체 주진 수와 실제 열거된 주진의 수가 서로 어긋나는 결과가 발생한 것이다.

### 3. 長城 축조의 배경과 경유 州鎮

#### (1) 1차 長城 축조의 배경

고려가 현종말에 주진을 추가로 설치하며 압록강 방어선을 강화한 것은 興遼국의 반란으로 인해 압록강 방면의 정세가 불안해졌기 때문이다. 興遼국의 반란은 곧 진압되었지만 그 여파는 德宗대까지 이어지고 있었다. 德宗 2년 장성 축조는 그에 대한 대응이라는 성격을 띠고 있었다.

고려는 興遼국의 반란이 발생하자 국경 지역에 城池를 갖추면서 상황을 주시하고 있었다. 이때 축성된 곳이 바로 위원진과 정용진 등이다. 그런데 德宗 즉위 후 거란 聖宗이 사망하자 고려는 이것이 압록강 방면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보고 적극적인 행보를 모색하게 되었다.

당시 논의를 주도한 王可道는 다음과 같이 건의하였다.

契丹이 우리와 通好하여 예물을 교환하고 있으나 并呑할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 왕이 죽었는데 駙馬 匹梯가 東京에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때를 이용하여 압록강의 城橋를 철거하고 억류된 우리 行人을 돌려보낼 것을 청하되 만약 듣지 않거든 관계를 끊어도 될 것입니다.<sup>34)</sup>

위에서 압록강 城橋란 앞서 거란이 고려를 침공하면서 압록강에 설치한

34) 『高麗史』 권94, 列傳7 王可道, “契丹與我通好交贄 然每有并呑之志 今其主殂 駙馬匹梯 叛據東京 宜乘此時 請毀鴨綠城橋 歸所留我行人 若不聽 可與之絕.”

시설을 말한다.<sup>35)</sup> 이 城橋는 거란이 상시적으로 고려에 대해 군사적 행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이었기 때문에 고려는 늘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곧 압록강 성교는 왕가도가 지직한 “거란의 병탄 의도”를 직접 보여주는 실체였던 것이다.

한편 동경에서 반란을 일으켰다는 駙馬 匹梯는 『遼史』에서 그 명칭이 확인되지 않는데, 당시 역모 혐의로 처형된 蕭匹敵을 가리키는 것으로 생각된다. 소필적인 대연림의 홍요국 반란을 진압한 인물로서 興宗 즉위 직후 역모를 꾀했다는 무고로 황후에 의해 賜死되었다.<sup>36)</sup> 그가 동경에서 반란을 일으켰다는 것은 그의 혐의를 前年에 있었던 홍요국의 반란과 연결하여 이해한 결과로 생각된다.

왕가도는 이러한 거란 정세의 혼란을 이용해 압록강 방면의 경략에 나서고자 하였다. 이에 고려는 일차적으로 거란에게 성교의 철거를 요구하였다. 이것은 곧 보주 방면을 고려가 장악한다는 의미였다. 이를 거란이 수용하지 않자 고려는 다시 통교 유지 여부를 논의하였다.

이때 통교를 끊자는 徐訥 등과 통교를 유지해야 한다는 皇甫兪義 등의 견해가 맞았으나 덕종은 왕가도 및 서늘의 의견을 따라 賀正使를 정지하는 한편 새 연호의 도입을 거부하고 성종의 太平 연호를 계속 사용하였다. 완전한 국교의 단절은 아니지만 자신들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은 데 대해 외교적 압박을 가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보다 공격적인 대응을 요구하였다. 柳韶는 丹城, 곧 保州城을攻破할 것을 청하였는데, 이는 전술한 왕가도의 입론을 강화한 것이었다. 정계는 다시 군사적 행동은 안된다는 徐訥·皇甫兪義 등의 의견과 기회를 살려 출병해야 한다는 王可道·李端 등의 주장이 맞았다. 덕종은 太廟에서 점을 쳐 가부를 판단했는데, 결국 出兵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처럼 고려는 직접적인 공격에 이르지지는 않았지만, 외교적 압박을 택한 이상 그에 대한 거란의 반발과 침공에 대비할 필요가 있었다. 당시 고려

35) 『高麗史』 권4, 현종 6년 정월, “契丹作橋於鴨綠江夾橋 築東西城 遣將攻破 不克.”

압록강 城橋의 구체적인 내용은 허인옥, 앞의 논문(2010) 참조.

36) 『遼史』 권18, 聖宗 太平 11년 6월 辛丑.

정계의 분위기로 볼 때 보주 방면에 대한 군사적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조치가 상정된다.

덕종 2년 장성의 축조는 바로 이러한 상황의 결과물이었다. 이는 다음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어찌 지난 수년 동안 舊好를 살피지 않고 石城을 쌓아 大路를 차단하고 木寨를 세워 奇兵을 감춰두려고 하는가<sup>37)</sup>

위의 기록은 정종 원년 거란에서 보내온 문서의 일부이다. 거란이 고려에 대해 힐난하는 내용은 장성 축조를 직접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장성 축조에 따라 외부에서 고려 영내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일부 지역에 설치된 관문을 거쳐야 했다. 거란이 大路를 차단했다는 것은 이를 가리킨다.

그리고 木寨를 세워 奇兵을 감춰둔다는 것은 군사적 방어의 강화를 의미한다. 이것은 현종 20년 이후 압록강 방어선의 구축을 통해 이미 진행되고 있던 것인데, 장성 축조에 수반하여 각지에 목책을 건설하여 병력을 비축해 두었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덕종 2년 장성 축조가 거란과의 외교적 긴장 속에 국경 방어를 강화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물론 현종 20년 압록강 방어선의 구축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며, 덕종초의 경략 모색을 토대로 하고 있다. 이러한 고려의 군사적 조치는 외교적 압박과 병행되었기 때문에 거란은 외교 문서에서 위와 같이 고려를 힐난하였던 것이다.

덕종 2년 장성 축조를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때, 그 범위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 고려가 이 당시부터 전 국경에 걸친 장성의 축조를 의도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 축조를 시작한 지 3개월 만인 동년 11월에 關城 개척에 공을 세운 西女眞 무리를 포상한 것은 당시 축성이 단기간에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sup>38)</sup> 이로 보아 축성은 현종말에 수

37) 『高麗史』 권6, 靖宗 원년 5월, “曷越數年 不尋舊好 累石城而擬遮大路 堅木寨而欲礙奇兵.”

38) 『高麗史』 권5, 덕종 2년 11월 辛卯, “以西女眞芟火等一百五十六人 開拓關城時 並有功勞 加爵一級.”

립된 압록강 방어선을 연결하는 한편 이를 일정하게 확대하는 수준이었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1차 장성의 범위는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 그 西端은 응당 압록강 어귀의 麟州가 될 것이다. 이에 대해 정종 원년 2차 장성의 축조가 松嶺 以東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1차 장성의 東端은 송령이 된다. 하지만 현재 송령의 위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장성의 동단 역시 정확히 가늠하기 어렵다.

그러나 1차 장성이 압록강 방어선을 토대로 하고 있는 만큼 그 동단은 定戎鎮에서 멀지 않은 지점이 될 것인데, 그 가능성이 높은 곳이 朔州이다. 이것은 다음 자료를 통해 유추할 수 있다.

契丹이 留使를 보내 來遠城에 이르렀는데 받아들이지 않았다. 마침내 朔州와 寧仁鎮, 派川 등의 縣에 성을 쌓아 대비하였다.<sup>39)</sup>

위의 기사는 덕종 원년의 것으로서 고려는 거란의 사신을 받아들이지 않는 한편 朔州 등에 성을 쌓아 방비를 강화하였다.<sup>40)</sup> 정보조에도 덕종 원년에 삭주에 축성한 기사가 보인다. 그런데 삭주는 현종초에 이미 설치되어 현종 9년에 삭주방어사로 개편되었으므로 이때의 축성은 增築 내지 移築으로 보아야 한다.

이것은 현종 21년 麟州가 증축된 것과 유사한 맥락이다. 인주의 증축은 당시 압록강 방어선의 서쪽 거점인 위원진을 배후에서 지원하는 의미가 있었다. 마찬가지로 삭주는 압록강 방어선의 동쪽 거점인 정유진을 배후에서 지원하는 지정학적 성격을 띠고 있었다. 덕종 원년에 삭주를 증축한 것은 이러한 기능을 강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덕종 2년 장성 축조에서

39) 『高麗史』 권5, 덕종 원년 정월 乙酉, “契丹遣留使來 至來遠城 不納 遂城朔州寧仁鎮派川等縣 備之.”

40) 寧仁鎮과 派川縣은 동계 소속이고 최전방도 아니어서 당시 거란 정세에 직접 대응할 목적으로 축성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데, 같은 시기에 축성되어 연결 인식된 것으로 보인다(윤경진, 앞의 논문(2011)).

인주가 그 西端이 되는 것처럼 방어선의 동쪽 배후 기점인 삭주가 그 동단이 되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한편 당시 장성 축조는 단순히 '장벽'을 건설하여 방비를 강화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전략도 수반하고 있었다. 그 산물이 바로 靜州의 설치였다. 고려가 장성을 축조하기 시작한 지 2개월 만인 덕종 2년 10월 거란이 정주를 침공한 데서 정주의 의미를 짐작할 수 있다.<sup>41)</sup> 다음 기사 역시 정주의 전략적 의미가 잘 나타난 사례이다.

都兵馬使가 상주하기를, “지금 遼의 東京兵馬都部署가 移文하여 靜州關内の 軍營을 혁파할 것을 청하였습니다. 근래 大安 연간에 遼가 鴨江에 亭子和 樵場을 두고자 하여 我朝가 사신을 보내 혁파를 청하니 遼帝가 들어주었습니다. 지금 또한 그 청을 들어주어야 할 것입니다” 라고 하므로 制可하였다.<sup>42)</sup>

위의 기사는 숙종 6년의 것으로서 당시 고려가 정주 關内に 軍營을 설치한 데 따른 양국의 외교 분쟁을 보여주고 있다. 이 조치에 대해 거란 쪽에서 혁파를 요청해 온 것은 정주의 군영이 거란의 보주 방면에 대해 군사적 부담을 가하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특히 고려에 移文한 주체가 보주나 내 원성이 아니라 東京兵馬都部署라는 것은 정주의 군영 설치가 전략적으로 중대한 조치였음을 가늠케 한다.<sup>43)</sup>

현종 21년 인주의 증축을 통해 압록강 방어선의 서쪽 거점인 위원진을 배후에서 지원하도록 했지만, 이 지역은 압록강과 인접해 있었기 때문에 거란의 직접적인 공격에 노출될 수 있었다. 이에 인주와 위원진 사이의 압록강 인접 지점에 정주를 설치한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뒤집어 말하면 거

41) 『高麗史』 권5, 덕종 2년 10월 丁未, “契丹侵靜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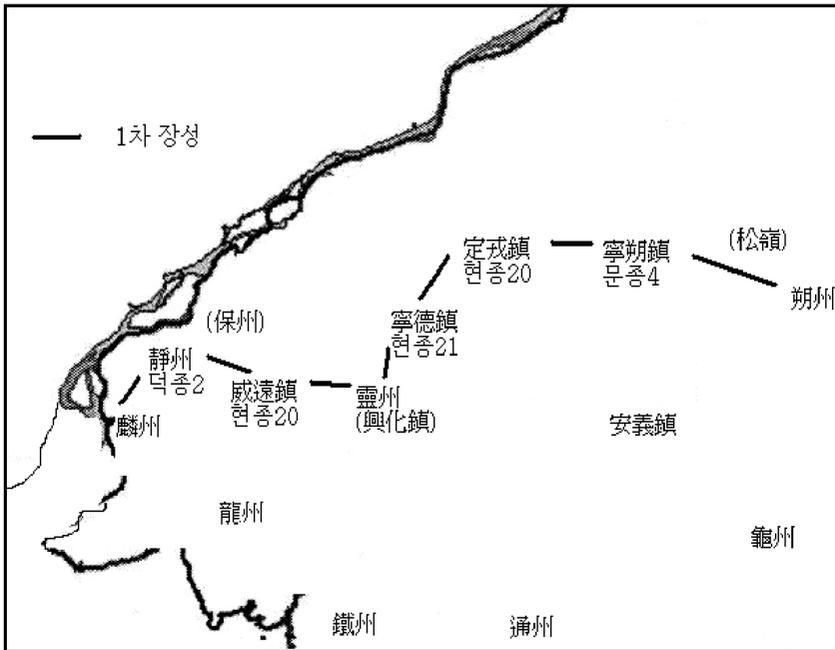
『高麗史節要』에는 靜州의 축성이 거란의 靜州 침공보다 뒤에 배치되어 있는데, 이는 서로 계통이 다른 자료에서 채록하여 정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이다.

42) 『高麗史』 권11, 숙종 6년 8월 乙巳, “都兵馬使奏 今遼東京兵馬都部署 移文 請罷靜州關內軍營 頃在大安中 遼欲於鴨江 置亭子和樵場 我朝遣使請罷 遼帝聽之 今亦宜從其請 制可.”

43) 한편 大安 연간의 일은 선종 5년 거란이 설치한 亭子和 樵場의 혁파를 요청하여 허락을 받은 일을 가리킨다(『高麗史』 권10, 선종 5년 9월).

란 쪽을 직접 압박하는 거점이 될 수 있다는 의미도 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거란에서 내부한 사람들이 정주로 넘어온 것이나 정주 관내에 군영을 설치한 것 등은 이러한 정주의 복합적인 지정학적 특징에 기인한 것이다.

결국 고려는 압록강 방면에 대한 직접 경략이 곤란한 상황에서 정주 축성을 통해 방비 강화와 함께 거란의 보주 방면을 압박했던 것이다. 그 결과 고려의 압록강 방면은 홍화진에서 개정된 靈州를 중심으로 서쪽으로는 靜州, 동쪽으로는 定戎鎮이 요충으로 자리하였고<sup>44)</sup>, 다시 영주와 두 주진 사이에는 각각 威遠鎮과 寧德鎮이 연결 고리 역할을 하며, 麟州와 朔州가 각기 정주와 정유진의 배후에서 지원하는 구도로 배치되었다. 덕종 2년 1차 장성은 바로 이 확대된 방어선을 연결한 것이었다.



〈그림 1〉 압록강 방어선과 1차 長城

44) 정유진의 전략적 위치는 문종 30년 거란이 定戎鎮 關外에 암자를 설치하여 고려에 압박을 가한 것에서 유추할 수 있다(『高麗史』 권9, 문종 30년 8월 庚戌).

## (2) 長城 연장의 배경

덕종 2년 압록강 어귀의 麟州에서 내륙의 朔州까지 축조된 1차 장성은 정종 원년부터 연장 축조되었다. 이것을 2차 장성으로 부를 수 있다. 그리고 정종 7년 영원진 등을 설치하면서 다시 장성이 축조되었는데, 이것을 3차 장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 2차 장성의 축조에 대해서는 다음 기사가 보인다.

이 달에 西北路 松嶺 以東에 長城을 쌓아 邊寇의 요충을 막았다.<sup>45)</sup>

위에 언급되었듯이 2차 장성은 정종 원년 송령을 기준으로 그 이동 지역에 대해 축조된 것인데, 이것이 언제까지 진행되었고 어디까지 연장되었는지는 직접 드러나지 않는다. 다만 2차 장성은 淸塞鎮으로 파악된다. 정종 7년 평로진과 영원진을 축성하면서 3차 장성이 축조되었으므로 앞서 완성된 2차 장성의 동단은 여기서 가장 가까운 청새진이 될 것이다.

이는 다음 자료를 통해서도 유추할 수 있다.

西北路兵馬使가 압록강 以東에서 淸塞鎮 管轄의 立石村까지 蕃戶를 編籍하여 보고하였다.<sup>46)</sup>

위의 기사는 정종 8년의 것으로서 압록강에서 청새진까지 蕃戶에 대한 編籍이 이루어진 사실을 전하고 있다. 이것은 당시 청새진이 북계 장성의 관리체계에서 동쪽 한계선이 되고 있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3차 장성을 축조한 이듬해에 진행된 번호 편적에서 그 대상이 청새진까지로 설정된 것은 아직 영원진 방면으로 관리체계가 연장되지 않은 결과이다. 곧 이전까지 장성의 東端이 청새진이었으며, 이를 토대로 형성된 관리체계가 3차 장성 축조 후에도 한동안 유지되고 있었던 것이다.

45) 『高麗史』 권6, 靖宗 원년 9월, “是月 築長城於西北路松嶺迤東 以扼邊寇之衝.”

46) 『高麗史』 권6, 靖宗 8년 정월 庚申, “西北路兵馬使 籍鴨綠以東 至淸塞鎮轄下 立石村蕃戶以聞.”

정종 원년 고려가 송령 이동 지역에 대해 장성을 연장 축조한 것은 蕃賊의 요충을 막기 위한 것으로 되어 있다. 번적은 통상 장성 외곽에 거주하고 있던 여진 무리를 가리키는데, 정종 원년 당시 번적의 실체는 분명하지 않다. 정종대에는 여진의 來投와 來獻 기사만 보일 뿐이며, 來侵 기사는 정종 말에 가서 비로소 부분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번적 방어를 목적으로 장성을 연장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관련하여 장성 연장 바로 전에 고려와 거란 사이에 오간 외교 문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정종 원년 5월 거란은 고려의 장성 축조를 문제삼았다. 이것은 물론 덕종 2년에 이루어진 압록강 방면의 관성 축조를 지목한 것이다. 이에 대해 고려는 회신에서 장성 축조의 목적이 邊氓을 쉬게 하려는 것일 뿐 皇化를 저버리려는 것이 아니라고 해명하였다.<sup>47)</sup> 그리고 9월에 장성의 연장 축조에 들어간 것이다.

한편 정종 5년 거란이 압록강 동쪽에 성보를 加築하자 고려는 공사 중지를 요청하였다.<sup>48)</sup> 그러나 거란은 답신에서 변경의 방비를 위한 일상적인 조치로서 고려의 영토에 대한 영향은 없다며 거부하였다.<sup>49)</sup> 결국 양국은 압록강 동쪽 지역에서 성보를 구축하며 서로 견제를 도모하면서도 외교적으로는 국경 방어를 위한 일반적인 조치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었던 것이다. 장성의 연장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장성의 연장은 거란이 압록강 하류를 건너 내륙 쪽으로 우회하거나 압록강 중류를 건너 내륙 방면으로 직접 압박을 가할 수 있다는 조건을 의식한 조치였다. 고종 3년 契丹遣種 金山王子 등은 무리를 이끌고 압록강을 건너 寧朔鎮과 定戎鎮 방면으로 진입하였다.<sup>50)</sup> 그런데 침공 과정에 義州에 대한 언급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들은 의주보다 상류 쪽에서 강을 건

47) 『高麗史』 권6, 靖宗 원년 5월, “是以列茲城寨 備我提封 蓋圖其帖息邊氓 非欲以負阻皇化.”

48) 『高麗史』 권6, 靖宗 5년 2월 丁卯, “遣戶部郎中庾先 謝安撫 仍請罷鴨江東加築城堡.”

49) 『高麗史』 권6, 靖宗 5년 4월 辛酉, “省所告鴨江東城壁 似妨耕墾事 具悉 乃聽聯城 置從先廟 蓋邊隅之常備 在疆土以何傷.”

50) 『高麗史』 권22, 高宗 3년 8월 乙丑, “契丹遣種金山 金始二王子 遣其將鵝兒 乞奴二人 引兵數萬 渡鴨綠江 侵寧朔定戎之境.”

너온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바로 정유진 방면으로 들어오게 된다. 후대의 일이지는 하지만 이를 통해 보주 방면의 정세가 고착된 뒤 양국의 관심이 그보다 상류 쪽으로 올라가고 있었다는 사실과 더불어 거란이 의주보다 상류 쪽에서 압록강을 건너 내륙 쪽으로 돌아 들어올 수 있다는 가능성을 짐작할 수 있다.

인종대 고려와 금 사이에 압록강과 장성 사이 지역을 둘러싼 외교 분쟁은 이러한 사정을 반영하고 있다. 당시 고려는 거란 주민이 압록강을 건너 朔州와 昌州 방면에서 耕種하는 것을 문제삼고 있었다.<sup>51)</sup> 앞서 예종대에 고려가 의주 지역을 확보하였으므로 이들은 압록강 중류를 건너 개척을 진행한 것이 분명하다. 여기서 삭주와 창주 등 중부 내륙 지역도 거란의 영향권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결국 1차 장성이 압록강 건널목을 초점으로 두고 이를 에워싸는 압록강 방어선을 연결한 것이라면, 2차 장성은 거란의 우회 진출 의도에 대응하기 위해 내륙 방면으로 장성을 연장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장성 지역에는 女眞이 산재해 있었고 이들을 방비할 필요성은 상존하고 있었던 만큼 번적을 막는다는 것이 명분적인 것에 불과한 것은 아니었다. 그리고 거란의 영향권에서 멀어질수록 번적 방비의 비중이 커질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적어도 장성 연장을 시작한 근본적인 의미는 거란의 진출에 대응하기 위한 방어선의 연장이라는 데서 찾아야 할 것이다. 이 경우 번적 방어는 백성을 쉬게 한다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거란 쪽에 장성 연장을 정당화하기 위한 논리로서 채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논리적 맥락을 감안하면, 역시 번적의 요충을 막는다는 사유를 달고 있던 영삭진 설치에 대해서도 거란의 동향에 대한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영삭진이 설치된 문종 4년을 전후해서 장성 인근 蕃賊의 침구가 증가하고 있었다. 이들은 대개 東蕃이었다. 처음에 동해안 지역을 노략하던 이들은 장성을 따라 서쪽으로 진출하여 영원진과 창주 일대가

51) 『高麗史』 권15, 인종 6년 12월 壬申, “今年八月十四日 安北都護府 牒來遠城 爲人民越江到昌朔州地分耕種.”

지 출몰하였다. 정종 11년에는 영원진에 침구하였고,<sup>52)</sup> 문종 5년 8월 龜州 郎將 康隣과 昌州別將 康彥·崔立 등이 蕃賊 6인을 잡아죽였다.<sup>53)</sup> 이 번적은 장성과의 관계로 볼 때 창주 지역에 침구하였으며, 그 토벌을 위해 귀주의 군사까지 동원된 것으로 이해된다. 또한 동년 9월에는 關外를 순행하던 西北面兵馬使가 번적을 만나 격퇴하기도 하였다.<sup>54)</sup> 이러한 맥락에서 이들을 방비하기 위해 영삭진이 추가로 설치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런데 동번적이 장성을 따라 침구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이들을 막는 요충을 마련한다면 그 진로를 차단하는 위치에 설치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영삭진은 내륙 방면이 아니라 압록강 방면으로 나아가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다. 이러한 조건으로 보아 영삭진 설치 이유를 동번적의 침구 때문으로 보기 어렵다. “번적의 요충을 막는다”라는 설치 이유는 장성 연장의 목적을 “邊寇의 요충을 막는다”라고 밝힌 것과 마찬가지로 외교적 명분적 이유로 제시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여기서 문종 4년에 있었던 거란의 西夏 정벌이 주목된다. 이 해 3월 거란은 西夏를 정벌하였고<sup>55)</sup>, 6월에는 고려가 이를 축하하는 사신을 보냈다.<sup>56)</sup> 과거 거란이 송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끈 후 대대적인 고려 원정에 나섰던 전례가 있었다. 고려는 이번에도 거란이 서하 정벌의 여세를 몰아 고려에 대해 공세적으로 나올 것을 예상하고 방비를 강화한 것이다.

고려의 예상대로 거란은 정용진 방면으로 진출을 모색하였다. 곧 문종 8년 7월 抱州의 東野에 弓口를 설치하였고<sup>57)</sup>, 문종 30년에는 거란이 정용진 關外에 암자를 설치하여 고려를 압박하였다.<sup>58)</sup> 이것은 문종대에 거란이 압록강 동쪽 정용진 방면으로 세력 확대를 도모하고 있었던 것을 보여준다. 다만 이 조치들은 외교적으로 수습되어 무력 충돌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52) 『高麗史』 권6, 靖宗 11년 4월 丙午.

53) 『高麗史』 권7, 문종 5년 8월 甲辰.

54) 『高麗史』 권7, 문종 5년 9월 甲寅.

55) 『遼史』 권30, 興宗 重熙 19년 3월 癸卯.

56) 『遼史』 권30, 興宗 重熙 19년 6월 甲戌, “宋遣使來賀伐夏捷 高麗使俱至.”

57) 『高麗史』 권7, 문종 8년 7월.

58) 『高麗史』 권9, 문종 30년 8월 庚戌.

결국 고려의 영삭진 설치의 동향에 대응하여 정유진 방면의 방비를 강화한 조치로 해석할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압록강 남쪽에는 현종말 이래 집중적인 축성을 통해 밀집된 방어선이 구축되어 있었다. 반면 압록강 동쪽, 곧 정유진 방면은 배후의 삭주와 거리가 멀어 상대적으로 방어선이 취약하였다. 이로 인해 정유진과 삭주, 그리고 남쪽의 안의진 사이에 공백 지역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영삭진을 설치한 것이다.

이에 대해 정종 7년의 영원진·평로진 설치와 3차 장성의 축조는 번적 방어의 목적이 컸던 것으로 생각된다. 3차 장성은 기존의 주진을 연결하는 형태로 수립된 1·2차 장성과 달리 공백 지역을 새로 개척하고 주진을 신설하면서 축조되었다. 이것은 당시 번적의 침구가 고조되고 있었던 사정과 무관하지 않다. 정종 11년 번적이 寧遠鎮까지 노략하고 있었던 것을 볼 때 이전 시기부터 내륙 지역의 상황도 불안정했을 것이다. 고려는 공백 지역인 청새진 동쪽에 관성을 축조하고 진을 설치함으로써 번적에 대한 방비를 강화했던 것이다.

### (3) 長城의 경유 州鎮

고려의 長城 축조에 담긴 역사적 의미를 입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장성이 경유하는 지역에 대해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진의 설치를 통해 방어선이 일정하게 설정되기는 하지만 어디까지나 그 본령은 거점의 확보에 있다. 이에 대해 장성의 축조는 방어선의 확정을 의미하는 동시에 국경의 확정이라는 의미를 공유하고 있다. 따라서 그 '선'에 대한 실제적 이해가 요구된다.

현종말에 수립된 압록강 방어선을 토대로 한 서부 지역의 장성은 그 경유 지역이 비교적 분명하다. 곧 麟州(寧海鎮)에서 출발한 장성은 압록강 연안을 따라 올라와 신설된 靜州를 거친 뒤 꺾여 威遠鎮과 靈州(興化鎮)를 경유한다. 여기서 다시 북쪽으로 꺾여 寧德鎮과 定戎鎮을 거친 뒤 문종 때

신설된 寧朔鎭을 지나 朔州로 넘어가게 된다.<sup>59)</sup> 여기까지가 1차 장성 구간이다.

그런데 삭주에서 동쪽으로 이어지는 2차 장성이 지나는 주진은 명확하지 않다. 덕종 2년 장성 축조 기사에 열거된 주진 중 삭주 이동의 내륙 주진은 雲州, 淸塞鎭, 寧遠鎭, 平虜鎭, 孟州 등 5개이다. 하지만 당시까지 이 방면에 설치된 주진의 배치를 고려할 때 이들만으로 장성 구간이 연결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장성 축조 기사에는 장성 경유 지역이 될 수 없는 安水鎭이 들어 있는 등 기사 내용에 오류의 여지가 있다. 따라서 장성 경유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파악이 요구된다.

삭주에서 동쪽으로 운주와 청새진 방면으로 장성이 이어지려면 일단 昌州를 거쳐야 한다. 창주가 장성 경유 지역이었음은 이곳에 關門이 설치된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예종 5년 昌州 關外의 蕃長 亡閑 등 28인이 來朝하였는데<sup>60)</sup>, '關外'라는 개념을 통해 창주에 關門이 있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창주는 정종 원년 梓田에 축성하며 설치된 것으로 나오지만, 실제로는 이전에 이미 설치된 상태였다. 재전의 축성은 장성 연장에 맞추어 창주를 재전으로 옮겨 설치한 것을 나타낸 것이다.<sup>61)</sup>

그런데 덕종 2년 장성 축조 기사에는 昌州가 보이지 않는다. 단순한 누락일 수도 있으나 10여 개 이상의 주진을 모두 열거하고 총수를 밝힌 것이나 영삭진이 추가로 들어간 것으로 파악된다는 점에 비추어 누락을 상정하기 어렵다. 장성의 출발점이면서 장성 축조 기사에 보이지 않는 麟州가 기사 중에 언급된 寧海鎭에 비정되는 것처럼 창주도 기사에 열거된 다른 주진에 비정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孟州가 昌州의 오기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昌'을 '孟'으로 오독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맹주는 동계 장성과의 연결 문제도 관련되므로 뒤에서 다시 언급하기로 한다.

59) 寧德鎭과 定戎鎭, 靈州(興化鎭), 寧朔鎭은 조선초기에 병합되어 정녕현이 설치되었다가 뒤에 의주에 병합되었다. 이것은 이들이 서로 인접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60) 『高麗史』 권13, 예종 5년 정월, “昌州關外蕃長亡閑等二十八人 來朝.”

61) 윤경진, 앞의 논문(2011).

창주를 지난 장성은 운주를 거쳐 청새진으로 연결되는데, 그 중간에 延州를 경유하게 된다. 이것은 다음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宣政殿에 임어하여 延州關外蕃長 守弗首 등 7인과 淸塞關外蕃長 歸夫 등 18인, 平虜關外蕃長 要弗 등 28인을 인견하고 酒食과 例物을 내려주었다.<sup>62)</sup>

위의 기사는 예종 4년의 것으로서 연주와 청새진, 평로진의 關外蕃長을引見한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서 연주가 장성 관문이 설치된 지역의 하나임을 알 수 있다. 곧 장성은 연주를 거쳐 청새진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하지만 연주 역시 장성 기사에 보이지 않는다. 연주가 누락될 여지가 없다고 보면, 장성 기사에 열거된 安水鎮을 연주에 비정할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안수진은 장성 경유 지역이 될 수 없다. 연주는 본래 安朔鎮으로서 장성 기사의 安水鎮이 그 오기일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물론 延州가 아니라 安朔鎮으로 기재되는 것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하지만 靈州가 興化鎮으로, 麟州가 寧海鎮으로 나오고 있다고 볼 때, 연주가 안삭진으로 기재되는 것이 크게 무리한 상황은 아니다. 무엇보다 연주가 장성의 경유 지역이라는 것이 분명함에도 장성 기사에 나오지 않고, 반대로 안수진이 장성 경유 지역이 될 수 없음에도 장성 기사에 나오는 상황에서 안수진을 안삭진(연주)의 오기로 보는 것이 가장 무난한 해석이 될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에 따라 2차 장성은 朔州에서 昌州, 雲州, 延州를 지나 淸塞鎮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그리고 3차 장성 구간인 平虜鎮과 寧遠鎮을 지나 동계로 넘어가게 된다. 이렇게 이해할 때 남는 문제는 장성의 孟州 경유 여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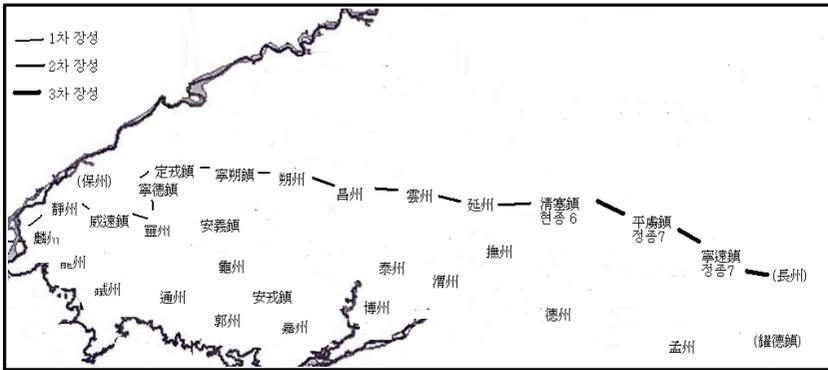
장성 축조 기사에는 동계 장성이 耀德鎮과 靜邊鎮, 和州를 경유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장성이 영원진에서 요덕진으로 이어지려면 남쪽으로 꺾여 孟州를 경유해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예종대 여진 정벌 기사에 나타나

62) 『高麗史』 권13, 예종 4년 2월 己亥, “御宣政殿 引見延州關外蕃長守弗首等七人 淸塞關外蕃長歸夫等十八人 平虜關外蕃長要弗等二十八人 賜酒食例物.”

듯이 동계 장성은 長州와 定州, 宣德鎭을 경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요덕진-화주 구간보다 북쪽에 위치한다. 이러한 내용을 모두 수용하면 동계 장성은 두 개가 있었던 셈이 되는데, 실제 동계 장성을 두 갈래로 이해하는 경우도 많다.<sup>63)</sup>

그러나 長州와 定州 등에 축성이 이루어지면서 동계 장성 구간이 형성되는 시점은 정종 10년으로서 영원진 설치와 불과 3년의 시차가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이들이 장성 기사에 포괄되지 않은 것은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다. 장성 축조 기사의 기준 시점이 정종 7년이라고 해석하면 간단하지만, 이는 결국 북계 장성과 동계 장성에 대한 이해 방식에 차이가 있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결국 북계 장성은 그 성격상 영원진에서 장주로 넘어가는 것이 타당하며, 요덕진-화주 구간은 다른 관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장성 축조 기사의 맹주는 전술한 대로 창주의 오기로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생각된다.<sup>64)</sup>



〈그림 2〉 北界 長城의 경유 주진

63) 국사 교과서를 비롯해 각종 역사지도에서 동계 장성을 두 갈래로 그린 경우를 자주 찾아 볼 수 있다.

64) 『東輿圖』에는 定州 지역 외에 和州 지역에도 古長城이 보인다. 그러나 이 古長城을 덕종-정종대에 국경 지역을 연결하였던 장성의 일부로 볼 수 있는가는 또다른 문제가 된다. 이것은 동계 지역의 지정학적 특성 및 개척 과정과 연결되는 문제로 이해되는데, 이 문제는 後稿에서 따로 검토할 것이다.

## 4. 맺음말

이상에서는 고려 현종말부터 문종초에 걸쳐 이루어진 북계 국경 방면의 州鎮 설치와 長城 축조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현종말에 구축된 압록강 방어선을 토대로 덕종대 1차 장성이 축조되었고, 정종 원년과 7년 각각 2차 및 3차 장성이 축조되어 북계 국경을 관통하는 장성이 성립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장성 건설과 연계된 일부 주진의 연혁에 대해서도 검토하였다. 여기서 논의된 내용을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고려는 현종 20년 威遠鎮과 定戎鎮을 설치하였다. 이들은 당시 최전방이었던 興化鎮을 중심으로 압록강 방면으로 진출하여 설치한 것으로서 거란의 교두보인 保州를 견제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들의 설치는 同年 거란 東京에서 일어난 興遼國의 반란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홍요국의 지원 요청을 거절한 고려는 이 방면의 정세 불안에 대응하여 두 鎮을 설치하여 방비를 강화하였다.

현종 21년 2월에는 麟州의 증축이 있었다. 인주는 현종초 龍州에서 압록강 쪽으로 전진하여 설치된 것인데, 압록강 방어선의 강화에 수반하여 증축되었다. 인주는 덕종대 축조된 1차 장성의 西端이었다. 같은 해 9월 홍화진과 정융진 사이에 寧德鎮이 설치되었다. 영덕진은 거란 來遠城에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대거란 외교 창구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현종 21년에는 興化鎮이 靈州防禦使로 개정되는 변화도 있었다. 홍화진은 최전방 요새였으나 인근에 다수의 주진이 설치되면서 전략 중심으로서 위상이 강화되었다. 이전까지 이 방면의 전략 중심은 龜州였는데, 영주는 그 기능을 이어받은 것이다.

덕종 원년에는 靜州가 설치되었다. 정주는 인주에서 거란 보주 방면으로 전진 배치된 것으로서 압록강에 인접하여 거란과 직접 마주하고 있었다. 이때문에 거란 쪽에서 압록강을 건너 정주로 내투하는 무리가 있었는데, 고려는 정주 관할에 있는 압록강의 섬에 이들을 안치시켰다.

한편 내륙 방면으로도 주진이 설치되었다. 淸塞鎮은 기존의 변경이었던 延州 및 德州부터 내륙 방면으로 개척을 진행하여 설치한 鎮으로서 설치 시점은 분명하지 않아 이론의 여지가 있다. 다만 삭주와 창주, 안의진과 같은 맥락에서 설치되고 있어 현종 6년으로 추정할 수 있다.

정종 7년에는 寧遠鎮과 平虜鎮을 설치하여 3차 장성을 뒷받침하였다. 이 중 평로진이 청새진에 가까운 위치에 있었다. 두 진은 몽고의 침입으로 永淸縣 지역에 僑寓하다가 廢合되었으며, 옛 영원진 지역에는 조선 세조 때 寧遠郡이 설치되었다. 寧朔鎮은 문종 4년 安義鎮의 榛子農場에 신설된 鎮으로서 장성으로 보면 정용진과 삭주 사이에 위치한다.

고려는 덕종 즉위 후 거란 聖宗이 서거하자 이를 기회로 압록강 방면으로 세력을 넓히고자 하였다. 이에 거란에게 압록강 城橋의 철거를 요구했으나 거란이 이를 거부하자 賀正使를 정지하고 太平 연호를 계속 사용하는 등 외교적 압박을 가하였다. 일각에서는 거란의 保州城을 攻破할 것을 청하였으나 무력 공격은 실행되지 않았다. 한편 고려는 거란에 대한 군사적 압박도 모색했는데, 그 산물이 1차 장성의 축조였다. 이에 거란은 고려가 舊好를 살피지 않고 石城을 쌓아 大路를 막고 군사를 감춰두었다며 힐난하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축조된 장성의 범위는 현종말에 수립된 압록강 방어선을 연결하는 한편 이를 일정하게 확대하는 수준이었다. 당시 장성의 西端은 麟州, 東端은 朔州였다. 덕종 원년 삭주의 증축은 압록강 방어선의 동쪽 거점인 정용진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것은 앞서 인주를 증축하여 위원진의 배후로 삼은 것과 상통한다.

당시 장성 축조는 방어를 위한 '장벽' 건설을 넘어 적극적인 전략도 수반하고 있었는데, 그 산물이 바로 靜州의 설치였다. 장성 축조 2개월 만에 거란이 정주를 공격한 것이나 숙종 6년 고려가 정주 關內에 軍營을 설치하자 거란이 철거를 요구한 것은 정주의 지정학적 중요성을 반영하고 있다. 정주는 보주 방면을 압박하는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압록강 방면을 직접 경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차선책으로 마련된 것이었다.

그 결과 고려는 靈州(홍화진)를 중심으로 정주와 정용진을 군사 거점으로 삼고 그 사이에 위원진과 영덕진을 배치하며, 인주와 삭주로 하여금 정주와 정용진을 배후 지원하도록 하는 방어체계를 확립하게 되었다. 1차 장성은 바로 이들을 연결하는 것이었다.

고려는 정종 원년 松嶺 이동 지역에 2차 장성을 축조하였고, 정종 7년에는 내륙 공백 지역을 개척하고 3차 장성을 축조함으로써 북계 장성이 완성되었다. 2차 장성은 삭주에서 청새진까지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3차 장성은 청새진에서 동계 방면으로 연결하는 것이었다.

정종 원년 고려가 장성을 연장한 것은 邊寇의 요충을 막기 위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목적은 거란이 압록강을 건너 내륙 방면으로 직접 압박을 가하는 것을 차단하는 데 있었다. 고종 3년 契丹遺種 무리가 압록강을 건너 寧朔鎮과 定戎鎮의 방면으로 진입한 것이나 고려가 대금외교에서 압록강을 건너 朔州와 昌州 방면에서 耕種하는 것을 문제삼은 것 등은 이러한 구도를 반영하고 있다.

문종 4년 변적을 막기 위해 영삭진을 신설한 것 또한 거란의 정세 변화에 대응하는 것이었다고 이해된다. 고려는 거란이 西夏 정벌을 승리로 마무리한 후 고려 쪽으로 공세를 취할 것을 예상하고 방비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정용진 방면을 보강하기 위해 영삭진을 설치하였다. 실제 거란은 문종대 이 방면에 弓口門과 압자를 설치하면서 고려를 압박했는데, 이 문제는 외교적으로 수습되어 무력 충돌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결국 1차 장성이 압록강 방어선의 확립 강화에 초점을 둔 것이라면, 2차 장성은 거란의 내륙 방면 진출에 대비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내륙 방면의 공백 지역에 건설된 3차 장성은 변적 방어의 목적이 뚜렷한 것이었다.

3차 장성의 축조를 통해 북계 장성은 완성을 보았다. 그런데 그 경우 주진과 관련하여 덕종 2년의 장성 축조 기사는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선 열거된 북계 주진의 수가 14개임에도 13개라고 적고 있는데, 이는 원 자료에서 追記된 寧朔鎮이 총수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關門이 존

제하여 장성 경유 지역임이 분명한 昌州와 延州가 장성 기사에 빠져 있다. 장성 기사의 孟州와 安水鎮은 이들의 오기로 판단된다. 다만 孟州는 장성 축조 기사에 동계 구간으로 열거된 耀德鎮-和州 구간으로 연결되는 지점인 만큼 동계 장성과 관련하여 추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결국 덕종-정종대에 축조된 고려의 장성은 압록강 어귀의 麟州에서 출발하여 압록강변을 따라 靜州로 이어지다가 남쪽으로 꺾여 威遠鎮과 興化鎮에 이르며, 여기서 다시 북상하여 寧德鎮과 定戎鎮을 통과한 뒤 동쪽으로 寧朔鎮과 朔州를 거친 후 昌州, 雲州, 延州, 淸塞鎮, 平虜鎮, 寧遠鎮을 차례로 지나 동계로 연결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원고투고일 : 2011. 3. 28, 심사수정일 : 2011. 4. 21, 게재확정일 : 2011. 4. 29.)

주제어 : 北界, 長城, 州鎮, 麟州, 淸塞鎮, 寧朔鎮, 延州, 昌州, 孟州, 追記

<ABSTRACT>

Construction of the *Goryeo* Grand Fortress(長城) in the Northern Realm(*Bukgye*, 北界), and the Establishment of *Jujin*(州鎮) Units

Yoon, Kyeong-jin

In this article, how the Grand Fortress(長城) was created in the *Bukgye* region of the *Goryeo* in its early days, what was the background of such foundation, and what regions the fortress actually passed through, will be examined. Also some parts of the known history of certain *Jujin*(州鎮) regions related to the Grand Fortress, will be rectified as well.

At the end of King *Hyeonjong*'s reign, the *Goryeo* Government established some new *Jujin* units in a concentrated fashion at the border region, in response to the *Khitan* threat and certain fluctuations that were happening. Also, existing *Jujin* units were reinforced, and thus a defense line along the *Yalu* River was established. The Grand Fortress was created based upon this defense line in the early days of King *Deokjong*'s reign. It covered the region between areas like *Inju*(麟州) at the mouth of the *Yalu* River, and *Sakju*(朔州).

In the early days of King *Jeongjong*(靖宗)'s reign, additional sections were added to the fortress in its eastern end, and as a result the *Jujin* units which had been established with a distance from the fortress were connected to it as well. The Fortress' new east end was *Cheongsae-jin*(清塞鎮). Later, more *Jujin* units were established between the *Bukgye* and *Donggye* regions (the Northern and Eastern Realms) and the Fortress grew even longer. We can see that the *Bukgye* Grand Fortress was created

throughout three different time periods.

*Yeongsak-jin*(寧朔鎮), which was recorded as a region the Fortress passed through, was only added in later periods(追記), and it is highly possible that the Fortress did not pass through areas like *Ansu-jin*(安水鎮) and *Maengju*(孟州). They should have been replaced by *Yeonju*(延州) and *Changju*(昌州).

Key Words : Northern Realm(*Bukgye*, 北界), Grand Fortress(長城), *Jujin*(州鎮), *Inju*(麟州), *Cheongsae-jin*(清塞鎮), *Yeongsak-jin*(寧朔鎮), *Yeonju*(延州), *Changju*(昌州), *Maengju*(孟州), Later Periods(追記)

# 一阮 洪範植의 자결 순국과 그 遺訓

박 걸 순\*

1. 머리말
2. 가계와 성품
3. '全北 第一 郡守'의 善政
4. 자결 순국
5. 자결 순국의 영향
6. 맺음말

## 1. 머리말

홍범식(1871~1910)은 1910년 일제의 강제에 의한 경술국치에 분개하여 자결 순국한 애국열사이다. 일제의 침략과 경술국치에 분개하여 수십 명의 우국지사가 자결 순국하였지만<sup>1)</sup>, 홍범식은 고위 관인 신분인 군수로서 가

\* 충북대학교 사학과 교수

1) 朴殷植, 『韓國痛史』, 大同編譯局, 1915, p.171(『白巖朴殷植全集』 제1권, 2002, 동방미디어, p.415). 여기에는 29인의 자결 순국자 명단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傳聞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오류가 있다. 즉, 白某, 李某 등 인물을 확인할 수 없는 사람이 있고, 宋道淳처럼 자결하지 않은 인물도 명단에 들어있다. 송도순은 1918년 사망하였다(『恩津宋氏 同春堂文正公派譜』 및 『恩津宋氏文獻錄』 卷五).

장 먼저 자결을 결행함으로써 모든 명단의 수위에 기록되어 있고, 항일투쟁의 기폭제적 역할을 한 인물이다.

자결 순국은 제2차 영일동맹에 항거하여 자결한 駐英公使署理 李漢應의 투쟁으로부터 시작되었는데, 특히 1910년의 경술국치 이후 많은 사람들이 飮毒·斷食·自剄·自縊·投水·割腹 등의 방법으로 자결 순국 투쟁을 전개하였다. 이들은 자신의 결연한 의지를 담은 絶命詩나 遺詩, 遺疏 또는 遺言과 遺書를 남겼다.<sup>2)</sup>

한국독립운동사에서 자결 순국 투쟁은 중요한 부분으로 다뤄져왔다. 따라서 자결 순국한 열사 가운데 黃玆처럼 저명한 저술을 남겼거나 金道鉉이나 李晩燾처럼 의병항쟁 등 민족운동에 참가하였거나, 또는 문중이나 지역에서 현창사업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경우는 인물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홍범식은 순국을 기점으로 일제 강점기 항일투쟁의 표상이 되었다. 것처럼 자결 순국의 장엄한 순간이 생생한 기록으로 남은 경우는 거의 없다. 일제 강점기 그는 해마다 맞이하는 國恥日에 대한민국임시정부를 비롯한 독립운동 단체와 그 기관지, 해외 동포사회에서 발행되던 신문을 통해 기억과 기념의 대상이 되어 왔다. 적어도 그는 1951년 12월, 서울신문이 순국선열 유가족원호사업 대상 134명 중 1인으로 선정할 때까지만 해도 당당히 순국선열로 평가되었다.<sup>3)</sup>

그러나 홍범식에 대한 개인 연구는 전무하다. 고작해야 괴산의 항일운동을 논 의하거나 자결 순국을 중심으로 한 간단한 생애 검토와<sup>4)</sup>, 그의 아들인 홍명희 연구에서 부수적으로 거론되는 정도이다.<sup>5)</sup> 그 까닭은 자료의 부족에도 기인하나, 가장 중요한 원인은 그의 아들 홍명희의 율복과 북한

2) 권대웅, 『1910년대 국내독립운동』(한국독립운동의 역사 15), 한국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8, pp.40~51 및 오영섭, 『한말 순국·의열투쟁』(한국독립운동의 역사 14), 한국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9, pp.273~280.

3) 『서울신문』 1951년 12월 9일자, 「사회부, 순국선열 유가족에게 생활비 지급」.

4) 박결순, 『槐山地方 抗日獨立運動史』, 괴산문화원, 1996: 「경술국치에 분개하여 순절한 금산군수 홍범식」, 『월간 독립기념관』 2000년 8월호.

5) 강영주, 『벽초 홍명희 연구』, 창작과 비평사, 1999: 『벽초 홍명희 평전』, 사계절, 2004.

정권에서 부수상을 역임한 '붉은 꼬리표' 때문이다. 남북 분단 이후 이데올로기의 대립이 경색될수록 그는 아들의 행적으로 말미암아 학술적 논의에서도 금기의 대상이었다. 그는 이후 50년간 의도적으로 망각된 인물이다. 2000년 8월에 이르러서야 국가보훈처·독립기념관으로부터 「이달의 독립운동가」로 선정되었다. 이로써 그는 아들로 인한 緣坐로부터 벗어나 역사적으로 복권된 것이다. 만사지탄이 있으나 다행스런 일이다.

본고는 홍범식의 생애와 자결 순국 과정, 그리고 그의 자결 순국의 유훈과 의의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그의 자결 순국이 후손이나 다른 독립운동가에 미친 구체적 영향을 밝힘으로써 한국독립운동사에서 자결 순국 투쟁이 개인적 차원의 봉건적, 소극적 투쟁이 아니라 한민족의 각성을 촉구한 적극적, 효율적 투쟁으로 그 위상을 정립하고자 한다.

## 2. 가계와 성품

홍범식은 1871년(고종 8) 7월 23일, 현재의 충북 괴산군 괴산을 동부리 450-1번지에서 豊山人 洪承穆과 海平 尹氏<sup>6)</sup> 사이에서 장남으로 태어났다. 자는 聖訪, 호는 一阮이라 하였다. 그의 집안은 노론 명문이었는데, 가계를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之慶(1세) - 侃(2세) - 侑(3세) - 演(4세) - 龜(5세) - 倣(6세) - 繼宗(7세) - 禹甸(8세) - 脩(9세) - 履祥(10세) - 霽(11세) - 柱元(12세) - 萬衡(13세) - 重模(14세) - 允輔(15세) - 維漢(16세) - 羲宅(17세) - 必榮(18세) - 定周(19세) - 祐吉(20세) - 承穆(21세) - 範植(22세) - 命憲(23세) - 起文(24세)<sup>7)</sup>

6) 홍범식의 외조부는 尹璋烈인데, 자료에 나오지 않아 관직 등은 알 수 없다(『蔭官世譜』 - <http://yoksa.aks.ac.kr/>).

7) 豊山洪氏秋巒公宗門會, 『宗門世系圖』, 1987 참조. 굵은 글자는 派祖이다.

그의 가계는 司正公系(倣, 6세) - 文敬公系(履祥, 10세) - 秋巒公派(震, 11세)로 계파가 속하였는데, 12세인 주원으로부터 계파를 나누기도 한다. 시조는 고려 고종 때 國學 直學을 지낸 洪之慶으로 대대로 顯人이 잇달았으나, 증시조이자 그의 12세조인 慕堂 洪履祥 대에 이르러 조선의 '望族'으로 성장하였다.<sup>8)</sup> 홍이상은 司馬試, 庭試, 殿試에서 모두 장원급제할 정도로 학문이 뛰어났다. 그러나 그의 벼슬길은 그리 순탄치 않았고, 정치적으로도 영향력이 크지 않았다. 또한 학자로서 본격적인 학문을 펴지는 못하였으나, 훌륭한 시를 많이 남긴 조선 중기 사대부의 전형적 삶의 모습을 보이는 인물로 평가된다.<sup>9)</sup>

金澤榮이 지은 「洪範植傳」에는 홍이상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 12세조인 대사헌 履祥은 선조조의 명신이었는데, 돈후하고 경술을 좋아하였다. 당론이 분쟁하던 시기를 당하여 휩쓸리지 않고 올곧게 자기중심을 지키고 두루 잘 지냈으며 추종하지 않았다. 그 후 자손들은 대대로 그 가르침을 좇아 비록 노론의 명문 가문이라 할지라도 자기 당류에 따르기를 거부하여 다른 당류로부터 질시를 받지 않았다. 그리하여 대부인 우길, 부친인 승목이 모두 과거에 급제하여 가문의 이름을 높이고 더욱 사대부 가문이라는 칭호를 들었다. ...”<sup>10)</sup>

추만공과의 시조인 洪震은 생원시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올랐다가 다시 정시 문과에 급제하여 공조참판과 동지중추부사 등을 지냈다. 12세 홍주원은 선조의 딸 貞明公主와 혼인, 부마가 되어 永安尉에 봉해지고 文懿公의 시호를 받았다. 이후 만형은 교리, 중모는 군수, 윤보는 목사, 유한은 진

8) 『日省錄』, 정조 11년(1718) 10월 14일(무신). 홍이상의 가문을 '望族'이라 한 것은 정조가 도승지 沈豐之를 소견하였을 때 한 말이다.

9) 尹浩鎭, 「慕堂 洪履祥의 삶과 詩世界」, 『漢文學報』 제21집, 우리한문학회, 2009 참조. 그를 배향하는 荷江書院이 충북 충주시 금가면 하당리에 있다.

10) 金澤榮, 「洪範植傳」, 『韶濩堂文集』 卷十, “... 其十二世祖大司憲履祥 宣祖時名臣也 敦厚好經術 當黨論分爭之日 特立不隨 周而不比 其後子孫世守其訓 雖爲老論名家 不肯從其類 偏嫉他黨...” 한편 김택영은 『韓史繫』의 홍이상의 죽음 부분에서도 “... 當黨論分爭之日 皭然無所染”(卷三, 光海主 乙卯年條)라 하였다.

사, 희택은 침정을 지냈다. 그러나 필영은 실직이 없이 좌찬성에 증직되었고, 정주는 同敦寧을 지내고 우상에 증직되었다.<sup>11)</sup>

홍범식 가문이 다시 명문이 되어 영달의 길에 오른 것은 조부 우길이 문과에 급제하여 宦路에 나서면서부터이다. 우길은 1850년(철종 1) 경술 증광시에 갑과 1위로 급제하였다. 당시 그의 나이는 42세의 고령이었으나, 당당히 장원급제한 것이었다. 이후 그는 평안감사, 판의금부사, 홍문관 제학, 사헌부 대사헌, 한성부 판윤, 공조판서, 의정부 좌찬성, 함경도관찰사, 예문관 제학, 예조판서, 이조판서 등 요직을 지냈고 죽은 뒤 孝文公이란 시호도 받았다. 그런데 『國朝文科榜目』에는 그의 거주지가 청주로 되어 있는데<sup>12)</sup>, 그의 대에 이르러서는 풍산 홍씨들이 괴산에 자리한 것으로 알 수 있다.

우길의 뒤를 이어 승목도 1875년(고종 12) 을해 별시에 병과 29위로 급제하였다. 본래 승목의 생부는 16세 紀漢의 고손으로 都正을 지내고 제학에 증직된 祐弼이었으나, 족부 우길의 양자로 출계한 것이다. 그는 과거 급제 이후 修撰으로부터 시작하여 대사간, 대사성, 궁내부 특진관, 장례원 소경, 봉상시 제조, 『文獻備考』 교정 당상, 이조와 병조 참의 등을 지냈다. 그러나 그는 1906년 11월부터 중추원 찬의(칙임관 2등)를 지냈고, 경술국치 때까지 여러 친일 성향 단체의 임원을 지냈다. 더구나 자신에게 지극하게 효도를 다한 아들 범식이 자결 순국한 직후부터 1921년까지 조선총독부 중추원 찬의를 지내고 일본 정부로부터 훈포장을 받은 것은 명백하게 민족적 과오를 범한 것에는 틀림없다.<sup>13)</sup>

11) 豊山洪氏秋巒公宗門會, 『宗門世系圖』.

12) 『國朝文科榜目』(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 <http://people.aks.ac.kr/index.aks>).

13) 홍승목은 지금까지의 친일파 선정 논의에서 조선총독부 찬의를 지낸 경력으로 인하여 제외 없이 친일파로 규정되어 왔고, 2006년 9월 11일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로부터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되었다(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2006년도 조사보고서 II - 친일반민족행위결정이유서』, 2006, pp.403~409). 「결정이유서」는 그가 '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제2조 제9호, 제19호에서 정한 친일반민족행위자(조선총독부 중추원 찬의로 재직, 일본 정부로부터 한국병합의 공로를 인정받아 1921년 한국병합기념장과 1920년 훈4등 서보장을 받은 사실, 대동학회 회장·공자교회 부회장·

그의 경력을 ‘형식적 직함’이라거나, 홍범식 순국 이후 집안이 몰락하였다는 사실을 들어 그의 친일행위 여부를 재고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sup>14)</sup> 그러나 홍명희가 괴산의 만세운동을 주도한 직후인 1919년 5월 5일 동부리의 고택을 팔고 제월리 묘막으로 이사한 것은 사실이나<sup>15)</sup>, 홍승목은 1918년 제월리 일대에 방대한 부동산을 매입해 두었음이 확인된다.<sup>16)</sup> 즉, 홍범식의 순국 이후 그의 집안이 몰락하였다는 것은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

홍승목의 행적 가운데에는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밝혀내지 못하였고, 또한 지금까지 전혀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 있다. 그것은 그가 중추원 의관으로 재임하던 1907년 ‘所謂 義兵이라고 하는 匪徒들을 鎮壓하기 위해 鎮衛隊를 복설하자는 建議書’를 중추원 의장에게 제출하였다는 사실이다.<sup>17)</sup> 그의 건의안은 중추원 의장 徐正淳이 심의 가결하여 ‘仰佈’하였고, 내각총리대신 이완용에게 ‘査照裁處’하도록 요구되었다.<sup>18)</sup> 물론 진위대 해산은 일제의 강제에 의해 시행된 것인 만큼 그의 건의로 복설될 형편은 아니었다.

이는 구한말 의병항쟁으로 대표되는 민족운동에 대한 그의 부정적 인식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자료이다. 그가 진위대 복설을 건의한 1907년 10월

제국실업회 회장 등 친일 성향 단체에서의 활동 사실 등)로 규정하였다. 『조선총독부 및 소속관헌 직원록』에 의하면 그는 1910년부터 조선총독부 직할기구인 중추원 찬의에 임명되었고, 1911년부터 연수당 1000을 받았으며, 1914년에는 공훈 등급 정5를 받았다가, 1919년에는 종4로 승훈이 되었고, 1921년에는 종4 훈4의 공훈을 부여받는 등 죽기 직전까지 친일적 행적을 계속하였다.

14) 강영주, 『벽초 홍명희 연구』, 21쪽 및 『벽초 홍명희 평전』, p.37.

15) 『除籍簿』(괴산읍사무소).

16)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국고로 귀속한 친일반민족행위자 168명의 부동산 목록에는 괴산을 제월리의 홍승목 소유 임야 157필지, 51만 7천여㎡도 들어 있다. 이는 공시지가로는 14억 원이나 시가로는 48억 원을 호가한다고 한다. 이 토지는 홍승목이 1918년에 매입한 것이니, 그의 친일 활동기간에 구입한 것이 명백하다. 한편 제월리 365번지 일대에는 1920년 3월 30일자로 홍명희 소유로 된 토지도 아직 남아 있다(『토지대장』, 괴산군). 홍승목 소유의 부동산은 2010년 2월 5일 제33차 친일재산 국고 귀속 결정 회의에서 국고 귀속이 결정되었고, 5월 7일 국고로 귀속되어 국가보훈처가 소유권자로 되었다(<http://www.icjcp.go.kr/>).

17) 『中樞院來文』(奎 17788) 제9책(1907. 10),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18) 『中樞院來文』(奎 17788) 제9책(1907. 10. 24), 『照會 第七號』,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은 일제의 군대 강제 해산 조치 직후 이에 반발하여 후기 의병이 전국적으로 봉기하여 투쟁이 격화되었던 시기이다. 당시 친일 내각을 이끌던 이완용은 長谷川好道에게 일본 군대를 파병하여 의병을 '토벌'해 줄 것을 수차 요청하였다. 이에 일본은 2개 사단을 증파하려 하였으나, 일본 주재 각국 공사들의 반대로 실행하지 못하였다.<sup>19)</sup> 홍승목이 의병을 '匪徒'라 표현하며 부정적으로 인식한 것은 친일 내각의 관변적 시각을 대변하나, 의병을 진압하기 위해 진위대 복설을 주장한 것은 적극적 친일 행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자료는 그의 행적 평가에서 중요하게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홍범식은 홍승목의 적자이고, 그의 동생 洪用植, 洪台植, 洪甲植은 계모인 평산 신씨 소생으로 이복동생들이다.<sup>20)</sup> 홍범식은 본처 은진 송씨와 사이에 홍명희를 낳았으나, 그녀가 일찍 죽자, 趙鍾恒의 딸 趙環植을 후처로 맞이하였다.<sup>21)</sup>

홍범식은 가풍의 영향을 받으며 성장하였다. 그는 평소 겸손하고 부모에 대한 예가 지극하였으며, 본성이 학문을 좋아하여 어려서부터 장성한 후까지 입에서 시가를 외는 소리가 그치지 않았다고 한다.<sup>22)</sup>

홍범식의 성품에 대하여는 정인보의 평가가 상세하다. 그가 홍범식에 대해 상세한 기록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은 홍명희와의 절친한 인간관계 때문이었다. 그의 문집인 『舊園文錄』에 기술된 「錦山郡守洪公事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은 타고 나기를 인자하여 어머니가 자식 어루만지듯 하여 아낙네 같았  
 건만, 의롭지 못한 사람은 용납하지 않았고, 의로운 사람에 대해서는 특히 사

19) 黃玿, 『梅泉野錄』, 國史編纂委員會, 1955.

20) 「除籍簿」(괴산읍사무소).

21) 「除籍簿」에는 홍명희의 모친이 漢陽 趙氏로 되어 있는데, 이는 오류이다. 홍명희의 생모 은진 송씨는 군수를 지낸 宋殷老의 딸로서(『蔭官世譜』—<http://yoksa.aks.ac.kr/>) 홍명희가 세살 때 죽었으며(홍명희, 「자서전」, 『삼천리』 1929년 6월호), 홍범식 묘비에는 「贈淑夫人恩津宋氏祔」라고 되어 있고, 한양 조씨 묘는 앞산 제일봉에 따로 있다. 한양 조씨는 1918년 10월 趙環植으로 명명하였다.

22) 金澤榮, 「洪範植傳」, 『韶濩堂文集』 卷十.

모하는 마음이 독실하였다. 지극한 효성으로 아버이를 섬겨서 어머니가 돌아가시자(1893년) 죽도록 애통해 하고 사모함이 처음과 끝이 같았다. 침사공(홍승목:필자)을 곁에서 모실 때 무엇이건 그의 뜻에 순종하며 따르지 않음이 없었다. 간혹 일이 있어 슬그머니 자기의 주장을 펴다가도 공이 들어주지 아니하면 자신은 민망하더라도 아버지의 마음이 상할까 염려하여 물러났다가 다시 들어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다가 그치기를 여러 번하여 침사공이 가끔 감동하여 그 말에 따르기도 하였다. 그 밖에도 여러 형제간에 우애가 있고 일가붙이를 구휼하였으며, 벼슬에 있는 동안 기록할 만한 치적이 많으나 그에 있어서는 하찮은 것이라서 모두 다 기록하지 않는다.”<sup>23)</sup>

홍범식의 성품에 대한 기록은 대개 비슷하다. 박은식은 그를 ‘孝悌를 두터이 행하고 志節을 지키기에 힘썼다’고 하였으며<sup>24)</sup>, 『騎驢隨筆』에는 그가 모친 윤씨가 죽었을 때 ‘哀毀踰制’ 하였음과, 그의 충절을 금산과 연고가 있는 야은 길재, 중봉 조현과 관련하여 설명하였다.<sup>25)</sup> 한편 김택영은 그가 ‘효성이 지극하였고, 사람을 대함에 성품이 두터웠다’고 기술하였다.<sup>26)</sup>

### 3. ‘全北 第一 郡守’의 善政

홍범식은 2살 때인 1872년, 함경도관찰사로 부임<sup>27)</sup>한 할아버지를 따라 함산 관아로 갔다가 천연두에 걸려 거의 죽을 뻔하다 살아난 적이 있었다.<sup>28)</sup> 어려서부터 학문을 좋아한 그는 학업에 매진하였다.

23) 鄭寅普, 『舊園文錄』 一, 『錦山郡守洪公事狀』 참조.

24) 朴殷植, 『韓國痛史』, 大同編譯局, 171쪽(『白巖朴殷植全集』 제1권, p.415). 박은식은 홍범식의 순절을 서술하는 부분에서 그의 아들 홍명희는 才士로서 자신과도 잘 아는 사이임을 강조하였다.

25) 宋相燾, 『騎驢隨筆』의 洪範植條.

26) 金澤榮, 『洪範植傳』, 『韶澗堂文集』 卷十.

27) 홍우길은 1871년 10월 21일 함경도 관찰사에 제수되었는데(『高宗實錄』 8권, 8년 10월 21일), 1873년 8월 陵役이 한창이라 특별히 임기가 연장되었다(『高宗實錄』 10권, 10년 8월 10일).

28) 宋相燾, 『騎驢隨筆』.

그의 나이 18세이던 1888년 3월, 그는 무자 식년시(생원진사시)에 진사 3등 232위로 급제하였다.<sup>29)</sup> 금위영에서 치러진 이 시험의 과목은 一詩였으며 합격률은 7.66%였는데, 진사는 324명을 뽑았으니 그는 중하위의 성적으로 급제하였던 것이다.<sup>30)</sup> 이해 7월에 장남 명희를 낳았으니 그에게는 경사가 겹친 것이었다.

홍범식은 1902년 내부 주사(관임관 6등)로 관직 생활을 시작하였다.<sup>31)</sup> 그는 곧 惠民院 參書官(주임관 6등)으로 승임되었다.<sup>32)</sup> 혜민원은 1901년 10월 16일 勅令 第18號로 惠民院官制로서 裁可된 빈민구휼 기관이었다.<sup>33)</sup> 그러나 1904년 초 의정부의 官院 폐지 조치 때 혁파되어 내부에 속하게 되었는데, 그는 한동안 이 자리에서 계속 있었다.<sup>34)</sup>

1906년 1월 19일 德陵, 安陵, 智陵, 淑陵, 純陵, 定陵, 和陵의 비각을 營建하고 表石을 세울 때 監董 이하에게 차등 있게 시상하였는데, 6품이었던 그는 加資되어<sup>35)</sup> 이 날짜로 정3품으로 승관하였다.<sup>36)</sup>

그런데 혜민원 참서관 재직 이후 그가 어떤 관직에 있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그런데 1905년 8월 괴산군수 閔泳殷이 군청 건물을 수리하여 교실로 만들고 私立 始安學校를 개설하자, 홍범식은 贊成長이자 前 參書 명의로 보조금 백 원을 낸 기록이 확인된다.<sup>37)</sup> 즉, 이때 그가 현직명이 아니라 전직 참서관으로 표현된 것은 관직에서 일시 물러나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29) CD-ROM 『司馬榜目』(韓國精神文化研究院). 시험은 1888년 2월 19일에 치러졌고, 급제자 발표는 동년 3월 27일에 하였다.

30)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http://people.aks.ac.kr/index.aks>)의 「과거 및 취재」 참조.

31) 『官報』 제2268호, 광무 6년(1902) 8월 2일자.

32) 『日省錄』, 1902년 9월 26일자 및 『皇城新聞』 1902년 11월 1일자.

33) 『고종시대사』 5집, 1901년 10월 9일, 16일.

34) 『고종시대사』 6집, 1904년 1월 11일.

35) 『高宗實錄』 47권, 1906년 1월 19일.

36) 『官報』 號外 2 광무 10년(1906) 1월 21일자.

37) 『皇城新聞』 1905년 9월 4일, 23일자. 사립시안학교는 속성과와 소학과로 나누었는데, 속성과는 20세 이상, 소학과는 8세 이상을 입학 자격으로 하였으며, 생도가 8, 90명에 이르렀다. 그런데 당초 찬성장은 서울에 살고 있던 鄭永澤에게 요청하였으나, 홍범식이 찬성장이 되었다.

홍범식은 1907년 8월 19일 주임관 4등의 전라북도 泰仁郡守에 임명되었다.<sup>38)</sup> 그런데 당시는 군대해산 직후라 전국적으로 의병이 크게 일어났고, 전라지역은 의병 활동이 더욱 왕성한 곳이었다. 따라서 군수들은 현지 부임을 꺼리는 형편이었는데, 이 해 12월에는 전국에 비어 있는 군수 자리가 80여 곳이나 될 정도였다.<sup>39)</sup> 그 까닭은 군수가 발령이 나더라도 부임하지 않고 의병의 활동 등 사태를 관망하다가 사세가 부득이하면 辭免을 청원하고 관직을 포기하여 ‘曠窠’, ‘窠闕’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이었다. 이에 내부에서는 이 같은 사정을 우려하여 시급히 군수를 서임하려고 하였고, 한편에서는 이 기회를 틈타 군수를 희망하는 자들의 구관 행위가 있었다. 당시의 상황은 군수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내부에 군수 태임에 신중할 것을 요구한 『황성신문』의 논설을 통해서 잘 알 수 있다. 물론 군수의 역할이란 의병을 진압하고 지방을 안정케 하는 ‘暴徒 鎮服’과 ‘지방의 憂亂을 鎮撫’하는 것이었다.<sup>40)</sup> 전라북도 관찰사는 내부에 관내 군수의 근태 상황을 보고하기도 하였는데, 이때 홍범식도 상경하였다가 기한 내에 귀임하지 않은 사실이 보고되기도 하였다.<sup>41)</sup>

홍범식이 태인 군수로 임명될 당시는 지방 관리들의 탐학이 성행하여 도탄에 빠진 백성들이 많았다. 뿐만 아니라, 일제의 을사오조약 강제와 군대해산 조치에 분개하여 일어난 의병 항쟁이 계속되었고, 태인은 특히 의병 활동이 활발하였다. 그러자 일제는 일본군 수비대를 출동시켜 의병을 공격하게 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잡아들였다.

홍범식은 이에 비분강개하여 선비로서 관리가 되어 어려운 때라 하여 회

38) 『官報』 제3851호, 융희 원년(1907) 8월 22일자.

39) 그가 태인 군수에 임명되었을 당시, 의병 활동으로 말미암아 신임 군수가 부임을 기피함은 물론, 현직 군수로서 관직을 버리고 떠난 자도 수십 인에 달하였는데, 강원도의 경우, 군수들이 달아나 비어 있는 군이 19개 군에 달하는 실정이었다(黃玿, 『梅泉野錄』, p.428, p.436).

40) 『皇城新聞』 1907년 12월 13일자 논설 「郡守 敍任의 說」.

41) 예컨대 1907년 11월 전라북도 관찰사는 관내 4개 군수의 근태를 내부에 보고한 바, 이때 홍범식은 부모를 뵙기 위해 상경하였다가 기한이 넘도록 귀임하지 않은 것이 보고되어 내부에서 그에게 임지로 귀임할 것을 명령하기도 하였다(『皇城新聞』 1907년 12월 13일자 잡보의 「促送郡守」).

피하는 것은 신하의 도리가 아니라 생각하였다.<sup>42)</sup> 이에 그는 한필의 말에 올라 동자 1명만을 데리고 촌락을 두루 돌아다니며 일본인 수비대장을 만나 그 부하들이 함부로 백성을 죽이지 않도록 설득하였다. 이로 인해 태인 사람 가운데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가 살아난 자가 매우 많았고, 다른 지방 사람으로서 무고하게 붙잡힌 사람들도 많이 구하였다.

그는 평소에 받는 봉급 외에는 단 1전도 백성들에게 거두지 않았으며 荒政이나 수리사업 등 백성들을 이롭게 하는 일에 온갖 정성을 기울였다. 이에 감복한 태인 군민들은 군내 38坊에 木碑를 세워 그의 덕을 칭송하였는데, 근방의 고부와 정읍군 등지에도 그를 기리는 목비를 세운 곳이 있었다. 그러나 그는 사람을 시켜 경내의 목비를 거둬 오게 하여 이를 불태웠다.<sup>43)</sup>

홍범식이 태인 군수로 재임하는 동안 베푼 선정은 이를 칭송하는 군민들이 자발적으로 신문에 낸 광고를 통해 잘 알 수 있다. 그가 부임한지 채 1년도 되지 않은 1908년 6월 20일, 태인군 산외면에 거주하는 李喜鳳·宋象衍·李玟魯 등은 홍범식 군수를 칭송하는 광고를 『황성신문』에 게재하였다. 이 광고의 내용은 김택영의 「洪範植傳」의 내용과 일치한다. 즉, 그들은 먼저 홍범식이 부임한 지 몇 달 되지 않았으나 정령을 공평하게 펴기에 힘써 크고 작은 폐단을 없애고 오로지 밤낮으로 백성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 노력하였다고 평가하였다. 이어 태안군의 산내면과 산외면은 험준한 지역이라 1907년 겨울이래 의병이 크게 일어났는데 홍범식의 군민에 대한 무마와 일본 기병대와의 교섭으로 10여 명의 피체자 생명을 구하고, 수많은 다른 면 백성들의 생명도 구하였다고 칭송하였다. 따라서 '이런 군수는 태인군이 생긴 이래 처음' 이라고 극찬하며, 그를 칭송하는 '滿街木碑는 猶屬例事요 立祠繡像은 難忘永世'라며 지구상의 동포들은 이를 잘 알아 달라고 광고하였던 것이다.<sup>44)</sup>

42) 동학혁명 당시 조정에서 청국에 보낸 문서에는 "... 전라도 관할의 태인, 고부현 등은 백성의 습속이 사나워 본래 다스리기 어려운 곳이라 일컬어졌다 ... ( ... 全羅道所轄泰仁古阜等縣 民習凶悍 素稱難治 ... )"고 하여 이전부터 태인이 통치하기 어려운 지역이었음을 알려준다(黃琮, 『梅泉野錄』, 1955, p.132).

43) 金澤榮, 「洪範植傳」, 『韶濩堂文集』 卷十.

44) 『皇城新聞』 1908년 6월 20일자.

이로써 보면 그가 적극적으로 의병을 지원한 사실은 확인할 수 없으나, 그는 의병 진압을 위해 출동한 일본군이 무고한 백성들을 의병으로 몰아 함부로 죽이지 않도록 극력 보호하였음을 알 수 있다.<sup>45)</sup>

이듬해 5월 13일, 태인군 거주 柳鍾奎가 『황성신문』에 낸 광고는 홍범식이 태인 군수를 사임하고 상경하려다가 군민들의 간청으로 포기하였던 적이 있음을 알려준다. 즉, 유종규는 홍범식이 군수로 부임한 지 3년째를 맞아 그의 열성적 노력으로 관내가 편안해졌는데, 무슨 문제가 있는지 홍 군수가 상경하려고 한다고 하였다. 이때 면장과 군민들은 홍범식에게 만일 군수가 백성을 버리고 상경하면 면장들도 모두 돌아갈 것이고 군민들은 살만한 곳을 정하지 못할 것이라고 호소하며 만류할 것을 청원하였다. 홍범식은 이 같은 군민들의 소망을 차마 떨치지 못하고 상경하기를 그만두었는데, 유종규는 홍범식에게 '感賀'함을 이기지 못하여 이 사실을 널리 알리는 광고를 냈던 것이다.<sup>46)</sup> 그가 태인 군수로 재임할 시기의 평기는 '時有全北第一治之頌'이라는 표현이 상징적이다.<sup>47)</sup>

홍범식은 태인 군수로 약 2년을 재직한 후 1909년 6월 14일 금산군수로 전임하였다.<sup>48)</sup> 그는 이곳에서도 태인에서와 같이 선정을 베풀기에 힘썼다. 금산의 치소 남쪽에는 예로부터 연병장이 있었으나 오래전에 폐지되어 그곳 사람들이 농사를 지어 수백 두씩 수확하고 또한 매매를 할 수 있었다. 그러나 前政 金字植이 府訓에 의해 모두 국유화 시켜 버렸다. 홍범식이 부임하자 그곳 사람들이 모두 달려와 이 사실을 호소하였다. 홍범식은 사실에 입각하여 상부에 보고하여 모두 돌려주니 모든 사람들이 그의 덕을 칭송하였다.<sup>49)</sup>

45) 河東郡守 李承斗가 일본군이 행군하는 앞에 서서 백성들에게 피해 숨도록 하고, 일본군이 민가에 불을 지르려 하면 울면서 그들을 붙들고 말리다가 화가 난 일본군에 맞아 죽은 사례(黃玆, 『梅泉野錄』, p.479)에서 알 수 있듯이, 군수가 일본군에 맞서 군민을 보호하려 한 것은 목숨을 내건 행동이었다.

46) 『皇城新聞』 1909년 5월 13일자.

47) 宋相燾, 『騎驢隨筆』의 洪範植條.

48) 『日省錄』 1909년 6월 14일 및 『皇城新聞』 1909년 6월 17일자.

49) 宋相燾, 『騎驢隨筆』의 洪範植條.

해방 후 1949년에 금산의 지방 유림들이 발의하여 금산읍 중앙지에 세운 홍범식순절비는 현재 태인에 남아 있는 여러 개의 선정비와 함께 그의 선정을 기리는 그곳 사람들의 정서를 잘 보여준다.<sup>50)</sup>

#### 4. 자결 순국

홍범식은 1905년 을사오조약이 강제 당한 이후 항상 비분강개하여 눈물을 흘리며 민중정공의 순절을 칭송하곤 하였다.<sup>51)</sup>

그가 금산군수로 재임 중이던 1909년 10월, 안중근 의사가 우리나라 침략의 원흉인 이토 히로부미를 하얼빈 역에서 처단한 쾌거가 있었다. 그러나 일제는 이를 계기로 한국 병탄 계획을 가속화하였다. 그는 곧 일제가 일진회를 앞세워 우리나라를 병탄한다는 소식을 듣고는 “안타깝다. 내가 백리의 땅은 지켜냈으나 나라가 망하는 것은 지켜낼 힘이 없구나. 나라가 망한다면 죽는 것이 마땅하다.”라며 깊이 탄식하였다.<sup>52)</sup>

50) ‘郡守洪公範植殉節碑’는 1949년 10월 지방 유림들의 발의로 금산읍 중앙지에 건립된 것이다. 비문은 금산 출신으로 극작가로 활동하던 임희재(任熙宰, 1922~1970)가 지은 것인데, 홍명희의 월북으로 인해 비의 건립을 둘러싸고 찬반 논란이 있었다. 당시 예산군수 박항재는 홍범식의 순절에 대해 왕명이 없이 군수가 자결한 것은 잘못된 행동이었다고 비난하였다고 한다. 이 순절비는 忠節碑라고도 하였는데, 이후 1976년에 남산으로 옮겼다가 2008년 다시 홍범식 공원으로 옮긴 것인데, 금산군 향토유적 제11호로 지정되어 있다. 순절비는 남쪽으로 진악산을 등지고 북쪽으로 신흥산을 바라보고 있는데, 금산읍 전경이 내려다보이고, 자신이 최초로 자결을 시도했던 금산객사(금계관) 자리도 보인다. ‘郡守洪公範植殉節址’ 비석은 1993년 7월 홍범식의 순절한 곳을 기념하기 위해 조종산 자락에 세웠다가 순절비와 함께 ‘홍범식 공원’으로 이전하였다. ‘홍범식 공원’에는 그의 호를 딴 정자(일완정)가 있다. 한편 그가 태인 군수로 재임하던 시기의 선정을 기리기 위해 세운 비 가운데 현재 3기가 남아 있다. 즉, 전북 정읍시 감곡면 방교리 감곡면사무소 경내의 ‘洪侯範植恤民善政碑’(1908), 정읍시 산외면 오공리 야정 노인정 앞의 ‘郡守洪侯範植善政碑’(1909), 정읍시 태인면 대창리 披香亭 경내의 ‘郡守洪侯範植愛民善政碑’(1910)가 그것이나, 현지에서조차 이 존재를 잘 알지 못하니 안타까운 일이다.

51) 朴殷植, 『韓國痛史』, 大同編譯局, 1915, p.171(『白巖朴殷植全集』 제1권, p.415).

52) 金澤榮, 『洪範植傳』, 『韶澗堂文集』 卷十. 김택영은 『韓史纂』에서 그가 일제가 합병하기로 기약하였다는 소식을 듣고는 “관직이 封疆이 있으며 적을 능히 방어하지 못하였으니 살아서 무엇하겠는가?”라고 탄식하였다고 서술하였다.

홍범식의 자결 순국 과정에 대하여는 정인보의 『담원문록』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다. 그 내용은 홍명희로부터 전문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토대로 그의 자결 순국 과정을 살펴보기로 한다.

그는 장차 국가에 변고가 있을 것을 예상하고 미리 그의 부자와 친구들에게 이별을 고하는 편지를 쓰고, 한편으로는 미뤄뒀던 일들을 처리하였지만 아무도 그의 자결 조짐을 눈치 채지 못하였다.<sup>53)</sup>

1910년 8월 29일, 결국 그는 망국의 소식을 듣게 되었다. 이 소식을 접한 그는 한동안 아무런 말도 없이 있다가 자결을 결심한 뒤 날이 어스름해지자 재판소 서기 金祉燮을 불러 함께 저녁을 먹고 나서 유서를 넣어 단단히 싸서 봉한 상자를 그에게 건넸다. 김지섭이 이를 열어 보려 하자 그는 열지 말고 그냥 집으로 가지고 가라고 하였다. 김지섭은 군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냥 품에 넣어 집으로 가지고 갔다.

잠시 후 홍범식은 小室에게 어찌 놀러 나가지도 않느냐고 묻고, 그녀를 데리고 고을의 잘 아는 사람<sup>54)</sup> 집으로 가서 그녀를 집안으로 들여보내고는 주인에게 관아의 內舍를 수리해야 하기 때문에 소실을 잠시 머물도록 폐를 끼쳐야 하니 잘 돌봐달라고 부탁을 하고는 곧 그 집을 떠났다. 이때 使尹인 殷成<sup>55)</sup>이 그를 따랐는데, 홍범식이 그 집을 나서서 여느 때 다니지 않던 길로 접어들자 그는 혼잣말로 이 길은 객사로 가는 길인데 왜 군수가 이 길로 갈까라고 하며 이상하게 여겼다.<sup>56)</sup>

객사에 도착한 홍범식은 은성을 문밖에 있게 한 뒤 안으로 들어가 임금께 北向四拜를 올리고 나와 아래채에 이르러 비단으로 목을 매어 자결을

53) 홍범식 외손가에 전하는 유서(『두 머느리의계』)의 사본에는 작성일이 7월 23일로 되어 있다. 이는 음력일인데, 이로써 보면 홍범식은 이 유서를 자결하기 이틀 전인 8월 27일에 이미 작성해 두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유서의 사본은 머느리가 베껴 쓴 듯 걸장에 '아바님 유서 벗긴 것'이라 되어 있다. 자료를 제공해 주신 강영주 교수께 감사드린다.

54) 『騎驢隨筆』에는 面長 金漢根의 집이라 되어 있다.

55) 『騎驢隨筆』에는 金恩成이라 되어 있다.

56) 客舍란 고려시대이래 각 고을에 설치한 것으로 왕명을 받는 사람이 묵던 곳이므로 館舍 또는 客館이라고도 한다. 자료상으로는 1279년(충렬왕 5) 8월부터 지었다고 하나, 조선 시대에는 이곳에 왕을 상징하는 殿牌를 모셔두고 고을 원님이 매달 초하루와 보름에 대궐을 향해 望闕禮를 올리던 곳이다.

시도하였다. 은성이 몰래 들어가 엿보다가 이 광경으로 보고는 놀라 그에게 달려가 얼싸 안으며 울부짖었다. 홍범식은 노하여 은성을 손으로 밀어 제치고 옷자락을 걷어 치며 결연히 나가 버렸다. 이에 은성이 소리쳐 울면서 그의 뒤를 따랐는데, 홍범식은 문밖으로 몇 발자국 나가다가 몸을 돌려 모래를 집어 은성의 얼굴에 뿌렸다. 갑자기 눈에 모래가 들어간 은성이 눈을 뜨지 못하고 눈을 비비는 사이 그는 어둠 속으로 사라져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었다. 은성은 관아로 달려갔다. 그는 만나는 사람마다 군수가 목을 매 자결하려는 것을 풀어드렸으나 지금 어디 계신지 모르니 빨리 햇불을 들고 찾아 달라고 울부짖었다. 이 소식을 들은 아전과 군민 모두가 놀라 군수를 찾아 나섰다.

군수로부터 상자를 받아 가지고 집으로 돌아 온 김지섭은 처음에는 군수가 자기에게 먹을 것을 주면서 자기를 깜짝 놀라게 하기 위해 열어보지 말라고 한 것이라 여겨 의심하지 않았었다. 김지섭이 집에 돌아와 상자를 열어보니 그 안에 그 아들에게 주는 편지가 들어 있었다. 또한 지섭에게 주는 편지도 있었는데, 홍범식은 이 편지에서 지섭에게 나라가 망하였으니 자신은 자결하면 그만이지만 너는 빨리 관직을 떠나 다른 일을 찾아보라고 당부하며, 가족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부탁한다고 하였다.

김지섭이 이 편지를 읽어 보고 깜짝 놀라 관아로 달려가니 군수는 이미 없었다. 어떤 사람의 안내로 홍범식이 소실을 맡긴 집을 찾아가 물어보니 곧바로 돌아갔다고 하였다. 지섭이 홀로 한숨을 쉬며 골목을 나서 바라다 보니 불빛이 군청을 밝히고 한창 술렁거리고 있었다. 지섭이 서둘러 달려가니 은성이 아전과 고을 사람들을 모아 군수를 찾아 나서려는 참이었다. 지섭은 그들과 함께 객사로 가서 군수를 찾아 나섰는데, 문 옆의 밭에 수숫대와 옥수수대가 헤쳐지고 꺾여 마치 사람이 뚫고 들어간 흔적 같아서 모두 의심하며 온 밭을 두루 뒤졌으나 헛일이었다.

이때 갑자기 뒤쪽에서 원님이 여기 계신다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모두 달려가 홍범식을 찾아냈으나, 그는 객사 후원의 낮은 소나무 가지에 목매 숨이 끊어진 뒤였다. 나뭇가지가 연약하여 처져서 그의 몸은 땅에 비스

듬히 늘어져 마치 누워 자는 듯 한 모습이였다. 홍범식은 평상시에는 서양 제 검은 모자를 썼는데, 이날은 우리 의관으로 갈아입고 있었다. 그는 이날 아침 작년에 남에게 빌려 온 매화 분재를 편지와 함께 30리 길을 달려가 돌려주게 하였는데, 심부름꾼이 돌아왔을 때 그는 이미 세상을 뜬 뒤였다.<sup>57)</sup>

금산군에서는 아전과 어른들로부터 비롯하여 아래로는 농군, 등짐장수, 아낙네, 어린애 할 것 없이 모두 앞 다투어 나와 울고 또 장례 모실 준비에 분주하였다. 아들 명희가 달려왔을 때 이미 모든 장례 준비가 갖춰진 뒤였다. 그의 염을 마친 뒤 남은 수의용 옷감이 십여 필이 되었는데, 모두들 울며 변변치 못한 것이나마 백성들의 정성으로 모은 것이니 원님 몸 옆에 함께 넣어 주면 여한이 없겠다고 애원하자 모두 관 속에 넣어주었다.

상여가 떠나려 하자 온 고을 사람들이 몰려와 향을 피우고 술을 따라 올리기를 그치지 않았고, 모두 도로에 나와 울며 곡을 하였다. 상여가 괴산의 선영까지 가려면 3백리나 되는데도 아전과 백성 1백 명이 상여를 따라가 장례를 마치고야 돌아왔다.

당시 장례는 판사 朴瑢台, 군서기 韓昌錫 등이 예를 갖추어 괴산까지 모신 것인데, 장례를 전후하여 賻錢한 관민이 5천명에 이르렀으며, 읍의 아낙인 金春仙과 李緣珠도 부전을 하였다.<sup>58)</sup>

홍범식은 자결 직전 객사의 벽에 '國破君亡 不死何爲'라는 여덟 자의 유서를 남겼다.<sup>59)</sup> 홍범식의 품안에 지니고 있던 유서는 염탐꾼이 뒤져 가져갔지만, 일제는 김지섭에게 부탁한 유서의 존재는 알지 못하고 있었다. 김지섭은 이 유서들을 잘 숨겨두었다가 명희에게 전해 주었다. 유서는 할머니와 부모로부터 부인과 자제, 며느리와 딸에게 이르기까지 십여 통이나

57) 홍범식의 자결 순국일을 김윤식의 『續陰晴史』(1910년 9월 1일자)를 인용하여 9월 1일로 보는 견해(권대웅, 『1910년대 국내독립운동』(한국독립운동의 역사 15), pp.45~46)가 있는데, 이는 명백한 오류이다. 『除籍簿』는 물론 모든 기록에 그의 순국일은 8월 29일 국치일 당일로 일치한다.

58) 宋相燾, 『騎驢隨筆』의 洪範植條.

59) 朴殷植, 『韓國痛史』, 大同編譯局, 1915, p.171(『白巖朴殷植全集』 제1권, p.415).

되었는데, 그는 이 유서에서 식구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였다.<sup>60)</sup> 그는 또한 손자 기문은 어렸으나 나중에 성장한 다음에 읽어보라고 하며 그에게도 유서를 남겼다. 그 내용은 손자 기문에게 입신양명하여 자신의 유한을 달래 달라고 부탁하며, 몇 종형제가 되더라도 돌려서 읽어 보라고 명하였다.<sup>61)</sup> 유서의 글자는 모두 흐려 쓰지 않고 정성을 들여 또박또박 썼다.

일설에 의하면 당시 홍범식의 주머니에는 5통의 유서가 있었는데, 일제가 뒤져 가져간 것을 후에 박용태가 일본인에게 사정하여 가족에게 남긴 유서 1통을 돌려받았다고 한다. 나중에 홍범식의 가족들이 그의 유품 중에서 오래된 상자를 열어보니 멸망한 고려 왕조에 충성과 의리를 다하기 위해 은거한 杜門洞 72賢의 이름과 행적을 기록한 책이 나왔다고 한다. 그의 울골은 지조를 알 수 있는 일화이다. 그가 아들에게 남긴 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울어진 국운을 바로 잡기에는 내 힘이 무력하기 그지없고 망국노의 수치와 설움을 감추려니 비분을 금할 수 없어 스스로 순국의 길을 택하지 않을 수 없구나. 피치 못해 가는 길이니 내 아들이 너희들은 어떻게 하던지 조선 사람으로 의무와 도리를 다하여 빼앗긴 나라를 기어이 되찾아야 한다. 죽을 지언정 친일을 하지 말고 먼 훗날이라도 나를 욕되게 하지 말아라.”<sup>62)</sup>

그의 자결 순국 소식이 알려지자 온 나라 사람이 깜짝 놀라며, 홍범식은 나라가 망하자 최초로 순국한 사람이며, 앞으로 그의 뒤를 따라 많은 관리와 신민들이 죽을 것이라고 칭송하였다.<sup>63)</sup> 실제로 그의 뒤를 이어 수십 명의 우국지사들이 자결 순국하였다.

60) 「두 머느리의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효양 둥당호고 형테화락하야 몸들 무탈호여라 일문화기는 부녀에게 잇스니 생각호고 죠심호야 죽는 나의 부탁을 잇지 마라 들은즉 큰 머느리는 틱중이라 하니 더욱 삼가기 밋는다 나는 오날 당호야 가스를 생각하니 통한호 곳 엇지 적으랴 더강 곳친다 경술 칠월 이십 습일 식부”.

61) 洪起文, 『故園紀行』(『洪起文朝鮮文化論選集』, p.380).

62) 강영주, 『벽초 홍명희 연구』, 창작과 비평사, 1999, pp.88~89 재인용.

63) 金澤榮, 『洪範植傳』, 『韶濩堂文集』卷十.

## 5. 자결 순국의 영향

홍범식이 자결 순국하자 일제는 10일이 지난 9월 8일자 『朝鮮總督府官報』의 「彙報」의 官吏死去 부분에 ‘금산 군수 홍범식이 지난달 30일 사거하였다’라고 죽음의 원인을 밝히지 않고 단순하게 보도하였다.<sup>64)</sup>

일제는 경술국치에 분개하여 자결한 사람이 생겼다는 소식을 들으면 곧 그 집 사람들 찾아가 절대 사실을 발설하지 못하도록 협박하였다.<sup>65)</sup> 그러나 홍범식의 경우, 일제는 그의 순국이 미칠 파장을 우려하여 그의 자결 원인조차 비열하게 왜곡하였다. 즉, 일제는 그의 순국이 일제의 침략에 분개하여 결행한 것이 아니라 ‘본래 있던 광증이 발하여’ 자살한 것으로 폄하하였던 것이다.<sup>66)</sup>

그러나 그의 자결 순국 소식은 순식간에 국내외로 전해지며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다. 『新韓民報』는 그의 자결 순국 사실을 「그래도 하나 있다」라는 제목으로 신속하게 미주 동포사회에 보도하였고, 그 이후에도 몇 차례 더 보도하며 칭송하였다.<sup>67)</sup>

그의 순국은 독립운동 단체나 해외 동포사회에서 8월 29일의 국치일을 맞이하여 독립투쟁의 결의를 다지는 기억과 기념의 상징적 소재가 되었다. 상해의 同濟社는 1913년 8월 29일의 국치일을 맞이하여 홍범식 추도회를 개최하였고<sup>68)</sup>, 『新韓民報』 역시 이날을 맞이하여 「대치육 함병 기사」에서 ‘홍태수의 강개 순국’이 민족정기가 인멸치 않은 증거라고 그의 순국을 기렸다.<sup>69)</sup> 한편 『獨立新聞』은 1922년 8월 29일자 「국치일의 해설」 기사에서 홍범식의 자결 순국을 최초의 순국으로 칭송하였고<sup>70)</sup>, 한국국민당 기관지인

64) 『朝鮮總督府官報』, 1910년 9월 8일자. 일제가 그의 순국 일자를 하루 늦춰 발표한 것은 그의 순국이 경술국치와 무관하다는 것을 나타내고자 한 의도적인 것으로 보인다.

65) 朴殷植, 『韓國獨立運動之血史』, 維新社, 1920, p.29(『白巖朴殷植全集』 제2권, p.109).

66) 『新韓民報』, 1910년 10월 12일자.

67) 『新韓民報』, 1910년 9월 21일자.

68) 鄭元澤, 『志山外遊日誌』 1913년 7월 28일자(陽 8. 29).

69) 『新韓民報』, 1913년 8월 29일자.

70) 『獨立新聞』, 1922년 8월 29일자 「國恥日의 解說」.

『韓民』도 1936년의 국치일에 그를 순국열사의 首位에 두고 설명하였다.<sup>71)</sup>

무엇보다도 그의 자결 순국은 그의 아들 홍명희에게 ‘가슴에 큰 못이 박혀’진 것 같은 깊은 충격과 영향을 주어 조선 천하가 모두 倭奴의 수하가 되더라도 홍명희만은 절대로 그럴 수 없었던 것이다.<sup>72)</sup> 홍명희는 어려서 자신에게 엄격하였던 홍범식을 무서워하고 꺼려하였다고 회고한 바 있다.<sup>73)</sup> 그러나 부친의 죽음은 그에게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天崩地坼’과 같은 일이었다. 그는 당시의 심경을 이렇게 말하였다.

“합방만도 마음이 약하고 몸이 약한 나에게 건디기 어려운 크나큰 타격인데 약한 마음을 자애로 어루만져주시고 약한 몸을 자애로 휩싸주던 우리 아버지가 합방 통에 돌아가셨다. 나는 온 세상이 별안간 칠통 속으로 들어간 듯 눈앞이 캄캄하였다. 天崩地坼이란 當故한 사람들 흔히 쓰는 문자가 나에게는 문자 그대로 사실인 듯하였다. 나라가 망하고 집이 망하고 또 내 자신이 망하였으니 아버지의 뒤를 따라 죽는 것이 가장 상책일 줄 믿으면서도 생목숨을 끊을 용기가 없었다. 죽지 못하여 살려고 하니 고향이 싫고 고국이 싫었다. 멀리멀리 하늘 끝까지 방랑하다가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아무도 모르게 죽는 것이 소원이었다. 삼년상을 치러야 한다고 삼년을 지내는 동안에 걸로 생활은 전과 같이 먹을 때 먹고 잘 때 자지만 속으로 감정은 전과 판판 달라져서 모든 물건이 하치않고 모든 사람이 밉살스럽고 모든 예법이 가소로웠다.”<sup>74)</sup>

홍명희는 부친의 삼년상을 마치자마자 중국과 남양으로 방랑의 길을 떠나 7년여를 보내다가 귀국하였다. 그는 부친이 유서에서 당부한대로 친일을 하지 않고 부친을 욕되게 하지 않게 살고자 하였고, 가끔은 아들 기문에게도 눈물을 흘리며 할아버지의 생전의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할아버지의 뒤를 이어 자존심을 지키고 인내력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sup>75)</sup> 그는

71) 『韓民』, 1936년 8월 29일자 「流芳百歲의 殉國 諸烈士」.

72) 朴學甫, 「洪命憲論」, 『新世代』 1946년 3월호(통권 제1권 제1호), pp.85~87.

73) 洪命憲, 「自敘傳」(金東煥 편, 『平和와 自由』, 삼천리사, 1932, pp.97~101).

74) 홍명희, 「내가 겪은 합방 당시」, 『서울신문』 1946년 8월 27일자.

75) 洪起文, 「아들로서 본 아버지」, 『朝光』 2권 2호, 1936. 5, pp.181~190.

월복한 후에도 자신의 책상 왼쪽 벽에 부친이 남긴 유서를 액자에 담아 걸어 두었는데, 아침저녁으로 올려다보며 마음을 다잡고 어제를 되돌아보고 내일을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하였다고 한다.<sup>76)</sup> 그는 말년의 어느 날 자식들에게 자신은 『임격정』의 작자도 아니고 학자도 아니라 홍범식의 아들 애국자라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또 자신은 일생동안 애국자라는 명예를 잃을 까봐 그 명예에 티끌조차 묻을세라 마음을 쓰며 살아왔다고 말하였다고 한다.<sup>77)</sup>

홍명희는 1919년 3월 19일, 충북 최초의 3·1운동인 괴산 장터의 만세시위를 주도하였고, 이후에도 신간회를 조직하고 주도하는 민족운동의 길을 걸었다. 그런데 여기에서 기억해야 할 사실은 홍범식의 이복동생인 洪用植이 홍명희와 함께 만세운동을 주도하고, 홍명희의 이복동생인 洪性憲가 형의 뒤를 이어 괴산 장터의 만세운동을 주도하였다는 사실이다.<sup>78)</sup> 홍용식은 조카인 홍명희보다 7년 연하이나, 그와 함께 3월 18일 동부리 자택에서 3백여 명의 태극기를 등사하고 이튿날 괴산 장터로 나가 만세시위를 주도하다가 피체되어 1년 6개월의 옥고를 치렀다.<sup>79)</sup> 한편 그 다음 괴산 장날인 3월 24일의 만세시위의 주역은 홍성희였다. 그는 면서기들과 만세시위를 주도하다가 경찰에 피체되었는데, 이에 분개한 군중들이 경찰서로 쇄도하여 격렬히 항의하였다. 그 또한 1년의 옥고를 치렀다.<sup>80)</sup>

홍범식의 순국 이후 그의 동생인 홍용식과, 그의 아들인 홍명희·홍성희가 3·1운동을 주도하는 등 민족운동의 길을 걸을 수 있었던 것은 곧 그의 부형의 유훈을 따랐기 때문이다. 홍범식이 자결하며 남긴 유서는 그의 손자 홍기문도 신간회 참여 등 민족운동의 길을 걷게 하였다. 그는 할아버지의 묘 앞에서 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자기의 핏줄이 성한 그날까지는 할

76) 현승걸, 「통일 염원에 대한 일화」, 『통일예술』 창간호, 광주출판사, 1990, p.319.

77) 현승걸, 「통일 염원에 대한 일화」, pp.318~319.

78) 박결순, 『槐山地方 抗日獨立運動史』, pp.109~111.

79) 「홍명희 등 판결문(대정 8년 형 제217호)」, 1919. 4. 17, 공주지방법원 청구지청(『독립운동사자료집』 제5집, 1972, pp.1079~1080).

80) 「홍성희 등 판결문(대정 8년 형 제236호)」, 1919. 4. 17, 공주지방법원 청구지청(『독립운동사자료집』 제5집, pp.1081~1082).

아버지의 이름을 욕되지 않게 할 것을 맹세하였다.

“... 다시 할아버지 앞에 엎드립니다. 불초한 이 손자가 엎드립니다. 입신양명하여 유한을 위로해 달라는 우리 할아버지께 저는 무슨 면목을 들고 대담히 왔습니까? 저같이 약하고 못한 위인이 어찌서 그 어른의 손자로 태어났습니까? 나이 벌써 서른 넷, 황송한 말씀이오나 결코 적은 나이가 아니올시다. 지난 서른 네 해의 碌碌함을 돌아보아 앞으로 서른 네 해도 제 스스로 큰 기대를 가지지 못합니다. 그러나 할아버지시여! 제 몸을 도는 이 피는 어디까지나 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것입니다. 제 핏줄이 성한 그날까지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할아버지의 이름을 욕되게 앓고자 맹세합니다. 몇 종형제가 되든지 돌려보라고 명하신 유서는 제 아우와 또 제 종제들에게 두고두고 읽히겠습니다. 아니 저희 대, 손자대까지라도 길이 전하여 가보로 삼겠습니다. ...”<sup>81)</sup>

홍범식의 순국으로 인해 민족운동의 길을 걸은 것은 가족뿐만이 아니었다. 일제는 충북지방 3·1운동 발발 원인의 하나로써, 당시 양반과 유생층을 중심으로 홍범식의 자결 순국을 찬양하는 풍조를 지적한 바 있다. 즉, 홍범식의 자결 순국이 양반과 유생들의 만세시위에 끼친 영향을 주목하였던 것이다.<sup>82)</sup>

그의 자결 순국의 유훈은 후손이라는 혈연적 연고와 충북이라는 공간적 범주에만 머물지 않았다. 전국의 많은 우국지사들이 그의 뒤를 따라 자결로써 일제의 침략에 항거하였고, 그를 본보기로 하여 민족운동에 투신하였다.

秋岡 金祉燮(1884~1928)은 그 대표적 인물이라 할 수 있다. 1907년 5월 상주보통학교 교원으로 임명<sup>83)</sup>되어 교편을 잡고 있던 그는 1908년 11월 11일 의원면직<sup>84)</sup> 하고 상경하여, 이후 재판소 번역관 시험에 합격하여 1909년 8월 전주구 재판소 번역관보를 거쳐<sup>85)</sup> 이 해 11월 금산재판소 서기로 근무하게

81) 洪起文, 『故園紀行』, 『朝鮮日報』 1936년 4월 13일자.

82) 朝鮮憲兵隊司令部, 1919, 『朝鮮騷擾事件狀況』(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 제6집, 1973, pp.472~474).

83) 『김지섭 교원 임명장』(독립기념관 소장자료 1-001697-000).

84) 『김지섭 상주보통학교 전과부훈도 면직사령장』(독립기념관 소장자료 1-001698-002).

되었으며, 물품회계 관리 업무를 담당하기도 하였다.<sup>86)</sup> 홍범식은 김지섭에게 유서를 맡길 만큼 그를 신뢰하였다. 1913년 김지섭은 공주지방법원 영동지청 서기겸 번역생을 그만두고 중국으로 망명하여 의열단 단원이 되어 1924년 二重橋 투탄 의거를 결행하였다. 이로 인해 피체된 그는 공판을 받을 때 일본에게 모욕을 당한 것에 분개하여 독립운동을 하였고, 생명을 희생해도 아깝지 않다고 답변하였다.<sup>87)</sup> 결국 김지섭의 독립운동 참여는 홍범식의 자결 순국 과정을 곁에서 지켜보고, 또한 그로부터 유서를 부탁받아 비밀리에 가족에게 전하며 잠자던 민족의식이 각성되고 독립의식이 고양된 것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평가된다.<sup>88)</sup>

홍범식의 영향으로 독립운동에 나선 인물로 미주지역에서 활동한 宋哲(1896~1986)도 주목된다. 당시 전주 신흥중학교에 재학 중이던 송철은 고향이 금산으로 홍범식의 죽음을 직접 목도하며 일본에 대한 적개심에 비분강개하여 살아있는 동안 원수를 갚겠다고 결심하고 학업에 전념하고 이후 망명하여 독립운동에 나섰다 고 회고한 바 있다.

“... 급기야 1910년 8월 29일 한일합방을 발표하고 말았던 것이다. 이 비보를 전해들은 금산의 홍 군수는 아무도 모르게 군청 소재지 가까운 언덕에 올라 소나무에 명주 수건으로 목을 매어 자살하고 말았다. 이 순국의 소식은 삼시간에 많은 사람에게 알려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운집하였다. 나도 이 애절한 죽음을 목도하였는데, 비분강개한 마음 금할 길이 없었다. 언덕 밑으로 축 늘어진 시신은 어린 나의 가슴에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일본에 대한 적개심을 불러 일으켰다. 내가 살아 있는 동안 원한을 풀어주지 못하면 살아서 무엇 하리! 기필코 살아서 저 원수를 갚으리라는 사무친 결심이 그 어려웠던 학업, 망명, 광복운동의 원동력이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결심이 있었기에 공부에 공부를 매진했고 그 가난의 고학생활동도 불사했던 것이다. ... 홍 군수의 죽음

85) 「김지섭 임명장」(독립기념관 소장자료 1-001702-008). 이때 판임관 4품계를 받았다.

86) 「김지섭 8급재판소 번역관 보임장」(독립기념관 소장자료 1-001703-001) 및 「금산구 재판소 물품 회계 관리 임명장」(독립기념관 소장자료 1-001702-004).

87) 『朝鮮日報』 1924년 9월 11일자.

88) 金容達, 「秋岡 金社燮의 生涯와 獨立運動」, 『安東史學』 제6집, 2001, pp.135~181.

은 나에게 적지 않은 충격과 용기를 안겨주었다. ...”<sup>89)</sup>

홍범식의 죽음은 동료 군수들에게도 충격으로 작용하였다. 당시 이천 군수로 재임하던 趙鏞夏(1882~1937)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三均主義를 정립한 조소앙의 형이었는데, 그는 같은 군수직에 있던 홍범식의 자결 순국 소식을 듣고는 그렇게 하지 못한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고 8개월이 지나 군수직을 사직하였다. 이후 그는 다시 麻田郡(현재, 연천군)의 군수에 임명되었으나, 6개월 만에 사직하고 이후 망명하여 중국과 하와이에서 독립운동에 투신하였다.<sup>90)</sup> 그는 1933년 3월 경성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치안유지법위반 피고 심문에서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답변하였다.

문 : 그렇게 마전군수에 복직하였으나 그 후 大正 2년 8월 퇴관하였는데 그러한가?

답 : 그렇다.

문 : 왜 퇴관하였는가?

답 : 내가 이천 군수로 근무하고 있을 무렵 日韓併합이 되었으나 당시 그것에 분개해서 당시의 전북 금산군수를 하고 있던 홍범식이 자결하였으므로 그러한 사건에 의하여 자극되어 이천 군수를 그만 둔 상황이었는데, ... 당시에는 생활에도 불편을 받고 있는 때이어서 온정에 의지해서 복직하였으나 어쩐지 총독정치에 대해 마음으로부터 승복하는 기분은 되지 않고 조선 민족을 위해서 금산군수가 自盡한 일을 또 새로이 생각하고 조금도 군수를 계속하고 있을 기분이 되지 않았으며 ...

문 : 군수 시절에 상급 관청의 조치 등에 대해서 사무적으로 좋지 않은 일이라도 있었던 것은 아닌가?

답 : 그러한 일은 없었다.

89) 이상수, 『송철 회고록』, 키스프린팅, 1985, pp.29~30.

90) 「趙鏞夏 聽取書(第一回)」, 1932년 12월 19일, 神戶地方裁判所 檢事局(『韓民族獨立運動史 資料集』 42, 국사편찬위원회, 2000, p.111).

문 : 그렇다면 결국 조선은 완전히 독립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그 무렵부터 생각하고 있었는가?

답 : 구체적으로는 없었으나 조선의 독립을 희망하고 있었다.<sup>91)</sup>

이상으로 볼 때 그의 자결 순국은 동생과 아들, 손자가 독립운동의 길에 전념하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김지섭과 송철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독립운동가의 본보기가 되었으며, 조용하의 사례에서 관료사회에도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홍범식의 자결 순국은 일제 강점과 더불어 국내외 동포들에게 항일투쟁의 선구적 존재로서 기폭제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일제 강점기 내내 해마다 경술국치를 기억하고 독립 쟁취의 결의를 다지는 계기의 대상이 되었음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홍범식의 사례에서 분명히 알 수 있듯이 의열투쟁으로서의 자결 순국은 단순히 개인적 차원의 봉건적, 소극적 투쟁이 아닌 것이다. 곧 자결 순국 투쟁은 개인의 극적 희생을 통해 민족적 각성을 촉구하고 민중의 봉기와 투쟁을 유발한 적극적이고 효율적 투쟁으로 평가하여 마땅하다. 역사가들이 자결 순국자들을 大書 特書하여 立傳케 하여야 한다고 한 박은식의 주장<sup>92)</sup>은 지극히 타당한 것이다.

## 6. 맺음말

본고는 1910년 경술국치를 당하여 최초로 자결 순국한 금산 군수 홍범식의 생애와 자결 순국 과정, 그의 순국이 한국독립운동에 미친 영향에 대하여 검토한 것이다. 본고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그는 노론의 명문가에서 태어나 조부와 부친에 이어 과거에 급제하여 열

91) 『公判調書』, 1933년 3월 31일, 京城地方法院(『韓民族獨立運動史資料集』 42, p.137).

92) 朴殷植, 『韓國痛史』, 171쪽(『白巖朴殷植全集』 제1권, p.415).

族의 영예를 이어갔다. 그는 어려서부터 학문을 좋아하였으며 孝悌를 두터이 행하고 志節을 지키기에 힘썼다. 그는 특히 부친 홍승목에게 극진한 효행을 다하였으나, 홍승목이 아들의 자결 순국을 목도하면서도 친일 행각을 벌인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홍범식은 1888년 무자 식년시의 진사시에 급제 후 내부 주사, 혜민원 참서관을 거쳐 1907년 전북 태인 군수에 임명되었다. 당시는 의병이 전국적으로 봉기하였고, 특히 전북의 의병 활동이 왕성하였다. 이에 군수로 서임된 사람들이 임지 부임을 기피하여 지방관이 결원이 된 이른바 '曠窠', '窠闕' 현상이 심각하였다. 그러나 그는 선비로서 나라가 어려울 때 회피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하였다. 그는 의병을 진압하기 위해 출동한 일본군 수비대장을 찾아가 백성을 함부로 죽이지 않도록 설득하여 많은 생명을 구하였다. 그가 적극적으로 의병을 지원한 근거는 없으나, 군민을 극력 보호하였음은 틀림없다. 또한 그는 荒政이나 수리사업 등 백성을 이롭게 하는 일에 정성을 다하였고, 지방관의 가렴주구와 폐정이 없도록 유의하였다.

그가 태인 군수로 재임하는 동안 군민들은 『황성신문』에 그의 선정을 칭송하는 광고를 자발적으로 게시하였다. 그의 명성은 태인은 물론 인근의 고부와 정읍 등지에도 알려졌다. 당시 그를 전북 제일의 군수라거나, 태인군이 생긴 이래 가장 선정을 펼친 군수라고 칭송한 기록은 그의 선정을 짐작케 하고도 남는다. 그의 선정은 금산에서도 계속되었다. 현재 그가 군수를 지낸 태인과 금산에 남아 있는 각종 선정비 등 기념물은 그에 대한 역사적 기념과 기억의 현재적 증좌이다.

그는 1905년 을사오조약을 강제 당한 이후 늘 일제의 침략에 비분강개한 마음을 지니고 있었다. 1910년의 망국이 가까워질수록 그의 탄식은 깊어졌고, 망국 직전에는 이미 자결 순국을 결심하게 되었다. 그가 유서를 작성한 날자가 경술국치 이틀 전인 8월 27일란 사실이 이를 입증한다. 그는 가족에게 남기는 여러 통의 유서를 쓰고, 객사 벽에도 결연한 의지를 밝히는 글을 남긴 뒤 관아 뒤편의 조종산 자락 소나무에 목을 매 자결 순국하였다. 그의 순국 과정은 일제 침략에 분개하여 자결 순국한 열사의 행적 가운데

가장 상세한 기록으로 남아 있다. 그의 장례는 금산 군민들이 정성을 다해 치렀다.

일제는 홍범식의 자결 순국 사실을 감추고 왜곡하기에 급급하였으나, 곧 이 소식은 국내외로 파급되며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다. 그의 자결 순국은 국내외 동포의 항일투쟁의 기폭제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해외 동포사회와 독립운동 단체가 해마다 국치일을 맞이하여 독립 쟁취의 결의를 다지는 기억과 기념의 상징적 존재가 되었다.

그의 자결 순국 투쟁은 가족은 물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어 독립 운동에 나서게 하였다. 그의 동생 홍용식과 아들 홍명희, 홍성희는 물론 손자 홍기문까지 3대가 그의 순국의 영향을 받아 3·1운동과 신간회 주도 등 민족운동에 나섰다. 그들은 홍범식의 유훈을 받들어 친일행위를 하지 않고, 애국자 후예로서의 명예를 지키기에 노력하였다.

그의 유훈을 받들어 민족운동에 나선 것은 가족뿐만이 아니었다. 3·1운동 당시 충북지역민들은 경술국치 때 순절한 홍범식을 찬양하며 만세운동에 나선 것이었다. 또한 그의 유서를 비밀리에 맡았다가 홍명희에게 전한 김지섭은 그 영향으로 망명, 의열단에 가입하여 이종교 투탄의거를 결행하였고, 그의 자결 모습을 직접 목도한 송철은 복수를 맹세하고 망명하여 미주지역의 독립운동을 주도하였다. 당시 같은 군수였던 조용하 역시 그의 자결 순국의 영향을 받아 퇴관을 하고 망명하여 독립투쟁에 나섰다.

요컨대 홍범식의 사례에서 분명히 알 수 있듯이 의열투쟁으로서의 자결 순국은 단순히 개인적 차원의 봉건적, 소극적 투쟁이 아닌 것이다. 곧 자결 순국 투쟁은 개인의 극적 희생을 통해 민족적 각성을 촉구하고 민중의 봉기와 투쟁을 유발한 적극적이고 효율적 투쟁으로 평가하여 마땅하리라 믿는다.

(원고투고일 : 2011. 3. 28, 심사수정일 : 2011. 4. 21, 게재확정일 : 2011. 4. 29.)

주제어 : 홍범식, 경술국치, 자결순국, 풍산홍씨, 홍명희, 금산군수, 피산, 김지섭, 조용하, 송철

<ABSTRACT>

## *Ilwahn Hong Beom-sik's Sacrificing Suicide and the Dying Instructions*

Park, Gul-sun

*Hong Beom-sik*(1871~1910) is the person who was the highest officer as a governor among the suicided people over country's ruination in 1910, as well as who became the ignition of the anti-Japanese struggle as he killed himself as soon as the Korea-Japan Treaty was proclaimed. Not only for this, his sacrificing suicide is the detailed case of the dying instructions to make many people go to the anti-Japanese struggle, so it can be given the special meaning.

He was noble birth of *Noron*(老論) and passed the state examination following his father and grandfather to succeed the honor of family. After he passed the exam in 1888, he got an appointment as a governor of *Tae-in*, *Jeonbuk* Province in 1907. At that time, army raised for the justice all over the nation, especially in *Jeonbuk* area. He persuaded Japanese army to suppress them not to kill thoughtlessly so that he could save so many lives. Furthermore he didn't extorted taxes and exerted himself to save his people from bad crop and to do irrigation works.

People in *Tae-in* published an ad to praise his beneficent government at *Hwangseong Daily*. With this, there are remembrance like many monuments for him in *Tae-in* and *Geum-san* where he governed and they are the historical commemoration and the remarkable evidence about him. He already had decided to kill himself for country before the ruination of country. The face that the date he wrote his will was August 27th, two days before the ruination confirms it. He left many letter of will for his

family and hanged himself on a pine tree in *Jojong* mountain behind of the government office.

Japanese Imperialism tried to cover and distort Hong's sacrificing suicide, but this news was spread instantly to inside and outside of the country and created big sensation. His suicide became not only the ignition of the anti-Japanese movement for the compatriot inside and outside of country, but also the symbolic existence for remembrance to reaffirm their resolve to achieve independence for abroad compatriot society and independence movement group in every national humiliation day.

His sacrificing suicide influenced many people as well as his family to make them go to independence movement. Three generations of his brother *Hong Yong-sik* and the son *Hong Myeong-hee* with *Hong Seung-hee* as well as grandson *Hong Ki-mun* led the racial movement like 3·1 movement and *Singanhoe* in *Chungbuk* Province after his sacrificing.

It was not only his family who took a lead after his will. During 3.1 movement, the people in *Chungbuk* Province went to participate the national movement praising *Hong Beom-sik* who sacrificed in the National Humiliation. Furthermore, *Kim Ji-Seop*, who had kept his will secretly and carried it to *Hong Myeong-hee*, exiled himself and participated in *Uiyeoldan*(義烈團) to drop a bomb at *Nijubashi* Bridge(二重橋); *Song Cheol*, who had witnessed directly *Hong Beom-sik's* suicide, exiled swearing revenge and led the independence movement in America. A same governor *Jo Yong-ha* also was affected by Hong's suicide and he resigned from office to go to the independence movement.

In short, as we can see in *Hong Beom-sik's* case clearly, sacrificing suicide as a noble fight is not just an old-fashioned or passive struggle. Sacrificing suicide deserves to be valued that encouraged national awakening and triggered public revolt and struggle through individual dramatic sacrifice.

Key Words : *Hong Beom-sik*, National Humiliation occurred in the year of *Gyeongsul*(*Gyeongsul-Gukchi*), *Pungsan Hong*, a Governor of *Geumsan*, *Goesan*, *Kim Ji-seop*, *Jo Yong-ha*, *Song Cheol*.

## 연구소 동정

### 1. 학술교류 및 협력활동

- 천안함 피격사건 백서·종합보고서 발간 기념식
  - 일시 : '11. 4. 20(수)
  - 장소 : 전쟁기념관 뮤지엄웨딩홀 1층 그랜드볼룸
  - 참석자 : 청와대·국방부·외교통상부 발간/집필 관계자 등
- 연세대 이승만연구원과 학술 협력 및 교류 방안 협의
  - 일시 : '11. 4. 8(금), 5. 16(월)
  - 참석자 : 1) 이승만연구원 : 류석춘 원장, 오영섭 교수  
2) 연구소 : 소장, 군사사부장 서인한, 책임연구원 남정옥
  - 협의내용 : 1) 6·25전쟁 관련 이승만대통령 자료 교환 및 협력  
2) 공동 연구 및 소장 자료 교류 협력 방안  
3) 지속적인 교류 협력체계 제도화 방안
-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전시 자료 제공
  - 일 시 : '11. 3. 8(금)
  - 제공자료 : '한국군 비전투부대 파견에 관한 문서' 등 7종

## 2. 연구소 워크숍/전적지 답사

- 군사사 연구 관련 전적지 답사 출장
  - 일 시 : '11. 4. 12(화) ~ 4. 16(토)
  - 출장자 : 군사사부장 서인한, 책임연구원 백기인
  - 출장지역 : 전남 장성, 담양, 경남 진주 일대
  
- 춘계 군사유적지 답사
  - 일 시 : 4. 27(화)
  - 대 상 : 연구소 전 직원
  - 답사지역 : 강화도 고려궁지·고려산 일대

## 3. 인사 이동

- 전입/변경 : 행정사무관 손귀현 전입, 정보자료실장 보임(3. 14)  
연구원(계약 5호) 전호수 직위 변경 → 별정 5급(4. 1)

## 자료 기증은 군사사 연구의 생명입니다.

<정보자료실 제공>

군 관련 자료를 소장하고 계신 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연구소는 최적의 자료 보존 장비와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여러분이 제공한 자료는 생생한 역사로 기록될 것입니다.



### <자료기증안내>

#### ◇ 수집대상자료

- 전사자료 : 한국전쟁, 월남전쟁에 관한 피아 작전관계 문서, 지도, 사진 등 전사자료와 참전증언 자료
- 군사사 자료 : 군사적, 학술적 가치가 있는 군사문헌, 고증 사료

#### ◇ 수집방법

- 소장자료를 아래 주소로 보내 주시거나, 전화 또는 서신으로 소장 자료 제공 의사를 알려 주시면 출장 방문하여 수령하겠습니다.  
(비제공 자료는 복제 후 반환)

※ 기증해 주신 자료는 영구 보존되며 장병 및 국민들에게 공개 활용됩니다.

◇ 연락처

- 주 소 : (☎140-021)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9(용산동 1가 8번지)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정보자료실
- 전 화 : (일반) 02)709-3188, 3199  
(군) 900-1686, 1688

<자료이용안내>

◇ 공개자료 종류

- 장 서 : 역사, 군사도서 등
- 사 료 : 한국전쟁, 월남전쟁, 국방, 군사사, 수기 등
- 기 타 : 학술논문, 수기, 회고록, 간행물 등

◇ 장 소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정보자료실(전쟁기념관 4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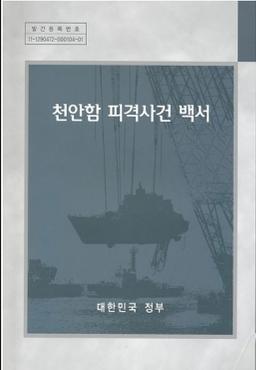
◇ 이용시간

- 평 일 : 09:30~17:30
-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 휴무

◇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

- 주 소 : [www.imhc.mil.kr](http://www.imhc.mil.kr)
- 주요내용 : 소장도서목록, 연구소 역대발간서적 원문서비스,  
거제도포로수용자/호국전몰용사공훈록 DB 검색 등

## 신간 도서 소개

구 분	내 용
<p><b>군사(軍史) 제78호</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군사사부</li> <li>• 신국판</li> <li>• 2011. 3. 15.</li> </ul> 	<p>연 4회 발행하는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기관지로 한국연구재단 ‘등재(전문) 학술지’이다. 『군사』 제78호에는 「6·25전쟁 당시 미국의 핵무기 정책」, 「박정희정부의 군사외교에 대한 연구」, 「조선후기 진법 원앙진의 군사무예 특성」 등 8편의 논문이 수록되었다.</p>
<p><b>천안함 피격사건 백서</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방사부</li> <li>• 크라운판</li> <li>• 2011. 3. 26.</li> </ul> 	<p>‘천안함 피격사건 백서’는 2010년 3월 26일(금) 북한 잠수정에 의한 어뢰공격으로 피격된 대한민국 해군 함정 천안함의 침몰과 그 원인 규명, 희생자 처리,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 및 국제사회의 대북 조치 등 ‘천안함 피격 사건’에 관한 사실적이고 종합적인 역사기록이자 정부 차원에서 위기관리에 필요한 제반 교훈을 도출하고자 청와대·국방부·외교통상부 등 정부 부처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편찬한 종합보고서다.</p>

## 『軍史』誌 投稿案内

### 1. 원고 내용 및 범위

- 가. 국내외 군사정책·제도·전사(戰史)에 관한 내용
- 나. 군사지 성격에 적합한 한국의 국방 및 안보와 유관한 정치·외교·군사 분야에 관한 내용
- 다. 가, 나항과 관련된 연구논문, 서평, 연구동향, 자료소개, 연구논문 번역 등

### 2. 원고 작성 요령

- 가. 원고 분량은 200자 원고지 150매 이내를 원칙으로 함(각주 포함).
- 나. 원고 작성은 국·한문을 혼용하고 고유명사 또는 외국어는 원어를 ( )에 표기
- 다. 註는 각주를 원칙으로 하고 각주 번호는 반괄호 안에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함. 각주의 표기는 저자, 「논문」, 『게재지 또는 저서』, 발행처, 발행년도, 페이지의 순서 및 방식으로 함.
- 라.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존 『軍史』誌를 참조하기 바람.

### 3. 투고 요령

- 가. 제출하는 원고는 그대로 게재할 수 있는 완성된 형태여야 하며, 제출방법은 E-mail로 전송하기 바람.
- 나. 우송(전송)시 성명(한문·영문표기), 직업(직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필자의 주소, 통장계좌번호, 논제(영문표기), 논문 초록(국문·영문, 각 A4지 2매 이내), 주제어(Key Word) 10단어(국문·영문)를 원고와 함께 제출하고 저작물이용허락서는 FAX 또는 우편으로 제출 바람. 단, 2인 이상 공저원고의 경우 대표저자의 성명에 별표를 첨자로 기입함(양식은 연구소 홈페이지 연구소 소식(공지사항) 화면에서 다운받아 사용).

#### 4. 원고 심사 및 고료

- 가. 원고의 게재 여부는 당 연구소에서 심의를 거친 후 결정함.
- 나. 접수된 원고는 게재 여부에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음.
- 다. 게재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함.
- 라.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당 연구소에 귀속됨.

#### 5. 발간시기 및 원고 접수기간

연간 4회 발간(3월 15일, 6월 15일, 9월 15일, 12월 15일)함. 따라서 1월 1일까지 접수된 원고는 3월에, 4월 1일까지 접수된 원고는 6월에, 7월 1일까지 접수된 원고는 9월에, 그리고 10월 1일까지 접수된 원고는 12월에 게재함.

#### 6. 문의/연락처

가.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9(용산동 1가 8번지) #우편번호 140-021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軍史』誌 편집담당

- 전화 : 02-709-3198(박광순)    • FAX : 02-709-3111
- E-Mail : imhc2@mnd.go.kr

나. 연구소 인터넷 홈페이지

[www.imhc.mil.kr](http://www.imhc.mil.kr)

내용 : 연구소 소개, 소식, 정보자료실(소장도서, 인명DB 검색 등) 신간안내, 회원모집

# 연구윤리예규

군연-예16

제정 2007. 7. 1

부분개정 2008. 12.1

부분개정 2009. 11.1

##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예규는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 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 부정행위 발생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대상)** 이 예규는 본 연구소 내 연구편찬 활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있는 모든 연구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 3 조(적용범위)**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진실성 검증과 관련하여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예규에 의한다.

### 제 4 조(용어의 정의)

① 연구 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사료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 사료·사진·증언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

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부당한 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기여를 한 연구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연구자와 동등하거나 유사한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6. 타인에게 상기의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 ② “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본 연구소 또는 연구지원기관에 알린 자를 말한다.
- ③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본 연구소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④ “예비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 ⑤ “본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 ⑥ “판정”이라 함은 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 5 조(운영위원회 및 기능)** 연구소 운영위원회는 연구윤리·진실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① 연구윤리·진실성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② 부정행위 제보 접수 및 처리부서의 지정에 관한 사항

- ③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착수 및 조사결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 ④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 ⑤ 연구진실성 검증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 ⑥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 2 장 연구진실성 검증

### 제 6 조(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 ① 제보자는 기획운영실장에게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에 한하여 허용한다.
- ②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③ 제보의 접수일로부터 만 5년 이전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접수 하였더라도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 제 7 조(예비조사의 기간 및 방법)

- ① 예비조사는 신고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하고, 조사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 ②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 1. 제보내용이 제4조 제1항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 3. 제보일이 시효기산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
- ③ 예비조사는 기획운영실에서 담당하되,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또는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 8 조(예비조사 결과의 보고)

- ① 예비조사 결과는 운영위원회에 승인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연구지원 기관과 제보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도록 한다. 다만 제보자가 익명인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②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 신원정보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3. 본 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4. 기타 관련 증거 자료

#### 제9조(본 조사 착수 및 기간)

① 본 조사는 운영위원회의 예비조사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에 착수되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본 조사 수행을 위한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본 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한다.

③ 조사위원회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운영위원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고 기간연장 요청을 하여야 한다.

#### 제10조(조사위원회의 구성)

① 조사위원회는 소장이 임명(위촉)하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조사위원회 위원은 부·실장 또는 해당 분야 전공 연구원으로 하며, 필요시 외부인사를 1인 이상 위촉할 수 있다.

③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갈등 관계가 있는 자를 조사위원회에 포함시켜서는 아니된다.

④ 본 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조사위원 기피에 관한 정당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 제11조(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① 조사위원회는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②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소장의 승인을 얻어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해당 연구자료의 압수·보관 등을 할 수 있다.

**제12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엄수)**

- ①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아니되며, 제보자의 성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 차원에서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② 소장은 제보자가 부정행위 제보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근무조건상의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은 경우 피해를 원상회복하거나 제보자가 필요로 하는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 ③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무혐의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④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및 기관장과 관계 직원은 조사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13조(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 보장)**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14조(판정)**

- ① 조사위원회는 이의제기 또는 변론의 내용을 토대로 조사내용 및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
- ② 조사내용 및 결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표결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 및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본조사 결과보고서의 제출)**

- ① 조사위원회는 판정 후 10일 이내에 본 조사 결과보고서(이하 “최종보고서”라 한다)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최종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 신원정보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3. 해당 연구과제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
4. 관련 증거 및 증인
5.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
6. 조사위원 명단

### 제 3 장 검증 이후의 조치

#### 제16조(연구지원기관 등에 대한 자료제출)

- ① 최종보고서는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해당 연구과제를 지원한 기관에 제출하며, 상급기관 등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 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선 조사과정 중이라도 즉시 연구지원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법령 또는 해당 규칙을 위반한 경우
  2.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그 밖의 연구지원기관 또는 공권력에 의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 제17조(결과에 대한 조치)

- ①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해 운영위원회는 소장에게 징계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 ② 징계조치에 관한 사항은 다른 관련 규정에 의하거나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제18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 ① 예비조사 및 본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기획운영실에서 보관하며, 조사 종료이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최종보고서는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으나, 제보자·조사위원·증인·참고인·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예규는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예규는 200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예규는 200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軍史』誌는 한국연구재단의 등재 학술지입니다.  
(’08년 선정)

편집위원장

서인한(군사편찬연구소)

편집위원 (가나다순)

기광서(조선대학교)

김종수(군산대학교)

김창석(강원대학교)

박영준(국방대학교)

백기인(군사편찬연구소)

신명호(부경대학교)

심헌용(군사편찬연구소)

양영조(군사편찬연구소)

오영섭(연세대 이승만연구원)

이명환(공군사관학교)

이민웅(해군사관학교)

이완범(한국학중앙연구원)

이재범(경기대학교)

조성훈(군사편찬연구소)

진석용(대전대학교)

편집간사

전호수(군사편찬연구소)

**軍 史** 2011/6 (第79號)

2011年 6月 10日 印刷

2011年 6月 15日 發行

發行處 國防部軍史編纂研究所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9(용산동1가 8번지)

TEL : 709-3191 FAX : 709-3111

發行人 崔 北 鎭

印刷處 國 軍 人 쇄 창(11059282)

本誌에 실린 論文內容은 當 研究所의 公式見解가 아님.

- 
- Kim, Kwang-soo North Korea's Unification Strategy Discussion and War Preparation after the Establishment of Government  
- From September 1948 to January 1950 -
- Yang, Yong-jo The *Jangsa's* Landing Operations during the Korean War
- Nam, Jeong-ok The Role as Wartime Leader of President *Syngman Rhee* during the Korean War
- Park, Dong-chan The Recognition and Response of the U.S. Military Advisory Group to the Republic of Korea about the Korean War
- Kim, Young-ho A Study on the Impacts of the Korean War on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Politics
- Yoon, Ill-young A Study on the Battle Order of the *Silla* Forces in the Battle of *Hwangsancheol*  
- Committed Troops, Commander, and Number of Troops -
- Kang, Sung-bong A Study on the Eight Guards System of *Balhae*
- Yi, Jung-ki *The* expansion to northern region and the dispatch of *Jindu* during the reigns King *Taejo* in *Goryeo* Dynasty
- Yoon, Kyeong-jin Construction of the *Goryeo* Grand Fortress(長城) in the Northern Realm(*Bukgye*, 北界), and the Establishment of *Jujin*(州鎮) Units
- Park, Gul-sun *Ilwahn Hong Beom-sik's* Sacrificing Suicide and the Dying Instructions
- 

Published by Institute for Military History Compilation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Seoul, Korea



國防部 軍史編纂研究所

140-021 서울특별시 龍山區 梨泰院路 29